# 꾸란 선

—35개 장의 의미번역과 주해—

손주영 역주

AL-AZHAR ISLAMIC RESEARCH ACADEMY • AL-AZHAR

AL-AZHAR
"인증도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손 주 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명예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를 졸업하고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알 아즈하르 대학교 아랍어대학 역사와 문명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학 아랍어과 교수로 재직(1985~2012)하였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소장,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객원교수,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객원교수, 한국이슬람학회 회장, 한국중동학회 회장, 한국이슬람교 중앙회 이사장직을 역임하였다.

최근의 주요 저서 및 역서로는 「이슬람 칼리파제사」 (민음사, 1997), 「중동의 새로운 이해」 (공저, 오름, 1999), 「이슬람세계의 정치와 국제관계」 (공저, 오름, 1999), 「고급 현대 아랍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0), 「역사상의 국가 권력과 종교」 (공저, 일조각, 2000), 「이슬람 사상의 형성과 발전」 (공저, 아카넷, 2000), 「20세기 중동을 움직인 50인」 (공저, 가람기획, 2000), 「동남아의 이슬람」 (공저,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0), 「이집트 역사 100장면」 (공저, 가람기획, 2001), 「끝나지 않은 전쟁」 (공저, 청아출판사, 2002),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이슬람사」 (공역, 시공사, 2002), 「위대한 아시아」 (공저, 황금가지, 2003), 「중동종교운동의 이해」 (공저, 한울아카데미, 2004), 「이슬람-교리, 사상, 역사」 (일조각, 2005), 「이집트 역사 다이제스트 100」 (공저, 가람기획, 2009), 「1400년 이슬람 문명의 길을 걷다」 (공저, 도서출판 프라하, 2012) 등이 있다.

Design by EwhanD&B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 꾸란 선

—35개 장의 의미번역과 주해—

손주영 역주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재판을 내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어 출간(2009년)된 본교 동양어 대학 아랍어과 손주영 명예교수의 이 책이 이슬람 세계의 가장 권위 있는 이슬람 학문의 본산, 알 아즈하르 이슬람 연구 아카데미(이집트 카이로 소재)로부터 장기간 엄격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이슬람 교의에 배치되는 내용이 없는 우수한 역서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 인증서를 머리말 앞에 게시합니다.

꾸란은 이슬람 법과 신학의 기초이자 모든 이슬람 학의 모태이고, 무슬림 삶과 올바른 신앙의 안내서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슬람 종교와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적 요구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 이 때 이 꾸란 역서가 독자들에게 무슬림 세계와 그들의 종교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일조하는 가치 있고 유익한 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3년 8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نموذج رقم ١٧

**AL-AZHAR**
**ISLAMIC RESEARCH ACADEMY**
GENERAL DEPARTMENT
For Research, Writting & Translation

**الأزهـــــر**
**مجمــع البحــوث الاســـــلامية**
الادارة العــــامة
للبحـــوث والتــأليف والترجمـــة

السيد / سون جو يونج

السـلام عليـكم ورحمـة اللـه وبركاته ــ وبعـد :

فبناء على الطلب الخاص بفحص ومراجعة كتاب : ترجمة معاني القرآن الكريم

تأليف : ترجمة سيادتكم ــ ٥٧٨ صفحة

نفيد بأن الـكتاب المذكور ليس فيه ما يتعارض مع العقيدة الاسلامية ولا مـانع من طبعـه على نفقتـكم الخـاصة .

مع التـأكيد على ضرورة العنـاية التامة بكتـابة الآيات القـرآنية والأحاديث النبـوية الشريفـة .

واللـه المـوفق ،،،

والســلام عليـكم ورحمـة اللـه وبركاته ،،،

**مدير عـام**
**ادارة البحوث والتـاليف والترجمـة**

تحريرا فى ٥ / ٤ / ١٤٣١ هـ
الموافق ٢١ / ٣ / ٢٠١٠ م

يعتمد لدى الخارجية تحت مسئولية موقع

الاسم يس سيد محمد الشيخ

التوقيع

١٠/٤/١٧

**ادارة خارجية جمهورية مصر العربية**
مكتب تصديقات المنيرلاند

AL-AZHAR ISLAMIC RESEARCH ACADEMY 인증서

# 머리말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달라졌다. 과거와 같은 이슬람 세계에 대한 오랜 편견과 오해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아랍 및 중동 시장으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눈부신 활동이나 멀기만 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이젠 우리가 개척해야 할 신세계처럼 생각하고 그들과 이웃처럼 가까워져 날로 놀랍게 증가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과의 인적 물적 교류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과 터키, 이란 등 이슬람 세계 어디를 가나 한류 열풍이 뜨겁고, 국내에서도 이러한 이슬람 국가들의 문화행사가 계속 열리고 있다. 9.11 사태 이후, 미국이나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슬람 세계에 관심을 가진 학자, 연구자들에 의해 이슬람의 역사, 사상, 문화를 소개하고 개관하려는 여러 노력들이 있어 왔고 큰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마도 우리의 신문, 방송, TV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 최근 들어 특별 기획 보도나 이 지역에 관한 교양 프로그램, 특집 다큐멘터리들이 잇따라 제작 방영되어 왠지 곱지 않은 시각으로 이슬람권을 보고 폄하해 말하던 지난날의 곡해와 무지에서 우리를 많이 벗어나게 해 주었던 것이다. 아마도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작년(2008년 6~7월)에 방영된 SBS 대기획 '신의 길 인간의 길' 4부작일 것이다.

그러나 실상 이슬람 종교는 아직도 우리에게 생소한 종교로 남아 있다. 그리스도교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이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신도 수가 증가하고 있는 종교지만 유독 우리에게는 아직도 먼 이방인 사회의 종교일 뿐이다. 서방인들에게 이슬람교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동양을 대표하는 종교다. 중국 서부로부터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거의 전역을 거쳐 북아프리카 서쪽 끝까지에 걸쳐서 주류 무슬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이슬람교는 사실상 신도 수에 있어서나 분포 지역의 크기에 있어서나 동방의 대표적 종교가 아닐 수 없다. 지난 수년 간 문명의 충돌, 테러와의 전쟁이 화두로 떠올랐던 국제사회의 담론이 점차 문명 간의 대화, 종교 간의 대화로 바뀐 시대 조류의 영향 때문일까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정말 새롭게 이슬람 종교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였다. 학회, 대학, 연구소들에서는 이슬람을 주제로 하는 강연회와 학술 세미나가 끊이지 않고, 공공기관, 중동 진출 기업들,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 소재 문화원, 박물관, 시민 대학으로부터 - 심지어는 타 종교 선교단체에 이르기까지- 이슬람 종교, 사회, 문화에 대한 강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가를 소개하고 개괄하는 과제는 여러 수행 방법이 있겠지만 이슬람 경전 '꾸란'을 통해 그 종교를 알고 이해하는 방법보다 더 기본적이고 효과적이며 빠른 방법이 있을까? 이 책은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꾸며졌다. 총 1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꾸란 계시들 중 35개 장을 선정하여 아랍어 계시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그 내용을 주해하여 꾸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라[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꾸란의 핵심적 메시지와 가치관 속으로 독자를 인도하는 이슬람교 입문서 중의 하나인 것이다. 꾸란의 내용은 신의 개념, 천지창조, 신의 경

고와 인도, 부활과 심판, 천국과 지옥 등 신조에 관한 부분과 선행에 힘쓰며 고아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웃에 친절하라는 윤리와 도덕적 삶에 관한 부분, 그리고 예배, 단식, 희사, 순례와 같이 무슬림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신과 인간 간의 종례적 규범들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지켜야 만하는 사회적, 법적 규정들(예를 들면 혼인, 이혼, 상속, 매매, 형벌관계 등)을 담고 있는 법령에 관한 부분 등 셋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은 첫째와 둘째 부분 계시들에 주로 들어있는 이슬람 종교 교의와 그 중심적 가르침을 주제로 고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꾸란은 85개 장이 메카 계시(610~622년)이고, 29개 장이 메디나 계시(622~632년)이다. 메카 계시들은 짧고 각운이 있으며 비유적 표현이 많은 시어체로 신의 유일성, 최후 예언자, 심판의 날, 내세관의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비해 메디나 계시들은 긴 산문체이고 무슬림 공동체 생활의 규칙과 규범이 담긴 법적이고 사회적인 것들이다. 따라서 이 책은 메카 계시들을 중심으로 꾸며졌으며 그중에서도 무슬림들에 의해 독경에서 특히 선호되고 있는 -실상 거의 암기되고 있는- 꾸란의 마지막 부분(주즈 암마 Juz' 'Amma: 30, 제78~114장)의 장들에서 주로 선정이 이루어져 만들어진 꾸란 선집이다.

현재 국내에는 성 꾸란의 우리 말 번역본이 2~3종 나와 있으나 메시지의 진의를 정확히 전달할 만큼 어휘상 뜻을 깊이 있게 다룬 각주 주석이나 내용상 해설을 담고 있지 않아서 꾸란과 이슬람에 아직 생소한 독자들은 -무슬림이든 비 무슬림이든- 그 번역을 읽은 뒤에도 해독이 안된 상태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의 특징은 아랍어 단어나 꾸란 어휘, 이슬람 용어에 대한 충실한 각주 주석을 달아놓았고 각 절의 정확한 대역(對譯)과 해석, 그리고 메시지 내용의 진정성과 심오한 의미를 전하기 위

해 여러 전통적 주석서들과 현대의 뛰어난 이슬람 학자들의 주해에 의거한 계시마다의 해설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비록 꾸란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분(35개장)일지라도 성 꾸란의 충실한 한역본이자 주해서로서의 기능을 갖게 꾸민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후미에 꾸란 독경편을 두어 성 꾸란의 아랍어 문자를 한글로 음역 전사(轉寫)해 놓았다는 점이다. 꾸란은 타 경전들과는 달리 계시된 원어로만 읽혀져야 하는 것이므로 아직 꾸란 언어를 깨우치지 못한 독자들이 -임시적이긴 하지만 - 이 한글 전사를 활용하여 쉽게 꾸란 독경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슬림들은 꾸란을 번역할 수 없는 성서로 말한다. 계시된 아랍어의 심오한 뜻, 영혼을 일깨우는 힘, 형용할 수 없는 문체의 아름다움을 타언어 번역에서는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맞는 표현인 것 같다. 그리스도교를 비롯한 불교, 유교, 힌두교, 유대교 경전의 현존본 모두가 그 종교의 오랜 전통과 시대 변화 속에서 다듬고 편집되어 만들어진 역본들인데 비해 꾸란은 계시 원문 그대로이므로 타 경전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그보다 무슬림들은 아랍어 꾸란이 하나님의 문자적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므로 만약 원문에 어떤 변형이라도 있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성하지 않고, 진정한 성서 '꾸란'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랍 무슬림들은 타 언어 번역본이 비아랍 신자들이나 비 무슬림들에게 도움을 주고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번역일지라도 내용상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타언어 번역본에는 으레 '의미상의 번역'이라는 문구를 표지에 밝히고 있다.

꾸란 번역이 불가능하고 적어도 어렵다는 말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요인 때문일 것이다. 첫째는 꾸란 속 많은 단어와 문장들이 명료하면서도 한편 오묘하고 신비하며, 이에 더해 상당수의 장절들이 각운을 가진 시적 문체들이기 때문이다. 꾸란이란 단어 자체가 '읽는 것'을 의미하듯 소리내 읽혀져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무슬림들은 청아한 목소리로 독송법에 맞게 그것을 읽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가 신비한 감동과 더불어 드러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무슬림들은 거의 모두가 원하는 꾸란의 장절을 외워 독송한다. 항상 독송법에 맞는 발음과 운율로 완벽하면서도 유연하게 송독하려고 노력한다. 의미의 전달은 타 언어 번역으로도 가능하지만 아랍어 독경 때와 같은 감동이나 영감은 얻기 힘들다. 둘째는 원래 아랍어 단어가 가진 의미의 포괄성, 다양성 때문이다. 원어와 똑같은 깊고 넓은 뜻을 담아내지 못하는 단어나 글로 번역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의지와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전도될 위험이 있다. 아랍어 어휘들은 한 낱말의 기본을 이루는 3자 어근에 다른 자모음이 더해져 만들어진다. 따라서 한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뜻의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 단어의 어근 3자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예컨대 아랍어 단어 이만(imān)은 보통 '신앙, 믿음'으로 번역되는데 3자 어근 amn에는 그 외에 '신임, 안심, 안전, 보장, 보증, 성실' 등 여러 뜻이 있고, 그 반대쪽 단어인 쿠프르(kufr 불신앙, 비신앙)도 어근 kfr에는 '~을 덮다, 덮어주다, 가리우다, 감추어주다' 등의 의미에서 '신앙을 거부하는, 부인하는' '신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신에 의해 부여된 의무에 부주의한, 태만한, 등한시하는'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적합한 대역 단어를 찾기 위해서는 문맥의 전후관계와 어근의 조회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 책의 각주에서는 필요한 단어에 먼저 여러 뜻을 열거한 후 적절한 대응 번역 단어를 제시하였고, 모호한 내용에는 전통적 주석을 달아 바른 해석이 되게 하였다. 꾸란 계시에는 상징적, 은유

적, 비유적 표현이 많은 만큼 이와 같은 어휘상, 의미상의 주석과 주해들은 아랍어에 숙달하지 못한 독자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핵심이 될 꾸란 계시들의 우리 말 번역은 의역을 피하고 직역을 원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간혹 읽기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아랍어는 동사가 주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 주어가 누구인지 밝혀야만 해석이 분명해지는 경우가 있고, 거꾸로 아랍어에서는 문법적으로 꼭 갖고 있어야 하는 소유격, 목적격의 대명사를 우리말에서는 번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빠짐없이 그 대명사를 우리말로 번역해 놓아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그런 예들이다. 그러나 역자는 꾸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구 자구마다 가진 뜻이 헤아릴 수 없는 진리이므로 원문의 어휘적, 문법적 요소와 의미를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한 자라도 가능한 빠짐없이 번역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이 책의 서문 '무슬림의 경전관과 신의 말씀 꾸란'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꾸란은 전체의 구성과 장들의 배열이 독특하고, 연대 순이 아니며, 일정한 줄거리가 없고, 현대 우리 글에서처럼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니므로 처음 꾸란을 대하는 독자들은 간혹 읽기에 두서가 없고 산만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꾸란 계시는 23년 동안 불규칙적으로 조각조각 나뉘어져 내려졌으며, 한 장 안에 여러 주제가 섞여 있기도 하고, 메카 계시인데도 그 안에 메디나 계시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시할 것은 메시지의 가르침이다. 읽고 또 읽으면 꾸란에서 되풀이 강조하고 있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느끼고, 어느 순간 평범한

계시가 곧 진리임을 깨닫게 된다. 다음과 같이 꾸란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꾸란 81:26)

이 책의 차례는 서문, 꾸란 선 35개 장과 특송절 11선, 그리고 독경(우리말로 꾸란 읽기)의 순이다. 서문에서는 꾸란이 완벽히 완성된 하나님의 마지막 성서라고 믿고 있는 무슬림들의 경전관이 소개된다. 아울러 꾸란의 형성 과정, 구성, 내용, 독경, 꾸란 주해학의 발전이 개관되어 있어서 이 서문은 꾸란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독자들에게 이슬람 경전과 종교를 대략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이 책의 본문인 꾸란 선 35개 장의 차례는 꾸란 원래의 순서대로 제1장, 19장, 36장, 55장, 61장, 62장, 67장, 78장, 79장, 82장, 85장, 91장, 92장, 93장, 94장, 95장, 96장, 97장, 98장, 99장, 100장, 101장, 102장, 103장, 104장, 105장, 106장, 107장, 108장, 109장, 110장, 111장, 112장, 113장, 114장이고, 그 뒤에 전통적으로 무슬림들이 선호하여 암송하고 있는 특송절 11개가 이어져 있다. 그런데 이 책 같이 일부 선정된 꾸란의 장들로 만들어진 다른 책 - 특히 선교나 교육용 도서 - 중에는 이 책의 순서와는 반대로 짧은 장부터 차례를 시작하는(개경장은 예외로 하고) 경우가 발견된다. 왜냐하면 무슬림이면 누구나가 일상의 예배를 위해서라도 짧은 장들을 외워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꾸란의 뒷 부분 장절들을 우선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을 읽는 독자 중 꾸란 독경에 특별히 관심이 있거나, 나아가 암송을 시도하고 독송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개경장 다음으로 특송절 11, 114장, 113장, 112장…중략…19장과 같이 거꾸로 읽어 나가길 권한다.

각 장에는 그 장을 소개하는 머리글, 아랍어 꾸란 원문, 한국어 대역, 각주 주석, 주해, 각 장의 가르침(배워야할 점), 전승 이야기가 들어 있다. 이 책의 아랍어 꾸란 원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파흐드 왕립 꾸란 출판청에서 발간(이슬람력 1407년)한 아랍어 꾸란 본 『고귀한 꾸란 Al-Qur'ān Al-Karīm』의 것이다. 우리 말 번역, 주석과 주해를 위해서는 권위있는 전통 주석서와 현대의 유명한 주해서들이 일차적 참고 문헌이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유명한 잘랄라이니의 주해서와 이븐 카시르의 타프씨르이다. 잘랄 안 딘 알 마할리(Jalāl ad-Dīn al-Mahallī, 1459년 사망)와 잘랄 안 딘 앗 쑤유티(Jalāl ad-Dīn as-Suyūtī, 1504년 사망)의 합작 주해서인 앞의 것은 최근 레바논에서 출간한 꾸르라 아이나인 알라 타프씨르 앗 잘랄라이니(Qurrah 'Aynayn 'ala Tafsīr al-Jalāllayn, Dār al-Bashā'ir al-Islāmiyyah, Beirut, 1997)를, 뒤의 것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이슬람 아우까프 성에서 발간한 알 미스바흐 알 무니르 피 타흐디비 타프시르 이븐 카시르(Al-Miṣbāḥ Al-Munīr fī Tahdhībi Tafsīr Ibn Kathīr, Darussalām, Riyadh, 2000)를 사용하였다. 또한 현대 파키스탄이 낳은 뛰어난 이슬람 사상가 싸이드 아불 아을라 알 마우두디(S. Abul A'lā Maudūdī)의 주해서(The Meaning of the Qur'ān, Islamic Publications (pvt.), Ltd. Lahore, Pakistan, 4th Revised Edition, 2003), 이집트 알 아즈하르 성에서 발간한 권위있는 알 아즈하르의 꾸란 주해서(Al-Montakhab fī Tafsīr al-Qur'ān al-Karīm, al-Majlis al-'A'la lil-Shu'un al-'Islamiyyah, al-Qahirah, 2006), 그리고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서 발간된 나일라 하쉼 싸브리(Nā'ilah Hāshim Ṣabrī)의 현대판 주석서(Al-Mabṣir li-Nūr al-Qur'ān, vol.11, al-Juz' 30, Maṭba'ah ar-Risālah al-Muqaddasiyyah, al-Quds as-Sharīf, 2003)도 항상 옆에 두고 보는 참고 자료였다.

영어 번역본으로는 압둘라 유수프 알리(Abdullah Yusuf Ali)의 꾸란 주석서(Modern English Translation of Holy Qur'an, Meaning & Commentary, Dar al-Qiblah Co. for Islamic Literature, Jeddah, Saudi Arabia, 1998), 사우디아라비아의 파흐드왕립 꾸란 출판청의 성 꾸란 영어 대역본(The Noble Qur'an, English Translation of the Meanings and Commentary, King Fahd Complex for The Printing of the Holy Qur'an, al-Madinah al-Munawwarah, K.S.A, 1417년 H), 무함마드 아싸드(Muhammad Asad)의 꾸란의 메시지(The Message of the Qur'an, Translated and Explained by Muhammad Asad, Dar al-Andalus, Gibraltar, 1980), 옥스퍼드 대학교의 성 꾸란 번역서(The Qur'an, A New Translation by M.A.S. Abdel Haleem, Oxford University Press, 2005)가 주 참고서로 사용되었다. 특히 우리말 번역 작업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것과 옥스퍼드의 것은 역자의 번역 또는 해석이 정확한 지 영역과 대조해 보는 과정에서 좋은 참고자료였다. 앞의 것은 직역이어서 숨어 있는 주어나 모호한 대명사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 평이하면서 신뢰감을 주는 대역 문장이 유익했고, 뒤의 것은 현대식 영어인 데다 명료한 의미 전달을 해주는 의미상 번역이어서 역자의 한국어 번역을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하였다.

꾸란의 주해(해설)는 간략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책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 부분의 서술은 역주자의 해설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고전 주석서들의 주해이고, 기존의 여러 아랍어, 영어 주석서에서 재인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그 대표적인 주해가 이븐 카시르의 것과 압둘라 유수프 알리의 것이다. 이븐 카시르의 주해서는 너무도 유명하여 무슬림 세계의 꾸란 연구자라면 누구나에게나 필독서이다. 역자 역시 총 10권으로 된 그의 타프씨르를 이 책의 해석과 해설 작업의 으뜸이 되는 기본서로 사용하

였다. 특히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계시가 들어있는 제19장 '마리아의 장'과 제61장 '전투 정렬의 장'에서 예수가 최후 예언자 무함마드의 도래를 예고하는 절의 해설, 제36장과 85장의 전승 이야기 등은 그의 주해의 요약이거나 인용에 기초한 것이다. 유수프 알리의 각주 주석도 이 책의 꾸란 주해에 바탕이 되었다. 20세기 인도가 낳은 저명한 이슬람 학자(1953년 사망)인 그는 첫 번째 꾸란 영어 번역본을 1934년에 출판하였는데, 그의 번역은 간명하고 깊이있는 해석뿐 아니라 이슬람의 근원적 가치들과 사상을 잘 반영한 각주 주해로 정평이 나 있으며 오늘날까지 세대를 이어가면서 여러 이슬람 재단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지속적으로 출판이 거듭되고 있다. 아직도 영어권에서는 수많은 영어 번역본 중에서 마치 표준본처럼 인정받고 있으며 자유롭게 웹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다. 이 책의 제1, 36, 55, 61, 62, 67장의 주해는 그의 주석에 기초하였거나 요약 수정한 것이고, 제78장부터 114장까지 나머지 장들의 주해는 시카고의 이끄라(IQRA') 국제교육 재단에서 발간한, 아래의 꾸란 교육 교재에 들어있는 아비둘라 가지 박사(Dr. Abidullah Ghazi)의 간략한 해설들의 재인용이거나 거기에 역주자의 해석이 첨가된 것이다. 이끄라 재단은 아비둘라 가지 박사 부부에 의해 1983년에 설립되어 수많은 이슬람 교육 관련 서적들을 출판해오고 있는데, 역자는 아비둘라 박사의 해설 인용을 위해 이끄라 재단의 다음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허가를 득하였다(2009년 3월 7일).

1) Dr. Abidullah Ghazi, Seven Surahs for the Classroom: Arabic Text, Translation, Explanations & Vocabulary, IQRA' International Educational Foundation, Chicago, 1996. 2) Dr. Abidullah Ghazi, Juz' 'Amma: 30 for the Classroom: Arabic Text, Translations, Explanations & Vocabulary, Vol 1, IQRA' International Educational

Foundation, Chicago, 1994-5. 3) Dr. Abidullah Ghazi, Juz' 'Amma: 30 for the Classroom: Arabic Text, Translations, Explanations & Vocabulary, Vol 2, IQRA' International Educational Foundation, Chicago, 1994-5. 여기서 시카고 이끄라 국제교육 재단의 협조와 허가서를 보내 준 하피즈 이클라스(Hafiz Ikhlas) 씨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말로 읽는 꾸란 독경편이다. 꾸란은 반드시 계시언어인 아랍어로 읽어야 하지만 아랍어 자모음을 아직 깨우치지 못한 독자를 위해 꾸란 아랍어를 한글 - 로마자로 음역 표기하여 임시대용으로 독경을 할 수 있도록 역자가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독경편 머리에 한글 - 로마자 전사에 관한 소개글과 독경을 위한 일러두기를 따로 적어놓았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역자는 이 책이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고 가치있는 책이 되길 바란다. 특히 이슬람에 이해가 많지 않던 비 무슬림 독자가 이 책을 통하여 이슬람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세계적 보편 종교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역자는 또한 이 책이 한국 무슬림들에게는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일매일 읽어야 하는 성 꾸란 독본이 되고, 한국 이슬람 중앙회(Korea Muslim Federation) 산하 전국의 선교 교육국에서는 무슬림 꾸란 교육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 무슬림 교육-의 기본적인 교과서로 쓰여지기를 바란다. 이 책은 또한 역자가 강의하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와 동대학원 중동 아프리카학과에 열려 있는 '꾸란 연구' 과목의 주 교재가 될 것이고, 종교학과가 있는 국내의 대학, 대학원, 그리고 한국중동학회, 한국이슬람학회, 한국 아랍어

아랍문학회, 종교학회, 종교간 대화학회, 여러 종교 연구소들의 이슬람학 관련 연구자들에게도 이슬람 종교를 이해하는 유익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그보다도 실제 역자의 소박한 소망은 조금이라도 이슬람에 관심을 가지는 독자를 고귀한 신의 말씀, 성 꾸란의 문턱으로 데려가는데 있다. 역자는 꾸란이 그 자체의 빛을 발하여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는다. 꾸란은 그 속에 담겨 있는 무한한 비전의 지식들을 진정으로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만 그 빛을 비춰 준다. 읽고 또 읽으면 진리 가까이로 성큼 다가서 있는 자신을 느끼고, 마침내는 성스럽고 영광된 그 진리의 빛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일 어디에 진리의 빛이 있는지 찾으려하는 영혼이 있고, 단 한 사람일지라도 이 책을 통하여 그 길을 향한 희망의 첫 걸음을 내 딛기 시작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역자에겐 그보다 더 큰 보상이 없을 것 같다.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분의 도움이 컸다. 수년 전, 역주자의 스승이자 한국에서는 최초로 성 꾸란을 한국어로 완역하신(1978년 초판 발행) 김용선 교수님을 모시고 역자와 전찬모 교수, 이명원 교수, 이영태 교수, 황의갑 교수, 박재양 교수, 쌀림 교수, 유수프 교수, 파룩 준불 이맘 등이 주 멤버가 되어 한동안 이태원 이슬람 성원에서 정기적인 꾸란 국어 번역 모임을 가졌다가 악화된 역자의 건강으로 인해 중단되었는데 그때 함께 번역한 제1장과 제19장은 이 책에서 수정 수록되었고, 제20장 제21장은 아직 역자의 손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다. 모임을 계속하지 못한 아쉬움과 자책감이 컸었는데 당시 모두가 보여 주었던 꾸란 사랑과 열정, 어려운 번역을 만났을 때 고조되었던 토론 열기를 마치 이 책을 내면서

여기에 담아낸 듯하여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다. 김 교수님을 비롯한 동료 교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다. 번역상 문제점을 상의하고 이에 조언을 해준 오명근 교수, 조희선 교수, 김정아 교수, 서정민 교수와 한국이슬람교 중앙회의 이주화 부이맘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특히 마무리 교정 작업에서 많은 시간을 내어 꼼꼼히 원고를 읽어준 박재원 교수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황의갑 교수와 남옥정 교수는 이 책 작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매사에 도움을 준 든든한 조력자였다. 컴퓨터 작업을 도와준 이효분 교수와 출간 작업에 세심히 신경을 써 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의 탁경구 팀장에게도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

**알 함두릴라!!**

2009년 8월

이문동 연구실에서

손 주 영

## 일러두기

1. 이 책에 수록된 35개 장 중 비교적 긴 장인 제 19, 36, 55, 61, 62, 67, 78, 79장의 우리 말 번역에 있는 제 2부, 3부, 4부 등의 나눔 표기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자가 붙인 것이다.

2. 우리 말 번역에서 원문의 뜻을 살리기 위해 생략어와 보조적 설명어를 ( )속에 넣었고 한편 같은 뜻, 같은 이름은 [ ]를 써서 표기하였다.
   ▶ 예) 그 [자카리야]가 (기도하며) 그의 주님을 남모르게 청하여 불렀을 때, (19:3) (무함마드여!) 성서 [꾸란]에 있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라. (19:16)

3. 우리 말 번역에서의 이름표기는 잘 알려져 있는 성경 속 이름과 꾸란 속 아랍어 이름을 [ ]를 써서 병기하였다.
   ▶ 예) 예수 [이사], 아브라함 [이브라힘], 가브리엘 [지브릴], 이스마일 [이스마엘], 자카리야 [샤가랴], 야흐야 [요한]

4. 이 책의 꾸란 어휘와 인명, 지명, 고유명사의 한글 및 로마자 표기는 아랍어 발음에 가깝게 음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역자가 정리한 아래 9항의 음가 표기법에 준해 표기하였다. 따라서 초성이나 받침사용 등에 관한 한글맞춤법 원칙에서는 일부 벗어나 있는 경우가 있다. 단 널리 알려져 통용되고 있는 극히 일부의 이슬람 용어, 고유명사, 인

명, 지명의 표기는 예외로 관용에 따랐다.

▶ 예) 자카→자카트, 우스만→오스만, 막카→메카

5. 인명의 경우, 로마자 전사에서 ibn (~의 아들)은 'b.'로 생략표기하고 한글로는 '빈'으로 적었다. 단 인명이 약칭된 경우의 'b.'는 아랍의 관습대로 다시 ibn (이븐)으로 환원하여 사용하였다.

▶ 예) 압둘라 빈 마스우드 Abdullāh b. Mas'ūd → 이븐 마스우드 Ibn Mas'ūd, 압둘라 빈 앗 주바이르 Abdullāh b. Az-Zubayr → 이븐 앗 주바이르 Ibn Az-Zubayr

6. 아랍어 태양문자 (t, <u>th</u>, d, <u>dh</u>, r, z, s, <u>sh</u>, ṣ ḍ ṭ ẓ l, n)가 정관사 'al'의 뒤에 올 경우, 정관사의 l (ㄹ)발음은 동화되는 원칙을 따랐다. 더 상세한 것은 뒤 독경편의 일러두기 7항을 참조할 것.

▶ 예) ar-Raḥmān 아르 라흐만, a<u>sh</u>-<u>sh</u>ams 앗 샴스

7. 아랍어 장모음의 표기는 꾸란 독경에서는 아 ~, 우 ~, 이 ~로 장모음 표시 (~)를 표기하였으나 서문과 본문 (꾸란선 35, 독송절 11)의 한글 전사에서는 장모음 표시 (~) 없이 단모음으로 표기하였다. 더 상세한 것은 뒤 독경편의 일러두기 3항을 참조할 것.

▶ 예) 쑤~라툴 파~티하 → 쑤라툴 파티하, 알 함두 릴라~히 → 알 함두 릴라히

8. 명사나 형용사에 접미되어 여성형을 만드는 타 마르부따 (ة)는 연결형 복합어에서 t (ㅌ)로 쓰고 발음되나 어말에서는 h (ㅎ)로 쓰고 발음되지 않는 원칙을 따랐다.

9. 아랍어 28자음의 한글 - 로마자 음역전사 비교표

| غ | ق | ك | خ | ن | د | ذ | ط | ض | ت |
|---|---|---|---|---|---|---|---|---|---|
| ㄱ | ㄲ | ㅋ | **ㅋ** | ㄴ | ㄷ | **ㄷ** | ㄸ | 돠두뒤듸 | ㅌ |
| gh | q | k | kh | n | d | dh | ṭ | ḍ | t |

| ر | ل | م | ب | ف | س | ص | ث | ش |
|---|---|---|---|---|---|---|---|---|
| ㄹ | ㄹㄹㄹ | ㅁ | ㅂ | ㅍ | ㅆㅅ | **ㅆ** | **ㅅ** | 샤슈쉬싀 |
| r | l | m | b | f | s | ṣ | th | sh |

| ء | ع | ج | ز | ظ | ه | ح | و | ي | ة |
|---|---|---|---|---|---|---|---|---|---|
| ㅇ | **ㅇ** | ㅈ | ㅈ | **ㅈ** | ㅎ | **ㅎ** | 우 | 이 | ㅌㅎ |
| ' | ' | j | z | ẓ | h | ḥ | w | y | t (h) |

1) 다른 자음과 발음이 유사하여 우리말 자음 음역표기가 같고, 비교적 우리 말 발성이 어려운 아랍어 자음 خ, ذ, ص, ث, ع, ظ, ح의 한글전사는 꾸란 독경 편에서는 바른 발음을 위하여 위 표에서와 같이 **ㅋ** (kh), **ㄷ** (dh), **ㅆ** (ṣ), **ㅅ** (th), **ㅇ** ('), **ㅈ** (ẓ), **ㅎ** (ḥ)으로 진하게 표기하였으나 서문, 본문에서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유사한 발음을 가진 자음 ك, د, س, ء, ج, ز, ه들과 같이 ㅋ, ㄷ, ㅆ, ㅅ, ㅇ, ㅈ, ㅎ으로 진하게 표기하지 않았다.

2) 또한 일부 자음(예컨대 ث, س, ص, ذ, ض, ط, ل)들의 중복, 초성, 받침 사용에 관한 한글 전사 표기방법은 독경편의 일러두기 제2항을 참조할 것.

# 목 차

# 서문

# 무슬림의 경전관과 신의 말씀, 꾸란

## 1. 꾸란은 성서의 어머니

꾸란은 세계인구 1/4에 해당하는 15억 무슬림이 읽고 있는 이슬람 경전이다. 무슬림에게 그것은 '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실체적 상징이고 세상을 바르게 살고 내세의 삶을 준비하게 하는 삶의 지침서이며,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분께 귀의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신앙의 교본이자 안내서이다. 모두가 그것을 무오류한 진리의 성서로 믿으며 그것에 의해 산다.

어원상으로 꾸란은 '읽는 것' '암송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지만 신학적으로 말할 때 그것은 구체화된 '신의 말씀'이다. 꾸란 안에서 꾸란을 칭하는 보편적인 이름은 알 키탑(al-Kitāb)이다. 책이라는 단어 키탑(kitāb)에 정관사 알(al)이 붙여진 알 키탑(그 책)은 특별히 '책 중의 책' 즉 '하나님의 책'을 의미하고 꾸란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우리말로는

'성서'라는 단어가 어울린다. 실제로 무슬림들도 꾸란을 알 키탑 알 무깐다스(al-Kitāb al-Muqaddas, 성서)라고 부른다. 현대 무슬림들은 -특히 인도를 비롯한 남 아시아권에서- 알 꾸란 알 무깐다스(al-Qur'ān al-Muqaddas, 성꾸란)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성서라는 영어식 표현(The Holy Quran)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무슬림 사회에서 가장 널리 불려져 온 명칭은 알 꾸란 알 카림(al-Qur'ān al-Karīm, 고귀한 꾸란)이다. 또 무슬림들이 흔히 부르는 꾸란의 별칭으로는 알 무쓰하프(al-Muṣḥaf, 책, 성서)가 있다. 책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아랍어 단어는 키탑이지만 공들여 묶어서 제본한 책은 특별히 무쓰하프(muṣḥaf, 제본된 책)라고 한다. 여기에도 정관사 알(al)이 붙여져 알 무쓰하프가 되면 알 키탑과 같이 꾸란 경전을 의미한다. 꾸란 안에서 지칭된 이름들로는 알 푸르깐(al-Furqān, 거짓과 진실의 구별서), 알 푸다(al-Fudā, 인도서), 알 탄질(at-Tanzīl, 내려진 계시서), 알 디크르(a<u>dh</u>-<u>dh</u>ikr, 염송서), 알 바이이나(al-Bayyinah, 명증의 책) 등이 있다. 꾸란 학자들은 움므 알 키탑('Umm al-Kitāb,책[성서]의 어머니)이라는 말로 꾸란을 표현하길 좋아한다. 모든 성서와 책들의 모전(母典)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세상 모든 지식의 원천, 지혜의 원천이 되는 책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1] 따라서 알 일므(al-'Ilm, 지식서), 알 히크마(al-Ḥikmah, 지혜서)라고도 부른다. **"실로 그것은 우리[하나님]와 함께하는 책[성서]의 어머니('Umm al-Kitāb)에 있는 것으로 정말로 지고하고 지혜로 가득 찬 것이니라"** (꾸란 43:4) 꾸란이 모든 '성서의 어머니'라는 이 칭호는 전통적 무슬림 학자들에게는 특별하다.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진리의 수호자들이라는 자긍심 때문이다.

---

1) Seyyed Hossein Nasr, *Ideals and Realities of Islam*,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72. p.50.

## 2. 꾸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의 종교 전통들은 저마다 교리와 중심적 교설을 담고 있는 경전을 갖고 있다. 그것은 다양한 인간 삶의 문제에 적절한 해법을 주는 것으로 대개 예언자, 성인, 또는 종교창시자가 초월적 존재로부터 받은 계시, 영감 혹은 스스로의 깨우침을 기록으로 남겼거나, 후대 사람들이 그들의 말과 가르침에 관해 서술한 내용들을 집성한 것이다. 그러나 경전이 이러한 성인이나 종교창시자에 의해 직접 만들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그들이 죽은 뒤, 공동체에서는 윤리적, 종교적, 사회적인 문제들에 규범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구전이나 기록으로 전해오던 그들의 말과 가르침들이 오랫동안 가필되고 수집·편집되어 규범적 권위를 갖는 경전으로 탄생하게 된다.[2]

그러나 이슬람 경전은 이러한 타종교 경전들과는 본질과 형성과정에서 다른 면을 보인다. 무슬림들은 타종교 경전들이 대개 성현이나 종교창시자인 인간의 기록이나 말인데 비해 이슬람 경전 꾸란은 그런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신의 말씀'으로 알라(Allāh,하나님)의 말씀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직접 이 땅에 계시로 내려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꾸란을 '계시경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이 타종교 경전들과 다른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매체는 성령(rūḥ al-qūdūs)인 천사 가브리엘이다. 따라서 꾸란의 많은 구절들이 "알라[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이라고 시작한다. 또는 신(神) 자신이 말씀의 주체가 되어서 "(무함마드여!)말하라"라고 명령을 하거나 "우리는..."이라는 주어로 등장한다.[3]

2) 길희성 외 편저, 『경전으로 본 세계종교』, 전통문화연구회. 2001, p.18.
3) 아랍어 대명사 '우리'는 일반적으로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극존칭을 쓸 때 사용된다. 꾸란에서 하나님(알라)은 '나' 또는 '우리'로 표현된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도 이슬람과 같이 절대신의 계시에 근거한 종교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렇다 해도 세 종교의 경전들인 구약, 신약, 꾸란을 대하는 신자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신의 계시에 대한 이해 자체에 근원적인 차이가 발견된다. 유대교인들은 구약에서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보이시고 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치고 계시하신다고 말하고, 그리스도교인들은 신약에서 신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화되어서 그의 말, 삶, 죽음, 부활 자체가 계시가 되었다고 믿는다. 그런데 무슬림들은 꾸란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계시가 곧 책[성서]이 되었다는 것이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은 거기에 한 자도 들어있지 않다. 이슬람에서 예언자 무함마드는 그리스도교에서 예수와 같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그는 천사를 통하여 내려진 신의 계시를 이 땅에 전한 예언자일 뿐이다. 그의 삶과 행동, 가르침은 무슬림들이 따라야 하는 모범일 뿐 결코 그가 인간을 구원하는 영향력을 갖지 않는다. 이슬람에서 구원의 길은 꾸란에 밝혀져 있다. 모든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규범과 율법, 최고의 권위는 오로지 꾸란에 있다.

## 3. 꾸란은 원본, 원어가 그대로 보존된 경전이다

형성과정에서도 꾸란은 타종교 전통의 경전들과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구약과 신약이 여러 시대 여러 장소에서 여러 언어로 여러 사람들에 의해 오랜 기간동안 쓰여 진 기록들의 결집인데 비해 꾸란은 한 장소(히자즈Hijāz: 메카와 메디나 지역)에서 한 인물(무함마드)에 의해 한 언어(아랍어)로 짧은 기간(23년)에 계시되어 완성되었다.[4] 구약성서의

4) Ira G. Zepp, *A Muslim Primer: Beginner's Guide to Islam*, New York: Christian

경우, 이스라엘의 전성기인 기원전 1000년경 야훼(Yahweh)문서가 쓰여지기 시작하여 문서나 구전의 각기 다른 형식으로 전해오던 수많은 본문들이 축적되어 무려 1,100년 이상이 넘는 기간동안에 걸친 수집과 편집과정을 통해 모세오경인 율법서(토라Torah 기원전 4세기 말 이후), 예언서(네비임Nebīm 기원전 3세기말 이후), 성문서(케투빔Ketubim 네비임보다 더 이후에)가 정경화된다. 그리고 서기 90년, 얌니아(Jammnia) 종교회의에서 구약 39권이 공식경전으로 채택된다. 신약성서의 정경화 작업에도 긴 세월이 걸렸다. 서기 70년경, 요한 마가가 베드로의 진술을 토대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하여 오늘날 4대 복음서로 불리는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완성되는 데에도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1세기 말에야 경전으로 존재가 드러나게 된다. 초기에 유사문서들이 많이 나돌고 있었으므로 교회는 오랫동안 이에 대한 검증과 선택에 지난한 노력과 권위 있는 성자들의 증언이 필요했으며, 그 후에도 불분명한 저작자와 저작 연대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쟁이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는 십자가 처형사건이 있은 지 400년이 지난 395년에 이르러서야 카르타고 제3차 교회회의에서 마침내 오늘날의 신약 27권의 목록이 정경으로 공인된다. 구약성서의 경우는 정경의 채택문제에도 심각한 이견을 보였다. 유대교와 개신교는 히브리어로 쓰인 39권만을 정경으로 공인했는데 가톨릭은 382년 로마주교회의에서 그리스어 번역성서인 '70인 역'에 들어있는 7권도 제2경전으로 포함시켜 46권을 구약성서로 확정지었다.

힌두교, 유교, 불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힌두교 경전 베다(Veda)는 아리안들이 섬기던 여러 신들에 대한 찬가, 제의형식, 염송, 기도문들이 3,000년 이상에 걸쳐 구전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오다가 오랜 세월동안 종교적 권위를 인정받아 수집된 것이고, 유교는 공자(기원전

---

Classics. 1992. p.63.

551~기원전 479년)를 창시자로 말하지만 그는 이전부터 전수된 시경, 주역 등을 충실히 편집하여 전하였을 뿐이라고 말한다. 경전은 보통 사서삼경(四書三經: 사서-논어, 맹자, 대학, 중용. 삼경-시경, 서경, 역경)을 말하지만 역시 오랜 세월 시대에 따라서 분리되거나 또는 추가되어 6경, 12경, 13경을 말하기도 하였고, 가장 일반적으로는 송나라 이후 확립된 사서오경(위의 세 경서에 예기와 춘추를 포함)을 유교의 경전으로 지칭하고 있다. 불교의 경우도 붓다의 인멸(기원전 544년경) 직후부터 제자들이 그의 말과 가르침을 경전형태로 편찬하기 시작하였으나 경장(Sūtra 부처의 강연과 대화), 율장(Vinaya 승단을 위한 규칙과 교훈), 논장(Abhidharma 학문적 철학적 논문)이 결집되고, 그 뒤에도 반야경(불멸 300-500년경), 법화경(불멸 600년경), 화엄경(불멸 700년경), 밀교계 경전(불멸 900년경) 등 수많은 주요 경전들이 성립되는 데에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였다. 그뿐 아니라 계속 많은 수의 유사본들이 출현하여 예컨대 현존하는 대승경전의 모체, 반야경만 하더라도 30여종의 이본이 있고 기원전 1세기경부터 시작하여 600년 이상의 기간동안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5)]

그러나 꾸란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타종교 경전들과 같이 오랫동안의 수집과 편집, 논쟁과 선택과정을 거친 그런 인위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의 말씀으로 천사를 통해 계시되었고 계시가 끝난 후 불과 20년이 지난 651년, 현존본과 똑같은 정본이 당시의 주요 도시들에 보급되어 1400년동안 한자, 한획의 첨삭없이 보전되어 온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사실 성경이나 불경의 경우는 원본이 거의 소실되었고 현존본들은 거의 모두가 역서들이다. 원어도 찾아보기 어렵다.[6)] 그

5) 세계경전편찬위원회, 『세계경전-종교경전의 비교선집』, 국제종교재단출판국, 1994, p.429.

6) 정수일, 『이슬람 문명』, 창작과 비평사, 2002, p.105.

러나 꾸란 언어는 지금도 이슬람 세계 어느 곳에서든 예배와 종교언어로 쓰여지고 있고 아랍세계에서는 표준 아랍어로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대로 사용된다.

## 4. 꾸란은 영원하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에게 내려진 계시와 뿌리가 같은 것이다

이상과 같은 타경전들과 이슬람 경전의 다른 위상에 관계해서 이슬람 전통에서 말하는 꾸란만이 지닌 독특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꾸란의 영원성이다. 무슬림들은 꾸란이 하나님의 말씀인 고로 영원하고 비창조된 것이라고 믿는다. 천상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우주만물의 창조이전부터 선재해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것이 천사를 통해 이 땅에 내려진 것이다. 이슬람 전통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계시는 일곱 번째 하늘로부터 가장 낮은 층 하늘인 첫 번째 하늘(지상에서 보는 하늘)로 그것을 내려보내셨으며, 가브리엘 천사가 단계적으로 그것을 나누어서 신의 사자 무함마드에게 계시하였다고 말한다.[7] 꾸란은 천상에 있는 이 성서의 원형을 움므 알 키탑('Umm al-Kitāb,책의 어머니)이라 부르고 그것은 라우흐 마흐푸즈(lawḥ maḥfūẓ, 보존된 서판)에 새겨져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준다. **"아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꾸란으로 (천상의) 보존된 서판에 있는 것이니라."** (꾸란 85:21-22)

무함마드 이전의 예언자들 역시 그들의 시대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이 원형의 계시를 전달받아 그들의 백성과 민족에게 전하였다. 노아는 노아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후드

7) Roland E. Miller, *Muslim Friends-Their Faith and Feeling*, Concordia Publishing House, St.Louis, Mo. 1995, p.133.

(Hūd)는 아드('Ād)족에게, 쌀리흐(Ṣālih)는 사무드(Thamūd)족에게 보내졌다.[8] 그리고 이제 무함마드의 차례가 된 것이다. **"(무함마드여!) 실로 우리[하나님]는 마치 우리가 노아와 그의 뒤를 이은 예언자들에게 계시를 보냈던 것과 같이 그대에게 계시를 보냈노라. 우리는 아브라함, 이스마일, 이삭, 야곱과 그의 자손들, 예수, 욥, 요나, 아론, 솔로몬에게도 계시들을 보냈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자부르(Zabūr, 시편)를 다윗에게 내려주었노라."** (꾸란 4:163)

무슬림 학자들은 전승에 근거하여 '책의 어머니'로부터 내려진 이러한 계시서들 중 100권 가량의 책들이 사라졌다고 말한다. 대부분이 분실되거나 전쟁 중에 소멸되어 버렸으나 어떤 것들은 여러 다른 문명의 다양한 역사적 문헌이나 대중신화들 속에 아직도 살아남아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에 이르러 그것의 진위를 정확히 가려낼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다는데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책들 중 꾸란에 언급되어져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쑤후프(Ṣuḥuf), 모세의 오경(Tawrah), 다윗의 시편(Zabūr), 예수의 복음서(Injīl), 무함마드의 꾸란 다섯권이다. 그중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쑤후프를 빼고 네 권의 경전이 현존하고 있다.[9] 무슬림들은 이것들 모두가 천상에 있는 원형과 동일한 것으로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믿는다. 꾸란 3장 84절은 신자들에게 성스러운 이러한 계시 모두를 믿을 것을 명령하고 있다. 그것을 믿고 따르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다. **"너희는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우리에게 내려진 것과 아브라함과 이스마일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내려주신 것과, 모세와 예수가 계시받은 것과 예언자들이 그들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을 믿사오며, 우리는 그들 중의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며 오직 그분께만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꾸란 2:136)

---

8) 노아는 꾸란 7:59, 모세는 꾸란 26:16, 20:50, 후드는 꾸란 7:65, 쌀리흐는 꾸란 7:73 참조

9) 손주영, 『이슬람-교리, 사상, 역사』, 서울, 일조각, 2005, p.200.

## 5. 꾸란은 완벽하게 완성된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이다

그렇다면 무슬림들은 구약과 신약성서를 읽어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 무슬림들은 전통적으로 신구약 성경읽기를 꺼려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꾸란 이전에 내려진 경전들은 무엇보다 자구나 내용에 인위적 첨삭이 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일부가 변질되거나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정화시키고 원형대로 복원시키기 위해 꾸란이 내려왔다고 그들은 믿는다. 하나님께서 앞선 경전들(모세의 오경과 예수의 복음서)의 내용을 확증해주고 일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은 '분명한 증거'(알 바이이나)로 꾸란을 최후 예언자를 통해 계시하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10] 따라서 무슬림들은 앞선 경전들은 미완(未完)의 것이고 꾸란만이 완벽하게 완성된 마지막 경전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무슬림들이 갖고 있는 경전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꾸란을 부단히 읽을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꾸란] 안에 올바른 성서들이 있느니라"**(꾸란 98:3)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한다. **"(무함마드여!) 그대 주님의 책[성서]중에서 그대에게 계시된 것을 읽어라. 어느 누구도 그분의 말씀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분 외에는 너희가 어떤 안식처도 발견하지 못하리라."**(꾸란 18:27)

이와 같은 꾸란의 영원성, 완벽성에 연관지어서 무슬림들은 꾸란의 무오류성을 또 다른 특성으로 강조해 말한다. 계시의 자구자구마다 신성하고 불가사의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믿는다. 꾸란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에게 내려진 가장 위대한 선물이자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는 한 점 왜곡됨이 없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모든 찬양·찬미가 그분의 종에게 성서[꾸란]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분께서는 그것에 한 점의 왜곡도 없게 만드셨느니라."**(꾸란 18:1)

---

10) 꾸란 98:2~3 참조. 알 바이이나는 꾸란 제98장(명증의 장)의 이름이기도 하다.

무슬림들은 무함마드가 글을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는 문맹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스러운 계시의 마지막 전달자로 그를 선택하셨으며 그가 이 땅에 전한 꾸란의 언어가 완벽하고 간명하며 너무나 수려한 문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꾸란이 지닌 기적들 중 하나라고 말한다.[11] 꾸란은 아랍어로 계시되었다. **"실로 우리는(그것의 의미와 교훈을) 너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아랍어 꾸란으로 만들었느니라."**(꾸란 43:3) 꾸란의 짧은 장들은 거의가 압운을 가진 운문체이고 긴 장들은 산문형태지만 대부분이 반시어체이다. 그것이 낭송될때면 진지하고 경건한 메시지에 어울리는 독특한 어휘들과 그 단어가 가진 언어적인 힘, 그리고 우아하면서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문체와 각운 때문에 누구나가 깊이 공명(共鳴)하면서 그 안으로 빠져들게 마련이다. 감동적이면서 간혹 격정적인 운율은 아랍어를 모르는 무슬림들조차 마법에 걸린 듯 매혹당한다. 이러한 꾸란의 문체는 모방이 불가능하고 인간능력으로서는 도저히 흉내내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무슬림들은 믿고 있다. 아랍어를 쓰고 말하는 무슬림들은 이것만으로도 꾸란의 기적성을 느끼고, 아랍인들은 언어적 완벽성을 말한다. 꾸란도 이것을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다. **"말하라, 인간과 진(Jinn)이 함께 모여서 이 꾸란 같은 것을 만들게 한다면, 비록 그들 서로가 아무리 서로를 도운다 해도 그와 같은 것을 결코 그들은 만들 수 없느니라."**(꾸란 17:88)[12]

또 무슬림들은 아무리 탁월한 주석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해석할 수 없고, 아무리 아랍어 실력이 뛰어나도 타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꾸란 번역은 다른 경전들에 비해 어렵다. 독특한 어휘와 수많은 은유, 심오한 내용, 압축된 단어들 때문에 특

11) Hasan Ibrahim Hasan. *Islam - A Religious,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Study*, The Times Printing & Publishing.1967, p.67.

12) 꾸란 2:23, 10:38, 11:13 에서도 인간은 유사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히 그러하다. 무슬림 세계에서는 오랫동안 번역이 금지되어 왔다. 서구에서는 최초의 라틴어 번역본이 대략 1141년경 출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클루니(Cluny)의 수도원장, 복자 베드로의 지원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슬람 신앙을 반박하기 위한 의도에서였다. 그 뒤 수 세기 동안 이 번역은 라틴어로 된 유일한 것이었으며, 원전으로부터 직역되는 최초 영역본은 1734년에 이르러서야 조지 세일(George Sale)의 손에 의해 출간되었다.[13] 오늘날까지 꾸란의 타 언어 번역본들은 거의가 아랍어 원문을 옆에 나란히 싣고 있고, 필히 의미상의 번역임을 겉표지에 밝히고 있다.[14]

사실 아랍어는 꾸란 속의 이러한 언어적 완벽성, 언어적 미(美)나 신비스러움보다 이 언어가 하나님 계시와 말씀의 마지막 전달 수단이고 종교 언어라는 점 때문에 세계 무슬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아랍인은 세계 무슬림의 16%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랍어를 예배 언어로 쓰고 있는 100% 세계 무슬림들은 꾸란 언어에 깊은 애정과 경의를 표하고 누구든지 가능한 읽을 수 있는 정도라도 이 언어를 배우고 익히려고 노력한다. 무슬림의 예배 공간인 마스지드(masjid 성원)에는 그림, 조각, 사진이 없다. 꾸란 서체만으로 충분하다. 무슬림의 예배에는 어떤 예배 도구도 사용되지 않고 찬송도 없다. 꾸란의 독경이 충분한 찬송이고 모든 것을 대신한다. 그리스도교인들의 종교용어인 말씀, 복음, 성례전, 성사 모두를 하나로 했을 때 무슬림에게 그것이 바로 꾸란이다. 그것은 신에 의해 단지 '영감된 것'이 아니라 '계시된 것'이다. 직접 내려진 '신의 말씀(kalimat Allāh)'인 것이다.

---

13) Philip K. Hitti, *Islam- A Way of Lif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1969, p.28.

14) 지난 2008년 8월 29일부터 9월 27일까지 이란에서는 제16회 테헤란 국제 꾸란박람회가 개최되어 107개 언어로 번역된 꾸란이 전시되었다.

## 6. 꾸란은 절대적 권위와 위상의 경전이다

과연 신의 말씀이 땅 위에 한 책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가능한 말일까? 독일의 튀빙겐(Tübingen) 대학교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한스 큉은 최근 펴낸 그의 방대한 분량의 저서 『이슬람 -과거, 현재, 미래』(2007)에서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무슬림들은 그것을 인간존재[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스도교인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라고 본다. 이것 혹은 저것을 궁극적으로 받아드리는 것은 신앙의 문제이다. 무슬림에게나 그리스도교인에게나 그러한 것은 맹신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해되는 그들의 믿음일 뿐이다."[15)]

무슬림에게 꾸란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이다. 그 내용과 가르침에 절대적 믿음을 갖는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그리스도교인들은 신의 말씀이 예수에게 '육신화되었다'고 믿는데, 무슬림들은 신의 말씀이 '꾸란이 되어 내려왔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에게 꾸란은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예수가 차지하는 지위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신의 말씀' 즉, '신의 말씀의 성문화'인 꾸란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육신'개념과 대비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예수가 믿음의 대상이듯이 무슬림들에게 꾸란은 자구마다 믿음의 절대성을 갖는 '고귀한 책'이다.

이러한 꾸란의 절대성, 고귀성 때문에 무슬림들은 꾸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어떤 경우에서라도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 꾸란을 헐뜯거나 폄훼하는 경우, 즉각 유감을 나타내는 반응을 보인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무슬림 어린이들은 예언자의 교우, 이븐 마스우드(Ibn Mas'ūd, 653

15) Hans Küng, *Islam -Past, Present & Future*, trans., John Bowden, Oxford, England, Oneworld Publications, 2007, pp.64-65.

사망)가 남긴 다음과 같은 말을 새겨들으면서 신앙심을 키운다. "꾸란을 사랑하고 그것에 감복하는 자, 하나님과 그의 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꾸란을 싫어하는 자, 그는 하나님과 그의 사자를 싫어하는 자다." 압바스조 초기의 뛰어난 전승학자 이맘 아흐마드 빈 한발(Aḥmad b. Ḥanbal, 855년 사망)이 남긴 다음의 경험담도 무슬림들의 초기 교육에 자주 인용된다. "나는 잠 속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영광을 얻고는 그분께 물었다. '오 주여! 당신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자가 걸어가야 하는 최선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답해주셨다. '(꾸란 속) 내 말들을 통하는 것이니라.' 내가 다시 물었다. '오 주여!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해하든 못하든 그러하니라.'"[16]

경전이 신자들에게 지니는 권위와 역할은 종교에 따라 다르고, 따라서 그 위상도 다를 수 밖에 없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무슬림의 경전관은 특별하고 자긍심 또한 유별나다. 무슬림들은 꾸란의 위상이 타종교가 갖는 경전의 위상과 비교될 수 없다고 본다.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화되어 계시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인격적 계시'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신이 최고 계시이자 하나님 말씀이며 믿음의 대상이고, 따라서 사실상 성경은 그리스도교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규범적 권위를 행사하는 진리로의 안내서일 뿐이지, 꾸란 만큼 절대적 권위와 위상을 지닌 것이 아니라고 본다.[17] 유교나 불교의 경우는 경전의 위상이 더 약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슬람과 그리스도교는 신의 말씀과 계시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는 종교이므로 경전도 그만큼 높은 권위와 위상을 지니지만 불교와 유교는 절대신의 계시가 아니

16) Anwar Chejne, *The Arabic Language: Its Role in Histor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69, p.12.

17) 박양운,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비교종교연구』, 가톨릭출판사. 1999, p.109.

라 성현의 종교적 경험과 지혜의 가르침에 근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경전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말과 가르침에 대한 기록으로서 비교적 덜 경직된 권위와 구속력을 지닌다.[18)]

## 7. 하디스는 꾸란 이해의 보조적 수단이다

무슬림들에게 성경이나 불경이 만들어진 것과 비슷한 배경과 형성과정을 가진 교리와 신앙의 실천교본은 따로 있다. 그것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과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 하디스(Ḥadīth)집이다. 경전 꾸란이 교리와 신앙의 절대적 권위를 갖는 제1의 원천이라면 예언자 쑨나(Sunnah, 관행)를 담고 있는 하디스들은 꾸란 속의 어렵고 모호한 내용들을 해석하고 설명해주는 꾸란 이해의 보조적 수단이 되는, 신앙과 실천의 제2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전이 아니다. 그것은 신앙과 실천의 지침이 되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일 뿐이지 경전의 개념을 지니지 않는다. 이슬람에서 경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꾸란 뿐이다.

예언자의 언행과 교설은 무슬림 공동체에서 특별한 권위를 가졌다. 특히 그는 꾸란 계시 중 모호한 부분을 해설해주는 꾸란 주석가로서의 역할을 하였는데, 이것은 교우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의지와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시금석같은 지침이 되었다. 또한 꾸란이 신앙과 실천에 대한 세부사항까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계한 예언자의 교설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길잡이가 되었던 것이다.[19)] 꾸란도 예언자 무함마드가 '올바른 길(al-ṣirāṭ al-mustaqīm)'로 인도된 자임을 꾸

18) 김희성 외, 앞의 책, p.19.

19) Duaa Anwar, *The Everything Koran Book*, Adams Media, Avon, Massachusetts, 2004, p.2.

란 여러 곳에서 강조하면서 신자들에게 예언자의 안내적 가르침과 모범적 행실을 배우고 따라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너희는 하나님과 최후(심판)의 날을 염원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염송하는 자를 위한 한 훌륭한 모범을 갖게 될 것이니라"**(꾸란 33:21)

그가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했으며, 무엇을 먹고, 입고, 심지어는 수염을 길렀는가 아닌가 하는 일상에 관계된 관습에 이르기까지 그가 예언자로서 산 인생 전반에 걸친 삶의 방식들이 모든 무슬림들이 따라야 할 모범적 행신으로 자리잡게 된것이다. 이 모범적 행신을 예언자 쑨나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꾸란은 정기적인 예배를 명시하고 있으나 하루 몇 번을 드려야 하는지, 매번 몇차례 엎드려 절해야 하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명확히 해주는 것이 예언자 쑨나이다. 예언자 자신도 신도들의 예배를 인도하면서 "나를 보라.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 지를 보고 내 예를 본받아서 너희가 정기예배를 근행하라."고 말하였다.[20]

무함마드 사후, 그의 동시대 교우들과 후대의 많은 무슬림 선각자들은 보다 정확한 하나님 말씀과 의지의 진의를 파악하고자 예언자의 언행과 쑨나에 계속 매달렸다. 예언자가 남긴 계시의 해석, 언행과 일화, 모범적 행신과 선례들을 찾고 모으는 데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 결과 이미 기록되어 있거나 세대를 이으며 구전으로 전해오던 것들이 오랜 기간 수집되고 선택, 선별되는 과정을 거쳐 예언자가 타계한 지 200년이 지난 뒤(9세기) 마침내 예언자 언행록인 하디스집들이 완성되어 출현하게 된다. 원래 하디스라는 단어는 '새롭게 일어나는, 발생하는'의 어의를 갖고 있다. 여기서의 뜻은 예언자가 '어떤 것에 대해 말한 것',

20) Muhammad Hamidullah, *Introduction to Islam*, Paris: Centre Culturel Islamique, 1969, p.23.

예언자를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이야기' 또는 기록으로, 한마디로 말해 그것은 '예언자의 언행'이다.

그러나 모든 구전자료들이 그러하듯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수집된 하디스 중에는 신빙성이 적거나 왜곡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포함될 수 있었다. 때로는 신학적, 종파적 견해를 달리하는 집단에서 각기 자신들의 주장을 대변하거나 뒷받침하는 하디스를 들고 나올 수도 있었다.[21] 하디스 학자들은 하디스 연구와 수집에 정열을 쏟은 한편, 어느 하디스가 순수하고 정통인가, 어느 것이 위조 또는 위작인가를 가려내기 위해 이에 대한 검증과 심사에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하디스마다 싸히흐(Ṣaḥīḥ, 건전한 것), 하산(ḥasan, 양호한 것), 돠이프(ḍa'īf, 약한 것)와 같이 등급이 매겨져 있다. 오늘날 알 부카리(Muḥammad Ismā'īl al-Bukhārī, 870년 사망) 하디스집과 그의 제자였던 니사푸르(Nisāpūr) 태생, 무슬림(Muslim b. al-Ḥajjāj, 875년 사망)의 하디스집이 양대 싸히흐 하디스 진본(眞本)으로 모든 하디스 수집물들 중 최고의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두 싸히흐 하디스집 외에도 순니 무슬림 세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정통 하디스집이 유명한데, 알 티르미디(at-Tirmidhī, 892년 사망), 아부 다우드(Abū Dawūd, 888년 사망), 안 나사이(an-Nasā'ī, 915년 사망), 이븐 마자(Ibn Mājā, 866년 사망)의 하디스집이 그것들이다. 이것들은 '6대 성훈집(al-Kutūb as-Sittah)' 또는 '6권의 싸히흐'라고 불려지고 있다.[22]

그런데 이러한 하디스집 안에는 보통의 하디스와 구별되는 특별한 하디스가 들어 있다. 그것들은 하디스 꾸드시(Ḥadīth Qudsī,신성한 하디스)로 불려진다. 이것은 예언자 자신의 말들인 일반적인 하디스가 아니

21) Thomas W. Arnold, *The Caliphat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67, p. 13.
22) 니콜슨, R. A, 사희만 옮김, 『아랍문학사』, 민음사, 1995, p.457.

라 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무함마드가 신의 말씀이라고 전하여서 서술된 하디스이다. 하디스 꾸드시는 예컨대 "예언자 무함마드가 말하기를: 심판의 날에 알라께서는 천국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 같이 전하는 사람은 예언자이고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형태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하디스 꾸드시는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서술된 하나님의 말씀일 지라도 꾸란 계시와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이슬람법 구성체계에서 하디스는 꾸란 다음의 제2법원(法原)이다. 그런데 하디스 꾸드시는 이슬람 법원으로서도 일반 하디스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지 않는다. 예배에서도 무슬림들은 하디스 꾸드시를 암송할 수 없다. 예배문은 오직 꾸란의 장절일 뿐이다. 무슬림들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지만 꾸란과는 엄격한 구분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일반적 하디스이든지 하디스 꾸드시이든지 하디스는 꾸란 장절 속 계시와는 동일선상에 놓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물론 하디스 꾸드시는 모든 무슬림들에게 각별하고 독특한 경외심을 갖게 한다. 무함마드 역시 평소에 늘 자신이 한 말과 자신이 전하는 말을 잘 구별할 것을 추종자들에게 당부하고 가르치곤 하였다. 또한 하디스 꾸드시가 대개 예배, 선(善), 헌신적 신앙 같은 주제에 관련한 것이 많기 때문에 신앙심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신실한 무슬림들에게 그것은 한층 더 소중하고 각별하다.

하디스가 경전 꾸란을 해석하고 올바른 이해를 위한 것임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경전은 아니라는 점은 거듭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꾸란 내용을 확인하고 보충한다는 것이 원 뜻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의 해설기능을 말하는 것이지, 경전 내용과 대등한 수준에서 어떤 확인이나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꾸란과 동격(同格)일 수 없다. 이것이 무슬림들의 신앙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발짝이라도 더 올바르게 다가가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예언자 쑨나와 하디스의 가르침과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 8. 꾸란의 형성과 보존

이슬람의 경전, 꾸란은 어떻게 내려져 형성되고 보존되었나? 꾸란에도 밝혀져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꺼번이 아니라 단락으로 나뉘어져 내려졌다. 어떤 짧은 장은 한 번에 계시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장은 완성되는 데 수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내려진 계시들은 오늘날까지 구전과 글[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보존되었다. 암송되어 구전으로 전해오는 방식은 무함마드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처음 계시를 전달받을 때부터 이어져 온 꾸란 전승의 기본적 형태로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지켜오고 있다. 7세기 아라비아에서 '쓰기'는 '암기'만큼 보편적이지 않았다. 사실상 인쇄 이전 시대에서 암기력은 오늘날의 컴퓨터 기능처럼 중요하고 위대한 것이었다. 무함마드는 동료들에게 부단히 계시들을 외워 예배시 암송하게 하였다. 시(詩)를 좋아했던 유목사회 아랍인들의 놀랄만한 기억력 또한 이러한 계시들의 보존에 일조하였을 것이다.

꾸란 암송자는 하피즈(Ḥāfiẓ)라고 불리며 이슬람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다른 무슬림들로부터 각별한 존경을 받는다. 문자로 쓰인 것은 계시받은 구절들을 무함마드가 동료들 앞에서 계시의 순간이나 그 뒤에 낭송하였을 때 서기들이 양피지, 가죽조각, 얇고 평평한 석판, 넓은 대추야자잎, 나무판, 낙타의 어깨뼈 등 기록할 수 있는 것에 이를 받아 적은 것이다. 무함마드의 곁에서 이 일을 맡았던 최초 인물은 메카인 압둘라 빈 싸아드('Abdullāh b. Sa'd)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디나 초기에는 우바이 빈 카으브('Ubayy b. Ka'b)가, 나중에는 자이드 빈 사비트

(Zayd b. Thābit)가 대표적인 서기였다.[23] 계시는 메카에서 13년, 메디나에서 10년 즉, 무함마드가 예언자로서 보낸 23년 내내 계속되었다. 암기와 쓰기 두 방법의 병행은 계시 원문의 통일성을 유지하게 하였으며 서로 보완되어 원문 내용의 정확성, 무오류성을 지킬 수 있게 하였다.

첫 계시는 예언자가 40살이 되던 서기 610년 라마단 달 어느 날 밤에 내려졌다. '권능의 밤'이라고 부르는 이 밤을 무슬림들은 일년 중 가장 성스러운 밤으로 여긴다. **"인간을 위한 안내요, (옳고 그름을 판별하게 하는) 기준서이고, 인도서로서의 분명한 증거들인 꾸란이 계시되어 내려진 것은 라마단 월이니라"**(꾸란 2:185) 그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예언자는 라마단 월 마지막 10일 중의 하루라고 말하면서 이 기간을 예배와 기도 속에 보낼 것을 권하였다. 전승에 따르면 그 날은 홀수 날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27일일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이 권능의 밤에 행하는 예배와 선행은 천 개월 동안에 행하는 것보다 훌륭하고, 이 밤에 천사들과 가브리엘 천사가 강림한다고 꾸란 제97장(권능의 밤의 장)은 말하고 있다. 첫 계시는 꾸란 제96장 알 알라끄(al-'Alaq)의 19개 절 중 처음 다섯 절(1-5절)인 **"읽어라!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대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께서는 한 응혈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읽어라! 그대 주님은 가장 관대하신 분, 펜으로 (쓰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시고 알지 못했던 것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셨느니라"**(꾸란 96:1~5)이다. 마지막으로 내려온 계시는 무함마드가 최후 순례를 위해 메카에 와 그의 마지막 설교를 하던 중 읽은 다음의 꾸란 제5장 3절이라고 알려져 있다.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 종교를 완성하였노라. 나는 너희 위에 (내려주는) 나의 은혜를 이제 완벽히 하였느니라. 너희에게 이슬람을 종교로 (택하여 줌에) 나는 만족하노라"**(꾸란 5:3)

예언자 무함마드는 내려진 계시들을 동료들 앞에서 되풀이 암송해 주

23) 스튜어트, P.J, 김백리 옮김, 『펼쳐보는 이슬람』, 풀빛, 2004, p.141.

고, 정기적으로 동료 암송자들과 회동하며, 함께 꾸란을 독송하면서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때론 기록으로 남기게 하였다. 그가 죽기 이전에 상당수의 가까운 교우들이 꾸란의 전장을 외웠다고 전해진다. 서기들의 수는 14명에서 42명에 이른다고 전해지고 있다. 일부 전승은 서기들의 수가 102명에 달한다고도 말하고 있다.[24] 이들이 기록한 원문의 신빙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슬람 전통에서는 이들을 통칭 예언자와 동시대에 산 '예언자의 동료들(aṣḥāb)'이라고 부르지만 타종교 전통에 비교해 보면 이들은 예언자의 제자들이다. 이들은 예언자의 진정한 정신적 후계자들이자 초기시대 이슬람의 전도사들이었다. 이들은 이슬람 역사에서 유서 깊고 존경받는 가계를 형성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무슬림 사회에서는 이들을 선조로 하여 오늘날까지 대를 잇고 있는 전승주의자, 법학자, 신학자, 울라마 그룹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전기 작가들에 의하면 예언자 생애 마지막 해에 무함마드와 함께 꾸란 장절의 정리와 편집에 헌신하였던 대표적인 예언자의 동료들은 알리 빈 아비 탈립('Alī b. Abī Ṭālib), 싸아드 빈 우바이드 빈 안 누으만(Sa'd b. 'Ubayd b. an-Nu'man), 아부 알 다르다아 우마이르 빈 자이드(Abū al-Dardā' 'Umayr b. Zayd), 무아드 빈 자발(Mu'ādh b. Jabal), 자이드 빈 사비트(Zayd b. Thābit), 그리고 우바이 빈 카으브('Ubayy b. Ka'b)이다.[25]

한편 꾸란의 전체 구성은 지속적으로 짜여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단편적으로 계속 내려지는 계시들을 적합한 곳에 위치시키는 작업은 부단히 꾸란 구절들을 외워가고 있던 동료 하피즈들에게 예언자 무함마드가 가르쳐주어야 하는 과제였다. 이러한 꾸란 장의 구성과 구절들의 배열에 관하여 학자들 간에 이견이 많지만 많은 수가 권위 있는 전승들에 의거

24) Hasan Ibrahim Hasan, 앞의 책, p. 68.
25). 같은 책, 같은 면.

하여 가브리엘 천사의 도움으로 그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수많은 단편의 계시들을 온전하게 잇고 묶는 작업은 예언자 혼자만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었다. 특히 매년 라마단월, 마지막 10일 간을 무함마드는 오직 예배와 꾸란 암송으로 밤시간을 보내며 성원 안에서 살았는데[26] 이때 천사가 강림하여 꾸란의 구성작업을 도왔다고 한다. 무함마드는 매번 그 시각까지 내려진 계시들을 천사 앞에서 송독하곤 했는데, 그가 죽기 직전에는 가브리엘 천사의 요구에 따라 두 차례 꾸란 전장을 송독하였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20여 년의 기록, 암기, 구절들의 배열을 통해 오늘날 꾸란과 같은 장과 절의 순서, 구성, 배열이 만들어졌다.

## 9. 꾸란 원본의 완성

무함마드 사후, 초대 칼리파로 선출된 아부 바크르(Abū Bakr)는 짧은 재위기간(632-634 재위)동안 배교자들의 무리들과 계속 전쟁을 치루어야 했는데, 여기서 꾸란을 암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야마마 전투(633년)에서 약 70명에 이르는 하피즈들이 죽자, 오마르 빈 알 칻땁('Umar b. al-khaṭṭāb)은 꾸란 보존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상태가 또 다른 독경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암송된 꾸란 계시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웠다. 그는 암송자들의 기억 속 꾸란 구절들과 기록되어 있는 꾸란 구절들을 지체 없이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묶어둘 것을 칼리파에게 진언하였다. 이에 칼리파는 예언자의 서기였던 자이드 빈 사비트에게 명령을 내려 기록된 것들과 하피즈의 머리 속에 외워져 있는 것들을 두 개 이상 복수로 모아 꾸란을 책으로 집성하게 하

26) 이를 이으티까프('i'tikāf)라 하며 오늘날에도 무슬림들은 성원 안에서 예배와 기도 속에 사는 피정의 생활을 한다.

였다. 이에 따라 양피지, 나뭇잎, 서판 등에 쓰여져 있던 것들이 예언자 집의 것을 포함하여 여러 곳에서 수집되고 하피즈들의 암기된 원문들(ṣudūr ar-rijāl, 사람들 가슴 속의 것들)과 함께 편집되어 양피지에 한 권의 필사본으로 묶여졌다. 이때 자이드는 칼리파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의 암송과 대조하여 검증된 꾸란 원문들을 복수로 모았는데, 쿠자이마 빈 사비트(Khuzaymah b. Thābit)가 가지고 온 꾸란 9장(알 타우바 at-Tawbah 회개의 장)의 마지막 두 절인 128, 129절만이 하나 뿐이었다고 한다. 이같이 결집된 최초의 꾸란원본은 무쓰하프라고 불려졌다. 이것은 칼리파 아부 바크르의 손에 있다가 이듬해 그가 죽게 되자 제2대 칼리파가 된 오마르 빈 알 캇땁(634~644 재위)이 보관했으며, 오마르가 죽은 후에는 그의 딸이자 무함마드의 미망인인 하프싸(Ḥafṣah)가 보관하게 된다.

제3대 칼리파 오스만('Uthmān b. 'Affān, 644~656 재위)시대의 이슬람 움마(ummah 공동체)는 크기에서 메카, 메디나를 중심으로 하던 무함마드 시절의 신앙 공동체가 아니었다. 칼리파 오마르 때 성취한 이슬람의 팽창 사업으로 아라비아 반도뿐 아니라 이라크, 시리아, 페르시아, 이집트, 북아프리카를 통치하는 세계적 국가인 아랍·이슬람 제국이 되어 있었다. 빠르게 아랍화와 이슬람화가 진행되었지만 지방마다 다른 언어와 아직 미숙한 아랍어 -또는 같은 아랍인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방언 - 때문에 수도권인 메카와 메디나 등 중심도시에서 멀어져 갈수록 꾸란을 잘못 읽거나 잘못 암송하는 사례가 속출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독송법이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꾸란의 이본(異本)마저 출현하게 되었다. 아제르바이잔에 군사원정차 나가 있던 후다이파 빈 알 야만(Ḥudhayfa b. al-Yamān)은 시리아 출신 병사들의 막사에서 읽혀지는 꾸란이 이라크 병사들의 막사에서 읽혀지는 꾸란과 다른 것을 발견하고는

크게 놀랐다. 시리아의 에네싸(Enessa)인들은 자신들의 독경이 바르다고 주장하고, 다마스쿠스, 쿠파, 바스라 출신들은 또한 자신들의 것이 더 옳다고 우겼다. 그는 그들이 이런 사태의 위험한 결과를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알았다. 그는 메디나로 돌아오자마자 무슬림의 경전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성서와 같이 계시 내용의 진위를 가지고 신도들 사이에서 계속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거나 그런 요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칼리파 오스만에게 상소하였다. 이러한 유사본은 차이가 미세하였으나 당시에 적어도 4개 정도가 나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쿠파의 압둘라 빈 마스우드('Abdullāh b. Mas'ūd, 635사망)판과 시리아 지역의 우바이 빈 카으브('Ubayy b. Ka'b, 639사망)판인데, 메디나에 있는 무쓰하프와 비교해 볼 때 앞의 것은 마지막 부분의 짧은 두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뒤의 것은 오히려 예외의 다른 두 장을 포함하고 있었다.[28] 당시에 이러한 이본을 읽고 있는 무슬림의 수나 영향력은 극히 미약하였지만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였다.

이에 651년, 칼리파 오스만은 자이드 빈 사비트에게 하프싸가 보관하고 있던 꾸란 원본을 가져오게 하여, 이 무쓰하프의 정확한 필사본을 다시 만들게 하고는 다른 꾸란 이본들을 소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29] 이 일은 자이드를 필두로 압둘라 빈 앗 주바이르('Abdullāh b. az-Zubayr), 싸이드 빈 알 아스(Sa'īd b. al-'Āṣ), 그리고 압둘 라흐만 빈 알 하리스('Abd al-Rahmān b. al-Ḥārith)에 의해 완수되었다. 이때 메카 꾸라이쉬 사람들이 꾸란 편집위원으로 특별히 임명된 이유는 꾸란 언어가 원래

27) Richard Bell, *Introduction to the Qur'ān*,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53, pp.40-42.
28) Miller, 앞의 책, p.136.
29) Aḥmad Amīn, *Fajr al-Islām*, 12th.ed., Al-Qāhirah, 1978, p.195.

계시된 꾸라이쉬 아랍어로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이븐 마스우드 판을 비롯하여 일부 독경사들이 소지하고 있던 꾸란 유사본과 변종의 기록물들은 모두 불살라졌다. 그리고 칼리파는 이렇게 완성된 꾸란 정본을 메디나에 거주하는 예언자의 동료들 앞에서 송독하는 공식 독경회('ardah)를 개최하였다. 또한 이렇게 완성된 꾸란 정본을 쿠파, 바스라, 다마스쿠스 등으로 꾸란을 완벽히 암송하고 있는 하피즈와 함께 보내 무슬림 중요 도시들에서 잘 보존되게 하였으며, 동시에 정확하고 올바른 암송이 유지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오스만 통치기에 메카와 메디나를 포함하여 적어도 이슬람 움마의 5-6개 도시에 꾸란 표준본이 보관되었으며, 그 이후 꾸란의 복사본은 권위를 인정받은 이 정본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명령이 지켜져 꾸란 원문은 오늘날까지 한 자의 첨삭도 없이 보존되어왔다. 그래서 오늘날 어느 꾸란이든지 겉장을 넘기면 '오스만 본' 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다. 이같이 꾸란이 오늘날과 같은 모양이 되어 보급된 것은 무함마드 사후 불과 20년만의 일이었다. 이때는 무함마드가 남긴 언행들이 생생히 간직되고 있는 때였으며 꾸란이 무함마드에게 내려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동료들이 아직 살아있던 싸하바들의 시대였다. 무함마드가 전한 메시지가 이중 삼중으로 검증될 수 있어서 왜곡되었다고 주장할 어떤 근거도 만들어질 수 없는 때였던 것이다.[30] 칼리파 오스만에 의해 보급된 정본 중의 하나가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에 있다. 무슬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은 수많은 복사본들과 이 원본 사이에 전혀 다름이 없고, 완벽히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꾸란의 계시들이 첨삭과 왜곡 없이 보존되었다는 것은 많은 서구의 이슬람 학자들에 의해서도 인정받고 있다.

---

30) John B, Christopher, *The Islamic Tradition*, New York: Harper & Row, 1972, p. 28.

"현대 학문의 연구 결과물들은 현재 상태의 꾸란에 있는 원문들이 본질적인 모든 면에서 무함마드가 그의 추종자들에게 남겼던 (바로) 그 원문이라는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31]

## 10. 꾸란의 구성과 내용

꾸란은 모두 114장 6,226절로 되어 있다. 계시의 연대순이 아니라 첫 장(개경장)을 제외하고는 장단의 길이에 따라 배열되어 가장 긴 장(제2장은 286절이고, 제 3장은 200절임)부터 점점 짧은 장의 순(제103장 부터는 거의가 3~6절이고, 그중 제103, 108, 110장은 단지 3절임)으로 되어 있다. 개경장은 단지 7절의 짧은 예배문이지만, 그리스도교에서의 주기도문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꾸란의 모경(母經)으로 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여는 장'으로 나와 있다. 꾸란 장·절의 정렬에 대한 이러한 사전 지식 없이 꾸란을 읽는 비무슬림 독자들은 구성의 비체계성에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된다. 한 사건, 한 인물, 혹은 한 주제어 밑에 주제별로 정돈되어 있지 않고 문체 또한 독특하여 때론 너무 간결하고, 때론 긴 산문체이며, 많은 경우들에서 수사적이고 은유적이기 때문에 이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 장내에서 전개되던 주제가 갑자기, 또 자주 다른 주제로 바뀌고 때로는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견된다.

꾸란이 계시된 순서로 되어있지 않으므로 꾸란 주석가들은 계시의 내용, 계시 문체의 유사성과 변화 등을 기준으로 삼아 꾸란 구절의 계시 연대를 가늠해보는 시도를 하였다. 그 결과 쑤라(sūrah,장)들을 크게 메카 계시(86개 장)와 메디나 계시(28개 장)로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서

31) Hans Küng, 앞의 책. p.70.

구의 꾸란 연구가들도 이 분야 연구에서 전통적 무슬림 주해학자들이 쌓아온 결과들을 중시하면서 계시 연대와 내용 분석에 괄목할만한 업적을 남겼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독일의 동양학자 뇔데케(Theodor Nöldeke,1863-1930)의 것으로, 그는 메카 시기 계시를 초기, 중기, 말기로 세분하고, 메디나 계시를 더해 전체를 네 시기의 것으로 나누었다.

메카 초기 계시(610-615년 소수 무슬림들의 이디오피아 이주까지)는 주로 신과 인간간의 관계를 다룬 것들로 최후심판의 날, 천국과 지옥, 유일신 숭배사상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간결하면서도 시처럼 각운이 있으면서 힘차며,[32] 비유적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유일신 알라께 우상숭배자들을 개종시키는 데에 계시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종종 맹세하는 서약의 절들로 시작하고, 특히 죄인에 대한 가혹한 형벌과 신앙인에게 내려질 천국의 축복이 생생히 묘사되어있다. 이에 비해 메카 중기(615-620년 따이프 Ṭā'if로부터 귀환까지)의 것은 서약이 드물고 길어지는 장·절이 늘어난다. 비교적 조용하고 차분한 어조로 교리상 여러 주제들과 자연과 역사 -특히 히브리어 성경 속 초기 예언자들의 역사- 에서 얻어지는 교훈들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진리의 참뜻을 설명하고 밝혀주는 교의적 예시와 실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신은 자주 아르 라흐만(ar-Raḥmān, 가장 자비로우신 분)으로 언급되고, 많은 구절들이 신께서 무함마드에게 "꿀(qul, 말하라!)" 이라고 말하는 명령어로 시작한다. 무함마드 이전의 많은 예언자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신의 의지와 참 뜻을 가르치기 위해 보내졌다는 사실도 종종 언급된다. 메카 말기(620-622년 메디나로의 이주까지)의 것은 중기의 것과 많은 것을 공유한다. 그러나 더 이상 아르 라흐만 이라는 신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32) 이를 사즈으(Saj')체라고 부른다.

예언자의 얘기들은 계속 강조된다. 상대적으로 더 긴 산문체이고, 되풀이 강조하는 절들이 자주 보인다. 한편 메디나 계시(622-632년 예언자의 사망까지)는 메카 계시와 큰 차이가 있다. 그것은 무함마드가 메디나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움마의 수장(首長)이 된 환경의 변화 때문일 것이다. 계시는 법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거의가 긴 산문체이다. 내용은 군사를 포함한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동체 생활의 규칙과 규범에 관한 것들이 많고, 이를 실생활에 의무와 명령사항으로 적용시키려 하고 있다. 이교도와 우상숭배자의 다신사상을 공격하고, 예언자 예수와 그리스도교인들에 대해서 언급된다. 또한 경고, 심판, 형벌, 보상, 그리고 자연현상 속에 나타난 '신의 의지' 등 꾸란 이전의 경전들 속에도 들어 있는 오래된 주제들이 빈번하게 되풀이된다.[33)]

장·절의 배열이 연대순이 아니고 장의 순서도 메카와 메디나 쑤라들이 혼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 무슬림들은 꾸란이 신의 말씀이고 초역사적인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과 내용에 들어 있는 종교의 본질적 측면을 중시해야지, 계시된 순서로 나열하여 역사성을 부여한다거나 그런 측면을 강조해 살펴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꾸란이 단순한 역사 환경의 반영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무슬림들에게 신의 의지는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측정하기 어려운 영역의 것이다. 꾸란 연구자들은 계시가 내려지기 전의 특수한 상황이나 환경, 내려지게 되는 동기와 이유를 '계시가 내려진 상황과 요인들(asbāb nuzūl al-Qur'ān)'이라고 부른다. 이런 계시 요인을 조사하고 살펴보는 것은 꾸란 내용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상황과 요인 자체에서 가르침의 진의를 찾고자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꾸란은 예언이고 교훈이며 안내이고 경고의 메시지이지 교과서 같이

33) 손주영, 앞의 책, pp.167-168.

가르침의 등급을 가진 구성체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례를 들어보자. 여러 사건들이 꾸란에 언급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주 약세였던 때인 바드르에서 너희를 승리케 확실히 도우셨느니라"** (꾸란 3:123) 라는 계시를 볼 때 이 계시가 바드르 전투(623년) 뒤에 내려졌으며 역사적 사건에 관계하여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계시 시점이 전투 직후였는지 몇 년 후인지 확실하지 않고, 그러한 역사 시점이나 바드르 전투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무슬림들에게 굳건한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신다는 내용 자체가 중요할 뿐이라는 것이다.

『꾸란』의 각 장에는 표제가 붙어 있다. 제2장은 '암소의 장'이고 제3장은 '이므란가(家)의 장'이다 그러나 이같이 표제로 붙은 장의 이름들이 꼭 그 장의 계시 내용과 일치하거나 일부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장의 이름은 단지 그 장의 표지어일 뿐이다. 일부 장들은 이름이 두 개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가장 자주 암송되는 제112장도 '성실의 장', '유일성의 장'이라는 두 개의 이름이 있다. '마리아의 장' (제19장), '모세의 장' (제14장)과 같이 그 장의 내용을 곧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붙인 경우가 있고 제24장 '시인의 장'과 제16장 '꿀벌의 장'처럼 그 단어가 그 장에서만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제12장 '요셉의 장'을 빼놓고는 일관된 줄거리가 없다. 따라서 앞에서도 말하였듯이 읽기에 산만하고 체계적이 아닌 듯한 느낌을 버릴 수 없다.

꾸란의 장·절이 모두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무슬림들은 특별한 경우에 특정한 장이나 절을 즐겨 송독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전통들은 거의가 예언자 쑨나와 하디스의 가르침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면 잠자리에 들기 전, 또는 새벽에 일어나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간구하면서 꾸란 제114장

'인간의 장'과 제113장 '새벽의 장'을 읊고,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제36장 '야씬 장'을 읽어준다. 이런 전통 모두가 예언자 무함마드가 스스로 행하였거나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물론 개경장은 예배 때뿐 아니라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마다 송독된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가르쳐주는 제112장 '성실의 장'과 실천하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제103장 '시간의 장'은 수시로 송독된다.[34] 이와 같이 무슬림에 의해 자주 낭송되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는 '권좌의 절' (āyatul-kursī)이라고 불리는 꾸란 제2장 '암소의 장' 255절이 있다. 이 구절은 아름다운 꾸란 서체로 쓰여져 건물벽 장식, 예술적 모양의 서판, 자개, 타일, 수예품 등에 새겨진다. **"알라 [하나님]! 그분 외에 신은 없도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 자존하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보호자이시로다. 졸음도 잠도 그분께는 오지 않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모두가 그분께 속하노라. 그분의 허락 없이 그분께 중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분은 그들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뜻하시는 것 외에는 그분의 지식 중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그분의 권좌가 하늘과 땅에 널리 퍼져 있으며, 그것들을 보존하는 것이 그분을 피곤케 하지 않느니라.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위대한 분이시로다."** (꾸란 2:255)

무슬림들은 우리나 서구 사람들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장·절에 번호를 붙여 부르지 않는다. 쑤라의 구절을 나눈 절의 번호는 후에 편의를 위해 붙여진 것이다. 그러므로 근세까지 출간된 꾸란들을 보면 간혹 같은 장 속 한 두 절의 번호가 다른 꾸란본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된다. 그것은 장들의 머리에 오는 바스말라(basmalah,하나님의 이름으로)를 한 절로 포함시켜 절의 번호를 매겼느냐 아니냐, 또는 꾸란의 29개 장들 첫머리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아랍어 알파벳

34) Duaa Anwar, 앞의 책, pp.36-37.

문자가 나와 있는데[35] 이것을 한 절로 취급하여 절의 번호를 다느냐, 아니냐 등의 사소한 문제들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차이들이 특히 꾸란의 타 언어 번역본에서 자주 나타나 비무슬림 독자들로 하여금 절의 구별에 혼동을 빚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도 1923년 카이로에서 이라크 쿠파(Kufī)판을 표준본으로 새로 편찬한 꾸란본이 등장하면서 해결되었다. 여기서 매겨진 절의 번호가 가장 널리 사용되며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꾸란본은 그 후 꾸란 독송의 통일에도 큰 몫을 하게 되었다. 원래 오스만 꾸란 정본은 쑤라들의 수와 순서, 절의 배열은 확실하게 되어 있었으나 구두점이 없었고,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절의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았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 원문이 모음부호가 없는 자음만의 문장이므로 몇몇 단어들의 읽기에 차이가 날 수 있었다. 서기 934년, 쿠파의 이븐 무자히드(Ibn Mujāhid)는 꾸란 학문의 중심지인 메디나, 메카, 다마스쿠스, 바스라, 쿠파 등지에서 독송에 미세한 차이가 나는 7개의 방법을 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각 독경법의 공인받은 대가들은 메디나의 나피으(Nāfi'), 메카의 이븐 카시르(Ibn Kathīr), 다마스쿠스의 아부 아므르(Abū 'Amr), 바스라의 이븐 아미르(Ibn 'Āmir), 쿠파의 아씸('Āṣim)과 함자(Ḥamzah), 그리고 알 키싸이(Al-Kisā'ī) 등 7명이다. 10세기에 꾸란 학자들은 그것이 내용상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통일시킬 필요가 없고 중요하지 않다는 데에 일치하는 견해를 보였다. 그리고 그 후 이것은 대표적인 전통적 주해서들인 알 따바리(aṭ-Ṭabarī), 알 바이다위(al-Baydāwī) 해설서 같은 데에 언급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프쓰(Ḥafṣ, 805년 사망)의 전수에 의한 쿠파의 아씸('Āṣim, 744년 사망)의 독송법이 우세해져 점차 단일

35) 예컨대 제2, 3, 29장의 시작은 알리프(Alif), 람(Lām), 밈(Mim)이라는 세 글자로 되어 있는데 신비스러운 그 뜻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

독송법으로 자리 잡았는데, 1923년 이집트 왕 푸아드(Fu'ād)의 요청으로 알 아즈하르(Al-Azhar) 대학교의 학자들이 쿠파의 아씸 독송법에 따라 모음부호와 장단 표시, 발음 구별 표지 그리고 절의 번호까지를 단 표준 편찬본을 만들어내 각광을 받게된 것이다.

## 11. 꾸란의 암송과 독경

꾸란 전체의 암송자를 일컫는 '하피즈 알꾸란(hāfiẓ al-Qur'ān)'은 문자의 뜻 그대로 '꾸란의 보존자'이다. 꾸란을 암기하여 이를 생생히 보존하고 전수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어느 무슬림 사회에서나 특별히 '현자'로 존경을 받으며, 나이에 상관없이 쉐이크(shaykh)라는 라깝(laqab, 호칭)이 붙는다. 하피즈가 되는 길은 이슬람 역사상 칼리파, 술탄, 아미르 등 이슬람 국가의 수장들에 의해 장려되고 지원받았다. 예언자 시대부터 무슬림들은 예언자 앞에서, 혹은 예언자의 제자들 앞에서 계속 외워져 축적된 계시의 원문들을 암송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원문들이 기억 속에 쌓여갈수록 남다른 자긍심과 경외감, 고양된 신앙심, 넘치는 신의 은총을 느꼈다. 그리고 드디어 완벽히 완송을 하게 되면 스승으로부터 성스러운 원문의 전달자로서의 허가를 얻고 하피즈가 된 증명서를 받았다. 거기에는 제자의 꾸란 독송과 해석이 정확하고 바르며, 자신이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러한 관행은 무슬림 세계 여러 곳에서 아직도 이어져오고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거기에는 스승의 계보를 알 수 있는 선대 스승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예언자 무함마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다. 대개 이 계보의 끝에 동시적으로 등장하는 대표적 스승들은 오스만, 알리, 이븐 마스우드, 우바이 빈 카으브 그리고 자이드 빈 사비트 등이다.[36]

꾸란은 신성하므로 아름답게 장정하고 점 하나라도 틀리지 않게 출간해야 한다. 어떤 물건도 그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된다. 무슬림들은 영과 육이 청결할 때에만 꾸란을 손으로 만진다. 적절하지 못한 장소나 환경에서는 꾸란 낭송을 하지 않는다. 가능한 예배를 위해 의무적으로 하는 세정의식을 한 후 꾸란 낭송을 시작할 것을 권한다. 꾸란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실로 이것은 고귀한 꾸란이니라. 잘 보존된 책[성서] 안에 있는 것이고, 청결한 자 외에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것이며, 우주만물의 주님으로부터 내려진 계시니라"** (꾸란 56:77~80)

독경의 예법은 정중하면서도 진지하다. 낭송 중에는 한 순간일지라도 딴 곳에 정신을 빼앗겨서는 안된다. 옷차림이 단정해야 하고 자세도 반듯해야만 한다. 독경사는 메카 방향으로 자신의 몸을 향하게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송독할 채비를 한다. 암송 중에는 작은 실수라도 용납되지 않는다. 단어와 글자는 정확히 발음되어야 하고 자음과 모음 하나라도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정해져 있는 독경법에 맞아야 한다. 꾸란 독경은 무슬림에게 언제나 특별한 의미가 있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그것은 한 종교의식이고 신께 보여드리는 복종 행위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아주 특별한 경건함과 집중이 요구된다.[37] 어느 절이든 독경을 하면 할수록 똑같은 구절에서도 새로운 깨달음과 교훈을 얻게 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경청 또한 언제나 무슬림들에게 큰 위안과 행복감을 준다. 많은 사람들이 암송과 경청 중에 신의 현현이 이루어지고 신의 곁에 가까이 있는 느낌을 실제로 경험하였다고 고백한다. 어떻든 꾸란 낭송은 언제나 감동적이고 의미심장하다. 듣고 있는 무슬림들로 하여금 경외감에 자주 눈물을 흘리고 깊은 종교적 성찰을 하게 한다. 꾸란은 정중한 태도와 겸손한

36) Hamidullah, 앞의 책 p.20.
37) Miller, 앞의 책, p.141.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꾸란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꾸란이 독경될 때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 조용히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으리라"** (꾸란 7:204)

꾸란의 암송을 위해서는 많은 아랍어 지식과 훈련이 필요하다. 목소리가 좋고 재능이 있으며 훈련이 잘된 무슬림 어린이는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꾸란 학교(마드라싸 madrasah)에 보내져 어려운 운율과 리듬을 귀로 익히고 정확한 발성을 연마한다. 아랍어로 낭송은 끼라아(qirā'a) 또는 틸라와(tilāwah)라고 하며 음조 조화의 독경 기법학을 일므 앋 타즈위드('ilm at-tajwīd, 꾸란 정음학)라고 부른다. 독경 형태는 고저의 차이 없이 고정된 리듬으로 평이하고 단조로운 낭송, 혹은 암송을 하는 법에서 높낮이가 다채롭고 감정적이며 리듬이 가미된 음악적인 낭송법까지 여러가지가 가능하다. 재능 있는 독경사들은 무슬림 세계 곳곳에서 독특한 자신만의 독송법으로 유명세를 타며 후계자를 길러내고 있다.[38]

꾸란의 암송과 독경을 위해서 꾸란 전체의 쑤라와 절을 나누는 일정한 규칙이 생겨났다. 첫째 것은 라마단 성월(聖月)의 날자 수에 맞추어 전체를 30등분한 것이다. 한국 무슬림 공동체를 위해 매년 라마단에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등 아랍 정부에서는 꾸란 독경사를 파견해주고 있는데 지난 2007년에도 이태원의 서울 중앙성원에서는 라마단 한 달 동안 저녁 특별 예배[39] 중에 이집트의 알 아즈하르에서 온 독경사가 전체 꾸란을 매일 나누어 완송하였다. 이렇게 한 부분씩 매일 암송하여 한 달에 전체 꾸란을 암송하게끔 한 것이다. 이렇게 30등분된 한 부분을 주즈(juz',복수는 ajzā')라고 부른다. 이것을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놓은

38) Frederick M.Denny, *An Introduction of Islam*,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5, p.162.

39) 단식월 내내 밤에 드리는 이 예배는 예언자가 행한 쑨나이고 이를 타라위(tarawīḥ) 예배라고 부른다.

것을 히즈브(ḥizb,복수는 aḥzāb)라고 한다. 전체 꾸란을 60등분한 셈이다. 또 다른 방법은 꾸란 전체를 일주일 만에 암송할 수 있도록 7등분한 것이다. 이 경우 칠 분의 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질(manzil)이라 부르며 꾸란 전체를 7일에 완독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꾸란 낭송을 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 직접 실행하여 자리잡은 방식이다.

## 12. 꾸란 주해학의 발전

꾸란의 언어, 문법, 표현의 특색, 진정한 의미 등 꾸란 원문을 검색 주석하고 해설 주해하는 타프씨르(tafsīr, 꾸란 주해학)[40] 연구는 무함마드 때부터 이루어졌다. 무함마드는 교우들에게 계시의 여러 단락들이 내려진 배경과 의미들을 설명하였고, 그의 사후에 교우들 역시 이에 대한 해석을 나름대로 덧붙였다. 비아랍인들이 대거 이슬람에 귀의하고 꾸란 내용과 계시의 의미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요구되자 초기 무슬림들 중 학자적 소양을 지닌 지식인들은 이러한 꾸란 해석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전승되어 오던 예언자의 해설, 예언자 동료들의 주석과 주해에 기초하여 꾸란 원문의 내용을 충실히 분석하고 재해석하여 이러한 요구에 답하게 되었다. 수세기에 걸쳐 이러한 전승에 의해 꾸란 원문을 해석 주해하는 방법이 꾸란 주석 연구의 주된 흐름으로 이어져 왔는데 이를 '전통적 주해(tafsīr bi-l-ma'thūr)'라고 부른다. 이슬람 초기시대부터 쌓여간 전승에 의한 이러한 언어상·문법상·해석상의 전통적 주해들은 특히 이슬람 초기 2-3세기 동안에 수적으로 크게 늘고 정교히 다듬어졌다.

한편, 주석가들은 꾸란 속의 모호하고 비유적인 구절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신비적 구절들을 주해하기에는 인간 이성에 한

40) 이 단어는 주석, 해석, 해설의 뜻으로 꾸란에서는 제25장 33절에 나온다.

계가 있다는 것을 느껴야 했고 숨겨져 있는 신의 의지를 규명해 낸다는 것은 불가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꾸란도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분이 그대 [무함마드]에게 그 책 [꾸란]을 내려주신 분이시로다. 그중에는 의미가 분명한 계시가 있고 그것들이 그 책의 모체가 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분명치 않은 비유적인 것들 (mutashābihāt)이니라. 마음에 일탈함이 있는 자들은 그중 분명치 않은 것들을 따르고 내분을 추구하며, 그것의 숨겨진 의미를 추구한다. 그러나 숨겨진 의미 (ta'wīl)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알지 못한다. 지식에서 확고한 기초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것 [계시]을 믿으며 그 모든 것 [분명하거나 분명치 않은 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임을 믿습니다'라고 말한다.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메시지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니라."** (꾸란3:7)

그러나 이러한 은유적·비유적 구절들에 대해 무슬림 학자들은 역사상 다른 태도를 보여 왔다. 문어적 해석을 시도하는 타프시르 주해도 특정 단어와 문장구조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 원문에 대한 다양한 주해가 있을 수 있지만 대개 그것은 논쟁을 일으킬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은유적·비유적 구절의 숨겨진 의미에 대한 타으윌 (ta'wīl)[41] 주해는 여러 종파와 조직들의 교리적 주제가 원문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순니 해석자들은 그것을 멀리하고 분명한 것들에만 집중하려 했다. 그러나 쉬아와 수피 무슬림 학자들은 오히려 이러한 은유적 구절들에 매료되어 매달리고, 타으윌 주석과 주해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신비주의 무슬림들은 그 구절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내고 그 뜻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데에 온갖 노력을 쏟았다. 본문의 문자 뒤에 찾는 진리가 숨어 있으므로 그 신비의 장막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41) 단어 타으윌도 타프시르와 같이 주석, 해석, 해설을 뜻한다. 꾸란 3장 7절에 이 단어가 나온다. 타프시르는 문어적 주석에, 타으윌은 숨겨진 의미를 주석할 때 쓰이는 꾸란 용어가 되었다.

의 진정한 가르침을 깨달으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전형적인 주해의 예가 이븐 아라비(Ibn 'Arabī, 1240사망)의 경우이다. 가장 위대한 무슬림 형이상학 교리 해설가로 불려지고 있는 그는 이러한 해석 방법으로 신지학과 신비주의 교리에 대한 기념비 같은 저작들을 남겼다.

일찍이 쉬아의 6대 이맘 자으파르 앗 싸디끄(Ja'far as-Sādiq, 699-765)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하나님의 책은 네 범주의 것을 포함한다. 첫째, 문어적으로 알려진 표현인 이바라('ibārah). 둘째, 암시의 것인 이샤라(ishārah). 셋째, 초월적 세계에 관련한 숨겨진 의미의 것인 라따이프(laṭā'if). 넷째, 영적 진리들인 하까이끄(ḥāqā'iq). 여기서 문어적 표현은 일반 대중('awāmm)을 위한 것이고, 암시는 엘리트(khawāṣṣ)를 위한 것이며, 숨겨진 의미는 신의 친구들(awliyā') 혹은 성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영적 진리들은 예언자들(anbiyā')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42]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한 이맘 자으파르의 이 말은 타으윌 주해를 포함한 꾸란 해석의 특별한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무슬림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꾸란 주해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그 참뜻을 해설하려는 열정을 가진 탁월한 학자들에 의해 이슬람 초기 시대 이래 오늘날까지 수많은 괄목할 만한 주해서들이 쓰여져 온 긴 전통을 자랑한다. 전통적 주해 분야에 헌신하며 '주해학의 기초자' 로 추앙받고 있는 선구자로는 압둘라 빈 압바스('Abdullāh b. 'Abbās, 688 사망)를 비롯하여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 분야에서 최초로 최고의 업적을 쌓은 석학은 아부 자으파르 무함마드 빈 자리르 앝 따바리(Abū Ja'far Muḥammad b. Jarīr aṭ-Ṭabarī, 924년 사망)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총 30권에 달하는 꾸란 주해서 『타프씨르 마으수르(tafsīr ma'thūr)』

42) Nasr, 앞의 책, p.59.

를 내놓았다. 알 따바리는 꾸란 학자이자 법학자이고 역사가였다. 철저한 연구와 노력으로 꾸란에 관련된 수많은 학술 정보를 수집하여 이 책에 담아 놓았다. 예를 들면 카읍 알 아흐바르(Ka'b al-Aḥbār)와 와흡 빈 무납비흐(Wahb b. Munabbih)에 의해 쓰여진 권위있는 유대 자료들에서 나온 상당한 자료들이 포함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예언자 사후 2세기 반이 넘는 동안의 꾸란 주석들을 정리하고, 또 당시까지 소실되었던 많은 양의 전통적 주석 및 주해들을 찾아내 재구성해 놓았던 것이다.[43] 이 타프씨르는 후대의 학자들이 더욱 세밀한 주석을 달게 하는 꾸란 주해학의 지침서가 되었다.

아마도 그 후대 학자의 역작 중 대표적인 것이 앗 자마크샤리(az-Zamakhsharī, 1144년 사망)의 또 다른 방대한 꾸란 주해서 『캇샤프(Kashshāf)』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성주의 신학파, 무으타질라파(Mu'tazilah, 이성을 존중한 사변신학파)의 한 사람이었던 그는 이성에 의거한 주해방법을 따랐다. 전승에 의존하기보다 개인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 주해하는 이러한 방법을 '이성적 주해(tafsīr bi-r-ra'y)이라고 부른다. 지적이고 자유로운 사고의 무슬림이 선호하는 주해 방법으로, 사색적이고 때로는 철학적이다. 정통 순니들은 이러한 방식이 너무 무원칙적이고 주관적이며 특히 무으타질라들의 지지를 받고 그들이 채택한 길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무으타질라파의 합리주의가 아직 득세해있던 때였고, 중세 이슬람 세계가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아부 하미드 알 가잘리(Abū Hāmid al-Ghazālī, 1111년 사망)도 이러한 이성적 주해의 방법에 따라 타프씨르를 펴냈다.

한편 뛰어난 문법학자였던 앗 자마크샤리의 언어적 천재성은 그의 타

---

43) Hasan Ibrahim Hassan, *Islamic History and Culture (from 632 to 1968)*, Saudi Arabia: Kamal Adham, 1968, p.140.

프씨르에 담긴 언어와 문체, 수사에 대한 해석만으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의 꾸란 주해가들은 꼭 그의 타프씨르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중세의 탁월한 순니 정통파의 역사철학가 이븐 칼둔(Ibn Khaldūn, 1332-1406)은 명저 무깟디마(Muqaddimah, 역사서설)에서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경쟁적인 정통파 학자들은… 그(자마크샤리)의 작업과 성과를 경시하려 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의 함정에 대해 경고해 왔다. 그렇지만 그들도 언어와 수사(balāghah)에 관련한 모든 면에서 그가 확고한 기초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만약 그의 작업(을 연구하는) 학생이 (순니)정통주의 교리들에 나름대로 정통해 있고, 정통교리의 방어를 위해 논쟁할 줄 안다면, 그가 오류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는 그것을 공부 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뛰어나고 다양한 언어적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44]

1세기가 더 지나서 13세기에 알 바이다위(al-Baydāwī, 1286년 사망)는 앞 자마크샤리의 타프씨르를 언어상의 기술들은 그대로 보존한 채 지나친 이성적 주석들을 삭제하면서 재구성했는데, 그 결과 비교적 짧고 간명한 그의 타프씨르가 탄생하였다. 이 타프씨르는 순니 이슬람 세계에서 오늘날까지 비공식 주해서 표준본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철저하게 정형적인 순니의 입장에서 보편적이고도 정확하게 꾸란을 해석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가장 널리 익히는 타프씨르가 된 것이다. 알 바이다위 앞의 파크르 안 딘 아르 라지(Fakhr ad-Dīn ar-Rāzī, 1209 사망)가 남긴 타프씨르 또한 유명하다. 남부 테헤란 출신으로 철학자, 역사가, 신학자로 활약하였던 그는 꾸란 주해서 『마파티흐 알 가이브(Mafātiḥ

44) Franz Rosenthal, trans. *The Muqaddimah: An Introduction to History*, vol. 2,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p.447.

al-Ghayb, 숨겨진 진실의 열쇠들)』를 펴냈는데, 이 책명은 꾸란 제6장 59절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것의 열쇠들이 그분께 있나니"**에서 따온 것이다. 알 따바리 이후 또 다른 3세기 동안의 주석들을 종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뒤를 이어 15세기에는 두 명의 잘랄 안 딘이 등장하여 꾸란 주해학에 빛을 더하였다. 잘랄 안 딘 알 마할리(Jalāl ad-Dīn al-Mahallī, 1459 사망)와 잘랄 안 딘 앗 쑤유띠(Jalāl ad-Dīn as-Suyūṭī, 1504 사망)가 그들이다. 이들의 합작 주해서 『잘랄라이니(Jalālaynī)』는 알 바이다위의 것과 함께 오늘날 무슬림 사회에서 가장 각광받는 권위서로 인정받고 있다. 현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꾸란 주해가로는 이집트의 쉐이크 무함마드 압두(Shaykh Muḥammad 'Abduh, 1905 사망)을 꼽는다. 그의 타프씨르는 비무슬림에게도 이해가 쉽고 합리적이다. 꾸란 주해의 주안점을 현대 이슬람 사회의 법적, 사회적 문제로 돌려놓고 꾸란의 재해석(ijtihād)을 하는 이성주의 방법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그는 이슬람 전통에서의 일부다처제에 관련된 계시(꾸란 4:3)가 당시(624년 우후드 uḥud 전투)의 시대적 상황에서 과부와 고아들을 구제해야 할 필요에 의해 내려진 것으로 말하면서, 또 다른 꾸란 계시(꾸란 4:129)를 재해석의 이성적 논거로 내세워 그것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 허용 사항의 것이며, 꾸란의 근본 가르침은 어디까지나 일부일처제라고 재해석한다.

## 13. 꾸란은 성서들의 종합판

꾸란은 유대교인과 그리스도교인들을 '성서의 백성들'(아흘 알키탑 ahl al-Kitāb)이라고 부른다. 유대교가 토라를 중심으로 신앙체계를 세웠고 그리스도교는 여기에 인질을 더했는데, 이슬람교는 다시 또 꾸란을

더하여 종교를 세웠다. 그리스도교인들이 신약의 계시가 구약의 계시를 확증하고 동시에 완벽하게 해주는 것으로 보고 있듯이, 무슬림들은 앞서 내려진 경전들(모세오경, 시편, 복음서) 속 계시들을 확증하고, 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신앙 체계에서 후대인들이 인위적으로 첨삭·왜곡한 일부 내용을 정화시켜 바로잡기 위해 꾸란이 내려왔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받은 꾸란은 넓은 의미에서 앞선 경전들(구약과 신약을 포함하여)의 종합판이라고 생각한다. 무슬림들은 이슬람이 새로운 계시, 새로운 경전을 가진 새로운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태초부터 존재해온 하나님 종교의 마지막 완성된 버전이라고 생각한다.[45)]

다시 말해 이슬람 전통에서는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뿌리의 일신교라고 말한다. 세 종교의 신자 모두가 우주 만물의 창조주, 심판의 날의 주인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 꾸란은 무슬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가르치면서 알라가 바로 유대교인과 그리스도교인들이 말하는 신과 동일한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우리[무슬림들]는 우리에게 계시된 것과 너희에게 계시된 것을 믿는다. 우리의 하나님과 너희의 하나님은 한분이시며, 우리는 그분께 복종하는 사람들이다."** (꾸란 29:46)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신에 대해 말할 때 그 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모세의 하나님이며 예수의 하나님이자 무함마드의 하나님이다.

결론적으로 무슬림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신앙인들을 하나님께 절대복종하던 아브라함과 같은 순정의 일신교도(이를 하니프 ḥanīf라고 부름)로 되돌려 놓기 위해 꾸란을 보내셨다고 믿는다. 꾸란 3장 67절에

45) 손주영, "이슬람 전통에서 말하는 같은 뿌리의 일신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 『한국이슬람학회 논총 제17-1집』 2007, pp.7-8.

따르면 아브라함은 유대교인도 그리스도교인도 아니었다. 이슬람의 길은 바로 아브라함이 걸었던 하니프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다. 꾸란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준 종교가 바로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종교이고 모세와 예수, 그리고 무함마드에게 내려준 같은 계시의 종교임을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종교를 너희의 종교로 규정하셨나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대 [무함마드]에게 계시해준 것이고 또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에게도 그 종교를 지키고 그 안에서 분열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이니라."** (꾸란 42:13)

이것은 가톨릭 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에서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는 무슬림을 존중하고 받아드려야 할 것을 선언하고, 가톨릭 교회 정책의 문서인 「교의 헌장」 에서 "신의 계획은 창조주를 섬기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그들 중에는 특히 무슬림들이 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고수할 것을 고백하고, 우리와 똑같이 최후의 날 인류를 심판하실, 가장 자비로우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다"[46] 라고 밝히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슬람에서 모든 핵심은 꾸란에 담겨있다. 그리스도교인들의 길처럼 성직자 제도나 신비적 의식, 혹은 상처받은 영혼이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성인 조직이 없는 종교 이슬람에서는 오직 꾸란만이 신과 인간을 직접 소통하게 하는 길이고, 신으로부터 영감과 지혜를 얻게 하는 원천이며 무슬림들의 지적·영적 은신처이다. 독일 신학자 한스 큉은 무슬림에게 꾸란이 무엇인가를 유대교인에게 토라, 그리스도교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여 말하면서, 진실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므로 무슬림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47]

46) 하게만 루드비히, 채수림, 채해림 역, 『그리스도교 대 이슬람』, 서울, 심산출판사, 2005, pp.207, 209.

47) Hans Küng, 앞의 책, p.66.

이것은 맞는 말이다. 이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무슬림들에게 꾸란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이다. 무슬림들은 알 부카리가 전한 예언자의 다음 하디스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 "너희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은 꾸란을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다음 하디스도 마찬가지이다: "꾸란을 송독하지 않는 자는 우리 중의 한 사람이 아니다."

꾸란이 무엇인가?는 앞에서 개괄적이나마 논의되었다. 그렇지만 이 글의 결어로 꾸란이 말하고 있는 꾸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언급들을 다시 새겨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라마단 달, 권능의 밤에 내려졌다(97:1).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책의 어머니'에 기록되어 있는(영원한) 것(43:4)으로 단계적으로 나뉘어져 계시되었다(17:106). 그것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으로부터(11:1), 우주만물의 주님으로부터 내려진 계시이다(69:43). 그것은 한 점 왜곡됨이 없는 성서이고(18:1) 선악을 구별하게 하는 말씀들이다(86:13). 또한 신을 항상 기억하도록 염송하는 책(36:69)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책이다(41:41-42). 또 그것은 영광스러운 성서로(50:1) 하늘과 땅의 모든 숨겨진 비밀들을 담고 있는 것이며(27:75), 앞서 내려진 토라와 인질의 내용을 확증해주는 진리의 성서이다(3:3)."

꾸란은 우주와 인간 존재에 관계한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과학자들에게, 신의 역사와 인간 삶이 걸어온 길을 고찰하고 걸어갈 길을 조망하려는 종교역사가들에게, 모든 종교적 지식을 포괄하고 있는 신의 의지이자 말씀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신학자들에게 가치있는 지혜를 제공하는 고귀한 책이다. 그것이 얼마만큼 성스러운 것이냐 하는 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과거와 현재에서 꾸란만큼 공리적(公利的, 公理的), 실리적(實利的) 기능을 갖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책도 극히 드물 것이다.

# 꾸란 선 35

제1장

# 알 파티하 Al-Fātiḥah

## 개경장

꾸란의 첫 장인 개경장은 '꾸란의 모경(母經)'이자 '가장 위대한 장'으로 불려진다. 단지 일곱절로 되어있지만 꾸란 내용의 정수를 담고 있고 무슬림들은 이 한 장의 암송만으로도 총 114장으로 되어 있는 꾸란 전체를 읽은 것만큼의 보상이 내려진다고 믿고 있다. 하나님의 사자(Rasūl Allāh) 무함마드는 "이런 쑤라(sūrah 장)는 다른 어떤 예언자에게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실제로 현존하는 어떤 경전에서도 이와 같은 계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 장의 이름으로 쓰인 단어 파티하(fātiḥah)는 '여는 것,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 장은 하나님의 책, 꾸란을 여는 꾸란의 서장이다. 개경장은 여러 다른 이름으로도 불려지고 있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 전체 꾸란을 대변하는 듯한 이름인 '움므 알 키탑(Umm al-Kitāb 책[성서]의

어머니 장)'이 있고 '쑤라 알 함드(Sūrah Al-Ḥamd 찬미의 장)', '아싸스 알 꾸란(Asās Al-Qur'ān 꾸란의 기초)', '쑤라 앗 쉬파아(Sūrah Ash-Shifā' 치유의 장)'등이 있다. 모든 예배가 이 장의 암송으로 시작되고, 예배 때마다 무슬림들은 이 장을 각 라크아(rak'ah 예배동작, 선자세에서 엎드려 절한 뒤 다시 선 자세로 돌아옴)의 시작에서 암송해야 하므로 하루 다섯 차례의 예배동안 최소한 17회 이상 독송하게 되고, 따라서 개경장은 무슬림들 생애 내내의 모든 시간들과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꾸란 제15장 87절에서는 특히 이 장을 '앗 싸브으 알 마사니(As-Sab' Al-Mathānī 반복 송독하는 일곱 절)'라고 부르고 있다.

이 장은 가장 이른 메카 초기 계시들 중의 하나이다. 권위있는 전승들은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완벽한 쑤라로 계시되어 내려진 첫 번째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개경장 이전에는 제96장 알 알라끄(Al-'Alaq), 제73장 알 뭇잠밀(Al-Muzzammil), 제74장 알 묻닷시르(Al-Muddaththir) 등의 일부 절들만이 내려졌을 뿐이다.

쑤라 라는 단어는 '한 층 한 층 하나님을 향해 오르는 단계'를 의미한다.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뜻이다. 길거나 짧은 이러한 쑤라를 이루고 있는 절은 아야(āyah, 복수는 āyāt)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시, 징표, 증표, 예증'을 뜻할 때에도 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계시'를 말하는 동의어로 쓰인다. 개경장은 7절 25단어 113자로 구성되어 있다.

무슬림들은 이 장을 하나님께서 예배(ṣalāh)를 통해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가르쳐 주신 '예배문'이라고 믿고 있다.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더욱 친밀하게 만들고, 그분의 책인 꾸란으로부터 인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신 예배의 기도문이라고 생각한다. 예배는 신앙의 심장이다. 정

통 하디스(ḥadīth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에 의하면 개경장을 암송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불비한 미완의 예배로 간주된다.

이 장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알라께서는 우주만물의 창조주, 부양자, 심판의 날의 주재자이시며, 천지간 모든 근원을 소유하시는 지고의 존재자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서두(1-4절)에서 밝히고, 이러한 전지전능의 절대자 "당신께만 저희가 경배드리고, 당신께만 도움을 청하옵니다."라는 무슬림 신앙고백을 그 중심부에서 표현하게 한다(제5절). 이러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꾸란 전편에서 강조되는 이슬람의 중심 교의이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당신께만 예배드리는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라는 간구절이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자들의 길이나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은총을 내려주셨던 그런 자들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해야 할 최고, 최선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그분께 무엇을 간구드려야 할 지를 또한 가르쳐 주신다. 우리는 온 세상의 주님이신 알라께만 예배해야 하고 그분께만 완벽히 의존해야 한다. 그리고 부단히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개경장을 올바른 길로의 인도를 위한 '예배' 자체라고 말하고, 꾸란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자에 주시는 답이라고 해석한다. '올바른 길'은 '꾸란의 길'이고 그 길이 곧 '이슬람'인 것이다.

## 제1장 سُورَةُ الفَاتِحَةِ

بِسْمِ ٱللَّهِ ٱلرَّحْمَٰنِ ٱلرَّحِيمِ ﴿١﴾

ٱلْحَمْدُ لِلَّهِ رَبِّ ٱلْعَٰلَمِينَ ﴿٢﴾

ٱلرَّحْمَٰنِ ٱلرَّحِيمِ ﴿٣﴾ مَٰلِكِ يَوْمِ ٱلدِّينِ ﴿٤﴾

**01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1], 하나님[2]의 이름으로[3].**

**02 모든 찬양[4]이 우주만물[5]의 주님[6]이신 하나님께 있나이다.**

**03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04 심판의 날[7]의 주(主)[8].**

---

1) 아르 라흐만(Ar-Raḥmān)과 아르 라힘(Ar-Raḥīm)은 라흐마(raḥmah 자비)라는 단어를 어근으로 하는 하나님의 두 이름이다. 똑같은 의미를 갖지만 대다수 주석가들에 의하면 아르 라흐만이 아르 라힘보다 더 큰 자비로 해석된다. 아르 라흐만은 하나님(Allāh)께만 쓰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에 베푸시는 모든 형태의 자비를 포괄하는 개념의 것인데, 아르 라힘은 하나님께서 오직 신자들에게만 내려주시는 자비를 뜻한다.
2) 알라(Allāh)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99가지 이름 중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다.
3) 무슬림들은 모든 언행을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로 시작한다.
4) 알 함드(al-ḥamd)는 '모든 찬양, 찬미, 감사'의 뜻이다.
5) 알 알라민(al-'ālamīn)은 '세상의 모든 것' '온 우주만물'의 뜻이다.
6) 아랍어 랍브(Rabb)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양육하시는 창조주, 부양자의 뜻이나 많은 꾸란의 의미상 타언어 번역자들이 '주님'으로 해석한다.
7) 알 딘(ad-dīn)은 종교이다. '종교의 날'은 '보상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다.
8) 말리크(mālik)는 왕, 소유자, 주권자의 뜻으로 여기서는 심판의 날의 '주재자'의 의미이다.

## 제1장

إِيَّاكَ نَعْبُدُ وَإِيَّاكَ نَسْتَعِينُ ﴿٥﴾ اهْدِنَا
الصِّرَاطَ الْمُسْتَقِيمَ ﴿٦﴾ صِرَاطَ الَّذِينَ أَنْعَمْتَ
عَلَيْهِمْ غَيْرِ الْمَغْضُوبِ عَلَيْهِمْ
وَلَا الضَّالِّينَ ﴿٧﴾

**05** **당신만을 저희가 숭배하고, 당신께만 저희가 도움을 청하옵니다.**

**06** **저희를 올바른 길[9]로 인도하여 주소서.**

**07** **당신의 노여움을 산 자들[10]의 길이 아닌, 방황하는 자들[11]의 길이 아닌, 당신께서 은총을 내려주셨던 자들[12]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

9) 앗 씨라뜨 알 무스타낌 (aṣ-ṣirāṭ al-mustaqīm)은 곧은 길, 바른 길의 뜻으로 여기서 올바른 길은 '꾸란의 길', 곧 '이슬람'을 말한다.

10)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은 자들. 예컨대 노아 시대 사람들, 사무드 (Thamūd) 백성들.

11) 진리의 정도에서 이탈하여 헤매는 자들. 예컨대 우상숭배자, 다신교도들.

12)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은 자들. 예컨대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와 같은 예언자들, 초기에 무함마드를 믿고 따른 진실한 추종자들 (씯디꾼 ṣiddīqūn이라 부름), 순교자들, 올바른 선행자들.

## 해 설

1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이 절은 꾸란 제9장 앝 타우바(at-Tawbah)를 제외한 꾸란의 모든 장에서 첫머리에 그 장을 시작하는 말로 등장한다. 꾸란 용어로 이렇게 비스밀라(bismillāh)를 말하는 것을 바스말라(basmalah)라고 한다. 무슬림들은 예배, 꾸란 독경, 쿠트바(khutbah 설교), 연설, 강의, 글쓰기, 우두(wuḍū' 소정행위), 식사, 도살행위 등 모든 언행의 시작에서 이 말을 한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99개의 이름에 잘 나타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3개의 이름이 이 절에서 동격으로 나란히 언급되어진 알라(Allāh), 아르 라흐만(Ar-Raḥmān), 아르 라힘(Ar-Raḥīm)이다.

아랍어 동사 라히마(raḥima ~ 을 가엾이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용서해주다)에 어근을 둔 라흐만(raḥmān 자비심 많은, 동정심 많은, 인자한)과 라힘(raḥīm 자애심 깊은, 인정 많은, 동정 어린)은 둘 다 똑같이 '자비를 갖고 있는'을 뜻하고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자비, 자애, 친절, 동정, 용서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꾸란 용어로 쓰이고 있다. 정관사 알(al/ar)이 붙여져 '가장 큰 자비를 가지고 계신 분', '최고로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르 라흐만(Ar-Raḥmān 가장 자비로우신 분)과 아르 라힘(Ar-Raḥīm 가장 자애로우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다. 많은 꾸란 주석가들이 아르 라흐만의 속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으로 이 용어는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붙여 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아르 라흐만은 현세의 모든 창조물들(신자, 비신자, 생

물, 무생물등)에게 자비를 내려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아르 라힘은 내세에서 오직 신자들에게만 자비를 베푸시는 '가장 자애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말한다.

2 항상 우리는 매사에 감사하고 찬양과 찬미를 알라 께 드려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 만물의 부양자이시다. 그분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 우리가 칭송하는 위대한 영웅, 훌륭한 인물들의 뛰어난 인품과 속성들, 영민한 두뇌, 미모, 천재성, 우리가 즐기는 산과 바다의 아름다운 것들,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남다른 불굴의 정신력, 육체적 건강, 물질적 풍요로움이 있다면 물론 그것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들이다. 함드(ḥamd)는 이러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관대하심에 감사하며, 찬양과 찬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한다. 정관사 알(al)이 붙은 알 함드(al-ḥamd)는 모든 찬양, 모든 찬미를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우리는 그분께 오로지 감사하고 무한한 그분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드려야만 한다. 알 함두 릴라!

우리말이나 영어에서 랍브(Rabb)에 꼭 맞는 단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아랍어 동사 랍바(rabba 아기를 키우다, 교양하다, 양육하다, 부양하다, 통치하다, 군주가 되다)를 어근으로 하는 이 단어는 오직 한 분 뿐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 이 땅의 왕이시고 군주이시며 통치자, 그리고 만물의 부양자, 양육자이시며 안전의 제공자, 보호자라는 포괄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꾸란의 의미상 번역자들 대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컫는 주님(the Lord)이라는 용어를 꾸란에서의 이 랍브(Rabb)로 해석하고 있다.

알 알라민(Al-'Ālamīn)은 알람('Ālam 세상, 우주)의 복수형인데, 알라 외에 존재하는 세상과 우주의 모든 것들을 말한다. 원래 알람은 단수형을 갖지 않는 단어이다. 그러니까 알 알라민은 복수의 복수형으로 하늘과 땅, 지구와 바다에 존재하는 상이한 모든 창조물들을 가리킨다. 인간, 천사, 진, 동물, 식물, 해와 달, 별 등 이 세상과 내세에 있는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3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도 아르 라흐만과 아르 라힘은 꾸란에서 알라 다음으로 많이 일컬어지고 있는 이름이다. 아름다운 이 두 이름은 그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절을 베풀어 주시며 은혜로 충만하신 분인가를 알게 해 준다. 그분은 만약 우리가 지은 죄와 잘못을 참회하고 회개할 때에는 즉각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만약 우리가 선행을 한다면 그것에 몇 배의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시다.

4 하나님 한 분만이 심판의 날의 주인이시다. 그 날의 모든 주권이 그분께만 속하는 진정한 왕이시다. 그분께서는 오직 자비와 정의로 심판을 주재하실 것이다. 아무도 그 날에 그분의 주권과 권능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 아무도 그 날에 그분의 허가 없이는 중재나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꾸란 78:38 참조) 그분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공정하시다. 선한 사람 모두가 천국으로 가는 보상을 받고, 악한 사람 모두에게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 행동하는 데에 제한된 자유만을 주셨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한된 소유권만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이다. 그 계율과 법도에서 넘치는 행동과 사고는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태도가 아니다. 종교의 날은 보상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악에는 악으로, 선에는 선으로 모든 창조물들의 행동을 낱낱이 계산하여 징벌과 보상을 내리실 것이다.

5 무슬림들은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한다. 하나님 외에는 돌, 우상, 나무, 강, 별, 천사들, 예언자들, 성자들, 혹은 어떤 다른 힘이나 대상에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는다. '당신께만 저희가 숭배드리며, 당신께만 저희가 도움을 청합니다'는 완벽한 복종을 나타낸다. 두 문장으로 된 이 절의 앞의 말은 쉬르크(shirk 우상같이 하나님께 비견되는 대상)를 절대 두지 않겠다는 결백한 신앙고백이고 뒤의 것은 어떤 힘 또는 권력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의지하고 신탁하며, 그분께만 구원을 청하겠다는 맹세를 하는 선언이다.

심판의 날의 왕이신 그분의 자비, 권능, 정의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완벽한 복종을 표해야만 한다. 그분께만 예배하고 그분께만 구원을 청해야 한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받을 자격과 가치가 없다.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도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길 원하지 않으신다면 결국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만약 어느 누군가가 우리를 돕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이고, 그 허락과 함께 도움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해야만 한다.

6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드린다. 올바른 길은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고 귀의하는 길이다. 그 길

이 곧 이슬람이다. 이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내려주신 유일한 종교이다. 과거에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은 축복과 은총을 받았다.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비록 힘들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그 길로 인도받기를 청원한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올바른 길 위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성과 자유의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영적으로 방황하며 헤매게 될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안내받기를 원하는 첫 단계는 올바른 길을 찾는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그 길 위에 변함없이 남는 일이다. 우리에게 영적 혜안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자비로 그 자비와 은혜의 빛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 그 분노의 어둠 속에서 걷고 있는 자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꾸란은 올바른 인도를 간구하는 예배자들에게 답으로 내려졌다.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진리의 책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꾸란 제2장 알 바까라(al-Baqarah)에서 "이것은 의심할 바 없는 책[꾸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한 인도이니라" (꾸란 2:2)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언자 무함마드의 모범적 행신을 말하는 예언자 쑨나(sunnah 관행)는 어떻게 우리가 그 길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가를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는 또 다른 인도이다. 무슬림들은 이러한 인도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 첫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인도이다. 이것은 타우피끄(tawfīq)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받아드리도록 인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을 말한다. 이 인도로 불신앙에서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된다. 둘째는 이르샤드(irshād)인데 이것은 신의 사자들, 예언자들, 진리를 전파하는 독실한 설교자들의 선교를 통해 진리로 안내받는 인도를 말한다.

7 우리는 이슬람의 길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쫓는 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하셨다. 누가 그 길을 쫓아 하나님의 은총을 부여받았는가? 꾸란 제4장 안 니싸아(an-Nisā')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使者)에게 순종하는 자, 예언자들, 초기 이슬람 시대의 진정한 신앙인들(ṣiddīqūn), 순교자들, 정직한 사람들, 독실한 선행자들을 말하고 있다. (꾸란4:69 참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셨던 이런 사람들의 길을 따르기를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던 자들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사탄(shayṭān)의 길을 따른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벌 하신다. 우리는 저주받은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가호를 구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인 하나님의 법을 깨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간구드려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 ~이 아닌'이라는 부정사를 반복해 사용하면서 오류의 잘못된 두 길을 강조해 주신다.

알 가답(al-ghḍab 화, 분노, 노여움)은 자비, 은혜, 은총, 사랑, 평온의 반대쪽 개념이다. 우리가 저지른 행동이 그분의 자비를 잃는 것이고, 오히려 그분의 노여움을 샀을 때, 그것은 자신의 자유 의지로 빚어진 결과이므로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는(al-maghḍūb) 두 부류의 사람들은 사악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어둠 속에 사는 길을 택한 자들과, 진리에 부주의 하거나 그 가르침을 등한시하여 결국에는 진리의 지식을 잃어버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다. 일반적으로 첫 부류의 사람들은 완고하고 인도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이 부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진리의 빛도 비춰지는 것을 거부하고 닫혀 있다. (꾸란 2:6-7 참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올바른 길로 돌아올 기회가 주어져 있다. 그들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뿐이다. 그들 스스로 진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인도받는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 관용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즉각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분이시다. 다른 한편, 이 두 부류와는 전혀 다른 올바른 길 위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의 빛 속에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스스로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신탁하고 그분께 복종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들을 잘못된 행동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축복받는 은혜의 길 위에 있도록 계속 인도하신다. (꾸란 4:69 참조)

한편 일부 꾸란 주석서들에서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자들의 길과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의 길을 각각 유대인과 그리스도 교인들의 길로 해설하고 있다. 진정한 신앙인의 길은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영속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유대교인들은 진리의 종교를 보존·지속시키지 못하고 원형대로 실행하는 길을 버렸다. 또 한때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여 우상을 만들고, 예언자를 욕되게 하였다. 이것이 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노여움이 내려졌는가 하는 이유이다. (꾸란 5:60 참조) 한편 그리스도교인들은 이 진리의 지식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고 진리외의 것을 과장하여 말하며 진리의 지식과 길을 잃어버렸다. 잘못된 인도 속에 방황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왜 그리스도교인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이 되었는가 하는 이유이다. (꾸란 5:77 참조) 둘 다가 진리의 지식, 가르침, 길에서 벗어나고 만 것이다. 여러 하디스 집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자들은 유대인들이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교인들이라는 것이 말해지고 있다. (Aḥmad 4:378)

개경장의 독송이 끝나면 무슬림들은 하디스의 가르침에 따라 '아~

민' (Āmīn 아멘)이라고 말한다. '하나님! 저희의 간구와 기원을 받아주소서'의 뜻이다. 또 다른 하디스는 집단예배시 예배 인도자의 개경장 독송이 끝날 때 예배자들이 '아~ 민'이라고 말할 것을 가르쳐준다. "이맘(Imām 예배인도자)이 '왈랃 될~ 린'이라고 말하면 (예배자들은) '아~ 민'이라고 말하라! 알라께서는 너희의 기원에 답해주실 것이다." (Ṣaḥiḥ Muslim 1:303)

## 알 파티하 장의 가르침

- 가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심판의 날의 왕이시다.
-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그분께만 도움을 청하고, 그분께만 예배드려야 한다.
- 우리는 그분의 길, 올바른 길, '이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그분께 간구드려야 한다.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와 기도는 '우리를 올바른 길 위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라는 것이다.
- 꾸란의 개경장은 예배 때마다 독송된다. 그리스도 교인의 주기도문 이상의 예배문이자 최고의 기도문이다.

제19장

# 마르얌 Maryam
## 마리아 장

메카에서 계시된 이 장은 98절(āyāt)로 구성되어있다. 장의 제목은 제16-35절에 등장하는 예수[이사 'Īsā]의 어머니 마리아[마르얌 Maryam]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그 앞에 나오는 예수 앞의 예언자인 야흐야(Yaḥyā 세례 요한)와 그의 아버지 자카리야(Zakarīyā)에 대한 이야기(제1-5절)와 함께 예수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이 장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언급은 이 장 끝 부분인 제88-91절에 다시 강조되어 나온다.

이 장의 계시 시기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전교를 시작한 지 5-6년 째인 615년 이전인 것이 확실하다. 논증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즈음, 예언자와 무슬림들에 대한 메카 꾸라이쉬 지배층의 박해가 극에 달했고, 이를 견뎌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예언자는 무슬림

들에게 박해를 피해 홍해 건너 편의 아비시니아(이디오피아)로 잠시 이주해 갈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무슬림들의 아비시니아로의 잠정적 이주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후일 622년 단행되는 메디나로의 이주 7년 전의 일임), 이때 아비시니아로 이주해 간 무슬림들이 이미 이 장에 정통해 있었기 때문이다.

유명한 아랍 역사가 이븐 히샴(Ibn Hishām 834사망)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아비시니아 왕 네구스(Negus)의 요청으로 예언자의 사촌이자 첫 이주 그룹을 이끌었던 자으파르 빈 아비 딸립(Ja'afar b. Abī Ṭālib)은 이슬람에서 말하는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와 이 장의 제1-40절을 독송하였고, 네구스 왕은 그 내용에 감동하여 메카 꾸라이쉬 사절이 요구한 무슬림 이주자들의 귀환 인도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무슬림들의 아비시니아 체류를 허가하였다.

이 장의 내용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15절: 고령에 이른 자카리야는 타락하고 불의가 넘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후계자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답하여 야흐야[요한]를 그에게 아들로 주셨다.

제16-40절: 예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를 낳아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으나, 요람에 있던 아기 예수가 기적적으로 말을 하며 그가 신의 사자임을 선언하고, 곤궁에 처해 있던 어머니를 구한다.

제41-65절: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신 신앙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인 그의 아버지와 종족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을 떠나와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 모세는 그의 형 아론[하룬Hārūn]의 도움을 받았고, 이스마일은 그의 친족과 가문의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쳤으며, 이드리스는 진실하고 높은 지위의 예언자였다. 이들 모두가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모범의

길을 가르치고 보여준 신의 사자들이었다. 그러나 후대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과 훌륭한 삶의 길을 따르지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았다.

제66-98절 : 불신자, 우상 숭배자, 무신론자들은 부활과 심판의 날에 대한 가르침을 믿지 않는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불타는 지옥이다. (66-87절) 또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정녕 잘못되고, 헛된 개념의 불경스러운 말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께 아들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몰지각하고 잘못된 말인지를 강하게 지적해 주는 내용의 계시가 여기 담겨 있다. (88-98절) 내세를 결코 불신해서는 안된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 바른 신앙을 훼손하거나 더럽혀서는 안된다.

일부 무슬림학자들은 이 장의 주제에 해당하는 예언자 요한과 예수에 대한 계시 (제1-40절)가 이디오피아로 피신해가는 무슬림들을 도와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예정된 계시라고 말한다. "설혹 너희가 박해를 피해 그리스도교 국가로 이주를 원하며 여행을 하지만 너희는 너희가 받은 진리의 가르침 중 어느 것도 감추지 말고, 예언자 예수는 신의 아들이 아니라 신의 한 사자라는 것을 분명히 그리스도교인들에게 말해주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계시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일부 주석가들은 그 다음에 이어진 예언자 아브라함의 이야기 (제41-50절) 또한 이들 이주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장래 유익함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 내려졌다고 말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향을 떠난 후 축복을 받았듯이 그들 또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아브라함이 걸었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 한, 머지않아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점을 알게 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기 위해 내려진 계시라고 해석한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메카의 불신자들을 경고하는 계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을 박해한 그들은 아브라함을 박해했던 잔혹

한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종족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이 장의 후반부에서 또 다른 여러 예언자들이 사명의 수행과 신앙에서 모범적 삶을 살았다는 예를 들면서(제51-65절) 신의 사자들, 그들의 추종자들, 신실한 참된 신앙인들은 그분의 계시가 낭송될 때 꿇어 엎드려 기도하였으나 그들의 다음 후손들은 곧 예배를 잊어버리고 오류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주시면서 그분을 숭배하는 신앙과 인내의 길이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다.

## 제 19 장 سُورَةُ مَرْيَمَ

بِسْمِ ٱللَّهِ ٱلرَّحْمَٰنِ ٱلرَّحِيمِ

كٓهيعٓصٓ ﴿١﴾ ذِكْرُ رَحْمَتِ رَبِّكَ عَبْدَهُۥ زَكَرِيَّآ ﴿٢﴾ إِذْ
نَادَىٰ رَبَّهُۥ نِدَآءً خَفِيًّا ﴿٣﴾ قَالَ رَبِّ إِنِّى وَهَنَ ٱلْعَظْمُ مِنِّى
وَٱشْتَعَلَ ٱلرَّأْسُ شَيْبًا وَلَمْ أَكُنۢ بِدُعَآئِكَ رَبِّ شَقِيًّا ﴿٤﴾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카프 하 야 아인 싸드[1)]**

**02 (이것은) 그분의 종 자카리야[2)]에게 하신 그대 주님의 자비의 언급이니라.[3)]**

**03 그 [자카리야]가 (기도하며) 그의 주님을 남모르게 청하여[4)] 불렀을 때,**

**04 그가 말하기를 "주님이시여! 실로 저의 뼈들은 약해졌으며 머리는 백발이 되었나이다.[5)] 그러나 저는 당신께 기도하며 은혜를 받지 못한 적이 없었나이다.[6)]**

---

1) 꾸란의 29장들이 이와 같은 아랍어 알파벳 문자들의 조합으로 시작한다. 꾸란 주석가들은 심오한 의미가 담긴 신비스러운 상징어일 가능성을 말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비밀이다.

2) 자카리야(Zakariyyā 우리말 성경의 사가랴 Zachariah)는 야흐야(Yaḥyā 세례 요한 John)의 아버지이다.

3) 주님께서 그분의 종 자카리야에게 베푸신 자비에 관한 언급이니라의 뜻임.

4) 니다안 카피이얀(nidā'an khafiyyan)은 '비밀스러운 부름으로'의 뜻임. 그는 그의 친족들이 모르게 기도하였다. 그 이유가 제5절에 연결됨.

5) 동사 샤알라(sha'ala 불지르다,불피우다)의 8형 이슈타알라('ishta'ala 불타다, 불붙다)가 여기서와 같이 뒤에 샤이반(shayban 머리가 센, 회색머리가 된)을 동반하면 '머리가 회색으로 타버렸다' 즉,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이다.

6) 샤끼이(shaqiyy)는 '불행한, 불쌍한, 파렴치한, 독단적인'의 뜻으로 문어적 직역은 '저는 당신께 드린 기도에(응답받지 못해) 불행한 적이 없었나이다.'이다. 여기서는 '은혜받지 못한' '축복받지 못한'의 뜻이다.

## 제 19 장

وَإِنِّي خِفْتُ ٱلْمَوَٰلِيَ مِن وَرَآءِى وَكَانَتِ ٱمْرَأَتِي عَاقِرًا فَهَبْ لِي
مِن لَّدُنكَ وَلِيًّا ﴿٥﴾ يَرِثُنِي وَيَرِثُ مِنْ ءَالِ يَعْقُوبَ وَٱجْعَلْهُ
رَبِّ رَضِيًّا ﴿٦﴾ يَٰزَكَرِيَّآ إِنَّا نُبَشِّرُكَ بِغُلَٰمٍ ٱسْمُهُۥ يَحْيَىٰ لَمْ
نَجْعَل لَّهُۥ مِن قَبْلُ سَمِيًّا ﴿٧﴾ قَالَ رَبِّ أَنَّىٰ يَكُونُ لِي غُلَٰمٌ

**05** "그런데 실로 저는 제 뒤의 친족들이 두렵습니다.[7] 그리고 제 아내는 불임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당신께로부터[8] 후계자[9]를 주옵소서.

**06** 저를 계승하고 또 야곱의 가계[10]를 승계할 (후계자를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그를 당신께서 만족스러워하실 사람으로 만드소서."

**07**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11] "오, 자카리야야! 진실로 우리[하나님]는 너에게 그의 이름이 요한이 될 사내아이의 기쁜 소식을 주노라. 우리는 (그의) 이전에 아무에게도 그 같은 이름을 준 적이 없었느니라."[12]

---

7) 여기서의 마왈린(mawālin)은 '친척들, 친족들'을 가리킨다. 뒤를 잇는 다음 세대의 친척·친족들이 사악하여 공동체가 잘못될까 염려스럽다는 의미임.

8) 부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명사 라둔(ladun)은 '~에게, ~때, ~앞에, 가까이'로 여기서의 민 라둔카(min ladunka)는 '당신에게로부터'이다.

9) 왈리이(waliyy)는 '후계자, 상속자'의 뜻으로 예언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상속받는 후계자를 가리킨다.

10) 자카리야는 야곱(아랍어 야으꾸브 Ya'qūb)의 자손이다.

11) 일부 주석가들은 '천사가 그를 불러 말하기를'이라고 해석한다. 꾸란 3:39에 '그가 성소에서 예배드리며 서 있는 동안 천사가 그를 불러 이르기를...'이라는 같은 내용의 계시가 있기 때문이다.

12) 원래의 직역은 '우리는 전에 누구도 그 이름을 갖게 만들지 않았느니라'이다.

## 제 19 장

وَكَانَتِ ٱمۡرَأَتِي عَاقِرٗا وَقَدۡ بَلَغۡتُ مِنَ ٱلۡكِبَرِ عِتِيّٗا ﴿٨﴾
قَالَ كَذَٰلِكَ قَالَ رَبُّكَ هُوَ عَلَيَّ هَيِّنٞ وَقَدۡ خَلَقۡتُكَ مِن قَبۡلُ
وَلَمۡ تَكُ شَيۡـٔٗا ﴿٩﴾ قَالَ رَبِّ ٱجۡعَل لِّيٓ ءَايَةٗۖ قَالَ ءَايَتُكَ
أَلَّا تُكَلِّمَ ٱلنَّاسَ ثَلَٰثَ لَيَالٖ سَوِيّٗا ﴿١٠﴾ فَخَرَجَ عَلَىٰ قَوۡمِهِۦ

**08** 그가 말하기를 "주님이시여! 제 아내가 불임이고, 제가 아주 고령에 이르렀는데[13] 어떻게 저에게 사내아이가 있을 수 있나이까?"

**09** 그[천사]가 말하기를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게 쉬운 일이니라. 네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때[14]인 이전에 이미 나는 너를 창조했느니라.'"

**10** 그가 말하기를 "주님이시여! 저에게 증표를 주시옵소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증표[15]는 신체적으로 결함이 없으면서도 사람들에게 3일 밤(과 낮) 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16]

---

13) 이티이('itiyy)는 '늙어빠진, 노쇠한'이다. 당시 자카리야는 나이가 120세, 그의 부인은 98세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 존재하지 않았을 때, 태어나지 않았을 때.

15) 네 아내가 임신을 할 것이라는 증표.

16) 이 절 및 꾸란 3:41과 신약의 누가복음 1:5-25를 비교해보면, 그 내용에서 첫째, 자카리야가 말 못하는 이유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꾸란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기적적 증표 때문'이다. 둘째, 말 못하는 기간이 신약에서는 '이 일이 되는 날까지'이고 꾸란에서는 '3일 낮과 밤 동안'인 차이가 있다.

## 제 19 장

مِنَ ٱلۡمِحۡرَابِ فَأَوۡحَىٰٓ إِلَيۡهِمۡ أَن سَبِّحُواْ بُكۡرَةٗ وَعَشِيّٗا ١١
يَٰيَحۡيَىٰ خُذِ ٱلۡكِتَٰبَ بِقُوَّةٖۖ وَءَاتَيۡنَٰهُ ٱلۡحُكۡمَ صَبِيّٗا ١٢
وَحَنَانٗا مِّن لَّدُنَّا وَزَكَوٰةٗۖ وَكَانَ تَقِيّٗا ١٣ وَبَرَّۢا
بِوَٰلِدَيۡهِ وَلَمۡ يَكُن جَبَّارًا عَصِيّٗا ١٤ وَسَلَٰمٌ

**11** 그래서 그는 예배소[17]에서 그의 백성들에게로 나와서 그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몸짓으로 말하였느니라.

**12** (그의 아 들이 명령받기를) "오, 요한아! 책[성서]을 힘껏 잡아라[18]" 우리는 그가 아직 어렸을 때 그에게 지혜[19]를 주었느니라.

**13** 그리고 우리로부터(의 자비로) (사람들에게) 동정심[20]이 있고, (죄로부터) 순결하게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는 신앙심이 깊었느니라.

**14** 그는 그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거만하지도 불복종하지도 않았느니라.[21]

---

17) 여기서의 미흐라브(miḥrāb)는 '성소의 개인방, 예배실, 기도실'을 뜻한다. 오늘날에는 이슬람 성원 내부의 한 벽면에다가 예배방향인 메카쪽을 가리키기 위해 만들어놓은 벽감을 미흐라브라고 부른다.

18) 여기서의 책은 토라(Tawrāh 모세의 오경, Torah)다. 이 말은 '토라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잘 지켜라'라는 뜻이다.

19) 원래 후큼(ḥukm)은 '재판, 통치, 지배, 결정'이지만 여기서는 지혜(히크마 ḥikmah)로 번역된다. 불과 3살 때에 예언자가 지닐 비전(秘傳)의 지식이 내려졌다고 한다.

20) 하난(ḥanān)은 '동정심, 자애, 정다움, 부드러움'으로 남에게 다정 다감하고 늘 호의를 베푸는 애정어린 마음을 뜻한다.

21) 그가 '거만, 거역, 불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와 부모 양쪽 모두에 해당한다.

## 제 19 장

عَلَيْهِ يَوْمَ وُلِدَ وَيَوْمَ يَمُوتُ وَيَوْمَ يُبْعَثُ حَيًّا ﴿١٥﴾
وَٱذْكُرْ فِي ٱلْكِتَٰبِ مَرْيَمَ إِذِ ٱنتَبَذَتْ مِنْ أَهْلِهَا مَكَانًا شَرْقِيًّا ﴿١٦﴾
فَٱتَّخَذَتْ مِن دُونِهِمْ حِجَابًا فَأَرْسَلْنَآ إِلَيْهَا رُوحَنَا فَتَمَثَّلَ لَهَا
بَشَرًا سَوِيًّا ﴿١٧﴾ قَالَتْ إِنِّيٓ أَعُوذُ بِٱلرَّحْمَٰنِ مِنكَ إِن كُنتَ تَقِيًّا ﴿١٨﴾

**15 그가 태어난 날과 죽는 날, 그리고 (다시) 살아 부활하는 날에 그에게 평화가 있으라!**

**<제2부>**

**16 (무함마드여!) 성서[꾸란]에 있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라. 그녀가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동편의 한 곳으로 물러났을 때[22],**

**17 그녀는 그들이 없는 곳에 장막을 쳤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녀에게 우리의 성령[가브리엘][23]을 보냈으며, 그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녀에게 나타났느니라.**

**18 그녀가 (놀라) 말하였다. "진실로! 저는 가장 자비로운 분께 당신(이 다가오는 것)으로부터의 가호를 구하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경**

22) 동사 나바다(nabadha ~을 버리다, 거부하다, 단절하다)의 8형인 인타바다 민(intabadha min)은 '~로부터 물러나다, 떨어지다, 은신하다'의 의미이다. 예배와 기도에 헌신하기 위해 '성전 내 동쪽의 한 장소로 은거했을 때'의 뜻이다.

23) 루흐(rūḥ)는 '영, 영혼, 정신'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성령'을 의미하고 이는 천사 가브리엘(Gabriel, 아랍어 지브릴 Jibrīl)을 가리킨다. 꾸란의 여러 곳에서 가브리엘은 성령으로 불려진다. (꾸란 16:102, 26:193, 70:4 참조)

## 제 19 장

قَالَ إِنَّمَآ أَنَا۠ رَسُولُ رَبِّكِ لِأَهَبَ لَكِ غُلَٰمًا زَكِيًّا ﴿١٩﴾
قَالَتْ أَنَّىٰ يَكُونُ لِى غُلَٰمٌ وَلَمْ يَمْسَسْنِى بَشَرٌ وَلَمْ أَكُ بَغِيًّا ﴿٢٠﴾
قَالَ كَذَٰلِكِ قَالَ رَبُّكِ هُوَ عَلَىَّ هَيِّنٌ وَلِنَجْعَلَهُۥٓ ءَايَةً لِّلنَّاسِ
وَرَحْمَةً مِّنَّا وَكَانَ أَمْرًا مَّقْضِيًّا ﴿٢١﴾ ۞ فَحَمَلَتْهُ فَٱنتَبَذَتْ

외한다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시오!)"

19 그 [천사]가 말하기를 "실로, 나는 순결[24]한 아들[25] (의 선물)을 당신에게 주기 위해 온 당신 주님의 사자일 뿐입니다"

20 그녀가 말하기를 "어느 남자도 저와 접촉하지 않았고, 또 제가 부정한 여인[26]이 아닌데 어떻게 저에게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21 그가 말하기를 "그렇게 될 것입니다.[27] 당신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내게 쉬운 일이다. 사람들에게 한 증표로서, 우리로부터의 자비로 우리는 그를 만들 것이니라. 그리고 그것은[28] 이미 정해진 일이었느니라'"

---

24) 자키이(zakiyy)는 원래 '깨끗한, 순결한, 결백한'의 뜻이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서와 앞의 제13절에 있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그를 '순결하게 만드시어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신'이라는 의미로 보고, '올바른'으로 해석하고 있다.

25) 굴람(ghulām)은 '사내아이, 소년, 종'의 뜻이나 '아들'로도 매우 자주 쓰인다.

26) 바기이(baghiyy)는 '방탕, 음탕, 간음, 매음, 부화'의 뜻이다.

27) 당신 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28) 예수의 탄생.

## 제 19 장

بِهِۦ مَكَانًا قَصِيًّا ﴿٢٢﴾ فَأَجَآءَهَا ٱلْمَخَاضُ إِلَىٰ جِذْعِ ٱلنَّخْلَةِ
قَالَتْ يَٰلَيْتَنِى مِتُّ قَبْلَ هَٰذَا وَكُنتُ نَسْيًا مَّنسِيًّا ﴿٢٣﴾
فَنَادَىٰهَا مِن تَحْتِهَآ أَلَّا تَحْزَنِى قَدْ جَعَلَ رَبُّكِ تَحْتَكِ سَرِيًّا ﴿٢٤﴾
وَهُزِّىٓ إِلَيْكِ بِجِذْعِ ٱلنَّخْلَةِ تُسَٰقِطْ عَلَيْكِ رُطَبًا جَنِيًّا ﴿٢٥﴾ فَكُلِى

22 그리하여 그녀는 그를 잉태하였다.[29] 그리고 그녀는 (뱃속의) 그와 함께 멀리 떨어진 한 장소로[30] 은신해 갔느니라.

23 출산의 진통이 그녀를 대추야자나무 줄기로 (가서 매달리게) 이끌었느니라. 그녀가 말하기를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내가 죽었더라면 내가 잊혀진 망각의 (존재)가 되어 좋을텐데..."[31]

24 그녀의 아래로부터 그[천사]가 그녀를 부르면서 (말하기를) "슬퍼하지 마시오. 당신의 주님께서는 당신의 아래에 시냇물[32]을 만들어놓으셨습니다."

25 "대추야자나무 줄기를 당신 쪽으로 흔드십시오. 그것이 신선하고 잘 익은 대추야자를 당신 위로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

29) 가브리엘 천사는 단지 마리아의 옷 소매자락 안으로 숨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그녀는 임신하였다. (꾸란 21:91 참조)

30) 꾸란 주석가들은 이곳을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남쪽으로 떨어진 베들레헴(Bethlehem, 아랍어 Bayt al-Laḥm)으로 말하고 있다.

31) 라이타(layta)는 '~했더라면, ~라면 좋을텐데...'이다. 이 말은 '오! 이런 일 이전에 내가 죽었더라면 아주 완전히 잊혀져 좋았을 터인데...'라는 의미이다.

32) 싸리이(sariyy)는 '작은 시내, 개울'이다. 일부 아랍어학자들은 싸리윤이 시리아어로 '강'을 뜻한다고 말한다.

## 제 19 장

وَٱشْرَبِى وَقَرِّى عَيْنًا ۖ فَإِمَّا تَرَيِنَّ مِنَ ٱلْبَشَرِ أَحَدًا فَقُولِىٓ إِنِّى
نَذَرْتُ لِلرَّحْمَٰنِ صَوْمًا فَلَنْ أُكَلِّمَ ٱلْيَوْمَ إِنسِيًّا ﴿٢٦﴾ فَأَتَتْ
بِهِۦ قَوْمَهَا تَحْمِلُهُۥ ۖ قَالُوا۟ يَٰمَرْيَمُ لَقَدْ جِئْتِ شَيْـًٔا فَرِيًّا ﴿٢٧﴾
يَٰٓأُخْتَ هَٰرُونَ مَا كَانَ أَبُوكِ ٱمْرَأَ سَوْءٍ وَمَا كَانَتْ أُمُّكِ بَغِيًّا ﴿٢٨﴾

**26** "그러니 먹고 마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33)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보게 되면 '실로 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금언할 것34)을 맹세하였으니, 오늘 저는 어떤 사람과도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시오.35)"

**27** 그리고나서 그녀가 그[아들]를 안고 사람들에게 오니, 그들이 말하기를 "마리아야! 정녕 너는 기이한36) 것을 데리고 왔구나"

**28** "아론의 누이야37)! 네 아버지가 악한 사람이 아니었고 네 어머니도 부

---

33) 원래 까리이 아이난(qarriy 'aynan)의 직역은 '(너의)눈을 시원히 하라'이다. 동사 까르라(qarra 서늘하다, 신선해지다, 흡족해지다)는 뒤에 아이난('aynan 눈을)이 와서 '만족하다, 기뻐하다'라는 관용구로 쓰인다. 따라서 여기서의 의미는 '마음을 편히 갖고 만족해 하라'이다. 그러나 원래의 문어적 의미가 빛을 잃을 것도 아니다. 신선한 물로 눈물이 가득한 눈을 시원히 하고 마음을 편히 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4) 일반적으로 싸움(ṣawm)은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는 '금식, 단식'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말하는 것을 삼가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 이슬람 학자들은 완벽한 단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는 것 뿐 아니라 눈, 귀, 입을 통해 하는 모든 행위들을 절제하고 삼가는 근신행위로 말한다.

35) 입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몸짓으로만 말한다는 의미임.

36) 파리이(fariyy)는 '놀라운, 기이한, 보기드문, 대단한'의 뜻이다.

37) 아론(Aaron, 아랍어 하룬 Hārūn)은 이스라엘 성직자 계보의 첫 번째 인물이다. 마리아와 그녀의 사촌 엘리자베스(Elisabeth 요한의 모친)은 한 성직자 가문 출신이다. 꾸란 주석가들은 이 호칭을 '아론 부족의 누이여!'라고 말한다. 예컨대 아랍에서는 함단(Ḥamdān)부족 출신이면 '함단의 형제여!'라고 부른다. 한편 일부 주석가들은 여기서의 아론을 모세의 형 아론이 아니라 마리아 시대의 동명의 신앙심 깊었던 다른 인물로 보고, 원래 예배와 기도에 헌신적이었던 마리아를 '오, 예배에서 아론같았던 여인아!'

## 제 19 장

فَأَشَارَتْ إِلَيْهِ ۖ قَالُوا۟ كَيْفَ نُكَلِّمُ مَن كَانَ فِى ٱلْمَهْدِ صَبِيًّا ﴿٢٩﴾
قَالَ إِنِّى عَبْدُ ٱللَّهِ ءَاتَىٰنِىَ ٱلْكِتَٰبَ وَجَعَلَنِى نَبِيًّا ﴿٣٠﴾ وَجَعَلَنِى مُبَارَكًا
أَيْنَ مَا كُنتُ وَأَوْصَٰنِى بِٱلصَّلَوٰةِ وَٱلزَّكَوٰةِ مَا دُمْتُ حَيًّا ﴿٣١﴾
وَبَرًّۢا بِوَٰلِدَتِى وَلَمْ يَجْعَلْنِى جَبَّارًا شَقِيًّا ﴿٣٢﴾ وَٱلسَّلَٰمُ عَلَىَّ يَوْمَ

정한 여인이 아니었다."

**29** 그러자 그녀는 그(아기)를 가르켰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요람안에 있는 아이와 말을 하란 말이냐? [38]

**30** 그(아기)가 말하기를 "진실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분께서는 나에게 성서를 주셨으며, 나를 예언자로 만드셨습니다."

**31** "그분께서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축복받게 만드셨으며, 내가 살아있는 한 예배를 드리고 자카트[39]를 바치도록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32** "그리고 나의 어머니에게 효도하게 (만드셨고), 거만하거나 은혜받지 못하는 불행한 자[40]로 나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

라는 의미로 부른 것이라고 해석한다.

38) 예수는 요람에서 말을 하여 곤경에 처해있던 어머니 마리아를 구하였다. 같은 내용의 다른 꾸란계시는 꾸란 4:46 참조.

39) 예배(ṣalāt)와 자카트(zakāt 구빈종교세, 희사)는 무슬림이면 누구나 실천해야만 하는 의무행위이다. 하루 다섯 차례 예배하고 수입의 1/40을 자카트로 바쳐서 구빈 및 하나님의 길을 위해 신앙공동체에서 쓰이도록 해야 한다.

40) 샤끼이(shaqiyy)는 '불행한, 독단적인, 흉악한, 고약한'의 뜻으로 여기서는 '은혜받지 못한 사악하고 독단적인 사람'을 가리킨다.

## 제 19 장

وُلِدتُّ وَيَوْمَ أَمُوتُ وَيَوْمَ أُبْعَثُ حَيًّا ﴿٣٣﴾ ذَٰلِكَ عِيسَى ٱبْنُ
مَرْيَمَ قَوْلَ ٱلْحَقِّ ٱلَّذِى فِيهِ يَمْتَرُونَ ﴿٣٤﴾ مَا كَانَ لِلَّهِ أَن يَتَّخِذَ
مِن وَلَدٍ سُبْحَٰنَهُۥٓ إِذَا قَضَىٰٓ أَمْرًا فَإِنَّمَا يَقُولُ لَهُۥ كُن فَيَكُونُ ﴿٣٥﴾
وَإِنَّ ٱللَّهَ رَبِّى وَرَبُّكُمْ فَٱعْبُدُوهُ هَٰذَا صِرَٰطٌ مُّسْتَقِيمٌ ﴿٣٦﴾ فَٱخْتَلَفَ

**33** "내가 태어나던 날과 내가 죽는 날, 그리고 다시 살아 부활되는 날에 내게 평화가 있게 하셨습니다." 41)

**34** 이러한 것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이것은) 그들이 논쟁하고 있는 것 42)에 대한 진리의 말이니라.

**35** 아들을 가지신다는 것은 그분[알라]께는 있을 수 없는 말이니라. 43)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옵니다! 44) 그분께서 어떤 일을 정하실 때, 그분께서는 단지 말씀하시기를 "있어라!" 45) 그러면 그것이 있게 되느니라.

**36** (예수가 말하기를)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님이시오, 당신들의 주님이시니 그분을 숭배하십시오. 그것이 올바른 길 46)입니다."

---

41) 앞의 제15절, 요한에게 언급된 계시와 거의 동일하다. 예수는 신의 사자였다. 태어나 죽고, 다시 부활할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다.

42)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 의혹 속에 논쟁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

43)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는 말은 할 수도 없거니와, 있을 수도 없는 불경의 말이다. 예수가 누구인가는 꾸란 4:171 참조.

44) '수브하나후(subḥānahu 그분의 영광을 찬양합니다!)'라는 여기서의 표현은 원래의 뜻인 '찬양과 찬미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의 말이 아니라 말이 안되는 극한적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놀람의 관용적 표현이다. '앞의 말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절대부정의 의미로 너무나 기가 막혀 무의식적으로 놀람의 표현을 쏟아놓을 때 쓰는 말이다.

45) '있어라!'라는 이 명령어는 '있으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명령형 동사의 의미뿐 아니라 '되라', '하라'라는 포괄적 의미를 갖는다.

## 제19장

ٱلْأَحْزَابُ مِنۢ بَيْنِهِمْ ۖ فَوَيْلٌ لِّلَّذِينَ كَفَرُوا۟ مِن مَّشْهَدِ يَوْمٍ عَظِيمٍ ﴿٣٧﴾ أَسْمِعْ
بِهِمْ وَأَبْصِرْ يَوْمَ يَأْتُونَنَا ۖ لَٰكِنِ ٱلظَّٰلِمُونَ ٱلْيَوْمَ فِى ضَلَٰلٍ مُّبِينٍ ﴿٣٨﴾
وَأَنذِرْهُمْ يَوْمَ ٱلْحَسْرَةِ إِذْ قُضِىَ ٱلْأَمْرُ وَهُمْ فِى غَفْلَةٍ وَهُمْ لَا يُؤْمِنُونَ ﴿٣٩﴾
إِنَّا نَحْنُ نَرِثُ ٱلْأَرْضَ وَمَنْ عَلَيْهَا وَإِلَيْنَا يُرْجَعُونَ ﴿٤٠﴾ وَٱذْكُرْ فِى ٱلْكِتَٰبِ

**37**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 분파들이 (생겨) 의견을 달리하였느니라.[47] 그러니 위대한 날의 증언대에서 믿지 않았던 자들[48]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38** 그들이 우리에게로 오는 날, 그들이 듣고 보게 될 것은 얼마나 분명한 일인가! 그러나 오늘(에도) 잘못을 저지르는 자들[잘리문][49]은 분명한 오류[50]속에 있느니라.

**39** 그러니 (오, 무함마드여!) 그 일[심판]이 판결나는 때인 그 비통한 날[51]을 그들에게 경고하라. 그러나 그들은 무관심 속에 있고, 또 그들은 믿지도 않느니라.

**40** 진실로, 우리는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상속할 것이고[52], 우리에

46) 씨라뜨 무스타낌(ṣirāṭ mustaqīm 올바른 길)은 꾸란 전체에서 강조되는 '진리의 길, 하나님의 길, 천국으로의 길'로 그 길이 바로 '이슬람'이다.

47) 예수의 추종자들 사이에서도 분파들이 생겨나 견해를 달리하였다.

48) 위대한 날은 '심판의 날'이다. 그날 증언하는 모임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잘못된 증언을 하는 자들에게는'의 뜻이다.

49) 잘리문(ẓalimūn)은 '잘못을 저지르는 자, 악행을 저지르는 죄인, 불의 부당한 자'에 대한 통칭이다. 우상숭배자, 다신교도들도 잘리문으로 불리운다.

50) 될랄(ḍalāl)은 '오류, 방황'의 뜻으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나타낼 때 자주 쓰인다.

51) 하스라(ḥasrah)는 '슬픔, 비애, 불행, 고통'이다. 비통의 날은 물론 심판의 날을 가리킨다.

52)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창조물 모두의 주인이시며, 천지개벽의 날 그 모든 것의 상속자

## 제 19 장

إِبْرَٰهِيمَ ۚ إِنَّهُۥ كَانَ صِدِّيقًا نَّبِيًّا ﴿٤١﴾ إِذْ قَالَ لِأَبِيهِ يَـٰٓأَبَتِ لِمَ تَعْبُدُ مَا لَا
يَسْمَعُ وَلَا يُبْصِرُ وَلَا يُغْنِى عَنكَ شَيْـًٔا ﴿٤٢﴾ يَـٰٓأَبَتِ إِنِّى قَدْ جَآءَنِى
مِنَ ٱلْعِلْمِ مَا لَمْ يَأْتِكَ فَٱتَّبِعْنِىٓ أَهْدِكَ صِرَٰطًا سَوِيًّا ﴿٤٣﴾
يَـٰٓأَبَتِ لَا تَعْبُدِ ٱلشَّيْطَـٰنَ ۖ إِنَّ ٱلشَّيْطَـٰنَ كَانَ لِلرَّحْمَـٰنِ عَصِيًّا ﴿٤٤﴾

게로 그것들 모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니라.

<제3부>

41 성서[꾸란]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라. 진실로, 그는 진실한 사람이요 예언자였느니라.

42 그가 그의 아버지[53]에게 말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나의 아버지여! 당신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며 당신께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무엇 때문에 숭배합니까?"

43 "나의 아버지여! 실로, 당신에게 오지 않았던 지식이 제게 왔습니다. 그러니 저를 따르십시오. 제가 당신을 바른 길[54]로 인도하겠습니다."

44 "나의 아버지여! 사탄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실로 사탄은 가장 자비스

---

이시다. 같은 내용의 구절이 꾸란 3:180, 15:23에서 반복된다.

53) 아브라함(아랍어 이브라힘 Ibrāhīm)의 아버지 데라(Terah 아랍어 아자르 Azar)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

54) 싸위얀(sawiyyan)은 '올바른, 똑같은, 완벽한, 완전한'이다. 여기서는 '올바른 길'위에 있도록 인도하겠다는 표현을 위해 쓰여졌다. 앞의 10절에서는 '완전한 몸'이면서도 말을 못하는 경우를 위해 쓰였고, 또 17절에서는 '똑같은 사람'의 형태로 천사가 출현하였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쓰여졌다.

## 제 19 장

يَٰٓأَبَتِ إِنِّيٓ أَخَافُ أَن يَمَسَّكَ عَذَابٌ مِّنَ ٱلرَّحْمَٰنِ فَتَكُونَ
لِلشَّيْطَٰنِ وَلِيًّا ﴿٤٥﴾ قَالَ أَرَاغِبٌ أَنتَ عَنْ ءَالِهَتِى يَٰٓإِبْرَٰهِيمُ لَئِن
لَّمْ تَنتَهِ لَأَرْجُمَنَّكَ وَٱهْجُرْنِى مَلِيًّا ﴿٤٦﴾ قَالَ سَلَٰمٌ
عَلَيْكَ سَأَسْتَغْفِرُ لَكَ رَبِّىٓ إِنَّهُۥ كَانَ بِى حَفِيًّا ﴿٤٧﴾

러운 분께 거역한 자였습니다."

45 "나의 아버지여! 실로, 저는 가장 자비로우신 분으로부터 징벌이 당신께 덮쳐올까 두렵고, 당신이 사탄의 동무[55]가 될까 두렵습니다."

46 그[아버지]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신들을 혐오하느냐?[56] 만약 네가 그만두지 않는다면, 정말로 내가 너를 돌로 치리라.[57] 그러니 내게서 오랫동안[58] 떠나라!"

47 그[아브라함]가 말하기를 "평화가 당신께 있기를![59] 저의 주님께 당신을 위해 용서를 빌겠습니다.[60] 진실로 그분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베

---

55) 왈리이(waliyy)는 '보호자, 방어자, 상속인, 후계자, 친구'의 뜻으로 꾸란의 여러 구절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여기서는 '친구, 동무'의 뜻이고 앞의 5절에서는 '상속자, 후계자'의 의미로 쓰였다.

56) 라기브(rāghib)는 '희망자, ~을 염원하는'의 뜻이나 뒤에 전치사 안('an)이 오면 반대로 '~을 싫어하는, 혐오하는'의 의미가 된다.

57) 동사 라자마(rajama)는 '~을 돌멩이로 치다'이다. 여기서의 의미는 '정말 너를 벌주겠다'이다.

58) 말리얀(maliyyan)은 '한동안, 오랫동안'이다. 일부 꾸란주석가들은 '영원히'로 해석하기도 한다.

59) 여기서의 '쌀람 알라이카'은 예사 인사말이 아니다. 무슬림들은 무지한 말, 헛된 말, 시비의 말을 들었을 때에도 그 댓구로 이 말을 쓴다.

60) 내쫓기면서도 아브라함은 아버지에게 공손하였다. '당신이 안전하길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겠습니다'의 뜻이다.

## 제 19 장

وَأَعْتَزِلُكُمْ وَمَا تَدْعُونَ مِن دُونِ ٱللَّهِ وَأَدْعُواْ رَبِّى عَسَىٰٓ أَلَّآ
أَكُونَ بِدُعَآءِ رَبِّى شَقِيًّا ﴿٤٨﴾ فَلَمَّا ٱعْتَزَلَهُمْ وَمَا يَعْبُدُونَ مِن
دُونِ ٱللَّهِ وَهَبْنَا لَهُۥٓ إِسْحَٰقَ وَيَعْقُوبَ ۖ وَكُلًّا جَعَلْنَا نَبِيًّا ﴿٤٩﴾
وَوَهَبْنَا لَهُم مِّن رَّحْمَتِنَا وَجَعَلْنَا لَهُمْ لِسَانَ صِدْقٍ عَلِيًّا ﴿٥٠﴾

풀어주시는 분[61]이십니다.!"

48 "저는 당신들과, 당신들이 빌고 있는 하나님 외의 것[우상]들로부터 멀리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주님께 드리는 기도에 제가 불행히 (은혜를 못받게)되지는 않으리라 기대합니다.[62]

49 그래서 그가 그들과 하나님 외에 그들이 숭배했던 것들로부터 멀리 떠나갔을 때[63], 우리는 그에게 이삭과 야곱을 주었으며 또 우리는 그들 각각을 예언자로 만들었느니라.[64]

50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자비를 베풀어주었으며, 또 진리의 혀를 그들에게 주어 높은(칭송을 받게) 했느니라.[65]

---

61) 하피이(ḥafiyy)는 '환대하는, 환영하는, 친절히 맞이하는'이다.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서의 이 단어를 '친절히 응답의 은혜를 주시는'으로 해석한다.

62)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저에게 응답의 은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의 뜻임.

63) 아브라함은 아버지 고향인 칼데아(Chaldea)의 우르(Ur)에서 나와 하란(Haran)에 정착하였다가 다시 하란을 떠나 샴(ash-Shām 오늘날의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요르단을 포함하는 지역명)으로 이주하여 살았다. 구약에서는 최후 정착지를 가나안(Canaan 팔레스타인)으로 말하고 있다. (창세기 11:31-12:5 참조)

64) 아브라함 혈통의 이삭(Isaac 아랍어 이스하끄 Isḥāq)과 야곱(Ya'qūb) 계보가 먼저 언급된다. 같은 계보의 아론 Aron (Hārūn)과 모세(Mose 아랍어 무사Mūsā)가 언급(51-53절)된 뒤, 또 다른 계보 이스마일(Ismā'īl 영어 Ismael)이 그 다음 제54-55절에서 언급된다.

## 제 19 장

وَٱذْكُرْ فِي ٱلْكِتَٰبِ مُوسَىٰٓ ۚ إِنَّهُۥ كَانَ مُخْلَصًا وَكَانَ رَسُولًا
نَّبِيًّا ﴿٥١﴾ وَنَٰدَيْنَٰهُ مِن جَانِبِ ٱلطُّورِ ٱلْأَيْمَنِ وَقَرَّبْنَٰهُ نَجِيًّا ﴿٥٢﴾ وَوَهَبْنَا لَهُۥ
مِن رَّحْمَتِنَآ أَخَاهُ هَٰرُونَ نَبِيًّا ﴿٥٣﴾ وَٱذْكُرْ فِي ٱلْكِتَٰبِ
إِسْمَٰعِيلَ ۚ إِنَّهُۥ كَانَ صَادِقَ ٱلْوَعْدِ وَكَانَ رَسُولًا نَّبِيًّا ﴿٥٤﴾

<제4부>

51 성서[꾸란]에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라. 실로 그는 선택된 자[66]였으며, 사자이고 예언자였느니라.

52 우리는 그를 (시나이)산[67]의 오른쪽에서 불렀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비밀스러운 말을 해주려고[68] 그를 가까이 오게 하였느니라.

53 우리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의 형 아론도 예언자로 만들어주었느니라.[69]

54 성서에서 이스마일(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라. 실로 그는 약속을 지

65) 리싼(lisān)은 '혀, 언어, 말'을 뜻한다. 꾸란에서 혀로 쓰인 경우는 꾸란 75:16에 있고, 언어는 14:4에, 말, 웅변은 28:34에 있다. 여기서는 '진리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전하는 '혀'를 의미한다. 일부 주석가들은 '진리의 혀, 말'을 '명성'으로 번역한다. '하나님께서 높은 영예와 명성을 얻게 해 주셨다'는 해석이다. 이삭과 야곱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세 종교 모두에서 높은 명성으로 칭송받고 있다.

66) 무클리쓰(mukhliṣ)는 '진정으로 헌신적인, 성실한'이고 무클라쓰(mukhlaṣ)는 '선택된, 선택된 자'이다.

67) 뚜르(ṭūr)는 '산'의 뜻으로 모세가 계시를 받은 시나이 산을 지칭한다.

68) 나지이(najiyy)는 '비밀, 기밀, 밀담'의 뜻이다. 그에게 '계시를 내려 주려고'의 의미이다.

69) 모세는 그의 형 아론을 조력자로 삼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저의 형제 하룬(아론)은 저보다 웅변이 더 능합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하는 조력자로 그를 보내주소서. 그가 저를 믿게 할 것입니다. 실로 저는 그들이 저를 거짓이라 거부할까 두렵나이다." (꾸란 28:34). 더 상세한 같은 내용의 계시는 꾸란 20:25-36 참조할 것.

## 제 19 장

وَكَانَ يَأۡمُرُ أَهۡلَهُۥ بِٱلصَّلَوٰةِ وَٱلزَّكَوٰةِ وَكَانَ عِندَ رَبِّهِۦ مَرۡضِيّٗا ٥٥

وَٱذۡكُرۡ فِي ٱلۡكِتَٰبِ إِدۡرِيسَۚ إِنَّهُۥ كَانَ صِدِّيقٗا نَّبِيّٗا ٥٦ وَرَفَعۡنَٰهُ مَكَانًا

عَلِيًّا ٥٧ أُوْلَٰٓئِكَ ٱلَّذِينَ أَنۡعَمَ ٱللَّهُ عَلَيۡهِم مِّنَ ٱلنَّبِيِّـۧنَ مِن ذُرِّيَّةِ ءَادَمَ

وَمِمَّنۡ حَمَلۡنَا مَعَ نُوحٖ وَمِن ذُرِّيَّةِ إِبۡرَٰهِيمَ وَإِسۡرَٰٓءِيلَ وَمِمَّنۡ هَدَيۡنَا

키는 자였으며[70], (신의) 사자였고 예언자였느니라.

55 그는 그의 친족과 사람들[71]에게 예배와 자카트를 명령하였으며, 그의 주님께서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사람이었느니라.

56 성서에서 이드리스(에 대한 이야기)[72]를 언급하라. 실로 그는 진실한 자였으며, 예언자였느니라.

57 우리는 그를 높은 위치로 올렸느니라.[73]

58 이들은[74] 아담의 자손들 중 예언자들 출신들로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은총을 내려주셨던 그런 자들이니라. 그들 중[75]에는 우리가 노아와 함께 (배로) 운반했던 자들이 있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자손들[76]이

---

70)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 제물(adh-dhabīḥ)이 되기로 약속하였고, 하나님 명에 의해 희생 제물이 한 양으로 대체될 때까지 흔들림이 없었다.

71) 아흘('ahl)은 '친척, 가족, 주민, 백성, 사람들'을 나타내는데 두루 쓰인다. 여기서는 그의 공동체 사람 모두를 뜻하는 넓은 의미의 아흘론이다. 그는 아랍인의 조상으로 일컬어진다. 그의 자손에서 예언자 무함마드가 출생한다.

72) 이드리스(Idrīs)는 구약성서 속의 에녹(Enoch)이다. 예언자 노아(Noah)의 고조부다.

73) 이슬람 전통에서 그는 아담 이후 노아 사이에 등장하는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말해진다.

74) 예컨대 지금까지 등장한 이드리스, 아브라함, 이스마일, 이삭, 야곱, 모세, 아론, 자카리야, 요한, 예수 등 예언자들 모두를 가리킴.

75)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 제 19 장

وَٱجْتَبَيْنَآ إِذَا تُتْلَىٰ عَلَيْهِمْ ءَايَٰتُ ٱلرَّحْمَٰنِ خَرُّواْ سُجَّدًا وَبُكِيًّا ۩ ﴿٥٨﴾
۞ فَخَلَفَ مِنۢ بَعْدِهِمْ خَلْفٌ أَضَاعُواْ ٱلصَّلَوٰةَ وَٱتَّبَعُواْ ٱلشَّهَوَٰتِ
فَسَوْفَ يَلْقَوْنَ غَيًّا ﴿٥٩﴾ إِلَّا مَن تَابَ وَءَامَنَ وَعَمِلَ صَٰلِحًا
فَأُوْلَٰٓئِكَ يَدْخُلُونَ ٱلْجَنَّةَ وَلَا يُظْلَمُونَ شَيْـًٔا ﴿٦٠﴾ جَنَّٰتِ عَدْنٍ

**있으며, 또 우리가 인도했으며, 우리가 선택했던 자들이 있느니라. 가장 자비로우신 분의 계시들이 그들에게 낭송되었을 때, 그들은[77]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며 눈물을 흘렸느니라.[78]**
**59 그런데 그들의 다음에는 예배를 잃어버리고[79], (사악한) 욕망을 좇는 후손들이 뒤를 이었느니라. 그들은 파멸[지옥][80]을 맞게 될 것이니라.**
**60 (그러나) 회개하는 자와 믿는 자들[81], 그리고 올바른 선행자들은 제외될 것이다.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어떤 것도 잘못되지 않을 것이**

---

76) 아브라함의 자손은 특히 이스마일과 이삭을 뜻하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야곱, 모세, 아론, 자카리야, 요한, 예수 등을 가리킨다.

77) 하나님의 사자들, 예언자들과 그들의 후손, 신실한 추종자들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고 선택받은 참된 신앙인,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자 모두를 가리킴.

78) 여기서와 같이 싸자다(sajada 절하다, 숭배하다)동사가 있는 '싸즈다(sajdah 절)의 절'이 낭송되면 무슬림들은 엎드려 절해야만 한다. 꾸란 내에 14곳이 있다. 이 꾸란본에서는 ۩로 표시되었다. 이 책의 제96장(응혈의 장) 19절의 각주와 주해 참조.

79) 4형동사 아돠아('aḍā'a)는 '~을 놓치다, 잃다, 상실하다'로 여기서의 의미는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말한다.

80) 가이(ghayy)의 문어적인 뜻은 '잘못, 오류, 착오, 죄'이지만 여기서와 같이 목적격, 은유적으로 쓰여 가이얀(ghayyan)이 되면 '멸망, 파멸'을 뜻하고 구체적으로는 지옥의 깊은 한 계곡을 일컫는 말이 된다. 따라서 많은 주석가들이 파멸보다 직접 지옥으로 해석한다.

81) 유일하신 하나님(Allāh)만을 믿고, 그분의 최후 예언자 무함마드의 길을 따르는 자.

## 제 19 장

ٱلَّتِي وَعَدَ ٱلرَّحۡمَٰنُ عِبَادَهُۥ بِٱلۡغَيۡبِۚ إِنَّهُۥ كَانَ وَعۡدُهُۥ مَأۡتِيّٗا ﴿٦١﴾
لَّا يَسۡمَعُونَ فِيهَا لَغۡوًا إِلَّا سَلَٰمٗاۖ وَلَهُمۡ رِزۡقُهُمۡ فِيهَا بُكۡرَةٗ
وَعَشِيّٗا ﴿٦٢﴾ تِلۡكَ ٱلۡجَنَّةُ ٱلَّتِي نُورِثُ مِنۡ عِبَادِنَا مَن كَانَ تَقِيّٗا ﴿٦٣﴾ وَمَا
نَتَنَزَّلُ إِلَّا بِأَمۡرِ رَبِّكَۖ لَهُۥ مَا بَيۡنَ أَيۡدِينَا وَمَا

니라.82)

61 (그들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약속하셨던 보이지 않는 곳인 에덴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니라). 실로,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될 것이니라.83)

62 그들은 거기에서 평화(의 인사말)84) 외에는 어떤 헛된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니라. 또한 그곳에는 아침 저녁으로85) 그들에게 양식86)이 주어질 것이니라.

63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87)인 우리의 종들에게 상속시켜주는 천국이니라.

---

82) 조금도 잘못됨이 없고, 결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임.

83) 마으티얀(ma'tiyyan)은 많은 주석가들이 '분명히 올 것'으로 해석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아랍인들은 "나는 50살이다"를 간접적으로 둘러서 표현할 때 "50년이 내게 왔고 내가 50년에게로 왔다"라고 말한다. 그것이 오는 것은 필연이다.

84) 천국에 들어갈 때 천사들이 '평화가 있기를!'이라고 환영의 인사말을 한다.

85) 천국에 낮과 밤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항상'을 뜻하는 상징적 표현이다.

86) 리즈끄(rizq)는 '양식, 식량, 음식, 먹을 것'등 생명력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는 '영육을 만족시켜주는 모든 것들'의 의미이다.

87)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경건하며 독실한 자들'로 알 물타꾼(al-muttaqūn)을 말한다.

## 제 19 장

خَلْفَنَا وَمَا بَيْنَ ذَٰلِكَ ۚ وَمَا كَانَ رَبُّكَ نَسِيًّا ﴿٦٤﴾
رَّبُّ ٱلسَّمَٰوَٰتِ وَٱلْأَرْضِ وَمَا بَيْنَهُمَا فَٱعْبُدْهُ وَٱصْطَبِرْ لِعِبَٰدَتِهِۦ ۚ هَلْ تَعْلَمُ
لَهُۥ سَمِيًّا ﴿٦٥﴾ وَيَقُولُ ٱلْإِنسَٰنُ أَءِذَا مَا مِتُّ لَسَوْفَ أُخْرَجُ حَيًّا ﴿٦٦﴾
أَوَلَا يَذْكُرُ ٱلْإِنسَٰنُ أَنَّا خَلَقْنَٰهُ مِن قَبْلُ وَلَمْ يَكُ شَيْـًٔا ﴿٦٧﴾ فَوَرَبِّكَ

**64** (천사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대의 주님의 명령이 아니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과 우리 뒤에 있는 것과 그 가운데 있는 것(모두가) 그분께 속합니다.88) 그리고 그대의 주님께서는 (어떤 것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65** "(그분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숭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숭배하기 위해 끊임없이 인내하십시오. 그대는 그분과 같은 이름으로 불릴만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89)

<제5부>

**66**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한다.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오게 된다고?"

**67** 그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때인 이전에90), 실로 우리가 그를

---

88) 일부 주석가들은 앞에 있는 것을 '현세 삶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을 '내세 삶에 있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두 나팔소리(sūr 천지개벽 때와 부활·심판의 시작 때 울리는 나팔소리) 사이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다른 주석가들은 앞의 것을 '내세 삶에 있을 것', 뒤의 것을 '현세 삶에 일어났던 것', 가운데 있는 것을 '현세와 내세 둘 사이에 있는 것, 혹은 일어날 것'으로 말한다.

89) 하나님과 유사하거나 대등한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분께는 결코 비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 제 19 장

لَنَحْشُرَنَّهُمْ وَٱلشَّيَٰطِينَ ثُمَّ لَنُحْضِرَنَّهُمْ حَوْلَ جَهَنَّمَ جِثِيًّا ﴿٦٨﴾
ثُمَّ لَنَنزِعَنَّ مِن كُلِّ شِيعَةٍ أَيُّهُمْ أَشَدُّ عَلَى ٱلرَّحْمَٰنِ عِتِيًّا
﴿٦٩﴾ ثُمَّ لَنَحْنُ أَعْلَمُ بِٱلَّذِينَ هُمْ أَوْلَىٰ بِهَا صِلِيًّا ﴿٧٠﴾ وَإِن
مِّنكُمْ إِلَّا وَارِدُهَا كَانَ عَلَىٰ رَبِّكَ حَتْمًا مَّقْضِيًّا ﴿٧١﴾

창조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이냐?

68 그대의 주님께 걸고 맹세하노니, 정말로 우리는 그들[91]과 사탄들을 (한 곳에) 모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릎을 꿇린 채[92] 지옥 주변으로 그들을 데려갈 것이니라.[93]

69 그리고나서 우리는 그들 중 어느 누가 가장 자비스러우신 분께 가장 완강히 거역하였는지 각 무리 중에서 (그들을) 틀림없이 끌어낼 것이니라.

70 그리고 우리는 정녕 거기 [지옥]에서 불태워져야 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느니라.

71 너희 중에서 그곳에 오지 않을 자가 없느니라.[94] 그것은 그대의 주님

---

90) 존재하지 않았을 때, 즉 태어나기 이전에.

91) 부활과 내세를 부정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

92) 여기서와 제72절에 있는 지시이얀(ji<u>th</u>iyyan)은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상태로'를 의미한다.

93) 지옥은 7개층이 있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도 7개이다. (꾸란 15:44 참조)

94) 와리드(wārid)는 '오는, 도착하는'이다. 천국에 가는 자도 지옥에 가는 자와 마찬가지로 지옥을 보게 하고 티끌만한 죄값에도 응당한 처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지옥 앞에 데려와진다. 일부 주석가들은 '누구든 그곳을 지나가지 않을 자 없느니라'라고 해석한다. 이슬람 전통에서는 누구든 지옥 앞에 와서 지옥 위에 놓여있는 씨라뜨(ṣirāṭ)라는 다리를 건너가야 한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해석은 모든 사람이 '일단 지옥에 오지 않을 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여기서의 '너희' 대명사를 위 69절의 '가장 완강히 거역하는 자들'로 보고 죄지은 사악한 자들 중에서 지옥에

## 제 19 장

ثُمَّ نُنَجِّي ٱلَّذِينَ ٱتَّقَوا۟ وَّنَذَرُ ٱلظَّٰلِمِينَ فِيهَا جِثِيًّا ﴿٧٢﴾
وَإِذَا تُتْلَىٰ عَلَيْهِمْ ءَايَٰتُنَا بَيِّنَٰتٍ قَالَ ٱلَّذِينَ كَفَرُوا۟ لِلَّذِينَ ءَامَنُوٓا۟ أَىُّ
ٱلْفَرِيقَيْنِ خَيْرٌ مَّقَامًا وَأَحْسَنُ نَدِيًّا ﴿٧٣﴾ وَكَمْ أَهْلَكْنَا قَبْلَهُم مِّن
قَرْنٍ هُمْ أَحْسَنُ أَثَٰثًا وَرِءْيًا ﴿٧٤﴾ قُلْ مَن كَانَ فِى ٱلضَّلَٰلَةِ

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요, 정해진 일이니라.[95]

72 그리고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구할 것이고 잘못을 저지른 죄인들 [잘리문][96]은 무릎을 꿇린 채로 그곳에 내버려둘 것이니라.[97]

73 우리의 계시들이 분명한 징표들[98]로 그들에게 낭송되어질 때,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에게[99] "(우리) 두 집단 중 어느 쪽이 좋은 위치[100]이고 더 나은 모임체[101]인가?"라고 말하였느니라.

74 그런데 그들 이전에 우리가 재물에 있어서나 외형상으로나 더 훌륭했던

---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95) 하트만(ḥatman)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기어이'의 뜻으로 '운명으로 정해진'을 의미한다.

96) 앞의 제38절, 각주 48에서 보았듯이, 잘리문(ẓālimûn)은 '불의 부당한, 불공평한, 잔인한, 억압자, 폭군, 압제자'뿐 아니라 '죄지은 자'를 포괄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자'에 대한 통칭이다. 꾸란에서는 다신교도, 우상숭배자, 악행자, 죄인 모두를 가리킨다.

97) 지옥불에 영원히 남아있어야 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98) 꾸란의 말씀, 율법, 법령들로써의 뜻임.

99) 앞의 믿지 않는 자들은 부유하고 지배층이던 꾸라이쉬 우상숭배자들이고, 뒤의 믿는 자들은 가난하고 피지배민이던 예언자 무함마드의 추종자들을 가리킨다.

100) 여기서 지위, 위치를 뜻하는 단어 마깜(maqām)은 일부 주석가들에 의해 '집, 거주지, 거처'로 번역된다.

101) 나딘(nādin)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회합하는 장소'이다. 현재에도 스포츠 클럽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교하고 회합하는 장소를 나디(클럽)라고 부른다.

## 제 19 장

فَلْيَمْدُدْ لَهُ ٱلرَّحْمَٰنُ مَدًّا ۚ حَتَّىٰٓ إِذَا رَأَوْا۟ مَا يُوعَدُونَ إِمَّا ٱلْعَذَابَ
وَإِمَّا ٱلسَّاعَةَ فَسَيَعْلَمُونَ مَنْ هُوَ شَرٌّ مَّكَانًا وَأَضْعَفُ جُندًا ﴿٧٥﴾
وَيَزِيدُ ٱللَّهُ ٱلَّذِينَ ٱهْتَدَوْا۟ هُدًى ۗ وَٱلْبَٰقِيَٰتُ ٱلصَّٰلِحَٰتُ
خَيْرٌ عِندَ رَبِّكَ ثَوَابًا وَخَيْرٌ مَّرَدًّا ﴿٧٦﴾ أَفَرَءَيْتَ ٱلَّذِى كَفَرَ

얼마나 많은 시대의 사람들을 멸망시켰던가!

75 말하라 (무함마드여!) "잘못 속에 방황하고 있는 자[102]에게는 가장 자비로우신 분께서 (그가 받게 될) 형벌이든 (최후 심판의) 시간이든 그들이 약속받은 것을 그들이 볼 때까지, 그에게 연장시켜 유예해 놓으셨을 뿐이다.[103]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누가 나쁜 위치에 있고, 누가 더 약한 군병[모임체]인가를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이다."

76 하나님께서는 인도받은 사람들에게 인도를 더해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지속되는 올바른 선행들은 그대의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보상이요, (그 자신에게 돌아 갈) 가장 좋은 보답[104]이니라.

---

102) 잘못된 길에 빠져 헤매고 있는 죄인들.

103) 그가 가진 부, 지위, 명예, 권력의 소유시간을 심판의 날까지 다만 유예시켜 둘 것이다.

104) 마랃드(maradd)는 '궁극적으로 돌아옴'의 뜻이다. 결국 자신에게 '결과로 돌아올 것'의 의미이다. 같은 구절이 꾸란 18:46에도 계시되었는데 이 단어 마랃드가 아말(amal 희망)으로 바뀌어져있다. 선행은 마침내 천국으로 보답받는다.

## 제 19 장

بِـَٔايَٰتِنَا وَقَالَ لَأُوتَيَنَّ مَالًا وَوَلَدًا ﴿٧٧﴾ أَطَّلَعَ ٱلْغَيْبَ أَمِ ٱتَّخَذَ
عِندَ ٱلرَّحْمَٰنِ عَهْدًا ﴿٧٨﴾ كَلَّا ۚ سَنَكْتُبُ مَا يَقُولُ وَنَمُدُّ
لَهُۥ مِنَ ٱلْعَذَابِ مَدًّا ﴿٧٩﴾ وَنَرِثُهُۥ مَا يَقُولُ وَيَأْتِينَا فَرْدًا ﴿٨٠﴾
وَٱتَّخَذُوا۟ مِن دُونِ ٱللَّهِ ءَالِهَةً لِّيَكُونُوا۟ لَهُمْ عِزًّا ﴿٨١﴾

**77** (무함마드여!) 그대는 우리의 계시들을[105] 믿지 않았으면서 "나는 틀림없이 부와 자식들을 (내세에서도) 받을 거야"라고 말하는 자를 보았느냐?

**78** 보이지 않는 것을 그가 안다는 말이냐? 아니면 그가 가장 자비로우신 분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다는 말이냐?

**79** 결코 아니로다! 그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록하여 둘 것이고, 그에게 (내려질) 형벌을 우리가 더 늘릴 것이니라.

**80** 그리고 우리가 그로부터 그가 말하는 것[부와 자손] 모두를 상속할 것이며, 그는 홀로 우리에게로 올 것이니라.[106]

**81** 그들은 그것들[다른 신들]이 그들에게 (권세와) 영광[107]을 있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취하였느니라.

---

105)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계시, 증표, 징표, 예증, 가르침'을 뜻하나 여기서는 특히 '꾸란과 무함마드의 예언자 지위'에 대한 계시를 의미하고 있다.

106) 앞의 제40절에서와 같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주, 주님의 소유이고 모든 것은 그분께로 돌아간다. 우리는 알몸 하나로 심판의 자리에 설 것이다.

107) 동명사 잇즈('izz)는 '힘, 위력, 영광, 명예'의 뜻임.

## 제 19 장

كَلَّا سَيَكْفُرُونَ بِعِبَادَتِهِمْ وَيَكُونُونَ عَلَيْهِمْ ضِدًّا ﴿٨٢﴾
أَلَمْ تَرَ أَنَّآ أَرْسَلْنَا ٱلشَّيَـٰطِينَ عَلَى ٱلْكَـٰفِرِينَ تَؤُزُّهُمْ أَزًّا
﴿٨٣﴾ فَلَا تَعْجَلْ عَلَيْهِمْ ۖ إِنَّمَا نَعُدُّ لَهُمْ عَدًّا ﴿٨٤﴾
يَوْمَ نَحْشُرُ ٱلْمُتَّقِينَ إِلَى ٱلرَّحْمَـٰنِ وَفْدًا ﴿٨٥﴾ وَنَسُوقُ

**82** 결코 아니로다! 그것들은 그들의 숭배(행위)를 부인하고, (심판의 날에) 그들에 대한 반대자들이 될 것이니라.[108]

<제6부>

**83** (무함마드여!) 그대는 우리가 불신자들에 대해 사탄들을 보냈더니 그들[사탄]이 그들[불신자들]을 부추겨 (악행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않았더냐?

**84** 그러니 그대는 그들에 대해 서두르지 말라. 실로 우리는 그들에게 (정해져 있는 날의) 숫자[109]를 계산하고 있느니라.

**85**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물타꾼]을 가장 자비로우신 분께로 (알현하러 오는) 사절같이 모을 것이니라.[110]

---

108) 우상신, 거짓신들은 오히려 우상숭배자들이 자신을 섬겼다는 사실을 심판의 날에 부인한다. (꾸란 10:28-30 참조) 예수 역시 꾸란 5:116-118에서 그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숭배하라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오히려 그들에게 오직 주님이신 하나님만을 숭배하라고 가르쳤음을 말하고 있다. (꾸란 5:116-118 참조)

109) 이 세상에서 숨쉬며 살고 있는 날, 또는 악행의 숫자들.

110) 와프드(wafd)는 '사절, 대표단'으로 여기서는 마치 왕을 접견하러 온 '대사 또는 사절들처럼 영접을 받을 것이다'의 뜻이다.

## 제 19 장

ٱلْمُجْرِمِينَ إِلَىٰ جَهَنَّمَ وِرْدًا ﴿٨٦﴾ لَّا يَمْلِكُونَ ٱلشَّفَٰعَةَ
إِلَّا مَنِ ٱتَّخَذَ عِندَ ٱلرَّحْمَٰنِ عَهْدًا ﴿٨٧﴾ وَقَالُوا۟ ٱتَّخَذَ
ٱلرَّحْمَٰنُ وَلَدًا ﴿٨٨﴾ لَّقَدْ جِئْتُمْ شَيْـًٔا إِدًّا ﴿٨٩﴾
تَكَادُ ٱلسَّمَٰوَٰتُ يَتَفَطَّرْنَ مِنْهُ وَتَنشَقُّ ٱلْأَرْضُ وَتَخِرُّ

**86** 그리고 우리는 죄지은 자들[무즈리문][111]을 목마른 상태로[112] 지옥으로 몰아넣을 것이니라.

**87** 가장 자비로우신 분으로부터 허락[113]을 받은 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날에) 중재를 할 수 없느니라.

**88** 그들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께서 아들을 두셨다"고 말하였느니라.

**89** 참으로 너희는 끔찍한[114] 것을 말하였도다.

---

111) 무즈리문(mujrimūn)은 앞의 38절, 72절의 '잘리문'과 동의어로 '죄지은 자들'에 대한 통칭이다. 다신교도, 우상숭배자, 죄인, 범죄자, 불신자 모두가 포함된다.

112) 원래 위르드(wird)는 '샘터, 물터'의 뜻이지만 꾸란 주석가들은 여기서의 의미를 '목이 바싹 마른'으로 해석한다. 물을 찾는 목타는 가축떼나 짐승들이 물가로 돌진해 달려가듯 죄인들은 지옥불 속으로 처참하게 던져질 것이다.

113) 아흐드('ahd)는 '약속, 의무, 서약, 협정'뜻인데 여기서는 '허가, 허락'의 의미로 쓰였다.

114) 인드(idd)는 '불행, 재난, 끔찍한 일'을 뜻한다. 대다수 주석가들이 목적격으로 쓰인 여기서의 인단(iddan)을 '끔찍한, 무서운, 가공할'으로 해석한다. 너무도 터무니없고 극악무도하며 무서운 말이라는 의미이다. 이 단어는 독경사들에 의해 인단(iddan), 안단(addan), 아안단(āddan)으로 읽혀지는데, 세 발음 중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독경되는 것은 여기서와 같이 첫 번째 것이다.

## 제 19 장

ٱلْجِبَالُ هَدًّا ﴿٩٠﴾ أَن دَعَوْا۟ لِلرَّحْمَٰنِ وَلَدًا ﴿٩١﴾ وَمَا يَنۢبَغِى لِلرَّحْمَٰنِ
أَن يَتَّخِذَ وَلَدًا ﴿٩٢﴾ إِن كُلُّ مَن فِى ٱلسَّمَٰوَٰتِ وَٱلْأَرْضِ إِلَّآ
ءَاتِى ٱلرَّحْمَٰنِ عَبْدًا ﴿٩٣﴾ لَّقَدْ أَحْصَىٰهُمْ وَعَدَّهُمْ عَدًّا ﴿٩٤﴾
وَكُلُّهُمْ ءَاتِيهِ يَوْمَ ٱلْقِيَٰمَةِ فَرْدًا ﴿٩٥﴾ إِنَّ ٱلَّذِينَ ءَامَنُوا۟

**90** 그 말로 하늘은 거의 찢어져버리고, 땅은 산산히 갈라지며, 산들은 (완전히) 붕괴되어 내려앉을 것이니라.[115]

**91** 그것은 그들이 가장 자비로우신 분께 아들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92** 그러나 그분께서 아들을 취하신다는 것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께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니라.

**93** 하늘과 땅에 있는 자는 누구나 가장 자비로우신 분께 단지 종으로서 올 뿐이니라.

**94** 정녕코 그분께서는 그들 (모두)[116]를 (일일이) 헤아려 아시고 그들(모두)를 정확히 계산하고 계시느니라.

**95** 그들 모두는 부활의 날에 홀로[117] 그분께 올 것이니라.

---

115) 핫다(hadda)는 '허무러져 내려앉다, 해체되고 분해되다' 또는 '조각조각으로 부숴져 버리다'의 뜻이다.

116) 하늘과 땅에 있는 자 모두를 가리킴.

117) 어떤 조력자, 보호자, 방어자 없이 혼자서.

## 제 19 장

وَعَمِلُوا۟ ٱلصَّـٰلِحَـٰتِ سَيَجْعَلُ لَهُمُ ٱلرَّحْمَـٰنُ وُدًّا ﴿٩٦﴾
فَإِنَّمَا يَسَّرْنَـٰهُ بِلِسَانِكَ لِتُبَشِّرَ بِهِ ٱلْمُتَّقِينَ
وَتُنذِرَ بِهِۦ قَوْمًا لُّدًّا ﴿٩٧﴾ وَكَمْ أَهْلَكْنَا قَبْلَهُم مِّن قَرْنٍ
هَلْ تُحِسُّ مِنْهُم مِّنْ أَحَدٍ أَوْ تَسْمَعُ لَهُمْ رِكْزًۢا ﴿٩٨﴾

**96** 믿는 자들과 올바른 선행자들, 그들에게는 가장 자비로우신 분께서 사랑을 베풀어주실 것이니라.

**97** (오, 무함마드여!) 우리가 그대의 언어로 그것[꾸란]을 쉽게 만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것으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함이며,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118)에게는 그것으로 경고를 해주기 위함이니라.

**98** 우리가 그들 이전에 얼마나 많은 시대의 사람들을 멸망시켰더냐? 그대는 그들 중에 단 한사람이라도 느낄 수 있느냐? 혹은 그들의 속삭이는 한 소리라도 들을 수 있느냐?

---

118) 알랃두('aladdu 고집불통의, 토론을 좋아하는)의 복수형, 룯드(ludd)는 여기서 '타협을 모르고 완고한, 논쟁을 좋아하는'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들은 하나님의 유일성과 그분의 예언자의 메시지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들과 법령들에 헛된 논쟁만을 일삼는 자들이다.

## 해 설

1 꾸란 전체 114장의 약 1/4에 해당하는 29장들이 이러한 불가사이한 아랍어 자음들의 조합으로 시작한다. 아랍어 알파벳 28자 중 꼭 절반인 14자가 단독으로, 혹은 둘, 셋, 넷, 다섯 글자가 조화를 이루며 이러한 장들의 첫머리에 나타난다. 이 장의 첫 절은 다섯 개 자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다섯 자음의 조합형태는 꾸란 전체에서 유일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축자음 생략어를 꾸란 용어로 무깥따아트(muqaṭṭa'āt)라고 부른다. 일부 꾸란학자들은 이 생략어가 각 장의 첫머리에 나오기 때문에 파와티흐(fawātiḥ 여는 글자들)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생략어는 예컨대 알리프(Alif) 람(Lām) 밈(Mīm), 또는 하(Ḥā) 밈(Mīm) 등과 같이 자음의 이름을 하나씩 독립적으로 발음하여 읽는다. 어떤 심오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 상징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 무슬림들은 이 생략어들을 꾸란의 기적들 중 하나로 생각한다.

2 자카리야(Zakariyyā 우리말 성경의 사가랴 Zachariah)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파송된 위대한 예언자 중의 한 사람이다. 예수 앞에 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며 예수의 길을 준비하던 예언자 야흐야(Yaḥyā 세례 요한 John)의 아버지이고 예수의 어머니, 마르얌(Maryam 마리아 Mary)의 보호자요, 후견인이기도 하다. 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총은 각별한 것이었다. 그의 기도는 언제나 응답의 은혜를 받았으며 아주 늙은 나이에 요한 같은 훌륭한 아들을 후계자로 얻는다. (그에 대한 다른 꾸란 구절은 꾸란 3:38-41 참조)

3-4 그는 성전 안에서 남모르게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그의 친족과 동료들이 한결같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봉사하려 하지 않고 날로 진정한 신앙의 길을 잃어가고만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은밀하고 간곡한 기도와 탄원을 비밀스럽게 주님께 드리게 된 이유이다.

5-6 그는 무엇보다도 그의 뒤를 잇는 다음 세대의 친척들과 친족들(mawālin)이 사악한 길을 걷게 될까봐 염려하였다. 이제 백발이 된 그는 그의 뒤를 이어 후대세대를 올바르게 인도해 갈 예언자를 원하였다. 그의 지위를 상속할 후계자를 보내달라고 주님께 간청드리게 된 것이다. 이때의 후계자가 아들을 가리키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가 불임이었기 때문에 만약 아들을 후계자로 달라고 탄원하려 했다면 아마도 훨씬 더 젊은 나이에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또한 이븐 카시르(Ibn Kathīr 1301~1372년)를 비롯한 여러 주석가들은 여기서의 왈리(waliy 상속자, 후계자)가 물질적 상속자가 아님을 강조하여 해설한다. 자카리야는 재산을 쌓아놓은 부자가 아니었다. 이슬람 전승에 의하면 그는 목공일로 생계를 꾸려가던 한 목수였다. 그는 하나님의 법령, 율법, 가르침에 관한 종교적 지식과 예언자 지위를 상속할 후계자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카리야는 야으꾸브(Ya'qūb 야곱 Jacob)의 후손이다.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으로 간주된다. 야곱의 가계를 승계할 후계자라는 말은 곧 야곱의 지적 · 영적 재산을 상속받는 예언자를 가리킨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꾸란 구절로는 "술레이만은 다윗을 상속하였고..."(꾸란 27:16)를 들 수 있다.

7 이 절은 꾸란 3:38-39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자카리야의 기도는 받아드려졌다. 상속자로 야흐야(요한)라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기쁜 소식을 받게된 것이다. 아랍어로 야흐야(Yaḥyā)는 '살아있는'을 뜻한다. 그리고 이 이름은 이 계시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축복받은 이름이다.

8-9 자카리야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은혜에 크게 기뻤지만 한편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자신한테 아들이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부인은 늙기도 하였지만 원래 출산을 하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이고, 그 자신도 생산능력을 잃은 노쇠한 몸이었다. (같은 내용의 계시, 꾸란 3:40 참조) 그러나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하고 간단한 것이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똑같은 내용의 계시가 뒤의 제21절, 예수의 수태 고지 때에도 되풀이된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모든 창조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10-11 같은 내용의 계시가 다음과 같이 꾸란 3:41에 있다. 그[자카리야]가 말하기를 "오, 주여, 저에게 한 증표를 주시옵소서." 그[천사]가 말하였다. "너의 증표는 네가 사람들에게 3일 동안 몸짓으로 외에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너의 주님을 많이 염송하라. 또 저녁으로 아침으로(그분을) 찬양하라" (꾸란 3:41). 자카리야는 3일 밤 3일 낮 동안 사람들과 대화하지 못하였다.

12-15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 약속된 아들, 요한이 태어나 훌륭히 성장하였다. 이 절(12-15절)들에서의 주제는 이제 예언자 요한의 이

야기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책, 토라를 열심히 배우고 계명들을 잘 지킬 것을 명령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나이였던 그에게 성서에 대한 비전의 지식을 가르쳐 주셨으며 진리를 이해하는 특별한 지혜를 주셨다. 당시 토라는 신앙과 삶, 통치의 근간이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신과 타락의 길을 걸었고 율법은 무시되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진리의 원형에서 많은 부분이 왜곡되거나 잘못 이해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재해석하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낼 예수의 길을 그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셨다.

하난(ḥanān)은 특별한 꾸란의 용어이다. 주석가들은 이 단어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자비'로 해석한다. '남에게 동정심, 친절, 호의를 베푸는 특별한 자애'다. 요한에게는 이런 속성이 부여되었다. 그는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고 광야에서 순결한 삶을 살았다. 그는 공동체에 만연해 있던 잘못된 관행과 죄행들을 대담하게 꾸짖고 훈계하였다. 그는 오래 살지 못하였다. 불의에 항거하다가 마침내 로마통치하의 영주 헤롯(Herod)에 의해 투옥되고 참수 당하였다. 그는 최후 심판을 알려주던 정의롭고 순수한 '심판의 설교자'였다.

요한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으로서의 본분을 다한 사람이었다. 오만하거나 불복종한 적이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태어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평화의 축복을 받은 영예스러운 주인공이기도 하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약속되어 있었다. 태어나고, 죽고, 부활하는 날에!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

16 여기서부터 제40절까지는 마리아와 예수(아랍어 이사 'Īsā)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부분은 꾸란 제3장 알 이므란(al-'Imrān) 42-52절과 내용이 겹치거나 연관된다. 하나님께서는 자카리야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언급을 하신 뒤에 이어서 마리아와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 이러한 경우가 이 장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장과 제21장 알 안비야(al-Anbiyā')에서도 마찬가지로 언급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창조에 관한 무한한 능력을 그분의 종들에게 일관성 있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 같다. 자카리야의 노령과 부인의 불임 상태에서 요한이 태어나고, 마리아에게서는 부친 없이 예수가 태어나는 기적적인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다.

마리아의 아랍어 이름은 마르얌 빈트 이므란(Maryam bint 'Imrān)이다. 다윗(아랍어 다우드 Dāwud) 가계 출신인 이므란의 딸이다. 꾸란 제3장(알 이므란장)에서는 그녀를 임신한 그녀의 어머니 한나(Ḥannah 라틴어 안나 Anna, 영어 안네 Anne)가 태어날 자식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맹세 드리는 장면이 있다. 주님께서는 이를 기꺼이 수락하셨다. 그리고 비록 여아로 태어났지만 마리아는 훌륭히 성장하여 성전에 봉사하는 영예스러운 여성 예배 인도자가 된다. 마리아는 어렸을 때 그녀의 사촌언니 엘리자베스(Elisabeth)의 남편이자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위대한 예언자였던 자카리야의 보호아래 자라났다. 어느 날 자카리야는 놀라운 기적적 사건을 목격한다. "자카리야가 그녀[마리아]를 (방문하러) (그녀의) 성소(miḥrāb)에 들어갈 때마다, 그는 그녀에게 (충분한) 먹거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오, 마리아야! 이것이 어디에서 난 것이냐?' 그녀가 말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제한 없이 양식을 주시느니라" (꾸란 3:37). 그녀에게는 여름 동안에는 겨울 과일이, 겨울 동안에는 여름 과일이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부터 그분의 위대한 다섯 사자들(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 중의 하나인 예수에 대한 수태고지의 기적적 장면

을 내용으로 계시하신다.

17-21 그녀는 헌신적인 예배와 기도를 드리기 위해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서 성전 내 동편의 한적한 곳으로 은거하였다. 타인의 이목을 피하려고 장막을 쳐 자신을 감추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완벽한 사람 형상으로 그녀 앞에 나타났다. 놀란 그녀가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두려움 속에 애원하듯 말하였다. "만약 당신이 진정 가장 자비로우신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내게 다가오지 마십시요!" 그녀가 이렇게 '가장 자비로우신 분' 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자, 천사 가브리엘은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대답하였다. "나는 그대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대 주님의 사자입니다. 알라께서 나를 그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대에게 바르고 순결한 한 아들을 주신다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에 관한 꾸란의 다른 구절은 다음과 같다. "천사들이 말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오, 마리아여!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그분으로부터의 한 말씀[있어라! 하면 있게 되는]으로 기쁜 소식을 주시니, 그의 이름은 마리아의 아들, 메시아(al-Masīḥ), 예수('Īsā)이고, 그는 현세와 내세에서 영예롭고, (하나님)가까이에 있는 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것이니라'" (꾸란 3:45).

마리아가 깜짝 놀라 묻는다. "어떻게 제가 아들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남편도 없고, 어떤 남성도 접한 적이 없는데 어찌 아이를 밸 수 있습니까?" 아랍어 바기이(baghiyy)의 문어적 의미는 간음자이다. 부정한 짓을 결코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이에 대한 천사의 대답은 간명하였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그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분께서는 의도하시는 무엇이든지 실행이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하나님의 귀중한 다음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나[알라]는 너희에게 주는 나의 자비의 한 증표로써 그[예수]를 만들고저 하느니라. 그의 탄생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니라."

예수의 탄생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자비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는 그 자비의 한 증표인 것이다. 그리고 오직 그분께만 드려야 하는 예배를 부르짖는 예언자 중의 예언자로 그를 만드신 것이다. 또한 예수 탄생은 어떤 창조도 가능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한 증표이기도 하다. 무엇이든 창조하기를 원하시면 다만 명령하시기를 "있어라!" 그러면 그것이 있느니라(꾸란 3:47). 그분의 명령과 그것의 실행과 완성 사이에는 전혀 간격이 없다. 예수의 탄생은 인간 창조의 다양한 양태를 보여주시는 한 예증인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Ādam)을 남성 혹은 여성, 즉 부모의 어느 쪽 존재도 없이 창조하셨고 그리고나서 아담의 배우자로 하와(Ḥawwā')를 여성, 즉 어머니 없이 창조하셨다. 그리고는 세 번째 형태로 우리와 같이 남성과 여성으로부터, 즉 부모로부터 자식이 낳아지는 보편적인 창조 형태를 만드셨으며, 그리고 이젠 예수 탄생과 같은 새로운 창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것은 한 여성[어머니]으로부터, 즉 남성[아버지] 없이 인간탄생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분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인간 창조의 네 가지 양태를 완성하였다. 예수의 탄생은 그분의 의지에 의해 정해진 정명(定命)의 일이었다. 알라께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에는 어긋나거나 피해질 수 있는 것이 없다.

22-26 마리아의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에 관한 언급들이다.

무슬림 선조들(salaf)중의 여러 학자들이 꾸란에 근거하여 마리

아가 잉태하는 모습을 묘사해 놓았는데, 그것은 대개 마리아의 옷소매 속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의 숨을 불어 넣었고, 그 숨이 자궁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허락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다(꾸란 21:91 참조). 그 뒤 그녀는 임신부가 겪는 구토와 입덧, 식탐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따라서 멀리 외딴 곳으로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꾸란 해석가들은 수태고지와 잉태, 해산의 장소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일부는 그녀가 처음 헌신적 예배와 기도를 드리기 위해 은신한 장소가 예루살렘의 성스러운 성전 동편의 한 기도소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많은 수의 사람들은 수태고지와 잉태가 이루어진 장소는 예루살렘 북쪽 100km 갈릴리(Galilee)의 나자렛(Nazareth)에 있는 한 성소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녀가 살았던 고향이 나자렛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산 장소는 거의 모두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1km 떨어진 베들레헴(Bethlehem 아랍어로는 Bayt al-Laḥm)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22절 '멀리 떨어진 한 장소'는 잉태한 곳을 나자렛으로 보면 무려 110km 이상 떨어진 먼 곳이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더라도 11km이상 떨어진 외딴 곳이다. 그녀는 아무도 보살펴주는 사람 없이 산통을 겪으며 대추야자나무 아래에서 아이를 낳는다. 그리고나서 마긋간의 한 구유로 아기를 옮긴다. 마리아는 선택받은 영예로운 여인이지만 그녀도 보통 산모들과 똑같은 참기 어려운 분만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심한 진통을 이겨내기 위해 대추야자나무 줄기를 잡고 그것에 의지해야 했다. 그녀는 탄식하며 소리쳐 말하였다 "오, 이런 일을 겪기 이전에 내가 죽었다면, 내가 완전히 잊혀져버려 좋았을 텐데...".

이때 그녀 아래쪽에서 천사가 탈진해 있는 그녀를 부르면서 위로의 말을 한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마련해 주셨으니, 대추야자와 맑은 시냇물을 마시면서 슬퍼하지 말고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한

다. 산후조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신의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꾸란 학자들은 여기서(24-26절) 그녀를 부르면서 위로의 말을 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천사냐, 예수냐 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사람들 앞으로 데려가기(다음의 27-28절) 이전까지 예수는 말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 말의 주인공을 예수로 말한다. 이들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미혼모가 된 마리아가 걱정과 슬픔에 젖어 있자 예수가 "슬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녀가 답하기를 "내게 남편이 없고, 내가 노예 여인도 아닌데, 이렇게 네가 나와 함께 있으니 어찌 내가 슬프지 않을 수 있느냐? 대체 무엇이라고 내가 사람들에게 변명할 수 있겠느냐? 오, 슬프다, 이 이전에 만약 내가 죽어버렸다면, 사람들에게서 내가 잊혀져서 좋았을 터인데...". 그러자 예수가 말하였다. "제가 드리는 이 한마디로써 당신께서는 만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든 만나게 되면 '저는 하나님께 금언할 것을 맹세하였으니 누구와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만 하십시오." 이같이 이 절들을 어머니께 한 예수의 말로 보는 것이다.

27-28 그녀가 아들을 안고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놀라움은 너무도 커서 모두 할 말을 잃었다. 한동안 그녀가 일가친척을 떠나 멀리 사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비행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그녀가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과시하듯 아기를 안고 돌아올 줄은 몰랐다. 으뜸가는 꾸란 주해가 안 따바리의 주석에 의하면 아랍어로 파리이(fariyy)는 '대단한 것, 이상한 것, 끔찍한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말하였다. "마리아야! 참으로 너는 상상하지 못할 끔찍한 것을 데

리고 왔구나!"

이것은 그녀가 존경받던 성직자 가문의 명예를 얼마나 더럽힌 것인가! 고귀한 혈통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가장 깨끗했던 부모의 명성에 먹칠을 한 얼마나 치욕적인 일인가! 독실했던 그녀가 어찌 타락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오, 아론의 누이여!"

꾸란의 학자들은 여기서 마리아가 '아론의 누이'로 불린 것은 그녀와 그녀의 사촌 엘리자베스가 성직자 가문 출신이고, 더욱이 이스라엘 성직자 계보의 첫 번째 인물인 예언자 아론(Aaron)의 후예[자손]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타미미(Tamīmī)부족 출신 사람들에게는 '타밈(Tamīm)의 형제여!' 무다리(Muḍarī)부족 출신 사람들에게는 '무다르(Muḍar)의 형제여!' 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아론의 누이여!'라고 불렸다는 해석이다. 그녀들에게 '아론의 누이들' '이므란('Imrān 아론의 아버지)의 딸들'이라는 호칭이 붙여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꾸란 3:35는 '이므란의 여인'으로 불려진 마리아의 어머니 한나가 태내에 있는 아기[마리아]를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더 주목할 것은 한나의 남편[마리아의 아버지] 이름도 이므란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한나는 이므란의 부인이자 성직자가문 이므란가(家)의 후예이다. 따라서 그녀에게 쓰인 '이므란의 여인'이라는 호칭은 당연하고, 의미상 중복개념을 갖는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여기서의 아론이 모세의 형제가 아니라 당시에 신앙심 깊고 예배에만 헌신하던 아론이라는 또 다른 성직자라고 말한다. 원래 마리아는 성실한 여성 예배 인도자였으므로, 그 사람에 비유되어 '아론의 누이'로 불려졌다는 것이다. 모세의 형, 성직자 아론이든지 당대의 아론이라는 성직자이든지 그녀는 예배와 기도, 금욕적 삶에서 그들과 닮았고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일부 꾸란 학자들은 여기서 마리아가 '아

론의 누이여'라고 불린 것을 '예배에서 아론을 닮은 여인아!'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

마리아와 엘리자베스간의 혈족관계는 성경에서도 뒷받침된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베스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촌 간이므로(누가복음 1:36) 요한과 예수는 한 핏줄을 이어받은 친척 간이다. 이 둘은 출생과 이력에서도 비슷하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태어났고 뛰어난 예언자로 활동했다. 또한 엘리자베스가 아론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성직자 가문의 '아론의 딸들[자손]'중의 하나였다(누가 1:5)는 것과 모세와 형 아론(출 4:14)이 이므란의 아들들이라는 것도 밝혀져 있다.

29-33 마리아의 대답은 단지 요람에 있는 아기를 손으로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확고한 신념에 차 있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태어난 이 아기가 보통 범상한 아이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리아의 태도에 화가 나서 말하였다 "우리보고 요람에 있는 아기와 얘기를 하라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이때 일어났다. 요람에서 아기가 말을 한 것이다. "실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기적 같은 이 한마디로 그는 곤경에 처해 있던 어머니를 구하고 방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경악 속에 어리둥절해 있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성서를 주셨으며 나를 예언자로 만드셨습니다." 요람에서 그가 말을 하고, 성장하여 사람들에게 설교한다는 것은 꾸란 제3:46에도 계시되어 있다. "그는 요람에서, 그리고 성장하여서 사람들에게 설교할 것이며, (가장) 올바른 선행자 중의 한 사람이 되리라."(꾸란 3:46). 신의 사자로서 예수의 본격적인 성직수행은 대략 3년 (그의 나이 30~33살 까지)정도 지속하였던 것으로 말해진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12살의 나이에 성전에서 선

생들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논쟁하던 그를 묘사하고 있고(누가 2:46), 그보다 훨씬 어렸을 때에도 "아이가 자라며 (정신이) 강하여지고, 지혜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가 2:40)고 말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위경으로 버려진(서기 4C 니케아 공의회 이후) 일부 복음서들에서는 유아 때부터 그가 설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유수프 알리 Yusuf Ali 꾸란 영어번역본 3:46 해설 참조)

예수와 같은 예언자들 뿐 아니라 믿는 사람 모두는 살아있는 동안 정규적인 예배를 드리고 자카트를 바쳐야 한다. 이것은 신앙을 실천하는 기본적인 의무 행위들이다. 예언자 무함마드에게도 똑같은 계시가 내려졌다. "그대에게 확실한 것[죽음]이 올 때까지 그대 주님께 예배하라." (꾸란 15:99).

예수와 요한에 대한 이 장에서의 언급들을 살펴보면 유사함과 다름이 발견된다. 예수는 그가 신의 종이고 예언자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선언한다. 자신이 알라로 잘못 지칭된다거나 알라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잘못된 인식과 개념의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말부터 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에게는 언급되지 않은 은총들이 요한에게 내려진 것이 제12-13절에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요한에게 언급된 제14-15절은 바로 여기 제32-33절에서 예수에게 언급된 것과 거의 똑같다.

참된 신앙인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거만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과 부모에게 거역하거나 불복종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꾸란 구절에서도 효도와 예배행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대 주님께서는 너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분 외에는 예배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느리라." (꾸란 17:23).

자존심이 강하여 오만해진 자는 독단적이고 전횡을 부리기 십상이다. 그는 자신의 고집스러운 아집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이 은혜 받

지 못하는 불행한 자의 길인 줄 알지 못한다.

제33절에서 예수는 자신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이며, 다른 피조물들과 똑같이 살고, 죽고, 부활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예수는 가장 훌륭한 예언자 중의 예언자였다. 그의 인생은 독특하였지만 인간적 삶이었으며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다(꾸란 4:157 참조).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예수]에게 있기를!!

34-35 예수에 대한 이견과 논쟁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이지 아들이 아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qawlul ḥaqq)으로 막을 내렸다. '아들을 갖는다'라는 개념의 말은 그분께 어울리지 않고 성립될 수도 없는 말이다. 그분께서 만약 어떤 것이든 원하시면 단지 '있어라' 명령하시면 그것은 있게 된다. 꾸란은 이것을 간명하게 아담과 예수 창조의 예로 설명한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예는 아담의 예와 같도다. 그분께서는 그를 먼지[흙]에서 창조하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있어라' 그리고 그는 있게 되었느니라.(이것은) 너희 주님으로부터의 진리니라. 그러니 의심하는 사람들 중에 있지 말라."(꾸란 3:59-60).

아버지 없이 창조된 예수의 예는 아버지, 어머니 없이 창조된 아담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특별한 성령이 그에게 임재한 이유로 예수에게 신성을 부여한다면 부모 둘 다 없이 성령으로 창조된 아담에게는 더욱 신성을 부여해야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 그분께는 어떤 창조도 가능하시다.

36-37 예수는 명백히 선언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님이시요 너희의 주님이시니, 그분만을 숭배하라."(똑같은 내용의 계시는 꾸란 5:72 참조) '하나 안에 셋', '셋 안에 하나'를 증거하기 위해 형이상

학적 교의를 세우고 그 안에서 구원을 청하는 교설을 정면에서 배격하는 말이다. (꾸란 5:73 참조) 이슬람 전통은 이러한 교설을 왜곡된 미신적 관행으로 간주한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Allāh), 그분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일 뿐이다. (꾸란 5:17, 5:72 참조) 무슬림은 꾸란이 하나님의 계시의 최후 버전이고, 꾸란에는 한 치의 왜곡됨이 없는 완벽한 경전이라고 믿는다. "모든 찬양 · 찬미가 그분의 종에게 성서[꾸란]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있나이다." (꾸란 18:1) 예수는 진리의 설교자였다. "...그리고 메시아[그리스도]가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나의 주님이시며 너희의 주님이신 하나님만을 숭배하라. 실로 하나님께 다른 비견할 것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을 금하셨으며 지옥이 그의 거처가 되리라..." (꾸란 5:72) 하나님께 오직 헌신했던 그의 생애와 같이 그의 가르침도 한 치의 삐뚤어짐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후대의 그리스도교인들은 그것을 왜곡시켰다.

그들 가운데(처음에는 유대공동체를 포함하여)에서 분파가 만들어지고, 서로 갈라져서 예수에 대해 논쟁을 하였으며 -특히 예수의 가르침보다 그의 본성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게 되었다. 최초 그들 중의 한 분파는 -유대인들의 주류가 그렇지만- 그가 '부정한 여인의 아들'이고, 요람에서 말을 한 것은 단지 마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니면 적어도 말을 한 분은 하나님[알라]였지, 예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예수를 메시아[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의 사자임을 부정하였다. 이들은 스스로를 선민으로 믿으며 유대교인으로 남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다른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말하게 되었다. 즉 예수가 성부이자 성자라는 것이다. 이들은 '삼위일체'론을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교리로 세우고 그리스도교인들의 주류가 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분

의 사자라고 말한다. 이 마지막 부류의 견해는 이단으로 몰렸다. 그리고 또한 예수의 신성론은 그리스도교 내에서도 이단과 정통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단으로 몰린 그 첫 번째 경우가 아리우스 주의(Arianism)이다. 4세기 초, 알렉산드리아의 사제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라 신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신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불변하는 분이신데, 예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무'로부터 존재하게 된 '시작'이 있는 피조물이며 성장하고 변화하므로 그가 하나님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325년, 니케아(Nicaea) 공의회는 '성부와 성자는 하나의 본질을 가진 완전한 신'이라는 신조를 공포하면서 아리우스 주의를 정죄했다. 그 뒤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제2차 공의회에서도 아리우스 주의는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를 좇는 그리스도론 신앙은 일부 유니테리언 파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교파에서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또한 428년, 콘스탄티노플 총 대주교가 된 네스토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똑같이 결합되어 있음'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독립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더 강조하여 신성은 다만 성전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마리아가 예수의 인성 만을 낳았으므로 '하나님의 모친'이 될 수 없고 단지 '그리스도의 모친'일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431년, 에페소에서 열린 제3차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이 똑같이 결합된 분'이며, 예수를 낳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친'임을 선언하였다. 이와는 정반대로 예수의 신성을 더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 신성만이 남았다고 주장하는 단성론(Monophysite)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이후에 단 하나의 본성인 신성만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51년 제4차 칼케돈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합되어 있는 신성과 인성은 서로 섞이지

도,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소위 '신인양성일인격'의 교의를 채택하면서 단성론자들을 정죄했다.

그러나 정죄 받고 배척당한 이들은 저마다 독자적인 교회를 세워가며 교세를 넓혀가 네스토리우스파(Nestorians)는 시리아, 이라크, 페르시아를 거쳐 7세기경에는 당나라까지 전파되어 중국에서는 경교(景教)로 불리며 번성했고, 한편 단성론자들은 이집트와 시리아 지역에서 큰 세력을 이루어 오늘날까지 건재하는 콥트 교회, 야곱파 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등을 이루고 있다.(http://blog.daum.net/vadaz 7735843 참조, 또한 뒤의 꾸란 61:14의 해설과 전승이야기 참조)

무슬림들은 꾸란이 이러한 논쟁을 불식시키는 분명한 증거이자 광명으로 계시되었다고 믿는다. 이 절에서도 처음 예수의 본성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여 크게 갈라졌던 위의 세 부류 중 마지막 부류, 즉 '예수는 하나님의 종이요 사자였다'고 말하였던 견해가 진리이며, 꾸란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참 신앙인들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다. 다시 말해 그 뒤 다시 갈라진 초기 그리스도교 분파들 중에서도 예수의 신성을 부정한 아리우스파, 에비온파, 고린도 교회, 바실리데 복음서교파, 파울루스파 등의 견해가 옳다는 것이다. 현대에도 유니테리언 교회와 만인구원론자들 교회, 크리스터델피언,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여호와의 증인 등이 예수의 신성에 이견을 보인다.

그러므로 부활의 날, 하나님 앞에 모여 증언을 하는 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거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두셨다고 말하여 진리를 부정하고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바로 이 37절에서 말하는 진실로 '믿지 않았던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그날까지 이러한 불신자들에게 내려질 무서운 징벌을 유예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을 지금 깨달아야 한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복종하지 않는 불신자들의 일을 서두르지 않으신다. 불의와 부정, 잘못을 저

지르는 죄인들에 대한 형벌의 유예에 관한 꾸란 구절은 꾸란 11:102, 22:48, 14:42 등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38-40 부활의 날, 죄인들은 "분명히 저희들은 모든 것을 보았고 들었나이다. 부디 저희를 돌려보내 주신다면 선행을 하고 믿는 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빌 것이다(꾸란 32:12 참조).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그날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고 들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명백한 오류 속에서 방황하며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올바른 인도에 따를 것을 권유받으나 인도되지 않는다. 듣지도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려 한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분리되는 그 비탄의 날을 경고하신다. 그러나 현세 삶의 환희와 즐거움 속에 빠져있는 그들은 그 경고에 무관심하고 부주의하다. 귀기울이거나 믿지를 않는다.

우리는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증언해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창조물 모두는 파멸될 것이다. 오직 그분, 한 분만이 존재하실 것이다. 어느 누구라도 그분의 절대적 소유권을 나눠가질 수 없다. 그분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우주 종말시 상속자이시다. 그분만이 영원하시다. 우주만물은 소유주이신 그분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같은 의미의 구절이 꾸란 3:180, 15:23에서도 반복된다. 그분께서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다. 생명을 주시고 거두어가신다.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 재산은 타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그렇지만 세상이 끝나는 날에는 죽어있거나 살아있는 것, 영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그분께로 귀속된다. 알라후 아크바르(**Allāh Akbar** 하나님께서

는 가장 위대하시다)!

41-45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 신앙의 뿌리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하나님의 친구'(khalīl)로 불려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상숭배자였던 당시의 아랍인들에게 들려주라고 명령하신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사이에 벌어졌던 사건들을 상기시켜주면서 우상숭배란 전혀 유익함이 없는 잘못된 행위임을 가르쳐주라고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비록 자식이지만 아버지한테는 오지 않은 고귀한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자신의 인도를 따라줄 것을 청하였다. 우상숭배는 사탄에 복종하는 행위이고 그것은 곧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께 거역한 자이다.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는 것은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다. 여러 꾸란 구절에서 이 점이 강조되고 있다. "오, 아담의 자손들아! 내가 너희에게 사탄을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더냐? 실로, 그는 너희에게 분명한 적이니라." (꾸란 36:60)

사탄에 가까이하고 친밀감을 느끼면 깨끗하던 우리의 본성인 피뜨라(fiṭrah)는 타락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고의로 진리를 거부하거나 진리에서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과하시는 형벌이 바로 우리 본성의 타락임을 알아야 한다. 사탄의 동무가 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46-48 앞의 제42-25절에서 아브라함의 말들이 부드럽고 설득하는 것인데 반해 여기 제46절에서의 아버지의 답은 거칠고 적대감을 가진 억양이다. 만약 네가 우상신들을 싫어하고 욕하는 짓을 멈추지 않는다면 '정녕코 내가 너를 저주하고 벌 주겠다'는 의미의 말이 '라 아르주만나카(la'arjumannaka)'이다. 그리고나서 아브라함을 내쫓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답은 '쌀라문 알라이쿰(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라고 말하고, 주님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며 용서를 빌겠다는 것이다. 꾸란은 하나님의 성실한 종들인 믿는자들에게 타인과 적대적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대처하는 언행예절을 가르치고 있다. "무지한 사람들이 그들[믿는 자]에게 (시비를 거는 나쁜)말을 하였을 때, 그들은 말하기를 '쌀라~만(salāman 평화가 있기를)!'" (꾸란 25:63)이라고 응답하라는 것이다. 또 다른 구절도 있다. 만약 가당치 않은 헛된 말을 들었을 때 너희는 "우리에겐 우리의 일이 있고, 당신들한테는 당신들의 일이 있습니다. '쌀라문 알라이쿰(평화가 당신께 있기를)!'" (꾸란 28:55)이라고 말하라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아버지에게 한 '쌀라문 알라이쿰!'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 관용과 용서를 비는 꾸란의 다른 절은 꾸란 26:86, 9:114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의 한계도 명시되어 있다. 그의 아버지는 완고한 고집으로 우상 신을 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거역함이 분명했고 따라서 아브라함은 슬픔을 억제하며 아버지 곁을 떠나야 했다. 아브라함은 그 뒤 샴(ash-Shām 오늘날의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일컫는 지명)으로 이주한 후에도, 그의 두 아들 이스마일과 이삭이 태어난 뒤에도 아버지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계속하였다. "우리의 주님이시여! 계산이 행해지는 그날에 저와 저의 부모, 그리고 믿는 자들 (모두)를 용서하소서." (꾸란 14:41)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행신은 정신적 가르침으로 이슬람 전통에 남았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던 7세기 초, 메카·메디나시대의 무슬림들은 다신교도, 우상숭배자들이었던 그들의 가족, 친족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용서와 자비를 하나님께 간구드려야 했다.

49-50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자르[데라]는 고향 칼데아(Chaldea)의 우르(Ur)를 떠나 하란(Haran)에 정착하였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창세기 11:31~32 참조) 아버지와 친족, 우상숭배자들을 떠나온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의 가나안(Canaan)으로 이주하여 아들과 손자를 얻고 새로운 유일신 신앙공동체의 조상이 된다.

이 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한 계보를 이룬다. 둘 다 훌륭한 신의 사자로 활약하였다. 꾸란의 다른 절들에서도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 (꾸란 21:72), '이삭 뒤의 야곱' (꾸란 11:71)과 같이 이삭과 야곱은 함께 언급되어 있다.

아브라함 혈통의 또 다른 계보는 이스마일에 의해 계승된다. 이스마일은 여기서 몇 절 뒤(54-55절)에 언급되는데, 그것은 이삭-야곱의 계보에 있는 모세와 아론을 먼저 언급하기 위해서이다. 이들 이삭-야곱 계보의 사람들은 여러 세대 동안 진리의 말씀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고 전하는 기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야곱의 아들 요셉(아랍어 유수프 Yūsuf)도 예언자였다. 그들은 높은 명예와 명성을 얻었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믿는 자들의 칭송을 받고 있다.

51-53 모세(아랍어 무사 Mūsā)와 아론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이다. 여기서 모세는 세 지위로 설명된다. (1)선택된 자(무클라스 mukhlaṣ): 이집트에 대해 정통하였던 그는 파라오의 폭정 아래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그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이 '알라의 친구'로 불려지듯이 모세는 천사의 중재 없이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알 칼림(al-kalīm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자), 또는 칼리물라(kalīmullāh 알라께서 말씀하신 자)라는 칭호로 불려진다. 이것은 꾸란 제4장 안 니싸아(an-Nisā') 4:164에 계시되어 있고, 구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느니라" (출애굽 34:5). (2) 예언자(나비 nabī):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과 계시를 받고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에게 파송된 예언자였다. (3)사자(라술 rasūl): 그는 진리의 말씀을 책으로 계시 받았으며 신앙공동체, 움마를 결성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 땅에서 가르치고 시행하는 데 헌신한 신의 사자였다.

제52절의 사건은 꾸란 제20장 따하(Ṭā-Hā) 20:9-36에 매우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장인 이드로(Jethro)의 양떼를 방목하며 살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는 곳은 시나이 산(아랍어 Jabal Mūsā)의 성스러운 뚜와(Ṭuwā)계곡이다. 그때 그는 가족과 함께 여행 중이었다. 멀리 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을 때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곳은 신성한 곳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신다. 그리고 그를 가까이 오게 하신 후 위대한 신비의 말씀들을 내리신다. "내가 곧 하나님이니라. 나 외에 신이 없으니 내게 경배하라." 그는 사명을 받고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파견된다. (꾸란 7:103-144 상세한 내용 참조, 파라오의 멸망은 20:42-79 참조)

그의 형 아론은 웅변에 능하였다. 모세는 아론을 자신을 도와주는 조력자로 만들어 줄 것을 하나님께 청원 드렸는데(꾸란 28:34, 20:25-35 참조)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조력자로서 뿐 아니라 예언자로 만들어 주신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참으로 너는 네 요구를 이루게 되었느니라'" (꾸란 20:36)

54-55 이스마일은 아브라함 혈통의 또 다른 계보를 이룬다. 이삭-야곱의 계보에서 유대교(모세의 오경을 토대경전으로), 그리스도교

(모세의 오경과 예수의 복음서를 토대경전으로)의 교의가 만들어졌듯이 이스마일의 가계에서 최후 예언자 무함마드가 나오고 그가 꾸란을 계시받아 이슬람(모세의 오경, 예수의 복음서, 무함마드의 꾸란을 경전으로)의 교의가 세워지므로, 아브라함은 이 세 종교의 공동조상이 된다. 이스라엘인들이 이삭과 야곱을 그들 민족의 조상으로 말하듯이 이스마일은 히자즈(Ḥijāz)아랍인들의 조상이다. 그는 약속한 것을 꼭 지키고 실천하는 진실된 믿음의 인물이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신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순종의 신앙인'이었듯이 그는 '약속의 신앙인'이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일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들의 생각을 물었을 때, 이스마일은 주저함 없이 "명령 받은대로 하십시오"라고 신념에 찬 약속의 답을 하였다. "만약 알라께서 원하신다면, 당신[아브라함]은 인내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를 발견할 것입니다." (꾸란 37:102). 그리고 그는 제단에 올려졌다. (꾸란 37:103) 그리고 자신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한 이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그 희생물이 한 양으로 대체될 때까지 굳건히 지켜졌다. 이슬람 전통에서 이스마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하나님께 바쳐지는 선택된 산 제물, 안 다비흐(adh-dhabīḥ 희생물)였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중히 여기고 꼭 지켜야 할 것을 꾸란의 다른 곳에서도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오, 믿는 자들아, 너희는 왜 너희가 하지 않는 것을 말로만 말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혐오스러운 짓은 너희가 하지 않은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니라." (꾸란 61:2-3)

한편 구약 성서에서는 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주인공이 이삭으로 등장한다. (창세기 22:1-18)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되었을 때 태어났고(창세기 21:5), 이스마일은 그보다 14년 전인 아브라함의 나이 86살에 태어났다. (창세기 16:16) 그러니까 이스마일은 이삭보다

14년 위였고, 이 14년 동안 이스마일은 아브라함의 독자였다. 창세기 22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너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Moriah)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산의 한 곳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는 내용이 있다. 이슬람 전통에서는 여기 나오는 이삭이라는 이름이 후일 인위적으로 삽입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유일한 아들이란 독자인데, 이 명령은 분명히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의 것이고 이 독자는 이스마일이다. 이삭이 태어난 후에도 형 이스마일은 계속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독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번제의 대상이 독자였음은 이어지는 같은 장의 12절에서도 밝혀져 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정녕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또 무슬림 학자들은 모리아 땅이 이스마일이 어린 시절을 보낸 메카에 있는 마르와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수프 알리 꾸란 영어번역본 제37장 앗 쌒파트 aṣ-Ṣāffāt 37:103 주석, 주해번호 4101 참조)

56-57 이드리스(Idrīs)는 성경 속의 에녹(Enoch)으로 간주된다. 구약에서 그는 '신과 함께 300년을 동행한 자이고 365세를 향수한 사람'으로 등장한다. (창세기 5:21-24) 그러나 여기 제57절의 '그를 높은 위치로 올렸다'를 해석하면서 꾸란 주석가들은 이 말의 의미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므로' (창세기 5:24)와 같은 의미의 것인가? 꾸란에 있는 '유대인들은 확실히 그 [예수]를 죽이지 않았도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신에게로 들어 올리셨도다.' (꾸란 4: 157-158)의 예수와 같이 죽음의 문을 통함이 없이 영이든 육이든 올려졌다는 뜻인가? 아니면 단지 그의 지위를 높이 올리셨다는 의미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이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결론적으로

'살아서든 죽어서든 그의 지위를 높게 하셨다'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그가 진리의 수호자요 진실한 사람이었으며, 예언자였고 사람들 중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구약에서 에녹은 노아의 고조부인데(창세기 5:21-29 참조), 이슬람 전통에서는 그가 아담 이후 노아 사이에 등장하는 예언자들 중 가장 중요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로 말하고 있다. 꾸란에서 그에 대한 다른 언급은 제21장 85절에 이스마일과 나란히 '인내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다. 한편 정통 하디스들에 따르면 신의 사자 무함마드는 예루살렘으로의 밤 여행(Isrā')에서 천상에 오르면서 네 번째 하늘에 그[이드리스]가 있는 것을 보며 지나간다. 일부 꾸란 학자들은 이에 근거하여 여기서의 높은 위치란 구체적으로 네 번째 천국이고, 일반적으로는 천국의 높은 위치를 뜻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58-60 하나님만을 믿는 일신교의 종교적 관점에서 앞선 세대들에 대한 시대 구분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 질 수 있다. (1)아담에서 노아까지, (2)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3)아브라함에서 -진리의 메시지가 분실, 망각 또는 인위적 첨삭으로 변질되어 원형대로의 복원, 통일, 회귀의 필요에 따라- 마지막 신의 사자가 도래한 때까지이다.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은 두 번째 시대까지를 공유하나 세 번째 단계에서 갈라섰다. 그리고 유대교는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를, 그리스도교는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를, 이슬람은 아브라함에서 무함마드까지를 종교형성의 완성기로 말한다.

이슬람에서는 아담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모세, 예수의 하나님, 무함마드의 하나님에 전혀 구별이 없다. 똑같은 알라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하셨던 종교를 너희의 종교로 규정하셨나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대

[무함마드]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고 또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에게도 그 종교를 지키고 그 안에서 분열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이니라." (꾸란 42:13)

이 절들에서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언자들을 특별히 은총받은 사람들로 말씀하신다. 물론 이들이 이 장에 언급된 예언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슬람 전통에서는 약 124,000명에 이르는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하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 중에는 노아의 방주에 실려서 홍수의 징벌에서 구원을 받은 뒤 새로운 신앙공동체를 세우는 데 주역이 된 사람들이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마일, 이삭, 야곱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되는 모세, 아론, 자카리야, 요한, 예수가 있다. 그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으며 믿는 자로 선택하신 사람들도 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될 때, 혹은 하나님의 계시가 독송될 때 엎드려 절하고 깊은 신앙심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 예언자들, 하나님의 계율과 명령에 복종하는 자들, 그분께서 금지해놓으신 금령을 어기지 않는 참 신앙인들– 뒤에는 다시 예배를 잊어버리고 사악한 세속적 욕망을 쫓는 후손들이 오게 마련이다. 예배는 신앙의 기둥이다. 예배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예배에 무관심하고 예배시간을 지키지 않으며 등한시한다는 말이다. 이들이 갈 곳은 더럽고 피고름으로 된 지옥이다. 죄값은 멸망이다. 지옥불에서 제외되어 구원받을 자는 회개하는 자, 믿는 자, 선행자이다. 회개가 매우 중요하다. 회개한 자는 기쁨의 낙원을 상속받는다. 회개 이전에 행한 잘못으로 불리한 계산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관대하신 분, 가장 용서를 잘 해주시는 분이시다.

61-63 회개하고 선행을 한 자들은 알라께서 약속하신 불가시세계, 에덴의 낙원에 들어간다. 신앙인들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불가시세계의 것들을 믿는다. 참 신앙의 본질은 그분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언약을 깨거나 변경하신 적이 없다. 그것은 언제나 결정되어 있는 일이다. "그분의 약속은 분명히 이행되느리라." (꾸란 73:18) 천국에는 이 세상에서와 같은 무지하고 허망되며 무익한 말들이 없다. 이것은 다른 꾸란 구절에도 밝혀져 있다. "그들은 거기에서 어떤 헛된 말도, 어떤 죄스러운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단지 평화가!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말 외에는." (꾸란 56:25-26)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항상 인내하며 타인의 잘못에 관대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참회하는 독실한 종들에게 천국이 상속될 것이다.

64-65 우리 인간은 주위의 악한 것들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현혹되고 잘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한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적 봉사를 드렸지만 아무런 보상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면 우리는 점차 조바심을 내고 근시안적 생각에 불만을 토해낸다. 그러나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의무는 인내하고 성실히 그분께 봉사하며 진리의 길 위에서 부동의 자세로 있는 것이다. 자비의 천사들은 우연히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알라의 명령으로 그분의 우주적 의지와 목적에 따라 강림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잊지 않으신다. 만약 무엇인가 막혀 있고, 지연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다. 모든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그분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모든 것을 위한 특별한 배려와 결과가 완벽히 세워져 있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그 모든 것의 관리자, 운영자, 감

독자이시다. 그리고 그 모든 질서의 법 제정자이시다. 그분의 결정과 주관하심에 반대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 그분께만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분께 유사하거나, 대등하거나, 비견되는 자를 결코 두지 말라. 이를 진리로 깨닫고 실행할 때 우리는 생의 신비와 삶의 가치를 의미 있게 맛보고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분은 초월자, 절대자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는 지고지존이시다. 우리는 이름에서, 속성에서 그분과 비교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신앙으로 받아드려야 한다. 그분은 오직 한 분! 모든 찬양 찬미가 그분께 있나이다.

66-70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은 뒤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것을 무엇인가 허황되고 무리한 주장으로 일축한다. 그들에게 사후 부활이란 가당치 않고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묻고 계시다. "너희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때에 내가 너희를 태어나게 하지 않았더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재현 혹은 되풀이에 대한 증거로 그분께서 하셨던 창조의 시작을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창조를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창조]을 되풀이하시는 분이시로다. 그분께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니라." (꾸란 30:27)

내세의 삶에 대한 불신은 추상적인 의구심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왜곡된 자신의 자유의지나 자만에서 비롯된다. 우리 내부에 선을 추구하려는 자아와 신을 갈구하는 속성(이것을 피뜨라fiṭrah라고 한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왜곡된 자유의지가 있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악함과 부정직함, 세속적 쾌락을 좇고, 표리부동한 아집 속에 오만하고 방자한 사람이 되게 한다. 우리는 전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흙이고 먼지였다. 하나님 외에 과연 누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우리를 창조하고 인

격과 개성을 유지시켜 줄 것인가? 만약 우리 스스로 그분의 빛과 인도를 거부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신이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세 삶의 즐거움이 클수록 하나님의 길은 오히려 어리석고 바보같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사탄과 한 패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진리에 대한 거부 때문에 우리는 무릎을 꿇린 채로 지옥 주위로 끌려갈 것이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은 여럿이다. 지옥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약속된 곳이다(꾸란 15:43). 거기에는 7개의 문이 있고(꾸란 15:44) 죄 값의 무게에 따라 들어가는 문이 다를 것이다. 그 날, 누가 가장 완강하게 하나님께 불복종하고 거역하였는지 가려지고, 첫 번째 그룹의 죄인이 누구인지, 누가 두 배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인지(꾸란 7:38), 누가 최하층의 불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그곳에 머물지를 알게될 것이다.

71-72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이 있은 후, 모든 사람은 지옥 앞으로 끌려 갈 것이다. 그리고 지옥 위에 놓여있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날을 가진 다리를 건너가야 한다. 이 다리는 씨라뜨(ṣirāṭ)라고 불리는데 건너편 천국으로 인도되는 다리이다. 이슬람 전승에 의하면 예언자, 순교자, 티 없이 올바른 참된 신앙인은 예외로 이 다리 앞에서 들어올려져 천국으로 향하지만, 천국행을 약속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현세에서 지은 죄 때문에 이 다리를 통과해야만 한다. 물론 지옥으로 심판받은 죄인들은 이 다리에서 불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 천국을 향해 이 다리를 지나는 첫 부류의 사람들은 밝은 빛처럼 순식간에 다리를 통과해 갈 것이다. 두 번째 사람들은 바람처럼 지나갈 것이다. 세 번째 사람들은 가장 빠른 말처럼 지나갈 것이다. 네 번째 사람들은 가장 빠른 소처럼 지날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천사들이 "오, 하나님, 그들

을 구해주소서, 그들을 구해주소서."라고 청원드리고 있는 동안에 그곳을 지나게 될 것이다.(안 따바리의 주해서에 의하면 이것은 압둘라 'Abdullāh가 전한 하디스를 이븐 자리르 Ibn Jarīr가 기록한 것임) 유사한 전승들이 알 부카리와 무슬림의 두 정통 하디스집, 싸히흐(Ṣaḥīḥ)를 비롯한 여러 하디스집에 들어 있다.

이와 같이 천국으로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씨라뜨 다리를 지나는 속도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행한 행적에 달려 있다. 걸음을 떼어놓을 때마다 칼날에 살이 찢기고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고통을 맛보며 수많은 상처가 생기게 되지만 그래도 그들은 무사히 다리를 건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죄 지은 자들은 첫발에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기도 하고, 상처받는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날카로운 칼날에 걸려 넘어져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곤두박질치게 된다.

지옥은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고통이 있는 장소이지만 단순히 징벌의 공간만이 아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지옥은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정화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슬람에서는 큰 죄를 지은 자 외에는 죄지은 믿는 자의 거의 모두가 징벌 기간이 끝난 뒤 지옥에서 나와 마침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허가 아래 천사들, 예언자들, 참된 신자들이 중재해주는 증언이 있을 것이고 원자만한 무게의 신앙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 일라하 일랄라(Lā ilāha illallāh), 하나님 외에 신은 없도다'라고 증언한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지옥불에 무릎을 꿇린 채 영원히 남아있어야 할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일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73-76 불신자들은 이 세상 삶에서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고 그들이 가진 돈과 명예, 그들이 얻은 세속적 성취를 뽐낼 것이다. 그들은

살기 좋은 주거지역에 고급주택을 소유하고 연일 열리는 사교모임과 연회에 참석하기 바쁘다. 각종 고급 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것을 자랑하며 허영과 사치를 즐기며 산다. 자신에 차서 그들은 말한다. "이렇게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 속에 우리가 즐기고 있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삶을 사는 방식이 다르고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관이 다를 뿐인데 그것을 어떻게 잘못된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 "너희보다 소유한 것에서, 외형에서, 과시하는 것들에서 훨씬 위대했던 과거 세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멸망시켰던가?" 하나님의 경고는 물질적 소유나 세속적 성취가 한시적인 것이고 외관상의 풍요나 현세의 영광은 그것이 만약 불의와 부정직에서 얻어진 것이라면 다만 허망한 것임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악에는 반드시 마땅한 징벌이 따를 것이다. 탐욕, 방종, 이기주의, 과도함은 인과응보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부정직한 부, 지위, 명예, 권력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간까지 유예시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잘못된 행위는 응당한 처벌이 유예될 뿐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약속된 그 시간은 갑자기 올 것이다. 그때 가서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다. 어느 쪽이 더 좋은 위치이고 어느 쪽이 더 가치있는 동아리였고 모임체였는가를! 신자와 불신자의 어느 쪽 공동체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불행하게 되는가를!

일반적인 이러한 해석에 더해서 일부 꾸란 주석가들은 이 75절의 의미를 우상숭배자들의 도전으로 확대 해석한다. 그들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인도에 맞서 누가 더 나은 집에서 살고 누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지 논쟁하였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일부는 이것을 유대인들의 논쟁과 도전에 관계한 계시로 해석한다. 다음 계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선민사상과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있는 가르침이다. "말하라(무함마드여!)

'너희 유대인들이여! 만약 너희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제외하고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친구들이라고 주장한다면, 너희가 (정말) 진실한 자들이라면 죽음을 기원해 보아라!'" (꾸란 62:6) 이 계시는 '만약 너희[유대인들]가 올바른 인도 위에 있고, 무함마드와 그의 동료들이 잘못 인도되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 둘 중에 잘못 인도된 쪽에 죽음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 보아라!'라는 의미이다. 만약 너희가 진리 위에 있고 진실한 자들이라면 이 기도가 너희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손이 전에 보내놓았던 것[저지른 행위들] 때문에 결코 죽음을 기원하지 못할 것이다." (꾸란 62:7)

같은 맥락에서 꾸란 제3장 알 이므란(Āl-'Imrān) 장에서는 그리스도교인들이 만든 논쟁과 도전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금도의 선을 넘어서는 과장된 주장을 펴고 이를 끝내 버리려 하지 않는다.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그만두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가 아담과 똑같은 창조물임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대[무함마드]에게 (모든 이런) 지식이 온 후에도 그[예수]에 대하여 그대와 논쟁하는 자가 있거든 말하라 (무함마드여!) '이리로 오시오! 우리의 자식들과 당신의 자식들, 우리의 여인들과 당신의 여인들, 우리 자신과 당신들 자신들 (모두를) 불러 모읍시다. 그리고 나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거짓말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벌이 내려지게 합시다.'" (꾸란 3:61)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드린 자에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더 해주신다. 인도받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까지 그들에게 내려질 징벌을 유예하실 것이다. 반면에 선행자들이 계속적으로 실천하는 올

바른 선행들에는 반드시 큰 보상이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77-80 우리는 흔히 꾸란 계시와 신의 사자를 믿지 않으면서 "만일 내세가 있더라도 아마 여기서 (현세)와 같이 그곳에서도 내게 재물과 자식 복이 더 있을 거야!"라고 큰소리 치는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절들은 그러한 불신자들을 논박하는 가르침이다. 이 절들이 계시되는 상황이 알 부카리와 무슬림의 두 정통 하디스집에 들어있는데 이맘 아흐마드(Imām Aḥmad)가 캅바브 빈 알 아랕트(Khabbāb b. Al-Aratt)로부터 전해들은 다음과 같은 전승을 기록해 놓았다. 그 [캅바브]가 말하기를 "메카의 대장장이였던 나는 알 아쓰 와일(al-'Āṣ Wā'il)에게 칼을 만들어주었는데, 그는 그 칼 값을 내게 빚지게 되었다. 어느 날 내가 칼 값을 받으러 그에게 갔더니 그가 내게 말하였다. '아니야, 신에 걸고 맹세컨대, 난 네가 무함마드를 믿지 않을 때까지 내 빚을 갚지 않을 거야!' 내가 그에게 답하기를 '아니요, 하나님께 걸고 맹세컨대, 당신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당신이 다시 부활될 때까지도 난 무함마드를 (예언자로) 믿지 않는 행위는 하지 않을 거요!'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였다. '만약에 정말 내가 죽고 부활한다면, 그래서 (그때) 당신이 내게 오면, 내게는 역시 재물과 자식들이 풍부할 거야! 그때 내가 그 빚을 네게 갚지.'" 그리고나서 이 계시가 내려왔다.

재물과 권세를 뽐내는 자는 그것이 스스로 일궈낸 성취이고 자신에게 내려진 복이므로 장래에도 그러한 복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는다. 대개 부자와 권력자는 이기적이고 오만하다. 그러나 어떻게 그가 내세의 일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언약이라도 받았단 말인가? 천만의 말이다! 그가 자랑하고 있는 것, 유세 떨고 있는 것, 교만하게 말하는 것, 끊임없는 그의 욕망, 불신, 이 모든 것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그에게는 다만 형벌이 가중될 것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성스러운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고 모독한 죄는 두 배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가 사랑하는 재산, 자손은 모두가 하나님께 되돌려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알몸이 되어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81-84 다신교도와 우상숭배자들은 그들의 신이 영광과 권세, 명예를 그들에게 가져다주리라고 믿으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취하였다. 재물과 힘을 주고 그들을 성공하게 만들어 준다고 믿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신들은 심판의 날, 그들의 적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자신을 숭배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다.

사탄들은 불신자들을 유혹하여 길을 잃게 만들고 방황하는 자가 되게 한다. 무함마드의 교설에 반대하도록 그들을 부추길 것이다. 만약 누군가 알라께 순종하려는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그에게 달려가 그가 알라께 불복종할 때까지 회유·선동하고 괴롭힘을 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악행자들에게 정해져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날들을 꼽고 계시다. 그들이 저지르는 잘못과 죄과들을 정확히 계산하고 계시다. 그들이 받게 될 형벌의 시간은 다만 유예되고 있을 뿐이다. 조금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운명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피할 수 없다. 그날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

85-87 그날이 되면, 구원을 받은 자와 파멸의 심판을 받은 자는 대조적 상황이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은 마치 왕 앞에 나온 영예로운 사절처럼 당당하지만, 죄지은 자들은 마치 물가로 달려가는 목마른 가축들처럼 불타는 지옥으로 몰아넣어지는 상황을 맞을 것이다. 은유적 두 단어, 와프드(wafd 사절)와 위르드(wird 물로 오는 자)가 여기서 대

조적으로 쓰여졌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마치 그분을 알현하러 오는 사절처럼 영접을 받지만 죄인들은 목타는 가축들이 미친듯이 물을 찾아 달려가듯이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그날, 하나님의 허가 없이는 어떤 중재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명령과 허가를 득한 천사들, 예언자들, 올바르고 참된 신앙인들이 죄인들을 지옥에서 구하기 위해 증언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관대하신 분이시다.

88-93 이 장의 중심 주제인 예수의 하나님 아들론이 결론적으로 여기서 다시 다루어진다. 예수는 한 예배자였으며 하나님의 종이었음이 재차 강조된다. 그의 출생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취하셨다거나, 그[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지나친 가설이다.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것은 터무니없고 불경스러운 말이다. 우리가 여기서 중시할 것은 여기서의 계시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예수가 주어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취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두신단 말인가? 그분은 성스러우신 분, 지고하신 분, 초월자, 절대자, 창조주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가지신다거나 낳으신다'라는 믿음이나 가설은 단순한 언어상의, 순이론상의, 명상적인 그런 어떤 사상의 잘못된 표현을 떠나서, 그것은 지고하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엄청난 불경이고 모독행위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동급의 수준으로 낮추어 말하는 불경스런 큰 죄이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두셨다'는 말은 극악무도한 끔찍스런 말이다. 아랍어 단어 읻드(idd)는 '불행, 재난, 끔찍함'의 뜻인데 많은

주석가들이 '터무니없는, 무서운'의 의미로 말한다. 이 단어의 첫 자음인 알리프(ʾ)에 붙는 모음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읻단(iddan), 앋단(addan), 아앋단(āddan) 세 가지 발음으로 읽을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첫 번째 것이다. 거의 모든 독경사들이 여기에서와 같이 읻단으로 읽는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불러올 가공할 말인가는 제90절에 생생히 표현되어 있다. 그 말은 그분의 지고하심, 장엄하심, 위대하심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 불경스러운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들인 하늘과 땅, 산들은 갈갈이 찢어지고 산산조각으로 부숴져 붕괴 될 것이다.

우주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것들 모두가 그분을 향한 유일신사상(tawḥīd) 아래 존립해 있는 것이다. 그분 외에 예배할 가치가 있는 존재는 없다. 그분께는 어떤 파트너도 두어서는 안된다. 물론 자식도, 배우자도 갖거나 만들지 않으신다. 그런 필요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시다.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요, 자족・자존하시는 주님이시다. 모든 창조물이 그분께 필요를 구하는 분이시고, 우주만물의 부양자, 주인이시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수도, 무함마드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분의 종일 뿐이다. 라 일라하 일랄라(La ilāha illallāh 하나님 외에 신은 없도다)!

94-98 그분께서는 창조하시는 순간부터 남과 여, 생물과 무생물, 작은 것과 큰 것 등 모든 존재하는 것을 알고 계시며, 그 수와 양을 정확히 헤아려 계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날, 그분께로 나아간다. 그때 우리는 어떤 조력자도 보호자도 없이 각기 혼자일 뿐이다. 믿음과 선행은 이 세상에서와 내세에서 공히 사랑과 평화를 얻게 하는 보증수표다. 반면에 악행과 죄악은 미움과 전쟁을 낳게 한다. 그분께서는 공정하시다. 가장 정의로우시다. 심판하실 때 겨자씨만

한 무게의 잘잘못도 정확히 가려내실 것이다.

꾸란은 복음을 전해주고, 동시에 경고를 해주는 진리의 계시다. 그것은 순수하고 완벽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음이지만 진리에서 벗어나 거짓과 기만 속에 방황하고 있는 자에게는 경고이다. 이 진리의 계시를 무시하고 등을 돌렸던 얼마나 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멸망을 당하고 사라져 갔던가? 우리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참 신앙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 수천년 전에도, 불과 백년 전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어났다. 지금은 어떤가? 지금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마르얌 장의 가르침

### 1~40절에서 배워야 할 점

-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간곡한 기도에 답해 주신다. 그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 요한과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출생하였다. 그분께서 단지 "있어라!" 말씀하시면 뜻하시는 모든 것이 있게 된다.
- 아기 예수는 요람에서 말을 하여 그가 신의 사자임을 선언하였고, 오해와 비난의 곤경 속에 있던 어머니를 구하였다.

### 41~65절에서 배워야 할 점

-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아론, 이스마일, 이드리스 모두가 하나님

의 은총을 받은 가장 모범적이고 훌륭한 예언자들이다. 그들의 직계 후손과 추종자들과 같이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과 길을 따라가야 한다.

- 그러나 그 다음의 후손들은 다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악한 욕망을 좇는 자들이 되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좇고 있는가? 회개하고 믿는 자 중에 있는가? 파멸의 지옥 속에 빠질 죄인 중에 있는가?
- 우주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그분께로 돌아갈 것이다. 오직 그분께만 예배하고 그분만을 숭배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하여야만 한다.

## 66~98절에서 배워야 할 점

-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는 자는 정녕 지옥 불 속에 던져 질 것이다. 현세의 권세와 영광은 허망한 것일 뿐이다.
-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불경하고 극악무도한 말이다. 모든 예언자들과 우리들 모두는 다만 가장 자비로우신 분, 그분의 종일 뿐이다.
- 꾸란이 계시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지 않고 헛된 논쟁 만을 일삼는 자에게 경고를 해주기 위해서이다.

## 전승 이야기

메카의 꾸라이쉬 족 지도자들은 예언자 무함마드와 그의 추종자들을 박해하였다. 그들은 예언자가 말하는 교설은 터무니없는 것이고 그들이 가진 경제적 기반을 흔들어놓고, 기존의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그들은 경제적 봉쇄 조치를 가해 무슬림들을 불거래 대상으로 만들었고 그들의 보호 하에 있는 가난하거나 노예 신분의 하층 계급 무슬림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박해와 형벌을 가했다. 매질을 하고 감금 하였으며 음식과 물을 빼앗고, 심지어는 한낮의 뜨거운 햇볕에 알몸을 드러내 놓고 살을 태우는 고문을 가했다. 무슬림이 된 흑인노예 빌랄(Bilāl)은 무거운 바위덩이를 가슴에 매달고, 작열하는 태양 아래에 서 있어야 했다. 잔혹했던 그의 주인은 "네가 무함마드를 거부하고 알 라트(al-Lat)와 알 웃자(al-'Uzzah) (당시의 대표적 우상신들)를 섬기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너는 여기서 꼼짝 못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빌랄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뿐!" 이라는 말만을 되풀이하며 신의 유일성을 외쳤다. 무함마드의 친구인 아부 바크르가 이를 보다 못해 빌랄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 빌랄의 주인을 만나서 자신의 건장한 흑인 노예와 빌랄을 바꾸자고 제안한 것이다. 빌랄은 이렇게 해방되었다. 그는 타고난 청아한 목소리의 주인공이었다. 그 후 그는 무함마드 곁에서 예배시간(아잔 'adhān)을 알리는 최초의 무앗진(mu'adh-dhin 아잔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다.

캅바브(Khabbāb b. Aratt)가 전하는 한 전승에 따르면 "어느 날 예언자가 카아바(Ka'bah)의 그늘에 앉아있었다. 내가 그에게 다가가 '신의 사자여! 박해가 이젠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왜 당신

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네 이전의 믿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한 박해를 당했었다. 그들의 뼈가 철 빗으로 긁혀지고 머리는 톱으로 썰어져 잘렸지만 그래도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었다. 나는 알라께서 나의 사명을 완수하게 해 주시고, 누구든 사나(Ṣan'ā')에서 하드라마우트(Ḥaḍramawt)까지 여행을 하면서 알라 이외에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두려움을 갖지 않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올 것임을 굳게 믿는다. 너희들은 너무 조급하고 참지를 못하는구나..'" (알 부카리 하디스집)

그러나 박해의 상황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그의 동료들에게 이웃 나라인 하바쉬(Ḥabash 이디오피아)로 잠시 이주해 갈 것을 권하게 된다. 예언자가 된 지 5년째 되는 해(615년), 라자브(Rajab)달의 일이다. "여러분! 하바쉬로 이주해 가십시오. 그곳에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며 백성과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고초와 역경을 인내로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실 때까지 그곳에 머물도록 합시다."

11명의 남자와 4명의 여인이 이에 따라 하바쉬로 떠나게 되었다. 꾸라이쉬들이 해안까지 그들을 쫓아갔으나 그들은 슈아이바(Shu'aybah) 항구에서 다행히 하바쉬로 떠나는 배를 때 맞추어 탈 수 있었다. 그리고나서 수개월 뒤에 또 다른 무슬림들이 하바쉬로 이주한다. 그 숫자는 남자 83명, 여자 18명(그중 꾸라이쉬 여인이 11명)에 이르렀다. 그 뒤 메카에는 약 40명의 신도만이 예언자와 남게 되었다.

두 차례 이주 사건이 있은 후, 한동안 메카에서는 집마다 고함과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꾸라이쉬 가정을 비롯한 여러 집에서 이 사건의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아들, 딸, 형제, 자매, 사촌, 사위 등 가족 중의 누구 하나라도 떠나지 않은 가정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중에는 가장

앞장 서서 무슬림들에게 박해를 가했던 아부 자흘(Abū Jahl)과 아부 수피얀(Abū Sufyan) 같은 꾸라이쉬 족장들의 가까운 친척들도 들어 있었다.

그 결과는 상반된 두 양상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이슬람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불태웠고, 다른 일부는 이를 계기로 이슬람을 받아드리게 된 것이다. 후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후일 제2대 정통 칼리파가 되는 오마르였다. 그의 가까운 친척 중의 하나인 하스마(Ḥathmah)의 딸, 라일라(Laylā)는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고 있다. "내가 이주를 위해 짐을 꾸리고 있었을 때 내 남편 아므르 빈 라비아('Amr b. Rabī'ah)는 집을 나가버렸다. 그러는 동안에 오마르가 와서 나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나는 여행 준비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그가 내게 말하였다. '너도 이주를 가려 하느냐?' 내가 대답하기를 '그럼요! 하나님께 걸고 맹세하건대, 정말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 많이 박해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넓은 땅은 저희를 위해 열려 있어요. 이제 저희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곳으로 갈 예정이에요!' 이때에, 나는 오마르의 얼굴에서 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어떤 감정의 변화와 감동의 표정 같은 것을 느꼈다. 그렇지만 그는 간단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이라고 내게 말하고는 가버렸다."

꾸라이쉬 족 사람들은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는 아부 자흘의 배다른 형제, 압둘라 빈 아비 라비아('Abdullāh b. Abī Rabī'ah)와 아므르 빈 알 아스('Amr b. al-'Ās)를 귀중한 선물들을 싣고 사절단으로 하바쉬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귀한 선물들은 무슬림 이주자들을 메카로 돌려보내 달라고 하바쉬의 왕인 네구스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주자들 중에 있던 움므 쌀마(Umm Salmah 예언자의 부인)가 이때 이야기의 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두 명의 뛰어난 꾸라이쉬 족 사절은 하바쉬에 도착하자마자 왕의 신하들에게 선물을 돌리면서, 무

슬림 이주자들을 돌려보내 주도록 왕에게 강력히 진언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 뒤 그들은 네구스 왕을 만나 왕에게 귀한 선물을 바치면서 청원하였다. '우리 도시의 일부 말릴 수 없는 이단자들이 귀하의 땅에 와 있습니다. 꾸라이쉬 족장들은 귀하께서 그들을 친절히 되돌려 주시리라 믿으면서 이를 간청 드리라고 저희를 귀하께 보냈습니다. 이 말썽꾼들인 이단자들은 우리의 고유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귀하의 신앙 또한 받아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신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진언을 마치자마자 신료들이 일제히 그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말을 하였다. '그들이 그들의 사람들을 더 잘 알 터이니 그들의 도시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여기에 그들을 있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왕은 난감해 하면서 말하였다. '적법한 조회 없이는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보다 내 나라를 선택하여 믿고, 여기에 보호처를 구하러 왔는데 내가 그 신뢰를 그냥 저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먼저 그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사절단)이 그들에 대해 말한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나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지요.' 왕은 사람을 보내서 예언자의 동료들에게 그의 궁전으로 올 것을 요구했다.

왕의 전갈을 받은 무슬림 이주자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다. 무엇을 어떻게 왕에게 말해야 효과적일지 논의했지만 의견이 분분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전원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예언자의 가르침 그대로를 말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왕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든지 나라 밖으로 우리를 쫓아내든지 그 결정은 왕에게 맡기도록 합시다.'

그들이 성에 도착하여 왕 앞에 섰을 때 왕은 뜻밖의 질문을 하였다. '나는 너희가 너희들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또 나의 신앙이나 다른 어떤 신앙도 받아드리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런데 대체

너희의 종교가 무엇인지 나는 알고 싶구나.' 이때 자으파르 빈 아비 탈립이 일어나 이주민들을 대표하여 즉석에서 준비 없는 연설을 하였다. '오, 존경하는 왕이시여! 우리는 무지 속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함마드(알라의 평화가 그에게 있기를)가 우리에게 신의 사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회를 개혁하는데 그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꾸라이쉬 지도자들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언자와 우리를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박해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귀하의 나라로 온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왕이 재촉하였다. '신에 의해 너희의 예언자에게 내려졌다는 그 계시의 일부를 말해 보아라.' 이에 답하여 자으파르는 예언자 요한과 예수(알라의 평화가 그들에게 있기를)의 이야기가 담긴 이 마르얌 장의 첫 부분(1절-40절)을 송독하였다. 그것을 들으면서 왕은 눈물을 흘렸다. 그의 턱수염이 눈물로 흠뻑 젖게될 정도로 그는 많은 눈물을 흘렸다. 자으파르의 독송이 끝났을 때 왕은 말하였다. '실로 이 계시와 예수님의 메시지는 거의 모두가 같은 근거에서 나왔다. 신에 걸고 맹세하건대, 나는 여러분을 그 사람들[메카의 꾸라이쉬]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요!'

다음 날, 아므르 빈 알 아스가 네구스 왕에게 달려가 말하였다. '그들을 다시 불러오십시오.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 대한 그들의 교리가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예수에 대해서 그들은 의외의 말을 할 것입니다.' 왕은 무슬림 이주자들을 부르기 위해 다시 사람을 보냈다. 아므르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이주자들은 다시 함께 모여 협의하였다. 만약 왕이 예언자 예수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관해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이것은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는 주제이므로 그들로써는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결정하였다. 하나

님의 계시와, 예언자 무함마드가 그들에게 가르쳐 준 똑같은 내용의 답을 솔직히 해야만 한다고 결의한 것이다. 궁정에 그들이 도착하자, 왕은 아므르 빈 알 아스에 의해 제의된 그 질문을 그들에게 던졌다. 자으파르 빈 아비 탈립이 조용히 일어나 주저함이 없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요, 그분의 사자였습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보내진 알라의 말씀이요, 알라의 영(rūḥ)이었습니다.' 이때 왕은 땅에서 지푸라기 하나를 집어 들더니 말하였다. '신에 걸고 맹세컨대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그분에 대해 말하였던 것보다 이 지푸라기 무게만큼도 다르지 않다.' 그 후, 왕은 꾸라이쉬들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돌려보내면서 말하였다. '나는 어떤 뇌물도 받지 않는다.' 그리고는 무슬림 이주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완전한 평화 속에 여기서 머무는 것이 허가되었습니다.'" (아불 아을라 마우두디의 꾸란주해서, 제3권, pp.56-59)

제 36 장

# 야 씬 Ya-Sīn
## 야씬 장

전체가 83절로 되어있는 이 장의 이름은 첫 절을 이루고 있는 두 아랍어 자음, 야(Yā)와 씬(Sīn)에서 만들어졌다. 이 두 자음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전승에 따르면 야신은 하나님의 사자 무함마드를 가리키는 한 명칭으로 간주된다. 계시 시기에 대해서는 대다수 주석가들이 표현 형식으로 보아 메카 중기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장의 중심 주제와 가르침은 이슬람 교리 중 핵심이 되는 유일신관(tawḥīd), 내세(ākhirah)관, 그리고 예언자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최후 사자이고 그를 통해 내려진 계시가 최종의 진리라는 것이다. 사실상 이 세 가지는 메카 초기에서 중기까지 내려진 계시들 대부분에서 공통적으

로 되풀이 강조되고 있는 주제이다.

이 장은 유독 많은 무슬림들에게 특별하다. 그것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는 심장(al-qalb)이 있다. 그런데 꾸란의 심장은 야씬 장이다. 나는 내 움마(ummah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들 모두의 가슴(심장)에 이 장을 담아놓기를 원한다." 또한 마으낄 빈 야싸르(Ma'qil b. Yasar)에 의해 전해지고 있는 예언자의 유명한 다음 하디스 역시 모든 무슬림들에게 매우 중시된다. "야씬 장을 너희 중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읽어주어라."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의 마음 속에 내세에 대한 생각들과 이슬람의 근원적 가르침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예언자의 말에 따라 어느 무슬림 공동체에서나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 앞에서는 이 장이 독송된다. 낭랑하게 들려오는 이 장의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세상 삶을 마칠 준비를 한다. 오늘날에도 무슬림 형제들은 대체로 매우 어린 나이에 야씬장을 배워 암송한다. 예언자의 가르침처럼 그들의 심장에 이 계시를 담아놓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강건하게 키워 간다.

## 제 36 장 سُورَةُ يسٓ

بِسۡمِ ٱللَّهِ ٱلرَّحۡمَٰنِ ٱلرَّحِيمِ

يسٓ ١ وَٱلۡقُرۡءَانِ ٱلۡحَكِيمِ ٢ إِنَّكَ لَمِنَ ٱلۡمُرۡسَلِينَ
٣ عَلَىٰ صِرَٰطٖ مُّسۡتَقِيمٖ ٤ تَنزِيلَ ٱلۡعَزِيزِ ٱلرَّحِيمِ
٥ لِتُنذِرَ قَوۡمٗا مَّآ أُنذِرَ ءَابَآؤُهُمۡ فَهُمۡ غَٰفِلُونَ ٦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야 씬** [1]

**02 지혜로 가득 찬 꾸란에** [2] **걸고(맹세하건대),**

**03 진실로 그대[무함마드]는(신의)사자들** [3] **중의 한 사람이고**

**04 올바른 길** [4] **위에 있느니라.**

**05 (이것은) 가장 강하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에 의해 내려진 계시로**

**06 그들의 조상이 경고를 받지 않아서 그들이 부주의한 자들** [5]**로 아직 남
아 있는 백성** [6]**을 그대로 하여금 경고해 주기 위한 것이니라.**

---

1) 두 아랍어 자음에서 만들어진 이 단축어는 감추어진 꾸란의 기적들 중의 하나이다. 하나님 외에는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2) 꾸란에는 하나님의 가르침들, 법령들, 증거들, 예증들이 꽉 차 있다는 뜻.
3) 여기서 파견자, 파송자들이라는 뜻의 단어 알 무르쌀룬(al-mursalūn)은 하나님에 의해 보내어진 메신저들로서 신의 사자 아르 라술(ar-rasūl) 또는 예언자 안 나비(an-nabī)를 의미함.
4) '올바른 길'은 하나님께서 유일신이라는 것을 믿는'이슬람의 길'이다.
5) 가필룬(ghāfilūn)은 '부주의한, 무관심한, 소홀한'의 뜻으로 아직 진리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여 무지와 무관심 속에 신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신앙문제에 관해 아직 부주의한 상태에 남아 있는 자를 의미함.
6) 무신론자들, 또는 아랍의 꾸라이쉬 부족 같은 사람들을 가리킴.

## 제36 장

لَقَدْ حَقَّ ٱلْقَوْلُ عَلَىٰٓ أَكْثَرِهِمْ فَهُمْ لَا يُؤْمِنُونَ ﴿٧﴾
إِنَّا جَعَلْنَا فِىٓ أَعْنَٰقِهِمْ أَغْلَٰلًا فَهِىَ إِلَى ٱلْأَذْقَانِ فَهُم
مُّقْمَحُونَ ﴿٨﴾ وَجَعَلْنَا مِنۢ بَيْنِ أَيْدِيهِمْ سَدًّا وَمِنْ خَلْفِهِمْ
سَدًّا فَأَغْشَيْنَٰهُمْ فَهُمْ لَا يُبْصِرُونَ ﴿٩﴾ وَسَوَآءٌ عَلَيْهِمْ ءَأَنذَرْتَهُمْ

**07** 참으로 그 말씀[7]이 그들의 대다수 사람들 위에 이미 진리로 증명되었으나,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고 있느니라.

**08** 실로 우리[하나님]는 그들의 목에 쇠사슬들을 감아놓아서 그것이 턱에까지 이르니, 그들은 머리가 위로 치켜져 있느니라.[8]

**09** 우리는 그들 앞에 장벽을 만들어 놓았고 그들 뒤에도 장벽을 만들어 놓았으며, 또 우리가 그들을 덮어놓았으니, 그들은 (진리를) 볼 수 없느니라.[9]

---

7) 일반적으로 여기서의 말씀을 '꾸란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심판의 날에 죄값에 따르는 형벌이 있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많다

8) 4형동사 아끄마하('aqmaḥa)는 원래 '(물 마시기를 거부하는 낙타가) 머리를 위로 제키다'의 뜻인데, 여기서 파생된 수동분사형 무끄마훈(muqmaḥūn)은 '볼 수 없게 머리가 위로 제켜져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들의 머리가 위로 치켜져 있다'는 이 말은 은유적 표현으로, 그들의 목에 감겨져 있는 죄의 사슬들로 인해 그들의 목이 빳빳이 세워져 있고 고개가 강제로 뒤로 제켜져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의미임.

9)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은 참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다.

## 제 36 장

أَمْ لَمْ تُنذِرْهُمْ لَا يُؤْمِنُونَ ﴿١٠﴾ إِنَّمَا تُنذِرُ مَنِ ٱتَّبَعَ ٱلذِّكْرَ
وَخَشِيَ ٱلرَّحْمَٰنَ بِٱلْغَيْبِ ۖ فَبَشِّرْهُ بِمَغْفِرَةٍ وَأَجْرٍ كَرِيمٍ ﴿١١﴾
إِنَّا نَحْنُ نُحْىِ ٱلْمَوْتَىٰ وَنَكْتُبُ مَا قَدَّمُوا۟ وَءَاثَٰرَهُمْ ۚ وَكُلَّ
شَىْءٍ أَحْصَيْنَٰهُ فِىٓ إِمَامٍ مُّبِينٍ ﴿١٢﴾ وَٱضْرِبْ لَهُم مَّثَلًا أَصْحَٰبَ

**10** 그대가 그들에게 경고를 하거나 혹은 경고를 하지 않거나 그들에게는 마찬가지니라.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11** 그대는 염송서[꾸란]을 따르고 보이시지 않는 가장 자비로우신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만 경고를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그대는 (하나님의) 용서와 고귀한 보상[10]이 그에게[11] 있다는 복음을 전하라.

**12** 실로 우리는 죽은 자에게 삶을 주고, 그들이 앞서 보내놓은 것과 그들의 행적들[12]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느니라. 모든 것을 우리는 분명한 장부(책)[13]에 셈하여 적어놓고 있느니라.

---

10) 천국의 보상을 말함.

11) 꾸란을 따르고 신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에게.

12) 그들이 앞서 행한 것과 뒤에 남긴 행적들을 말한다. 그들의 행적은 지상에서 그들의 발로 걸으며 남긴 흔적 모두를 가리킨다. 예컨대 예배, 하나님의 대의를 위한 지하드, 그들이 행하였던 선과 악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13) 알 이맘 알 무빈(al-Imām al-Mubīn 분명한 책)은 모든 행위의 기록을 담고 있는 자료를 가리킨다. 선행과 악행을 정확히 기록한 책이다.

## 제 36 장

ٱلْقَرْيَةِ إِذْ جَآءَهَا ٱلْمُرْسَلُونَ ﴿١٣﴾ إِذْ أَرْسَلْنَآ إِلَيْهِمُ ٱثْنَيْنِ
فَكَذَّبُوهُمَا فَعَزَّزْنَا بِثَالِثٍ فَقَالُوٓا۟ إِنَّآ إِلَيْكُم مُّرْسَلُونَ ﴿١٤﴾
قَالُوا۟ مَآ أَنتُمْ إِلَّا بَشَرٌ مِّثْلُنَا وَمَآ أَنزَلَ ٱلرَّحْمَٰنُ مِن شَىْءٍ إِنْ أَنتُمْ
إِلَّا تَكْذِبُونَ ﴿١٥﴾ قَالُوا۟ رَبُّنَا يَعْلَمُ إِنَّآ إِلَيْكُمْ لَمُرْسَلُونَ ﴿١٦﴾ وَمَا

<제2부>

13 그리고 사자들이 거기에 왔을 때 (남겨진), 그 마을[14] 주민들의 (행적을) 한 예로써 그들에게 제시해 주어라.

14 우리가 그들[마을 사람]에게 두 명의 사자를 보냈을 때 그들은 그 둘을 거부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보강해주니 그들 (셋)이 말하기를 "실로 우리는 당신들에게 보내어진 사자들입니다."라고 하였다.

15 (그러나) 그들[마을 사람]은 "너희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 가장 자비로우신 분께서는 어떤 것[계시]도 내리지 않으셨다. 단지 너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더라.

16 그들[사자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주님께서는 실로 우리가 당신들에게 보내진 사자들임을 아십니다."

14) 일부 꾸란 해설서들에서는 이 마을을 그리스도교 전파 초기 1세기 동안 북시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의 하나였던 안티옥(Antioch [Antākiya])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븐 카시르(Ibn Kathīr)와 같은 유명한 주해가들에 의해 반박된다. 뒤의 전승 이야기(1) 참조.

## 제 36 장

عَلَيْنَآ إِلَّا ٱلْبَلَـٰغُ ٱلْمُبِينُ ﴿١٧﴾ قَالُوٓا۟ إِنَّا تَطَيَّرْنَا بِكُمْ ۖ لَئِن لَّمْ
تَنتَهُوا۟ لَنَرْجُمَنَّكُمْ وَلَيَمَسَّنَّكُم مِّنَّا عَذَابٌ أَلِيمٌ ﴿١٨﴾ قَالُوا۟
طَـٰٓئِرُكُم مَّعَكُمْ ۚ أَئِن ذُكِّرْتُم ۚ بَلْ أَنتُمْ قَوْمٌ مُّسْرِفُونَ ﴿١٩﴾
وَجَآءَ مِنْ أَقْصَا ٱلْمَدِينَةِ رَجُلٌ يَسْعَىٰ قَالَ يَـٰقَوْمِ ٱتَّبِعُوا۟

**17**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단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15]입니다."

**18** 그들[마을 사람]이 말하기를 "실로 우리가 너희에 대한 흉조의 점을 보았다.[16] 만약 너희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희에게 돌을 던질 것이다. 정말로 너희는 고통스러운 형벌을 우리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19** 그들[사자들]이 말하기를 "당신들의 흉조의 점은 당신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경고를 받았기[17] 때문에 (그것을 흉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당신들이야말로 한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사람들[무스리푼][18]입니다."

---

15) 알 발라그(al-balāgh)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16) 타따이야라(taṭayyara)는 '나쁜 점괘를 뽑다'이다.
17) 수동형 2형동사 둑키라(dhukkira)는 '훈계받다, 경고받다, 주의받다'의 뜻이다.
18) 무스리푼(musrifūn) 이란 '낭비벽이 심한 사람들, 매사에 엉뚱하고 지나친 사람들'이다. 이들은 법도를 쉽사리 어기고 정해진 한도를 자주 넘어서는 자들로 큰 죄를 범하고도 태평하다.

## 제36 장

ٱلْمُرْسَلِينَ ﴿٢٠﴾ ٱتَّبِعُوا۟ مَن لَّا يَسْـَٔلُكُمْ أَجْرًا وَهُم
مُّهْتَدُونَ ﴿٢١﴾ وَمَا لِىَ لَآ أَعْبُدُ ٱلَّذِى فَطَرَنِى وَإِلَيْهِ تُرْجَعُونَ
﴿٢٢﴾ ءَأَتَّخِذُ مِن دُونِهِۦٓ ءَالِهَةً إِن يُرِدْنِ ٱلرَّحْمَـٰنُ بِضُرٍّ
لَّا تُغْنِ عَنِّى شَفَـٰعَتُهُمْ شَيْـًٔا وَلَا يُنقِذُونِ ﴿٢٣﴾ إِنِّىٓ

**20** (그때) 그 도시의 가장 먼 곳에서 한 남자가 달려와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이여! 그 사자들을 따르시오."

**21** "당신들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따르시오. 그들은 올바른 인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22** "저를 창조하신 그분[하나님]께 왜 제가 경배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분께로 당신들은 돌아갈 것입니다."

**23** "그분 외에 (다른) 신들을[19] 제가 취하겠습니까? 만약 가장 자비로우신 분께서 어떤 해악이라도 제게 내리시려 한다면 그들[다른 신들]의 중재는 어떤 것도 제게 소용이 없을 터이고, 그들은(결코 저를)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19) 알리하(ālihah)는 일라(ilāh 신)의 복수형임.

## 제 36 장

إِذًا لَّفِى ضَلَٰلٍ مُّبِينٍ ٢٤ إِنِّىٓ ءَامَنتُ بِرَبِّكُمْ فَٱسْمَعُونِ ٢٥
قِيلَ ٱدْخُلِ ٱلْجَنَّةَ ۖ قَالَ يَٰلَيْتَ قَوْمِى يَعْلَمُونَ ٢٦ بِمَا غَفَرَ لِى
رَبِّى وَجَعَلَنِى مِنَ ٱلْمُكْرَمِينَ ٢٧ ۞ وَمَآ أَنزَلْنَا عَلَىٰ قَوْمِهِۦ مِنۢ
بَعْدِهِۦ مِن جُندٍ مِّنَ ٱلسَّمَآءِ وَمَا كُنَّا مُنزِلِينَ ٢٨ إِن كَانَتْ

24 "실로 제가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저는) 명백한 잘못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25 "진실로 저는 당신들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제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26 (불신자들이 그를 죽였을 때 그에게는) "천국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이 들렸느니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의 백성들이 알아야 할텐데… ."

27 "나의 주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셨으며, 나를 명예로운 사람들 중의 하나로 만들어 주셨나이다!"

28 그리고 그 사람 이후 우리[하나님]는 그의 백성에게 (그들을 벌하려고) 하늘로부터 어떤 군대[20]도 보내지 않았으며, 보낼 필요도 우리에겐 없었느니라.

---

20)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파견되는 천사들의 군병.

## 제 36 장

إِلَّا صَيْحَةً وَٰحِدَةً فَإِذَا هُمْ خَٰمِدُونَ ٢٩ يَٰحَسْرَةً عَلَى
ٱلْعِبَادِ ۚ مَا يَأْتِيهِم مِّن رَّسُولٍ إِلَّا كَانُوا۟ بِهِۦ يَسْتَهْزِءُونَ ٣٠
أَلَمْ يَرَوْا۟ كَمْ أَهْلَكْنَا قَبْلَهُم مِّنَ ٱلْقُرُونِ أَنَّهُمْ إِلَيْهِمْ
لَا يَرْجِعُونَ ٣١ وَإِن كُلٌّ لَّمَّا جَمِيعٌ لَّدَيْنَا مُحْضَرُونَ ٣٢

**29** 진실로 단지 한 번의 소리[싸이하][21]만이 있었을 뿐인데, 보라! 그들 모두는 (재처럼) 사라져 버렸도다.

**30** 오, 불쌍하다 종[인간][22]들이여! 한 사자가 그들에게 올 때마다 단지 그들은 그를 조롱할 뿐이구나.

**31** 우리가 그들 이전에 얼마나 많은 세대들을 멸망시켰는지 그들은 보지 못하느냐? 실로 그들은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가진 못하느니라[23].

**32** 그러나 그들 각자는 모두가 (예외 없이) 우리 앞에 (심판을 받으러) 출석할 것이니라.

---

21) 싸이하(ṣayḥah)는 마치 촛불을 "후~"하고 불어 끌 때 나는 소리처럼 창조주께서 이 땅에 존재하던 것을 사라지게 할 때 만들어내신 소리이다. 주석가들은 큰 소리(광음), 큰 바람소리(광풍)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22) 여기서의 '종'을 뜻하는 단어 이바드('ibād)는 '인간, 사람들'을 가리킨다.

23) 멸망당하면 모든 것이 끝이다. 죽은 뒤 인간은 다시 그들의 현실세계로 돌아가지 못한다.

## 제 36 장

وَءَايَةٌ لَّهُمُ ٱلْأَرْضُ ٱلْمَيْتَةُ أَحْيَيْنَـٰهَا وَأَخْرَجْنَا مِنْهَا حَبًّا فَمِنْهُ
يَأْكُلُونَ ﴿٣٣﴾ وَجَعَلْنَا فِيهَا جَنَّـٰتٍ مِّن نَّخِيلٍ وَأَعْنَـٰبٍ
وَفَجَّرْنَا فِيهَا مِنَ ٱلْعُيُونِ ﴿٣٤﴾ لِيَأْكُلُوا۟ مِن ثَمَرِهِۦ وَمَا عَمِلَتْهُ
أَيْدِيهِمْ ۖ أَفَلَا يَشْكُرُونَ ﴿٣٥﴾ سُبْحَـٰنَ ٱلَّذِى خَلَقَ ٱلْأَزْوَٰجَ

<제3부>

33 그들을 위한 한 예증[24]은 죽어 있은 땅이니라. 우리가 그것에 생명을 주어 그것에서 곡식이 나오게 하고, 그것을 그들이 먹게 하느니라.

34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추야자와 포도나무 정원들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였으며,

35 그들이 그것의 과일을 먹게 해 주었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손이 그것을 만든 게 아니니라.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느냐?

---

24) 아야('āyah)는 하나님의 '증표, 징표, 표시, 계시'를 뜻한다.

## 제36 장

كُلَّهَا مِمَّا تُنۢبِتُ ٱلۡأَرۡضُ وَمِنۡ أَنفُسِهِمۡ وَمِمَّا لَا يَعۡلَمُونَ ٣٦
وَءَايَةٞ لَّهُمُ ٱلَّيۡلُ نَسۡلَخُ مِنۡهُ ٱلنَّهَارَ فَإِذَا هُم مُّظۡلِمُونَ ٣٧
وَٱلشَّمۡسُ تَجۡرِي لِمُسۡتَقَرّٖ لَّهَاۚ ذَٰلِكَ تَقۡدِيرُ ٱلۡعَزِيزِ ٱلۡعَلِيمِ ٣٨
وَٱلۡقَمَرَ قَدَّرۡنَٰهُ مَنَازِلَ حَتَّىٰ عَادَ كَٱلۡعُرۡجُونِ ٱلۡقَدِيمِ ٣٩ لَا

**36** 땅이 생산하는 것, 그들 자신[인간]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쌍으로 창조하신 그분[하나님]께 영광[찬양]이 있나이다.

**37** 또 그들을 위한 한 예증은 밤이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낮을 거두어가면, 보라! 그들은 어둠 속에 있느니라.

**38** 그리고 태양은 그에게 정해진 시간의 궤도를 운행하니, 그것은 가장 강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의 법령[25]이니라.

**39** 또 달에게는 마치 오래되어 메말라 굽어진 대추야자 가지[26]처럼 (달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27] (이동하는) 자리들을 우리가 재어 정해놓았느니라.

---

25) 여기서의 타끄디르(taqdīr 결정, 평가, 존경)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미 운명지워져 있는 법령이다. '신의(神意)에 의해 결정된 것', '천명(天命)에 의해 배치된 것'의 뜻임.

26) 우르준('urjūn)은 '시들고 메말라 굽은 대추 야자나무의 가지'이다.

27) 오래 되어 마른 야자 나뭇가지가 둥글게 굽어져 있는 것처럼 생긴 초승달이 점점 커져 꽉 찼다가 다시 기울어져 제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 제 36 장

ٱلشَّمۡسُ يَنۢبَغِي لَهَآ أَن تُدۡرِكَ ٱلۡقَمَرَ وَلَا ٱلَّيۡلُ سَابِقُ ٱلنَّهَارِۚ وَكُلّٞ
فِي فَلَكٖ يَسۡبَحُونَ ٤٠ وَءَايَةٞ لَّهُمۡ أَنَّا حَمَلۡنَا ذُرِّيَّتَهُمۡ فِي
ٱلۡفُلۡكِ ٱلۡمَشۡحُونِ ٤١ وَخَلَقۡنَا لَهُم مِّن مِّثۡلِهِۦ مَا يَرۡكَبُونَ ٤٢
وَإِن نَّشَأۡ نُغۡرِقۡهُمۡ فَلَا صَرِيخَ لَهُمۡ وَلَا هُمۡ يُنقَذُونَ ٤٣

**40** 해가 달을 따라 잡아서는 안 되고 밤도 낮을 앞지르지 못하느니라. 각기 (자신의) 궤도[28]에서 유영할 뿐이니라.

**41** 그들을 위한 (또 다른) 한 예증은 실로 우리가 그들의 자손들을 짐 실은 (노아의) 방주[29]에 태워 나른 것이니라.

**42**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그[방주]와 유사한 것인 그들이 타고 다니는 것[배][30]을 창조해 주었느니라.

**43**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의도한다면 우리는 그들을[31] 물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을 위한 도움의 외침을 누구도 듣지 못하고,[32] 그들은 구조받지도 못할 것이니라.

---

28) 괄라크(falak)는 '천체의 궤도'이다.
29) 알 풀크(al-fulk 배)는 단수, 복수 양쪽에 다 쓰이는 명사로 특히 노아의 방주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30) 일부 주석가들은 이것을 마치 육지에서의 배와 같이 인간이 타고다니고 물건을 실어나르는 '낙타'로 말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주석은 '배'다.
31)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32) 싸리크(ṣarīkh)는 '외침, 비명소리'이다. 라 싸리카(lā ṣarīkha)는'도움을 청하는 외침소리를 들어줄 자 없다'라는 의미임.

## 제 36 장

إِلَّا رَحْمَةً مِّنَّا وَمَتَٰعًا إِلَىٰ حِينٍ ﴿٤٤﴾ وَإِذَا قِيلَ لَهُمُ ٱتَّقُواْ
مَا بَيْنَ أَيْدِيكُمْ وَمَا خَلْفَكُمْ لَعَلَّكُمْ تُرْحَمُونَ ﴿٤٥﴾ وَمَا تَأْتِيهِم
مِّنْ ءَايَةٍ مِّنْ ءَايَٰتِ رَبِّهِمْ إِلَّا كَانُواْ عَنْهَا مُعْرِضِينَ ﴿٤٦﴾
وَإِذَا قِيلَ لَهُمْ أَنفِقُواْ مِمَّا رَزَقَكُمُ ٱللَّهُ قَالَ ٱلَّذِينَ كَفَرُواْ لِلَّذِينَ

**44** 우리로부터의 자비 외에는 (구함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에겐) 한 순간 (세속의) 즐거움 밖에 (없느니라).

**45** 그들에게 "너희 앞에 있는 것[세속의 고통]과 너희 뒤에 있는 것[내세의 고통]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아마도 너희는 자비를 받을 것이니라[33]"라는 말씀이 있었을 때 (그들은 등을 돌렸느니라).

**46** 그들 주님의 예증들 중 어떤 예증이 그들에게 오던지 그들은 단지 그것에 등을 돌렸을 뿐이니라.

33) 너희가 하나님의 종교를 믿는다면, 즉 다신 사상을 버리고 이슬람의 일신 사상을 믿으며 올바른 행실로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천국으로 가는 은혜를 받을 것이다.

## 제36장

ءَامَنُوٓا۟ أَنُطْعِمُ مَن لَّوْ يَشَآءُ ٱللَّهُ أَطْعَمَهُۥٓ إِنْ أَنتُمْ إِلَّا فِى ضَلَـٰلٍ
مُّبِينٍ ﴿٤٧﴾ وَيَقُولُونَ مَتَىٰ هَـٰذَا ٱلْوَعْدُ إِن كُنتُمْ صَـٰدِقِينَ ﴿٤٨﴾
مَا يَنظُرُونَ إِلَّا صَيْحَةً وَٰحِدَةً تَأْخُذُهُمْ وَهُمْ يَخِصِّمُونَ ﴿٤٩﴾
فَلَا يَسْتَطِيعُونَ تَوْصِيَةً وَلَآ إِلَىٰٓ أَهْلِهِمْ يَرْجِعُونَ ﴿٥٠﴾

**47**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제공해 주셨던 것[34] 중에서 너희는 자선을 베풀라"라는 말씀이 있었을 때, 불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그분께서 부양하시면 될 자를 (왜) 우리더러 부양하라는 것이냐? 너희들이야말로 분명한 잘못 속에 (빠져) 있을 뿐이로다."

**48** 또 그들은 말하기를 "만약 너희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이 약속[35]이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냐?"

**49** 그들은 단지 한 번의 소리[싸이하][36] 외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을 뿐이다. 그들이 논쟁하고 있는 동안 그것[싸이하]이 그들을 휩쓸어 갈 것이니라.

**50** 그러면 그들은 유언을 할 수도 없고 그들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지도 못

---

34) 동사 라자까(razaqa)는 '생계수단을 공급해주다, 양식을 주다, 먹여 살리다, 부양하다'의 뜻임.

35) 부활과 심판의 날에 대한 약속.

36) 앞의 제29절에 있는 싸이하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물의 존재를 없애버리실 때, 혹은 우주의 종말을 맞을 때의 소리를 말한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인간이 한숨을 쉬듯 단 한 번의 짧은 소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그것은 지진, 해일 또는 무서운 토네이도이고 그때의 소리가 이것일 수 있다고 말한다.

## 제 36 장

وَنُفِخَ فِى ٱلصُّورِ فَإِذَا هُم مِّنَ ٱلْأَجْدَاثِ إِلَىٰ رَبِّهِمْ يَنسِلُونَ ﴿٥١﴾
قَالُوا۟ يَـٰوَيْلَنَا مَنۢ بَعَثَنَا مِن مَّرْقَدِنَا ۜ هَـٰذَا مَا وَعَدَ ٱلرَّحْمَـٰنُ
وَصَدَقَ ٱلْمُرْسَلُونَ ﴿٥٢﴾ إِن كَانَتْ إِلَّا صَيْحَةً
وَٰحِدَةً فَإِذَا هُمْ جَمِيعٌ لَّدَيْنَا مُحْضَرُونَ ﴿٥٣﴾ فَٱلْيَوْمَ لَا تُظْلَمُ

할 것이니라.

<제4부>

51 나팔소리가 울리면,[37] 보라! 그들은 무덤들에서 나와 그들의 주님께로 서둘러 갈 것이다.

52 그들은 말할 것이다. "오,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인가! 우리의 잠[무덤]자리에서[38] 우리를 불러일으킨 분이 누구신가?" (이때 그들은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자비로우신 분께서 약속하셨던 것이고, (신의) 사자들이 진리로 말했던 것이니라."

53 단지 한 번의 소리[싸이하]만이 있었을 뿐인데, 그런데 보라! 그들은 모두가 우리 앞에 불려와 있느니라.

---

37) 이것은 부활과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두 번째 나팔 소리이다. 첫 나팔 소리는 천지개벽과 심판의 날의 도래를 알리는 것이다.

38) 마르까드(marqad 잠자리)는 여기서 무덤을 뜻한다. '죽은 뒤 무덤 속에서 사는 바르자크(barzakh)의 삶에서'의 의미이다.

## 제36장

نَفْسٌ شَيْـًٔا وَلَا تُجْزَوْنَ إِلَّا مَا كُنتُمْ تَعْمَلُونَ ٥٤
إِنَّ أَصْحَٰبَ ٱلْجَنَّةِ ٱلْيَوْمَ فِى شُغُلٍ فَٰكِهُونَ ٥٥
هُمْ وَأَزْوَٰجُهُمْ فِى ظِلَٰلٍ عَلَى ٱلْأَرَآئِكِ مُتَّكِـُٔونَ ٥٦ لَهُمْ فِيهَا
فَٰكِهَةٌ وَلَهُم مَّا يَدَّعُونَ ٥٧ سَلَٰمٌ قَوْلًا مِّن رَّبٍّ رَّحِيمٍ ٥٨

54 그날에 영혼은 어떤 것도 부당히 취급당하지 않고,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행하곤 했던 것 외에는 벌이나 보상을 받지 않으리라.

55 진실로 그날에 천국의 거주자들은 즐거운 것들로 바쁠 것이니라.

56 그들과 그들의 부인들은 그늘에서 안락의자들[39]에 기대어 앉아 있고,

57 (모든 종류의) 과일들이 그들을 위해 거기에 있으며, 그들은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든 가질 것이니라.

58 (또 그들은 듣게 되리라.) "평화가 있으라!"라는 자애로우신 주님으로부터의 말씀을!

39) 아라이크('arā'ik)는 아리카('arīkah)의 복수형으로 '소파, 안락의자'의 뜻이다.

## 제 36 장

وَٱمۡتَٰزُواْ ٱلۡيَوۡمَ أَيُّهَا ٱلۡمُجۡرِمُونَ ﴿٥٩﴾ ۞ أَلَمۡ أَعۡهَدۡ إِلَيۡكُمۡ
يَٰبَنِيٓ ءَادَمَ أَن لَّا تَعۡبُدُواْ ٱلشَّيۡطَٰنَۖ إِنَّهُۥ لَكُمۡ عَدُوّٞ مُّبِينٞ ﴿٦٠﴾
وَأَنِ ٱعۡبُدُونِيۚ هَٰذَا صِرَٰطٞ مُّسۡتَقِيمٞ ﴿٦١﴾ وَلَقَدۡ أَضَلَّ مِنكُمۡ
جِبِلّٗا كَثِيرًاۖ أَفَلَمۡ تَكُونُواْ تَعۡقِلُونَ ﴿٦٢﴾ هَٰذِهِۦ جَهَنَّمُ ٱلَّتِي كُنتُمۡ

**59** 그러나 오, 죄인들이여![40] 이 날에 너희는 분리되리라.

**60** "오, 아담의 자손들아, 내가 너희에게 사탄을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더냐? 실로 그는 너희에게 명백한 적이니라."

**61** "그리고 나만을 숭배하라(하지 않았더냐?) 이것이 올바른 길[41]이니라."

**62** "그러나 참으로 그[사탄]는 너희 중 수많은 무리를 길을 잃고 방황하게 하였도다. 그런데도 너희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더냐?"

---

40) 무즈리문(mujrimūn)은 다신교도, 우상숭배자, 악행자, 죄인들 모두를 가리키는 '죄지은 자'에 대한 통칭적 용어로 쓰인다. 그날, 이들은 믿는 자들과 분리된다.

41) 올바른 길은 이슬람이다. 그리고 이슬람 신앙의 첫째는 하나님께 비견되는 자(shirk)를 두지 않는 것이다.

## 제 36 장

تُوعَدُونَ ﴿٦٣﴾ ٱصْلَوْهَا ٱلْيَوْمَ بِمَا كُنتُمْ تَكْفُرُونَ ﴿٦٤﴾
ٱلْيَوْمَ نَخْتِمُ عَلَىٰٓ أَفْوَٰهِهِمْ وَتُكَلِّمُنَآ أَيْدِيهِمْ وَتَشْهَدُ أَرْجُلُهُم
بِمَا كَانُوا۟ يَكْسِبُونَ ﴿٦٥﴾ وَلَوْ نَشَآءُ لَطَمَسْنَا عَلَىٰٓ أَعْيُنِهِمْ فَٱسْتَبَقُوا۟
ٱلصِّرَٰطَ فَأَنَّىٰ يُبْصِرُونَ ﴿٦٦﴾ وَلَوْ نَشَآءُ لَمَسَخْنَٰهُمْ عَلَىٰ

**63** "이것이 (바로) 너희가 약속받아 온 지옥이니라!"

**64** "너희가 불신해 왔던 것 때문에 이 날 거기서 불에 타보아라."

**65** 이 날 우리가 그들의 입을 봉할 것이나 그들의 손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그들의 발이 그들이 (행하여) 얻곤 했던 것을 (모두) 증언할 것이니라.

**66** 그리고 우리가 의도했다면 정말 우리는 그들의 눈을 없애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42]. 그러면 그들은 길[43]을 (찾아) 애써 노력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만 어떻게 그들이 (그 길을) 볼 수 있겠느냐?

---

42) 따마싸 (ṭamasa 없어지다, 지워지다) 동사의 주어가 눈 (아인 'ayn) 또는 시력 (바쓰르 baṣr)이면 '눈이 멀다'가 된다. 따미스 (ṭamīs)는 장님을 뜻한다. 여기서 '눈을 없애다, 덮어 가리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시다'의 은유적 표현이다.

43)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서의 길 (ṣirāṭ)은 '올바른 길'을 말하고 '진리'를 뜻한다고 해석한다.

## 제 36 장

مَكَانَتِهِمْ فَمَا ٱسْتَطَٰعُوا۟ مُضِيًّا وَلَا يَرْجِعُونَ ﴿٦٧﴾
وَمَن نُّعَمِّرْهُ نُنَكِّسْهُ فِى ٱلْخَلْقِ ۖ أَفَلَا يَعْقِلُونَ ﴿٦٨﴾ وَمَا
عَلَّمْنَٰهُ ٱلشِّعْرَ وَمَا يَنۢبَغِى لَهُۥٓ ۚ إِنْ هُوَ إِلَّا ذِكْرٌ وَقُرْءَانٌ مُّبِينٌ ﴿٦٩﴾
لِّيُنذِرَ مَن كَانَ حَيًّا وَيَحِقَّ ٱلْقَوْلُ عَلَى ٱلْكَٰفِرِينَ ﴿٧٠﴾ أَوَلَمْ يَرَوْا۟

**67** 만약 우리가 의도했다면 정말 우리는 그들을 (다른 것으로)[44] 그들의 자리에 바꿔놓을 수도 있었느니라. 그러면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또 (뒤로) 돌아갈 수도 없었을 것이니라.[45]

<제5부>

**68** 우리가 그에게 긴 수명을 준 자라도 우리는 그를 창조(상태)로 되돌려 놓느니라[46].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69** 우리는 그[무함마드]에게 시(詩)를 가르치지 않았으며, 그것은 그에게 어울리지도 않느니라[47]. 이것은 오로지 염송서[48]요, 명백한 꾸란일 뿐이니라.

**70** 그것은 살아있는 자[49]에게 경고를 해주기 위한 것이고, 그 말씀은 불

---

44) 그들을 다른 동물들이나 혹은 무생물의 어떤 다른 창조물로 바꿔 놓을 수도 있었다는 뜻.
45) 이성과 지성이 없는 창조물이라면 발전도 퇴보도 없을 터이고, 무생물이라면 앞으로나 뒤로 가지 못하고 정지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46)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건강했던 육체는 쇠약해지고 태어날 때와 같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간다.
47) 마 얀바기 리(ma yanbaghī li)는 '~는 가치도 없다. 어울리지 않다'의 뜻이다.
48) 디크르(dhikr 언급, 기억, 말씀)가 꾸란을 지칭할 때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기억하고 찬송하는 '염송서, 훈계서'로 해석된다.

## 제 36 장

أَنَّا خَلَقْنَا لَهُم مِّمَّا عَمِلَتْ أَيْدِينَآ أَنْعَٰمًا فَهُمْ لَهَا مَٰلِكُونَ ﴿٧١﴾
وَذَلَّلْنَٰهَا لَهُمْ فَمِنْهَا رَكُوبُهُمْ وَمِنْهَا يَأْكُلُونَ ﴿٧٢﴾ وَلَهُمْ فِيهَا مَنَٰفِعُ
وَمَشَارِبُ أَفَلَا يَشْكُرُونَ ﴿٧٣﴾ وَٱتَّخَذُوا۟ مِن دُونِ ٱللَّهِ ءَالِهَةً
لَّعَلَّهُمْ يُنصَرُونَ ﴿٧٤﴾ لَا يَسْتَطِيعُونَ نَصْرَهُمْ وَهُمْ لَهُمْ جُندٌ مُّحْضَرُونَ

신자들[50]에게 (곧) 진리로 증명되어질 것이니라.

71 그들은 우리의 손이 만든 것 중에서 가축을 우리가 그들을 위해 창조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그것[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니라.

72 또 우리는 그것[가축]을 그들에게 복종시켜서 그것의 일부는 그들이 타고 다니고, 그것의 일부는 그들이 먹게 하였느니라.

73 그리고 그것[가축]에 있는 (다른) 유익한 것들과 마실 것들을 그들이 갖게 하였느니라.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를 드리지 않느니라.

74 그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51]을 취하지 않았더냐?

75 그것[다른 신]들은 그들을 도울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것들은 (심판의 날에) 그들에게 (유죄판결을 받게) 불려나오는 한 군대[52]일 것이니라.

---

49)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산 자(믿는 자, 불신자) 모두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체로 주석가들은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인 '믿는 자들'로 해석한다.

50) 여기서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부정하고 거부하며 죽은 자들을 뜻한다. 그들은 심판의 날 그것이 진리임을 알게될 것이다.

51) 알리하(ālihah)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 우상신 혹은 잡신들이다.

## 제 36 장

﴿٧٥﴾ فَلَا يَحْزُنكَ قَوْلُهُمْ إِنَّا نَعْلَمُ مَا يُسِرُّونَ وَمَا يُعْلِنُونَ ﴿٧٦﴾

أَوَلَمْ يَرَ الْإِنسَانُ أَنَّا خَلَقْنَاهُ مِن نُّطْفَةٍ فَإِذَا هُوَ خَصِيمٌ مُّبِينٌ ﴿٧٧﴾

وَضَرَبَ لَنَا مَثَلًا وَنَسِيَ خَلْقَهُ قَالَ مَن يُحْيِي الْعِظَامَ وَهِيَ رَمِيمٌ ﴿٧٨﴾

قُلْ يُحْيِيهَا الَّذِي أَنشَأَهَا أَوَّلَ مَرَّةٍ وَهُوَ بِكُلِّ خَلْقٍ عَلِيمٌ ﴿٧٩﴾ الَّذِي

**76** 그러니 (무함마드여!) 그들의 말은[53] 그대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실로 우리는 그들이 감추고 있는 것과 그들이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느니라.

**77** 사람[54]은 실로 우리가 (한 방울의) 정액[55]으로부터 그를 창조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런데도 보라! 그는 (아직도) 명백한 적으로 있느니라.

**78** 그는 우리와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자신의 창조됨을 잊고 있느니라. 그는 "썩어 부패해버린 뼈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란 말이냐?"라고 말하더라.

**79** 말하라 (무함마드여!) "첫 번째로 그것[뼈]을 창조하셨던 분께서 그것에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창조물을 다 알고 계

---

52) 가짜 신들과 사탄은 자신들을 숭배하거나 따랐던 자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 심판의 날에 증언자로 불려나오게 된다.

53) 무함마드를 가짜 예언자요 시인이며 마술사라고 말하면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말.

54) 여기서 인간을 뜻하는 단어 인싼(insān)에 정관사 알(al)이 붙여져 알 인싼(al-insān)이 된 것은 죽은 뒤의 부활을 부정하는 불신자 모두를 지칭하기 위해서이다.

55) 누뜨파(nuṭfah)는 '~에서 뽑은 소량'의 뜻으로 여기서는 '응혈', '정액'을 의미한다.

## 제 36 장

جَعَلَ لَكُم مِّنَ ٱلشَّجَرِ ٱلۡأَخۡضَرِ نَارٗا فَإِذَآ أَنتُم مِّنۡهُ تُوقِدُونَ ٨٠
أَوَلَيۡسَ ٱلَّذِي خَلَقَ ٱلسَّمَٰوَٰتِ وَٱلۡأَرۡضَ بِقَٰدِرٍ عَلَىٰٓ
أَن يَخۡلُقَ مِثۡلَهُمۚ بَلَىٰ وَهُوَ ٱلۡخَلَّٰقُ ٱلۡعَلِيمُ ٨١
إِنَّمَآ أَمۡرُهُۥٓ إِذَآ أَرَادَ شَيۡـًٔا أَن يَقُولَ لَهُۥ كُن فَيَكُونُ ٨٢
فَسُبۡحَٰنَ ٱلَّذِي بِيَدِهِۦ مَلَكُوتُ كُلِّ شَيۡءٖ وَإِلَيۡهِ تُرۡجَعُونَ ٨٣

시는 분이로다!"[56]

80 그분께서는 너희를 위해 초록색 나무[57]로부터 불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리고 보라! 너희는 그것으로 불을 붙이고 있느니라.

81 하늘과 땅을 창조한 그분께서 그것들과 유사한 것[58]을 창조할 능력이 없으시겠느냐? 아니로다! 그분이야말로 모든 것을 알고계시는 창조주이시도다.

82 진실로 그분께서 어떤 것을 원하실 때 그분의 명령은 단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있어라!" 그러면 그것이 있느니라!

83 그러니 모든 것의 주권[59]이 그분의 손에 있는 그분께 영광의 찬양을 드릴지어다. 그분께로 너희는 돌아가게 될 것이로다.

---

56)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뼈가 지구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비록 그것을 분해시켜 산이나 바다에 뿌려도 다 알고 계시다. (이 야씬장 끝의 전승이야기 참조)

57) 예언자 무함마드 시대에 아랍에서 불쏘시개로 쓴 이러한 초록색 나무는 아파르 ('Afār)와 마르크 (Markh) 나무이다.

58) 인간, 천사,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뿐 아니라 천당과 지옥 등.

59) 알 말라쿠트 (al-malakūt)는 알 물크 (al-mulk)와 같은 의미로 '주권, 통치권, 지배권'을 뜻한다. 일부 사람들은 알 물크를 육체적 영역에서, 알 말라쿠트를 정신적 영역에서 행사되는 주권으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주석학 학자들은 동의어로 보고 있다.

## 해 설

1 이 단축 자음들(ḥurūf al-muqatta'āt)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한 칭호로 간주된다. 일부 주석가들은 야(Yā)가 '오!'를 의미하고 씬(Sīn)은 '인싼(insān 인간)'의 생략기호가 되는 것으로 풀이하며 이것을 "오 인간들이여!"라고 인간을 부르는 말이라고 보고 있다. 나아가 주석가들은 이런 맥락에서 여기서 호칭되는 인간은 인간들의 진정한 정신적 지도자인 무함마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 장이 주로 무함마드의 예언자로서의 지위와 그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진리라는 점을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2-3 하나님께서 꾸란으로 맹세해 주신다는 말은 꾸란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하신 것이고, 한편 이 진리의 계시를 인류에게 전한 무함마드가 진정한 하나님의 최후 사자임을 증명해 주신 말이기도 하다.

4-5 진리의 계시, 꾸란을 통해 완성된 종교 이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며 가장 올바르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완벽한 삶의 방법이자 길이다. 꾸란에서는 여기서의 이 '앗 씨라트 알 무스타낌(aṣ-ṣirāṭ al-mustaqīm 올바른 길)'을 수없이 되풀이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은 꾸란의 첫장 개경장에서부터 등장한다. 이 길이 곧 이슬람의 길이고 천국으로 인도되는 길이다. 하나님의 사자 무함마드는 이 길을 걸으며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며 사는가를 가르쳐 주는 모범적 삶을 살았다. 그의 모범적 행신과 관행을 예언자 쑨나라고

말한다. 우리가 본받아 따라야 할 길이다. 또한 우리는 이 절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두 속성을 발견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힘과 권능을 가지신 전능하시고 '가장 강하신 분'이시며, 우리인류를 포함한 모든 창조물들을 사랑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꾸란의 인도가 하나님으로부터의 큰 자비임을 깨달아야 한다.

6 아랍의 꾸라이쉬(Quraysh)족에게는 전에 어떤 예언자도 파송되지 않았다. 모든 인류를 위한 최종의 완성된 우주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들 중의 한 사람[무함마드]이 최후의 신의 사자로 선택을 받았다.

7 꾸란이 계시된 때나 그 이전 시대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이렇게 '믿는 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는 거두어진다. 그러한 사람들의 불복종은 스스로 안내받고 교정받기 위한 신앙의 길을 포기하거나 차단하는 것이다.

8-9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은 스스로의 자만심에 점점 자신의 목을 뻣뻣하게 곧추 세울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에 감아놓은 죄의 사슬들일 뿐이다. 그것의 수가 많아질수록 문제는 심각해진다. 인간이 저지르는 악행들은 결국 신법이 정해놓고 있는 계율을 어겨 그것에 대한 징벌 집행 때의 형량을 계속 누적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불복종의 결과는 이 절에서 매우 적나라하면서도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첫째,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면

그의 목에 그 죄값의 멍에가 사슬로 묶여지게 된다. 둘째, 죄값이 커짐에 따라 사슬의 수가 늘어나 턱에까지 이르고 목은 뻣뻣해져 마침내 그의 머리는 억지로 뒤로 제쳐진다. 그에게는 보이는 것이 없고, 그는 보아야 할 것을 볼 수도 없다. 부도덕한 사고와 부정행위들이 그의 지성을 더럽히고 건전한 삶보다는 점점 더 쾌락과 이기적 삶에 빠져든다. 현세에서 그는 자만에 찬 성공한 자로 보일지라도 그만큼 그는 거만하고 교만한 죄인일 뿐이다. 먼저 하나님 의지에 대한 불복종이 무엇보다 큰 잘못이지만, 악행들이 계속 더 큰 죄를 낳고 죄값들을 쌓아놓게 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는 자로부터 그분의 자비를 거두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받지 못함은 정신력에서의 쇠퇴함을 보이고, 하나님의 의지로 돌아가려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키우지 못하고 회개나 의지를 세울 결심을 약하게 한다. 넷째, 결국 그의 남은 인생은 진정한 발전의 가능성을 잃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빛이 마침내 끊기고 그래서 그는 결국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다.

10 이렇게 절대적인 낙망의 상태에 도달해 있거나 혹은 지나친 자만심에 전혀 자신의 미래를 상관하지 않는다면, 꾸란의 계시나 이슬람의 정신적 가르침은 아무런 가치도 영향도 그에게 줄 수 없다. 그들에게 설교하는 일이 우리 무슬림들의 책무이다. 그러나 대개 그들은 우리의 충언과 경고를 듣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도 알아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올바른지, 누가 그분의 계시를 거부하는지를 잘 아시고 우리 모두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11 그러나 세상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성법에 거스르는 짓을 할까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도 그분의 존재를 느끼고, 마치 그분을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복음이다. 그런 행동들은 과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약속받게 해주는 것이고, 또 그들의 미래에 기쁨으로 가득 찬 보상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12 최후심판의 날, 선과 악의 행적들은 정확한 계산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그날 우리가 청산해야 하는 죄값과 심판을 받기위한 이러한 기록들은 현세 삶이 끝난 뒤 시작되는 무덤 속의 삶 동안에도 유효하게 쓰일 것이다. 무덤 속의 형벌을 받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무덤 속의 삶'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죽은 뒤 심판의 그날까지 무덤에서 사는 바르자크(barza<u>kh</u>)의 삶이다. (꾸란 23:99-100 참조) 악행자는 좁은 공간에서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무덤 속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도 그것은 한시적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을 부활 후 내세의 삶이다. 우리는 내세 삶에 대한 진지한 이해를 해야 한다. 내세에 받을 우리 몫의 보상을 위하여 우리는 선행과 예배, 자선과 희사를 실천해야만 한다.

13 이슬람 초기의 일부 주석가들이 이 마을을 안티옥으로 말하고 있으나 또 다른 많은 주석가들은 이븐 카시르 같은 뛰어난 주석가가 밝히고 있는 이유들에 근거하여 이 이야기가 어느 특정 시대와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는 한 비유적 사건일 가능성을 주장한다. (뒤의 전승이야기1 참조)

14 하나님의 사자들은 진리에서 벗어나 진리와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지역과 민족에게 파송된다. 그들의 임무는 성스러운 것이지만 그들이 성스러운 존재는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 보통 사람 이상임을 주장하지 않았다. 모세나 예수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기적을 보여주는 일]이 부여된 예외의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인간 이상의 존재는 결코 아니었다. 그들은 대개 그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악과 부정에 대한 경고자요, 예언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고 파송된다.

그들이 전하는 우주적 메시지는 기존 사회가 걷고 있는 길이 악의 길임을 알게 하고 그 길을 걸으며 저질러지는 악행의 중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잘못된 그 길 위의 주역들인 사회 기득권층은 오히려 신의 사자, 신의 파송자들인 예언자의 도래가 그들에게는 도전이고 불행이라고 생각했다. 반면에 대체로 가난한 자, 소외되고 멸시받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이런 예언자들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위해 일할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를 위해 살고 죽으려는 자신의 의지를 보인다.

15 불의의 사람들은 특별히 파견된 사자들의 사명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평범한 인물을 통해 성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였다. 자만심에 차있고 사회지도층이던 그들이 보기에 신의 사자들은 자신들보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무자격자들이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의 사자는 천사이거나 적어도 신비스럽고 아주 비범한 인물이어야 했다.

16-17 신의 사자들 또는 예언자들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것을 전하고 그들을 납득시키는 것이

었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법령들을 선언하고 공포하는 일이었다.

18 안 따이르(aṭ-ṭair)는 새다. 아랍인들은 그들의 길흉의 징조를 새로부터 점쳐내는 미신적 관행을 갖고 있었다. 새로부터 악운이나 나쁜 징조를 뜻하는 타따이야라(taṭayyara) 혹은 따이야라(ṭayyara 흉점, 흉조를 보다)를 찾았다. 신의 메신저들이 악의 길을 공공연히 비난하자 악행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에게 불행과 악운을 가져온다고 믿었다.

19 그러나 그것은 부당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불복종하는 행위일 뿐이다. "당신들은 스스로의 악행으로부터 일어나는 나쁜 징조들을 무엇이라고 달리 말하느냐? 당신들에게 경고해주고 더 나은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 온 우리가 악운을 가져온다고 어떻게 가정해 말하느냐?"

20 도시 안의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의심을 품었으나 진리는 먼 변두리에서 온 한 사람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그곳은 도시 외곽의 빈민지역이고 부자들에 의해 멸시받는 하층민촌이었다. 그러나 이 올바른 사람은 사자들의 사명을 믿었고 또 동료들인 도시 사람들이 신으로부터 온 사자들의 사명을 자신과 같이 믿기를 원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꾸란이 계시될 때, 메카의 기득권층이던 꾸라이쉬 족의 거만한 지도자들은 예언자 무함마드를 박해하고 내쫓았으나, 반대로 그를 환영하고 믿었으며, 그의 사명을 지원했던 사람들은 변방의 메디나 원주민들인 안싸르(Anṣār 메카의 이주 무슬림들을 받

아들여 도와준 조력자들에 대한 통칭)들이었다.

21 예언자들 뿐 아니라 그들의 진실한 추종자들은 그들 자신의 이득을 도모하지 않는다. 그들이 걷는 길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인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그들의 희망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살고 그 기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22 논쟁을 거듭하며 그가 사람들에게 호소한 것은 자신의 강한 확신과 믿음으로, 올바른 길을 따르자는 것이었다. 자신이 도달한 정신적 만족을 함께 나누고 진심으로 그들도 경험하길 원하였던 것이다.

23 이 절에서 그가 드리는 탄원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복종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권능은 그분께만 속한다. 만약에 그분의 우주적 계획에서 그분께서 나의 잘못에 벌하시거나 혹은 얼마간의 슬픔이나 고통, 불행으로 나를 시험하는 것이 적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때 하나님 이외의 허상과 가짜의 신들이 과연 나를 돕고 혹은 나의 행동을 중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24 실제로 만약 내가 이러한 우상들과 잡신들을 믿는다면, 나는 타락하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이다.

25 다시 한 번 그는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신념과 마음속 평화를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갖기를 열망하면서 그의 말에 귀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을 위한 충만한 만족을 발견하였습니다. 당신들도 나의 충고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정말

로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당신들 스스로를 위해 증명해 보지 않겠습니까?"

26 그러나 도시의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고 말았다. 그렇지만 그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이 독실하고 경건하며 올바른 사람은 천당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라'는 이 말은 그가 순교로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그러나 그 순간에서조차 그의 생각은 오로지 그의 도시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들의 불복종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으며, 그 순간에도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를 기원하였다.

27 이 사람은 한 순백하고 정직한 영혼으로, 예언자들의 부름에 답하여 복종하였고 자신을 위한 정신적 만족을 얻었으며, 그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모든 그의 과거는 용서받았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축복과 영예 속에 부활되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28-29 하나님의 징벌이 반드시 어떤 선포와 경고와 함께 오는 것은 아니다. 단 한 번의 경미한 (바람)소리 같은 것 – 예를 들면 지진의 진동소리든지 해일이 밀려오는 소리든지, 격렬한 폭풍우나 광풍의 소리든지 간에– 만으로 충분하다. (사무드 Thamūd 백성의 운명을 묘사하는 꾸란 제11장 후드 Hūd 11:67, 또는 제29장 알 안카부트 al-'Ankabūt 29:40을 볼것)

30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박대했으며 종국에는 그들 자신의 운명을 파멸시켰다. 그들이 역사를 공부하였다면, 그들은 여러 세대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이전에 멸망당하였다는 것을 알 것이다. 여기서 '종'이라는 용어는 우리 인간을 지칭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조물로서의 우리를 그분께서 각별하게 소중히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가엾게 여기신다.

31-32 하나님께서 "그들은 보지 못하느냐?"고 언급하신 이 사람들은 이전에 멸망당했던 앞선 세대의 사람들과 같이 모두가 다시 재생되거나 복구되지 않는다. 그들은 엄청난 번영과 행운을 누렸지만 불복종 때문에 한 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전멸되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현세 삶에 그들이 다시 복구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간 사람이나 이렇게 사라져버린 자들이나, 현존하는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가올 심판의 날에 그들의 지난 행위들에 대한 계산을 정확히 청산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불려나올 것이다.

33 불신자들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부활될 수 있느냐고 묻는다. 이에 답해 줄 상징적 증표 중의 하나가 땅이다. 땅은 겨울에 죽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봄에 살게 하시어 초목과 곡식이 생명을 얻고 자라게 한다. 인간이 죽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그를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

34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부양자이시다. 햇볕과 비를 주시고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며 풍성한 과일이 열매 맺게 하신다.

35 아칼라(akala)는 문어적으로 '먹다'를 뜻하지만 위의 제33절과 여기서의 '먹다'는 보다 넓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이득과 만족,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것을 뜻한다. 우리들은 땅을 갈고 씨를 뿌린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자연에 대한 생산적 힘은 우리 손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다. 모든 생산물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고 그분의 작품이다.

36 만물이 쌍으로 창조되어 있음은 신비이다. 사람과 동식물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서 양성의 신비는 공통으로 존재한다. 자연 현상 또한 음양의 조화 속에 움직인다. 긍정과 부정, 선과 악, 낮과 밤, 작용과 반작용 등 우리의 삶이 그 안에 있다.

37 '밤으로부터 낮을 거두어 감'이라는 표현은 상징적이며 은유적이고 의미가 깊다. 이 부분의 절들 모두가 우리 주변의 물질세계에 있는 것들 중 여러 상징적 예증들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 안에서 심오한 정신적 가르침과 진리를 깨닫고 배울 수 있게 된다.

38 무스타까르르(mustaqarr)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나 또는 거주지, 쉬는 장소를 뜻한다. 여기서는 전자의 의미로 쓰여졌다. 그러나 일부 주석가들은 후자의 의미로도 말한다. 시간으로 보는 경우의 비유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낮 시간 동안에 태양이 궤도를 따라 운행하고 밤 동안은 다음 날의 운행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는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다.

39 초승달에서 다음 초승달까지, 보름달에서 다음 보름달이 될 때까지 달의 자리는 정확히 재어져 있다. 그것의 행로에 있는 별자리들은 태양의 운행궤도인 황도 12궁(宮)에 따라 나눈 28수(宿)로, 동쪽에는 각(角)·항(亢)·저(氐)·방(房)·심(心)·미(尾)·기(箕), 북쪽에는 두(斗)·우(牛)·여(女)·허(虛)·위(危)·실(室)·벽(壁), 서쪽에는 규(奎)·누(婁)·위(胃)·묘(昴)·필(畢)·자(觜)·삼(參), 남쪽에는 정(井)·귀(鬼)·유(柳)·성(星)·장(張)·익(翼)·진(軫)이다. 우르준('urjun)은 시들고 메말라 굽어진 대추야자 나뭇가지를 말한다. 이븐 압바스(Ibn 'Abbās)는 이것이 나무줄기에 대추야자 송이들을 연결하고 있는 본 가지라고 설명하였다. 그것이 오래되면 노랑색으로 변하고 말라 비틀어져 마치 낫같이 굽어진다. 초승달이 뜰 때 낫같이 되는 모양에 비유하였다.

40 해와 달이 함께 정해진 궤도를 돌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운행궤도는 서로 다르다. 서로를 따라잡거나 앞서지 않는다. 결코 충돌은 없다. 그 법칙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져 있고 천문학의 연구 주제이기도 하다. 우주 공간을 유영하듯 통행한다는 묘사가 아름답다.

41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의 상징이 되는 예언자 노아와 홍수에 대한 이야기에 관계된다. 예언자 노아의 방주는 꾸란 29장 알 안카부트(al-'Ankabūt) 29:15에서의 표현으로는 확실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한 예증'이다.

42 여기서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란 모든 종류의 항해용 원양 선박들은 물론 현대식 항공기도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다. 항공기들은 마치 배들이 물 위를 수영하듯 운행하고 있는 것 같이 하늘을 날고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설계하여 만들고 운영하는 뛰어난 지혜, 지성, 연구 능력을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존재 할 수 있을까?

43 또한 하나님께서 중력의 자연법칙 같은 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문명의 이기들의 이용과 발달이 가능할까? 만약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타고 가는 배가 안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바다에 빠진다면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하시는 자비의 선물이다. 그분께서는 약속된 시간까지 우리를 돌보아주고 지켜주시는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44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수 많은 불가사의한 것들로 우리 인간을 축복해 주셨다. 우리 인간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주신 것이다. 이러한 은혜의 자비로운 선물들이 없었더라면 인간의 삶은 바다와 육지 그리고 하늘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위험에 직면 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은총과 편의들의 향유가 영원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이 세상 삶에서 단지 한 순간 주어져 있는 것이다.

45 인간은 그들의 과거 행동들에 대한 결과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 행동들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을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경계와 주의를 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이런 평범하면서도 당연한 논리가 이 세상 삶을 내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그들은 도덕적, 윤리적인 설교에 싫증내고 그것에 등을 돌리며, 단지 눈앞의 이득만을 추구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들 자신에게

큰 손실이 되는 쪽을 좇아가는 것이다.

46 하나님의 증표들, 예증들은 수없이 많다. 그분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우주에, 세계에, 자연 속에,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또 그분의 사자들을 통해 보내신 계시 속에 수없이 많이 있다. 불신자들은 빛에 등을 돌리고 어둠속을 걷고 있는 마치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이러한 모든 계시, 예증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헤맨다.

47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부자에게 착하고 선한 사람이 이렇게 호소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께 큰 재물과 부를 주셨습니다. 그것의 적은 일부라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자선을 베푸는 데 쓰지 않겠나요?" 그러나 자기본위적인 사람은 단지 자신만을 생각하지 이런 호소 자체를 비웃는다. 그들은 너무 오만하여서 그들의 가슴 속 어디에도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의 공간을 찾을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대신 그래야 하나?"라고 말한다. 불신앙과 똑같이 이런 면에서도 거만하다. 그들이 갖고 있는 남다른 지위, 부, 장점들 때문에 그들이 잘나고 우월하다고만 생각한다.

48-50 오만과 거만함에 더하여, 그들은 신앙을 거부하고 신앙인을 조소한다. "내세가 있다면, 그것이 언제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봐!" 그 대답은 이렇다. "당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것이다. 그 날은 확실하다. 그 시각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즉각 당신은 일생동안 당신에게 다가왔던 믿음의 기회들을 놓치고 말았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 삶에서 단 한 번이라도 믿으려는 의지를 보이

지 않았다. 이제 당신은 늘 당신 가까이에 아부하고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절연당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 모두가 당신의 죄와 악행들에 대한 증언자가 될 것이다. 아무도 당신을 도와주지도, 도와줄 수도 없을 것이다!"

51 전승에 따르면 나팔 소리를 내는 천사는 이스라필(Isrāfil)이다. 그의 이름이 꾸란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주의 종말과 이 세상의 끝을 선포하는 이 나팔 소리에 관한 언급은 꾸란의 여러 곳에 있다.

52 대 혼란 속에서 죽은 자들 모두가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자비로 이미 내세를 수없이 경고하셨다는 사실을 모두가 새롭게 기억하게 될 것이다. 죽은 후 영혼이 휴면상태와 같은 삶을 살아왔던 무덤에서의 삶을 이제 끝마치게 된 것이다. 살아있던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의 말들이 너무도 이상하게 들렸는데 전부가 진실이고 그들이 예언했던, 그들이 전했던 내세에서의 새 삶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53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시간과 공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의 집결이 한순간에, 눈 깜빡할 찰나에 일어날 것이다.

54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충만한 최고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다. 가장 적은 미덕이나 장점일지라도 관대하게 보상을 받을 것이다. 심판대에 선 자는 자신이 저질렀던 죄과에 상응하는 것 외에는 형벌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55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아 기분 좋은 모든 것들이 천국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서의 기쁨은 끝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거기에 있을 것이다.

56 이러한 즐거움, 기쁨, 행복을 배우자와도 함께 나누어 누릴 것이다.

57 사과, 배, 포도 등 온갖 과일뿐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그곳에서는 즉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만을 느끼게 될 것이다.

58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누리는 최상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 그것은 가장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평화가 있기를"이라는 인사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 말씀은 마지막 목표를 달성한 우리의 승리와 성공을 한 마디로 함축하여 축하해 주시는 말이다. 이 평화라는 단어 자체가 가장 자애로우신 그분의 속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소중히 길러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로부터 최고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의 주님이시다. 가장 지고하신 그분의 속성이 곧 자비와 평화이다!

59 이와 같이 천국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상태가 죄지은 사람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최후 심판의 날, 그들은 분리될 것이다. 심판의 날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분리의 날이다. 각 영혼은 이제 그들의 지난 행적들에 따라 그 자신의 진정한 등급과 수준

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60 가장 자비로우신 분께서는 아담 이후 모든 세대들에 계시와 예언자를 보내어 인간의 적 사탄이 쳐놓은 죄의 덫에 우리가 빠지지 말 것을 거듭 경고하셨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 중에는 잘못을 저지르고 죄에 빠지는 자들이 항상 존재한다. 아담은 실수를 저지른 후 곧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따라서 이슬람 전통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 같은 원죄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담의 자손들인 우리 인간의 운명은 각기 모두에게 깨끗하고 귀중한 것으로 열려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 중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죄인들이 계속 있어 용서받은 인류의 조상[아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슬람 전통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연결해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자'에게 부드러운 비난조의 '아담의 자손들아'라는 칭호를 붙여 부르기도 한다.

61 사탄을 멀리하라는 경고와 나란히 하나님께서는 그분께만 예배하라는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강조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행복을 얻는 자들의 길인데 끝내 그들은 그 길에서 등을 돌린다.

62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들의 지능에 의해, 자신의 이득을 판별할 수 있도록 '이해하는 지력'인 아끌('aql 이성)을 부여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판단하는 지력과 이성의 능력을 오용하거나 사탄에게 팔아넘긴다. 신중히 숙고한 뒤 올바른 길을 택하여 걸어가야 할 그들의 기회를 버렸던 것이다! 그것도 얼마 안 되는 수가 아니라, 너무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사탄의 길을 따르고 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

셨던 개인적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떼지어 파멸의 길을 선택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63 그들이 걷고 저지른 행동들의 최종 결말은 이제 지옥불로 판정이 났다. 그들이 좀 더 신중히 숙고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죄의 선고를 받은 것이다.

64 올바른 길의 가르침, 안내, 경고들을 거부하였던 대가로 이제 그들은 응당한 죄값의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 타오르는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다.

65 사악한 죄인들과 불신자들은 말을 잃을 것이다. 그들은 누구도 자신의 행위를 변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 말을 못하고 침묵하여도 소용이 없다. 그들의 손과 발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 말을 할 것이다. 여기서 '손과 발들'이란 그들이 현세 삶에서 부여받았던 행동하기 위한 모든 신체 기관들을 상징한다. 똑같이 확대된 의미의 은유와 상징이 다음 절에서는 '눈들'에 적용되어져 나온다. 또한 꾸란 제41장 푸씰라트(Fuşilat) 20~21절에서는 귀와 눈과 피부가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말하고 있다.

66 '우리의 의지가 있었더라면'은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계획이었다면'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여 행동을 결정하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여기서의 눈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성과 지성, 자유의지의 은유적 표현이다. 우리 인간 모두는 각기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만 한다. 만약 하나

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행위 선택의 능력을 주시지 않았고, 주시는 것을 의도하지도 않으셨다면 경우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강제할 도덕적 혹은 윤리적 책임이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은 분별력도 지성도 가질 필요가 없었을 터이고 의무와 책임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며, 잘잘못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비난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심판의 날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행위의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다. 불신자는 진리를 보기를 거부한 만큼, 사악한 자는 악행을 저지른 만큼,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심판의 날이 있는 이유이다.

67 만약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인간에게 행위의 선택권 혹은 자유의지를 주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매우 다르게 창조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도덕적인 혹은 정신적 미덕이나 속성들이 결여된, 움직이지 않는 창조물들—예컨대 돌 같은 무생물—로 우리를 대체시켜 만드셨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발전의 가능성도 타락의 개연성도 없었을 것이다. 또 인간들은 지금까지 성취한 고도의 정신적 물질적 성장이나 수준들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tawbah)의 문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이었고, 따라서 우리는 행위의 선택들과 함께 일어나는 결과의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이다.

68 우리 생애에서 우리가 겪는 육체적·정신적 변화들을 생각해 보라. 우리는 태어나 어린 시절을 거쳐 젊고 건장한 청년이 되고 마침내 늙은 나이에 이르게 된다. 극도로 늙은 나이가 되면 치매현상이 오기도 하고, 사고와 행동이 단순해지며 다시 어린아이 때와 같은 여러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태어날 때의 상태로 변화를 겪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들을 주셨고, 현세 삶에서 져야 할 많은 책임도 부여해 주셨다. 늙은 나이에 이르기 이전에, 우리에게 죽음이 닥쳐오기 이전에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 우리는 이 세상처럼 일시적이지 않고 죽지 않으며 영원히 사는 또 다른 세상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같은 내용의 꾸란 계시는 꾸란 제30장 아르 룸Ar-Rūm 30:54 참조)

69 여기서 '시'란 단어가 쓰여진 것은 꾸란이 올바른 삶을 위한 실제적 안내이고 명백한 진리이지 상상과 허구의 동화 같은 이야기나 인간 지성이 창작해내는 감동의 표현 같은 것과는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쓰여진 것이다. 이븐 카시르의 주석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자 무함마드는 시를 어떻게 쓰는지 알지 못했으며 시를 좋아하는 성향도 아니었다고 한다.

70 일부 주석가들은 여기서 '살아 있는'이란 단어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의미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살아있는, 즉 건강한 '정신적 삶을 가지고 있는' 의 뜻도 내포한다고 말한다. 종교적으로 볼 때 정신적 메시지의 진정성에 둔감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는 죽은 자보다 나을 것이 없다. 만약 경고를 받은 뒤 그것이 진리임을 알면서도 거부한 자들은 그들의 자만과 진리를 무시하였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꾸란은 믿는 자들에게는 자비요 은혜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진리의 증거

이자 경고인 것이다.

71-73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수많은 징표들에 눈이 멀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들 속에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동물과 가축들이 어떻게 길들여져 인간에게 유용하게 되었을까? 인간은 그것들을 탈것으로 사용하고 가뭄에 물을 푸는 데 유용히 쓰며, 그들의 살과 고기를 음식으로 먹고 또 그것들의 젖과 우유를 마신다. 양의 털, 낙타의 털은 담요 또는 직물을 만들 때 쓰이고, 외피는 벗겨져 가죽으로 사용된다.

74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와 가르침에는 다음과 같은 진의가 숨어 있다. "나의 가르침은 너희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나는 이러한 온갖 은총들을 너희를 위해 만들고 제공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아직도 세상만물의 부양자이고 양식의 제공자인 나로부터 등을 돌리느냐? 그리고 네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고집하고, 허망한 이상을 추구하거나 무익한 우상들을 세우느라 바쁘더냐?"

75 무릇 인간은 모든 것의 근원이신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자주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성향이 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허구의 신들, 우상들, 출세한 영웅들이나 매력적인 것들, 혹은 경이롭고 초월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들(예컨대 마술, 행운, 초인적 능력, 자신의 이기적 욕망 등)의 여러 형태 안에 있는 상상적인 힘을 좇는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삶에서 그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내세에서도(만약 그가 내세를 믿는다면) 도울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그를 도울 수 없다. 반대로,

가짜이고 허구인 이 모든 것들은 심판의 날, 하나님에 의해 불려나와 유죄판결을 받는 증거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외면의 피상적인 것들에 대한 숭배자들은 그들이 정도에서 벗어나 있는 한 누구나 유죄판결의 선고를 받을 사람으로 취급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허구의 신과 우상들은 그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형량을 더하게 할 것이다.

76 만약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거부한다해도, 믿는 자들인 하나님의 종들은 너무 슬퍼하지 말라. 믿는 자들은 다만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일을 관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본연의 목적대로 완수될 것이 틀림없으며, 그분께서는 그들의 크고 작은 행위들 모두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심판하실 것이다.

77 인간이 드넓은 대양에 존재하는 한 방울의 물보다 훨씬 더 작은 응혈인 정액 하나에서 창조된 그런 작은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복종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대담함과 어리석음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인간은 완강히 그들의 창조주에 적대하고, 그분께 비견되는 것들을 만들어 섬기고, 다음 절에서와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된다!

78 가장 어리석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물들과 같을 수 있다는 잘못된 가정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시다. '누가 건조하고 썩어 부패한 뼈들에 생명을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물 중 어느 것도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

우리 자신을 포함한 우주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의 권능에 누가 어떻게 피조물들의 제한된 힘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의 첫 번째 창조[예를 들면 아담의 창조, 혹은 하늘과 땅의 창조]가 앞으로 있을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이라는 재창조보다 훨씬 어려운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79 하나님의 창조술, 창조예술은 자연의 모든 환경 속에서 발견되고 증명된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시간의 매 순간마다 작용하고 이루어지고 있다. 21세기 고도의 찬란한 과학문명의 시대인 오늘날,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스스로의 깨우침으로 하나님의 창조론을 이해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에 대해 의구심을 갖거나 제한을 두는 상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고지식한 비신자이거나 불신자임에 틀림없다.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 우리가 꿈꾸어 볼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다양한 창조의 방식들이 존재한다! 그 같은 창조의 모든 비밀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시다.

80 물기를 품고 있는 초록색 식물들, 나무들은 불을 붙이고 창조하기 위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무의 창조를 물에서 시작하셨고, 초록색을 띠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시고는 불을 붙이는 마른 나무가 되게 하신다. 이븐 카시르의 주석서에는 이븐 압바스의 기록에 근거하여 이 나무가 히자즈(Ḥijāz)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마르크(Mar<u>kh</u>) 나무와 아파르('Afār)나무로 소개된다. 이 나무들의 초록색 가지를 꺾어 서로 비비면 불이 붙는다. 초록나무가 불쏘시개로 쓰이는 것이다. 이븐 카시르는 이 절의 의미도 이런 나무에서 불을 생겨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

81 창조하기에 더 어려운 것이 인간이냐, 하늘과 땅이냐? 꾸란 제40장 가피르(Ghāfir) 제57절에 따르면 하늘과 땅의 창조가 인간의 창조보다 더 위대하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그것들 사이에 있는 창조물 모두와 함께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런 것들과 똑같이 다른 세상도 창조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그분께는 내세의 시작에서 우리를 불러일으키는 것[부활]은 매우 사소한 쉬운 일이다.

82 그분의 창조는 시간, 공간, 수단, 방법 혹은 어떤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존재는 다만 그분의 의지 혹은 계획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분께서 그 기다린 것을 의도하시는 순간, 그것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단지 그분의 말씀 혹은 명령이 있을 뿐이다. '있어라!' 그러면 그것은 '존재'로 있게 된다.

83 모든 것은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에 의해 유지된다. 그리고 모두가 마침내는 그분께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점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 한 분께만 예배를 드리고 그분께만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꾸란 계시의 본질적 핵심이다. 또 이것은 내세의 중요성과 그 의미심장함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특별하게 무슬림들에 의해 자주 암송되고, 특별하게 예언자의 이름으로 말해지는 이 야 씬(Yā Sīn) 장을 끝내는 계시의 말이다.

## 야씬 장의 가르침

### 제1~12절에서 배워야 할 점

- 꾸란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께서 선택한 최후의 사자 [무함마드]를 통해 인류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다.
- 자만에 차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거나 등한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는 은혜와 자비, 혜택이 박탈당한다.
- 꾸란은 진리의 계시이다. 이를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고귀한 복음이다.

### 제13~32절에서 배워야 할 점

- 하나님의 사자들이 메시지를 갖고 왔을 때,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의 이기심과 자만감 때문에 그들을 거부하였다.
- 하나님의 대의는 사회의 기득권층보다 보통 사람들에 의해 더 지지받는다.
- 진리를 받아들이고 올바른 길을 따르라는 기회를 먼저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벌하지 않으신다.

### 제33~50절에서 배워야 할 점

- 하늘과 땅에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삶을 반성하고 되돌아보게 하는 많은 하나님의 예증들이 있다.
- 비신자들은 하나님의 예증과 명령들을 거부한다. 오로지 자신의 신념과 야망을 따를 뿐이다.

- 그들은 심판의 날의 도래를 의심하여 질문한다. 그날을 믿지 않는다.

### 📖 제51~67절에서 배워야 할 점

- 심판의 날, 모든 사람은 부활되어 심판대에 불려올 것이다.
- 천국의 사람들과 배우자들은 거기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것이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평화(Salām)가 있으라'라는 특별한 인사말을 들을 것이다.
- 지옥의 사람들은 천국의 사람들과 분리되고, 악행들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 📖 제68~83절에서 배워야 할 점

- 하나님의 사자, 무함마드는 시인이 아니었다. 생명을 주는 고귀한 메시지를 가져온 예언자였다.
- 그는 우리를 위해 동물들과 다른 유용한 것들을 창조하신 주님에 의해 파견되었다.
- 그분께서는 무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다시 내세에 부활시킬 것이다.

## 전승 이야기 1

이븐 압바스(Ibn ‘Abbās), 카읍 알 아흐바르(Ka‘b Al-Aḥbār)와 와흡 빈 무납비흐(Wahb b. Munabbih)로부터의 전승에 의거하여 이븐 이스하끄(Ibn Isḥāq)는 이 도시가 안티오쿠스 빈 안티오쿠스 빈 안티오쿠스(Antiochus b. Antiochus b. Antiochus) 왕이 다스리며, 우상들을 숭배했던 안티옥(Antioch, 아랍어 Antākiyah)이라고 기록하였다. 알라께서는 그에게 싸디끄(Ṣādiq), 싸두끄(Ṣadūq), 샬룸(Shalūm)이라는 세 명의 사자를 보내었는데 그는 그 사자들을 믿지 않았다. 이것은 부라이다 빈 알 후싸이브(Buraydah b. Al-Ḥusayb), 이크리마(‘Ikrimah), 까타다(Qatādah), 앗 주흐리(Az-Zuhri)에 의해서도 전해지는 내용이다. (Aṭ-Ṭabarī 20:500) 그렇지만 중시해야할 것은 또 다른 많은 이맘(Imām)들이 이 도시를 안티옥이라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까타다 빈 디아마(Qatādah b. Di‘āmah)는 여기서의 메신저들이 메시아(Messiah) 예수(‘Isā b. Maryam)가 안티옥 도시에 보낸 사람들이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후대의 어떤 꾸란 주석학 학자들에 의해서도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이븐 카시르는 그의 주해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박하고 있다. 이 세 사람은 알라로부터 파송된 신의 사자들임이 분명하다. 만약 그들이 예수로부터 보내어진 제자들이라면 그런 사실을 시사해주는 언급이 있어야하는데 어디에도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오히려 그 도시 사람들은 그들에게 "너희는 우리와 같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해 말하였는데, 그들이 예수로부터 온 제자들이라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신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가정에서 만약 그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면 믿을만한 증표를 보이라는

주문으로 이런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븐 카시르는 안티옥 사람들이 예수로부터 온 사람들을 박대하고 믿지 않았다는 가설은 가당치 않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안티옥은 예수를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첫 번째 도시이기 때문이다. 안티옥은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로마와 더불어 그리스도교의 대주교가 있는 네 도시 중의 하나였다. 더욱이 안티옥 사람들이 '믿는 백성들'이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알라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 도시의 사람들이 그분의 사자들을 믿지 않고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계시를 내려 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알라께서는 한 번의 싸이하로 그들과 도시를 멸망시키셨겠는가? 그보다도 멸망하여 사라진 그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모두 잘 살아 있단 말인가? 이러한 근거로 그는 이 도시를 안티옥이라고 말하는 가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알라께서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다!

이븐 카시르는 이에 더해 그러한 가정은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만약 이 도시가 안티옥이며 예수의 제자들에 관계한 이야기라면 이 멸망 사건은 토라가 계시된 지 시대적으로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인데, 아부 싸이드 알 쿠르디(Abū Sa'īd Al-<u>Kh</u>urdī)를 비롯한 여러 선조(salaf)들이 전하고 있는 권위있는 전승들에 의하면 알라께서는 토라의 계시 이후에는 어느 민족이나 나라일지라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멸망의 징벌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우상숭배자들과 불신자들에 대항하여 싸울 것을 마지막 예언자를 보내실 때까지 줄곧 강조해 가르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여기서의 도시를 안티옥이라 말할 수 없다. 만약 안티옥이라는 가설이 서려면 시대적으로 다른 때의, 현존의 그 안티옥이 아니라 동명의 다른 곳이라고 보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도시 안티옥은 그리스도교인들의 시기이거나 그 이전이거나 멸망 당

하였다는 사실 또는 기록이 전혀 남겨졌거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알라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Tafsīr Ibn Kathīr, Vol. 8, pp.189-190 참조)

## 전승 이야기 2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건조해진 죽은 인간의 뼈들을 재창조하신다.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는 이 땅의 모든 지역, 모든 장소에 있는 뼈들을 다 아신다. 설사 그것이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 흩어져 있다 해도 상관이 없다. 본장의 78-79절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하디스가 전해지고 있다.

이맘 아흐마드(Imām Aḥmad)의 기록에 의하면 후다이파(Ḥudhayfah)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들었다. "죽음이 한 사람에게 다가왔다. 더 이상 살 가망이 없게 되었을 때 그가 가족을 불러 말하였다. '내가 죽으면 많은 땔나무들을 모아서 불을 붙여 내 살과 뼈를 태워라. 뼈만 남거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바다에 뿌려다오' 그래서 가족들은 그같이 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함께 모으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가 답하기를, '저는 당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무덤 파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 것으로 전해진다. (Aḥmad 5:395)

무슬림(Muslim)이 전하는 하디스 역시 거의 똑같은 내용이다. "그는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몸을 태울 것을 명령하고 그리고 남은 뼈를 작은

조각으로 갈고는 바람 부는 날 그것의 절반은 땅에 나머지 절반은 바다에 뿌리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에 그것들을 다시 모으라고 명령하셨으며,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있어라!" 그러자 그는 한 사람이 되어 서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 했느냐?" 그가 말하기를 "당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당신께서는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즉시 그를 용서해 주셨다. (Muslim 4:2110)

제 55 장

# 아르 라흐만 Ar-Raḥmān
## 가장 자비로우신 분의 장

아르 라흐만(Ar-Raḥmān 가장 자비로우신 분)은 알라 다음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 99개 하나님의 이름 중의 하나이다. 이 장의 첫 절이 하나님의 이 이름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 장 전체에서 라흐만(raḥmān)이란 아랍어 단어가 함축하여 뜻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 은혜, 은총을 잊지 말라는 것이 되풀이 강조된다.

이 장의 계시 시기는 초기 메카 시대로 분류된다. 일부 주석가들은 적어도 이 장의 일부가 메디나 시대의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신뢰할 만한 여러 전승들은 히즈라(Hijrah 622년 무슬림들의 메카에서 메디나로의 이주) 이전 몇 년 전에 이 계시들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중의 하나로 압둘라 빈 우마르('Abdullāh b. 'Umar)가

전한 이슬람 초기 메카시대 때 일어난 다음과 같은 사건의 전승을 들 수 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 무함마드가 동료(ṣaḥābah)들 앞에서 이 장을 암송하였다. 그러고 나서 "진(Jinn)들이 주님께 드린 훌륭한 대답을 너희들로부터 내가 들을 수 없다니 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라고 말하였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동료들은 진들이 한 대답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하나님의 사자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너희 둘, 인간과 진은 주님의 은혜 중 어떤 것을 거부하려느냐? (Fa bi-ayyi ālā'i Rabbi-kumā tukadhdhibān)'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낭송했을 때, 진들은 '우리는 우리 주님의 축복들 중 어느 것도 부인하지 않습니다.(Lā bi shay'in min ni'mati Rabbi-nā nukadhdhib)'라고 답하였다."

아르 라흐만 장은 꾸란 안에서 매우 시적이고 신비적 영감을 주는 계시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너희 둘[인간과 진]은 너희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거부하려느냐?"라는 말씀이 전체 78절 중에서 31차례나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꾸란에서 인간과 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있는 장이고 인간과 진 둘 다가 똑같이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 은혜, 축복을 인정하고 감사드려야만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장이다.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축복과 은총 속에 있는 인간과 진은 하나님 앞에 그들 스스로가 우매하고 무력하며, 이 세상 삶에서 그들 스스로가 저지른 행동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심판의 날에 회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장은 우리의 반성과 회개를 고취시키고, 동시에 불복종에 대한 경고와 복종에 대한 보상의 소식을 주요 주제로 담고 있다.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은유와 상징적 표현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특히 이 장은 거의 전 구절이 문법적으로 쌍수형을 취하면서 신비한 압운으로 운율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독송자들로 하여금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송독을 하게 하고, 동시에 끊임없이 영감을 얻게 하는 장으로 유명

하다.

하나님의 창조는 쌍으로 이루어졌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조화와 균형 속에 존재하고 창조물 모두가 그분의 자비와 은혜 속에 있다. 그러나 결국은 모두가 소멸되고 사라진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존엄과 영예와 영광의 주님께 우리는 찬송과 찬양을 드려야 한다.

## 제 55 장 سُورَةُ الرَّحۡمَٰنِ

بِسۡمِ ٱللَّهِ ٱلرَّحۡمَٰنِ ٱلرَّحِيمِ

ٱلرَّحۡمَٰنُ ١ عَلَّمَ ٱلۡقُرۡءَانَ ٢ خَلَقَ ٱلۡإِنسَٰنَ ٣

عَلَّمَهُ ٱلۡبَيَانَ ٤ ٱلشَّمۡسُ وَٱلۡقَمَرُ بِحُسۡبَانٖ ٥ وَٱلنَّجۡمُ

وَٱلشَّجَرُ يَسۡجُدَانِ ٦ وَٱلسَّمَآءَ رَفَعَهَا وَوَضَعَ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가장 자비로우신 분!

**02** 그분께서는 꾸란을 가르쳐 주셨고,

**03**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04** 그에게 언설[1]을 가르쳐 주셨느니라.

**05** 해와 달은 계산된 대로 (운행되고),[2]

**06** 풀과 나무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노라.[3]

---

1) 바얀(bayān)은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하는 능력' 즉, 언어 표현의 능력을 말한다.

2) 천계의 운행 법칙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다.

3) 나즘(najm)은 별이라는 뜻도 있다. 따라서 '별들과 나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도 해석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풀로 해석하고 있다. 인간뿐 아니라 자연 모두가 하나님께 경배드린다.

## 제 55 장

ٱلْمِيزَانَ ﴿٧﴾ أَلَّا تَطْغَوْا۟ فِى ٱلْمِيزَانِ ﴿٨﴾ وَأَقِيمُوا۟ ٱلْوَزْنَ
بِٱلْقِسْطِ وَلَا تُخْسِرُوا۟ ٱلْمِيزَانَ ﴿٩﴾ وَٱلْأَرْضَ وَضَعَهَا لِلْأَنَامِ ﴿١٠﴾
فِيهَا فَٰكِهَةٌ وَٱلنَّخْلُ ذَاتُ ٱلْأَكْمَامِ ﴿١١﴾ وَٱلْحَبُّ ذُو ٱلْعَصْفِ
وَٱلرَّيْحَانُ ﴿١٢﴾ فَبِأَىِّ ءَالَآءِ رَبِّكُمَا تُكَذِّبَانِ ﴿١٣﴾ خَلَقَ

**07** 하늘을 그분께서는 높이 올리셨고, 또 균형의 저울[4]을 놓아 두셨느니라.

**08** 너희가 그 저울에서 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5]

**09** 그러니 너희는 공정히 무게를 지키고, 그 저울에 부족되지 않게 하라.

**10** 그리고 땅을 그분께서는 피조물들을 위해 펼쳐 놓으셨느니라.

**11** 거기에는 (온갖) 과일이 있고 껍질을 가진 대추야자 나무[6]가 있으며,

**12** 잎줄기를 가진 곡식[7]과 향내 나는 풀들[8]이 있느니라.

**13** 그런데 너희 둘[사람과 진]은 너희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거부하려느냐?

---

4) 알 미잔(al-mīzān)은 '균형의 저울', '공정의 저울'을 뜻한다. 앞의 것은 우주만물의 체계가 조화와 균형 속에 창조되었음을 뜻하고 뒤의 것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이 절도있고 공정한 정의와 정직함 속에 있어야 함을 뜻한다.

5) 행동과 사고에서 지나침이나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중도와 중용은 이슬람의 주요 가르침 중의 하나이다.

6) 열매가 껍질로 덮여있는 대표적인 나무가 대추야자 나무이다.

7) 대부분의 곡물들은 잎줄기에서 열매가 익는다.

8) 아름다운 꽃들, 약초, 향초 등.

## 제 55 장

ٱلْإِنسَٰنَ مِن صَلْصَٰلٍ كَٱلْفَخَّارِ ﴿١٤﴾ وَخَلَقَ ٱلْجَآنَّ مِن
مَّارِجٍ مِّن نَّارٍ ﴿١٥﴾ فَبِأَيِّ ءَالَآءِ رَبِّكُمَا تُكَذِّبَانِ
﴿١٦﴾ رَبُّ ٱلْمَشْرِقَيْنِ وَرَبُّ ٱلْمَغْرِبَيْنِ ﴿١٧﴾ فَبِأَيِّ ءَالَآءِ رَبِّكُمَا تُكَذِّبَانِ ﴿١٨﴾
مَرَجَ ٱلْبَحْرَيْنِ يَلْتَقِيَانِ ﴿١٩﴾ بَيْنَهُمَا بَرْزَخٌ لَّا يَبْغِيَانِ ﴿٢٠﴾ فَبِأَيِّ

**14** 그분께서는 도자기처럼 인간[아담]을 진흙에서 창조하셨으며,[9]

**15** 그리고 진들을 불의 불꽃[10]으로 창조하셨느니라.

**16** 그런데 너희 둘[사람과 진]은 너희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거부하려느냐?

**17** (그분께서는) 두 동방의 주님이시요, 두 서방의 주님[11]이시도다.

**18** 그런데 너희 둘[사람과 진]은 너희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거부하려느냐?

**19** 그분께서는 두 바다[12]를 (자유로이) 흐르게 하다가 서로 만나게 하시며,

**20** 그 둘 사이에 장벽[13]을 두어 둘이 (서로를) 넘지 않게 하셨느니라.

---

9) 인간은 흙으로, 천사는 빛으로, 진은 불로 창조되었다.

10) 마리즈(mārij)는 연기 없는 불이다. 화염이 걷힌 뒤의 불꽃덩이를 말한다. 진(jinn)은 우리말의 '정령, 요정, 영마, 악령, 신령'과 같은 존재이다.

11) 두 개의 동과 서는 여름과 겨울동안 해가 떠서 지는 다른 지점들을 가리킨다.

12) 두 바다는 소금기 있는 짠 바닷물과 음용수로 쓸 수 있는 단 강물을 뜻한다. 두 물은 결국 합쳐지지만 둘 사이에는 벽이 있어 서로 넘지 않는다.

13) 바르자크(barzakh)는 벽, 장벽이다. 우리가 죽은 뒤 부활하는 날까지 무덤에서 사는 삶을 바르자크의 삶이라 부른다. 현세와 내세를 가르고 있는 삶이기 때문이다.

## 제 55 장

ءَالَآءِ رَبِّكُمَا تُكَذِّبَانِ ﴿٢١﴾ يَخْرُجُ مِنْهُمَا ٱللُّؤْلُؤُ وَٱلْمَرْجَانُ ﴿٢٢﴾
فَبِأَيِّ ءَالَآءِ رَبِّكُمَا تُكَذِّبَانِ ﴿٢٣﴾ وَلَهُ ٱلْجَوَارِ ٱلْمُنشَـَٔاتُ فِى
ٱلْبَحْرِ كَٱلْأَعْلَـٰمِ ﴿٢٤﴾ فَبِأَيِّ ءَالَآءِ رَبِّكُمَا تُكَذِّبَانِ ﴿٢٥﴾
كُلُّ مَنْ عَلَيْهَا فَانٍ ﴿٢٦﴾ وَيَبْقَىٰ وَجْهُ رَبِّكَ ذُو ٱلْجَلَـٰلِ وَٱلْإِكْرَامِ ﴿٢٧﴾

**21** 그런데 너희 둘[사람과 진]은 너희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거부하려느냐?

**22** 그 두 곳에서 진주와 산호가 나오느니라.

**23** 그런데 너희 둘[사람과 진]은 너희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거부하려느냐?

**24** 바다위에 산처럼 떠서[14] 오고 가는 배들도 그분께 속하느니라.[15]

**25** 그런데 너희 둘[사람과 진]은 너희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거부하려느냐?

<제2부>

**26** 그것[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소멸하느니라.[16]

**27** 그러나 존엄과 영예로 가득한 그대 주님의 얼굴[하나님]은 (영원히) 남

---

14) 아을람(a'lām, 'alam의 복수형)은 '깃발, 표식, 산, 저명한 인물'과 같이 높이 솟아있는 것을 뜻한다.

15)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식을 주시고 과학을 가르쳐 주시어 배와 비행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16) 땅에서 생동하던 자연과 동식물뿐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위대함, 과학, 기술, 예술의 경이로움, 인간이 누리는 권세, 권위, 영화, 부귀가 모두 소멸된다.

## 제 55 장

فَبِأَيِّ ءَالَآءِ رَبِّكُمَا تُكَذِّبَانِ ﴿٢٨﴾ يَسْـَٔلُهُۥ مَن فِى ٱلسَّمَٰوَٰتِ وَٱلْأَرْضِ ۚ كُلَّ يَوْمٍ
هُوَ فِى شَأْنٍ ﴿٢٩﴾ فَبِأَيِّ ءَالَآءِ رَبِّكُمَا تُكَذِّبَانِ ﴿٣٠﴾
سَنَفْرُغُ لَكُمْ أَيُّهَ ٱلثَّقَلَانِ ﴿٣١﴾ فَبِأَيِّ ءَالَآءِ رَبِّكُمَا تُكَذِّبَانِ ﴿٣٢﴾
يَٰمَعْشَرَ ٱلْجِنِّ وَٱلْإِنسِ إِنِ ٱسْتَطَعْتُمْ أَن تَنفُذُوا۟ مِنْ أَقْطَارِ ٱلسَّمَٰوَٰتِ

을 것이니라.[17]

28 그런데 너희 둘[사람과 진]은 너희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거부하려느냐?

29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모두가) 그분께 간구드리고, 매일[18] 그분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니라.

30 그런데 너희 둘[사람과 진]은 너희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거부하려느냐?

31 우리는 곧 너희의 일을 끝낼 것이니라.[19] 오, 너희 두 무거운 짐을 진 자[사람과 진]들아![20]

32 그런데 너희 둘[사람과 진]은 너희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거부하려느냐?

---

17) 와즈흐(wajh)는 '얼굴, 모습'의 뜻이지만 여기서 '그대 주님의 얼굴'은 '하나님'을 의미한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18) 여기서 매일을 뜻하는 쿨라 야우민(kulla yawmin)은 언어적 해석으로 '매 순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19) 동사 파라가 리(faragha li)는 '~에 몰두하며 끝을 내다.'의 뜻으로 여기서의 의미는 '곧 너희의 일을 처리하신다'이고, 이는 '너희의 일을 계산하신다' 즉 '너희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20) 쌍수 앗 사깔란(ath-thaqalān)은 인간과 진을 뜻한다. 일부 주석가들은 '너희 두 세속의 존재여!' 혹은 '너희 두 귀중한 존재여!'라고도 번역한다.

## 제 55 장

وَٱلْأَرْضِ فَٱنفُذُوا۟ ۚ لَا تَنفُذُونَ إِلَّا بِسُلْطَٰنٍ ﴿٣٣﴾ فَبِأَىِّ ءَالَآءِ رَبِّكُمَا
تُكَذِّبَانِ ﴿٣٤﴾ يُرْسَلُ عَلَيْكُمَا شُوَاظٌ مِّن نَّارٍ وَنُحَاسٌ فَلَا تَنتَصِرَانِ ﴿٣٥﴾
فَبِأَىِّ ءَالَآءِ رَبِّكُمَا تُكَذِّبَانِ ﴿٣٦﴾ فَإِذَا ٱنشَقَّتِ ٱلسَّمَآءُ فَكَانَتْ وَرْدَةً
كَٱلدِّهَانِ ﴿٣٧﴾ فَبِأَىِّ ءَالَآءِ رَبِّكُمَا تُكَذِّبَانِ ﴿٣٨﴾ فَيَوْمَئِذٍ لَّا يُسْـَٔلُ عَن

**33** 오, 진과 인간의 무리들아! 너희가 하늘과 땅의 영역을 넘어설 수 있다면 넘어서 보아라! 그러나 (주님의) 허가 없이 너희는 넘어설 수 없느니라.[21]

**34** 그런데 너희 둘[사람과 진]은 너희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거부하려느냐?

**35** 불의 연기 없는 불꽃과 (뜨겁게 녹은) 구리가[22] 너희 둘 위에 보내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 둘은 서로 도울 수 없을 것이니라.

**36** 그런데 너희 둘[사람과 진]은 너희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거부하려느냐?

**37** 하늘이 갈라지면 그것은 (붉은) 도료[23]처럼 장미빛이 될 것이니라.

**38** 그런데 너희 둘[사람과 진]은 너희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거부하려느냐?

---

21) 쑬딴(sulṭān)은 원래 '권위, 권력, 권세'의 뜻이지만 여기서는 '허가, 재가'의 의미이다.

22) 슈와즈(shuwāẓ)는 불길 중에서도 연기가 사라진 뒤의 불꽃 덩어리이고, 누하스(nuḥās)는 구리 중에서도 뜨겁게 용해된 놋쇠물을 말한다. 수동태로 주어가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 혹은 신의 군대에 의해 이것들이 던져질 것이다.'의 뜻이다.

23) 디한(dihān)은 '붉은 가죽, 페인트, 연고, 고약, 기름'의 뜻으로 하늘이 쪼개지면 온통 붉은 빛을 띤 도료나 용해된 수지(樹脂)와 같이 되어 녹아 없어질 것이다.

## 제 55 장

ذَنۢبِهِۦٓ إِنسٌ وَلَا جَآنٌّ ﴿٣٩﴾ فَبِأَيِّ ءَالَآءِ رَبِّكُمَا تُكَذِّبَانِ ﴿٤٠﴾
يُعۡرَفُ ٱلۡمُجۡرِمُونَ بِسِيمَٰهُمۡ فَيُؤۡخَذُ بِٱلنَّوَٰصِي وَٱلۡأَقۡدَامِ ﴿٤١﴾ فَبِأَيِّ ءَالَآءِ
رَبِّكُمَا تُكَذِّبَانِ ﴿٤٢﴾ هَٰذِهِۦ جَهَنَّمُ ٱلَّتِي يُكَذِّبُ بِهَا ٱلۡمُجۡرِمُونَ ﴿٤٣﴾
يَطُوفُونَ بَيۡنَهَا وَبَيۡنَ حَمِيمٍ ءَانٖ ﴿٤٤﴾ فَبِأَيِّ ءَالَآءِ رَبِّكُمَا

**39** 그날에는 인간도 진도 그의 죄에 대해 질문을 받지도 않을 것이니라.

**40** 그런데 너희 둘[사람과 진]은 너희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거부하려느냐?

**41** 죄인들은[24] 그들의 표식으로 알려지게 되고,[25] 그들은 앞머리와 발들을 붙잡혀 있게 될 것이니라.

**42** 그런데 너희 둘[사람과 진]은 너희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거부하려느냐?

**43** 이것이 죄지은 자들이 부인하던 지옥이니라.

**44** 그들은 그곳[지옥]과 펄펄 끓는 물 사이를 순회할 것이니라.

---

24) 무즈리문(mujrimūn)은 죄지은 사람들이다. 악행자, 다신교도, 불신자, 우상숭배자가 포함된다.

25) 전승에 따르면 그들은 검은 얼굴빛을 띠는 것으로 식별된다.

## 제 55 장

تُكَذِّبَانِ ﴿٤٥﴾ وَلِمَنْ خَافَ مَقَامَ رَبِّهِۦ جَنَّتَانِ ﴿٤٦﴾
فَبِأَيِّ ءَالَآءِ رَبِّكُمَا تُكَذِّبَانِ ﴿٤٧﴾ ذَوَاتَآ أَفْنَانٍ ﴿٤٨﴾
فَبِأَيِّ ءَالَآءِ رَبِّكُمَا تُكَذِّبَانِ ﴿٤٩﴾ فِيهِمَا عَيْنَانِ تَجْرِيَانِ ﴿٥٠﴾
فَبِأَيِّ ءَالَآءِ رَبِّكُمَا تُكَذِّبَانِ ﴿٥١﴾ فِيهِمَا مِن كُلِّ فَٰكِهَةٍ زَوْجَانِ ﴿٥٢﴾

**45** 그런데 너희 둘[사람과 진]은 너희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거부하려느냐?

<제3부>

**46** 그러나 그의 주님 앞에 서는 것[26]을 두려워한 사람에게는 두 천국이 있을 것이니라.

**47** 그런데 너희 둘[사람과 진]은 너희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거부하려느냐?

**48** (두 곳은) 온갖 종류[27]의 (나무와 즐거움)을 지니고 있느니라.

**49** 그런데 너희 둘[사람과 진]은 너희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거부하려느냐?

**50** 두 곳에는 (자유로이) 흐르고 있는 두 샘물이 있느니라.

**51** 그런데 너희 둘[사람과 진]은 너희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거부하려느냐?

**52** 두 곳에는 온갖 과일들이 쌍으로 있느니라.

---

26) 심판대 앞에 서는 때, 즉 심판의 날을 뜻한다.

27) 아프난(afnān, fann의 복수)은 '부문, 종류, 변종'의 뜻으로 여기서는 온갖 종류, 갖가지 종류를 뜻한다.

## 제55장

فَبِأَيِّ ءَالَآءِ رَبِّكُمَا تُكَذِّبَانِ ﴿٥٣﴾ مُتَّكِـِٔينَ عَلَىٰ فُرُشٍۭ بَطَآئِنُهَا
مِنْ إِسْتَبْرَقٍۚ وَجَنَى ٱلْجَنَّتَيْنِ دَانٍ ﴿٥٤﴾ فَبِأَيِّ ءَالَآءِ رَبِّكُمَا
تُكَذِّبَانِ ﴿٥٥﴾ فِيهِنَّ قَـٰصِرَٰتُ ٱلطَّرْفِ لَمْ يَطْمِثْهُنَّ إِنسٌ
قَبْلَهُمْ وَلَا جَآنٌّ ﴿٥٦﴾ فَبِأَيِّ ءَالَآءِ رَبِّكُمَا تُكَذِّبَانِ ﴿٥٧﴾

**53** 그런데 너희 둘[사람과 진]은 너희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거부하려느냐?

**54** 그들은 안에까지 아름다운 무늬의 비단으로 짠[28] 소파[29]에 기대어 있고, 두 천국의 과일이 손닿는 가까이에 있을 것이니라.

**55** 그런데 너희 둘[사람과 진]은 너희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거부하려느냐?

**56** 거기에는[30] 그들 이전의 어떤 사람이나 진이 그녀들을 접촉한 적이 없는,[31] 눈길을 아래로 내리고 있는 청순한 처녀들[32]이 있느니라.

**57** 그런데 너희 둘[사람과 진]은 너희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거부하려느냐?

---

28) 이스타브라끄(istabraq)는 '실크 브로케이드(brocade)'이다.
29) 푸루쉬(furush)는 '가구, 침상, 소파'이다.
30) '거기에는'에 피 힌나(fīhinna)라는 여성형이 쓰인 것은 '소파 또는 침상'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31) 여기서 람 야뜨미스(lam yaṭmith)는 이성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는 뜻이다.
32) 까씨라트 알 따르프(qāṣirāt aṭ-ṭarf)는 '눈길을 자제하고 있는 순결한 여인'이다.

## 제 55 장

كَأَنَّهُنَّ ٱلْيَاقُوتُ وَٱلْمَرْجَانُ ﴿٥٨﴾ فَبِأَيِّ ءَالَآءِ رَبِّكُمَا تُكَذِّبَانِ
﴿٥٩﴾ هَلْ جَزَآءُ ٱلْإِحْسَٰنِ إِلَّا ٱلْإِحْسَٰنُ ﴿٦٠﴾ فَبِأَيِّ ءَالَآءِ
رَبِّكُمَا تُكَذِّبَانِ ﴿٦١﴾ وَمِن دُونِهِمَا جَنَّتَانِ ﴿٦٢﴾ فَبِأَيِّ ءَالَآءِ رَبِّكُمَا
تُكَذِّبَانِ ﴿٦٣﴾ مُدْهَآمَّتَانِ ﴿٦٤﴾ فَبِأَيِّ ءَالَآءِ رَبِّكُمَا تُكَذِّبَانِ ﴿٦٥﴾

**58** 마치 그녀들은 루비들과 산호들 같으니라.[33]

**59** 그런데 너희 둘[사람과 진]은 너희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거부하려느냐?

**60** 선에 대한 보상이 선 밖에 (더) 있겠느냐?[34]

**61** 그런데 너희 둘[사람과 진]은 너희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거부하려느냐?

**62** 그리고 이 두 천국 아래에[35] (다른) 두 천국이 있느니라.

**63** 그런데 너희 둘[사람과 진]은 너희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거부하려느냐?

**64** (두 곳은) 검은 녹색[36]이니라.

**65** 그런데 너희 둘[사람과 진]은 너희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거부하

---

33) 아름다운 그녀들은 빛나는 보석과 같다.

34) 현세에서 행한 선은 내세에서 반드시 선으로 보상 받는다.

35) 부사적 의미의 명사 두나(dūna)는 '아래, 외에, ~없이'의 뜻으로 일부 주석가들은 '두 천국 외에'로 번역하기도 한다.

36) 단어 두흐마(duhmah)는 검은 것, 검은색이다. 여기서 무드함마탄(mudhāmmatān)은 두 천국이 짙은 초록색임을 나타낸다.

## 제55장

فِيهِمَا عَيْنَانِ نَضَّاخَتَانِ ﴿٦٦﴾ فَبِأَيِّ ءَالَآءِ رَبِّكُمَا تُكَذِّبَانِ
﴿٦٧﴾ فِيهِمَا فَٰكِهَةٌ وَنَخْلٌ وَرُمَّانٌ ﴿٦٨﴾ فَبِأَيِّ ءَالَآءِ
رَبِّكُمَا تُكَذِّبَانِ ﴿٦٩﴾ فِيهِنَّ خَيْرَٰتٌ حِسَانٌ ﴿٧٠﴾ فَبِأَيِّ ءَالَآءِ
رَبِّكُمَا تُكَذِّبَانِ ﴿٧١﴾ حُورٌ مَّقْصُورَٰتٌ فِى ٱلْخِيَامِ ﴿٧٢﴾

**려느냐?**

**66 두 곳에는 물을 뿜고 있는[37] 두 샘이 있을 것이니라.**

**67 그런데 너희 둘[사람과 진]은 너희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거부하려느냐?**

**68 두 곳에는 과일들, 대추야자, 석류가 있을 것이니라.**

**69 그런데 너희 둘[사람과 진]은 너희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거부하려느냐?**

**70 또 그 안에는 착하고 아름다운 여인들[38]이 있을 것이니라.**

**71 그런데 너희 둘[사람과 진]은 너희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거부하려느냐?**

**72 천막[39] 안에는 눈길이 억제된[40] 까만 눈의 고운 처녀들[41]이 있느니라.**

---

37) 낟돠카탄(naḍḍākhatān)은 '용솟음쳐 나오는, 내뿜는'의 뜻이다.

38) 카이라트(khayrāt, khayrah의 복수)는 '올바르고 예절바르며 아름다운 여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해석한다.

39) 키얌(khiyām)은 '천막, 정자, 누각'의 뜻이다. 우리에겐 아름다운 정자나 누각이 어울리는 번역이지만, 아랍학자들에 의하면 진주로 장식되어 만들어진 아주 큰 텐트이다.

40) 마끄쑤라트(maqṣūrāt)는 동사 까싸라(qaṣara 삼가다, 억누르다, 억제하다)의 수동 분사형으로 '한정된, 억제된, 삼가된'의 뜻이다. 앞의 제56절이나 제37장 앗 쌒파트(aṣ-Ṣāffāt) 37:48, 또는 제38장 싸드(Ṣād) 38:52에서는 모두 능동 분사형인 까씨라

## 제 55 장

فَبِأَيِّ ءَالَآءِ رَبِّكُمَا تُكَذِّبَانِ ﴿٧٣﴾ لَمْ يَطْمِثْهُنَّ إِنسٌ
قَبْلَهُمْ وَلَا جَآنٌّ ﴿٧٤﴾ فَبِأَيِّ ءَالَآءِ رَبِّكُمَا تُكَذِّبَانِ ﴿٧٥﴾ مُتَّكِـِٔينَ
عَلَىٰ رَفْرَفٍ خُضْرٍ وَعَبْقَرِيٍّ حِسَانٍ ﴿٧٦﴾ فَبِأَيِّ ءَالَآءِ
رَبِّكُمَا تُكَذِّبَانِ ﴿٧٧﴾ تَبَٰرَكَ ٱسْمُ رَبِّكَ ذِى ٱلْجَلَٰلِ وَٱلْإِكْرَامِ ﴿٧٨﴾

**73** 그런데 너희 둘[사람과 진]은 너희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거부하려느냐?

**74** 그들 이전의 어떤 사람도 진도 그녀들을 접촉하지 않았느니라.

**75** 그런데 너희 둘[사람과 진]은 너희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거부하려느냐?

**76** 그들은 초록색 쿠션들[42]과 아름답고 화려한 무늬의 양탄자[43]에 기대어 있느니라.

**77** 그런데 너희 둘[사람과 진]은 너희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거부하려느냐?

**78** 위대한 존엄과 고귀한 영예를 지니신 분[44], 그대 주님의 이름에 영광과 축복이 있으라.

---

트(qāṣirāt 제한하는, 억제하는, 삼가는)가 쓰여졌는데 이곳에서만 수동형이 쓰였다.

41) 후르(ḥūr, ḥūriya 또는 hawrā'의 복수)는 '흰자는 아주 희고 눈동자는 아주 검은'의 뜻으로 주석가들은 대부분이 '눈이 검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해석한다.

42) 라프라프(rafraf)는 대다수 주석가들이 알 따바리의 해석(Aṭ-Ṭabarī 23:83)을 따라 쿠션으로 본다.

43) 아브까리이('abqariyy)는 '화려하게 수놓아 짠 융단 카페트'이다. 일부 주석가들은 '화려한 무늬의 침대요'로도 해석한다.

44) 딜 잘랄리 왈 이크라미(dhīl-Jalāli wal-Ikrāmi)는 '위대한 존엄과 고귀한 영예의 소유자'라는 뜻이다.

## 해 설

1 '가장 자비로우신 분(Ar-Raḥmān)'은 꾸란에서 가장 많이 되풀이되고 있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이름 중의 하나이다. 다른 두 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표적 이름인 알라(Allāh)와 가장 자애로우신 분(Ar-Raḥīm)이라는 칭호이다. 이 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에게 내려진, 특히 인간과 진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raḥmah), 축복(ni'mah)이 주제가 되고 있다.

2 그 은혜와 축복의 첫 번째 것은 그분의 계시 즉 꾸란이다. 꾸란은 그분의 예증들 중에서도 가장 큰 증표이자 징표이다. 그분께서는 빛의 근원이시다. 그 빛이 온 누리에 발산되어 우주만물은 존재하고 있다.

3 그분께서는 최고 형태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에게 잘잘못을 분간하고 가려내는 지성을 주셨고, 잘못에서 옳음을 선택하는 의지를 주셨다. 이성적 판단능력과 자질을 부여해 주신 것이다.

4 알 바얀(al-bayān)은 지성적 언설, 표현능력, 여러 관계를 이해시키고 설명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을 말한다.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오직 인간에게만 주셨다. 특히 예언자들에게는 웅변, 연설, 설교를 잘하는 능력을 주셨고 평범한 우리에게도 생각을 잘 표현해 낼 수 있도록 말하는 언변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꾸란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 등 앞선 예언자들을 통해 내려 주셨던 계시들을 보완·정정해 주

는 하나님의 완성된 최후 계시이다.

5 우주의 질서체계는 완벽하다. 해와 달의 운행 궤도 역시 정확하다. 해와 달로부터의 열과 빛, 조수의 변화, 사계절, 바람, 비, 공기 등 자연과 대기 속 여러 변화들로 모든 생명은 유지되고 성장한다. 우리들도 그 이득과 유용함 속에 살고 있다.

6 안 나즘(an-najm, 복수형은 nujūm)은 문어적으로 두 의미가 있다. 풀[관목]과 별이다. 여기서의 의미는 둘 다 적용될 수 있다. 자연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한다. 이것은 꾸란의 여러 곳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중심주제 중의 하나이다. (꾸란 제22장 알 핫즈 al-Ḥajj 22:18, 제13장 아르 라으드 ar-Ra'd 13:15, 제16장 안 나흘 an-Naḥl 16:48-49 참조)

7 이 절에서 사용된 단어, 알 미잔(al-mīzān)은 저울, 평행, 균형의 뜻인데 여기서는 '균형의 저울'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절(8-9절)에서의 것은 '공정의 저울'을 뜻한다. 우주 체계와 질서 유지에 균형은 기본이다. 천계의 모든 움직임들은 수리적인 균형의 저울에 의해 조정된다. 우주의 질서체계가 완벽하게 창조되었음을 뜻한다. 하늘에서 균형이 필수적이듯이 땅에서도 삶의 질서를 위해 그것은 필수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서로를 향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해야만 하고, 그 행동들은 마땅히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신다. 공정하고 균형적인 행동은 중도의 길을 걷는 것이고 어떤 정해져 있는 법도와 계율,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다.

8-9 꾸란은 우리가 매일 매일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상인은 팔고 살 때 정확하게 무게를 달아 거래를 해야 한다. 정직과 공정은 거룩하고 신성한 덕이고 선행이다. 타인에게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해야 한다.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데에 진지하고 정직해야 한다. 세상사에도 균형 있게 대처해 가야 한다. 상업적 일에 저울이 필요하듯이 사회생활에서도 균형과 공정의 저울은 필수적이다.

10-12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헤아릴 수 있으랴? 땅을 보라. 우리와 동식물들을 위해 넓게 펼쳐져 있고, 어디에서나 생장을 위한 여러 조건들이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게 균형 잡혀 있다. 수많은 과일들과 곡식들, 유용한 초목들과 곡물들이 수확되어 인간의 양식이 되고 가축들을 위한 사료로 쓰인다. 쓰고 달고 향내 나는 풀들과 꽃들은 향료, 약재로 쓰이고 어떤 것은 우리 눈을 즐겁게 한다.

13 아랍어에는 쌍수 문법이 있다. 주어가 쌍수이면 동사도 대명사도 쌍수를 써야 한다. 따라서 이 절의 문법적 번역은 다음 같아야 한다. “그런데 너희 둘은 너희 둘의 주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너희 둘이 거부하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쌍으로 만드시어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셨다는 언급은 꾸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꾸란 제51장 안 다리야트 adh-Dhāriyāt 51:49, 제78장 안 나바 an-Naba’ 78:8 등 참조). 특히, 이 아르 라흐만장은 거의 전체에서 쌍의 개념이 강조되어 묘사되고 있다.

14-15 인간과 진의 창조는 대조적이다. 인간은 마치 도자기 구울 때 쓰는 진흙처럼 건조한 점토로 만들어졌다 (꾸란 제15장 알 히즈르

al-Ḥijr 15:26 참조). 진은 불의 불꽃으로 만들어졌다. 이와 같이 다른 창조마다 각기 부여된 능력과 본질이 다르다. 진은 불꽃과 같이 미묘하고 포착하기 어려운 존재이다. 진(jinn, 단수형은 jinnī)은 동사 잔나(janna ~을 숨기다, 감추다, 덮다)에서 나온 단어로 인간의 눈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비가시 세계의 숨겨진 존재다. 우리말로는 정령, 요정, 악마, 영마와 같은 존재이거나 우리 민담 속의 악령, 도깨비, 신령과 유사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천사보다 아래 등급에 있고 활동하는 거의 모든 면에서 사람과 대동소이하다. 즉 한정된 수명과 성(性)을 가지며, 인간처럼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는 것이다. 특히 악하고 반역적인 진은 인간의 이성을 혼란하게 하고 현혹시키며, 인간에게 마법을 가르치기도 하며 인간을 유혹하여 악한 일을 시키는 악마로써 기능한다. 사탄은 그러한 악한 진의 대표적 존재이다.

16 무한한 주님의 은혜 중 너희는 대체 무엇을 부인하려 하느냐는 이 말은 이 장에서 무려 31회 반복된다. 유사한 언급이 꾸란 제16장 안 나흘(an-Naḥl) 16:71-72, 제40장 가피르(Ghāfir) 40:81, 제53장 안 나즘(an-Najm) 53:55에서도 발견된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무시하고 있거나 인정하지 않으며 끝내 부인하고 거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 은총을 오용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히 배은망덕한 짓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17-18 두 동방과 두 서방은 해가 뜨고 지는 두 극점을 가리키며 이것은 그 두 극점 사이에 있는 모든 지점들을 포함한다. 두 동방은 여름과 겨울 동안 해뜨는 지점을 말하고 두 서방은 여름과 겨울 동안 해가

지는 지점을 뜻한다. 즉, 일출과 일몰의 다른 시간대의 모든 장소를 가리킨다. 이 절의 진의는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시는 절대자로 과거, 현재, 미래뿐 아니라 우주와 이 세상의 모든 사물, 일, 장소를 다 아시고 관장하시는 전지전능한 분임을 강조하는데 있다.

19-20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두 바다(baḥrayn, 단수형은 baḥr)를 지구 표면의 여기저기에 흩뜨려 놓으셨다. 여기서 두 바다는 흐르고 있는 물을 대분하여 가리키는 말로써 하나는 소금기 있는 바닷물과 다른 하나는 소금기 없는 소위 단물이다. 앞의 것은 대양의 물이고 뒤의 것은 강물, 호수, 지하수, 샘물 등이다. 이러한 물들의 원천인 비는 이들을 하나로 만들고, 또 궁극적으로 대양으로 흘러들어가 이 둘이 섞여서 어느 정도 하나가 된다.

20-21 그러면서도 거기에는 규칙적인 물 순환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지만, 조수에 의해 주기적으로 변화가 있는 강들에는 큰 강어귀 몇 킬로미터 위까지 바닷물이 밀려온다. 인력 및 중력작용의 법칙이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놓으신 장벽에 의해 이루어진다. 두 물의 본체는 별개의 다름을 유지하면서 혼합되어 간다. 예컨대 미시시피 강이나 양쯔강의 경우,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바다로 운반하고 있지만 강에서 침니와 함께한 강물은 바다로 나간 뒤에도 긴 거리 동안 바닷물과는 별개로 남아 있다. 기이한 현상은 물의 두 본체는 서로 통과하고 섞여도 그 본질을 유지하며 남아 있다는 것이다.

22-23 이 절의 내용은 단지 최근에 발견한 과학적인 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두 물은 대양에서 서로 만나지만 아직도 상당 부분 각

기 분리되어 남아 있다. 왜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둘 사이에 서로를 넘지 않는 벽(barzakhun)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을 갈라놓고 있으며 동시에 두 세계의 삶을 잇고 있는 '무덤에서의 삶'이 있다. 이슬람에서는 이를 바르자크의 삶이라고 부른다. 이슬람에서는 인간의 4단계 삶을 가르치고 있다. 모태에서의 삶, 현세에서의 삶, 무덤에서의 삶, 내세(천국과 지옥)에서의 삶이 그것이다.

24-25 배, 선박, 기선들뿐 아니라 비행기, 우주선 등 탈것들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히 부여해주신 큰 은혜인 지성과 이해력으로 우리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다. 우리는 그것을 인간이 성취한 위대한 과학의 힘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과학을 탐구하여 성과를 이루게 하는 우리의 근원적 지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26-28 인간이 성취하는 위대한 업적들은 모두가 한시적이다. 언젠가 약속된 시간에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 영원한 절대자는 하나님뿐이시다. 그분은 누구신가? 가장 존엄하신 분이신 알 잘랄(al-Jalāl), 가장 고귀하며 영예로우신 분이신 알 이크람(al-Ikrām)이시다. 이 두 단어는 이 장의 마지막 절(78절) 에서도 되풀이된다. 앞의 것은 왕이나 군주에게 붙여지는 장엄, 위엄, 존엄의 뜻이고 뒤의 것은 존경, 영예, 명예의 뜻과 관대, 고귀, 숭고의 뜻이 압축된 가장 큰 아량을 가지신 분, 아낌없이 주시는 숭고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9-30 피조물들은 모두가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의존한다. 우리가 건강, 양식, 용서, 자비를 구할 때마다 시공에 상관없이 매 순간 주

님께서는 그것에 합당한 답을 주시는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다. 성공과 실패를, 영예와 치욕을, 생명과 죽음을 주시기도 한다. 샤은(sha'n)은 '일, 문제, 상황, 상태, 중요성, 의의'를 뜻하는 단어다. 매일, 매시간, 매 순간 그분께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중요한 일 속에 계시다. 우주만물을 관장하시며 모든 상태를 주관하신다.

31-32 무게, 짐, 중량을 뜻하는 단어 사깔(thaqal)은 때로는 귀중품, 중요한 짐을 나타낸다. 여기서 쓰인 쌍수 앗 사깔란(ath-thaqalān)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죄 짐을 지고 있는 '인간과 진'을 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속의 행동들에서 선과 악을 선택할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세상 삶은 짧게 끝난다는 것을 경고해 주셨다. 이 경고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비이자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처리하는 데 몰두하시고 마침내 결말을 지으실 것이다.

33-34 '나의 행동과 주장이 비록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나 겉으로는 옳게 보이고, 또 비밀리에 일을 추진했지만 끝내 성공하였으니 괜찮을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현혹되지 말라! 심판의 날은 곧 올 것이고 모든 것은 다 밝혀진다. 우리의 삶이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 자신이 쳐 놓은 행위의 그물 밖으로 우리가 도피할 수 있는 가망성은 없다. 우리가 꾀했던 음모와 감추었던 비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되었고 약속된 모든 것은 정말로 일어날 것이다. (같은 내용의 계시, 꾸란 제6장 알 안암 al-An'ām 6:130-134 참조)

지금까지 언급된 이 장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예증들은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다. 계시 속에, 우리의 지성 안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미래의 그날을 경고해주고 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응분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

35-36 여기서부터 45절까지는 불신자들에게 닥쳐올 심판의 날과 지옥에서 받을 고통의 삶에 대한 묘사이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주님의 은혜 중 너희 둘은 어떤 것을 거부하려 하느냐?' 하는 절은 마치 '너희는 계시와 경고를 비웃고 무시했다. 정말 그날이 온다고 너희에게 되풀이 말하지 않았더냐?' 하는 반어적 묘사로 들린다. 그 날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뜨겁게 용해된 놋쇳물이 천사들에 의해 죄지은 인간과 진들의 머리 위로 던져질 것이다. 그들은 서로 도울 수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도 없을 것이다.

37-38 하늘은 찢어지고 유성물질과 같이 녹아 사라질 것이다. 붉은 색은 아마도 불길 화염과 타오르는 열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상은 용해되고 분해될 것이다.

39-42 그날이 되면 그들은 질문을 받을 필요도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은 불려나와 조용히 서 있을 것이다. 그들 자신의 혀와 손, 발이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증언을 할 것이다(꾸란 제14장 이브라힘 Ibrāhīm 14:24 참조). 모든 사람은 신체에 표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지막 계산에 의해 등급이 매겨진 표식이다.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그의 기록들이 보이게 될 것이다(꾸란 제69장 알 학까 al-Ḥāqqah 69:19, 25. 또한 제18장 알 푸르깐 al-Furqān 18:49 참조). 그리고 나서 그에게 자신의 바람을 호소할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꾸란 제7장 알 아으라프

al-A'rāf 7:53 참조). 천사들은 죄인들의 앞머리와 발을 붙잡고 지옥으로 던져 넣을 준비 자세를 취할 것이다.

43-45 그토록 그들이 부정해 온 것이 현실이 되었다. 그들은 잠시의 휴식도 취할 수 없다. 불길은 계속 타오르고 물은 펄펄 끓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지옥불과 끓는 물 사이를 계속 돌아야 할 것이다.

46-49 여기부터 77절까지는 천국행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묘사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행을 실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다. 여기서 두 개의 천국이 언급되어 있는데 62-76절에서 다시 또 두 개의 천국이 등장하여 이 장에서 소개되는 천국은 4개이다. 꾸란 주석가들에 따르면 46-61절에서 언급된 두 천국이 하나님께 더 가까운 천국(muqarrabūn)으로 간주된다. 그곳은 생기가 넘쳐나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찬 곳이다. 온갖 종류의 과일 나무들과 즐거움이 풍부하다. 아프난(afnān)은 갖가지 종류의 싱싱하고 아름다운 나뭇가지들이 풍성히 뻗어 있다는 뜻이다.

50-52 이 두 천국에는 자유롭게 흐르고 있는 샘물들이 있고 모든 종류의 과일들이 바로 손닿는 곳에 있다. 그곳의 가구들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다. 원하는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하고 싶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세상 삶에서 겪었던 영육의 피로와 노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다. (꾸란 제35장 알 파띠르 al-Fāṭir 35:35 참조)

56-59 여기서 묘사된 것처럼 천국에 약속되어 있는 벗, 동무는 최상의 청순함, 우아함, 고결함, 아름다움, 후의를 지닌 순진무구한 동반자이자 반려자이다. 꾸란 여러 곳에서 천국의 벗에 대한 같은 표현을 볼 수 있다. (꾸란 제44장 안 두칸 ad-Dukhān 44:54, 또한 제37장 앗 쌒파트 aṣ-Ṣāffāt 37:48 참조) '눈길을 억제하여 다소곳이 아래로 하고 있는' 이란 표현은 극도의 순수함, 순결함을 느끼게 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순백한 아름다움에서 그녀들은 마치 루비와 산호들 같다. 이같이 천국의 벗들을 보석에 비유함은 그들 존재의 가치와 권위 또한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가르침을 나타낸다.

60-61 선과 경건함(iḥsān)에 대한 보상으로는 선 보다 더 나은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 없다.

62-63 제46절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두 천국이다. 둘이라는 쌍수의 이원적 표현은 획일적이고 한결같음이 아니라 상이하고 불일치하며 변화가 있는 다양성을 함축한다. 변화가 있는 만큼 새롭고 생기가 있다. 천국은 풍요와 다양성이 있는 곳이다. 단조롭거나 한결같은 정적인 곳이 아니다. 그곳은 언제나 활기가 넘쳐나고 신선함과 기쁨으로 가득 찬 곳이다.

64-67 그러나 이 두 천국은 앞의 두 천국보다 아래 등급으로 간주된다. 앞의 천국에는 온갖 과일 나무 가지들이 풍성히 뻗어 있고 즐거움만이 가득 찬 곳(afnān)인 데 비해 여기는 검은 녹색(mudhāmmatān) 이다. 이 두 천국 역시 과일나무가 가득하고 초록색이 가득하지만 그 푸르름이 검은색을 띤 녹색으로 앞의 천국의 풍요로움에 미치지 못한다.

샘물의 표현도 앞의 천국에서는 자유롭게 흐르고 있는 두 샘물인데 비해 이곳에서는 한정되어 용솟음쳐 내뿜고 있는 두 샘물(naḍḍākhatān)이다. 일부 주석가들은 현세에서의 관개수로 같은 것에 비유하여 이 샘물은 채소와 과일 등 농작물에 물을 대기 위한 것으로, 검은 녹색이란 표현도 이렇게 물대기를 했기 때문에 쓰여진 것이라고 해석한다. 앞의 두 천국에서는 물대기를 할 필요가 없다.

68-69 52절에서는 '모든 종류의 과일들이 쌍으로 있다'고 하였는데 이 두 천국에서는 과일, 대추야자, 석류가 쌍수가 아니다. 위에서의 설명과 같이 쌍은 다양함, 더 신선함, 더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단수가 쓰인 것은 상대적으로 덜 풍요롭다는 것을 나타낸다.

70-71 착함, 선함, 아름다움은 대부분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속성이다. 일부 주석가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여인들'로 해석하지 않고 여기서의 문법적 여성형을 일반적인 것으로 보아 '이 두 천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훌륭하고 즐거운 것들이 있다'고 해석한다.

72-73 키얌(khiyām 천막)은 우리말 번역으로는 정자, 누각이 어울리지만 일부 아랍 주석가들에 따르면 이것은 길이가 90km가 넘는, 진주로 장식된 대형텐트이다. 마끄쑤라트는 수동형이므로 '눈길이 억제되어 있는'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74-75 '순결하고 단아한 처녀들'이란 표현은 천국의 거주자들인 믿는 자들의 항구적인 '동무, 벗, 짝이 되는 동반자, 반려자'에 대한 통념적 묘사이다. 그들은 선하고 순종적이며 검은 눈동자와 아름다움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꾸란 속 표현의 놀라운 비유와 상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특별히 요구된다.

76-77 앞에서 해석했듯이 앞의 두 천국을 설명하는 54절, 56절, 58절의 묘사가 뒤의 두 천국을 설명하는 70절, 72절, 76절의 묘사보다 더 기품이 있고 낫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국은 평화와 기쁨만이 있는 선행자들의 내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천국의 창조에서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곳의 거처에도 등급이 있는 것이다.

78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찬양과 찬미를 받으시고, 우리의 복종을 받으실 분이시다. 우리에게 항상 기억되어야 하는 분이시고, 가장 위대한 존엄과 가장 고귀한 영예를 홀로 지니신 분이시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 아르 라흐만 장의 가르침

### 제1~25절에서 배워야 할 점

- 가장 자비로우신 분께서는 우리에게 꾸란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으며 우리에게 말하는 법(al-bayān)을 가르쳐 주셨다.
- 그분께서는 균형과 조화의 우주를 창조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일에서도 균형과 조화를 지켜야 한다.
- 그분께서는 우주만물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의 은혜와 은총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 📖 제26~45절에서 배워야 할 점

-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분의 뜻에 의해 어느 한 순간에 소멸될 것이다.
- 하나님의 허가 없이는 인간이나 진은 누구나 그분의 우주적 질서에서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다.
- 심판의 날에 죄인들은 거칠게 잡혀져 있을 것이고, 몸에 나타난 특별한 표식으로 식별될 것이다.

### 📖 제46~78절에서 배워야 할 점

- 올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에게는 인간 세상에서는 묘사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순진무구한 동무가 있는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 인간에 의해 행해진 모든 선행은 내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으로 보상받는다.
- 그런데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을 우리가 부인할까?

제61장

# 앗 쌒프 Aṣ-Ṣaff

## 전투 정렬의 장

이 장의 이름은 4번째 절에 있는 쌒프(ṣaff)라는 단어에서 지어졌다. 원래 이 단어는 줄, 대열, 등급, 학급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쓰인 목적격 쌒판(ṣaffan)은 '전투대열에 서 있는, 정렬되어 있는, 잘 훈련되어 줄 서 있는'의 의미이다. 내용으로 보아 계시 시기는 메카의 우상숭배자들과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끈 메디나의 무슬림 군 사이에 벌어진 우후드(Uḥud) 전투 직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제는 무릇 무슬림은 항상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고 매사에 진지해야 하며, 전시에는 확고한 신앙심을 갖고 전투에 임하여 잘 정렬된 부동의 자세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길에서 분투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는 소위 지하드 정신과 삶을 훈계하는 것이다. 특히 무슬림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거에 예언자 모세와 예수에게 행

하였던 것과 같은 잘못된 행동이나 불의 부당한 짓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진정한 신앙인은 자신의 신앙을 과장해 말한다거나, 말로만 이슬람의 대의를 지키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서든지,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올바른 신념과 솔선수범하는 실천을 통해 이슬람의 대의를 지킨다. 그것이 곧 현세와 내세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는 길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 장은 무슬림들에게 각별하다. 진정한 신앙인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무슬림들은 이 장을 반복하여 독송하면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를 배운다. 특히 이 장의 제6절은 예수가 그의 뒤를 이어 이 땅에 올 하나님의 마지막 사자, 무함마드의 도래를 복음으로 전하고 있다. 그리고 제14절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 하나님 종교의 진정한 조력자들이 되겠다고 말하였던 것처럼, 믿는 자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길에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진정한 신앙인은 예수와 무함마드가 걸었던 참 신앙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제 61 장 سُورَةُ الصَّفِّ

بِسْمِ ٱللَّهِ ٱلرَّحْمَٰنِ ٱلرَّحِيمِ

سَبَّحَ لِلَّهِ مَا فِى ٱلسَّمَٰوَٰتِ وَمَا فِى ٱلْأَرْضِ ۖ وَهُوَ ٱلْعَزِيزُ ٱلْحَكِيمُ ﴿١﴾ يَٰٓأَيُّهَا
ٱلَّذِينَ ءَامَنُوا۟ لِمَ تَقُولُونَ مَا لَا تَفْعَلُونَ ﴿٢﴾ كَبُرَ مَقْتًا عِندَ ٱللَّهِ
أَن تَقُولُوا۟ مَا لَا تَفْعَلُونَ ﴿٣﴾ إِنَّ ٱللَّهَ يُحِبُّ ٱلَّذِينَ يُقَٰتِلُونَ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하라. 그분께서는 가장 강하신 분,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로다.

**02** 믿는 사람들아! 너희는 왜 너희가 행하지 않는 것을 (입으로) 말하느냐?[1)]

**03** 너희가 행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가증스러운 짓이니라.

1)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을 거짓으로 말하거나,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믿는 자들의 태도가 아니다.

## 제61 장

فِي سَبِيلِهِۦ صَفّٗا كَأَنَّهُم بُنۡيَٰنٞ مَّرۡصُوصٞ ٤ وَإِذۡ قَالَ مُوسَىٰ
لِقَوۡمِهِۦ يَٰقَوۡمِ لِمَ تُؤۡذُونَنِي وَقَد تَّعۡلَمُونَ أَنِّي رَسُولُ ٱللَّهِ إِلَيۡكُمۡۖ
فَلَمَّا زَاغُوٓاْ أَزَاغَ ٱللَّهُ قُلُوبَهُمۡۚ وَٱللَّهُ لَا يَهۡدِي ٱلۡقَوۡمَ ٱلۡفَٰسِقِينَ ٥
وَإِذۡ قَالَ عِيسَى ٱبۡنُ مَرۡيَمَ يَٰبَنِيٓ إِسۡرَٰٓءِيلَ إِنِّي رَسُولُ ٱللَّهِ إِلَيۡكُم مُّصَدِّقٗا لِّمَا بَيۡنَ

**04**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들이 견고한 건물[2]처럼 정렬지어 그분의 길에서 싸우는 자들을 사랑하시느니라.

**05**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오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하여 나를 욕되게 하고 박해하느냐?"[3] 그런데도 그들이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벗어나게 (그냥) 놓아두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거역하고 불복종하는 [파씨꾼][4]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시느니라.

---

2) 분얀(bunyān)은 건축물이다. 여기서는 '튼튼한 벽'처럼의 뜻이다.
3) 모세의 백성들은 종종 예언자를 따르지 않고 거역하였으며 그를 욕되게 하였다.
4) 파씨꾼(fāsiqūn)은 방탕한자, 사악하고 죄 많은 자, 불신자, 신께 거역하는 자들로써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자'에 대한 통칭이다.

## 제 61 장

يَدَيَّ مِنَ ٱلتَّوۡرَىٰةِ وَمُبَشِّرَۢا بِرَسُولٖ يَأۡتِي مِنۢ بَعۡدِي ٱسۡمُهُۥٓ أَحۡمَدُۖ فَلَمَّا جَآءَهُم
بِٱلۡبَيِّنَٰتِ قَالُواْ هَٰذَا سِحۡرٞ مُّبِينٞ ٦ وَمَنۡ أَظۡلَمُ مِمَّنِ ٱفۡتَرَىٰ عَلَى ٱللَّهِ
ٱلۡكَذِبَ وَهُوَ يُدۡعَىٰٓ إِلَى ٱلۡإِسۡلَٰمِۚ وَٱللَّهُ لَا يَهۡدِي ٱلۡقَوۡمَ ٱلظَّٰلِمِينَ ٧ يُرِيدُونَ
لِيُطۡفِـُٔواْ نُورَ ٱللَّهِ بِأَفۡوَٰهِهِمۡ وَٱللَّهُ مُتِمُّ نُورِهِۦ وَلَوۡ كَرِهَ ٱلۡكَٰفِرُونَ ٨

**06**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말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진실로 내가 내 앞에 온 토라[구약]를 확증하고, 내 뒤에 그의 이름이 아흐마드[5]인 한 사자가 온다는 복음을 전하려고 너희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사자니라" 그렇지만 그가 분명한 예증들과 함께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이것은 분명한 마술[6]이다"라고 말하였느니라.

**07** 이슬람으로 초대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날조하는 자보다 더 (불의와) 잘못을 저지르는 자 누구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잘못을 저지르는[잘리문][7]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시느니라.

**08**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빛[8]을 꺼버리길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

---

5) 아흐마드(Aḥmad)는 무함마드의 두 번째 이름이다. 무함마드는 '찬양을 받는 자'이고, 아흐마드는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뜻이다. 이 절에서와 같이 예수는 예언자 아흐마드[무함마드]의 도래를 예언하였다. 무슬림 주해가들 모두는 여기서의 '아흐마드'가 신약성서 요한복음(14:16, 15:26, 16:7) 속의 '보혜사'와 일치한다고 말한다.

6) 씨흐르(siḥr)의 원 뜻은 '요술, 마술'이지만 여기서는 '가짜, 사기, 속임'의 의미가 더 가깝다.

7) 잘리문(ẓālimūn)은 다신교도, 불신자들, 악행자들과 같이 잘못과 불의, 죄를 저지르는 사악한 죄인들에 대한 통칭이다.

8) 하나님의 빛이란 구체적으로 '꾸란의 계시들, 예언자 무함마드의 사명, 이슬람 종교'를

## 제61 장

هُوَ ٱلَّذِىٓ أَرْسَلَ رَسُولَهُۥ بِٱلْهُدَىٰ وَدِينِ ٱلْحَقِّ لِيُظْهِرَهُۥ عَلَى ٱلدِّينِ
كُلِّهِۦ وَلَوْ كَرِهَ ٱلْمُشْرِكُونَ ﴿٩﴾ يَٰٓأَيُّهَا ٱلَّذِينَ ءَامَنُوا۟ هَلْ أَدُلُّكُمْ عَلَىٰ تِجَٰرَةٍ
تُنجِيكُم مِّنْ عَذَابٍ أَلِيمٍ ﴿١٠﴾ تُؤْمِنُونَ بِٱللَّهِ وَرَسُولِهِۦ وَتُجَٰهِدُونَ فِى سَبِيلِ
ٱللَّهِ بِأَمْوَٰلِكُمْ وَأَنفُسِكُمْ ۚ ذَٰلِكُمْ خَيْرٌ لَّكُمْ إِن كُنتُمْ تَعْلَمُونَ ﴿١١﴾

께서는 불신자들이 싫어할지라도 그분의 빛을 완벽하게 하실 것이니라.

09 그분께서는 인도와 진리의 종교와 함께 그분의 사자를 파견하시어, 다신교도들[무슈리쿤][9]이 싫어할지라도 종교 전체 위에 그것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신 분이시니라.

<제2부>

10 믿는 사람들아! 고통스러운 형벌로부터 너희를 구해 줄 한 거래[10] (의 길)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까?

11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그분의 사자를 믿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길에서 너희 재산과 너희 생명으로 분투 노력[11]하는 것이다. 너희가 알

---

의미한다.

9) 무슈리쿤(mushrikūn)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신교도들, 우상숭배자에 대한 통칭이다.

10) 티자라(tijārah)는 상거래, 무역을 뜻한다. 내세의 행복을 얻기 위해, 대신에 현세에서 무엇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한 거래로 표현하였다.

11) 지하드(jihād)의 원래 의미는 여기서와 같이 '하나님의 길에서 분투 노력함'이다. 성전(holy war)이란 십자군 원정 때 유럽 기독교인들이 쓰던 서구의 용어로 이슬람의 지

## 제61장

يَغْفِرْ لَكُمْ ذُنُوبَكُمْ وَيُدْخِلْكُمْ جَنَّٰتٍ تَجْرِى مِن تَحْتِهَا ٱلْأَنْهَٰرُ
وَمَسَٰكِنَ طَيِّبَةً فِى جَنَّٰتِ عَدْنٍ ۚ ذَٰلِكَ ٱلْفَوْزُ ٱلْعَظِيمُ ﴿١٢﴾ وَأُخْرَىٰ
تُحِبُّونَهَا ۖ نَصْرٌ مِّنَ ٱللَّهِ وَفَتْحٌ قَرِيبٌ ۗ وَبَشِّرِ ٱلْمُؤْمِنِينَ ﴿١٣﴾
يَٰٓأَيُّهَا ٱلَّذِينَ ءَامَنُوا۟ كُونُوٓا۟ أَنصَارَ ٱللَّهِ كَمَا قَالَ عِيسَى ٱبْنُ مَرْيَمَ

고만 있더라도 그것은 너희를 위해 좋을 것이니라.

12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는 너희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너희를 그 아래에 강물이 흐르고 있는 천국과 에덴의 천국[12]에 있는 훌륭한 거처로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니라. 그것은 (정말) 위대한 성공이니라.

13 그리고 너희가 좋아할 (그분이 주실) 또 다른 (축복은) 하나님의 도움과 가까워진 승리이다.[13] 그러니 (무함마드여!) 믿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

하드를 성전으로 단순 번역해 쓰는 것은 오류이다.

12) 무슬림들은 천국이 한 공간이 아니라 여러 층의 복수 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는다. 천국을 가리키는 대표적 칭호는 잔나(Jannah)이지만 꾸란에는 여러 천국의 이름들이 등장한다. 예컨대, 평화의 거처(꾸란 6:127), 영원의 정원(꾸란 26:16), 안식의 천당(꾸란 32:19), 파라다이스(꾸란 13:107), 기쁨의 낙원(꾸란 5:70)이 있고 여기서와 같은 에덴의 천국은 꾸란 9:72에서도 나온다.

13) 불신자들에 대항하며 거두는 승리이다. 꾸란 주석가들은 곧 다가올 메카 정복의 승리(630년)로 해석하거나 그 뒤 전개되어 페르시아와 비잔틴 로마군에게 거두는 이슬람군의 큰 승리(636~640년)를 뜻한다고 말한다.

## 제61장

لِلْحَوَارِيِّـۧنَ مَنْ أَنصَارِيٓ إِلَى ٱللَّهِ ۖ قَالَ ٱلْحَوَارِيُّونَ نَحْنُ أَنصَارُ
ٱللَّهِ ۖ فَـَٔامَنَت طَّآئِفَةٌ مِّنۢ بَنِيٓ إِسْرَٰٓءِيلَ وَكَفَرَت طَّآئِفَةٌ ۖ
فَأَيَّدْنَا ٱلَّذِينَ ءَامَنُوا۟ عَلَىٰ عَدُوِّهِمْ فَأَصْبَحُوا۟ ظَٰهِرِينَ ١٤

**14 믿는 사람들아! 너희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제자들[14]에게 "누가 하나님께로의 (길에) 나를 돕는 자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저희가 하나님의 조력자들[15]입니다"[16]라고 답하였던 것과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조력자들이 되라!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중의 한 무리는 믿음을 가졌으나 (다른) 한 무리는 믿지 않았느니라[17]. 그래서 우리[하나님]는 그들의 적들에 대항하는 믿는 자들을 도와주었으며, 그들은 우세하게 퍼진 (승리)자가 되었느니라.**

---

14) 하와리윤(ḥawāriyyūn)은 '제자들'의 뜻으로 여기서는 예수를 추종하던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을 일컫는 말로 쓰였다. 예수의 열 두 제자들의 이름은 신약의 마태복음 10:2-4절 참조

15) 여기서의 안싸르 알라(Anṣār-Allāh 하나님의 조력자들)는 '안싸르 딘 알라(Anṣār dīn Allāh 하나님 종교의 조력자들)'를 뜻한다.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하나님의 길에서 헌신하는 자들이다.

16) 꾸란 3:52~53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계시를 볼 수 있음.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 무슬림들임을 증언한다.

17) 예언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은 유대인들이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인과 무슬림들이다.

## 해 설

1 첫 절은 제59장 알 하쉬르(Al-Ḥashr) 1절과 일치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분이 갖고 계신 무한의 능력을 굳건히 믿고 흐트러짐이 없는 신앙심을 고양시켜나가야 한다.

2-4 우후드 전투에서 무슬림들은 예언자의 지휘에 완벽히 따르지 못하였다. 불복종은 잘 훈련된 대열을 깨지게 했다. 전투 이전에 그들은 예언자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할 것을 다짐했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달랐다. 그 결과는 패배였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이 저지르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가장 혐오스러운 짓이다.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불신자에 대항하여 싸우는 전선에서는 무엇보다 일사분란한 명령체계, 잘 훈련되고 용맹스러운 전사들, 그리고 견고한 건축물(bunyānun marṣūṣun)처럼 튼튼히 정렬된 전투조직과 전투대열이 요구된다. 우후드에 앞서 치러진 바드르 전투에서는 비록 무슬림군이 소수였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꾸란 제3장 알 이므란 Al-'Imrān 3:121-127 참조)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이 재앙에서 그들을 구할 수 있다.

5 모세의 백성들은 무지하지 않았으나 이기적이고 거만하였다. 그들은 자주 예언자에게 거역하고 그를 욕되게 하였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불복종함은 올바른 길에서 일탈하는 행위이다. 그런 고로 그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다. 무슬림 공동체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항상 진실되고 또 진지하게 노력해야만 한다. 우리가 죄인이 되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은혜와 자비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이탈해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총과 보호를 거두신다. 죄인의 마음은 점차 치유될 수 없는 질병에 오염되고 그의 영혼은 사탄이 펼쳐 놓는 유혹의 덫에 걸려 방황하는 자의 길을 걷게 된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불복종하여 죄지은 자를 파씨꾼이라 부른다.

6 예수의 사명은 주로 그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었었다. 예컨대 마태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나는 다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졌노라" (마태 10:5-6, 15:24 참조). 그의 주된 사명은 앞에 온 토라(모세 오경)나 예언자를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증하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마태 5:17).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시할 것은 예수의 또 다른 중요한 사명이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뒤를 이어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의 전달자요, 경고자(꾸란 제34장 싸바Saba' 34:28)로 한 예언자가 오리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다. 예수가 이 절에서 언급한 예언자의 이름은 아흐마드이다. 이 말은 두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알라께 '가장 높은 찬양을 드리는 자'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 의해 '높이 찬양받는 자'의 뜻이다. 무슬림들은 앞의 것을 '아흐마드'로 뒤의 것을 '무함마드'로 부른다. 실상 아흐마드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또 다른 이름이다. 무슬림(Muslim), 아부 다우드(Abū Dā'ūd), 이맘 말리크(Imām

Mālik), 알 부카리(al-Bukhārī) 등 많은 권위 있는 전승학자들이 그들의 하디스집에서 예언자 스스로가 '내가 무함마드이고 내가 아흐마드이다' 라고 한 말을 전하고 있다.

이 두 이름 아흐마드(Aḥmad 찬양하는 자)와 무함마드(Muḥammad 찬양받는 자)는 그리스어 단어 'periclytos 찬양받는 자'에 딱 맞는 번역이다. 현재의 요한복음 14:16, 15:26, 16:7에 있는 단어 'paraclete'는 그리스어 단어 'paracletos'를 음역한 것으로 초기 영어 번역에서는 comforter(위안자, 위로자)를 썼는데, 이보다는 오히려 advocate(변호자), counselor(상담자)가 더 가까운 번역이다. 원래의 의미는 많은 주석자들에 의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옆으로 불림을 받은 자, 친절한 친구'로 해석된다. 최근 한글 개역성경에서는 보혜사(保惠師)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신자를 보호하여 돕고 돌보아 주는 분' 이다. 무슬림 석학들은 이 paracletos가 원래의 periclytos를 잘못 읽은 것이라고 믿는다. 뿐만 아니라 비록 그것을 paraclete(변호자, 조력자, 옆에 있는 친절한 친구)로 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가장 어울리는 칭호라고 생각한다. 그는 '모든 창조물을 위한 한 자비'라고 꾸란의 제21장 알 안비야(Al-Anbiyā') 21:107는 말하고 있고, 꾸란 제9장 알 타우바(At-Tawbah) 9:128에는 그가 '믿는 자들에게 가장 친절하고 자비스럽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요한복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요한 14:1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한 14:26).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 15:26).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 16:7).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요한 16:13-14). 무슬림들이 요한복음 속의 보혜사를 무함마드로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예수가 떠나기 이전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 예언자 무함마드는 예수가 떠난 이후 6세기 만에 온 유일한 신의 사자이다. 둘째, 그는 믿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머무를 것이다. - 무함마드의 사명은 영원하고도 범 우주적인 계시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진리의 가르침과 그의 존재는 믿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존속한다. 셋째, 그는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 무함마드는 예수가 전한 복음을 확증하고 그가 말하지 못한 진리의 모든 것을 가르쳤다. 넷째, 그는 예수를 영광되게 하리라. - 무함마드만큼 예수를 영광되게 높인 예언자는 없다.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형에 처하려 했다. 무함마드는 그를 아브라함, 모세와 같이 알라께 순종하던 완벽한 무슬림 예언자로 칭송하였다. 다섯째, 그가 신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리라. - 꾸란은 천사 가브리엘[성령]을 통해 그에게 계시되었다. 무함마드는 문맹자로서, 계시된 그대로를 전하였을 뿐이다. 꾸란도 이것을 증명한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말하지 않는도다. 실로 그것은(그에게) 계시된 계시일 뿐이니라." (꾸란 53:3-4). 요한 복음의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 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섯째,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 꾸란은 진리의 인도서이다. 그리고 예언자 쑨나와 하디스들은 진리로의 안내를 위한 꾸란의 보충적 해설들이다. 꾸란과 예언자 쑨나만큼 이 세상의

종말과 부활, 심판의 날을 가르치며 장래의 일을 알려주는 진리의 안내서는 없다. 무함마드가 보혜사와 일치하는 또 다른 근거는 꾸란의 다음 계시이다. "내가 온 세상 만물을 위해 은혜를 베풀 자로 그대를 보내노라" (꾸란 21:107). 여기서 쓰여진 라흐마 (raḥmah)는 자비, 은혜를 뜻한다. 무함마드가 우주 만물의 유익함을 위해 보내어진 보혜사라는 해석이다.

최후 예언자 무함마드의 도래는 여러 방식으로 예언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왔을 때 그는 많은 분명한 예증 [계시]들을 가져왔다. 그의 전 생애는 하나의 거대한 기적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차이들, 편견들, 불평등과 싸워 이겼다. 사람들로부터의 배움 없이 그는 최상의 고결한 지혜를 가르쳤다. 경직되고 고집스러운 마음들을 녹였으며, 부드럽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마음들을 강화시켰다. 모든 그의 말과 행동들, 가르침들에서 분별력과 깨달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의지와 진리를 볼 수 있지만, 무지한 불신자들은 다만 그것을 거짓이요 마법일 뿐이라고 말한다.

7-8 무슬림이 되어서 미신적 관행들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께 불경한 거짓을 날조하는 행위는 더욱 용서받지 못할 죄이다. 특히 진리의 빛인 이슬람에 적대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계속 잘못과 불의부당한 짓을 저지르면 그로부터 그분의 자비와 은총을 거두어 가신다. 하나님의 빛은 결코 불신자들에 의해 꺼질 수 없다. 어리석은 자들이 진리를 희석하고 훼손하는 시도를 하지만 티끌만큼이라도 진리의 빛을 가리거나 덮을 수 없다. 잘못과 불의를 저지르는 죄인들은 통칭 '잘리문'이라고 부른다.

9 우리가 여기서 중시해야 할 것은 '모든 종교 위에'에서 종교가 단수형이라는 점이다. '다른 모든 종교들 위에'가 아닌 것이다. 세상에는 단지 하나의 진정한 종교가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의지에 '완벽히 복종하는 길'이 '이슬람'이다. 그것은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에 의해 설교되던 것과 똑같은 종교이다. 마지막으로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다시 계시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완성된 종교 이슬람이 모든 것 위에 우세하게 널리 전파될 것임을 약속하셨다.

10-12 티자라(tijārah)는 상업, 거래의 뜻으로, 무엇인가 자신의 것을 주고 원하는 것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가 해야 하고 주어야 할 것은 제11절에 언급되어 있고, 우리가 받는 것은 제12절에 설명되어 있다. 이것은 정말 훌륭한 거래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에 비해 되돌려 받는 보상은 엄청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뿐 아니라 천국까지 약속받았다.

13 우리가 성취하는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선행에 힘쓰고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 역경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한 걱정할 것이 없다. 승리는 항상 나의 것이다.

14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대의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대의를 위한 조력자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이 절에서 보듯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겪은 가르침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분을

믿을지 안 믿을지, 그분의 뜻에 복종할지 안할지, 스스로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권능과 힘으로 우리 인간을 그분의 신자들 또는 그분께 복종하는 종으로 만들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사자들, 성서들을 통해 우리에게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훈계와 경고, 명령을 내려 주셨다. 이러한 경고와 교훈을 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자가 무으민(Mu'min, 신자)이고, 그분의 명령들에 실천적으로 '복종하는 자'가 무슬림이다. 그리고 그분의 의지와 가르침을 의식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 뭍타끼(Muttaqī)이며, 늘 '선행을 위해 진력하는 자'가 무흐씬(Muḥsin)이다.

예수의 제자들과 일부 추종자들은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의 진정한 조력자들로 봉사하는 길을 택하였으나 대부분의 유대(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부터 등을 돌렸다. 그들은 예수의 예언자 지위를 부인하였으며 그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 가공할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처음 예수에 적대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믿고 그가 전한 메시지를 아주 꺼버렸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오랜 민족적 자만심에 가득 차 그들이 선민이고 신앙에서 우세함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곧 그들에게 큰 재앙이 닥친다. 예루살렘은 로마의 티투스(Titus)에 의해 서기 70년 멸망당하였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들은 유랑객이 되어야 했다. 다른 한편 예수의 제자와 추종자들은 로마 제국에 침투해 들어갔고, 그 뒤 비잔틴 로마를 통해 그리스도교는 이슬람이 발흥할 때까지 세상의 주 종교가 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 중 또 다른 일부 사람들은 예수를 과장하여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알라께서 그에게 부여하셨던 예언자 지위 이상으로 그를 높였다. 그러자 그들은 여러 분파로 나뉘어졌다. 그 후 그들 중 일부는 그가 알라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가 삼위일체의 한 분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중 일

부는 그가 알라였다고 말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바로 그들이 성부 성자 성령께 기도하고 있는 이유이다. (뒤의 전승이야기 참조) 이 절의 마지막은 그리스도교인들의 예를 통해서 무슬림들이 이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만약 앞선 신앙 공동체 사람들이 저질렀던 잘못된 길을 피하고 진리의 길을 잘 지켜간다면 무슬림들 앞에는 큰 성공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알라께서는 그들의 적에 대항하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신다. 이를 굳게 믿어야 한다. 최후의 사자 무함마드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진리의 깃발 아래 있던 무슬림들에게는 그들에게 도전했던 불신자, 우상숭배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싸워 이기는 큰 승리를 주셨다. 그들은 세상이 끝나는 순간까지 가장 우세하게 퍼진 진리의 수호자, 진리의 안싸르(Anṣār)들이 되어 마침내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 앗 쌒프 장의 가르침

-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거래를 제시받고 있다. 그것은 주님의 의지에 복종하고 그분의 대의를 위해 분투노력하면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 무슬림들은 하나님의 사자의 부름에 응답하여야 한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대의를 따르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조력자 안싸르이자 하나님의 군병이 되어야 한다.

- 만약 무슬림 누구든지 진정한 안싸르가 되면 그는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 전승 이야기

꾸란 주해학의 최고 선구자인 이맘 아부 자으파르 빈 자리르 안 따바리(Imām Abū Ja'far b. Jarīr Aṭ-Ṭabarī, 924년 사망)는 이븐 압바스(Ibn 'Abbās, 688년 사망)가 전하는 다음과 같은 말을 기록하였다.

"알라께서 예수를 하늘로 들어 올리실 것을 결정하셨을 때, 예수는 그의 머리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그의 동료들에게로 갔다. 그때 그 집에는 열 두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가 말하였다. '나를 믿어 온 너희 중 일부는 이후 열두 번 나를 불신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가 물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닮게 자신을 만들고 내 대신 죽을 자원자가 되겠느냐? 그는(천국에 있는) 내 장소에서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젊은 제자 중의 하나가 자원하여 나섰다. 그러나 예수는 그에게 앉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는 그의 말을 반복하였다. 그러자 그 젊은이가 다시 일어나 자원자가 될 뜻을 표했다. 예수가 다시 그에게 앉으라고 말하고 똑같은 언급을 되풀이하자, 그가 또 나섰다. 이때 예수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이 일은 네 몫이로구나.' 예수(그에게 평화가 있기를)가 그 집 지붕의 한 열린 곳을 통해 하늘로 들어 올려질 때 예수의 형상은 그 젊은이에게 몸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러 와 예수와 같이 보였던 그 사람을 체포했고 그를 십자가형에 처하려고 끌고 갔다. 그리고 예수를 믿던 그들[제자들]

중 일부는 그 뒤 열 두 번 예수를 불신하였다. 그 후 그들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첫 째는 야곱파(al-Yaqūbiyyah, the Jacobites)로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알라께서는 그분이 의도하셨던 만큼 우리와 함께 남아 계셨다. 그리고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두 번째 그룹은 네스토리안파(an-Nasṭūriyyah, the Nestorians)로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알라의 아들이 알라께서 의도하셨던 만큼 우리와 함께 남아 있었다. 그리고나서 알라께서는 그를 하늘로 들어 올리셨다.' 세 번째 그룹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알라의 종이자 사자가 알라께서 의도하셨던 만큼 우리와 함께 하였다. 그리고나서 알라께서는 그를 그분께로 들어 올리셨다.' 이 마지막 그룹이 무슬림들이다. (진리를) 믿지 않는 두 그룹은 무슬림들에 대항하여 공조 체제를 갖추고 서로를 도왔다. 그리고는 그들을 제압하였다. 이같이 이슬람은 알라께서 최후의 사자, 무함마드를 보내실 때까지 부당히 숨겨져 남아 있었다." (앞의 꾸란 19:36-37 해설 참조)

제 62 장

# 알 주무아 al-Jumu'ah

## 금요일의 장

이 장은 제9절에 있는 단어 '금요일'에서 이름이 지어졌다. 무슬림들이 의무적으로 근행해야 하는 금요 합동 예배에 관한 명령이 이 장에서 계시되었다. 금요집회의 장이라고도 부른다. 이 장은 그래서 중요하다. 계시 시기는 1-8절까지는 카이바르 정복 때이거나 그 직후인 히즈라 7년의 것이지만, 뒷부분인 9 ~ 11절까지는 초기 메디나 시대의 것이다. 왜냐하면 내용상 마지막 절의 사건은 메디나 사람들의 신앙심이 아직 돈독히 성숙되지 않았던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의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진실된 신앙과 실천의 자세를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첫 부분에서 최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왜 아랍의 문맹자 중에서

고르셨으며 그의 중대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둘째 부분에서는 일찍이 신의 계시를 받았던 모세의 후예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자 제대로 그것을 지키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예수 같은 하나님의 사자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그후 다시 600여년이 지난 후에 마지막 사자 무함마드가 왔을 때에도 사람들은 진리의 길에서 계속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세 번째 부분은 금요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세속적 유흥과 오락에 빠져 예배와 기도를 등한시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 장의 첫 절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고, 가장 성스러우신 분이시며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절들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그분의 속성들을 느끼고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최후 예언자를 보내주셨고, 성스러운 최후 계시를 주시어 미신적이고 무지하며 사악하고 부정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셨다.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주님께서는 만약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그분의 위대한 진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가 누구이든지 어떤 때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곳 어떤 세계에 살고 있든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 주님의 계시를 받아들인 한, 무지했고 무관심했고 잘못과 오류 속에 있던 우리의 과거는 문제될 것이 없다.

제 62 장 سُورَةُ الجُمُعَةِ

بِسْمِ ٱللَّهِ ٱلرَّحْمَٰنِ ٱلرَّحِيمِ

يُسَبِّحُ لِلَّهِ مَا فِى ٱلسَّمَٰوَٰتِ وَمَا فِى ٱلْأَرْضِ ٱلْمَلِكِ ٱلْقُدُّوسِ ٱلْعَزِيزِ
ٱلْحَكِيمِ ﴿١﴾ هُوَ ٱلَّذِى بَعَثَ فِى ٱلْأُمِّيِّۦنَ رَسُولًا مِّنْهُمْ يَتْلُوا۟ عَلَيْهِمْ
ءَايَٰتِهِۦ وَيُزَكِّيهِمْ وَيُعَلِّمُهُمُ ٱلْكِتَٰبَ وَٱلْحِكْمَةَ وَإِن كَانُوا۟ مِن قَبْلُ لَفِى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모두는) 왕이시며 가장 성스러운 분, 가장 강하신 분, 가장 지혜로운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릴지어다.

**02** 그분께서는 그들 중 문맹자들[1] 가운데에서 한 사자 [무함마드]를 보내시어 그들에게 그분의 계시[2]를 낭송해주고, 그들을 (불신에서) 정화케 하시며, 그들에게 성서와 지혜[3]를 가르쳐주게 하신 분이시로다. 진실로 그들은 이전에는 분명한 잘못 속에 있었느니라.[4]

---

1) 일부 주석가들은 여기서의 움미이 ('ummiyy 문맹자, 배우지 못한 자)가 신에 대한 배움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성서의 백성들'에 비교하여 아직 무지했던 '아랍인들'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2) 아야티히 ('āyātihi)는 알라의 창조물들과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 안에 있는 '그분의 증표들'을 말한다. 이말은 그분의 징표들, 가르침들, 계시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성서인 알키탑 (al-Kitāb), 즉 꾸란의 절들을 의미한다.

3) 성서는 꾸란을, 지혜는 쑨나 (sunnah 관행), 즉 예언자 무함마드의 쑨나를 말한다.

4) 여기서 그들은 물론 아랍인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였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그들에게 파송되어 그들을 불신과 다신주의, 우상 숭배의 오류로부터 벗어나 청결한 신앙인이 되게 인도했다.

## 제 62 장

ضَلَٰلٖ مُّبِينٖ ﴿٢﴾ وَءَاخَرِينَ مِنۡهُمۡ لَمَّا يَلۡحَقُواْ بِهِمۡۚ وَهُوَ ٱلۡعَزِيزُ
ٱلۡحَكِيمُ ﴿٣﴾ ذَٰلِكَ فَضۡلُ ٱللَّهِ يُؤۡتِيهِ مَن يَشَآءُۚ وَٱللَّهُ ذُو ٱلۡفَضۡلِ
ٱلۡعَظِيمِ ﴿٤﴾ مَثَلُ ٱلَّذِينَ حُمِّلُواْ ٱلتَّوۡرَىٰةَ ثُمَّ لَمۡ يَحۡمِلُوهَا
كَمَثَلِ ٱلۡحِمَارِ يَحۡمِلُ أَسۡفَارَۢاۚ بِئۡسَ مَثَلُ ٱلۡقَوۡمِ ٱلَّذِينَ

**03** 또 (그분께서는) 아직 그들[무슬림]에게 합류하지 못한 그들 중의 다른 사람들[5]에게도 (신의 사자[무함마드]를 보내셨느니라). 그분께서는 가장 강하신 분,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도다.

**04** 그것이[6]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은혜로우시고 가장 위대함을 지니신 분이시도다.

**05** 토라[모세의 오경][7]의 (의무를) 위임받았으나 그 후 그것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자들[8]에 (대한) 비유는 마치 거대한 책 짐을 나르고 있는 당나귀와 유사하고,[9] (얼마나 그것이) 나쁜가는 하나님의 징표들[10]

---

5) 무슬림이 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 무함마드 시대의 아랍인 비아랍인들 뿐 아니라 그 뒤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오늘날에도 마지막 예언자의 사명과 인도는 세상 어느곳에서든지 작용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6) 예언자를 보내주셨고 계시를 내려주시며 성서와 지혜를 가르쳐주심.

7) 토라(Torah 아랍어로는 알 타우라at-Tawrāh)는 모세의 율법(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한다.

8) 유대인들은 토라의 명령에 복종할 것과 그 율법을 실천할 의무를 저버렸다.

9) 아스파르(asfār)는 '크고 무거운 책들'이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등에 짊어지고 나르는 당나귀와 흡사하다는 뜻.

10) 아야트(āyāt)는 위 제2절의 각주2)에서와 같이 증거들, 계시들, 증표들, 꾸란의 절들을 가리킨다.

## 제 62 장

كَذَّبُوا۟ بِـَٔايَـٰتِ ٱللَّهِ ۚ وَٱللَّهُ لَا يَهْدِى ٱلْقَوْمَ ٱلظَّـٰلِمِينَ ٥
قُلْ يَـٰٓأَيُّهَا ٱلَّذِينَ هَادُوٓا۟ إِن زَعَمْتُمْ أَنَّكُمْ أَوْلِيَآءُ لِلَّهِ مِن
دُونِ ٱلنَّاسِ فَتَمَنَّوُا۟ ٱلْمَوْتَ إِن كُنتُمْ صَـٰدِقِينَ ٦ وَلَا يَتَمَنَّوْنَهُۥٓ
أَبَدًۢا بِمَا قَدَّمَتْ أَيْدِيهِمْ ۚ وَٱللَّهُ عَلِيمٌۢ بِٱلظَّـٰلِمِينَ ٧ قُلْ إِنَّ

을 부인하였던 백성과 유사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잘못을 저지르는[잘리문] 백성[11]을 인도하지 않으시느니라.

06 말하라 (무함마드여!). "너희 유대인들이여! 만약 너희가 다른 (모든) 사람을 제외하고 너희만이 하나님의 친구들[12]이라고 주장한다면[13] 죽음을 기원해 보아라. 만약 너희가 (정말) 진실한 자들이라면!"[14]

07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손이 전에 보내놓았던 것[저지른 행위들] 때문에 결코 그것[죽음]을 기원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저지르는 자들[잘리문]을 잘 알고 계시느니라.

---

11) 잘리문(ẓālimūn)은 다신교도, 우상숭배자, 불신자, 악행자들인 죄인들에 대한 통칭으로 '불의와 잘못을 저지르는 자'의 뜻이다.

12) 아울리야으(awliyā')는 하나님의 '총애자, 은총을 받은 자'의 뜻이고 많은 주석가들이 하나님의 '친구들'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13) 아랍어 동사 자아마(za'ama)는 '주장하다, 단언하다'의 뜻인데 여기서는 '자처하다, 감히 주장하며 나서다'를 의미한다.

14) 이것은 '만약 너희가 올바른 인도 위에 있고, 무함마드와 그의 동료들이 길을 잃고 잘못 인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면, 두 그룹 중 정말 잘못 인도된 자들에게 죽음을 내려달라고 알라께 기원해 보라'라는 의미이다.

## 제 62 장

ٱلْمَوْتَ ٱلَّذِى تَفِرُّونَ مِنْهُ فَإِنَّهُۥ مُلَٰقِيكُمْ ۖ ثُمَّ تُرَدُّونَ
إِلَىٰ عَٰلِمِ ٱلْغَيْبِ وَٱلشَّهَٰدَةِ فَيُنَبِّئُكُم بِمَا كُنتُمْ تَعْمَلُونَ ﴿٨﴾
يَٰٓأَيُّهَا ٱلَّذِينَ ءَامَنُوٓا۟ إِذَا نُودِىَ لِلصَّلَوٰةِ مِن يَوْمِ ٱلْجُمُعَةِ
فَٱسْعَوْا۟ إِلَىٰ ذِكْرِ ٱللَّهِ وَذَرُوا۟ ٱلْبَيْعَ ۚ ذَٰلِكُمْ خَيْرٌ لَّكُمْ إِن كُنتُمْ

**08** (그들에게) 말하라! "진실로 너희가 피하려고 하는 죽음은 정녕 그것이 너희를 덮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모두를 잘 알고 계시는 분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너희가 행하곤 했던 것 (모두를) 너희에게 말하여 주실 것이다."

### <제2부>

**09** 너희 믿는 사람들이여! 금요일 예배를 위한 부름소리가 날 때면 하나님을 염송[15]하는 곳으로 서둘러 가라. 그리고 거래를 중단하라.[16]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좋은 일이니라!

---

15) 여기서의 염송, 기억을 뜻하는 디크르(dhikr)는 설교(khutbah)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금요 예배 의식 행위 전체를 의미한다.

16) 사고파는 상거래 행위뿐 아니라, 하던 일 모두를 잠시 멈추고 금요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

## 제 62 장

تَعۡلَمُونَ ٩ فَإِذَا قُضِيَتِ ٱلصَّلَوٰةُ فَٱنتَشِرُواْ فِي ٱلۡأَرۡضِ
وَٱبۡتَغُواْ مِن فَضۡلِ ٱللَّهِ وَٱذۡكُرُواْ ٱللَّهَ كَثِيرٗا لَّعَلَّكُمۡ تُفۡلِحُونَ ١٠
وَإِذَا رَأَوۡاْ تِجَٰرَةً أَوۡ لَهۡوًا ٱنفَضُّوٓاْ إِلَيۡهَا وَتَرَكُوكَ قَآئِمٗاۚ قُلۡ مَا عِندَ
ٱللَّهِ خَيۡرٞ مِّنَ ٱللَّهۡوِ وَمِنَ ٱلتِّجَٰرَةِۚ وَٱللَّهُ خَيۡرُ ٱلرَّٰزِقِينَ ١١

10 예배가 끝날 때, 너희는 (다시) 땅에 뿔뿔이 헤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라.[17] 또 많이 하나님을 기억[염송]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공할 것이니라.

11 그런데 어떤 상거래나 오락놀이[18]를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그쪽으로 흩어지면서, (설교하며) 서 있는 그대[무함마드]를 떠나갈 것이다. 말하라 (무함마드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오락보다, 상거래보다 더 좋도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양식의 제공자[19]이시로다."

17)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어느 곳에서나.
18) 예컨대 북을 두드리는 소리나 흥겨운 오락게임 등.
19) '하나님께서는 가장 훌륭하신 모든 필요의 제공자이시다'의 의미임.

## 해 설

1 '찬미와 영광을 드려라(yusabbiḥu)'라는 말은 사실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우주만물에 내려져 있기 때문에 천지의 모든 것은 항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선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분의 계시와 은혜는 무지한 자에게나 유식한 자에게나 똑같이 내려진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한다. 이 절에서 우리는 꾸란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 네 가지를 배운다. 알 말리크(al-malik): 주권을 가지신 분[왕], 알 꾿두스(al-Quddūs): 가장 성스러우신 분, 알 아지즈(al-'Azīz): 가장 강하신 분, 알 하킴(al-Ḥakīm): 가장 현명하신 분. 이 네 가지 속성이 곧 하나님의 99가지 이름 가운데 흔히 언급되어지는 네 가지 이름이기도 하다.

2 예언자 무함마드의 사명은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것이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 남아 있던 아랍인들에게 신의 사자로 보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문맹자 가운데에서 그를 선택하셨다. 그는 아랍인들 중에서 태어났지만 우주적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로서의 그의 사명은 전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견한 마지막 예언자였다. 그는 신성한 하나님의 계시를 아직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한 선생으로 왔다. 그는 그들에게 꾸란의 절들을 어떻게 낭송하는가(tilāwah)를 가르치고, 잘못된 신앙관과 과거의 죄로부터 그들을 깨끗이 정화시키고, 꾸란과 지혜(ḥikmah)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 꾸란 주석가들은 여기서의 이 '히크마'가 예언자 쑨나와 하디스(ḥadīth)라고 말한다. 그리고 문맹자들(al-'ummiyyūn)은 넓은 의미에서

아랍인들 전체를 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오랜 전통 속에 쌓아온 '성서의 백성들'인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 비교할 때 아랍인들은 무지한 우상숭배자이거나 불신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내려진 것임을 알게 해준다. 배운 사람에게나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나, 문명된 세계의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회의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계시는 전 인류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무학의 한 인물을 마지막 예언자로 삼아 그분의 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를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만들었다. 그는 배우지 못한 인물이었으나 가장 도덕적이고 계몽된 거대한 신앙 공동체 움마를 세웠던 것이다.

3 무슬림의 대열에 아직 합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예언자는 보내어졌다. 앞의 절과 이 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지를 처음에는 메카, 메디나 지역 사람들에게, 다음에는 아랍 지역의 아랍인, 비아랍인들에게, 그러고 나서는 무슬림 공동체에 아직 합류하지 못한 세계인 모두에게 전파되도록 계획하셨음을 알게 한다. 또한 순수하지만 가장 미개하였던 사막에서부터 점차 개화되고 발전한 문명세계로 그 진리의 메시지가 전파되게 하셨음을 알게 한다. 그 메시지가 전 인류를 위한 것이고, 시공을 초월하여 적용되는 불변의 진리임을 깨닫게 한다.

4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의지와 계획의 일부로 그분의 계시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큰 은혜이고 은총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은혜로우신 분, 가장 현명하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분의 무한한 관대하심을 알게 하

는 증표이다.

5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찍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선택되었다. 그러나 후손들이 이 메시지의 원형을 변경하였다. 이사야(Isayah) 같은 예언자들이 오류 속에 빠진 그들을 경고해 왔지만 그들은 그들의 등에 짊어진 지혜의 책들이 누구에게나 이익을 주는 전 인류를 위한 진리의 메시지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만을 위한 선민의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는 마치 단지 그 짐을 지고 운반하고 있는 짐승과 같은 처지로 스스로를 만들었다. 이 절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으나 올바른 안내의 길 위에 서 있지 못하고 그것을 개인적 혹은 민족적 자존의식을 위한 동력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공동체에 적용되어 내려왔다. 그들은 진리의 짐을 단지 등에 지고 운반하는 자들에 불과하다.

6-7 유대교의 교리 중에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 주님이신 알라의 의지와 법에 복종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점이 발견된다. 그 첫째는 그들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그들만이 신의 가르침에 대한 독점적 소유자라는 점이다. 나아가 그들은 야훼가 그들만의 유일신이라고 말한다. 셋째로 그들은 신법의 침해에 대한 어떤 형벌로부터도 면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지나치게 오만하고 불경스러운 것들이 아닐 수 없다. 이 절은 전통적 주석가들에 의해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너희가 올바른 인도 위에 있고 무함마드와 그의 동료들은 길을 잃고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한다면, 둘 중에서 잘못 인도된 그룹에 죽음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원해 보라! 정말 너희들만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친구들이라면!' 유대교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사

상이나 독특한 면죄의식 같은 것은 예언자 모세가 전한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고 친구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죽음을 왜 열망하지 않는가? 그들 역시 이 세상 삶을 내세보다 더 선호하는 똑같은 보통 사람이고 평등한 신앙인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이 세상 삶과 풍요로움에 가장 집착하는 종족이고 오랜 역사에서 - 특히 유럽사회의 지성인들로부터 - 남보다 더 스스로 자만해 하고 지나치게 세속적, 물질적 이득만을 좇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8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지른 모든 선과 악의 행위들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토록 감추려 했던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탄로나고 그 동기부터 소상히 밝혀질 것이다.

9 금요일은 합동예배를 보는 집회의 날이다. 무슬림들은 금요일의 공공예배를 통하여 신앙 공동체의 단합과 통일을 느낀다. 올바른 무슬림의 삶에 관한 충고와 제안을 하는 설교(khutbah)가 선행되고 모두가 나란히 횡으로 줄지어 서서 예배를 본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겸손한 마음으로 어깨를 붙여 나란히 선다. 무슬림의 금요집회는 유대인의 토요집회(Sabbath)나 기독교인들의 일요집회와 성격이 다르다. 예컨대 유대인의 집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완결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쉬시는(창세기 2:2; 출애굽기 20:11) 안식일의 개념에서 그날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 모든 다른 일을 금한다.(출애굽기 20:10) 그러나 꾸란은 무슬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쉬는 것이 필요치 않으시고 그분은 어떤 피로도 느끼지 않으시는(꾸

란 제2장 알 바까라 Al-Baqarah, 2:255) 초월자이심을 가르치고 있다. 이슬람의 가르침은 '금요 합동 예배시간이 다가오면 거래나 하던 일을 멈추고 서둘러 집회에 임하라. 그리고 집회가 끝나면 다시 너희의 일터로 가라'라는 것이다.

10 번영과 성공은 쌓아놓은 부라든지 세속적인 성취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건전하고 바른 마음과 정신 속에 더 위대한 성공이 있다. 디크르(dhikr)는 '하나님을 기억함'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염송하는 '염신 기도 행위'이다.

11 스포츠, 오락, 유흥, 놀이 등 세속적 즐거움에 빠져 예배와 기도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가 건전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 알 주무아 장의 가르침

-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읽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성서를 이해시키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행동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마지막 예언자를 보내셨다.
- 계시를 받아들인 사람이 가르침대로 행동하지 않고 바른 인도의 길 위에 있지 않는다면 그는 만인에게 유익한 진리의 책을 단지 짊어지고 운반하는 동물과 흡사하다. 지각없는 동물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 무슬림은 금요 합동예배를 알리는 아잔('adhān) 소리를 들으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가까운 성원으로 가 금요집회에 참석해야 한다. 예배가 끝난 뒤에는 자유롭게 정해진 약속이나 일터로 돌아간다.
- 우리는 종교적 의무를 무시하면서 세속적 즐거움이나 이익을 쫓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고 부양자이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보상을 약속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한다.

## 예배에 관한 이슬람의 가르침

- 각 개인은 하루 5차례 또는 그 이상의 예배를 집, 학교, 직장, 성원 어느 곳이든 예배 근행이 가능한 곳에서 드려야 한다.
- 금요일에는 성원에 모여 금요 합동 의무 예배를 본다.
- 해마다 두 축제일, 즉 파제절(이드 알 피뜨르 'Īd al-Fiṭr)와 희생제절(이드 알 아드하 'Īd al-'Aḍḥā)에는 대규모 공동집회가 성원 또는 특정의 공간에서 개최되어 합동 축제 예배를 드린다.
- 적어도 일생에 한 번은 메카로 순례 여행을 떠나 메카 하람 성원에서 합동 순례예배를 근행한다.

제 67 장

# 알 물크 Al-Mulk

## 주권의 장 / 지배권의 장

이 장의 이름은 첫 절에 나오는 '주권(al-mulk)'이라는 단어에서 지어졌다. 계시 시기는 어떤 전승에 의해서도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30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장의 주제와 문체의 특징으로 보아 대다수 주석가들은 메카 초기 계시로 분류한다. 중심 주제가 다른 메카 계시들과 유사하게 기본적인 이슬람의 가르침들을 소개하고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지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진리로 초대받으면 꼭 알고 지켜야 할 것들이다.

초반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임을 배운다. 그분께서는 한 치의 오차나 결함이 없이 완벽하게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분의 창조에는 목적이 있고 신성한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사는 것이 우리 피조물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우리는 그분의

의지에 복종하며 그분의 대의를 위해 행동하고 있는지를 감시받으며 그분께서 계획하여 놓으신 삶의 시험 속에 존재한다. 생명과 죽음을 창조하신 그분의 위대한 권능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불의 형벌이 있게 될 것이다.

중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중에서도 가장 인자하시고 가장 명민하시며 또 매사에 정통하시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며, 드러나 있거나 감추어져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께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을 가르친다.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은총과 자비에 비해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감사는 터무니없이 작은 것임을 깨닫게 한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누구인가? 무슬림들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심판의 날의 도래를 알려준 최후 경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심판의 그날은 실제이고, 그날은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자기 올 것이다.

마지막 절에는 과연 지금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의미 있게 반추해 보게 하는 매우 간단한 한 질문이 던져져 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수적인 물이 갑자기 없어져버린다면,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공급해 줄 능력이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

제 67 장 سُورَةُ المُلْك

بِسْمِ ٱللَّهِ ٱلرَّحْمَٰنِ ٱلرَّحِيمِ

تَبَٰرَكَ ٱلَّذِى بِيَدِهِ ٱلْمُلْكُ وَهُوَ عَلَىٰ كُلِّ شَىْءٍ قَدِيرٌ ﴿١﴾ ٱلَّذِى خَلَقَ
ٱلْمَوْتَ وَٱلْحَيَوٰةَ لِيَبْلُوَكُمْ أَيُّكُمْ أَحْسَنُ عَمَلًا ۚ وَهُوَ ٱلْعَزِيزُ ٱلْغَفُورُ ﴿٢﴾
ٱلَّذِى خَلَقَ سَبْعَ سَمَٰوَٰتٍ طِبَاقًا ۖ مَّا تَرَىٰ فِى خَلْقِ ٱلرَّحْمَٰنِ مِن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주권[1]이 그분 손에 있는 그분의 축복을 빌라.[2] 그분께서는 모든 것에 능력을 갖고 계시니라.[3]

**02** 그분께서는 너희 가운데 (누가) 행위에서 최고인지[4]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 죽음과 삶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가장 강하신분, 가장 관용하신 분이시니라.

---

1) 알 물크(al-mulk)는 '주권, 지배권, 통치권, 왕권'을 뜻한다.
2) 타바라카(tabāraka)는 "그분께 축복이 있기를…"인데 이것은 '그분께 은총과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길 빌다'는 의미이다.
3) 강함과 약함, 생명과 죽음, 풍요와 빈곤 등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 베풀어 주시든가, 금지하시든가 그분의 의지에 의해서이다.
4) 가장 훌륭한 삶의 방법이자 행위는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행동하고, 꾸란의 가르침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쑨나에 따르는 것이다.

## 제67장

تَفَٰوُتٍۖ فَٱرۡجِعِ ٱلۡبَصَرَ هَلۡ تَرَىٰ مِن فُطُورٖ ٣ ثُمَّ ٱرۡجِعِ
ٱلۡبَصَرَ كَرَّتَيۡنِ يَنقَلِبۡ إِلَيۡكَ ٱلۡبَصَرُ خَاسِئٗا وَهُوَ حَسِيرٞ
٤ وَلَقَدۡ زَيَّنَّا ٱلسَّمَآءَ ٱلدُّنۡيَا بِمَصَٰبِيحَ وَجَعَلۡنَٰهَا
رُجُومٗا لِّلشَّيَٰطِينِۖ وَأَعۡتَدۡنَا لَهُمۡ عَذَابَ ٱلسَّعِيرِ ٥

**03** 그분께서는 층층으로 일곱(층) 하늘을 창조하셨노라. 그대[무함마드]는 가장 자비로우신 분의 창조물에서 어떤 결함도 보지 못할 것이다. 눈을 돌려 보아라. "그대는 어떤 흠이라도 볼 수 있느냐?"

**04** 그러고 나서 다시 보고 또 다시[5] 눈을 돌려보아라. 시력은 약해져서[6] 지치고 무기력한[7] (상태로) 그대를 바꿔놓을 것이다.[8]

**05** 참으로 우리는 세상의 하늘[9]을 등불[10]로 장식해 놓았으며, 때로는 그것을 사탄들을 (몰아내는) 유성들[11]로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그들에

---

5) 쌍수 카르라타이니(karratayni)는 두 번 반복함을 뜻한다. '보고 또 보고 되풀이해 보아라'의 의미이다.
6) 카싸아(khasa'a, 개를 쫓아내다, 시력이 약해지다) 동사의 능동 분사형이자 목적격으로 쓰인 카씨안(khasi'an)은 '(시력이) 둔해지고 약해진'의 뜻이다.
7) 하씨르(ḥasīr)는 '피로한, 기진맥진한, 시력이 약해져 침침한'의 뜻이다.
8)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여 우리의 시력은 겸손해지고 순종하는 자세의 것이 된다는 뜻임.
9) 안 둔야(ad-dunyā)는 '세상'이다. '세상의 하늘'이란 땅에서 보는 하늘을 말하는데 일곱 층 하늘 중에서 가장 낮은 층의 하늘이다. 그래서 많은 주석자들이 '가장 낮은 층의 하늘'로도 번역한다.
10) 여기서 '등불'은 수많은 '별'을 가리킨다.
11) 유성들은 땅에 떨어져 루줌(rujūm 운석)이 되는데 여기서는 하늘에 있는 미사일들(missiles)이라는 의미이다.

## 제 67 장

وَلِلَّذِينَ كَفَرُوا۟ بِرَبِّهِمْ عَذَابُ جَهَنَّمَ ۖ وَبِئْسَ ٱلْمَصِيرُ ﴿٦﴾ إِذَآ
أُلْقُوا۟ فِيهَا سَمِعُوا۟ لَهَا شَهِيقًا وَهِىَ تَفُورُ ﴿٧﴾ تَكَادُ تَمَيَّزُ مِنَ
ٱلْغَيْظِ ۖ كُلَّمَآ أُلْقِىَ فِيهَا فَوْجٌ سَأَلَهُمْ خَزَنَتُهَآ أَلَمْ يَأْتِكُمْ نَذِيرٌ ﴿٨﴾
قَالُوا۟ بَلَىٰ قَدْ جَآءَنَا نَذِيرٌ فَكَذَّبْنَا وَقُلْنَا مَا نَزَّلَ ٱللَّهُ مِن شَىْءٍ

게는 불타는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준비해 놓았느니라.

**06** 그들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있느니라. 그 운명은 (얼마나) 비참한가!

**07** 그 안으로 그들이 던져질 때 그들은 그곳[지옥]에서의 거칠고 (무서운) 흐느낌 소리[12]를 들을 것이며, 그것은 (마치) 부글부글 끓고 있는[13] (불길 소리) 같느니라.

**08** 그곳은 (격렬한) 분노로 거의 폭발할 지경이라. 그 안에 한 무리가 던져질 때마다 그곳의 관리천사[14]들이 그들에게 물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경고자가 오지 않았더냐?"

**09** 그들은 말할 것이다. "아닙니다. 한 경고자가 우리에게 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부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계시]도 내려보

---

12) 샤히끄(shahīq)는 '흐느낌, 통곡'의 뜻으로 당나귀의 울음소리같이 목에서 가르릉 가르릉거리며 나오는 듣기 거북한 통곡소리이다.

13) 동사 파라(fāra)는 '부글부글 끓다. 비등하다'의 의미로 여기서는 타오르는 불길소리를 끓는 물소리에 비유하였다

14) 카자나(khazanah, 단수 khāzin)의 원래 의미는 '창고지기'들로, 여기서는 지옥을 지키는 천사를 말하는 관리자, 감독자의 뜻이다.

## 제 67 장

إِنْ أَنتُمْ إِلَّا فِي ضَلَٰلٍ كَبِيرٍ ﴿٩﴾ وَقَالُوا۟ لَوْ كُنَّا نَسْمَعُ أَوْ نَعْقِلُ مَا كُنَّا فِىٓ
أَصْحَٰبِ ٱلسَّعِيرِ ﴿١٠﴾ فَٱعْتَرَفُوا۟ بِذَنۢبِهِمْ فَسُحْقًا لِّأَصْحَٰبِ ٱلسَّعِيرِ ﴿١١﴾
إِنَّ ٱلَّذِينَ يَخْشَوْنَ رَبَّهُم بِٱلْغَيْبِ لَهُم مَّغْفِرَةٌ وَأَجْرٌ كَبِيرٌ ﴿١٢﴾
وَأَسِرُّوا۟ قَوْلَكُمْ أَوِ ٱجْهَرُوا۟ بِهِۦٓ ۖ إِنَّهُۥ عَلِيمٌۢ بِذَاتِ ٱلصُّدُورِ ﴿١٣﴾ أَلَا

내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가 단지 큰 잘못 속에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10 또 그들은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그때 귀를 기울였거나 혹은 지각이 있었다면 우리가 타오르는 불(지옥)의 거주자 속[15]에 있지 않을 텐데……."라고 (한탄)할 것이다.

11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죄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타오르는 불(지옥)의 거주자에서 (용서받기에는) 너무 멀리[16] 있느니라.

12 진실로, 보이지 않는 그들의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용서와 큰 보상[17]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니라.

13 너희가 너희의 말을 숨기거나 혹은 그것을 드러내어 말을 하거나 진실로 그분께서는 너희가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

15) 아쓰하브('aṣhāb)는 무함마드의 동료들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인 '동료들, 친구들'뿐 아니라 '소유자들, 사람들, 거주자들'의 의미로도 흔히 쓰인다.

16) 쑤흐끄(suḥq)는 '먼 곳, 아주 깊은 곳'으로, 여기서는 비록 그들이 죄를 인정하여도 지옥 불에서 금방 면죄되어 나올 수 없다는 뜻이다.

17) 큰 보상은 천국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보상이 있다.

## 제67장

يَعْلَمُ مَنْ خَلَقَ وَهُوَ ٱللَّطِيفُ ٱلْخَبِيرُ ﴿١٤﴾ هُوَ ٱلَّذِى جَعَلَ لَكُمُ
ٱلْأَرْضَ ذَلُولًا فَٱمْشُوا۟ فِى مَنَاكِبِهَا وَكُلُوا۟ مِن رِّزْقِهِۦ ۖ وَإِلَيْهِ ٱلنُّشُورُ ﴿١٥﴾
ءَأَمِنتُم مَّن فِى ٱلسَّمَآءِ أَن يَخْسِفَ بِكُمُ ٱلْأَرْضَ فَإِذَا هِىَ تَمُورُ ﴿١٦﴾
أَمْ أَمِنتُم مَّن فِى ٱلسَّمَآءِ أَن يُرْسِلَ عَلَيْكُمْ حَاصِبًا ۖ فَسَتَعْلَمُونَ

이시로다.

**14** 창조하신 분께서 모르시겠느냐? 그분께서는 가장 인자하시고 친절하신 분,[18] 모든 것에 정통하신 분[19]이시니라.

<제2부>

**15** 그분께서는 너희를 위해 땅을 다루기 쉽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시다.[20] 그러니 너희는 그곳의 넓은 지면을 여기저기 돌아다녀라.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양식을 먹어라. 그리고 그분께로 가는 것이 부활이니라.

**16** 너희는 그것[땅]이 (지진에서처럼) 진동할 때, 하늘에 계신 분께서 땅을 너희와 함께 함몰시키지는 않으시리라 안심하고 있느냐?

---

18) 알 라띠프(al-Laṭīf)는 '가장 친절하신 분, 가장 인자하신 분, 가장 부드러우신 분, 가장 명민하신 분'의 뜻이다.

19) 알 카비르(al-Khabīr)는 '모든 경험의 소유자, 모든 일에 정통한 분'의 뜻이다.

20) 단어 달룰란(dhalūlan)은 말을 길들이는 것처럼 '쉽게 순종하게 만드는'의 뜻이다. 여기서 '다루기 쉽게' 라는 말은 마음껏 다니고, 편히 쉴 수 있고, 무엇이든지 경작할 수 있는 유용한 땅으로 만드셨다는 의미에서 쓰여졌다.

## 제 67 장

كَيْفَ نَذِيرِ ﴿١٧﴾ وَلَقَدْ كَذَّبَ ٱلَّذِينَ مِن قَبْلِهِمْ فَكَيْفَ كَانَ نَكِيرِ ﴿١٨﴾
أَوَلَمْ يَرَوْا۟ إِلَى ٱلطَّيْرِ فَوْقَهُمْ صَٰٓفَّٰتٍ وَيَقْبِضْنَ ۚ مَا يُمْسِكُهُنَّ
إِلَّا ٱلرَّحْمَٰنُ ۚ إِنَّهُۥ بِكُلِّ شَىْءٍۭ بَصِيرٌ ﴿١٩﴾ أَمَّنْ هَٰذَا ٱلَّذِى هُوَ جُندٌ
لَّكُمْ يَنصُرُكُم مِّن دُونِ ٱلرَّحْمَٰنِ ۚ إِنِ ٱلْكَٰفِرُونَ إِلَّا فِى غُرُورٍ ﴿٢٠﴾

**17**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분께서 너희 위에 돌 폭풍[21]을 내리시지는 않으시리라 안심하고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리라.

**18** 참으로 그들 이전의 사람들이 (나의 경고를) 거부하였는데, (그들에 대한) 내 거부[22] (의 징벌이) 얼마나 (무서웠더냐)?

**19** 그들은 날개를 폈다 접었다 하면서 그들 위에서 (나는) 새들을 보지 않느냐? 가장 자비로우신 분 외에는 아무도 그(새)들을 잡아둘 수 없느니라. 실로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느니라.

**20** 가장 자비로우신 분 외에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너희를 위한 군대가 과연 누구겠느냐? 실로 불신자들은 단지 망상[23] 속에 있을 뿐이니라.

---

21) 돌폭풍으로 롯의 백성을 멸망시키셨고(꾸란 15:74, 26:173,27:58, 54:34 참조), 아비시니아(이디오피아)의 코끼리 군대를 새떼들의 돌비로 멸망시키신 것(꾸란 105:1~5)처럼 돌폭풍의 징벌이 내려질는지도 모른다는 교훈임.

22) 앞의 칸다바(ka<u>dh</u>dhaba)는 '거짓말이라고 거부하다'라는 뜻이지만, 뒤의 나키르(nakīr)는 '부인, 부정된, 고약하고 비난받을, 나쁜, 죄악스러운'과 동의어로 쓰이는 '거부'의 뜻으로 여기서는 '천벌, 신의 분노와 징벌'을 뜻한다.

23) 구루르(<u>gh</u>urūr)는 '속임, 기만, 허위, 허황됨'의 뜻이다.

## 제67장

أَمَّنْ هَٰذَا ٱلَّذِى يَرْزُقُكُمْ إِنْ أَمْسَكَ رِزْقَهُۥ ۚ بَل لَّجُّوا۟ فِى عُتُوٍّ وَنُفُورٍ ﴿٢١﴾
أَفَمَن يَمْشِى مُكِبًّا عَلَىٰ وَجْهِهِۦٓ أَهْدَىٰٓ أَمَّن يَمْشِى سَوِيًّا عَلَىٰ صِرَٰطٍ
مُّسْتَقِيمٍ ﴿٢٢﴾ قُلْ هُوَ ٱلَّذِىٓ أَنشَأَكُمْ وَجَعَلَ لَكُمُ ٱلسَّمْعَ وَٱلْأَبْصَٰرَ
وَٱلْأَفْـِٔدَةَ ۖ قَلِيلًا مَّا تَشْكُرُونَ ﴿٢٣﴾ قُلْ هُوَ ٱلَّذِى ذَرَأَكُمْ فِى ٱلْأَرْضِ

21 만약 그분께서 그분의 양식 공급을 멈추신다면 (과연) 누가 너희에게 양식 공급을 하겠느냐?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계속 거드름을 피우면서 (진리에서) 멀리 달아나 있구나.

22 얼굴을 숙인 채 걷고 있는 자가 더 바르게 인도되었겠느냐, 아니면 올바른 길[이슬람] 위에서 대등하게[24] 걷고 있는 자가 더 바르게 인도되었겠느냐?

23 말하라 (무함마드여!) "그분께서는 너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너희에게 듣고, 보고, 이해하는 (기능을) 주셨는데, 너희가 감사드리는 것은 (너무도) 적구나!"

24) 싸위얀(sawīyan)은 '똑같이'의 뜻이다. (얼굴을 들고) 정정당당히, 똑같이 평등하게 걷고 있는 자를 가리킨다.

## 제 67 장

وَإِلَيْهِ تُحْشَرُونَ ﴿٢٤﴾ وَيَقُولُونَ مَتَىٰ هَٰذَا ٱلْوَعْدُ إِن كُنتُمْ
صَٰدِقِينَ ﴿٢٥﴾ قُلْ إِنَّمَا ٱلْعِلْمُ عِندَ ٱللَّهِ وَإِنَّمَآ أَنَا۠ نَذِيرٌ مُّبِينٌ ﴿٢٦﴾
فَلَمَّا رَأَوْهُ زُلْفَةً سِيٓـَٔتْ وُجُوهُ ٱلَّذِينَ كَفَرُوا۟ وَقِيلَ هَٰذَا ٱلَّذِى
كُنتُم بِهِۦ تَدَّعُونَ ﴿٢٧﴾ قُلْ أَرَءَيْتُمْ إِنْ أَهْلَكَنِىَ ٱللَّهُ وَمَن مَّعِىَ

**24** 말하라 (무함마드여!) "그분께서는 땅에서 너희를 번식시키신 분이고, 그분께로 너희는 (부활의 날) 집합되어질 것이다."

**25** 그들은 말할 것이다 "만약 너희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이 약속이 언제 (이행되는)냐?"

**26** 말하라 (무함마드여!) "(그때를) 아는 것은 하나님 뿐이시다. 단지 나는 분명한 한 경고자[25]에 지나지 않다."

**27** 그러나 가까이 다가온 그것[부활의 날의 고통]을 그들이 볼 때에, 불신자들의 얼굴은 슬픔으로 일그러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너희가 소리쳐 묻곤 했던 그것[약속]이니라"라는 말이 들릴 것이니라.

---

25) 예언자 무함마드의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는 부활과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것이었다.

## 제67장

أَوْ رَحِمَنَا فَمَن يُجِيرُ ٱلْكَـٰفِرِينَ مِنْ عَذَابٍ أَلِيمٍ ﴿٢٨﴾ قُلْ هُوَ
ٱلرَّحْمَـٰنُ ءَامَنَّا بِهِۦ وَعَلَيْهِ تَوَكَّلْنَا فَسَتَعْلَمُونَ مَنْ هُوَ فِى ضَلَـٰلٍ مُّبِينٍ ﴿٢٩﴾
قُلْ أَرَءَيْتُمْ إِنْ أَصْبَحَ مَآؤُكُمْ غَوْرًا فَمَن يَأْتِيكُم بِمَآءٍ مَّعِينٍ ﴿٣٠﴾

**28** 말하라 (무함마드여!) "너희는 생각해 보았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멸하신다거나 혹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렇다면 고통스러운 형벌에서 불신자들을 구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겠느냐?"

**29** 말하라 (무함마드여!) "그분께서는 가장 자비로운 분이시로다. 우리는 그분만을 믿으며, 그분께만 신탁하노라. 너희는 (우리 중의) 누가 분명한 방황의 오류 속에 있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30** 말하라(무함마드여!) "너희는 생각해 보았느냐? 너희의 물이 땅속 깊이 스며들어 사라지게 되었다면 누가 흐르는 샘물을 너희에게 (다시)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

## 해설

1 주권은 지배권, 통치권, 왕권을 뜻한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분께서 그분의 의지를 행사하시는 권능에 누구도 제지나 도전을 할 수 없다. 그분은 주권자, 절대자이시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양편 모두의 주님이시다. 모든 은혜와 은총, 자비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이다. 우리가 그분께 찬양과 축복을 드림은 곧 그분께 은총과 자비를 구하고 비는 것이다.

2 "죽음과 삶을 창조하셨다." 라는 이 절을 보면 죽음이란 단어가 삶이라는 단어 앞에 놓여 있다. 꾸란 제2장 알 바까라(Al-Baqarah) 2:28을 보면 "너희는 죽어 있었고,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셨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분은 너희를 죽게 하시며 그러고 나서 너희에게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며 그러고 나서 그분께로 너희가 돌아가게 하시니라."라는 계시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죽음이란 삶이 시작되기 이전 상태이고, 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삶이 끝나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다시 새 삶을 얻는다는 것은 부활의 날 생명을 얻는 것이고, 최종단계는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의 현재 삶은 앞으로 다가올 죽음 이후의 마지막 삶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목적에 부응하고, 그분께서 내리신 명령과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삶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

3-4 눈을 들어 세상을 살펴보면, 우리는 경이롭고 불가사의한 만물의 형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완벽한 우주의 질서체계와 각양각색의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창조물들은 우리로 하여금 저절로 머리 숙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능력을 믿게 만든다. 가시세계가 이러할진대 불가시세계는 어떠하겠는가? 우리는 불가시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가시세계의 최소한의 것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언적 계시들에 의존해야만 한다. 특별한 정신적 혜안과 선견을 얻기 위해 열심히 기도와 예배를 드리며 신앙심을 키워야 한다.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 가시세계의 어떤 것에 집중하여 철저한 연구와 관찰을 시도해 본다 해도,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은 허용된 한도의 것일 뿐이다. 우주창조의 신비한 조화와 질서체계에서 우리는 한 치의 결점도 찾을 수 없다. 그것이 우리의 지력과 이성, 논리, 과학의 힘의 한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에 그저 머리 숙여 순종해야 할 뿐이다. 그것이 곧 믿음이다.

5 '가장 낮은 하늘'은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운 하늘'로 별들을 통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다. 이 절에서의 등불들은 반짝이는 별들, 지구와 달을 포함하는 행성들, 유성들 모두를 말한다. 별들로 가득히 장식된 하늘의 아름다움은 흠잡을 데 없는 조화의 극치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그분의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파수꾼과 경호병을 두고 계시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선은 모든 악의 공격에서 보호된다. 악은 하늘 체계에서도 정상의 일부가 아니다. 악이 들어올 때 그것은 불타오르는 미사일 유성에 의해 격퇴된다. 별똥 별이 길게 꼬리를 끌며 지나가는 흔적은 우리의 물질세계에서 사탄의 유혹과 부단히 싸워 마침내 악을 물리치

는 신앙인의 긴 투쟁역정의 흔적을 연상케 한다. (꾸란 제15장 알 히즈르 al-Ḥijr 15:16-18와 꾸란 제37장 앗 쌒파트 aṣ-Ṣāffāt 37:6-10 참조)

6 별들의 광채는 외부 세계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암시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저항에 부딪히게 될 때 그것은 스스로의 광채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내적 세계를 추구하며 사는 우리가 만약 오로지 선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거역하고 그분의 의지에 부조화를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신적 행복을 파괴하고 잃어버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에게 내려지는 징벌은 상상을 초월하는 뜨거운 불지옥이다.

7 이 절은 불지옥에 대한 생생한 표현을 은유적으로 담고 있다. 샤히끄(shahīq)는 '깊이 내쉬는 한숨 소리' 이다. 문어적으로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가르릉 가르릉거리며 나오는 거칠고 쉰 고통의 소리이다. 파라(fāra) 동사는 '물이 부글부글 끓다' '끓어 솟아오르다'의 뜻이다. 훨훨 타오르는 불길 소리가 마치 공포에 떨며 흐느껴 우는 거칠고 듣기 싫은 고통의 울음소리 같이 들려온다.

8-9 불지옥은 맹렬한 열기로 곧 터질 것 같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여해주신 이성과 양심, 윤리의식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가늠한다. 또 자연현상과 일상사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징표들을 목격하며 산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징표들은 불신자들에 의해 거부되고 도전받는다. 올바른 사람들과 예언자들은 오히려 그들에 의해 박해받고 조롱받는다. (꾸란 제36장 야씬Yāsīn 36:30 참조). 불신자들은 언제나 자만에 차 있고 오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10-11 인간에게는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과 악을 극복해낼 잠재력이 있다. 게다가 위대한 예언자들과 선현들의 가르침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타락과 멸망으로 이끄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와 법에 등을 돌리고 끝내 거역하는 실패한 자다. 심판의 날에 그의 죄과는 가감 없이 저울에 달려 제시되고 그는 어떤 변명도 만들 여지가 없을 것이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때의 후회와 회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뤄야 한다.

12 경외심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정적인 애모와 복종과 신앙의 발로이다. 그분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촌음일지라도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열망은 그분에 대한 경외감을 증폭시킨다. 이런 사람들은 그분의 의지에 한 치라도 반하는 행동을 할까봐 두려워한다. 비록 육체적 시각으로는 그분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모든 감성을 작용시켜 그분을 본성(fiṭrah)으로 보고 그분을 열렬히 경외하고 애모한다. 이러한 사랑의 열정은 자신의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고 그것은 용서와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자비의 보상을 받게 한다.

13-14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므로 그분의 창조물 하나하나에 정통하시다. 그러나 그분의 지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다. 우리의 짧은 지식은 늘 한계에 부딪친다. 그분은 '가장 부드럽고 세심한 분(al-Laṭīf)'이시다. 여기서의 알 라띠프는 '친절하고 자애스러운 분'이라는 일반적 의미보다 우주만물이 가진 비밀스러운 것, 신비로운 것들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넓은 의미에 더 가깝

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심오한, 섬세한 부분까지 조예가 깊고 모든 것을 숙지하고 계시는 분, 알 카비르(al-Khabīr 정통하신 분)이신 것이다. (꾸란 제22장 알 핮즈 al-Ḥajj 22:63 참조)

15 인간은 넓은 평야와 초원, 산과 강을 유용하게 개척하였다. 하늘과 바다에도 길을 만들고 사막에도 생활 터전을 마련하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개발할 수 있는 힘과 필요한 지성을 주셨기 때문이다. 또 그분께서 땅으로 하여금 우리의 능력과 지성에 순종케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은혜의 선물들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분께서 주실 내세의 더 큰 축복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16-18 우리가 땅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산다는 것이 이 땅의 주님께서 땅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순종토록 만드셨기 때문임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길 거부하고 그분의 법령을 깼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깨달아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안전은 한시적인 것으로 그 길이가 얼마간 지속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꾸란은 우리에게 과거의 인간 공동체들이 불복종 때문에 멸망당한 여러 예를 제시해주고 있다. 아드('Ād)의 백성들, 사무드(Thamūd)족, 그리고 예언자 롯(Lūt)의 공동체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과거의 권세가들도 예시하셨다. 파라오, 니므롯(Nimrod), 까룬(Qarun) 등 그들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하였지만 모두가 불명예스럽게 죽음을 맞았다.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하고 저항했던 결과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 수없이 계속되고 있다. (꾸란 제17장 알 이스라 al-Isrā' 17:68, 제22장 알 핮

즈 al-Ḥajj 22:42-44, 제28장 알 까싸쓰 al-Qaṣaṣ 28:76-82, 제29장 알 안카부트 Al-'Ankabūt 29:40을 참조할 것. 그리고 니므롯에 대한 구약에서의 언급은 창세기 10:8-9, 고라(Korah)로 나오는 까룬에 대한 구약에서의 이야기는 민수기 16:1~35을 볼 것)

19 '새들의 비행'은 자연현상에서 우리가 보는 아름답고 경탄스러운 것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비행술이라는 과학에 관한 영감을 주었다. 그런데 누가 그런 놀랄만한 능력을 새들에게 가르쳤을까? 새들이 스스로 나는 법을 개발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들이 땅 위에서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적합한 환경과 적절한 조건들을 제공해주시는 분이시다.

20 인간들이 사상 유례없는 최강의 군대를 조직한다 해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항할 수는 없다. 파라오의 군대, 진시황제의 병마들, 로마의 대군단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일순간의 자연의 변화에도 우리 인간들은 속수무책인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는 그때마다 그분의 세심한 보살핌 속에 우리가 생존해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그분의 보호 없이 생명을 유지할 순 없다. 단어 구루르(g̲hurūr)는 '허황된 것, 허망한 것, 기만, 속임'의 뜻이다. 깨달음이 없으면 결국 허망한 삶 속에 존재할 뿐이다.

21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분, 아르 라지끄(ar-Rāziq)가 누구신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빛과 공기, 바람과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이러한 모든 것의 출처와 근거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 찾으려 고집한다면 그는 불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여기서는 단어 우투우('utuww)와 누푸르(nufūr)가 쓰여졌다. 앞의 것은 '거드름, 거만, 교만'의 의미이고 뒤의 것은 '도망, 반감, 혐오'의 뜻이다. 그들은 자만에 빠져 계속 거만한 삶을 고집한다. 하나님의 의지에 반감을 갖고 등을 돌린다.

22 신앙심이 깊고 올바른 사람인 뭍타끼(muttaqī)는 곧은 길을 똑바로 걸어간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 인도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차 걷는 모습이 가볍고 거침이 없다. 악을 선택하여 걷는 자는 고개를 떨군 채 음지의 어두운 길을 찾아다닌다. 두려움 속에 주저하고 비틀거리며 방황한다.

23 우리는 우리의 성장과 발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려야 한다. 잘못에서 올바름을, 불의에서 정의를, 부정직에서 정직을 판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성취가,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명예가 남보다 우월한 내 능력 때문이라고 자만하고 그것을 과시하기에 바쁘다. 때로는 내가 가진 재능을 잘못된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짓인지를 알지 못한다.

24 인간은 한 부모로부터 번식하여 땅위에 퍼져나간다. 인구만이 거듭 팽창한 것이 아니라, 언어, 생활, 문명과 더불어 지성, 과학, 예술, 다른 다양한 분야와 특성들을 거듭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 모두는 부활의 날에 한 곳에 다 함께 집합되어질 것이다. 아득히 먼 과거부터 그날까지가 한순간에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25-26 불신자들은 언제까지나 그날을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올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정확히 그날을 아실 뿐이다. 예언자의 중요한 임무는 분명하게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경고하는 일이다.

27 여기서의 '그것'은 그 약속이 이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부활과 심판의 그날이고 그날에 닥쳐올 고통이다. 그 순간에 신앙인의 길이 옳았는지 회의론자나 무신론자들의 길이 잘못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은 있을 수 없다'고 큰소리치며 '그날이 언제냐?'고 다그치며 물어왔던 바로 그날이 되면, 너무 늦어서 그들은 그들의 길을 바꿀 수 없고 아무리 회개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28 무신론자나 불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 비록 우리에게 재앙 같은 것이 닥쳐온다 해도, 너희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를 선과 악 양쪽에 다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늘 말하고 있는 것같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좋은 것을 포함시켜 놓지 않으셨을까?…."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해주어야 한다. "너희의 죄와 악행은 분명히 고통스런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경감시키거나 없애줄 수 있는 아무런 것도 너희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닥쳐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의 한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인내 속에 살아야 한다는 지혜를 배웠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한층 강하게 만들어 주는 한시적인 시련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믿고 그분께 모든 신탁을 할 뿐이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야 한다. "너희도 그렇게 할래?"

29 이슬람신앙은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면 모든 해악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라고 가르쳐 준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희망이 있을 수 없다. 현실에서의 만족과 기쁨이 있을지라도!

30 이 장은 우리의 정신적 삶에 대한 가치관을 고양시키기 위해 우리의 물질적 삶에서 필수적인 물이 만약 한순간에 없어진다면 과연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라는 한 비유적인 질문의 가르침으로 끝을 맺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 삶을 더 개선시키고 높여 살기 위해서 우리 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발견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창조주 그분의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절대자이신 그분의 의지에 절대 복종하며 사는 지혜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바로 무슬림 [복종하는 자]이 아니던가!

## 알 물크 장의 가르침

-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편리하고, 유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과 보호를 우리에게 주신다.
- 올바른 사람은 그분의 길 위에서 정정당당하게 걷는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사탄의 길인 구부러진 어둡고 비뚤어진 길을 선택하여 고개를 숙인 채 걷는다.
- 하나님께서는 가장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무슬림들은 그들의 완벽한 믿음을 그분께 신탁해야 한다. 그분의 의지에 절대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

제 78 장

# 안 나바 An-Naba'

## 소식의 장

초기 메카 장들 중의 하나인 소식의 장은 40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기에 계시된 다른 장들과 마찬가지로 이 장의 주제도 세 가지 중요한 이슬람 교의의 가르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신의 유일성, 내세관, 신의 사자의 최종성이 그것이다.

이 장은 강하고 율동적인 표현 형식과 특히 조화와 힘이 있는 수사와 각운, 운율 때문에 많은 독경사들이 즐겨 송독하는 계시이다. 인간이 죽으면 그만이지 부활과 심판이 무슨 말이냐고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과 심판의 날은 곧 닥쳐올 것이라는 분명한 대답으로 이 장은 시작한다. 카펫이나 침상 같이 평평한 대지, 말뚝처럼 솟아 있는 산들, 쌍으로 창조된 인간, 찬란한 햇빛, 구름과 비 등 각기 창조의 목적과 의미가 다른, 우주와 자연 속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산재해 있는 하나님의 증표와 예증들을 간과하지 말고 깊이 성찰해 볼 것을 이 장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가올 미래의 그날을 향해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 다음과 같이 이 장은 경고하고 있다. "심판의 날은 정해져 있다. 그날 나팔이 울려 퍼지면 우리 모두는 무리 지어 하나님 앞에 줄지어 설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산들은 뭉개져 마치 아지랑이나 수증기처럼 모든 것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지옥은 숨겨져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장은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한다. 그곳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해준다. 심판의 날 중재는 할 수 없다. 예언자에 의한 것도, 천사들에 의한 것도 하나님의 허가 없이는 시도될 수 없다. 죄인들은 절규할 것이다. "차라리 내가 흙먼지 상태로 있었더라면 이런 고통은 없을 터인데…."

메카의 우상숭배자들(kuffār)은 여러 신들을 섬겼다. 그들은 하나님과 대등한 대상인 쉬르크(shirk)를 두고, 그들의 생활 속에 함께하며 살았다. 그들은 새로운 예언자임을 선언한 무함마드의 정직성과 성실성을 인정하였으나 그가 말하는 신의 유일성(tawḥīd)에 대한 교설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보다 더 그들이 난감해 한 것은 내세('ākhirah)가 있다는 그의 주장이었다. 그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자유와 독립적인 삶을 살아온 사막인들이었다. 그들 자신을 위한 도덕적 규율이나 규칙에도 얽매여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 더욱이 그들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죽은 뒤 그들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개념의 설교는 납득하기 어려운 괴설에 지나지 않았다.

이 장은 부활과 심판, 내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계시들을 담고 있다. 우상숭배자와 불신자들에게 진리의 계시에 등을 돌리면 내세에 엄청난 고통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경고들을 생동감 넘치는 표현으로 알려주고 있다. 악행의 대가는 고통스런 형벌임이 강조된다.

## 제 78 장 سُورَةُ النَّبَإِ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عَمَّ يَتَسَآءَلُونَ ﴿١﴾ عَنِ ٱلنَّبَإِ ٱلْعَظِيمِ ﴿٢﴾ ٱلَّذِى هُمْ فِيهِ مُخْتَلِفُونَ ﴿٣﴾

كَلَّا سَيَعْلَمُونَ ﴿٤﴾ ثُمَّ كَلَّا سَيَعْلَمُونَ ﴿٥﴾ أَلَمْ نَجْعَلِ ٱلْأَرْضَ مِهَٰدًا ﴿٦﴾

وَٱلْجِبَالَ أَوْتَادًا ﴿٧﴾ وَخَلَقْنَٰكُمْ أَزْوَٰجًا ﴿٨﴾ وَجَعَلْنَا نَوْمَكُمْ سُبَاتًا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무엇에 대해 그들은 서로 묻고 있느냐?[1]

**02** (엄청나게) 중대한 소식[2]에 대해서인데,

**03** 그들은 그것에 견해를 달리하고 있구나.

**04** 아니다.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이니라.

**05** 정말 아니다.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이니라!

**06** 우리[하나님]가 땅을 평탄한 침상[3]처럼 만들지 않았느냐?

**07** 그리고 산들을 말뚝들[4]처럼 (만들지 않았느냐?)

**08** 우리는 너희를 자웅[5]으로 창조하였고

---

1) 불신자들은 서로가 내세에 대해 논쟁하면서 그것을 비웃었다.
2) 부활과 심판의 날에 대한 소식.
3) 미하드(mihād)는 '침대', '평탄한 지면', '평평히 펼쳐져 쉬는 곳' 이다.
4) 아우타단('awtādan)은 와타둔(watadun 말뚝, 막대기)의 복수명사, 목적격이다. 지구를 안정시키고 균형 잡게 하는 말뚝같이 산들을 땅에 박아놓았다는 뜻.
5) 세상의 모든 것은 쌍으로 창조되었다. 남과 여, 하늘과 땅, 크고 작은 것, 선과 악 등과 같이.

## 제78장

(٩) وَجَعَلْنَا ٱلَّيْلَ لِبَاسًا (١٠) وَجَعَلْنَا ٱلنَّهَارَ مَعَاشًا (١١)
وَبَنَيْنَا فَوْقَكُمْ سَبْعًا شِدَادًا (١٢) وَجَعَلْنَا سِرَاجًا وَهَّاجًا (١٣)
وَأَنزَلْنَا مِنَ ٱلْمُعْصِرَٰتِ مَآءً ثَجَّاجًا (١٤) لِّنُخْرِجَ بِهِۦ حَبًّا وَنَبَاتًا (١٥)
وَجَنَّٰتٍ أَلْفَافًا (١٦) إِنَّ يَوْمَ ٱلْفَصْلِ كَانَ مِيقَٰتًا (١٧) يَوْمَ يُنفَخُ

**09** 또한 우리는 너희의 잠을 휴식을 위해 만들었으며,

**10** 밤을 이불[6]처럼 만들었고

**11** 그리고 낮은 생계를 위해 만들었느니라.[7]

**12** 우리는 너희 (머리) 위에 튼튼한 일곱 (하늘)[8]을 지었으며,

**13** 또 우리는 밝게 빛나는 등불[태양[9]]을 그곳에 두었느니라.

**14** 그리고 우리는 비구름으로부터 많은 물을 내려보내고

**15** 우리는 그것으로 곡식과 초목[10]을 (자라)나오게 하며

**16** 울창한 숲이 있는 정원들을 (만들었느니라).

**17** 실로 분리의 날[11]은 정해져 있나니

---

6) 리바스(libās)는 '의복, 옷'이나 여기서는 덮고 자는 '이불'의 의미에 더 가깝다. 밤은 빛을 거두고 모든 것을 가려 마치 우리를 덮어주는 이불이나 의복 같은 역할을 한다.
7) 낮은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다.
8) 하늘은 일곱층이고 천국도 마찬가지이다.
9) 씨라즈(sirāj)의 원뜻은 '등잔'인데 여기서는 '해'를 의미한다.
10) 곡식은 사람을 위해, 초목들은 동물을 위해 있다.
11) 선행자와 악행자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심판의 날'.

## 제78장

فِي ٱلصُّورِ فَتَأْتُونَ أَفْوَاجًا ﴿١٨﴾ وَفُتِحَتِ ٱلسَّمَآءُ فَكَانَتْ أَبْوَٰبًا ﴿١٩﴾
وَسُيِّرَتِ ٱلْجِبَالُ فَكَانَتْ سَرَابًا ﴿٢٠﴾ إِنَّ جَهَنَّمَ كَانَتْ مِرْصَادًا ﴿٢١﴾
لِّلطَّٰغِينَ مَـَٔابًا ﴿٢٢﴾ لَّٰبِثِينَ فِيهَآ أَحْقَابًا ﴿٢٣﴾ لَّا يَذُوقُونَ
فِيهَا بَرْدًا وَلَا شَرَابًا ﴿٢٤﴾ إِلَّا حَمِيمًا وَغَسَّاقًا ﴿٢٥﴾ جَزَآءً

**18** 그날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너희는 무리지어 올 것이니라.[12)]

**19** 하늘은 열려져서 (여러 개의) 문처럼 되고

**20** 산들은 휩쓸려가 신기루[13)]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니라.

**21** 실로 지옥은 숨겨져 기다리고 있는 곳[14)]이며

**22** 한도를 넘어서는 (사악한) 죄인들[따군][15)]을 위한 거처이니라.

**23** 그곳에서 그들은 영구히[16)] 머물 것이니라.

**24** 그곳에서 그들은 시원한 것을 맛보지 못하고 또 마시지도 못할 것이니라.

**25** (펄펄) 끓는 물과 악취나는 피고름[17)]밖에 없느니라.

---

12) 천사 이스라필('Isrāfīl)이 나팔을 불면 산 자와 무덤 속의 죽은 자 모두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리지어 줄지어 선다.

13) 싸라브(sarāb)는 '신기루, 아지랑이'의 뜻.

14) 악의 무리에게 지옥은 마치 전쟁 때의 '매복처'처럼 미리 만들어져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다.

15) 따군(ṭāghūn)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한계와 법도, 계율을 넘어서는 자들이다. 독단적이고 정도를 지키지 않는 악행자들에 대한 통칭으로 '독재자, 폭군, 전제군주'를 지칭하거나 넓게는 다신교도, 불신자, 위선자, 죄인들을 가리킨다.

16) 아흐까브('aḥqāb, ḥuqb의 복수)는 '긴 세기들, 연대들'의 뜻으로 여기서는 거의 영구한 세월을 의미한다.

## 제78장

وِفَاقًا ﴿٢٦﴾ إِنَّهُمْ كَانُوا۟ لَا يَرْجُونَ حِسَابًا ﴿٢٧﴾
وَكَذَّبُوا۟ بِـَٔايَـٰتِنَا كِذَّابًا ﴿٢٨﴾ وَكُلَّ شَىْءٍ أَحْصَيْنَـٰهُ
كِتَـٰبًا ﴿٢٩﴾ فَذُوقُوا۟ فَلَن نَّزِيدَكُمْ إِلَّا عَذَابًا ﴿٣٠﴾
إِنَّ لِلْمُتَّقِينَ مَفَازًا ﴿٣١﴾ حَدَآئِقَ وَأَعْنَـٰبًا ﴿٣٢﴾ وَكَوَاعِبَ أَتْرَابًا

**26** 그것은 딱 맞는 응보[18]이니라.

**27** 실로 그들은 (응보의) 계산을 예상하지 않았으며[19]

**28** 우리의 징표들[20]을 거짓이라 부정했느니라.

**29**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여 두었느니라.

**<제2부>**

**30** "그러니 너희는(악행의 대가를) 맛보라. 우리는 너희에게 고통밖에 더 해줄 것이 없느니라."[21]

**31** 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무타꾼][22]에게는 성공이 있을지니,[23]

**32** 정원들과 포도밭이 있고,

---

17) 하밈(ḥamīm)은 차가움이 완전 배제된 끓는 물이고, 갓싸끄(ghassāq)는 견딜 수 없는 악취와 함께 지독히 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것이다. 전통적 주석서들에서 피, 고름, 땀, 눈물이 섞인 참을 수 없는 '악취의 피고름', 더러운 상처에서 흐르는 '악취의 고름'의 뜻으로 해석된다.

18) 그들이 저지른 죄값에 대한 징벌.

19) '지옥에서의 징벌을 믿지 않았으며'의 뜻이다.

20) 아야트(āyāt)는 '계시들, 예증들, 증거들, 증표들, 가르침들'이다.

21) 이 말은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에게 내려질 '선언'이다.

22) 뭍타꾼(muttaqūn)은 항상 신을 경외하며 사는 '독실하고 올바른 신앙의 사람들'이다.

23) 천국에 들어가리니.

## 제 78 장

﴿٣٣﴾ وَكَأْسًا دِهَاقًا ﴿٣٤﴾ لَّا يَسْمَعُونَ فِيهَا لَغْوًا وَلَا كِذَّٰبًا ﴿٣٥﴾
جَزَآءً مِّن رَّبِّكَ عَطَآءً حِسَابًا ﴿٣٦﴾ رَّبِّ ٱلسَّمَٰوَٰتِ وَٱلْأَرْضِ
وَمَا بَيْنَهُمَا ٱلرَّحْمَٰنِ ۖ لَا يَمْلِكُونَ مِنْهُ خِطَابًا ﴿٣٧﴾ يَوْمَ يَقُومُ ٱلرُّوحُ
وَٱلْمَلَٰٓئِكَةُ صَفًّا ۖ لَّا يَتَكَلَّمُونَ إِلَّا مَنْ أَذِنَ لَهُ

**33** 같은 또래의 젊고 풍만한 가슴의 처녀들[24]이 있으며

**34** 가득 찬 잔이 있도다.

**35** 그곳에서 그들은 헛된 얘기[25]나 거짓말을 듣지 않을 것이며,

**36** 충분히 계산된 선물인[26] 그대 주님으로부터의 보상이 있을 것이로다.

**37**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의 주님이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심판의 날에는) 누구도 그분께 감히 말을 할 수 없느니라.[27]

---

24) 카와이브(kawā'ib, 카이브kā'ib의 복수)는 '가슴이 큰 젊은 처녀들'을 뜻하는데 주석가들은 '고귀한 이성의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25) 라그우(laghw)는 동사 라가(laghā 허튼 소리를 지껄이다)에서 나온 단어로 '빈말, 험담, 악담'의 뜻으로 쓰인다.

26) 선행의 기록에 따라 계산된 선물로 천국의 보상이 그것이다.

27)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중재의 말을 할 수 없다는 뜻.

## 제78장

ٱلرَّحۡمَٰنُ وَقَالَ صَوَابٗا ﴿٣٨﴾ ذَٰلِكَ ٱلۡيَوۡمُ ٱلۡحَقُّۖ فَمَن شَآءَ ٱتَّخَذَ إِلَىٰ
رَبِّهِۦ مَـَٔابًا ﴿٣٩﴾ إِنَّآ أَنذَرۡنَٰكُمۡ عَذَابٗا قَرِيبٗا يَوۡمَ يَنظُرُ ٱلۡمَرۡءُ
مَا قَدَّمَتۡ يَدَاهُ وَيَقُولُ ٱلۡكَافِرُ يَٰلَيۡتَنِي كُنتُ تُرَٰبَۢا ﴿٤٠﴾

**38** 성령[가브리엘][28]과 천사들이 일어나 줄지어 서는 날, 가장 자비로우신 분께서 허락해준 자 외에는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으며, 그[허락받은 자]는 진실만을 말하느니라.

**39** 그날은 진리의 날이니라.[29] 그러니 의지를 가진 자[30]에게는 그로 하여금 그의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취하게 하라!

**40** 실로 우리는 가까워진 응징에 대해 너희에게 경고해 주었느니라. 그날, (각) 사람은 그의 두 손이 보내놓았던 것들을[31] 보게 될 것이며, 불신자들은 "아아 슬프도다. 차라리 내가 먼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할 것이니라.[32]

---

28) 여기서 아르 루흐(ar-rūḥ 영혼, 성령)은 천사 가브리엘을 말한다.
29) 그날의 도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30) 이 세상 삶에서 주님께 복종하며 그분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으려는 의지의 소유자.
31) 과거에 행했던 모든 행적들.
32) '오히려 태어나지 않고 흙의 상태에 있었더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터인데…'라는 한탄의 소리이다.

## 해 설

1-5 꾸란은 우상숭배자와 불신자들인 쿠파르들에게 심판의 날이 온다는 중대한 소식을 거듭 경고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이 죽어서 재가 된 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의 개념에 부정적이었다. 사후 삶의 어떤 것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일부 사람들은 내세의 도래와 그 가능성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아해했다. 이 계시는 이러한 논쟁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정확한 답변을 주고 있다. 심판의 날은 확실하며 그날 모든 사람은 스스로 증인이 될 것이다.

6-16 여러 절들에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예증들이 제시된다. 이러한 징표들은 그분의 위대하신 창조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자 부활의 날, 인간을 재창조하시는 그분의 의심할 수 없는 권능을 깨닫게 해주는 실례들이다. 이 같은 창조능력을 가지신 그토록 전능하신 분께서 인간을 부활시키시는 일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땅은 우리 인간들이 이동하기 편하게 넓고 평평한 지면으로 펼쳐져 있다. 산들은 그 지면에 단단한 말뚝처럼 박혀져 있다. (6-7절)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다른 창조물들을 쌍으로 만드셨다. (8절) 이러한 쌍들은 서로 다른 쪽과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같으면서도 대조적인 신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밤을 휴식을 위해 만드셨다. 어둡게 그것을 창조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덮고 자면서 피로를 풀고 쉬게 하셨다. 한편 생계를 위해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낮을 밝게 만드셨다. (9-11절) 또 일곱 층 하늘을 견고하게 세워 놓으셨다. 우리는 그것들의 본질과 특성을 알지 못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우주적 설계와 계획의 일부이다.

(12절) 하늘에는 밝게 빛나는 태양이 떠 있다. 따듯한 온기의 열과 빛을 제공하며 우리와 살아있는 다른 창조물들의 생명을 지켜준다. (13절) 구름은 비가 되어 내린다. 동식물의 성장과 강우가 해와 비구름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14-16절) 이러한 자연 현상들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의 표식이자 증표들이다. 이러한 창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재창조하시는 부활의 날도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가 가능하시다. 하늘과 땅이 있고 낮과 밤이 있듯이 부활과 심판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이 그분의 계획이고 그분의 의지이다.

17-18 분리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선행자와 악행자가 심판으로 분리되기 때문이다. 이 날은 확정되어 있다. (17절) 그날이 언제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날 이스라필 천사는 위대한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소리를 낼 것이다. 산 자와 죽은 자 모두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집결될 것이다 (18절).

19-23 천지에 무서운 진동과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산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19-20절) 지옥은 광대한 입을 벌리고 죄인들이 그 안으로 던져지기를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거부했던 죄인들은 그곳이 그들의 종착지이고 영구히 머물러야 하는 거주지임을 알게 될 것이다 (21-23절).

24-30 이 부분은 지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묘사이다.

지옥에서는 달고 시원한 것을 마실 수 없다. 더럽고 펄펄 끓는 물이 있을 뿐이다. (24-25절) 이것은 그들이 저지른 사악한 행동에 대한

죄값이고 응벌이다.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은 이러한 응보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항상 무시하였다. 하나님의 예증들을 믿지 않고 거짓이라 부정했었다. (26-28절)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과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은 책을 볼 것이며, 예정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29-30절)

31-37 이 부분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묘사이다.

신앙과 실천의 의무를 수행한 선행자들은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보상을 마침내 받게 될 것이다. (31절) 꾸란 속 계시들은 우리가 열망했던 천국에서의 보상들에 대한 묘사를 우리 인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것에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게 우리가 아는 현세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천국에서의 기쁨은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였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묘사들은 단지 상징적이고 은유적이고 비유적이며, 정신적인 수준들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어떻든 우리가 열망해온 천국(Jannah)의 보상은 먼저 푸른 녹색의 정원들, 젊고 아름다운 배우자, 마시고 싶은 시원한 음료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잔들이 있는 곳이다(32-34절). 하나님의 사자 무함마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젊고 건강한 최상의 신체 모양으로 부활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부활 후 우리의 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최상의 완벽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천국은 순수하고 아름다움만이 존재하는 곳이다. 거기에는 허무, 허위, 속임이 없고 거짓이나 위선적 대화가 없는 곳이다. 오로지 즐거움, 기쁨, 행복만이 가득한 곳이다. 천국의 보상들은 가장 관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비와 축복의 선물이다(35-36절).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아무도 그분의 보상이나 징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없다(37절).

38-39 이 부분은 심판의 날에 대한 묘사이다.

심판의 날은 특별한 날이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뿐만이 아니다.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 이끌어지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옥좌 곁에 줄지어 설 것이다. 모두가 경외감과 두려움 속에 서 있고 그분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날 감추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고 숨길수도 거짓말을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모두가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38절) 그날의 실재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려는 의지를 가진 자에게는, 즉 하나님과 함께 할 새 삶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 진리의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 주어야 한다. (39절) 진리와 선행을 권장하는 것이 신앙인이 걷는 길이다.

40 마지막 절은 결론적인 언급을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도래가 확실한 것이고 가까운 것임을 결론적으로 다시 경고해주신다. 그날 우리는 각기 저질렀던 과거 행적들 모두를 보게 될 것이다. 행동, 의도, 감정 모두가 설명되고 평가받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불신자들은 그날에 차라리 자신이 "태어나지 않은 흙먼지 상태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하는 바람을 한탄으로 토해낼 것이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간들이 회개와 기도를 위한 것임을 이제 우리는 새롭게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인생길은 그분으로부터 와서 그분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우리는 남은 생애를 더욱 더 그분의 의지에 복종하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안 나바 장의 가르침

- 심판의 날은 확실하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도 그날의 실제성, 확실성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 올바른 믿음의 선행자는 천국에 들어갈 때 영육으로 최상의 모습을 부여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갖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 심판의 날을 부인하고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은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사악한 죄로 무서운 징벌에 직면해서 그는 '차라리 자신이 먼지나 흙이었으면…' 하는 깊은 회한의 심정을 토해낼 것이다.

제 79 장

# 안 나지아트 An-Nāzi'āt

## 뽑아내는 자의 장

이 장은 초기 메카 계시들로 총 46절로 되어 있다. 제78장인 안 나바(An-Naba')장 다음에 계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카 계시의 중심 주제들인 유일신관(tawḥīd), 내세관('ākhirah), 최후 예언자의 사명(risālah)이 여기에서도 강조되어 다루어진다. 이 장의 이름은 첫 절에 나오는 '인간의 영혼을 뽑아가는 죽음의 천사'에서 지어졌다. 이 장은 먼저 부활의 날의 여러 장면들과 상황들을 묘사한다. 강렬한 진동으로 지구는 종말을 맞고 사람들의 마음은 공포로 가득 찰 것이다. 너무 놀랍고 가공할 상황들에 우리는 모두가 차마 눈을 바로 뜨지 못하고 두려움과 경외심에 시선을 다만 아래로 떨구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사람들은 죽음 후의 세계가 과연 있는 것인가 의심했지만 이제 그들은 모두가 새 생을 얻게 될

것이다. 단 한 번의 소리와 진동만이 있었을 뿐인데, 보라! 그들은 모두가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모여 설 것이다.

꾸란 제20장 따하(Ṭāhā)에 상세히 계시된 예언자 모세와 파라오 사이의 조우와 대담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서 요약되어 되풀이된다. 파라오는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바로 너희의 주님이로다'라고 선언하는 자만을 떨었다. 그래서 알라께서는 그에게 현세와 내세에서의 천벌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파라오와 같은 지상 최고의 권력자일지라도 하나님께 거역하고 한도를 넘어서는 오만함을 보이면 결국 멸망당하고 만다는 본보기를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한편 부활의 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장에서 다음과 같이 물으신다. "너를 창조하는 것이 어렵겠느냐? 하늘을 창조하는 것이 더 어렵겠느냐?" 우주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일은 지극히 쉬운 일이다. 그분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에 따르지 않고 거역하거나 그 한계를 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배운다. 이 세상 삶을 더 좋아하고 자만과 불신 속에 사는 자는 지옥에서 자신의 거처를 찾게 될 것이다.

## 제 79 장 سُورَةُ النَّازِعَاتِ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وَٱلنَّٰزِعَٰتِ غَرۡقٗا ﴿١﴾ وَٱلنَّٰشِطَٰتِ نَشۡطٗا ﴿٢﴾ وَٱلسَّٰبِحَٰتِ سَبۡحٗا ﴿٣﴾

فَٱلسَّٰبِقَٰتِ سَبۡقٗا ﴿٤﴾ فَٱلۡمُدَبِّرَٰتِ أَمۡرٗا ﴿٥﴾ يَوۡمَ تَرۡجُفُ ٱلرَّاجِفَةُ ﴿٦﴾ تَتۡبَعُهَا

ٱلرَّادِفَةُ ﴿٧﴾ قُلُوبٞ يَوۡمَئِذٖ وَاجِفَةٌ ﴿٨﴾ أَبۡصَٰرُهَا خَٰشِعَةٞ ﴿٩﴾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거칠게 (악한 자들의 영혼을) 뽑아내는 자[천사]들[1]에 걸고 맹세하건대,

**02** 부드럽게 (선한 자들의 영혼을) 뽑아내는 자[천사]들[2]에 걸고 맹세하건대,

**03** 그리고 헤엄치는 듯 활주하고 있는 자들[3]에 걸고 맹세하건대,

**04** 경주하듯[4] 달려가는 자[천사]들에 걸고 맹세하건대,

**05**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운영자[천사]들[5]에 걸고 맹세하건대,

**06** 그날[심판의 날]에 (굉음의) 진동이 (땅과 산들)을 격렬히 흔들 것이니라.[6]

**07** 이어지는(굉음의) 진동이 그 뒤를 따를 것이니라.[7]

**08** 그날 (불신자의) 심장들은 (두려움에) 떨 것이니라.

**09** 그들의 시선이 (아래로) 떨구어져 있을 것이니라.[8]

---

1) 죽음의 천사는 악한 자와 불신자의 영혼을 난폭하게 뽑아간다.
2) 선한 자와 신자들의 영혼은 부드럽게 뽑힌다.
3) 이들을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천사들'로 해석하고 있으나 일부는 우주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을 뜻한다고 말한다.
4) 하늘로 죽은 자들의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 경주하는 것처럼.
5) 무답비르(mudabbir)는 '관리자, 운영자, 정리정돈자'의 뜻이다.
6) 라지프(rājif)는 '진동하는, 흔들리는'의 뜻이다. 첫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면 땅이 진동하고 모든 생명체는 죽을 것이다.
7) 라디프(rādif)는 '뒤따르는, 뒤를 잇는'의 뜻이다. 두 번째 나팔소리가 뒤를 이어 울려 퍼지면 죽은 자 모두가(심판을 위해) 부활할 것이다.

## 제79장

يَقُولُونَ أَءِنَّا لَمَرْدُودُونَ فِى ٱلْحَافِرَةِ ﴿١٠﴾ أَءِذَا كُنَّا عِظَـٰمًا نَّخِرَةً ﴿١١﴾
قَالُوا۟ تِلْكَ إِذًا كَرَّةٌ خَاسِرَةٌ ﴿١٢﴾ فَإِنَّمَا هِىَ زَجْرَةٌ وَٰحِدَةٌ ﴿١٣﴾
فَإِذَا هُم بِٱلسَّاهِرَةِ ﴿١٤﴾ هَلْ أَتَىٰكَ حَدِيثُ مُوسَىٰٓ ﴿١٥﴾ إِذْ نَادَىٰهُ
رَبُّهُۥ بِٱلْوَادِ ٱلْمُقَدَّسِ طُوًى ﴿١٦﴾ ٱذْهَبْ إِلَىٰ فِرْعَوْنَ إِنَّهُۥ طَغَىٰ ﴿١٧﴾

**10** 그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 본래의 상태[9]로 되돌려진다고?"

**11** "우리가 백골로 진토[10]되었는데도?"

**12** 그들은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손실로 돌아가는 것이 되잖아!"[11]

**13** 그러나 그것은 단 한 번의 굉음 소리[자즈라][12]일 뿐인데,

**14** 이때 (보라) 그들은 (모두가) 깨어 나올 것이니라.

**15** 모세 이야기가 그대[무함마드]에게 다다랐느냐?[13]

**16** 그의 주님께서 그[모세]를 성스러운 '뚜와' 계곡[14]으로 불러내셨을 때,

**17** (말씀하시기를) "파라오에게 가라! 실로 그는 모든 한계를 넘어섰느니라[15]."

---

8) 카쉬으(khāshi')는 '온순한, 공손한' '(눈을) 내리 깐'의 뜻이다.
9) 죽기 전 현세의 모습 그대로, 즉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의 의미임.
10) 썩고 부패하여 가루가 되어버린 뼈들.
11) 부활된다면 정말로 득이 없는 손실만 있게 될 것이잖아!
12) 자즈라(zajrah)는 심판의 날을 알리는 이스라필 천사가 부는 두번째의 나팔소리(꾸란 37:19 참조)이다.
13)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느냐? 상세한 이야기는 꾸란 제20장 따하(Ṭāhā) 9~79절 참조.
14) 시나이 산의 뚜와(Ṭuwā) 골짜기는 모세가 계시를 받은 성스러운 계곡임(꾸란 20:12 참조).
15) 동사 따가(ṭaghā)는 '한계, 법도, 정도를 넘어서다'로 오만 방자하고 반역, 거역하는 행위자, 압제자, 독재자, 폭군이 전횡을 부리는 모습을 가리킬 때 쓰인다. '이집트의

## 제 79 장

فَقُلْ هَل لَّكَ إِلَىٰٓ أَن تَزَكَّىٰ ﴿١٨﴾ وَأَهْدِيَكَ إِلَىٰ رَبِّكَ فَتَخْشَىٰ ﴿١٩﴾
فَأَرَىٰهُ ٱلْءَايَةَ ٱلْكُبْرَىٰ ﴿٢٠﴾ فَكَذَّبَ وَعَصَىٰ ﴿٢١﴾ ثُمَّ أَدْبَرَ يَسْعَىٰ ﴿٢٢﴾
فَحَشَرَ فَنَادَىٰ ﴿٢٣﴾ فَقَالَ أَنَا۠ رَبُّكُمُ ٱلْأَعْلَىٰ ﴿٢٤﴾ فَأَخَذَهُ ٱللَّهُ نَكَالَ
ٱلْءَاخِرَةِ وَٱلْأُولَىٰٓ ﴿٢٥﴾ إِنَّ فِى ذَٰلِكَ لَعِبْرَةً لِّمَن يَخْشَىٰٓ ﴿٢٦﴾

**18** 그리고 그에게 말하라. "네 자신을 깨끗이 하고 싶으냐?"16)

**19** "내가 너를 너의 주님께로 인도하리라. 그러면 너는(그분을) 두려워하리라."

**20** 그래서 그[모세]는 그[파라오]에게 위대한 징표[기적]17)를 보여주었느니라.

**21** 그러나 그[파라오]는 거짓이라 거부하고18) 복종하지 않았느니라.

**22** 그러고 나서 등을 돌리고는19) (하나님께 반대하는 데) 힘썼느니라.

**23** 그[파라오]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소리쳐 외치기를

**24** "나야말로 너희들의 지고한 주님이로다"라고 말하였다.

**25** 그래서 알라께서는 그를 내세와 현세의 징벌의 본보기로 삼았느니라.

**26** 진실로 그것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는 교훈이 들어 있느니라.

---

폭군 파라오는 부도덕, 불의, 죄, 다신사상, 불신앙의 모든 한도를 이미 훨씬 넘어섰다'의 의미임.

16) 올바른 길[이슬람]을 받아들이고 복종하겠느냐?

17)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기적 등. (꾸란 20:19~22 참조)

18) 모세가 예언자라는 사실과 그가 보인 진리의 증표들.

19) 4형동사 아드바라('adbara)는 '돌아서다, 반대해 물러서다'의 뜻임.

## 제79장

ءَأَنتُمْ أَشَدُّ خَلْقًا أَمِ ٱلسَّمَآءُ ۚ بَنَىٰهَا ﴿٢٧﴾ رَفَعَ سَمْكَهَا فَسَوَّىٰهَا ﴿٢٨﴾ وَأَغْطَشَ لَيْلَهَا
وَأَخْرَجَ ضُحَىٰهَا ﴿٢٩﴾ وَٱلْأَرْضَ بَعْدَ ذَٰلِكَ دَحَىٰهَآ ﴿٣٠﴾ أَخْرَجَ مِنْهَا مَآءَهَا
وَمَرْعَىٰهَا ﴿٣١﴾ وَٱلْجِبَالَ أَرْسَىٰهَا ﴿٣٢﴾ مَتَٰعًا لَّكُمْ وَلِأَنْعَٰمِكُمْ ﴿٣٣﴾ فَإِذَا جَآءَتِ
ٱلطَّآمَّةُ ٱلْكُبْرَىٰ ﴿٣٤﴾ يَوْمَ يَتَذَكَّرُ ٱلْإِنسَٰنُ مَا سَعَىٰ ﴿٣٥﴾ وَبُرِّزَتِ ٱلْجَحِيمُ

<제2부>

**27** 창조하기 더 어려운 것이 너희겠느냐? 하늘이겠느냐?[20] (하나님께서는) 그것[하늘]을 지으셨고,

**28** 그것[하늘]의 천정을 높게 하셨으며 평평히 동등하게 하셨느니라.

**29**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것의 밤을 어둡게 하시고 또 여명의 빛이 거기서 비쳐나오게 하셨느니라.

**30** 그 다음에 땅을 그분께서는 펼쳐 놓으셨으며

**31** 거기에서 물과 초목이 나오도록 하셨느니라.

**32** 또 산을 튼튼히 고정시켜 놓으셨으며

**33** 너희와 너희들의 가축을 위한 양식과 유용한 것들[21]이 있게 하셨느니라.

**34** 그러나 대재앙이 닥쳐올 때[22]

**35** 그날 인간은 자기가 애써 노력해 왔던 것들을 상기하고,

---

20) 하늘과 땅의 창조가 인간의 창조보다 더 위대하다. (꾸란 40:57 참조)

21) 마타으(matā')는 '즐거움, 향유, 편안함, 유용함'인데 여기서는 산에 '먹고 마시며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유익한 모든 것이 있게 하셨다'는 의미로 쓰였다.

22) 지구의 종말과 심판의 날이 왔을 때.

## 제79장

لِمَن يَرَىٰ ﴿٣٦﴾ فَأَمَّا مَن طَغَىٰ ﴿٣٧﴾ وَءَاثَرَ ٱلْحَيَوٰةَ ٱلدُّنْيَا ﴿٣٨﴾ فَإِنَّ ٱلْجَحِيمَ هِيَ
ٱلْمَأْوَىٰ ﴿٣٩﴾ وَأَمَّا مَنْ خَافَ مَقَامَ رَبِّهِۦ وَنَهَى ٱلنَّفْسَ عَنِ ٱلْهَوَىٰ ﴿٤٠﴾ فَإِنَّ
ٱلْجَنَّةَ هِيَ ٱلْمَأْوَىٰ ﴿٤١﴾ يَسْـَٔلُونَكَ عَنِ ٱلسَّاعَةِ أَيَّانَ مُرْسَىٰهَا ﴿٤٢﴾ فِيمَ أَنتَ مِن
ذِكْرَىٰهَآ ﴿٤٣﴾ إِلَىٰ رَبِّكَ مُنتَهَىٰهَآ ﴿٤٤﴾ إِنَّمَآ أَنتَ مُنذِرُ مَن يَخْشَىٰهَا ﴿٤٥﴾

**36** 그리고 지옥의 불은 보고 있는 자 (모두)에게 또렷이 보여지게 될 것이니라.[23]

**37** 한도를 넘었던 자[24]와

**38** 현세의 삶을 더 선호했던 자는

**39** 실로 지옥의 불이 바로 거주지가 될 것이니라.

**40** 주님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자신[영혼][25]을 악한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삼간 자는

**41** 실로 천국이 바로 거주지가 되리라.

**42** 그들은 그대[무함마드]에게 그 시각에 대해서 묻고 있다. "그 정해진 때는 언제인가?"

**43** 그대[무함마드]는 무엇으로 그때를 언급하겠느냐?

**44** 그 종말을 아시는 분은 그대의 주님뿐이니라.

**45** 실로 그대는 그때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내진 경고자일 뿐이니라.

---

23) 심판의 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눈으로 또렷히 지옥을 보게 된다.

24) 각주 15)를 볼 것. 또한 앞의 꾸란 제78장 22절의 각주 13)을 참고할 것.

25) 안 나프스(an-nafs)는 '정신, 영혼, 자신'의 뜻이다.

## 제79장

كَأَنَّهُمْ يَوْمَ يَرَوْنَهَا لَمْ يَلْبَثُوٓا۟ إِلَّا عَشِيَّةً أَوْ ضُحَىٰهَا ﴿٤٦﴾

**46 그날, 그들[사람들]은 하루의 오후 낮 시간 정도[26] 또는 (다음 날) 여명에서 오전 시간[27]까지 외에는 (현세에) 머물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라.**

---

26) 아쉬야('as͟hiyyah)는 정오에서 일몰 때까지의 시간이다.
27) 두하(ḍuḥā)는 일출에서 정오 때까지의 시간이다.

## 해 설

1-5 처음 다섯 절은 심판의 날의 도래가 진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맹세 절이다. 모두가 천사들의 사명과 역할에 걸고 맹세가 이루어졌다. 제5절에 밝혀져 있듯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자 보좌역이다. 하나님 일의 정리자, 정돈자이며 관리자, 운영자이다. 죽음의 천사는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을 육체에서 뽑아낸다. 만약 그가 사악한 자, 또는 불신자라면 그의 영혼은 매우 난폭하게 뽑혀진다. 그러나 선행을 한 신자의 영혼은 육체에서 아주 부드럽게 분리된다 (1-2절). 천사들은 영혼들을 데리고 미끄러지듯, 헤엄치듯 허공을 날고 마치 경주하듯이 서둘러 승천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열심히 수행하기에 매우 바쁘다 (3-5절).

6-9 심판의 날 직전에는 두 차례 굉음을 수반하는 진동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격변은 우주 만물이 죽고 파괴되는 종말의 것이고 두 번째 격변은 죽은 자 모두가 깨어 일어나 새 삶을 얻는 부활의 것이다. 이러한 소요는 쑤르 (ṣūr), 즉 나팔소리가 울려 퍼짐으로 시작된다. 첫 나팔소리에 모든 것은 끝나고, 이어지는 나팔소리에 우리는 다시 소생한다 (6-7절). 그날, 우리의 심장은 흥분과 동요 속에 빠르게 뛸 것이다. 우리의 눈은 공포로 인해 차마 앞을 볼 수 없고 다만 밑으로 깔고 있어야 할 것이다 (8-9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터이지만 몇몇 이슬람 전승들에 의하면 굳건한 신앙 속에 올바른 삶을 산 진실된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알지 못할 안도감을 느낄 것이다.

10-14 우상 숭배자와 불신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들에게 사후 삶이 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상상이었다(10절). 그들은 부서져 가루가 되고 다 썩어 버린 뼈들이 어떻게 다시 짜 맞추어지고 게다가 되살아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물었다. 그들은 내세에 대한 불신이 너무 확고하여서 부활의 사건은 개념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허구일 뿐이었다. 그들은 자만과 확신에 차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부활과 내세 삶을 비웃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는 아무런 득이 없는, 정말 손실 속에만 있게 되는 거잖아?" (11-12절) 그러나 온 세상과, 또 천사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는 그분께서 원하시는대로 무엇이든 재창조하실 것이다. 그분께 부활은 아주 쉬운 작업이다. 한마디 명령과 나팔 소리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깨워 일으킬 것이다(13-14절).

15-20 꾸란 제20장 따하(Ṭāhā) 장에 상세히 나오는 모세와 파라오의 이야기가 여기서 간결하게 재연된다. 하나님께서는 시나이 산에 있는 뚜와 계곡으로 모세를 부르셨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는 신의 계율과 명령들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폭군 파라오에게 가라는 예언적 사명의 계시를 받는다(15-17절). 이집트의 압제자 파라오는 그의 신민들로부터 신으로 경배 받고 있었다. 이집트인들은 여러 다른 신들도 섬기고 있었다. 모세가 명령받은 것은 파라오를 죄스러운 그의 신관, 오만, 불신에서 정화시키고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숭배하도록 인도하는 것이었다(18-19절). 모세는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몇 가지 기적들(mu'jizāt)을 징표로 보였다. 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 지팡이는 뱀으로 변하였다(20절).

21-24 이러한 기적의 징표들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다. 진리를 거부하고 알라의 명령에 불복종하였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소리쳐 외쳤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지고한 주님이로다.” (21-24절)

25-26 파라오의 오만은 그를 파멸케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추종자들을 홍해에 빠뜨리시는 형벌을 내리셨다. 그것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거역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징벌의 본보기가 되었다. 오만하고 전횡을 일삼던 한 폭군의 말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율과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며 거짓 없는 참된 신앙 속에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배운다.

27-33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부활의 날에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는 어떤 것의 창조도, 재창조도 어렵지 않다. 인간 창조는 그분의 우주창조 계획의 한 작은 부분이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사적인 질문을 던지신다. “무엇이 더 어렵겠느냐? 인간을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전 우주 질서를 만드는 것이냐?” (27절)

높게 균형 잡힌 하늘(27-28절), 낮과 밤의 체계(29절)를 만드시고, 생명을 살게 하는 물과 목초지를 제공하는 땅을 넓게 펼쳐놓으셨다(30-31절). 또한 높이 솟아있는 산들을 튼튼히 세우셨다(32절). 이러한 모든 것들의 준비와 마련이 우리 인간과 우리의 가축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지게 하기 위함이다(33절).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잘 증명해주고 있다.

34-36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바로 심판의 날에 대한 약속이 곧 진리라는 충분한 증거이기도 하다. 저항할 수 없는 그날이 오는 것은 확실하다(34절). 그날에, 인간은 이 세상에서 그가 행한 행동들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35절).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지옥에 떨어지는 자 모두가 예외 없이 두 눈으로 일단 지옥의 불을 보게 될 것이다(36절).

37-39 심판의 날은 결산의 날이고 분리의 날이다. 하나님의 법령들이 세워놓은 한도의 선을 넘는 자들, 이 세상의 삶을 내세에 대한 준비보다 더 선호하고 즐기려고만 했던 자들은 지옥에서 그들의 거처를 찾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삶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를 인정해야 하는 넘지 못할 선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삶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법령으로 정해 놓으셨고 우리 인간의 의지로 그 정해진 선을 넘어서지 말 것을 경고해 놓으셨다. 아랍어 동사 '따가'는 바로 그 한계의 선을 넘는 것이다. 이슬람 종교와 무슬림의 신앙생활에서는 이 점이 매우 강조된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과유불급(過猶不及)과 유사한 가르침이다. 그 한도를 넘쳐 행동하는 자는 따긴(ṭāghin 전횡자, 독재자, 폭군)이다. 우리는 종교생활에서는 물론 사회생활에서도 지나침이 없는 길을 걸어야 한다. 중용과 중도의 길은 이슬람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기본적 자세이다.

40-41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영원한 집이 되는 축복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42-46 불신자들은 신의 사자에게 심판의 시간에 대해 조롱하듯이 물었다. 그렇지만 그날이 언제인가는 오직 알라만이 아신다. 그분만이 그날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 신의 사자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누구도 그날을 예단할 수 없다. 예언자가 우리에게 확신에 차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분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이다(42-44절).

신의 사자, 무함마드는 단지 한 경고자로서 보내어졌다. 그가 전한 진리의 메시지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앞선 사자들인 아브라함, 모세, 예수가 전하였던 것과 같은 내용의 것이었다. 그는 이 진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을 사람들에게 강제하지 않았다(45절).

사람들은 지금도 내세와 부활에 대한 진리를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날을 곧 보게 될 것이다.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들은 죽음에서 깨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날에 그들은 이 세상 삶의 체류시간을 하루 낮 저녁 또 늦은 아침잠까지 정도의 시간동안 자고 막 깨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죽음으로부터 일어날 것이다(46절).

## 안 나지아트 장의 가르침

### 제1~26절에서 배워야 할 점

- 나팔소리(ṣūr)가 울려 퍼짐은 심판의 날이 시작된다는 신호이다.
- 모세는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보내어졌다. 그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교인 이슬람으로 초대하기 위해서였다.

- 파라오는 오만 속에 빠져 진리를 거부하였다. 그의 불신과 자만, 불복종 때문에 그와 그의 군대는 멸망당하였다.

### 📖 제27~46절에서 배워야 할 점

-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주일 뿐 아니라 온 우주질서의 창조주이시다.
-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은 인간의 이득과 유용함을 위한 것이다.
- 인간은 하나님께 매사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내세를 위해 지금 준비를 해야 한다.

제 82 장

# 알 인피따르 Al-'Infiṭār
## 갈라짐의 장

이 장은 이른 메카 계시들 중의 하나로 제84장 알 인쉬까끄(Al-'Inshiqāq)와 제81장 알 타크위르(At-Takwīr)장과 같은 맥락의 주제를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의 날 벌어질 상황들을 설명해주시면서 더 늦기 전에 그날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충고하신다.

세 장 모두가 우주종말이 왔을 때 태양과 별, 산과 바다, 하늘과 땅이 흩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생생한 모습의 언급들로 시작된다. 이 장의 이름도 첫 절에 묘사된 '하늘이 쪼개져 산산이 부서질 때'에서 따온 인피따르('Infiṭār 갈라져 조각남)이다.

이 장의 중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분의 창조물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점을 강조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천사 키라문 카티부나(ḥāfiẓūna kirāmun kātibūna)를 우리 양 어깨 위에 두시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의도까지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신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미물에 불과하면서도 항상 자만하고 하나님의 계율과 명령에 넘어서는 행동을 한다. 이 장의 가르침은 우리가 하루 빨리 꾸란을 통해 심판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장 중요한 사명도 바로 그날을 경고하는 것이었다.

## 제 82 장 سُورَةُ الانفِطَار

بِسْمِ ٱللَّهِ ٱلرَّحْمَٰنِ ٱلرَّحِيمِ

إِذَا ٱلسَّمَآءُ ٱنفَطَرَتْ ﴿١﴾ وَإِذَا ٱلْكَوَاكِبُ ٱنتَثَرَتْ ﴿٢﴾ وَإِذَا ٱلْبِحَارُ فُجِّرَتْ
﴿٣﴾ وَإِذَا ٱلْقُبُورُ بُعْثِرَتْ ﴿٤﴾ عَلِمَتْ نَفْسٌ مَّا قَدَّمَتْ وَأَخَّرَتْ ﴿٥﴾
يَٰٓأَيُّهَا ٱلْإِنسَٰنُ مَا غَرَّكَ بِرَبِّكَ ٱلْكَرِيمِ ﴿٦﴾ ٱلَّذِى خَلَقَكَ فَسَوَّىٰكَ فَعَدَلَكَ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하늘이 갈라져 조각날 때,[1]**

**02 별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03 바다(물)들이 넘쳐 솟구칠 때,**

**04 무덤들이 뒤집혀 엎어질 때,**

**05 (각기) 영혼은 (자신이) 행하여 앞서 보낸 것과 뒤에 남긴 것[2]을 알게 되리라.**

**06 오 인간이여! 무엇이 가장 고귀하신 분 너의 주님께 (반하게) 너를 유혹하였느냐?[3]**

1) 인파따라(infaṭara, 파따라faṭara의 7형 동사)는 '쪼개지다, 터지다, 갈라지다'의 뜻으로 여기서는 '하늘이 쪼개져 산산히 부서지다'의 의미이다.

2) 모든 영혼은 이때에 자신이 행하였던 선행과 악행을 알게 될 것이다. 동시에 할 일을 게을리 하였거나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였던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3) 동사 가르라 비(gharra bi)는 '~을 속이다, 꾀다'의 뜻으로 이 절은 '대체 무엇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꾀었더냐?'의 의미를 담고 있다.

## 제 82 장

(٧) فِيٓ أَيِّ صُورَةٖ مَّا شَآءَ رَكَّبَكَ (٨) كَلَّا بَلۡ تُكَذِّبُونَ بِٱلدِّينِ (٩)
وَإِنَّ عَلَيۡكُمۡ لَحَٰفِظِينَ (١٠) كِرَامٗا كَٰتِبِينَ (١١) يَعۡلَمُونَ مَا تَفۡعَلُونَ (١٢) إِنَّ
ٱلۡأَبۡرَارَ لَفِي نَعِيمٖ (١٣) وَإِنَّ ٱلۡفُجَّارَ لَفِي جَحِيمٖ (١٤) يَصۡلَوۡنَهَا يَوۡمَ ٱلدِّينِ (١٥) وَمَا
هُمۡ عَنۡهَا بِغَآئِبِينَ (١٦) وَمَآ أَدۡرَىٰكَ مَا يَوۡمُ ٱلدِّينِ (١٧) ثُمَّ مَآ أَدۡرَىٰكَ مَا يَوۡمُ

**07** 그분께서는 너를 창조하셨고, 너를 동등하게 형상화하셨으며, 너(의 몸)을 균형 있게 만드신 분,[4)]

**08** 그분이 원하시는 형태대로 너를 지으셨느니라.

**09** 아니!(그런데도) 오히려 너희는 종교(의 날)을 부인하고 있구나.

**10** 그러나 진실로 너희들에게는 지켜보는 자들[5)]이 있느니라.

**11** (그들은) 명예로운 기록자들[6)]이니라.

**12** 그들은 너희가 행하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느니라.

**13** 실로 선한 자들[7)]은 분명코 안락함[8)] 속에 있게 될 것이고,

**14** 실로 악한 자들[9)]은 분명코 지옥 속에 있게 될 것이니라.

**15** 그들은 종교의 날[10)]에 거기에 들어가 불타게 될 것이며,

**16** 그들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라.

**17** 종교의 날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알게 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

4) 우리 몸을 고르게, 같게, 바르게, 조화와 균형있게 완벽히 만드셨다.

5) 하피준(ḥāfiẓūn)은 우리 인간의 선악행위를 낱낱이 지켜보며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천사들을 가리킴.

6) 키라문 카티부나(kirāmun kātibūna 고귀한 기록자들)은 인간의 좌우 어깨 위에서 우리의 사고와 행위를 기록하는 고귀한 기록 천사들이다.

7) 아브라르(abrār)는 '신앙심 깊고 올바른 선행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8) 나임(na'īm)은 '행복한 생활, 호강, 안락, 즐거움'의 뜻으로 여기서는 천국을 뜻한다.

9) 푸자르(fujjār)는 '사악한 자, 죄인, 악행자, 불의 부정한 자'를 가리킨다.

10) 종교의 날은 '부활의 날', '최후 심판의 날'과 동의어임.

## 제82장

ٱلدِّينِ ﴿١٨﴾ يَوْمَ لَا تَمْلِكُ نَفْسٌ لِّنَفْسٍ شَيْـًٔا ۖ وَٱلْأَمْرُ يَوْمَئِذٍ لِّلَّهِ ﴿١٩﴾

**18** 다시 말하노니, 종교의 날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알게 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19** 그날에는 한 영혼이 (다른) 영혼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갖지 못하며 바로 그날, 명령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있게 될 것이니라.

## 해 설

1-4 첫 4개의 절들은 심판의 날의 도래를 묘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우주와 세계 질서는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 체계로의 새 길이 열릴 것이다. 하늘은 갈라져 산산조각이 나고 전 우주가 변할 것이다. 하늘, 땅, 별들, 대양들, 다른 모든 자연 현상들이 본연의 운행 궤도와 질서 체계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무덤들은 뒤엎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서 나오게 될 것이다.

5 그러고 나서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각 영혼은 자신들이 행하였던 모든 선과 악의 행동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삶 동안 우리가 행하였던 모든 행동과 의도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다 기록되고 이미 보내어져 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인데도 게을러 실행하지 못하였거나, 나름대로 의도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여 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행적들을 알게 될 것이다.

6-8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 한 작은 밀알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인간은 늘 과도하게 자만하고 있다. 지나친 자존심으로 그는 심판의 날과 부활의 진리를 부인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궁 속에서 그를 모양 지으셨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형상화되고 신체가 바르고 균형있게 만들어진다. 그분이 선택하시는 형태대로 모양지어지는데, 그 모양은 창조물 중에서도 최고의 형상이다.

9-12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들의 자존심으로 이러한 창조뿐 아니라 심판의 날을 믿지 않는다. 그들 스스로 자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귀하고 명예로운 기록자들인 키라문 카티부나(kirāmun kātibūna)를 임명해 놓으셨다. 각 개인의 선행과 악행을 낱낱이 기록하는 고귀한 기록의 천사들이다. 오른편에 있는 천사는 선행을 기록하고 왼편에 있는 천사는 악행을 기록한다. 심판의 날에 이 기록들이 공개된다. 우리는 자신이 행하였던 티끌만한 선악의 행위들까지 모두를 보게 될 것이다.

13-16 심판의 날에 올바른 사람과 사악한 죄인은 분명히 나뉘어질 것이다. 올바른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으로 행복 속에 있게 되지만, 사악한 죄인들은 불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불행을 감수해야 한다.

17-19 이 절들에서는 "심판의 날이 무엇인지를, 또 그날에 무엇이 일어날 지를 너에게 과연 무엇이 설명해 줄 수 있는가?"라는 수사적 질문을 두 차례 반복하면서 심판의 날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다. 그날이 무엇인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꾸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나님의 계시 외에 무엇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 줄 수 있을까? 사실 그날은 인간의 상상 밖에 존재한다. 꾸란은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바로 그날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날이다. 우리에게 그날에 대해 말해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천사도 예언자도 그날에는 하나님의 허가 없이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던 권력, 명예, 재물, 연고 관계 등은 그날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인간의 최후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요, 그

분의 자비와 권능에 의해서 만이다. 그날 명령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진다.

## 알 인피따르 장의 가르침

- 인간은 하나님의 작은 창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거부하고 부인한다.
- 고귀한 기록의 천사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기록하고 있다.
- 최후 심판의 날에는 모든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게 될 것이다.

# 알 부루즈 Al-Burūj

## 큰 별자리들의 장

초기 메카 계시인 이 장은 제91장 앗 샴스(Ash-Shams) 다음에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카의 꾸라이쉬 불신자들이 예언자 무함마드와 그를 추종하던 초기 무슬림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때였다. 그들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막 태동한 무슬림 동아리의 발전을 저지하려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에서 파라오와 사무드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당하였던 역사적 사실을 예시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불신자들의 말로가 무엇인지를 경고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일들의 주관자이시다.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항상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심한 박해를 가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지옥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일부 꾸란 주석가들은 이 장에 등장하는 박해자가 6세기 예멘의 마지막 힘야르(Ḥimyarite)왕 두 누와스(Dhū Nuwās)라고 말한다. 유대교인이었던 그는 나즈란(Najrān)의 그리스도교인들을 박해하여 불구덩이에서 그들을 불타 죽게 만들었다. 또 다른 주석가들은 이 장의 사건이 바빌론의 왕 네부카드네자르(Nebuchadnezzar)에 의해 유대 지도자들(사드락 Shadrach, 메삭 Meshach, 아벳느고 Abednego)이 불속에 내던져졌던 사건을 가리킨다(다니엘 3:13-23)고 말한다. 그러나 대다수 꾸란 학자들은 이 장에서의 사건과 가르침을 시공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것으로 해석하려 한다.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적대자들에게는 마땅한 지옥불의 징벌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올바르게 산 자들에게는 강이 흐르는 낙원의 보상이 있다는 것이다.

# 제 85 장 سُورَةُ الْبُرُوجِ

بِسْمِ ٱللَّهِ ٱلرَّحْمَٰنِ ٱلرَّحِيمِ

وَٱلسَّمَآءِ ذَاتِ ٱلْبُرُوجِ ﴿١﴾ وَٱلْيَوْمِ ٱلْمَوْعُودِ ﴿٢﴾ وَشَاهِدٍ
وَمَشْهُودٍ ﴿٣﴾ قُتِلَ أَصْحَٰبُ ٱلْأُخْدُودِ ﴿٤﴾ ٱلنَّارِ ذَاتِ ٱلْوَقُودِ ﴿٥﴾
إِذْ هُمْ عَلَيْهَا قُعُودٌ ﴿٦﴾ وَهُمْ عَلَىٰ مَا يَفْعَلُونَ بِٱلْمُؤْمِنِينَ شُهُودٌ ﴿٧﴾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큰 별자리들[1]을 지닌 하늘에 걸고 맹세하건대,**

**02 약속된 [심판의] 날에 걸고 맹세하건대,**

**03 증인과 증언의 대상[2]에 걸고 맹세하건대,**

**04 (불)구덩이를 만든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느니라[3].**

**05 연료를 (가득) 가진 불(의 구덩이를!).**

**06 그들이 그 불 곁에 앉아있던 때(를 기억하라.)**

**07 그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저질렀던 짓 [불 속에 던진 것]에 대해**

---

1) 알 부루즈(al-burūj)는 다음의 12 큰 별자리들, 즉 백양(Aries), 금소(Taurus), 쌍둥이(Gemini), 큰 게(Cancer), 사자(Leo), 처녀(Virgo), 천칭(Libra), 전갈(Scorpio), 인마(人馬 Sagittarius), 마갈(Capricon), 물병(Aquarius), 쌍어(雙魚 Pisces) 자리를 말함. 태양은 한 달에 이들의 한자리를 통과하며 운행한다.

2) 샤히드(shāhid), 즉 증인은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뜻하고 마슈후드(mashhūd), 즉 증언의 대상은 심판의 증거가 되는 모든 것(예컨대 과거의 모든 선악의 행위)들을 말함. 일부 주석가들은 앞의 것을 증언하는 날인 금요일로, 뒤의 것을 증언받는 날인 둘 힛자(Dhūl-Ḥijjah)월 9일, 즉 순례 때의 아라파트('Arafāt)의 날이라고 말한다.

3) 믿는 자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불구덩이에 그들을 던져넣었던 왕과 신하들은 저주를 받아 결국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 제 85 장

وَمَا نَقَمُوا مِنْهُمْ إِلَّا أَن يُؤْمِنُوا بِاللَّهِ الْعَزِيزِ الْحَمِيدِ ٨
الَّذِي لَهُ مُلْكُ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 وَاللَّهُ عَلَىٰ كُلِّ شَيْءٍ شَهِيدٌ ٩
إِنَّ الَّذِينَ فَتَنُوا الْمُؤْمِنِينَ وَالْمُؤْمِنَاتِ ثُمَّ لَمْ يَتُوبُوا فَلَهُمْ عَذَابُ جَهَنَّمَ
وَلَهُمْ عَذَابُ الْحَرِيقِ ١٠ إِنَّ الَّذِينَ آمَنُوا وَعَمِلُوا الصَّالِحَاتِ لَهُمْ

증언해야만 할 자들이니라.

08 그들은 단지 그들[믿는 사람들]이 가장 강하신 분, 모든 찬양을 받으실 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들에게 해코지하였느니라.[4]

09 하늘과 땅의 주권이 (모두) 그분께 속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도다.

10 실로 믿는 남자들과 믿는 여자들을 박해하고도[5] 회개하지 않은 자들, 그들에게는 지옥의 징벌이 있을 것이며, 또 그들에게는(타고 있는) 불의 형벌이 있을 것이니라.

---

4) 해코지 행위란 불구덩이를 만들고 그 안에 믿는 자들을 던진 행위를 가리킨다. 동사 나까마(naqama)는 '복수하다, 앙갚음하다, 징벌하다'의 뜻이지만 여기서는 '못된 해코지 짓을 하다'로 해석된다.

5) 동사 파타나(fatana)는 '유혹하다, 홀리다, 혼란을 조성하다'의 뜻이나 여기서는 '박해하다', '고난속에 몰아넣다'의 의미이다.

## 제85장

جَنَّٰتٌ تَجْرِي مِن تَحْتِهَا ٱلْأَنْهَٰرُ ۚ ذَٰلِكَ ٱلْفَوْزُ ٱلْكَبِيرُ ﴿١١﴾ إِنَّ بَطْشَ رَبِّكَ
لَشَدِيدٌ ﴿١٢﴾ إِنَّهُۥ هُوَ يُبْدِئُ وَيُعِيدُ ﴿١٣﴾ وَهُوَ ٱلْغَفُورُ ٱلْوَدُودُ
﴿١٤﴾ ذُو ٱلْعَرْشِ ٱلْمَجِيدُ ﴿١٥﴾ فَعَّالٌ لِّمَا يُرِيدُ ﴿١٦﴾ هَلْ أَتَىٰكَ
حَدِيثُ ٱلْجُنُودِ ﴿١٧﴾ فِرْعَوْنَ وَثَمُودَ ﴿١٨﴾ بَلِ ٱلَّذِينَ كَفَرُوا۟

**11** 실로 믿고 또 올바른 행위들을 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아래로 강들이 흐르고 있는 낙원[천국]들이 있을 것이니 그것은 큰 성공이니라.

**12** (무함마드여!) 실로 그대 주님의 형벌[6]은 참으로 가혹하니라.

**13** 실로 그분은 창시하시고, 또 부활시키시는 분이시로다.[7]

**14** 그리고 그분은 가장 관용하신 분[알 가푸르], 가장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알 와두드]이시니라.

**15** 옥좌의 주인이시며, 가장 영광으로 가득차신 분[알 마지드][8]이시로다.

**16**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시는 분이시로다.

**17** (무함마드여!) 그 군인들의 이야기가 그대에게 왔느냐?[9]

**18** 파라오와 사무드족(의 이야기가!)[10]

---

6) 원래 바뜨쉬(batsh)의 뜻은 '위력, 힘, 쥐는 힘'이지만 여기서는 형벌을 의미한다.
7) 시작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시 또 창조하시는 분, 즉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죽은 뒤 부활시키시는 분'의 뜻이다.
8) 이 단어는 두가지로 읽혀진다. 단어 끝을 담마(dhammah)인 주격 알 마지두(Al-Majīdu)로 읽으면 주님의 속성이자 그분의 이름이 되고, 카스라(kasrah)인 소유격 알 마지디(Al-Majīdi)로 읽으면 옥좌를 수식하여 '영광으로 가득찬'이 된다. 여기서는 앞의 것으로 번역하였다.
9) 그 군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느냐 또는 듣지 않았느냐의 뜻임.

## 제 85 장

فِي تَكۡذِيبٖ ﴿١٩﴾ وَٱللَّهُ مِن وَرَآئِهِم مُّحِيطُۢ ﴿٢٠﴾ بَلۡ
هُوَ قُرۡءَانٞ مَّجِيدٞ ﴿٢١﴾ فِي لَوۡحٖ مَّحۡفُوظِۭ ﴿٢٢﴾

**19** 그런데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은 (진리를) 거짓이라 말하고 있느니라.

**2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뒤에서 (그들을) 둘러싸고 계시느니라.[11]

**21** 아니로다. (바로) 그것이 영광스러운 꾸란이로다.[12]

**22** (하늘에) 보존된 서판[13]에 (새겨져) 있는 (꾸란이니라.)

---

10) 파라오에 대한 이야기는 꾸란 2:49, 8:54, 10:90, 40:45-47 등과, 사무드족에 대한 이야기는 꾸란 7:73, 11:68, 41:13, 69:4 등 참조

11) 그들의 행위를 다 보고, 또 알고 계신다는 뜻.

12) 이와 같은 불신자에 대한 경고와 믿는 자에게의 복음이 꾸란에 계시되어 내려졌다.

13) 라우흐 마흐푸즈(lawḥ maḥfūẓ)는 '보존된 서판'이란 뜻으로 하늘에 있는 꾸란의 원형을 말한다. 이 원판으로부터 모든 계시가 내려졌다.

## 해 설

1-3 세 가지 은유적 징표들이 맹세절을 만들고 있다. 첫째는 하늘에 떠 있는 12성좌들을 가리키는 큰 별자리들, 두 번째는 모든 악들이 징벌되는 심판의 날,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의 날에 증언하는 자(증인)와 증언의 대상이 되는 것(또는 사람)에 걸고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신다. 여기서 마지막 맹세절 속의 샤히둔(s͟hāhidun 증인, 증언자)과 마슈후둔(mas͟hhūdun 증언의 대상)에 대해서는 주석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 대체로 심판의 날에 관계하여 여기서의 증인이란 무함마드를 비롯한 예언자들(꾸란 3:81), 죄인의 혀, 손, 발(꾸란 24:24), 그의 행위기록들(꾸란 17:14), 죄인 그 자신(꾸란 17:14)이고, 증언의 대상이란 과거 저지른 모든 선악의 행위들, 혹은 신앙증언자에 적대하는 악행자들이라고 말한다. 이런 맹세들은 죄값의 징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죄인은 마땅히 회개해야 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현세에서의 삶을 고쳐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 일부 아랍 주석가들은 하디스들에 근거하여 여기서의 샤히둔이 증언하는 날인 금요일을 뜻하고, 마슈후둔은 하지(순례)시 아라파트('Arafat)의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12성좌를 비롯한 밤하늘의 별들은 여행자에게는 친절한 안내자이지만 밤의 어둠 속에서 죄악을 저지르는 악행자들에게는 그들의 행위를 지켜보는 눈들이고 증인들이다. 모든 사악한 행위들은 빠짐없이 기록된다.

4-7 이 절들에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 대적하여 '불구덩이를 판 자들'인 아쓰하불 우크두드('aṣḥābul 'ukhdūd)의 죄악 행위에 대한 심판의 날에 있을 결과를 경고하신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불구덩이를 만들어서 그들을 그 불 속에 던져넣었던 사악한 고대 왕들과 국가들에 관계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은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가 이슬람 출현 이래 무슬림들을 박해하고 무슬림들에게 괴롭힘을 주었던 이슬람의 모든 적대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심판의 날,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괴롭혔던 박해자, 압제자, 군주들의 처참한 최후를 목격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8-10 '불구덩이를 판 자'들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믿는 자'들을 불 속에 던져넣었다. 마찬가지로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자애로우신 주님께 예배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초기 메카의 불신자들은 '무슬림'들을 괴롭히고 학대했다. 결백한 과거의 신앙인들이나 무슬림들을 박해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사악한 행위에 걸맞은 지옥불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그들은 믿는 자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믿는 자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즐겼다. 산 채로 믿는 자들을 불태웠던 그들에게는 똑같은 벌이 내려질 것이다. 제10절에서 지옥의 징벌과 타는 불 속의 징벌을 구별해 표현하고 있는 것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11 박해와 고통을 인내한 신자들, 진정한 신앙과 올바른 선행 속에 산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정원이 주어질 것이다. 아래로는 시원한 강이 흐르고 있으며 온갖 과일나무가 풍성한 낙원이 그들의 영원한 거처가 될 것이다. 이것은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성공이다.

12-16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분이시다. 그분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즉각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시다. 특히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흔들림 없는 신앙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총과 자비, 친절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영광과 명예스러운 옥좌의 주인이시고, 원하신다면 무슨 일이든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불신자들을 벌하시고 또 그분을 기쁘게 하는 믿는 자들의 선행에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의지는 그 자체가 말씀이고 행위이다. '있어라'하면 곧 있게 된다.

17-20 땅 위에 있는 어떤 힘도,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선진된 것일지라도 그분의 노여움과 진노하심을 버티거나 이겨낼 수 없다. 파라오(Fir'awn)와 사무드(Thamūd) 백성의 예가 그 대표적인 경우들이다. 둘 다 물질적, 지적으로 문명의 정점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의지에 거역하고 저항하여 파멸당하였다. 메카의 불신자들이 그들의 죄에 필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역시 도전과 반대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다.

21-22 불신자들에게 주는 경고와 믿는 자들에게 전해진 복음들은 가장 고귀한 진리의 계시들로, 하나님의 책 즉, 성 꾸란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보존되어 있는 서판(Lawḥ Maḥfūẓ)으로부터 내려진 것이다.

## 알 부루즈 장의 가르침

### 📖 제1~10절에서 배워야 할 점

- 심판의 날에 예언자들, 천사들, 믿는 자들은 불신자들과 악행자들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 믿는 자들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더라도 고통을 참아야 한다. 왜냐하면 종국에는 성공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 악행자,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종국에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 📖 제11~22절에서 배워야 할 점

- '불구덩이를 판 자들' '파라오' '사무드족'의 예에서 보듯이 아무리 강력했던 권력의 주인공일지라도 진리에 등을 돌리면 패망한다.
- 하나님께서는 불신과 악행에 합당한 벌을 주신다. 반면에 박해와 고통을 참고 이겨내는 믿는 자들과 선행자들에게는 보상을 해주신다.
- 하나님께서 만드신 언약들은 모든 시간들에서 진실이며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 전승 이야기

다음은 무슬림(Muslim)과 아흐마드(Aḥmad)의 하디스 모음집에 있는 이 장에 관련된 왕과 소년, 그리고 불구덩이에 던져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너희들 이전의 사람들 중 한 왕이 마법사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마법사가 늙게 되자 왕에게 "제가 이젠 늙었고 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법을 가르쳐 전수할 한 소년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청하였다. 왕은 그에게 소년을 보냈고 마법사는 그 소년에게 마술과 마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소년은 마법을 배우러 갈 때마다 가는 길에 살던 한 수사(修士)에게 들러 거기서 그와 함께 앉아 있는 시간을 더 보냈다. 수사의 말을 경청하고 그의 말들에 매료되어 감탄하곤 했던 것이다. 그래서 마법사에게 가면 마법사가 "무엇이 너를 못 오게 하느냐?"고 물으면서 그에게 매질을 했고, 사람들에게 갔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를 때리면서 "무엇이 대체 너를 못 오게 붙잡느냐?"고 묻곤 했다. 소년은 이것 때문에 수사에게 불편함을 털어놓게 되었다. 그러자 수사는 "마법사가 너를 때리려 하면 '사람들이 저를 잡고 못 가게 합니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너를 때리려 할 때에는 '마법사가 나를 바쁘게 하여 못 오게 합니다'라고 말하라"고 시켰다. 그래서 소년은 얼마간 그렇게 했다.

그 후 어느 날 괴물처럼 생긴 무섭게 큰 동물이 길 위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다닐 수 없게 만들었다. 그 소년은 "오늘 내가 마법사가 나은지, 수사가 더 나은지 알아볼 거야!" 하고는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오 하나님! 만약 수사의 말과 행동들이 마법사의 그것들

보다 더 낫다고 당신께서 평가하시고 더 좋아하신다면, 사람들이 길을 걸어다닐 수 있도록 저 동물을 죽여주소서." 그러고는 그 돌을 힘껏 던져 동물을 맞추어 죽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길을 건너다닐 수 있게 되었다. 소년이 수사에게 와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자 이 말을 들은 수사는 소년에게 당부하기를 "오 나의 아들아! 네가 오늘은 나보다 낫구나. 너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성취했다. 그러나 너는 앞으로 시련을 당할 것이다. 만약 네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 나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하지 말아다오."

그 뒤 소년은 장님, 나병환자, 백반환자 등 여러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곤 했다. 왕의 조신들 중 한 사람이 선천성 장님이었는데 그가 이 소년에 대해 듣고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와서 말하였다. "이 선물들은 나를 치료해 주는 조건으로 가져온 것들입니다." 소년이 말하기를 "나는 어느 누구도 치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만약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간곡히 탄원을 드린다면 그분께서 당신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료해 주셨다.

그런 뒤, 그가 왕에게로 돌아가서 예전부터 앉아 있던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를 본 왕이 (놀라서) "누가 너의 눈을 되돌려주었느냐?"고 물었고 그가 답하였다. "저의 주님 (Allāh)이십니다." 왕이 말하였다. "내가?" 그 조신이 답하기를 "아닙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당신의 주님이신 알라이십니다." 왕이 말하였다. "너는 나 말고 다른 주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냐?" 그가 답하기를 "그렇습니다. 당신의 주님과 저의 주님은 알라, 하나님이십니다." 왕은 그를 가두고는 그가 소년에 대해 실토할 때까지 심하게 고문하였다. 소년이 왕 앞에 불려왔고 왕이 그에게 물었다. "소년아! 너의 마법의 (지식)이 타고난 장님, 나병환자, 다른 질병들을 치료할

정도에 다다랐느냐?" 그가 답하기를 "저는 어느 누구도 치료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치료하십니다." 왕이 말하기를 "내가 말이냐?" 소년이 답하기를 "아닙니다." 왕이 다시 물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게냐?" 소년이 답하기를 "나의 주님과 당신의 주님은 알라이십니다." 그러자 왕은 그가 수사에 대해 실토할 때까지 그를 고문하였다. 그래서 수사가 왕 앞에 불려오게 되었고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네 종교를 포기해라." 수사가 거절하자, 왕은 톱을 가져오게 하여 그것을 그의 머리 중앙에 올려놓으라고 명령하고는 톱질을 해 그를 두 동강냈다. 그러고 나서 장님이었던 조신을 불러오게 하여 말하였다. "네 종교를 버려라." 그가 거부하자, 왕은 다시 톱을 가져오게 하여 그것을 그의 머리 중간에 놓고는 두 동강이 나게 그를 썰었다. 그러고 나서 소년이 불려왔다. 그리고 그에게도 같은 명령을 내렸다. "네 종교를 버려라." 그가 거절하자, 왕은 어느 산꼭대기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를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산 정상에 오를 때까지 그를 데리고 올라가라. 그리고 그가 그의 종교를 버리는지를 보아라. 만약 버리지 않는다면 산꼭대기로부터 그를 던져버려라." 그들이 그를 산으로 데려갔다. 그들이 산꼭대기에 올라섰을 때, 소년이 말하였다. "오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들로부터 저를 구해주소서." 그러자 산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산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소년은 걸어서 왕에게로 돌아왔다. 왕이 말하였다. "너와 함께 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단 말이냐?" 소년이 답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저를 구하셨습니다." 왕은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그를 배에 태워 바다 한가운데로 데려가게 명령하였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약 그의 종교가 좋은 것이라고 다시 선언한다면 그를 바다에 빠트려라." 사람들이 그를 바다 한가운데로 싣고 갔다. 그러자 그는 기도하였다. "오 하나님! 당신이 원하

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들로부터 저를 구하소서." 그러자 그들은 모두가 바다에 빠졌다.

소년은 왕에게로 다시 돌아왔다. 왕이 말하기를 "너를 데려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한 것이냐?" 소년이 답하였다. "알라께서는 그 사람들로부터 저를 구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년이 덧붙여 왕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대로 하지 않는 한 저를 죽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한다면 나를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물었다. "그것이 무엇이냐?" 소년이 말하기를 "사람들을 한 높은 장소에 모이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나무기둥에 묶고 나의 화살통에서 화살을 꺼내 이렇게 말하십시오. '소년의 주님이신 알라의 이름으로!'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나를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은 사람들을 높은 장소에 모이게 하고 한 나무기둥에 그를 묶어놓고는 그의 화살통에서 화살 하나를 꺼내 활시위에 재어 당기고는 "소년의 주님, 알라의 이름으로!"라고 말하면서 화살을 쏘았다. 화살은 소년의 관자놀이에 적중하였다. 소년은 화살이 꽂힌 지점인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죽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소리쳤다. "우리는 소년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소년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소년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이런 말이 들려왔다. "너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있느냐? 네가 두려워했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께 맹세컨대! 모든 사람들은(소년의 주님을) 믿게 될 것이다!"

왕은 길들이 나있는 입구에 깊은 구덩이를 파라고 명령했다. 그렇게 불구덩이들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구덩이들 안에 불이 붙여졌다. 그러고 나서 왕이 소리쳐 말하였다. "누구든지 그의 종교를 버리는 자는 가게 놔두어라. 그러나 종교를 버리지 않는 자는 그 불 속에 던져넣어

라!" 명령은 그대로 실행되었다. 사람들이 허둥대고 갈팡질팡하는 속에 불 속으로 던져졌다. 한 여인이 그녀의 아기와 함께 그 자리까지 왔는데, 불구덩이 앞에서 떨어지려는 순간 그녀가 주저주저했다. 이때 아기가 소리쳐 말하였다. "엄마, 참아요 엄마! 진실로 엄마는 진리 위에 있어요. 우리는 진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녀는 불구덩이 속으로 아이와 함께 몸을 던졌다. 파라다이스에서 순교자들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면서…).

이 이야기는 이븐 카시르의 꾸란 해설집에 있는 무슬림이 전하는 하디스(Ṣaḥiḥ Muslim, Ḥadīth No. 7148)와 이맘 아흐마드가 쑤하이브(Ṣuhayb)로부터 전해듣고 기록한 동일한 내용의 하디스(Aḥmad 6:16)를 거의 원문대로 번역한 것이다. (Tafsīr Ibn Kathīr, Vol.10, 1421A.H, pp.427-431)

역사가 이븐 이스하끄(Ibn Isḥāq)는 소년이 죽은 후 나즈란(Najrān) 사람들이 소년의 종교인 그리스도교를 따르기 시작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의 책 『씨라Sīrah』 에서 불구덩이를 파 나즈란 사람들을 죽인 왕은 두 누와스(Dhū Nuwās)로, 그의 원래 이름은 주르아(Zur'ah)였고 그의 왕국시대에 그는 유수프(Yūsuf 요셉)로 불렸다고 한다. "두 누와스 왕은 군대를 이끌고 그들(나즈란 사람들)에게 와서는 유대교를 받아들이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 두 누와스 왕은 큰 불구덩이를 만들어 그들의 일부를 그 속에서 불태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칼로 죽였다. 두 누와스 왕은 이렇게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죽였다." (Tafsīr Ibn Kathīr, 앞의 책, pp.431-432)

제 91 장

# 앗 샴스 Ash-Shams
## 태양의 장

메카 초기시대에 계시된 이 장은 긴 맹세로 시작한다. 태양을 뜻하는 아랍어 단어 샴스(shams)는 여성형이므로 여성형 접미대명사 하(hā)를 취한다. 뛰어난 서정성과 두하하, 탈라하, 잘라하, 야그샤하와 같이 15절 모두의 끝이 '하'로 끝나는 조화로운 각운 때문에 무슬림들에 의해 가장 자주 낭송되는 장들 중의 하나이다. 특히 예언자 무함마드가 무아즈(Mu'ādh)에게 말한 다음 하디스에 따라서 이샤('Ishā') 예배(밤예배) 때에는 이 장과 제87장 알 아을라(Al-A'lā), 제92장 알 라일(Al-Layl)이 무슬림 세계 곳곳에서 항시 독송되고 있다. "너는 왜 알 아을라 장(Sabbiḥi-' (i)sma Rabbi-ka- (a)l-'a'lā [87장]), 앗 샴스 장(Wa-sh-shamsi wa ḍuḥā-hā [91장]), 그리고 알 라일 장(wa-l-layli 'idhā yaghshā [92

장])을 (송독하여) 예배하지 않느냐?" (무슬림 Muslim 1:340)

무슬림들이 메카의 불신자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때에 이 장은 계시되었다. 중심 주제는 인간 영혼의 창조에 관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은 선과 악 사이에서 스스로 한 쪽을 선택할 자유의지의 고유능력을 부여받고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그 선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가, 더럽혀지는가가 결정된다. 하나님께서 우주체계의 가장 중요한 창조물들인 해와 달, 낮과 밤, 하늘과 땅에 걸고 길게 맹세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어떻게 기리고 행위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정신과 영혼을 스스로 정화하는 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스스로 그것을 타락시키는 자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예언자 쌀리흐(Sāliḥ) 때 일어난 하나님의 암낙타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장은 신앙과 불신앙의 길을 자의로 선택하여 걸어가는 인간 영혼들의 삶의 성공과 파멸의 교훈적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다. 인간 영혼의 성공과 실패, 번영과 파국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순결하게 지켰느냐, 타락시켰느냐에 달려 있다.

제 91 장 سُورَةُ الشَّمْسِ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وَالشَّمْسِ وَضُحَاهَا ﴿١﴾ وَالْقَمَرِ إِذَا تَلَاهَا ﴿٢﴾

وَالنَّهَارِ إِذَا جَلَّاهَا ﴿٣﴾ وَاللَّيْلِ إِذَا يَغْشَاهَا ﴿٤﴾

وَالسَّمَاءِ وَمَا بَنَاهَا ﴿٥﴾ وَالْأَرْضِ وَمَا طَحَاهَا ﴿٦﴾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해와 그것의 빛[1]에 걸어,

**02** 그것[해]의 뒤를 따라오는 때 달에 걸어,

**03** 그것[해]의 광휘[2]를 드러내는 때 낮에 걸어,

**04** 그것[해]를 덮어 가린 때 밤에 걸어,

**05** 하늘과 그것[하늘]을 세워놓으신 것[신비스러움][3]에 걸어,

**06** 땅과 그것[땅]을 펼쳐 놓으신 것[4]에 걸어,

---

1) 두하하(ḍuḥāhā)는 '햇빛' '그것의 광명'이란 뜻이고, 일부 주석가들은 햇빛이 비치는 낮 시간들을 뜻한다고 해석한다.

2) 잘라하(Jallāhā)는 '그것의 장엄함, 빛남'의 뜻이다.

3) 마 바나하(mā banāhā)는 '그분께서 그것[하늘]을 세워놓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어놓으신 것은 얼마나 신비스러운가!'의 의미로 '어떻게 그분께서 그것을 세우셨는가에 걸어'의 뜻이다. 주석가들은 여기서의 마(mā)를 마(~한 것)그대로 보느냐? 아니면 만(man ~한 분)으로 보느냐에 따라 두 갈래의 해석을 한다. 앞의 경우는 "하늘과 그것의 세움[창조]에 걸어 맹세하건대"이고 뒤의 경우는 "하늘과 그것을 세우신 분[창조자]에 걸어 맹세하건대"를 의미한다.

4) 여기서도 제5절의 각주3)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펼쳐놓으신 것에 걸어'와 '그것을 펼쳐놓으신 분께 걸어' 두 가지 의미의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어떻게 그분께서 땅을 펼쳐놓으셨는가! 그 신비함에 걸어'의 뜻으로 해석하였다.

## 제 91 장

وَنَفْسٍ وَمَا سَوَّىٰهَا ﴿٧﴾ فَأَلْهَمَهَا فُجُورَهَا وَتَقْوَىٰهَا ﴿٨﴾

قَدْ أَفْلَحَ مَن زَكَّىٰهَا ﴿٩﴾ وَقَدْ خَابَ مَن دَسَّىٰهَا ﴿١٠﴾

كَذَّبَتْ ثَمُودُ بِطَغْوَىٰهَآ ﴿١١﴾ إِذِ ٱنۢبَعَثَ أَشْقَىٰهَا ﴿١٢﴾

فَقَالَ لَهُمْ رَسُولُ ٱللَّهِ نَاقَةَ ٱللَّهِ وَسُقْيَٰهَا ﴿١٣﴾

**07** 정신[영혼][5]과 그것[영혼]을 균형 있게 완벽히 하신 것[6]에 걸어 맹세하노니,

**08** (하나님께서는) 정신[영혼]에게 그것의 잘못[악함]과 그것의 옳음[선함]을 (알게) 영감을 주셨느니라.[7]

**09** 그것[영혼]을 깨끗이 하는 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며,

**10** 그것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리라.

**11** 사무드족[8]은 그들의 지나친 오만으로(예언자[9]를) 거부하였느니라.

**12** 그들 가운데 가장 못된 자가 보내졌을 때[10]

**13** 하나님의 사자[쌀리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암낙타가 물을 먹게 그냥

---

5) 나프스(nafs)는 '정신, 자신, 자기'이지만 여기서는 '루흐(rūḥ 영혼)을 담고 있는 정신'의 뜻으로 쓰였다. 일부 주석가들은 여기서의 나프스(nafs 정신, 영혼)를 아담 혹은 인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6) 마 싸우와 하(mā sawwā hā 그것을 균형있게 하신 것) 역시 위 5, 6절의 각주 3), 4)와 같다. '균형있게'는 '완벽하게'를 의미한다. 우리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 '인간을 완벽히 창조하신 그 신비스러움'에 걸어 맹세하건대의 의미이다.

7) 푸주르(fujūr)의 원뜻은 '죄지음, 방탕함'이고 타끄와(taqwā)는 '경외심, 신앙심 깊은'이다. '우리가 선악을 즉각 알게 하셨다'라는 의미임

8) 사무드(Thamūd)족은 아드(Ād)족 문화의 계승자들로 메디나와 시리아 사이인 아라비아 북서쪽 거주민들이었다.

9) 예언자 쌀리흐(Ṣāliḥ)를 가리킴

10) 그들의 지도자인 꾸다르 빈 쌀리프(Qudār b. Sālif)가 암낙타를 죽이려 보내어졌다.

## 제 91 장

فَكَذَّبُوهُ فَعَقَرُوهَا فَدَمْدَمَ عَلَيْهِمْ رَبُّهُم
بِذَنۢبِهِمْ فَسَوَّىٰهَا ﴿١٤﴾ وَلَا يَخَافُ عُقْبَٰهَا ﴿١٥﴾

놔두어라."라고 말하였느니라.

14 그러나 그들은 그 [쌀리흐]를 거부하였고 그 암낙타를 죽였느니라. 그리하여 그들의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 값으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으며 그들 (모두)를 똑같이[11] (말살)하셨느니라.

15 그분께서는 그 결과에 개의치 않으시느니라.[12]

---

11) '부자와 가난한 자, 강한 자와 악한 자등 인간사회의 모든 등급을 똑같이'라는 뜻이다. 일부 주석가들은 여기서의 '똑같이'를 모두 파괴되고 없어져 땅과 같이 '평평히' 되었다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12) 라 야카푸(lā yakhāfu)의 원래 뜻은 '그는 걱정하지 않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다'이다. 한편 여기서의 우끄바('uqbā)를 '결과, 종말'로 보지 않고 '형벌, 처벌'의 뜻으로 보아 일부 주석가들은 '그분께서는 그들을 벌하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셨다'로 번역하기도 한다.

## 해 설

1-6 이 장의 서두에서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 밤과 낮, 하늘과 땅에 걸고 맹세를 하신다. 상호 대칭적 쌍들인 이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인간뿐 아니라 우주만물을 위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 유용성을 지닌 것들이자 하나님의 절대적 창조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들이기도 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귀중한 창조물들을 걸고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려고 맹세를 하신 걸까? 그 답이 다음에 이어지는 7절-10절에 있다. 그것은 이 장의 중심주제가 되는 '우리가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깨끗이 해야만 한다.'는 가르침이다. 간혹 우리는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불일치하고 갈등하는 이중적 성격이나 성질을 발견하고 놀라는 경우가 있다. 그때에 자유의지의 요체인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7 하나님께서는 위의 세 쌍의 창조물뿐 아니라, 그분께서 조화롭게 형상화하셨고 균형 있고 완벽하게 창조하신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 걸고도 맹세하신다. 그분께서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가장 아름다운 육체와 정신을 인간에게 주셨다. 특히, 우리의 정신 속에 깨끗한 영혼과 더불어 지성, 이성, 감성, 판단력 등을 담아놓아 매사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작용하도록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 또한 건전하고, 바르고, 균형 있게 만드셨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를 완벽한 형태로 창조하신 것이다.

8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신과 영혼에게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 사이를 즉각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영감을 주셨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금방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작용하고 반작용하며 부단히 일어나는 갈등과 불일치 속의 반대하는 이 두 힘 사이에서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어느쪽을 선택해갈지 결정하는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주석가들은 이 절을 "하나님께서는 영혼에게 선과 악을 설명해주셨다." 또는 "하나님께서는 영혼에게 잘못됨과 옳음을 보여주셨다."라고 해석한다.

이슬람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태어난다고 가르친다. 그리스도교의 원죄론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 깨끗하게 태어난다고 말한다. 이 깨끗한 본성을 특별한 종교용어로 피뜨라(fiṭrah)라고 부른다. 처음부터 우리 영혼 내에는 '올바른 길을 따르려는 성향이 현저히 지배적이고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속성'인 바로 이 피뜨라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의 자유의지가 선행 쪽의 부름에 답하지 않고 대신 부도덕한 악행적 유혹을 선택한다면, 그 영혼은 선을 향한 감성, 반응, 감도를 점차 잃어버리고 자연히 악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9-10 간명한 표현의 이 두 절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선과 악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영혼을 깨끗이 하고, 선행을 위해 스스로의 영혼을 단련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자신의 영혼을 부패시켜 영혼의 건강한 성장을 스스로 저해하며 악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 후자는 스스로 실패하는 길을 선택해 걷는 자이다.

11-14 이 절들은 사무드 백성에 내려진 형벌에 관련된 것들이다. 예언자 쌀리흐(Ṣāliḥ)와 하나님의 암낙타에 얽힌 이야기다. 사무드 백성에게 파송된 예언자 쌀리흐는 하나님의 상징물이자 한 징표로서 암낙타를 그의 백성들에게 주면서 이 암낙타가 하나님의 낙타이니 방해 없이 풀을 뜯고 물을 먹게 하라고 명하였다. 만약 그의 지시에 그들이 따르지 않고 낙타를 해친다면 그 결과는 무서운 형벌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사무드 백성은 예언자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가장 사악한 자 중의 한사람인 꾸다르 빈 쌀리프(Qudār b. Sālif)를 보내어 그 암낙타를 죽였다. 그들의 불복종과 도전, 반항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벌이 덮쳐왔다. 그들은 멸망당하였다. 모두가 똑같이 완전히 말살당하였다.

15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거나 파괴하시는 절대적 힘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께는 어떤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있을 수 없다. 그분의 계획과 실행은 완벽하다. 한 치의 오차도 없고 어떤 결과도 그분의 뜻일 뿐이다.

## 앗 샴스 장의 가르침

-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선택하는 양쪽의 자유의지 능력을 부여하여 인간 영혼을 창조하셨다.
-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유의지가 선택하는 길이 바로 나의 길이다. 지금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내가 선택한 길은 어느 길인가?
-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사악한 자들을 벌하셨다.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사악한 자들을 벌하실 것이다.

제 92 장

# 알 라일 Al-Layl

## 밤의 장

이 장은 이슬람의 태동기인 초기 메카시기에 가장 먼저 계시된 10개 장들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89장 알 파즈르(Al-Fajr)와 이 장의 다음 장인 제93장 앋 두하(Aḍ-Ḍuḥā)가 계시된 비슷한 때에 내려진 것으로 대다수 꾸란 학자들이 분류하고 있다. 주제는 제89장 알 파즈르, 제90장 알 발라드(Al-Balad), 제91장 앗 샴스(Ash-Shams)와 대동소이하다. 구원을 얻는 일을 해야지, 파멸당하게 될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충고한다. 인생의 종착역에 다달으면 우리 앞에는 축복받는 천국이냐, 저주받는 지옥이냐 두 갈림길이 놓여 있을 뿐이다. 피할 수 없는 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들어서느냐는 결국 현세에서 우리 스스로 선택해 간 우리 행동들의 결과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간 모든 것을 쌍으로 창조하셨다. 밤과 낮, 남과 여, 선과 악, 천당과 지옥, 행복과 불행 등. 이 장의 시작은 그중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창조와 권능의 징표가 되는 밤과 낮, 남과 여 같은 대칭적인 단어들에 걸고 맹세하는 절들이다. 이러한 수사들의 맹세는 제4절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노력하는 목적들은 정말 다양하고 다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장에서 행위의 두 가지 대조적인 선택을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놓으셨다는 점을 가르치신다. 재산을 바치며 자선을 베풀겠느냐? 재산을 쌓아두고 인색하게 살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느냐? 스스로 자만하며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겠느냐?

삶의 목표를 정하고 행위의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신다. 우리에게 최고인 것, 가장 좋은 것(al-ḥusnā)이 과연 무엇일까? 그 답은 천국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신다. "너희는 어디에 목표를 두고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살겠느냐?"

## 제 92 장 سُورَةُ اللَّيْلِ

بِسْمِ ٱللَّهِ ٱلرَّحْمَٰنِ ٱلرَّحِيمِ

وَٱلَّيْلِ إِذَا يَغْشَىٰ ﴿١﴾ وَٱلنَّهَارِ إِذَا تَجَلَّىٰ ﴿٢﴾ وَمَا خَلَقَ ٱلذَّكَرَ
وَٱلْأُنثَىٰٓ ﴿٣﴾ إِنَّ سَعْيَكُمْ لَشَتَّىٰ ﴿٤﴾ فَأَمَّا مَنْ أَعْطَىٰ وَٱتَّقَىٰ ﴿٥﴾ وَصَدَّقَ
بِٱلْحُسْنَىٰ ﴿٦﴾ فَسَنُيَسِّرُهُۥ لِلْيُسْرَىٰ ﴿٧﴾ وَأَمَّا مَنۢ بَخِلَ وَٱسْتَغْنَىٰ ﴿٨﴾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어둠이 드리워지는[1] 때 밤에 걸어,
**02** 빛이 밝혀져 있는[2] 때 낮에 걸어,
**03** 남과 여[자웅][3]를 창조하신 것[신비스러움][4]에 걸어 맹세하노니,
**04** 실로 너희들의 (행동과) 노력은 정말 다양하다[5].
**05** (자선을) 베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06** 가장 좋은 것[천국][6]을 믿는 자에게는
**07** 우리가 평안으로의 길[7]로 그를 쉽게 해 주리라.
**08** 그러나 인색하고 스스로 자족한다고 생각하는 자[8],

---

1) 가쉬야(ghashiya) 동사는 '~을 덮다, ~을 휩싸다'의 뜻인데 여기서는 4형동사 아그샤('aghshā)가 '어두워지다, 어둠이 깔리다'의 뜻으로 쓰였다.
2) 2형 동사 잘라(jallā)는 '~을 밝히다, 명백하게 하다'의 뜻으로 여기서는 '빛이 드러나 밝아지다'의 의미이다.
3) 모든 인간과 동물들의 암수(자웅)를 말한다.
4) 그분께서 쌍으로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신비스러운가! '그 불가사의함에 걸고'의 의미이다. 한편 여기서 마(mā ~것)를 만(man ~사람)으로 보고 '~을 창조하신 분에 걸어'로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많다.
5) 애써 추구하고 노력하는 목적들이 각양각색이라는 뜻임.
6) 알 후스나(al-ḥusnā)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이 절에서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외에 신은 없다는 유일신관' 또는 '하나님께서 선행자에게 천국을 보상으로 주신다는 것'이다. 대체로 많은 주석가들이 가장 좋은 것을 '천국'으로 해석한다.
7) 이 길은 편안하고 선행을 하는 축복받는 길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 제 92 장

وَكَذَّبَ بِٱلْحُسْنَىٰ ٩ فَسَنُيَسِّرُهُۥ لِلْعُسْرَىٰ ١٠ وَمَا يُغْنِى عَنْهُ مَالُهُۥٓ إِذَا
تَرَدَّىٰٓ ١١ إِنَّ عَلَيْنَا لَلْهُدَىٰ ١٢ وَإِنَّ لَنَا لَلْءَاخِرَةَ وَٱلْأُولَىٰ ١٣
فَأَنذَرْتُكُمْ نَارًا تَلَظَّىٰ ١٤ لَا يَصْلَىٰهَآ إِلَّا ٱلْأَشْقَى ١٥ ٱلَّذِى كَذَّبَ
وَتَوَلَّىٰ ١٦ وَسَيُجَنَّبُهَا ٱلْأَتْقَى ١٧ ٱلَّذِى يُؤْتِى مَالَهُۥ يَتَزَكَّىٰ ١٨

**09** 가장 좋은 것을 거부하는 자[9]에게는

**10** 우리가 고통으로의 길[10]로 그를 쉽게 해주리라.

**11** 그가 파멸해 (지옥으로) 떨어질 때 그의 재물이 그에게 무슨 득이 되겠느냐?

**12** 실로 우리[하나님]의 할 일은 인도하는 것이니라.

**13** 실로 우리에게 끝[내세]과 처음[현세]이 속하니라.

**14**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타오르는 (지옥)불을 경고하였느니라.

**15** 가장 불행한 자들[11] 외에는 그것[지옥불]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

**16** 그는 (진리를) 거부하고, 등을 돌린 자이니라.

**17** 그러나 가장 (신을) 경외하는 자들[12]은 그것[지옥불]으로부터 멀리 배제될 것이니라.

**18** 그는 그의 재물을 베풀어 스스로 정화하는 자로,

---

8) 이스타그나(istaghnā)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다' '스스로 자족할 수 있다고 자만하다'의 뜻이다.

9) 천국을 거짓이라 믿지 않는 자.

10) 이 길은 역경, 불행, 악행, 고난의 길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11) 알 아슈까(al-'ashqā)는 샤끼이(shaqiyy 불행한, 흉악한, 사악한)의 최상급형으로 '가장 불행한 자', '가장 사악한 자'의 뜻이다.

12) 알 아트까(al-'atqā)는 알 물타꾼(al-muttaqūn 신을 경외하는 자들)중에서도 가장 타끄와(taqwā 경외)를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 제 92 장

وَمَا لِأَحَدٍ عِندَهُۥ مِن نِّعْمَةٍ تُجْزَىٰٓ ﴿١٩﴾

إِلَّا ٱبْتِغَآءَ وَجْهِ رَبِّهِ ٱلْأَعْلَىٰ ﴿٢٠﴾

وَلَسَوْفَ يَرْضَىٰ ﴿٢١﴾

**19** 어느 누구로부터도 (자신이 베푼 은혜에) 되받을 보상을 그의 (마음 속에) 갖지 않으며,

**20** 가장 지고하신 분, 그의 주님의 얼굴만을 오직 열망하는 자이니라.

**21** 그는 정말로, 곧 (천국에 들어가며) 만족해하리라.

## 해 설

1-2 이러한 맹세절들에서 밤과 낮은 해와 달, 하늘과 땅과 더불어 가장 많이 등장한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우주체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분 계획의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각기 존재한다.

3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의 창조를 시작으로 인간을 남과 여 쌍으로 창조하셨다. 모든 동물들도 암컷과 수컷으로 창조되었다. 이러한 자웅은 한 근원에서 만들어지지만 서로 같으면서도 매우 다르다. 각기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 목적에 부응하여 탄생한다. 이 둘은 상호보완적이다. 서로 공존과 조화 속에 존재한다. 다른 꾸란 구절에서도 쌍으로 모든 것이 창조된다는 것이 강조된다. (꾸란 78:8, 51:49 참조)

4 밤과 낮, 남과 여, 모든 것이 쌍으로 창조된 신비함 같은 것에 걸고 맹세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여 밝혀주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동들과 삶의 목적이 정말 각양각색이라는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올바른 길을 걷고 진리를 따르지만, 다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걸으며 진리에 등을 돌린다.

5-7 자선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세와 천국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현세와 내세 양쪽에서 편하고 쉽게 해주실 것이다. 이 세상 삶에서의 쉬움이란 마음의 평안, 평화, 정신적 위안, 위로 같은 것을 느끼고 얻는 것이다.

8-10 인색하고 재물을 쌓아놓길 좋아하며, 자만심이 강해 무슨 일이든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에 찬 불신자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그것에 반대한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지에 상관없이 독립적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현세와 내세에서 어렵게 내버려두실 것이다. 악의 길을 걷게 되는 이들은 쉽게 얻는 한시적 만족에 도취해 살 것이다. 이 길 위의 사람들은 마음의 진정한 평화나 정신적 위안보다는 세속적 욕망, 명예, 재물을 탐하고 좇는다.

11 그러나 이러한 세속적 명예와 지위, 축적해 놓은 재물이 그가 지옥불에 던져질 때 무슨 소용이 될 것인가?

12-13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허용된 것이고 무엇이 금지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인도된 길 위를 걷는 사람은 부활의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약속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현세의 모든 것, 내세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다. 그분은 시작과 끝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분께로 돌아갈 것이다.

14-16 하나님께서는 타오르는 지옥불을 거듭 경고하신다. 진리의 말씀과 인도를 무시하고 불의 부정한 짓을 일삼던 죄인들에게는 지옥불의 징벌이 내려질 것이다. 지옥불에 들어가 끝내 남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을 끝내 불신하고 가장 사악하고 가장 비열한 행위를 한 자들이다.

17-21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재물을 축적하지 않는다. 자선을 하거나 남을 도와주고도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선행과 자선 행위로 스스로를 정화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예배와 기도

에 힘쓰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데 열심이다. 스스로의 그런 노력에 만족과 기쁨, 평화를 느끼는 사람들이다. 개인에 따라 만족과 평화의 의미가 크게 다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들은 세속적 이익과 풍요로움에서 얻어지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건강, 소박하고 건실한 가정생활,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 돈독한 형제애, 남다른 우정 같은 것에서 느끼고 비롯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과 만족이 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신앙에서 오는 만족과 평화가 그것이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때 현세에서는 결코 맛보지 못한 또 다른 새로운 만족과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

## 알 라일 장의 가르침

### 제1~12절에서 배워야 할 점

- 인간이 그들의 삶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행동들은 다양하다.
- 바르게 살며 자선을 행하는 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행의 길을 더욱 쉽게 만들어 주신다.
- 인색하고 사악하며 지나치게 자만에 차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악행의 길을 더 쉽게 만들어 주신다.

📖 제13~21절에서 배워야 할 점

-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불신하는 자들로 나뉘어진다.
-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분께로 돌아간다.
-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진정한 마음의 만족과 평화를 얻게 한다.

제 93 장

# 앋 두하 Aḍ-Ḍuḥā

## 아침의 장

초기 메카 계시 중의 하나인 이 장은 한동안 계시가 내려오지 않아 예언자 무함마드가 용기를 잃고 실의에 빠져 있던 때에 내려졌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계시가 끊겼다고 자책하면서 무력감과 실의에 빠져 있던 곤경의 시기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에서 예언자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용기를 북돋워 주신다. 그리고 계속되는 꾸라이쉬 부족의 박해에 동요하지 말 것을 명하신다.

우리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 덧없이 지나갈 이 세상 삶은 영원할 내세의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듯이 내일이 밝아오고 또 내세가 올 것이다.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언자 무함마드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가르쳐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 역경이 닥쳐와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인내하고 밝은 내일이 온다는 희망과 믿음 속에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화답하고 항상 선행을 베풀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에 늘 감사해야 한다.

## 제93장 سُورَةُ الضُّحَىٰ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وَالضُّحَىٰ ﴿١﴾ وَاللَّيْلِ إِذَا سَجَىٰ ﴿٢﴾ مَا وَدَّعَكَ رَبُّكَ وَمَا قَلَىٰ ﴿٣﴾

وَلَلْآخِرَةُ خَيْرٌ لَّكَ مِنَ الْأُولَىٰ ﴿٤﴾ وَلَسَوْفَ يُعْطِيكَ رَبُّكَ فَتَرْضَىٰ ﴿٥﴾

أَلَمْ يَجِدْكَ يَتِيمًا فَآوَىٰ ﴿٦﴾ وَوَجَدَكَ ضَالًّا فَهَدَىٰ ﴿٧﴾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아침에[1] 걸어 맹세하건대,**

**02 어둠이 잠기는[2] 때 밤에 걸어 맹세하건대,**

**03 그대의 주님께서는 그대를 버리시거나 미워하시지 않느니라.**

**04 참으로 그대에게는 내세가 현세보다[3] 훨씬 좋을 것이니라.**

**05 또 그대의 주님께서는 곧 그대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실 것이며 그대는 만족할 것이니라.**

**06 그분께서는 고아였던 그대를 찾아내어[4] 돌보아 주시지 않았더냐?**

**07 그리고 길 잃고 방황하던[5] 그대를 찾아내어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더냐?**

---

1) 두하(ḍuḥā)는 '해가 뜬 후의 아침'이다.
2) 싸자(sajā)는 '어두워지다, 고요해지다'의 뜻이다.
3) 아키라('ākhirah)를 '내세'로 울라('ūlā)를 '현세'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지만 일부 주석가들은 여기서의 아키라가 '현세 삶의 후반부'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뒤의 '울라'를 '과거'로 해석하기도 한다.
4) 동사 와자다(wajada)는 원래 '발견하다, 찾아내다'의 뜻이지만 여기서의 우리말 번역으로는 '선택하다'가 적절하다.
5) '꾸란, 하나님의 법령, 예언자의 사명 등을 전혀 모르고 있던'의 뜻임.

## 제 93 장

وَوَجَدَكَ عَآئِلًا فَأَغْنَىٰ ﴿٨﴾ فَأَمَّا ٱلْيَتِيمَ فَلَا تَقْهَرْ ﴿٩﴾
وَأَمَّا ٱلسَّآئِلَ فَلَا تَنْهَرْ ﴿١٠﴾ وَأَمَّا بِنِعْمَةِ رَبِّكَ فَحَدِّثْ ﴿١١﴾

**08 또 가난했던 그대를 찾아내어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더냐?**

**09 그러니 고아를 박대하지 말고,**

**10 (도움을) 요청하는[6] 자를 내치지 말라.**

**11 그리고 그대 주님의 은혜를 되풀이 이야기[7]하라.**

6) 싸일 (sā'il)은 '도움을 청하는 자, 필요를 구하는 자'를 의미한다.

7) 명령형 핟디스 (ḥaddith)는 '되풀이 말하라, 선언하라, 전하라'의 뜻이다.

## 해 설

1-2 이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이 시작되는 아침의 밝아오는 빛에 걸어서, 그리고 어두워지고 있는 밤의 고요함에 걸어 맹세하신다. 낮과 밤이 시작되는 이러한 시간의 변화와 조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무한한 능력의 상징들이다. 아침이 밝아와 낮이 됨은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 중요하고, 밤의 어둠과 고요함은 우리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3 하나님의 사자에게 내려지던 계시가 한 동안 멈추었다. 전승들에 의하면 이 시기는 약 12일에서 40일 정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사자에게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러서 지고하신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고 있는 탓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상상이 커지자 자책감 속에 두려움만 자라나고 있었다. 꾸라이쉬 불신자들은 그를 비웃기 시작했다. 이븐 카시르의 해설서에 의하면 한 여인이 찾아와 조롱하였다. "무함마드야! 내 생각에는 네 마왕이 네게서 떠나갔구나." 바로 이때 이 계시가 내려진 것이다. 낮과 밤이 하나님의 증표요 예증인 것처럼 계시의 계속(낮의 빛을 상징함)이나 계시의 휴지(밤의 어둠을 상징함) 또한 의미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4-5 비록 하나님의 사자가 불신자들로부터 심한 반대와 박해를 경험하였다 해도, 그는 그 자신을 위한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약속받는다. 그 뒤 계속되는 고초 속에서도 하나

님의 사자는 그의 사명을 훌륭히 완수해낸다. 여기서의 아키라('ākhirah)는 '그의 남은 여생'과 '내세'라는 두 의미를 갖는다. 그에게는 '천국의 축복' 또한 약속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약속은 내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도 틀림없이 이행되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어야 한다. 그분의 은혜와 축복은 늘 넘치도록 충만하다. 하나님의 사자는 최선을 다한 만큼 그저 기뻐하고 만족하면 될 것이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6-8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과거에 내려주셨던 그분의 은혜와 은총들을 기억하게 하신다. 고아가 되었던 그를 보호해 주셨고, 무지하고 진리와 멀리 떨어져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모르고 헤매고 있던 그를 인도해 주셨다. 그는 궁핍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유하게 만드셨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게 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재확인시키는 이러한 묘사들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렵고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 나의 성공과 나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임을 잊고 산다. 은혜와 축복을 받은 만큼 감사하고,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산다.

9-10 이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두 가지 특별하고, 한 가지 일반적인 주문을 하셨다. 그분께서 그에게 친절을 베푸셨던 것처럼 고아들에게 친절함을 보일 것과,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친절과 정중함으로 대할 것을 특별히 명령하신 것이다. 또 한 가지 일반적인 명령은 다음 절에서 밝히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언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랍어 싸일(sā'il)은 구체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 혹은 '질문을 하는 사람'의 뜻이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대개 '가난한 자'이거나 '무엇인가 필요를 요구하는 자'이다. 조력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야 한다. 질문을 받는 사람은 질문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줘야 한다. 그리고 정성어린 답변을 해야 한다. 만약 두 경우 모두에서 거절을 해야만 할 상황이라면 매우 정중하고 품위 있게 사절을 표해야만 한다. 믿는 자들이 지켜야 할 표준의 태도는 '예의 바름'이다. 어떤 도움이든 청해온 사람에게는 정중하고 예의바르게 응해야만 한다.

11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자비를 널리 전하고 선언할 것을 명받았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예언자에게 내려진 몇 가지 은혜들의 예를 이 장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것들은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하나 감지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이 무한하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들을 언급하고, 전하고, 선언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태도가 요구된다. 첫째는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가슴 속 깊이 인지해야 하고, 둘째는 그것을 우리의 혀로 되뇌이며 널리 전해야만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길은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며 그들에게도 유사한 은총이 내려지도록 기도하고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 알 두하 장의 가르침

◆ 우리가 어려움 속에 처해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들은 무한하고 그것들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내려지고 있다.

◆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우리의 배려를 보임으로써, 우리의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해야 한다.

제 94 장

# 앗 샤르흐 Ash-Sharh/알 인쉬라흐 Al-Inshirāh

## 확장의 장

8절로 되어 있은 비교적 짧은 이 장은 불신자들로부터 지독한 반대에 부딪혀 있던 역경의 시기에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를 위로해 주기 위해 내려왔다. 바로 앞의 제93장 안 두하(Aḍ-Ḍuḥā)가 계시된 직후, 이 장이 계시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 장 역시 이른 메카 계시이다. 일부 사람들은 첫 절이 시작되는 아람 나슈라흐(Alam Nashrah 우리가 열지 않았더냐?)라는 말을 그대로 이 장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선교(da'wah)활동 초기, 예언자는 박해 속에서 고군분투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에서 이미 그에게 베풀어주셨던 그분의 은혜와 축복들을 지적하시면서 미래에도 은혜와 평안이 그에게 내려질 것을 약속하

신다. 무슬림들은 이 장의 계시들을 비록 현재에는 곤경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길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무슬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신앙심을 고양시켜 주기 위해 내려진 특별한 메시지로 생각한다. 과거나 현재나 세계의 거의 모든 무슬림들이 예배 때마다 즐겨 이 장을 예배문으로 송독한다.

이슬람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영적인 어떠한 중간매체도 두지 않는다. 인간과 신의 직선적 관계를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예배, 선교, 교육 등 종교생활의 운영 방식에서 타 종교인들과 다른 면을 보인다. 그들에게는 성직자 제도, 사제 집단이 없다. 종교 교육자나 선교사를 따로 두지 않고 무슬림 누구나 자기 스스로가 선교사이고, 스스로가 누구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 길 위에서의 교육자임을 자처한다.

그분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답이 있을 것이다. 신도들의 선교활동이 고난 속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예언자의 사명이 끝내 성공을 거두었듯이 결국에는 그들도 성공하게 될 것이다. 무슬림들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일과를 마치면 예배에 헌신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그것이 모든 무슬림들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이다.

## 제94장 سُورَةُ الشَّرۡحِ

بِسۡمِ ٱللَّهِ ٱلرَّحۡمَٰنِ ٱلرَّحِيمِ

أَلَمۡ نَشۡرَحۡ لَكَ صَدۡرَكَ ١ وَوَضَعۡنَا عَنكَ وِزۡرَكَ ٢ ٱلَّذِيٓ
أَنقَضَ ظَهۡرَكَ ٣ وَرَفَعۡنَا لَكَ ذِكۡرَكَ ٤ فَإِنَّ مَعَ ٱلۡعُسۡرِ يُسۡرًا ٥
إِنَّ مَعَ ٱلۡعُسۡرِ يُسۡرٗا ٦ فَإِذَا فَرَغۡتَ فَٱنصَبۡ ٧ وَإِلَىٰ رَبِّكَ فَٱرۡغَب ٨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우리가 그대를 위해 그대의 가슴을 열어놓지[1] 않았더냐?

**02** 그리고 그대에게서 우리는 그대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었느니라.[2]

**03** 그대의 등을 짓누르고 있던 것[짐]을!

**04** 그리고 우리는 그대를 위해 그대의 명성을 높게 해주었느니라.[3]

**05** 실로 고난과 더불어 낙이 있느니라.[4]

**06** 실로 고난과 더불어 낙이 있느니라.

**07** 그러니 그대는 (일을) 마치면 (예배에) 헌신하라.[5]

**08** 그리고 그대의 주님께 (진심으로) 간구드려라.[6]

---

1) 나슈라흐(nashraḥ)는 '우리가 ~을 열다, 펼치다, 해명·설명하다'의 뜻으로 여기서 '가슴을 열다'는 '가슴을 펼쳐 크게 넓혀놓았다'라는 의미이다.

2) 위즈르(wizr)는 '죄의 짐'이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무함마드의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뜻.

3) 현세와 내세에서 예언자 무함마드의 이름과 위치를 높여주셨다는 뜻.

4) 역경과 함께 안락함이 있고, 어려움과 더불어 쉬움이 있다는 의미임.

5) 여가 시간이 되면 예배와 기도에 힘써야 한다.

6) 예배 중에는 주의력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드리며 도움을 간구드려야 한다.

## 해 설

1 이 장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베풀어주신 특별한 은혜 세 가지가 열거되면서 시작된다. 첫째, 가슴을 열고 넓혀주신 것. 둘째, 등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주신 것. 셋째, 이름과 지위를 오늘날까지 칭송받게 높여주신 것. '가슴을 넓혔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하나는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해 그의 가슴이 크고, 넓고, 순결하게 되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슬람 전승에서 전해지는 것과 같이 어린 시절 천사들에 의해 그의 가슴이 열려져 깨끗이 씻겨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수의 주석가들은 이것을 일반 무슬림에게도 적용되는 구절로 해석한다. 꾸란 제6장 알 안암(Al-'An'ām)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을 이슬람으로 열어놓으시니…"(꾸란 6:125)라는 구절이 있다. 그의 가슴을 이슬람의 빛을 받도록 열어놓고 넓혀주시며, 수고와 고난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다.

2-3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덜어주셨다'는 "하나님께서 과거와 미래의 그대의 죄들을 그대를 위해 용서해 주시니…"(꾸란 48:2)라는 의미이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내려진 신의 말씀은 무지하였던 무함마드 시대의 사람들 뿐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복음이요, 진리의 안내였다.

4 예언자 무함마드는 최후로 선택된 하나님의 사자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위와 명예를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높게 만드셨다.

무슬림들은 신앙증언(shahādah)으로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고백하여야 한다. 이 절의 의미는 불신자들의 박해와 반대가 결코 무함마드의 사명과 이슬람의 승리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의 사자는 생애 동안 이미 추종자들과 신앙인들에 의해 큰 존경을 받았고 오늘날까지 그의 명성은 바로 그의 앞에 온 예수의 명성과 더불어 세상에서 가장 높이 지속되고 있다.

5-6 압박과 박해의 고통 속에 있던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안락한 미래를 약속해 주셨다. 역경 뒤에는 편안함이 있다. 매사에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쉬움이 뒤따른다. 이슬람의 메시지를 설교하고 전파하던 예언자의 사명이 끝내 성공하였듯이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선교에 헌신하는 무슬림들에게도 큰 성취가 있을 것이다. 같은 절의 반복으로 이 절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7-8 일이 끝나고 자유로운 여가시간이 되면 예배에 힘써야 한다. 일단 예배를 시작하면 만사를 잊고 오직 예배행위에만 전념해야 한다. 어떤 잡념도 가져서는 안 된다. 주님께 모든 주의력을 돌리고 헌신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예언자의 하디스(Ḥadīth)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된다. 예를 들면 음식이 나올 때에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가르친다. (Muslim 1:393) 그만큼 예배에는 집중이 요구된다. 다음의 것도 똑같은 의미의 하디스이다. "예배를 드리려 할 때 저녁식사가 나오면 저녁식사부터 시작하라." (Fatḥ al-Bārī 9:498)

## 앗 샤르흐/알 인쉬라흐 장의 가르침

-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 믿는 자들은 지금 겪고 있는 고초와 어려움에 낙심하거나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 일이 끝나고 여가가 생기면 곧 미뤄두었던 예배와 기도에 헌신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도움과 자비를 성심껏 간구드린다.

제95장

# 알 틴 At-Tin
## 무화과의 장

하나님께서는 이 장에서 우리 인간을 그분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훌륭한 형태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신앙(īmān)을 지키고 선행 속에 살면 이 세상에서 만물의 영장이 되는 높은 지위에 있게 되고 내세에는 천국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꾸란의 여러 곳에서 수없이 되풀이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그날을 의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에서 불신자들과 우리에게 물으신다. 무엇이 그날을 부정하게 하느냐? 누가 가장 현명한 심판자이시냐?

우리는 어느 것이 무화과이고 올리브인지, 어디가 시나이 산이고 성도 메카인지 잘 알고 있다. 이런 것은 즉각 구별되고 이것을 보거나 들었을 때 우리가 금방 그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형태로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 자신을 동물에 비교해본다면, 이성을 갖고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수하게 창조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자만과 불신, 독선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위를 가장 열등하고 비천한 자리로 끌어내리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만 한다.

무화과 장은 무화과와 올리브, 시나이산, 성도 메카에 걸고 맹세하는 절들로 시작한다. 이러한 맹세는 사막이나 초원, 산과 들, 농촌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것에 걸고 맹세를 하면서 정말 극도로 강조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쓰는 수사적인 맹세이다. 무화과와 올리브는 대추야자와 함께 아라비아 반도,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풍요와 삶의 상징이다. 많은 주석가들이 무화과와 올리브는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과 예수를, 시나이산은 예언자 모세를, 안전하고 신성한 도시 메카는 예언자 무함마드를 상징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하나님께서 이 장에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들에 걸고 맹세를 하시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올리브가 우리에게 있듯이, 시나이 산과 메카가 우리에게 있듯이 심판의 날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믿듯이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에 따르며, 믿음 속에서 의롭게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축복이 내려질 것이다. 부활의 날 불신자들은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이 되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이 장의 중심 주제는 꾸란 제103장 알 아쓰르(Al-'Aṣr)에서도 유사하게 되풀이된다.

제 95 장 سُورَةُ التِّينِ

بِسْمِ ٱللَّهِ ٱلرَّحْمَٰنِ ٱلرَّحِيمِ

وَٱلتِّينِ وَٱلزَّيْتُونِ ﴿١﴾ وَطُورِ سِينِينَ ﴿٢﴾ وَهَٰذَا ٱلْبَلَدِ ٱلْأَمِينِ ﴿٣﴾

لَقَدْ خَلَقْنَا ٱلْإِنسَٰنَ فِىٓ أَحْسَنِ تَقْوِيمٍ ﴿٤﴾ ثُمَّ رَدَدْنَٰهُ أَسْفَلَ سَٰفِلِينَ ﴿٥﴾

إِلَّا ٱلَّذِينَ ءَامَنُوا۟ وَعَمِلُوا۟ ٱلصَّٰلِحَٰتِ فَلَهُمْ أَجْرٌ غَيْرُ مَمْنُونٍ ﴿٦﴾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무화과와 올리브 나무[1]와

**02** 시나이 산[2]과

**03** 이 안전[신성]한 도시[3]에 걸고 맹세하건대

**04** 참으로 우리는 인간을 가장 훌륭한 형상[4]으로 창조하였느니라.

**05**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를 낮은 자중 가장 낮은 자로 낮추기도 하느니라.[5]

**06** 그러나 믿는 사람들과 올바른 (선행)자들은 제외되나니, 그들에게는 끝없는 보상[6]이 있을 것이다.

---

1) 일부 주석가들은 여기서의 무화과와 올리브가 이 과일들의 주산지인 시리아와 예루살렘을 각각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2) 시나이 산은 토라(tawrāh 오경)가 모세(Mūsā)에게 계시된 산이다.
3) 안전한 도시란 꾸란이 계시된 신성한 도시, 메카(Makkah)를 가리킨다.
4) 타끄윔(taqwīm)은 '형체, 모양, 형태'를 뜻한다.
5) 불신과 독선의 길을 걸으면 가장 비천한 지위로 떨어진다는 뜻.
6) 끝없는 보상은 영원히 사는 '천국의 삶'을 말한다.

## 제 95 장

فَمَا يُكَذِّبُكَ بَعْدُ بِٱلدِّينِ ﴿٧﴾ أَلَيْسَ ٱللَّهُ بِأَحْكَمِ ٱلْحَٰكِمِينَ ﴿٨﴾

**07 (이런) 후에도 무엇이 너희들[7]로 하여금 종교(의 날)[8]을 부정하게 하느냐?**

**08 하나님께서 최고의 심판자가 아니시더냐?**

---

7) 불신자들을 가리킨다.

8) 앋 딘(Ad-dīn)은 '종교'로, 여기서 '종교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 해 설

1 여기서 무화과와 올리브는 두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과일에 연관되어서는 이 두 과일이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 중에서도 유용성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쓰여졌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지역에 연관되어서 이 두 과일이 비교적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두 땅을 각기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많은 주석가들은 무화과와 올리브는 특히 예루살렘 땅을 상징하며 이는 예언자 예수를 가리키는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 주석가들은 여기서의 무화과를 예언자 노아(Nūḥ)의 방주가 물위를 떠다니다가 마침내 정박한 산에서 발견된 무화과 나뭇가지라고 해석한다. 마찬가지로 올리브 역시 방주에서 밖으로 나갔던 비둘기가 물고와서 노아로 하여금 자신이 땅 위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해 준 그 올리브 나뭇가지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2-3 시나이 뚜르(ṭūr)는 모세에게 토라가 계시된 시나이 산이다. 그리고 안전의 도시는 물론 하나님의 집, 성스러운 카아바가 있는 메카이다. 메카는 이슬람 이전 시대에도 아랍인들 사이에서 성스럽고 불가침의 안전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다. 무슬림들에게 메카는 제일의 성도이다. 메카는 꾸란이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되기 시작한 땅이고, 무슬림은 평생에 적어도 한번 메카로 가 정해진 순례 의식을 거행해야 한다.

4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한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 계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신성한 이 네 장소에 걸고 맹세하셨다. 바로 그것은 "인간이 가장 훌륭한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은 육체적 외양뿐 아니라, 정신적 속성에서도 천부의 재능이 부여된 하나님의 창조물 중의 최고이다. 우리에게 이성과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 땅에서 신의 대리인이 되게 하셨다. 그뿐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베푸신 자비와 최고의 친절은 바로 그분의 의지를 계시[꾸란]로 우리에게 내려주셨고 또 가르쳐주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계시, 꾸란과 신법(*神法*)에 복종하고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최고 형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

5 그러나 만약 우리가 계시와 신법을 거부하고 독선과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산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가장 낮은 지위로 강등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특별한 속성과 힘과 재능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는 악마의 화신으로 전락하거나 벌레보다 못한 비천한 존재가 될 것이다. 부활의 날을 부정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불신자들은 심판의 날, 가장 낮은 가장 비참한 자의 모습으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대리인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천사보다도 높은 등급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다(꾸란 제2장 알 바까라Al-Baqarah 2:30-39 참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대로 최고의 속성과 능력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보존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6 가장 낮은 비천한 지위로 전락하지 않는 예외의 그룹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과 저

세상 양쪽에서의 보상이 약속되어져 있다.

7-8 우리가 최고의 형상과 지위로 남아 있느냐, 비천한 지위로 떨어지느냐 하는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 심판의 날을 부정하고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있을 뿐이다.

## 알 틴 장의 가르침

-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최고의 속성을 가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다.
-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가 택한 행동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의 위치로 전락할 잠재성도 갖고 있다.
- 그분께서는 우리 인류 모두를 인도하시기 위해 그분의 계시를 오랜 인류역사를 통해 내려 주셨다. 모세와 예수와 무함마드가 가져온 메시지는 같은 뿌리의, 같은 내용의 계시들이다.
- 꾸란의 계시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 중 최고인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진정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계시와 신법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제 96 장

# 알 알라끄 Al-'Alaq

## 응혈의 장

이 장은 이끄라(Iqra' 읽어라!)의 장이라고도 불려진다. 계시 내용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 부분은 1~5절로 하나님의 사자 무함마드가 히라 동굴에서 처음 받은 계시들이고(서기 610년), 두 번째 부분은 나머지 6~19절로 약 1년 정도 계시가 내려오지 않다가, 무함마드가 예언자라는 소식이 메카 사회에 퍼지자 메카인들의 반대가 자라나기 시작하였을 때 내려진 계시들이다.

첫 부분은 꾸란 계시가 처음으로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들이므로 매우 중시된다. 하나님의 사자가 히라 동굴에서 명상 속에 앉아 있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다가와 "읽어라!"라고 명령하였다. 무함마드는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문맹인이었다. 따라서 그는 "저는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릅니다."라고 대답했다. 천사가 그를 강하게 껴안듯이 억누르며 반복해 말하였다. "읽어라!" 무함마드는 똑같은 대답을 되풀이하였다. 천사가 그를 세 번째 압력을 가하듯이 얼싸 안았고 다시 명령하였다. "읽어라!"

하나님의 사자 무함마드의 마음이 마침내 하나님의 첫 계시를 받아들이기 위해 열렸다. 그는 천사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게 되었다. 천사 가브리엘을 따라서 이렇게 이 장의 첫 다섯 절이 송독된다.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가르쳐진 신앙[종교]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내려진 계시이다. 그들에게는 아직, 오직 한 분 뿐이신 알라를 받아들이고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스스로 자족할 수 있다고 자만해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도의 선을 쉽게 넘어선다. 그 결과는 자명하다.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 찬 그들의 머리는 심판의 날, 천사들에 의해 붙잡혀져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 제96장 سُورَةُ الْعَلَقِ

بِسْمِ ٱللَّهِ ٱلرَّحْمَٰنِ ٱلرَّحِيمِ

ٱقْرَأْ بِٱسْمِ رَبِّكَ ٱلَّذِى خَلَقَ ﴿١﴾ خَلَقَ ٱلْإِنسَٰنَ مِنْ عَلَقٍ ﴿٢﴾ ٱقْرَأْ وَرَبُّكَ
ٱلْأَكْرَمُ ﴿٣﴾ ٱلَّذِى عَلَّمَ بِٱلْقَلَمِ ﴿٤﴾ عَلَّمَ ٱلْإِنسَٰنَ مَا لَمْ يَعْلَمْ ﴿٥﴾ كَلَّآ إِنَّ
ٱلْإِنسَٰنَ لَيَطْغَىٰٓ ﴿٦﴾ أَن رَّءَاهُ ٱسْتَغْنَىٰٓ ﴿٧﴾ إِنَّ إِلَىٰ رَبِّكَ ٱلرُّجْعَىٰٓ ﴿٨﴾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읽어라![1]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대 주님의 이름으로.**

**02 그분께서는 한 응혈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03 읽어라! 그대 주님은 가장 관대하신 분.**

**04 펜으로(쓰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시고,**

**05 알지 못했던 것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셨느니라[2].**

**06 아니다! 그러나, 실로 인간은 한도를 넘어서느니라.[3]**

**07 그는 자기 스스로 자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08 실로 돌아갈 곳은 그대 주님 앞 뿐이니라.**

---

1) 이끄라(iqra')는 '읽다'라는 동사 까라아(qara'a)의 명령형으로 '읽어라!' '낭송하라!' '암송하라!'의 뜻이다.

2)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신다.

3) 오만과 불신앙, 악행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정도와 법도에서 벗어나기 일쑤이다.

## 제96장

أَرَءَيْتَ ٱلَّذِى يَنْهَىٰ ﴿٩﴾ عَبْدًا إِذَا صَلَّىٰٓ ﴿١٠﴾ أَرَءَيْتَ إِن كَانَ عَلَى
ٱلْهُدَىٰٓ ﴿١١﴾ أَوْ أَمَرَ بِٱلتَّقْوَىٰٓ ﴿١٢﴾ أَرَءَيْتَ إِن كَذَّبَ وَتَوَلَّىٰٓ ﴿١٣﴾
أَلَمْ يَعْلَم بِأَنَّ ٱللَّهَ يَرَىٰ ﴿١٤﴾ كَلَّا لَئِن لَّمْ يَنتَهِ لَنَسْفَعًۢا
بِٱلنَّاصِيَةِ ﴿١٥﴾ نَاصِيَةٍ كَـٰذِبَةٍ خَاطِئَةٍ ﴿١٦﴾ فَلْيَدْعُ نَادِيَهُۥ ﴿١٧﴾

**09** 그대는 방해하는 자[4]를 보았느냐?

**10** 한 종[무함마드]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가 방해했느니라).

**11** 그대는 그가 (하나님의) 인도된 길 위에 있다고 보았느냐?

**12** 아니면 그가 (신에 대한) 경건함을 명하고 있다고(보았느냐?)

**13** (아니면) 그대는 그가(진리를) 부인하고 등을 돌렸다고 보았느냐?

**14**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5** 아니다! 만약 그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의) 앞머리를[5] 잡아끌리라.

**16** 거짓말하고 죄 많은 앞머리를!

**17** 그러니 그로 하여금 그의 동아리[6]에 (도움을) 청하게 하라.

---

4) 아부 자흘(Abū Jahl)을 가르킨다. 그는 무함마드와 추종자들이 예배하는 것을 자주 방해하였다.

5) 앞머리는 인간의 능력, 권위, 위엄의 상징이다. 죄인이 지옥에 던져질 때 천사는 그의 앞머리와 발목을 잡고 던진다.

6) 그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동료 또는 조력자들의 무리를 뜻함. 아부 자흘이 메카에서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적대하여 구성했던 위원회를 가리킴.

## 제 96 장

سَنَدْعُ ٱلزَّبَانِيَةَ ﴿١٨﴾ كَلَّا لَا تُطِعْهُ وَٱسْجُدْ وَٱقْتَرِب ۩ ﴿١٩﴾

**18 우리는 지옥[징벌]의 천사들[7]을 부를 것이다.**

**19 아니다! 그[아부 자흘]에게 순종하지 말라.[8] (그대는) 엎드려 예배하고[9] (주님께) 가까이 하라!**

---

7) 지옥의 파수꾼, 징벌의 천사들을 일컫는다. 그[아부 자흘]를 처리하기 위해 그들을 부를 것이다.

8) '아부 자흘과 같은 불신자를 따르지 말라. 두려워 말라'의 의미임.

9) 우스주드(usjud 엎드려 절하라!)는 동사 싸자다(sajada ~에게 머리를 조아리다, 절하다)의 명령형이다. 싸즈다(sajdah 절, 예배, 숭배)는 무슬림 예배자가 엎드려 절하는 자세이다. 이때 앞머리, 양손바닥, 양 무릎, 양발 끝 발가락들이 바닥에 닿아있게 된다. 이 동사가 들어있는 절은 무슬림들에게 특별하다. 여기서의 명령(엎드려 예배하라!)처럼 엎드려 절해야 한다. 이런 싸즈다의 절은 다음 14곳이다. 꾸란 7:206, 13:15, 16:50, 17:109, 19:58, 22:18, 25:60, 27:26, 32:15, 38:24, 41:38, 53:62, 84:21, 96:19. 이맘 샤피이(Imām ash-Shāfi'ī)는 꾸란 22:77을 추가하여 15곳으로 말하고 있다.

# 해 설

1 하나님의 사자 무함마드에게 내려진 첫 계시의 말씀은 '읽어라' (Iqra')라는 명령이었다. 이끄라는 '읽어라, 낭송하라, 암송하라'의 뜻이다. 이 한마디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는 위대한 한 예언자로서의 사명이 그에게 부여되고 시작되었다.

2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님' (Rabb)이시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길러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영육의 성장과 쇠퇴, 현세 삶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주시는 분이시다. 인간은 그분의 '최고의 고귀한 창조물' (ashraf al-makhlūqāt)이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거의 보이지도 않는 한 작은 응혈로부터 창조하셨다. 그러고는 우리 인간을 이 땅의 대리인으로 세우셨다.

3-4 하나님께서는 가장 관대하신 분, 가장 고귀하신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우리 인간이 배우고, 깨닫고, 노력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 가는 특별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지닌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분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축복 중의 하나가 지식이다. 말하고 쓰고 문서화할 줄 알면서 인간은 지식과 지혜를 다음 세대로 전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세대는 지난 세대에서 쌓아올린 지식을 토대로 문명화를 이룩하고 다시 그 위에 새로운 지식을 쌓아 더 과학화하고 발전한 문명세계를 보존하고 만들어간다.

5 인류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알지 못하던 것을 찾고 알아내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지식 추구에 대한 인간의 목마름과 탐구열은 앞으로도 계속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

6-8 이 절들은 일반적으로는 보편적인 인간심리를, 특별하게는 꾸라이쉬 수장들의 행동들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잠재력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물이 이루는 성취를 우리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일궈낸 업적이라 생각하고 큰 일을 해낼수록 더욱 교만해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인간은 오만해져 자주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한다. 스스로 못할 것이 없다는 자만에 빠져 도를 넘는 행동을 하기 십상이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일쑤고, 게다가 우리 인간이 돌아갈 곳이 주님께라는 사실도 잊는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선물이 강한 정신력, 아름다움, 부, 권력, 지위, 뛰어난 재능, 과학지식, 예술감각, 웅변술, 친화력, 인내심 등 어느 것인지를!

9-10 이 말씀의 대상은 일반적으로는 신의 법에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불신자들을 의미하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이슬람 선교 초기, 무슬림들의 최대 적대자로 손꼽히는 아부 자흘(Abū Jahl)을 가리킨다. 그는 예언자와 추종자들을 모욕하고 박해한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사람들이 예언자의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고 예언자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특히 하나님의

사자와 무슬림들이 카아바로 가서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다. 그는 매우 교만했고 늘 쌓아놓은 재물을 자랑했으나 모두가 덧없는 일이었다. 그는 이 계시가 내려지고 13년 뒤에 메카의 불신자들과 메디나의 무슬림들 간에 벌어진 바드르(Badr) 전투에서 최후를 맞았다.

11-14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계시다. 그분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한 사람의 성정(性情)을 파악하는 세 가지 주요 사항을 제시하셨다. 1) 그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올바른 안내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2)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올바른 선행을 할 것을 권하고 있는가? 3) 그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를 거부하고 부인하며 거짓말을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언제나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15-16 하나님께서는 아부 자흘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악행을 중지하라고 경고하셨다. 심판의 날 그의 앞머리는 잡아 끌려지게 될 것이다. 앞머리는 인간 존엄과 명예의 대표적 상징이다. 그것이 잡아 끌려짐은 극도의 수치요 모멸이다. 지옥의 천사들은 악행자들을 앞머리와 발목을 붙잡고 지옥의 불로 던져 넣을 것이다.

17-18 우상 숭배자였던 꾸라이쉬 사람들은 아부 자흘에 동조했고, 예언자와 대적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무슬림들을 박해하였다. 심판의 날 불신자는 그를 도와 줄 동료들을 아무리 찾아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아무도 죄인을 중재할 수 없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다. 그분께서 단지 그분의 군병들인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

실 뿐이다. 그분은 최고의 재판관이시다.

19 올바르고 의로운 사람은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그에게 닥쳐오는 악의 힘을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겸손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강한 자기 방어 행위이다. 이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악한 자들을 두려워 말라고 명령하신다. 대신에 믿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해야 한다. 아랍어 싸즈다(sajdah)는 '절, 부복, 엎드림'으로 완벽한 복종의 자세이다.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 엎드림은 신자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게 되는 자세인 것이다. 이 절은 매우 중요하다. 싸즈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절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인다는 순종과 겸허한 자세 싸즈다는 무슬림의 의무행위이다. '싸즈다의 절'은 꾸란의 14곳에 있다. 이 절의 독경 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 명령에 복종한다는 상징으로 신도들은 엎드려 절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슬림의 훌륭한 실천 행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다. 동정맥보다 더 가까이 계시다. (꾸란 50:15 참조)

## 알 알라끄 장의 가르침

-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우리와 함께 한다.
-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는 무한하다. 그것들은 우리 삶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베풀어진다.
- 우리가 타인에게 선행을 하고 타인에게 먼저 배려를 보이는 행동이 곧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행동임을 알아야 한다.

제97장

# 알 까드르 Al-Qadr

## 권능의 밤의 장

최초로 내려진 꾸란 계시는 앞 장인 제96장의 1-5절이다. 당시 하나님의 사자 무함마드는 40살이었다. 이때 그는 혼자 있기를 좋아했고 기도하며 명상하는 시간을 즐겼다. 그래서 그는 히라(Ḥirā') 산의 한 동굴에 자주 가곤 하였다. 어느 날 밤, 홀연히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읽어라!" 신의 사자는 무엇인가 쓰여진 것을 읽으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저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인이었다. 그러나 천사는 세 차례나 읽을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계시를 전한다. "읽어라! (만물을) 창조하신 그대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께서는 한 응혈로부터 인간을 창조하셨느니라! 읽어라! 그대 주님은 가장 관대하신 분, 펜으로(쓰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시며

그[인간]가 알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 주셨느니라." (꾸란 96:1~5) 이렇게 꾸란 최초의 절들이 이 특별한 밤에 계시되었다.

이 장은 첫 번째 계시가 내려진 이 특별한 밤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 밤은 '권능의 밤' (laylah al-qadr)이라고 불린다. '천명의 밤', '신의의 밤', '영예의 밤'이라고도 불리며 특히 꾸란의 다른 장(꾸란 44:3)에서는 '축복의 밤' (laylah mubārakah)이라고 일컬어졌다. 이 밤은 위대하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하신 신의(神意)와 권능을 보여주고 있는 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이 내려진 이 밤은 우주만물이 보고 겪어왔던 모든 사건들 중 가장 값진 일이 일어난 밤이 되었다. 이 밤은 정말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꾸란의 빛이 우주만물에 비추어졌고 신성한 평화가 우리의 삶에 널리 퍼질 수 있게 되었다. 이 밤은 위대하다. 꾸란의 밤이기 때문이다. 꾸란은 완전한 삶의 방식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꾸란은 우리 인류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서로를 향해 행동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안내와 지침, 기초와 원리를 담고 있다. 이 밤은 위대하다. 이 밤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허가에 의해 하늘로부터 강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밤을 회개와 예배, 기도 속에 보냄으로써 갱생과 새 삶의 축복을 받게 된다. 무슬림은 이 밤의 회개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주신다고 믿는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누구든지 보상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보상을 염원하고 추구하면서 권능의 밤에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염송 속에 밤을 새우는 자는, 그분께서 그의 과거 죄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알 부카리 al-Bukhārī와 무슬림 Muslim의 하디스 집)

세계 전역에서 무슬림들은 이슬람력 9번째 달 라마단의 마지막 열흘 밤 동안을 기도와 예배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메시

지의 참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 마스지드에서 예배에 몰두하고 특별한 기도문을 암송하며 기도하고 꾸란을 읽으며 예배와 묵상으로 피정의 시간을 보내며 산다. 이를 이으티카프(i'tikāf)라고 한다. 권능의 밤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허가로 이 땅에 내려온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수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영적으로 가장 충만해지는 밤이다. 영생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풍요로움의 최고의 순간과 그 경지를 경험하기 위해, 라마단 월 마지막 열흘이 되면 거의 모든 날을 마스지드에서 밤을 지새운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른 한 해인 새해를 설계한다. 권능의 밤인 그날이 언제인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예언자 무함마드는 이 밤을 라마단 월 마지막 열흘 안에서 찾으라고 말하였다. 또 전승에 따르면 그날은 홀수 날이기 때문에 23, 25, 27일 중 하루일 것이라고 전해진다. 무슬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27일이 될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 제 97 장 سُورَةُ الْقَدْرِ

بِسْمِ ٱللَّهِ ٱلرَّحْمَٰنِ ٱلرَّحِيمِ

إِنَّآ أَنزَلْنَٰهُ فِى لَيْلَةِ ٱلْقَدْرِ ١ وَمَآ أَدْرَىٰكَ مَا لَيْلَةُ ٱلْقَدْرِ ٢

لَيْلَةُ ٱلْقَدْرِ خَيْرٌ مِّنْ أَلْفِ شَهْرٍ ٣ تَنَزَّلُ ٱلْمَلَٰٓئِكَةُ وَٱلرُّوحُ

فِيهَا بِإِذْنِ رَبِّهِم مِّن كُلِّ أَمْرٍ ٤ سَلَٰمٌ هِىَ حَتَّىٰ مَطْلَعِ ٱلْفَجْرِ ٥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진실로 우리는 이 (꾸란)을 권능의 밤[1]에 내려주었느니라.

**02** 권능의 밤이 무엇인지 그대에게 알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2]

**03** 권능의 밤은 천 월(月) 보다 더 나으니라.[3]

**04** 천사들과 성령[가브리엘][4]이 그들 주님의 허가로 모든 명령을 갖고 내려오느니라.

**05** 여명이 밝아올 때까지 (그 밤 내내) 평화가 있으리라.[5]

---

1) 권능의 밤은 '축복의 밤, 운명의 밤, 신명(神命)의 밤' 등 여러 다른 말로도 표현된다.
2) 이 거룩한 밤, 꾸란의 첫 계시가 내려오기 시작하여 그 후 23년 동안 가브리엘 천사가 무함마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3) 권능의 밤에 예배드리는 것은 천 달 동안 드리는 예배보다 낫다는 뜻이다.
4) 여기서 아르 루흐(ar-rūh 영)는 가브리엘 천사를 뜻한다. 하나님의 성스러운 특별한 명령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번역한다.
5) 이 밤의 도래로 사회의 어둠과 무질서가 걷히고, 하나님의 광명이 비친 평화와 조화로운 질서의 이슬람 사회가 열린다.

## 해 설

1-2 아랍어 까드르(Qadr)는 힘, 능력이라는 뜻과 운명, 숙명이라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권능의 밤'은 성스러운 꾸란이 계시된 밤이다.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의지와 결정이 만들어져 이 땅에 전해진 밤이다. 그리고 이 밤에 가브리엘을 비롯한 많은 천사들이 신명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는 위대한 '신명의 밤'이다.

3 이 밤은 특별한 '축복의 밤'이다. 일반적으로 이 절은 권능의 밤에 드리는 예배는 천 달 동안 드리는 예배보다 낫다고 해석된다. 예배뿐만 아니라 이 날의 선행과 단식에는 천 개월 동안에 내려지거나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한 특별한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천 달은 84년 4개월로 대체로 평균적인 인간의 수명이다. 그렇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여기서 천이란 숫자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에 동의한다. 그것은 숫자의 개념,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것으로 이 밤의 위대한 의미와 특별한 축복을 우리에게 이해시켜주기 위해 쓰여진 것으로 해석한다. 그것을 숫자의 개념, 시간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것은 매우 오랜 시간을 의미하는 '무한의 시간'을 뜻하고, 그것은 오히려 '시간이 없음'을 뜻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빛이 내려져 밝고 새로운 세상 삶이 열리는 그 순간은 천 달 혹은 천년의 동물적 삶의 시간보다 위대하고 값진 시간이다. 어두웠고 무지했던 세상에서 신의 광명이 비친 새 세상으로 전환되는 갱생의 순간인 것이다.

4-5 천사들은 이 축복의 밤에 특별한 명령을 받고 이 땅에 강림한다. 이 밤은 '평화의 밤'이다. 날이 밝아올 때까지 무슬림들은 기도와 예배 속에 천사들과 함께하는 영성의 시간을 보낸다. 경외심은 진정한 마음속 평화를 얻게 하고 영원한 내세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신앙심을 고양시켜 우리 영혼 속에 깃들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새로운 세상의 여명이 밝아올 때까지 마음속의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부인 아이샤('Ā'ishah)는 하나님의 사자 무함마드의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였다. "라마단 달 마지막 10일 중 홀수의 밤에서 권능의 밤을 찾아라"(알 부카리의 하디스집 Ṣaḥīḥ al-Bukhārī, Vol. 3, Ḥadīth no. 234) 이때뿐 아니라 사실상 독실한 무슬림들은 라마단 달 내내 단식과 예배 속에 반성과 회개, 갱신의 시간을 보낸다. 라마단 달 동안 배우고 깨닫는 인내와 교훈, 승화된 정신이 다가오는 일 년 내내, 나아가 일생동안 그들의 삶을 위해 지속되길 기원한다.

## 알 까드르 장의 가르침

- 꾸란은 권능의 밤에 계시되었다. 그 밤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류를 위해 만들어져 내려진 위대한 밤이다.
- 권능의 밤에 드리는 예배는 자선, 선행과 더불어 천 달의 예배보다 낫다.

◆ 우리는 라마단 달 마지막 10일 밤들 중에서 권능의 밤을 찾아야 한다. 권능의 밤이 있는 열흘 동안 뿐 아니라 우리는 라마단 달 내내 단식, 예배, 자선, 선행을 하고 반성, 회개 속에 갱생을 추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제 98 장

# 알 바이이나 Al-Bayyinah

## 분명한 증거의 장

일부 사람들은 이 장을 후기 메카 계시로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 권위 있는 꾸란학자들이 초기 메디나의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덟 절로 되어 있으며 성서의 백성들인 유대교인과 그리스도교인들이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최후 사자 무함마드의 사명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들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장은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신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불복종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불신자들이다. 물론 이러한 분류는 민족, 종족, 언어, 피부색, 출신 등에 관계없이 신앙과 믿는 행동에 기초한 것이다.

이 장의 이름은 첫 절의 끝에 나오는 단어 '분명한 증거'이다. 불신자

들이 믿음을 갖기 이전에 마치 하늘로부터 기적이나 천사가 내려오듯이 그들에게 내려지기를 요구했던 '분명한 증거' (꾸란과 최후 예언자 무함마드의 도래)에서 취해진 것이다. 이븐 카시르와 같은 일부 주해가들은 첫 절의 첫 단어 '람 야쿤(Lam Yakun)'을 이 장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첫 절에서는 만약 꾸란이 계시되지 않았다면 성서의 백성들과 우상숭배자, 다신교도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계속 어둠과 무지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을 의혹과 불신의 어둠에서 끌어내어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한 사람은 최후 예언자 무함마드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에서 올바른 신앙과 실천의 기초 세 가지를 가르치신다. 첫째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 둘째는 예배를 드리는 것, 셋째는 자카트(구빈 종교세, 희사)를 바치는 것이다. 성서의 백성들인 유대교인과 그리스도교인들은 무슬림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같은 뿌리의 신앙인들이다. 그러나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예수의 뒤를 이어 예언자 무함마드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성서, 분명한 증거(꾸란)를 전하려고 보내졌는데 그 진리를 거부하고 아직도 그들의 길만을 고집하고 있다.

또, 이 장에서는 진실한 신앙인들에 의해 향유될 영원한 천국의 축복과 대조하여 불신자들에게 내려질 지옥불의 형벌을 묘사하고 있다. 성서의 백성들 중 끝내 진리를 외면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다신교도, 우상숭배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진실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에 기뻐하시고, 그들은 그분과 함께 있음에 기뻐한다."는 이 장의 마지막 절의 마지막 계시를 중시한다. 그들의 주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 제 98 장 سُورَةُ البَيِّنَةِ

بِسۡمِ ٱللَّهِ ٱلرَّحۡمَٰنِ ٱلرَّحِيمِ

لَمۡ يَكُنِ ٱلَّذِينَ كَفَرُواْ مِنۡ أَهۡلِ ٱلۡكِتَٰبِ وَٱلۡمُشۡرِكِينَ مُنفَكِّينَ حَتَّىٰ
تَأۡتِيَهُمُ ٱلۡبَيِّنَةُ ١ رَسُولٞ مِّنَ ٱللَّهِ يَتۡلُواْ صُحُفٗا مُّطَهَّرَةٗ ٢ فِيهَا كُتُبٞ قَيِّمَةٞ
٣ وَمَا تَفَرَّقَ ٱلَّذِينَ أُوتُواْ ٱلۡكِتَٰبَ إِلَّا مِنۢ بَعۡدِ مَا جَآءَتۡهُمُ ٱلۡبَيِّنَةُ ٤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성서의 백성들[유대교인과 그리스도교인들]과 다신교도[우상숭배자들][1] 중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한 증거가[2] 그들에게 왔을 때까지 (그들의 불신을) 떠나려 하지 않았느니라.[3]

**02** 하나님으로부터의 한 사자[무함마드]가 정화된[4] 페이지들[꾸란][5]을 낭송하기 (까지는).

**03** 그 안에 올바른 성서[책]들이[6] 있느니라.

**04** 성서를 받은 자들이 나누어진 것은 분명한 증거가 그들에게 내려온 후

---

1) 알 무슈리쿤(al-mushrikūn)은 다신교도, 이교도, 우상숭배자와 하나님의 유일성과 그 분의 사자 무함마드를 불신하는 자 모두에 대한 통칭이다.

2) 알바이이나(al-bayyinah 분명한 증거)는 최후 예언자의 도래와 성서 꾸란을 가리킨다. 이 단어에서 '명증의 장'이라는 이 장의 이름이 붙여졌다.

3) 그들의 잘못된 길을 바꾸려하지 않는다. 또는 그들의 길을 끝내려 하지 않았다.

4) 무따흐하라(muṭahharah)는 '깨끗이 정화된', '순수해진', '순결해진'의 뜻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인위적 첨삭으로 인해 생긴 오류들(알 바띨 al-bāṭil)로부터 '깨끗이 순화된'의 의미이다.

5) 문자적인 쑤후프(ṣuḥuf, ṣaḥifah의 복수형)의 뜻은 '페이지들'이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꾸란에 '쓰여져 있는 것'이다.

6) 까이이임(qayyim)은 '곧바른, 올바른, 표준이 되는'의 뜻이다. 여기서 쿠투브(kutub 책들)를 하나님으로부터의 성서들, 경전들로 번역하지 않고, 성스러운 기록들, 율법들, 법령들로 해석하기도 한다.

## 제 98 장

وَمَآ أُمِرُوٓاْ إِلَّا لِيَعۡبُدُواْ ٱللَّهَ مُخۡلِصِينَ لَهُ ٱلدِّينَ حُنَفَآءَ وَيُقِيمُواْ ٱلصَّلَوٰةَ
وَيُؤۡتُواْ ٱلزَّكَوٰةَۚ وَذَٰلِكَ دِينُ ٱلۡقَيِّمَةِ ٥ إِنَّ ٱلَّذِينَ كَفَرُواْ مِنۡ أَهۡلِ
ٱلۡكِتَٰبِ وَٱلۡمُشۡرِكِينَ فِي نَارِ جَهَنَّمَ خَٰلِدِينَ فِيهَآۚ أُوْلَٰٓئِكَ هُمۡ شَرُّ ٱلۡبَرِيَّةِ
٦ إِنَّ ٱلَّذِينَ ءَامَنُواْ وَعَمِلُواْ ٱلصَّٰلِحَٰتِ أُوْلَٰٓئِكَ هُمۡ خَيۡرُ ٱلۡبَرِيَّةِ ٧

부터이니라.[7]

**05** 그들이 명령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고, 참 신앙인들[후나파아][8]로서 그분께만 종교로 진실되게 헌신하며, 예배를 근행하고 자카트를 바치라는 것이다. 그것이 올바른 종교다.

**06** 실로, 성서의 백성들과 다신교도 중 믿지 않는 자들은[9] 지옥불 속에 있을 것이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 그들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피조물들이니라.

**07** 실로 믿는 자들과 올바른 선행을 한 자들은, 그들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피조물들이니라.

---

7) 여기서와 7절에서의 마~일라(mā~'illā ~하기까지는 ~않다)를 쉬운 이해를 위해 긍정문으로 번역하였다. 성서를 받은 자들인 유대교도, 그리스도교도, 무슬림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이자 예증이 그들에게 내려온 뒤에 분파되었다.

8) 후나파아(ḥunafā', 하니프ḥanīf의 복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순정한 일신교도', '순수한 신앙인'을 말한다.

9) 이슬람교, 꾸란, 예언자 무함마드를 불신하는 자들.

## 제 98 장

جَزَآؤُهُمْ عِندَ رَبِّهِمْ جَنَّٰتُ عَدْنٍ تَجْرِى مِن تَحْتِهَا ٱلْأَنْهَٰرُ خَٰلِدِينَ

فِيهَآ أَبَدًا ۖ رَّضِىَ ٱللَّهُ عَنْهُمْ وَرَضُوا۟ عَنْهُ ۚ ذَٰلِكَ لِمَنْ خَشِىَ رَبَّهُۥ ﴿٨﴾

**08** 그들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들(에게)의 보상은 그 아래에 강들이 흐르는 에덴의 정원[천국]들이고, 그들은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그들은 그분과 함께 기뻐하리라. 그것은 그의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한 것이니라.

## 해 설

1-2 성서의 백성들과 우상숭배자들은 오도된 길을 걷고 있었다. 그들은 올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해 줄 하나님으로부터의 한 분명한 메시지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최후 사자를 꾸란과 함께 파송하기로 결정하셨다. 그가 가져온 메시지는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었다. 앞선 경전들[모세의 오경과 예수의 복음서들]의 내용을 확증해 주고 일부 잘못된 부분을 교정, 보완, 순화시켜 명백하고 완벽하게 한 것이었다.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도록 내려진 것이다.

여기서 성서의 백성들이란 유대교인과 그리스도교인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파견되어 온 똑같은 예언자 계보[아담에서 무함마드에 이르는]와, 똑같은 내용과 계시의 성서들을 가진, 같은 뿌리의 신앙인들이다. 그들의 성서에서도 분명히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의 도래는 예고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사촌 혹은 형제들[아랍인]중에서 모세 같은 한 예언자를 약속하셨다(신명기 18:15). 예수의 복음서에서도 보혜사의 도래가 언급되어 있다(요한복음 14:16, 15:26, 16:7). 그러나 그들은 진리의 올바른 종교에서 벗어나 있었다. 약속된 예언자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였지만 또 다른 많은 수는 진리를 거부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것은 진정한 진리의 길에서 무엇을, 어떻게 그들 스스로가 벗어나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신교도, 이교도, 우상숭배자들은 앞서 내려진 하나님의 경전들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분명한 증거가 왔을 때, 오히려 많은 수가

그 진리를 받아들였다. 예를 들면 아랍인, 페르시아인, 터키인, 아시아인들, 아프리카인들 등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러나 아직도 또 다른 많은 수가 진리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상상과 욕망을 따를 뿐이다. 진리나 올바른 삶을 보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3-5 성서의 백성들은 일찍이 그들에게 내려진 경전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들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 [알라]께만 경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그분의 종교를 순수하게 지켜야 한다는 명령도 받았다. 그러나 성서를 받은 자들이 분파한 것은 그들에게 이러한 분명한 증거들이 내려온 후부터였다. 그들의 경전 속 내용들은 똑같은 것이지만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예언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그가 전한 진리의 복음들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교인들과 갈라섰고,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교인들은 최후 예언자로 파송된 무함마드와 그가 전한 분명한 증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써 다시 무슬림들과 갈라서게 된다.

그러나 모세의 오경, 다윗의 시편, 예수의 복음서, 무함마드의 꾸란 등 하나님의 경전들 내용은 같은 것이었다. 어떤 쉬르크 (<u>sh</u>irk 하나님과 동등한 대상)도 두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에서 올바르게 남아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그분께만 예배하고 자카트를 바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일신 사상, 예배, 자카트는 하나님의 종교의 기초이다. 이것은 최후의 사자를 통해 인류 모두를 위해 다시 한 번 계시되어진 올바른 종교의 기초 원리이다. 꾸란에 담겨진 이슬람 신앙과 가르침의 핵심이자 정수인 것이다.

6 성서의 백성들 중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절은 성서의 백성들이 이슬람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들은 이전의 예언자들을 통해 진리의 메시지들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분명한 증거가 온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종교의 최후 버전인 것이다.

무슈리쿤(mushrikūn 우상숭배자, 다신교도) 역시 마찬가지다. 마지막 신의 사자 무함마드는 바로 그들 중에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평범한 인물이었고 문맹인이었다. 그러나 그가 가져온 메시지는 온 인류를 위한 완성된 종교의 것이었다.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가장 불행한 피조물의 신세가 될 것이다.

7-8 6절에서의 가장 나쁘고 불행한 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올바른 신앙의 선행자들은 축복받은 승리자가 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의 무슬림들이 인종적, 종족적, 지역적, 언어적 구분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의 조상은 불신자들(kuffār)이었고 다신교도, 우상숭배자(mushrikūn)였으며, 이교도 혹은 성서의 백성들[유대교인, 그리스도교인, 조로아스터교인]이었다. 그러나 이슬람을 진리로 받아들였고 최후 사자의 사명과 꾸란이라는 '분명한 증거(al-bayyinah)'를 인정하고 따르는 '복종하는 사람들(muslim)'이 된 것이다.

마지막 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란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할까 염려하는 두려움, 그분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들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두려움이다. 이것은 '신에 대한 경외감'으로 매우 고차원적인 사랑과 흡사한 신을 향한 애모의 감정이다. 이러한 경외감은 자신의 창조물들을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으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각별한 은혜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다.

## 알 바이이나 장의 가르침

-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의 사명과 꾸란의 메시지는 우리 인류 모두를 위한 진리의 분명한 증거이다.
- 완벽하게 완성된 종교 이슬람은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나 인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 분명한 증거 [꾸란과 최후사자의 도래]가 온 후에도 계속 그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용서받기 어렵다.

# 앗 질잘 Az-Zilzal/앗 잘잘라 Az-Zalzalah

## 지진의 장

이 장은 초기 메디나 계시로 모두 여덟 절로 되어 있다. 일부 주석가들은 후기 메카 계시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첫 절에 있는 지진이란 단어에서 이름이 지어졌다. 부활의 날, 지구는 최후를 맞는 대격변의 혼란 속에 빠질 것이다. 땅이 격렬하게 진동하며 땅속에 있던 모든 것을 토해 낼 것인데, 그것은 가공할 만한 진동으로 결코 당해보지도, 상상해 보지도 못한 규모의 것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 울부짖으면서 서로 물을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대체 땅속에 무엇이 잘못 되었나?!" 이 장에서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꾸란의 또 다른 장에서도 그 답을 볼 수 있다. 그 장에서는 이런 현상을 땅이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꾸란 제84장

알 인쉬까끄Al-Inshiqāq 84:3-5 참조).

간혹 우리가 친구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의외로 그가 너무 고마워한다면 우리는 잠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도와준 것은 별것이 아닌 작은 일인데, 왜 친구는 저렇게 감사하는 걸까?" 당시에는 아주 작은 도움에 불과했다 할지라도 심판받는 그날 그것이 선이었다는 것을 그는 새롭게 알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정직하고 무지한, 혹은 거칠고 야비한 행동들은 당시에 별것이 아닌 것 같았지만 영원히 남게 되어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말 것이다. 이 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티끌만한 무게의 선행도 보상을 받고 티끌만한 무게의 잘못도 벌을 받게 된다는 가르침을 배운다. 그날에는 모든 숨겨진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은 모든 감춰진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땅에게 그가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라고 명령하실 것이다. 모든 것이 저울에 올려져 마침내 우리 눈앞에 제시될 것이다. 그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부디 그들의 행위들이 선행 쪽에 달려지기를 바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사물의 의인화와 함축적 은유가 돋보인다. 땅, 지진, 짐, 티끌, 땅이 말을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땅은 문법적으로 여성형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명령하시고 그녀는 모든 비밀들을 토해낸다'와 같은 문장이 된다. 가르침의 중요성도 크지만 아름다운 문체와 정형화된 압운이 만들어내는 시적 운율 때문에 이 장은 예배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여러 의식과 행사들에서 매우 자주 독송된다.

## 제 99 장 سُورَةُ الزَّلْزَلَةِ

بِسْمِ ٱللَّهِ ٱلرَّحْمَٰنِ ٱلرَّحِيمِ

إِذَا زُلْزِلَتِ ٱلْأَرْضُ زِلْزَالَهَا ﴿١﴾ وَأَخْرَجَتِ ٱلْأَرْضُ أَثْقَالَهَا ﴿٢﴾

وَقَالَ ٱلْإِنسَٰنُ مَا لَهَا ﴿٣﴾ يَوْمَئِذٍ تُحَدِّثُ أَخْبَارَهَا ﴿٤﴾

بِأَنَّ رَبَّكَ أَوْحَىٰ لَهَا ﴿٥﴾ يَوْمَئِذٍ يَصْدُرُ ٱلنَّاسُ أَشْتَاتًا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땅이 (최후의) 지진으로 (격렬히) 진동할 때,

**02** 땅은 그 속의 무거운 짐들을 쏟아내고[1)]

**03** 사람들은 (소리쳐) 말할 것이다. "그것[땅]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04** 그날 그것[땅]은 (땅위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에 대한) 그의 정보를 말하게 될 것이다.[2)]

**05** 왜냐하면 그대의 주님께서 그것[땅]에 명령을 내리실[3)] 것이기 때문이다.

---

1) 땅속에 있는 광물을 비롯한 모든 내용물과 시체들을 쏟아낸다는 뜻.

2) 선악의 행위들에 대한 모든 소식을 낱낱이 보고할 것이다. 감춰졌던 비밀들이 모두 폭로된다.

3) 여기서 아우하('awḥā)는 '계시하다, 영감을 주다'보다는 '지시하다, 고무 고취하다, 명령하다'의 의미이다.

## 제 99 장

لِيُرَوْا أَعْمَٰلَهُمْ ﴿٦﴾ فَمَن يَعْمَلْ مِثْقَالَ ذَرَّةٍ خَيْرًا
يَرَهُۥ ﴿٧﴾ وَمَن يَعْمَلْ مِثْقَالَ ذَرَّةٍ شَرًّا يَرَهُۥ ﴿٨﴾

**06** 그날, 사람들은 따로따로 무리지어 그들의 행위들을 보이기 위해 나오게 될 것이다.[4]

**07** 그래서 티끌만한[5] 무게의 선을 행한 사람도 그것을 볼 것이며,

**08** 티끌만한 무게의 악을 행한 자도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니라.

---

4) 아식타탄('ashtātan 뿔뿔이, 따로따로) 나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5) 다르라(dharrah)는 '원자만한 것, 티끌만한 것, 털끝만한 것' 같은 아주 미세한 것을 가리킴.

## 해 설

1-2 종말의 날, 세상은 무서운 지진을 겪을 것이다. 그것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가공할 대격변으로 땅속에 있는 것, 땅위에 있는 것 모두가 뒤엎어지고 내동댕이쳐질 것이다. 또한 죽은 자와 산 자 모두가 일어나고 숨겨져 있던 모든 비밀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3 사람들은 놀라움과 공포로 정신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서로 서로 물을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4-5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땅에게 땅 위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실 것이고, 의인화된 땅은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얘기할 것이다.

6 모든 사람은 따로 따로 무덤에서 나온 뒤 구분되어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심판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7-8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모든 선과 악의 행동들을 보게 될 것이다. 감추어졌던 동기들, 숨겼던 의도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아주 미세한 행동과 생각일지라도 그것에 합당한 보상과 처벌이 주어질 것이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것이다.

## 앗 질잘/앗 잘잘라 장의 가르침

- 심판의 날은 분명히 예정되어 있다. 격렬한 폭발과 지진에 의해 예고 될 것이다.
- 그날 우리 인간은 우리가 행하였던 현세에서의 행위들에 따라 보상과 형벌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 그날을 위해 준비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제 100 장

# 알 아디야트 Al-'Ādiyāt
## 달리는 말의 장

이 장은 매우 이른 초기 메카 계시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을 주제로 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만을 사랑하고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다. 그들이 목숨을 걸어 모으고 축적한 재물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가슴속 깊이 감춰놓았던 비밀 중의 비밀들도 심판의 그날에 낱낱이 폭로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 모두를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시고 정통하신 분'이시다.

이 장의 이러한 중심 주제의 서술은 이 장의 후반부인 6-11절에 있다. 앞부분 1-5절은 비유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들은 6절의 계시와 후반부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맹세절들로 되어 있다. 적진을 향해 과감히 돌격하는 용맹스러운 전투마들의 발굽에서 불꽃이 튄다. 밤새워 달

리기도 하고 이른 새벽 적진 깊숙이 침투하기도 한다. 이들은 주인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데 인간들은 그들의 주님께 배은망덕하기 일쑤이다. 허망한 재물쌓기에 눈이 어둡고 그런 류의 세속사에만 집착한다. 주인을 위해 분투노력(이를 지하드 jihād라고 부름)하는 전투마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을 대조해 서술하면서 상징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 있는 계시이다.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각운, 의미 있는 비유와 상징, 고상한 언어, 간결한 문체, 깊은 뜻이 담긴 교훈 때문에 무슬림들이 매우 즐겨 송독하는 장 중의 하나이다.

## 제 100 장 سُورَةُ الْعَادِيَاتِ

بِسْمِ ٱللَّهِ ٱلرَّحْمَٰنِ ٱلرَّحِيمِ

وَٱلْعَٰدِيَٰتِ ضَبْحًا ﴿١﴾ فَٱلْمُورِيَٰتِ قَدْحًا ﴿٢﴾ فَٱلْمُغِيرَٰتِ صُبْحًا ﴿٣﴾
فَأَثَرْنَ بِهِۦ نَقْعًا ﴿٤﴾ فَوَسَطْنَ بِهِۦ جَمْعًا ﴿٥﴾ إِنَّ ٱلْإِنسَٰنَ
لِرَبِّهِۦ لَكَنُودٌ ﴿٦﴾ وَإِنَّهُۥ عَلَىٰ ذَٰلِكَ لَشَهِيدٌ ﴿٧﴾ وَإِنَّهُۥ لِحُبِّ ٱلْخَيْرِ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콧김을 뿜으며[1] 달리는 말들[2]에 걸고 맹세하건대,

**02** (말굽에) 불꽃을 튕기는[3] 그 불꽃들,[4]

**03** 새벽에 (행하는) 돌격들,

**04** (구름)먼지를 일으키며

**05** 한꺼번에[5] (적진)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가는 (말들에 걸고 맹세하건대),

**06** 실로, 인간은 그의 주님께 정말 배은망덕하다.

**07** 실로, 그[인간]는 그것에 대해[6] 스스로가 증인이니라.

---

1) 돠브한(ḍabḥan)은 '숨차 헐떡이며, (말이) 콧김을 내뿜으며'의 뜻이다.
2) 아디야트('ādiyāt)는 '질주하는 말들, 군마, 전투마'이다.
3) 까드한(qadḥān)은 '불꽃을 일으키는'이고 무리야트(mūriyat)는 '불꽃'을 뜻한다.
4) 자므안(jam'an)은 '모두 함께'의 뜻이다.
5) 카누드(kanūd)는 '은혜를 모르는,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을 의미한다.
6) 배은망덕한 행동에 대해

## 제100장

لَشَدِيدٌ ﴿٨﴾ ۞ أَفَلَا يَعْلَمُ إِذَا بُعْثِرَ مَا فِي ٱلْقُبُورِ ﴿٩﴾
وَحُصِّلَ مَا فِي ٱلصُّدُورِ ﴿١٠﴾ إِنَّ رَبَّهُم بِهِمْ يَوْمَئِذٍ لَّخَبِيرٌ ﴿١١﴾

**08 실로, 그[인간]는 재물을 사랑하는 데에 정말 격렬하다.[7]**

**09 그는 알지 못하느냐? 무덤들 속의 것들이 쏟아져 나와 흩어질 때[8] (모든 인간은 부활된다는 것을!)**

**10 그리고 마음들 속에 있는 것이 (낱낱이) 드러내진다는 것을!**

**11 실로, 그날[심판의 날] 그들의 주님께서는 그들에 관해 정말 훤히 알고 계실 것이니라.[9]**

7) 샤디드(shadīd)는 '강력한, 강한'의 뜻이지만 여기서는 '격렬한, 극심한, 열중하는'이란 번역이 적합하다.

8) 수동형 동사 부으시라(bu'thīra)는 '뿔뿔이 흩어지다. 뒤집혀지다.'의 뜻이다. 무덤 속 뼈들이 쏟아져나오고 그 날에 모든 인간은 부활된다.

9) 카비르(khabīr)는 '전문가, 경험자, 조예 깊은, 정통한'의 뜻으로 여기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의 의미이다.

## 해설

1-5 하나님께서는 빠르고 용맹스러운 전투마들에 걸고 맹세하신다. 이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번쩍이는 검과 창에 아랑곳하지 않고 적진으로 내달린다. 명령에 절대복종하고 주인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데 주저함이 없다.

6-7 이러한 전투말들에 비해 인간들은 어떠한가? 인간들은 대체로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배은망덕하다.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할 줄 모른다. 악행을 일삼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이러한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실에 스스로가 증인이다.

8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지나친 사랑 때문이다. 인간들은 재산을 모으고 쌓아두는 데 너무 집착하고 바쁘다.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에 탐닉하고 높은 지위, 명예, 큰 영향력을 얻고 가지려고 애쓴다. 권력, 지배욕을 키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의 창조주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자만에 차 있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마저 잊고 산다.

9 내세에 우리 인간들은 새 삶을 갖게 된다.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꺼지면 무덤 속의 것들이 모두 뒤엎어지고 죽은 자 모두가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줄서게 될 것이다.

10 심판의 그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비밀스러운 생각들, 감춰진 음모들, 악행과 사악한 계획들 모두가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11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우리의 행동과 의도들은 이미 다 기록되어 있으며 낱낱이 계산될 것이다!

## 알 아디야트 장의 가르침

- 길들여진 동물들은 그들의 주인에게 봉사한다. 본능적으로 충성한다. 그러나 인간은 배은망덕하다.
- 인간에게는 자유의지, 이성, 지식 같은 특별한 은총이 선물로 주어져 있다. 따라서 그만큼 더 그들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헌신적인 봉사를 해야만 한다.
- 이슬람의 올바른 길은 창조주이신 주님과 직접 교통하는 것이고 스스로 심판의 날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제 101 장

# 알 까리아 Al-Qāri'ah

## 재난의 장

이 장은 이른 메카 계시이다. 제95장 알 틴(At-Tīn)에 뒤이어 계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99장 앗 잘잘라(Az-Zalzalah)에서와 같이 부활과 심판의 날의 가공할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다. 마침내 격렬한 진통 속에서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정의를 세우실 것이다. 그날은 상상할 수 없는 재난과 참화의 날이다. 굉음과 진동, 엄청난 소란 속에 우리는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뒤엎어지는 대격변의 날이다 .

이 무서운 재난의 순간에 인간들은 마치 가벼운 나방처럼 흩어져 바람에 날아갈 것이고, 산들은 보풀이 일어난 양털처럼 되어 휘날려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날은 현세의 모든 표상과 경계표들이 사려져 버리는 최후의 날이다. 그리고 이날은 죽은 자 모두가 무덤에서 깨어 일어나 나오는 부활의 날이고 최후심판의 날이기도 하다. 우리가 쌓아놓은 행위의 잘잘못들이 하나님의 공정한 저울에 올려져 판결을 받는 날인 것이다.

제 101 장 سُورَةُ القَارِعَةِ

بِسۡمِ ٱللَّهِ ٱلرَّحۡمَٰنِ ٱلرَّحِيمِ

ٱلۡقَارِعَةُ ١ مَا ٱلۡقَارِعَةُ ٢ وَمَآ أَدۡرَىٰكَ مَا ٱلۡقَارِعَةُ ٣

يَوۡمَ يَكُونُ ٱلنَّاسُ كَٱلۡفَرَاشِ ٱلۡمَبۡثُوثِ ٤ وَتَكُونُ

ٱلۡجِبَالُ كَٱلۡعِهۡنِ ٱلۡمَنفُوشِ ٥ فَأَمَّا مَن ثَقُلَتۡ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재난의 날[1]

**02** 재난의 날이 무엇인가?

**03** 재난의 날이 무엇인지 그대에게 알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04** 그날에 인간은 마치 흩어져 날아가 버리는 나방[2]들처럼 되고,

**05** 산들은 마치 솔질해 보풀을 일으킨[3] 양털처럼 될 것이다.

---

1) 알 까리아(al-Qāri'ah)는 알 학까(al-Ḥāqqah), 안 땀마(at-Ṭāmmah), 앗 싹카(as-Sākhkhah), 알 가쉬야(al-Ghāshiyah) 등과 같이 심판의 날을 일컫는 여러 이름들 중의 하나이다. 대격변이 일어나는 '재난의 날'이다.

2) 파라쉬(farāsh)는 나방들이다. 나방은 빛에 약하고 가장 가벼운 곤충이다.

3) 만푸쉬(manfūsh)는 '털을 곤두세운' '빗질로 보풀이 인'의 뜻으로 꿈쩍도 하지 않을 산들이 양털처럼 흩어져 버릴 것이라는 의미이다.

## 제 101 장

مَوَٰزِينُهُۥ ﴿٦﴾ فَهُوَ فِى عِيشَةٍ رَّاضِيَةٍ ﴿٧﴾ وَأَمَّا

مَنْ خَفَّتْ مَوَٰزِينُهُۥ ﴿٨﴾ فَأُمُّهُۥ هَاوِيَةٌ ﴿٩﴾

وَمَآ أَدْرَىٰكَ مَا هِيَهْ ﴿١٠﴾ نَارٌ حَامِيَةٌۢ ﴿١١﴾

**06** 그리고 그의 (선행의) 저울[균형]이 무겁게 된 자는

**07** (천국의) 만족스런 삶 속에 있을 것이고,

**08** 그러나 그의 (선행의) 저울[균형]이 가볍게 된 자는

**09** 그의 집[4]이 지옥[5]일 것이다.

**10** 그것이 무엇인지 그대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11** (그것은) 격렬히 타오르고 있는 불(길)이니라!

---

4) 많은 주석가들이 원래 '어머니'를 뜻하는 여기서의 움므('umm)를 '집, 거처'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그의 거처(그의 어머니가 될 곳)는 지옥이다'라고 본 것이다. (꾸란 3:151 참조)

5) '심연, 낭떠러지, 밑 없는 구덩이'를 가리키는 하위야(hāwiyah)는 특히 정관사 알(al)이 붙여져서 알 하위야(al-hāwiyah) 지옥을 가리키는 지옥의 이름들 중의 하나가 된다.

## 해 설

1-5 알 까리아는 심판의 날, 부활의 날의 별칭 중의 하나이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지는 무서운 재난의 날이고, 어마어마하게 진동하는 지진과 거대한 폭발로 우주만물의 질서가 뒤집혀지는 재앙과 참화의 날이다. 가공할 소란 속에 이 물질세계가 종말을 고하는 날이므로 소란과 절규의 날, 혼돈과 재난의 날로도 불려진다. 그날에 인간은 혼란과 무력감 속에 마치 가장 작고 가벼운 나방처럼 되어 바람 속에 날아가 버릴 것이다. 나비가 아닌 나방이란 표현은 날파리처럼 아주 가벼운 존재로 인간을 묘사하기 위해 쓰여진 은유이다. 꾸란 제54:7에서는 '흩어져 나는 메뚜기들'(자라드 문타쉬르 jarād muntas̲h̲ir)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산 또한 어떠한 힘도 그것을 움직이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부동의 상징적 자연물이지만 그날에는 솔질한 양모처럼 되어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날 우리의 현재를 알게 해주는 온갖 표지들은 모두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아끼고 사랑하던 모든 것이 그날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공허한 것이 될 것임을 알려주기 위한 암시적 가르침이다.

6-11 그날은 우리의 과거 행적에 대한 결실을 보는 날이기도 하다. 거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선행 쪽 저울의 무게가 무거워진 자들과 반대로 가벼워진 자들이다. 첫 부류는 천국으로 향하는 영광과 안락하고 즐거운 삶을 보상으로 받지만, 두 번째 부류는 밑이 없는 불구덩이의 화염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 영예냐 치욕이냐는 그들이 쌓아놓은 행적들에 달려 있다. 원래 제9절은 '그의 어머니는 알 하위야에 있게 될 것이다'로 번역되어야 한다. 많은

꾸란 학자들이 여기서의 어머니를 집, 거처로 해석한다. '그의 어머니가 될 곳', '그의 거처'로 본 것이다. 알 하위야는 지옥을 가리키는 별칭들 중의 하나이다. 한편 일부 주석가들은 여기서의 '어머니'를 인간 신체에 비유하여 뇌가 있는 '머리'로 해석한다. 그래서 '그의 머리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라는 의미라고 말하고 있다(Aṭ-Ṭabarī 24:575).

## 알 까리아 장의 가르침

- 심판의 날은 분명하다
- 아무리 강력한 지위의 권력자라도 그날에는 스스로가 무력한 존재임을 알게 될 것이다.
- 우리는 그날, 선행의 저울 무게가 무거워지도록 이 세상 삶에서 부단히 준비해야 한다.

제 102 장

# 앝 타카수르 At-Takāthur

## 축적의 장

이 장은 초기 메카 계시이고 여덟 절로 되어 있다. 재물의 축적과 세속적인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과 과욕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꾸란 학자들은 이 장의 이름을 '세속적인 것의 증대를 위한 경쟁의 장', '더 많은 것을 쌓아놓기 위한 노력의 장'이라고 번역한다. 무덤에 갈 때까지 돈 모으기와 이권 챙기기에 바쁘고 세속적 권익과 물욕에 눈이 먼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령과 계율에는 관심이 없다. 이웃과 동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사회에서의 도의적 책임이나 의무도 소홀히 할 뿐이다. 그렇지만 자신의 두 눈으로 지옥 불을 직접 보게 될 때, 그는 심판의 날의 진실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그날, 그는 그에게 내려졌던 알라의 자비와 은혜, 박애

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많아서 그것을 일일이 헤아리거나 언급할 수 없고, 아무리 우리가 그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해도 그저 부족할 뿐이다. 다만 우리가 지금 명심해야 할 것은 심판의 날 우리는 우리에게 내려졌던 모든 이러한 은총들에 대해 셈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불신을 조장하고 우리의 관심과 주의를 하나님 율법에서 멀리 딴 데로 돌려놓는 주요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신다. 아무리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시장경제 원리와 자본주의 사상이 지배하는 물질만능의 사회라 할지라도 과도한 재물의 축적, 이기적인 재산 증식, 사회적 영향력 증대에 혈안이 되어 서로 헐뜯고 싸우고 지나치게 경쟁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 쌓아놓은 부와 명예와 권위에 집착하고 강대해진 권력을 마구 흔들며, 약자에 군림하고 늘 오만한 자만심을 부린 행위는 하나하나 그 세속적 성취와 과도했던 즐거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무슬림들에게 이 장의 여덟 절이 천 개의 다른 절들과 맞먹게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재산 증식과 세속적 이득에 눈이 멀어 탐욕스러운 삶을 살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 제 102 장 سُورَةُ التَّكَاثُرِ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أَلْهَىٰكُمُ ٱلتَّكَاثُرُ ﴿١﴾ حَتَّىٰ زُرْتُمُ ٱلْمَقَابِرَ ﴿٢﴾ كَلَّا سَوْفَ
تَعْلَمُونَ ﴿٣﴾ ثُمَّ كَلَّا سَوْفَ تَعْلَمُونَ ﴿٤﴾ كَلَّا لَوْ
تَعْلَمُونَ عِلْمَ ٱلْيَقِينِ ﴿٥﴾ لَتَرَوُنَّ ٱلْجَحِيمَ ﴿٦﴾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세속적인 것의) 축적**[1]**은 너희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게 하느니라.**[2]

**02 너희가 무덤에 갈 때까지.**[3]

**03 아니다! 너희는 곧 알게 되리라.**

**04 다시 말하건대**[4] **아니다! 너희는 곧 알게 되리라!**

**05 아니다! 만약 너희가 확실한 지식을 알고 있다면,**[5]

**06 정말로 너희는 지옥 불을 보게 될 것이다.**

---

1) 카수라(kathura)의 6형동사인 타카사라(takāthara 수적으로 많아지다, 늘다)에서 만들어진 꾸란 용어, 알 타카수르(at-takāthur)는 '세속적인 것들의 증가에 서로 경쟁함' '더 많은 것 쌓아놓기'의 뜻이다.

2) 라히야(lahiya)의 4형동사인 알하('alhā)는 '~로부터 ~의 관심·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하다' '~에 무관심하게 만들다'의 뜻이다. 여기서는 '진리의 길로부터 빗나가게 하다'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

3) 너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겠느냐는 뜻이다.

4) 불변화사 숨마(thumma)는 대체로 '그 다음에, 그 후에, 그런 뒤에' 혹은 '그러고 나서'로 쓰이고 있는 접속사인데, 이슬람 이전의 아랍시에서처럼 꾸란에서는 '반복 강세'를 나타내는 또 다른 사용의 접속사 숨마로 자주 등장한다. 이때의 숨마는 앞에서 언급 한 것[말]을 다시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말에서는 '다시 한 번 말하건대' '다시 한 번 말하거니와'가 가장 적절한 번역이다.

5) 야낀(yaqīn)은 '확신, 신념, 확실'의 뜻이다. 여기서의 '확실한 지식'이란 '세속적 탐욕과 재물 축적의 최종적 결과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 지식'의 의미이다. '만약 그렇다면, 너희가 세속적인 것들에 너희 자신들을 몰두시키지 않았을 터이고, 지옥불이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라는 뜻이다.

## 제 102 장

ثُمَّ لَتَرَوُنَّهَا عَيْنَ ٱلْيَقِينِ ٧

ثُمَّ لَتُسْـَٔلُنَّ يَوْمَئِذٍ عَنِ ٱلنَّعِيمِ ٨

**07 다시 말하건대, 정말로 너희는 확실한 눈으로 그것[지옥 불]을 보게 될 것이다!**

**08 그러고 나서 그날에, 정말로 너희는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들[6]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니라.**

6) 안 나임(an-na'īm)은 '즐거움, 기쁨, 안락, 호강스런 삶'을 뜻한다.

## 해 설

1 타카수르(takāthur)는 우리에게 안락, 평안, 안전 같은 것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되는 부(재물), 힘(권력), 지위(명예), 사회적 영향력(권세) 같은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쌓아 놓으려는 경쟁적 욕구와 욕망을 뜻하는 말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거나, 지위와 명예, 명성을 높이려고 애쓴다거나, 추종자들을 더 많이 거느리고 싶어 한다거나 인간이 갖는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욕심은 무한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갖는 것이 바로 타카수르이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타카수르를 원한다. 그것이 실제이든 가공의 것이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것의 축적을 추구한다. 특히 세속적 물질의 축적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 경쟁한다. 안락하고 평안한, 호강스런 삶을 사는 데에는 물질적 풍요가 제일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더 높은 지위, 더 큰 권력을 가져 더 많은 추종자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란 정말로 좋은 것들이 아닐 수 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것을 많이 갖고 쌓아 놓는 것[타카수르]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긴요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을 뿐이다.

타카수르를 위한 노력은 현세 삶에서 즐거움을 주는 것만을 쫓고 그것들을 축적하고 그 소유를 더 증가하려는 시도이다. 이런 일에 지나치게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율법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 삶의 동반자들인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 같은 것도 소홀히 하게 된다. 타카수르의 추구는 인간이

다른 사람을 능가하려는 경쟁심과 자만감에서 비롯된다. 이런 무절제한 세속적 욕망은 삶의 진정한 가치와 내세에 대한 믿음 같은 것을 등한시하게 한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딴 데로 돌리게 한다.

죽음이 닥쳐왔을 때까지 자만심이 강하여 내세를 믿지 않던 사람은 심판의 날에 지옥 불을 보고 나서야 귀중한 인생의 순간들을 자신이 헛되이 보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완전히 빈손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무시했던 자신의 허망한 인생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 한 절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까나아(qanā'ah 적은 것에 만족함)이다. 우리는 까나아를 소중히 하고 까나아와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다음을 명심하며 살아야 한다. 매사에 늘 감사하고, 또 내가 받는 은혜, 은총, 축복을 타인과 나누며 사는 것이 나를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2-7 타카수르에 빠져 있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세속적 즐거움만을 찾고 물질적 축적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의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다. 훨훨 타고 있는 지옥의 불을! 진리는 변하지 않고 확고부동하다. 만약에 그들이 확실한 지식을 알고 있었다면(5절),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소유물들을 날로 증가시키는 데에만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죽음 뒤의 삶에 투자하고 준비할 정신적·시간적 여유가 없다.

8 심판의 날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선행과 악행들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

을 것이다. 타카수르의 주인공들은 무엇을 얼마만큼 쌓아 놓았는지, 얼마나 즐기고 쾌락에 빠졌는지, 얼마나 부주의와 무관심 속에 귀중한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고 말았는지 모든 것을 낱낱이 질문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해주었던 타카수르가 과연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 앝 타카수르 장의 가르침

- 세상의 좋은 것을 추구하는 욕망은 무한한 탐욕의 근원이 되어 우리 내면에서 점점 크게 자라나게 마련이다.
- 작은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타인과 나의 축복을 나누는 행위가 세상 삶을 더 아름답게 하고, 내세에 진정한 승리를 얻게 할 것이다.
- 우리는 알라 앞에서 계산되어질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대한 질문과 셈이 있을 것이다.

## 전승 이야기

메카 꾸라이쉬들의 박해가 계속되는 동안에 예언자 무함마드와 그의 동료들은 여러 날들을 자주 굶주림 속에 지내야 했다. 이 장의 마지막 제8절에 나오는 안나임(an-na'īm 즐거움, 기쁨, 호강)에 대해 아부 후라이라는 예언자의 다음과 같은 하디스를 전하고 있다.

어느 날 밤, 신의 사자 무함마드가 집밖으로 나왔다가 아부 바크르와 오마르를 만나게 되었다. 무함마드가 "무엇 때문에 이런 시간에 집에서 외출을 했나요?"고 묻자 그들이 답하였다. "하나님의 사자여! 배가 고파서입니다." 무함마드가 말하기를 "내 영혼이 그분[알라]의 손에 있는 그분께 걸고 맹세하건대, (사실은) 나도 똑같은 이유로 밖에 나왔다네." 그러고 나서 다시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게." 그러고는 한 안싸르(Anṣār 조력자들, 메카 이주자들을 받아들인 메디나의 원주민 무슬림들을 가리킴) 집으로 그 둘을 데려갔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람[집주인]을 집에서 보지 못하였다. 그의 부인이 예언자를 보고 반갑게 말하기를 "어서 오세요! 정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에게 물었다. "주인장은 어디 있나요?" 그녀가 답하기를 "저희를 위해 물을 길러 나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마침 그 안싸르가 돌아와 두 동료와 함께 있는 예언자를 보고는 기뻐 말하였다. "알함두릴라, 모든 찬양·찬미가 하나님께 있나이다! 손님에 관한 한 오늘,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은 없을 거야!" 그리고는 그는 나가서 어떤 것은 아직 초록색이고 어떤 것은 조금 말랐으며, 또 어떤 것은 아주 마른 대추야자 더미를 들고와서는 먹으라고 손님에게 권하였다. 그러고 나서는 칼을 들고 (그들을 위해 한 양을 잡으려 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조심해요! 젖 짜는 양을 잡지는 마시오."

그래서 그는 (고기를 음식으로만 쓸) 한 양을 잡았다. 그들은 양고기와 대추야자를 먹고 물을 마셨다.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마신 뒤, 하나님의 사자가 아부 바크르와 오마르에게 말하였다. "내 영혼이 그분의 손에 있는 그분께 걸고 맹세하건대, 그대들은 심판의 날에 바로 이렇게 대접받은 나임(na'īm 즐거움, 은총, 호강, 기쁨)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알라]께서는 그대들이 배고파 집을 나와서, 이런 나임(즐거운 대접)으로 축복을 받게 될 때까지 그대들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습니다."(정통 하디스집 Ṣaḥīḥ Muslim, Vol. 6, 제20장, pp.116-117)

제 103 장

# 알 아쓰르 Al-'Aṣr

## 시간의 장

이 장의 이름은 이 장을 시작하는 첫 절에 있는 단어 '시간' (Al-'Aṣr)에서 붙여졌다. 아랍어 단어 아쓰르('aṣr)는 두 의미를 갖는다. 넓고 일반적인 의미는 '시간, 시대' 이고 좁고 특정적인 의미는 정오와 일몰의 중간 시점인 '한 낮, 오후'의 시간이다. 후자는 특히 하루 다섯 번 근행해야 하는 의무예배 중 오후 예배(오후 3~4시경) 시간을 가리킨다.

일부에서는 이 장이 메디나 계시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메카 계시로 분류한다. 계시의 문체와 내용적 가르침이 초기 메카 계시들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장의 주제는 전체적으로 '실천하는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다. 짧은 세 절로 이루어져 있으나 의미심장하게 신앙과 선행, 믿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에서

인간의 성취와 경험, 성공과 명예가 피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마는 손실 속의 것임을 설명하시고는 현세와 내세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두는 확실한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신다.

신앙이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내면 깊숙히 자라는 믿음'이다.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다. 모든 것은 그분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에게 힘과 평화와 자유를 주신다. 우리를 자연과 우주와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관리자, 보관인, 수탁자로 만들어 주시고, 진리를 따르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며 우리를 어떤 속박과 구속에도 얽매이지 않도록 자유롭게 해 주신다. 이렇게 믿고, 그분께만 복종하며 살면 그분께서는 보람찬 삶의 힘과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는 이슬람의 진정한 의미이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길 '이슬람'인 것이다. 이 올바른 길로 가는 바른 안내는 꾸란과 예언자 쑨나에서 배울 수 있다. 신앙은 항상 우리에게 남다른 자부심을 느끼는 권위를 갖게 한다. 그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함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다. 이슬람은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만민평등사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신앙에 관한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지 않다. 신앙이 깊을수록 우리의 가슴은 뜨겁고 무엇인가 꽉 차 있는 자신감을 느낀다. 그것이 바로 순수한 유일신의 추종자들이 느끼는 정신적 권위이다. 그러나 그것이 쌓일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우리가 느끼는 그 권위는 세속적인 자만심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이다. 이 장의 마지막 제3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믿고 선행을 하며 진리를 권하고 인내해야 한다. 우리는 이 같은 신앙의 올바른 실천 자세를 갖도록 부단히 노력해야만 한다.

## 제 103 장 سُورَةُ العَصرِ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وَالْعَصْرِ ﴿١﴾ إِنَّ الْإِنسَانَ لَفِي خُسْرٍ ﴿٢﴾ إِلَّا الَّذِينَ آمَنُوا
وَعَمِلُوا الصَّالِحَاتِ وَتَوَاصَوْا بِالْحَقِّ وَتَوَاصَوْا بِالصَّبْرِ ﴿٣﴾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시간[1]에 걸고 맹세하노니,

**02** 실로 인간은 정녕 손실 속에 있느니라.[2]

**03** 믿는 사람들, 올바른 선행자들, 진리를 서로 권하는 사람들, 인내를 서로 권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3]

---

1) 흘러가는 세월의 시간 혹은 정오와 일몰의 중간 시점인 한낮의 시간을 가리킨다. 아랍어 단어 아쓰르('aṣr)는 일반적으로 현재의 짧은 시간, 시각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 와끄트(waqt)와는 달리, 지나간 혹은 다가오는 길고 오랜 '시대, 세대의 시간'을 의미할 때 쓰인다.

2)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뜻이다.

3)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는 길은 첫째, 신앙을 갖고, 둘째, 선행을 하며, 셋째, 자신뿐 아니라 남에게 진리를 따르도록 권하고, 넷째, 인내하며 사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내세에 마땅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 해 설

1 알 아쓰르(al-'aṣr 시간)는 모든 시대와 세대를 통과해 가는 세월 속 시간을 의미한다.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심판의 날까지 지나감을 계속할 것이다. 시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이 세상 창조물 모두가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 오직 그분만이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2 인간사에서 시간은 지나가 버린 모든 것의 증인이다. 개인의 삶과 죽음, 공동체들의 흥망성쇠를 다 보았고, 또 볼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마는 끝의 시점에 도달할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죽음, 국가의 멸망 또는 지구의 종말일 수 있다. 우리의 생활을 한 상업적 행위(tijārah)로 가정하였을 때, 정오가 지나고 해가 지기 전인 한낮의 오후 시간에 하루 출납의 계산을 해 보면 손실 속에 있는 장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신앙, 선행, 진리, 인내의 삶을 추구하며 하루하루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경우가 다르다. 실제 이득이 조금일 지라도 연연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눈에는 더 큰 축복과 은혜가 보일 것이다.

3 신앙은 물질적인 삶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줄 정화제이다. 믿는 사람일 지라도 그가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진리(al-ḥaqq)가 세상에 퍼지게 하고 다른 사람도 진리를 보게 하며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서로 인내(aṣ-ṣabr)를 권하며 살아가야 올바른 길 위의 사람이다. 이

슬람은 무슬림에게 정의롭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런 책임을 완수하는 개인과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현세와 내세에서 성공을 주실 것이다.

## 알 아쓰르 장의 가르침

-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관계없이 죽음은 필연이고 우리 모두의 운명이다.
- 결국 모든 것은 사라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 올바른 선행자 만이 궁극적인 손실을 피할 수 있다.
-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사람과 진리를 나누어야 하고, 인내하며 사는 삶이 이 세상과 내세에서 성공하는 길이다.

## 전승 이야기 1

압둘라 빈 히쓴 알 다리미 아비 마디나('Abdullāh b. Ḥiṣn ad-Darīmī Abī Madīnah)에 의하면 싸하바(ṣaḥābah 예언자의 동료들)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서로 이 아쓰르 장을 암송한 뒤에야 헤어졌다고 전해진다. 꾸란 주해서 마파티흐 알 가이브(Mafātīḥ al-Ghayb 보이지 않는 것의 열쇠들)를 펴낸 유명한 주해자(mufassir) 중의 한 사람인 이맘 아르 라

지(Imām Fakhr ad-Dīn ar-Rāzī, 1149-1209)는 다음과 같이 말한 한 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아쓰르 장을 설명하였다. "나는 얼음 파는 한 상인의 말을 들으면서 이 장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뜨거운 날, 팔고 있는 얼음이 급속히 녹게 되자 그는 다음과 같이 소리쳐 호소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오, 사람들이여! 가진 재산이라곤 이것 뿐인데, 빠르게 그것이 녹아 없어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104 장

# 알 후마자 Al-Humazah

## 중상하는 자의 장

이 장은 메카 초기 계시로 여덟 절을 포함하고 있다. 주제는 당시 메카 사회에 퍼져 있던 악습과 남을 비방하는 자들의 해악 행위를 비난하고, 지옥에 대한 묘사와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다. 세 가지 악행이 강한 어조로 이 장에서 비난받고 있다. 첫째, 타인에 대한 추문, 악선전, 악 소문을 퍼트리거나 만들어 내는 행위. 둘째, 남을 등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행위. 셋째, 재물을 축적하고 자선이나 선행에 그것을 쓸 줄 모르는 행위.

타인에 대한 스캔들과 모함 지어내기와 재물을 모으고 쌓기에 바쁜 자들은 심판의 날 무서운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 지옥불은 엄청난 것이다. 모든 것이 조각조각 깨져버리는 알 후따마(ḥuṭamah)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불이다.

## 제 104 장 سُورَةُ الهُمَزَة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وَيْلٌ لِّكُلِّ هُمَزَةٍ لُّمَزَةٍ ﴿١﴾ الَّذِي جَمَعَ مَالًا وَعَدَّدَهُ ﴿٢﴾

يَحْسَبُ أَنَّ مَالَهُ أَخْلَدَهُ ﴿٣﴾ كَلَّا لَيُنبَذَنَّ فِي الْحُطَمَةِ ﴿٤﴾

وَمَا أَدْرَاكَ مَا الْحُطَمَةُ ﴿٥﴾ نَارُ اللَّهِ الْمُوقَدَةُ ﴿٦﴾ الَّتِي تَطَّلِعُ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온갖 중상과 비방을 하는 자[1]에게 재앙이 있으라.

**02** 그는 재물을 모으고 그것을 세기에 바쁜 자로,

**03** 그는 그의 재물이 그를 영원하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04** 그러나 아니다! 참으로 그는 조각나 깨져버리게 하는 지옥불[알 후따마[2]] 속에 던져지리라.

**05** 알 후따마 지옥불이 무엇인지 그대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06** (그것은 훨훨) 타오르는[3] 하나님의 불이요,

---

1) 후마자 루마자(humazah lumazah)는 '남에 대한 악소문을 퍼트리고 중상과 비방을 일삼는 자'를 말한다. 후마자는 말로써, 루마자는 행동으로 남을 중상모략한다.

2) 후따마(ḥuṭamah)는 지옥불을 묘사하는 여러 이름들 중의 하나이다. 후따마라는 지옥불은 그 속에 던져지는 자를 조각조각으로 깨져버리게 하는 무서운 불이다.

3) 알 무까다(al-mūqadah)는 '타오르고 있는(불)'이다.

## 제104장

عَلَى ٱلۡأَفۡـِٔدَةِ ﴿٧﴾ إِنَّهَا عَلَيۡهِم مُّؤۡصَدَةٌ ﴿٨﴾ فِى عَمَدٍ مُّمَدَّدَةِۭ ﴿٩﴾

**07** 심장 위까지 뛰어오르는 것이니라.

**08** 실로 그것이 그들을 뒤엎어버릴 것이다.

**09** 쭉쭉 뻗은 (불)기둥들 속에서.

## 해 설

1 후마자 루마자(humazah lumazah)는 타인에 대한 스캔들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퍼뜨리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말이다. 이들은 타인을 능멸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며 헛소문을 만들어낸다. 등 뒤에서 남을 험담하고 중상을 일삼아 사람들 사이에 질시와 증오가 일어나게 만든다.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덕목이 아니다(꾸란 49:12 참조).

2 후마자 루마자는 오직 돈을 모으고, 쌓아놓은 돈과 재물을 세는 데 여념이 없다. 그들은 결코 그들의 돈을 친척이나 이웃의 권익을 위해 쓰지 않는다. 필요를 구하고 원조를 청하는 자, 가난한 자를 위해 쓸 줄 모른다. 타인의 복지나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자선사업 같은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보는 데 특별한 즐거움을 느끼고 축적해 놓은 돈을 세는 데서 기쁨을 찾는다.

3 그들은 세속적 재물이 언제까지나 그들의 행복을 지켜 주리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갖고 있는 남다른 소유욕과 물질적 소유에 대한 자만심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 삶의 끝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든다. 어느 날 갑자기 쌓아 놓은 재산 모두를 그대로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잊게 한다. 쌓여 있는 돈의 높이만큼 자신이 남보다 더 높이 있다는 자존심 속에 살고 한층 더 거만스럽게 행동한다.

4-6 그러나 이러한 지나친 물욕과 오만 때문에, 남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한 죄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후따마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후따마는 모든 것이 조각조각 깨져버리게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불이다.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놓으신 훨훨 타는 지옥불이다. 악행자들의 마음과 몸을 조각조각으로 깨뜨리고 부술 것이다.

7-8 징벌의 지옥불은 심장 위까지 뛰어 오를 것이다. 후마자와 루마자가 소유하고 있는 악의 심장을 이 무서운 불이 높이 뛰어 올라 조각조각 깨어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가슴 위로, 심장 위로 이러한 지옥불이 뛰어 오르고 있다. 시기와 질투, 오만과 자만을 타오르는 불처럼 자신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자들에게!

9 후따마의 불길과 화염은 높이 치솟는다. 쭉쭉 뻗어 있는 거대한 불기둥들 속에서. 이슬람에서는 타인에 대한 중상모략과 비방을 일삼는 자인 후마자 루마자를 위선자인 무나피꾼(munāfiqūn)과 더불어 가장 나쁜 악행자로 말한다. 무나피꾼은 지옥중의 지옥인 지옥의 가장 낮은 7층 지옥에 떨어지고, 후마자 루마자는 바로 이 특별한 후따마 지옥불에 던져진다.

## 알 후마자 장의 가르침

- 우리의 재물은 우리가 그것을 유산으로 받은 것이든 땀 흘려 벌어놓은 것이든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이고 위탁된 것이다.
- 우리는 우리의 재물에 대한 집착, 자만심, 과욕을 버려야 한다. 그것으로 타인에게 거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추문을 만들고 퍼트리기 좋아하는 사람과 재물 축적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의 불인 후따마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제 105 장

# 알 필 Al-Fīl

## 코끼리의 장

이 장은 이디오피아의 예멘[1] 총독 아브라하(Abrahah al-Ashram)와 그의 코끼리 부대에 관한 이야기가 주제이다. 아브라하는 예멘의 수도 사나에 알 꿀라이스(al-Qulays)라는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어놓고는 아랍인들이 메카의 카아바 대신에 그곳으로 순례 오기를 원하였다. 게다가 무역의 중심지를 메카에서 예멘으로 돌리겠다는 정치·경제적 야심도 작용하여 그는 카아바의 파괴와 메카 침공을 결심하고 군대를 일으킨다.

1) 당시 예멘은 아비시니아(이디오피아) 그리스도인들이 힘야르(Ḥimyar) 유대인 통치자들을 몰아낸 뒤 아비시니아 왕국에 복속되어 있었다. 무함마드 시대의 아라비아 반도 주변에는 세 개의 주요국가가 형성되어 있었다.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시리아, 이집트 등의 영토를 가진 비잔틴 로마제국, 현재의 이라크, 이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페르시아 사산조, 그리고 아라비아 남부의 홍해 건너편과 아라비아 남동쪽 예멘 문명권의 아비시니아 왕국 등이 그것이다.

아브라하의 군대는 13마리의 코끼리를 앞세웠기 때문에 꾸란은 이 침략자들을 '코끼리의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대군이 메카로 진군해 오자 조직화된 군대를 갖고 있지 못했던 메카의 아랍인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아랍부족들 중의 어느 부족도 그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카아바의 관리책임자였고 당시 꾸라이쉬족의 수장이었던 예언자 무함마드의 조부 압둘 뭍딸리브('Abd al-Muṭṭalib b. Hāshim)는 메카 사람들에게 도시를 비우고 여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피신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산 위에서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보았다. 그들은 아무도 코끼리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공포감이 더했다. 놀란 압둘 뭍딸리브는 카아바로 달려가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다. "오 알라시여![2]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당신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성전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당신이 적으로부터 이 집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하의 군대가 무핫씨르(Muhassir) 계곡 중간 지점에까지 왔을 때, 메카사람들은 매우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앞장 선 코끼리들이 멈추어 서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 것이었다. 군인들이 코끼리를 앞으로 가도록 밀고 당기고 있는 동안, 한 거대한 모래폭풍이 불어왔고 부리와 다리에 작은 돌을 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새떼들이 날아들었다. 새들은 아브라하의 군대 위에서 그 돌을 떨어뜨리기 시작했는데, 비록 작은 돌이었지만 하나도 빗나가는 것이 없었다. 군인들의 거의 모두가 부상을 당하였다. 그런데 그 부상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살덩이를 조각으로 파열시켜 중상이 되거나 곧 죽게 만들었다. 아브라하는 달아났으나 발포하듯이 상처가 터져

2) 아랍인들이 말하던 이때의 알라(Allāh)의 개념은 '신(ilah)들 중의 최고신' 이란 막연한 개념의 것으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수많은 우상 신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존재쯤으로 이해되는 그런 의미의 신이었다.

결국은 예멘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죽고 말았다. 이렇게 아브라하의 군대는 전멸하였다. 이것을 지켜 본 메카 사람들 중의 한 현자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알라께서 카아바를 구하신 것은 그분의 자비와 가호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분 은총의 상징이다." 그 말은 맞는 말이 되었다. 바로 그 해(서기 570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인도하기 위해 보내신 그분의 최후 예언자 무함마드가 바로 그 도시 메카에서 태어난다.

이 장은 "그대[무함마드]는 주님께서 코끼리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시작한다. 이 장이 계시되어 내려올 때 아직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메카인들이 상당수 생존해 있었다. 그 뒤에도 메카인들은 이 이야기를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그들의 자손들에게 전하였다.

## 제 105 장 سُورَةُ الفِيلِ

بِسْمِ ٱللَّهِ ٱلرَّحْمَـٰنِ ٱلرَّحِيمِ

أَلَمْ تَرَ كَيْفَ فَعَلَ رَبُّكَ بِأَصْحَـٰبِ ٱلْفِيلِ ١ أَلَمْ يَجْعَلْ كَيْدَهُمْ
فِى تَضْلِيلٍ ٢ وَأَرْسَلَ عَلَيْهِمْ طَيْرًا أَبَابِيلَ ٣ تَرْمِيهِم
بِحِجَارَةٍ مِّن سِجِّيلٍ ٤ فَجَعَلَهُمْ كَعَصْفٍ مَّأْكُولٍ ٥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그대 [무함마드]는 그대의 주님께서 코끼리의 사람[1]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보지 못하였느냐?[2]**

**02** **그분께서 그들의 음모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시지 않았더냐?**

**03** **그분께서는 그들 위에 떼 지은 새들[3]을 보내셨으며,**

**04** **불에 달구어진 찰흙[4] 돌덩이들을 그들에게 던지게 하셨느니라.**

**05** **그리고는 그들을 (가축들이) 다 먹어버린 (빈들의) 곡식줄기들[5]처럼 만드셨느니라.**

---

1) 원래 아쓰하브('aṣhāb)는 '소유자들'의 뜻으로 여기서는 '코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뜻이다.

2) '보다'라는 동사는 우리말에서와 같이 의미상 '알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은 무함마드 출생 2개월 전이다. 여기서의 의미는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이다.

3) 단어 아바빌('abābīl)은 새 떼, 새무리의 뜻으로 '줄이은 새 떼들', '떼 지은 새들'을 말함.

4) 씻질(sijjīl)은 햇볕이나 불에 뜨겁게 구어져 나온 찰흙, 혹은 돌이다. 꾸란 15:74에도 같은 단어가 쓰여졌다. 일부 주석가들은 이 단어가 실제로는 페르시아어의 두 단어 산즈(sanj 돌들)와 질(jil 점토, 찰흙)인데, 아랍인들이 한 단어로 만들어 '바위돌, 암석들'로 쓰게 되었다고 말한다.

5) 전멸당한 전장의 모습이다. 마치 가축들에 의해 다 먹어 치워진 빈 들판에 지푸라기나 엉성한 곡식 줄기들 만이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상징적 표현이다.

## 해 설

1 경이로운 이 사건은 이 장이 계시되기 오래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아직 목격자들이 살아있던 때였고, 전 아라비아 반도에 생생하게 알려져 있던 때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에서 신의 사자에게 이 사건을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분의 의지에 믿는 자와 아직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복종해야 함을 강조해주신다.

2 아브라하의 계획은 메카를 공격하여 카아바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는 순례가 카아바 아닌 다른 곳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 [메카의 카아바]으로 순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오만한 계획을 파멸시키셨다.

3-4 하나님께서는 작은 새들로 하여금 거대한 코끼리 군대를 멸망시키게 하셨다. 돌비가 퍼붓듯이 작은 돌들이 쏟아져 군인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농포진이 생겨 전멸하게 만드셨다. 이슬람의 적들은 아무리 거대한 세력을 가졌다하더라도 결국에는 파멸당한다.

5 가축이나 동물들에 의해 곡식들이 다 먹어치워져 빈 껍질의 짚이나 줄기만이 엉성하게 남아있는 빈 들판과 같이 아브라하의 군대는 궤멸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무서운 가를 깨달아야만 한다. 불로, 물로, 지진으로, 바람으로, 돌비로 한 순간에 모든 것은 파멸되고 사라지고 만다.

## 알 필 장의 가르침

-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호하시고자 한다면 어떤 힘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카와 성전 카아바를 구하셨는지를 보여주신다.
- 하나님께서는 보호자이시고 주님이시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분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
-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으로 거대한 세력을 물리치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적대자들을 완벽하게 멸망시키시는 힘을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가장 강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제 106 장

# 꾸라이쉬 Quraysh

## 꾸라이쉬의 장

꾸라이쉬족은 아라비아의 중앙 성소 카아바의 관리인들이었고 이 성소를 찾아 메카로 오는 순례객들에게 물을 주고 그들을 보살펴 주는 일을 맡아하였다. 이러한 오랜 순례의 전통 속에 아랍인들은 꾸라이쉬족 사람들을 존중했고, 그들을 아랍인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였다. 꾸라이쉬족의 메카 지배는 세 가지 큰 이득을 그들에게 안겨주었다. 첫째, 그들이 타부족 사람들을 지도하는 영향력. 둘째, 그들과 이웃들 간의 교통을 쉽게 하여 무역활동을 촉진시키고 그들에게 남다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줌. 셋째, 카아바가 있는 메카는 아라비아 전통에 의해서 개인적 혹은 집단적인 반목과 갈등, 싸움으로부터 불가침의 성역으로 받아들여져 그들은 전쟁의 참화나 외부 침입의 위험과 두려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안전한 삶을 누

릴 수 있었던 점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영예와 이득들은 다른 무엇보다 그들이 성스러운 '카아바 성전의 종'들이라는 특별한 지위 덕에 얻은 것이다.

꾸라이쉬 부족 사람들은 거의가 무역인들이었으므로 카라반(Caravan, 대상 隊商) 상단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다른 도시들로 여행을 다녔다. 겨울에는 메카보다 따뜻한 예멘으로 갔고, 여름에는 날씨가 더 시원한 시리아로 여행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던 당시 사회에서 그들만큼은 예외여서 주변의 다른 아랍부족들이나 지역 통치자들과 안전과 보호의 협약을 맺을 수 있었고, 그 때문에 꾸라이쉬족 상단들은 외부 습격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순례와 무역은 꾸라이쉬족을 부강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얻은 이러한 부와 명예, 평화롭고 윤택한 생활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준 특별한 은총과 축복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꾸라이쉬들이 그들이 받은 이런 축복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장에서 꾸라이쉬들에게 그들이 섬기던 여러 우상들을 포기할 것을 명령하신다. 그분께만 예배하는 유일신 신앙(tawḥīd)을 가질 것을 요구하신 것이다. 그분의 종교, 이슬람을 그들이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을 모르고 있었고, 카아바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코끼리 군대의 침입을 받고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그들을 지켜주신 그분의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 중에서 마지막 예언자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카아바 안의 모든 우상들을 깨끗이 치우게 하셨으며, 마침내 꾸라이쉬들이 하나님의 통일된 순정의 종교,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

이 장은 앞의 제105장, 코끼리의 장에 계속 이어진 장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예배문으로 송독할 때에 두 장을 함께 이어서 암송한다. 메카 계시이고 4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다.

## 제 106 장 سُورَةُ قُرَيۡشٍ

بِسۡمِ ٱللَّهِ ٱلرَّحۡمَٰنِ ٱلرَّحِيمِ

لِإِيلَٰفِ قُرَيۡشٍ ١ إِۦلَٰفِهِمۡ رِحۡلَةَ ٱلشِّتَآءِ
وَٱلصَّيۡفِ ٢ فَلۡيَعۡبُدُواْ رَبَّ هَٰذَا ٱلۡبَيۡتِ ٣
ٱلَّذِيٓ أَطۡعَمَهُم مِّن جُوعٖ وَءَامَنَهُم مِّنۡ خَوۡفِۭ ٤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그것은) 꾸라이쉬족의 화합과 단결[1]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니라.)

**02** 그들의 결합(을 위해서니라)[2]. (우리는 그들 대상들의) 겨울과 여름의 여행을 (안전하게 해주었느니라.)[3]

**03** 그러니 그들로 하여금 이 집[카아바][4]의 주님을 숭배케 하라.

**04** 그분께서는 굶주림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으며(위험과) 두려움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해주셨느니라.

---

1) 현대의 일부 꾸란 주역가들은 일라프('īlāf)를 '협정, 조약, 맹약'으로 번역하거나 또는 '안전, 보호'로 해석하고 있으나, 전통적 주석은 동사 알라파('alafa 길들이다, 화해시키다, 조직하다), 알리파('alifa 습관되다, 친하다)에서 파생된 동명사로 '길들여 단합시킴, 결합, 화합'으로 말하고, 이으틸라프('i'tilāf 화목, 연합, 통일, 동맹)와 동의어로 본다. 앞 장에서 본 하나님께서 코끼리 군대를 멸망시키신 이유가 바로 이 첫절에 밝혀져 있다. 그것은 '꾸라이쉬 부족을 단합시키고 메카의 안정을 위한 것'이었다.

2) 문법적으로 이것은 강조용법이다. '꾸라이쉬 부족의 화목과 결합'이 다시 강조되었다.

3) 전통적 주석가들은 이 절에서 강조된 일라프('īlāf) 역시 꾸라이쉬들이 겨울에는 예멘으로, 여름에는 시리아로 대상무역을 하는 동안 '화목하게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4) 여기서의 집은 '하나님의 집(bayt Allāh)' 즉, 메카의 카아바를 가리킨다.

## 해설

1 일부 꾸란의 타언어 번역자들은 일라프('īlāf)를 서약들, 조약들 (covenants, agreements)로 번역한다. 이때의 '꾸라이쉬의 협약들'이란 꾸라이쉬족이 다른 아랍 부족들과 맺은 평화와 안전의 협약들을 말한다. 이러한 협약들은 꾸라이쉬들이 노략질을 당한다거나 생명을 다치는 위험 없이 타 부족민들과 무역거래를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래서 일부 주석서들에서는 '보호와 안전'으로 해석한다. 최근의 한 영어 역주자는 이때의 번역 '꾸라이쉬의 안전을 위하여'는 '카아바의 안전을 위하여'의 수사적 환유어라고 주장한다. (Muhammad Asad, The Message of The Qur'ān, Gibraltar, 1980, p.978) 그러나 고전 주해서들에 의하면 '꾸라이쉬의 화합과 통일[결합], 안정을 위하여'가 직역으로는 의미상 가장 가깝다.

하나님께서는 카아바의 관리인들인 꾸라이쉬 부족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셨다. 그들을 길들여 원심분리적이던 아랍인들을 그들 중심으로 뭉치게 하셨으며 마침내 그들이 진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이슬람 전파의 기수가 되게 하셨다. 메카에 쳐들어온 아브라하의 코끼리 군대를 파멸시키신 것도 꾸라이쉬족을 결합시키고 카아바의 안정을 위해서였다. 매년 계절에 따라 떠나는 무역상단을 조직하여 그들끼리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무역길의 이웃들과 소통하며 명예와 신망, 부를 얻게 해주셨던 것이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꾸라이쉬 부족에게 내려주신 이러한 특별한 은총 일곱 가지를 직접 열거한 뒤 이 꾸라이쉬 장을 송독하였다고 전해진다. 1) 자신이 꾸라이쉬 출신인 점 2) 꾸라이쉬 부족 중에서 예언자 지

위가 계승된 점 3) '하나님의 집'의 관리직을 맡기신 점 4)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순례자들을 위한 물 공급자가 되게 하신 점 5) 코끼리 군대에 꾸라이쉬들이 승리하게 해주신 점 6)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직 예배하지 않던 초기 10년 동안 여러 꾸라이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 주신 점 7)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로 꾸란 계시를 내려주신 점.

2 다시 한 번 이 모든 것이 '꾸라이쉬족을 결합시키기 위함'임을 강조하신다. 꾸라이쉬 사람들은 겨울에는 따뜻한 남쪽의 예멘, 이집트, 이디오피아로, 여름에는 시원한 북쪽의 시리아, 페르시아로 무역이나 여행을 떠나곤 했다. 꾸라이쉬가 누리는 평화스러운 삶, 지도자적 지위, 축적된 부는 그들이 하나님의 집 카아바의 관리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베푸신 은총 덕이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명령하신다.

3 꾸라이쉬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집을 우상의 집으로 만들었다. 이제 꾸라이쉬들은 우상인 쉬르크를 포기해야만 하고 하나님 알라만을 숭배해야 한다.

4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다.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비교되는 권능을 가진 자는 없다.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꾸라이쉬들이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총 때문이다. 모든 아랍인들이 꾸라이쉬를 존중하고 그들의 지도권을 인정한 것도 하나님의 은총 덕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

가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안전과 평화를 주시며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

## 꾸라이쉬 장의 가르침

-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늘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항상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 창조주, 부양자, 보호자이시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쉬르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주시는 유일하신 그분께만 우리는 감사하고 예배해야 한다.

제 107 장

# 알 마운 Al-Mā'ūn

## 작은 도움의 장

메카 사람들은 내세를 부인하였다. 그들은 죽음 뒤에 삶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들 스스로 한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법규를 따르려 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원하는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만심이 강하고 이기적이었으며 남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그들 중의 일부는 이슬람을 받아들인 후에도 신앙생활에 진지하지 못하였다. 단지 보여 주기 위한 예배를 보았고 타인에게 친절하지 않았으며 가난한 자에게는 등을 돌렸다.

이 장은 신앙(īmān)과 불신앙(kufr)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슬람이 완벽한 삶의 방식이고 실천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장에서 배우게 된다. 이슬람은 그것의 어떤 부분은 우리가 선택하여 실천을 하고, 또 다른 어떤 부분은 실천하기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선택도 실행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체계가 아니다. 진정한 신앙 없이 그저 모양으로만 무슬림인 체 행동하고 예배하는 자는 올바른 무슬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들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언행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신앙인들은 아니다. 대개 그들은 고아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이웃의 필요한 자를 돕는 데 인색하다. 이 장은 만약 어느 무슬림이든지 스스로의 행동으로 자선과 선행을 보여주지 않으면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을 것이고 결국 신앙이 부족하거나, 혹은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심판받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고아와 가난한 자에 대한 자선과 박애는 이슬람의 기본 정신이다. 무슬림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웃과 타인에게 항시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 한다.

제 107 장 سُورَةُ الماعُونِ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أَرَءَيْتَ ٱلَّذِى يُكَذِّبُ بِٱلدِّينِ ﴿١﴾ فَذَٰلِكَ ٱلَّذِى
يَدُعُّ ٱلْيَتِيمَ ﴿٢﴾ وَلَا يَحُضُّ عَلَىٰ طَعَامِ ٱلْمِسْكِينِ ﴿٣﴾
فَوَيْلٌ لِّلْمُصَلِّينَ ﴿٤﴾ ٱلَّذِينَ هُمْ عَن صَلَاتِهِمْ سَاهُونَ ﴿٥﴾
ٱلَّذِينَ هُمْ يُرَآءُونَ ﴿٦﴾ وَيَمْنَعُونَ ٱلْمَاعُونَ ﴿٧﴾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그대는 종교(의 날)[1]을 부인하는 자를 보았느냐?

**02** 그런 자는 고아를 내쫓는 자[2]이고,

**03** 또 그는 불쌍한 자에게 음식주기를 권하지 않는 자다.

**04** (위선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라.

**05** 그들은 그들의 예배에 소홀한 자들[3]이며,

**06** 그들은 보여주기 위해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니라.

**07** 그들은 (이웃에게) 생필품[4]을 (나누어)주는 작은 도움[알 마운]조차 거절하느니라.

---

1) 여기서의 딘(dīn 종교)은 '종교의 날, 심판의 날'을 뜻한다.
2) 동사 다으아(da''a)는 '(고아를) 난폭하게 좇아버리다, 박대하다'의 뜻이다.
3) 싸훈(sāhūn)의 단수 싸힌(sāhin)은 '소홀한, 등한한, 부주의한'의 뜻이다.
4) 단어 마운(mā'ūn)은 원래 '가정용품'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아주 작은 도움, 작은 친절'을 의미한다. 이웃에서 필요로 하는 소금, 설탕, 성냥, 숟가락 같은 생활필수품조차 제공하기를 거절한다는 뜻이다.

## 해 설

1 안 딘(ad-dīn)은 인간의 완벽한 삶의 방식인 '종교'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종교적 해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 은총과 은혜의 빚을 갚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예배로, 선행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한다. 종교의 날(yawm ad-dīn), 즉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은 그의 행동들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안 딘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때문에 자신에게 내려질 그분의 형벌도 믿지 않는 자이다.

2 내세를 부정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염려하지 않는 자는 이기적이고 자만에 찬 인생을 산다. 고아들을 박대하고 그들을 차갑게 내친다. 꾸란의 가르침에서는 고아와 과부가 우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불신자들은 자기 본위의 이기주의자들이므로 남을 돕는 데 인색하다.

3 그런 사람은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다. 물질적 도움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자선 행위를 타인에게 권하지 않는다. 그들이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쓴다면 그들의 재물은 곧 다 없어질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사자는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의 길에서 쓰는 돈은 우리의 부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점점 더 그것을 증가시킨다"고 가르쳤다.

4 예배의 근행은 모든 무슬림에게 내려진 의무행위(farḍ)이다. 하루 동안 정해진 시간의 다섯 차례 예배는 심신을 정화시키고 돈독한 신앙심을 고양시킨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스스로 무슬림이라고 말하면서 진지한 예배를 근행하지 않는다. 예배를 등한시하면 할수록 우리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타락하기 십상이다.

5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위선적인 예배를 경고하셨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위선자이다. 위선자는 무나피꾼(munāfiqūn)이라고 부르며 무슬림들은 무나피꾼을 매우 경원시한다. 무나피꾼은 지옥의 가장 낮은 층에 떨어진다.

6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 내세를 믿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가 그렇지 않은 것은 그들의 평소 행동에서 나타난다. 그들은 이웃의 아주 작은 도움 요청도 쉽사리 거절한다. 작은 친절도 베풀지 않는다. 이슬람은 이웃을 돕는 것을 의무적인 행위로 가르친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갖고 있다. 알 따바리의 주해서에 따르면 "알 마운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븐 마스우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고 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도끼, 그릇, 물동이 같은 작은 물건들을 서로 주는 것이다."

## 알 마운 장의 가르침

- 믿는 자는 신앙과 실천, 양면에서 비신자보다 나아야 한다. 그는 예배를 정규적으로 보아야 하고, 고아에게 친절하고 필요한 자들에게 관대해야 하며, 이웃을 돕고 모든 행동에 진솔해야 한다.
- 심판의 날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그들의 책임 또한 부인한다. 그들은 타인에게 도움을 줄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친절과 은혜도 알지 못한다.
-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형식적이거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

제 108 장

# 알 카우사르 Al-Kawthar

## 풍요의 장

메카에서 계시된 이 짧은 장은 신의 사자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의 사명과 선교 노력이 성공할 것이라는 격려를 해주기 위해 내려졌다. 메카 포교시절, 예언자 무함마드는 많은 꾸라이쉬 적대자들로부터 박해의 고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에서 고통과 벌을 받게 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적대자들이라는 것을 밝혀 주신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안내를 따르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풍요로운 사람들이다. 반면에 불신자와 악행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자비와 은총의 길을 절단해 놓고 하나님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메카의 박해자들은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후손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

해 얘기하며 비아냥거리곤 했다. 아랍사회 전통에서 대를 이을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점이자 불명예였다. 그들은 말하였다. "무함마드를 걱정하지 말라. 그는 결국 아들 없이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의 사명이고 계시고 다 끝장이다." 이 같은 말은 하나님의 사자에 적대하던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그들은 이슬람의 메시지가 한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든 곧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운 사람은 세속적 부를 가진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밝혀 주신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풍부한 선물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al-Muṣṭafā)가 되는 축복, 최후의 사자가 되는 은총, 꾸란을 계시 받는 명예, 후대 무슬림들이 그의 쑨나를 따르는 영광 등 많은 은혜를 받았다. 반면에 무함마드의 적대자들은 오히려 현세와 내세에서의 진정한 풍요 속에 있는 모든 희망에서 결국 단절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신앙과 미덕은 풍부한 좋은 결과들을 낳게 한다. 선행을 실천하는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정신적 영역에서 느끼는 행복감에서 남보다 나은 삶을 영유한다. 그것은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내세에 천국이라는 큰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

## 제 108 장 سُورَةُ الكَوْثَرِ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إِنَّآ أَعْطَيْنَٰكَ ٱلْكَوْثَرَ ١ فَصَلِّ لِرَبِّكَ
وَٱنْحَرْ ٢ إِنَّ شَانِئَكَ هُوَ ٱلْأَبْتَرُ ٣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진실로 우리는 그대 [무함마드]에게 풍요로운 (축복) [카우사르][1]을 주었느니라.

**02** 그러니 그대의 주님께 예배드리고 희생물을 바쳐라.

**03** 실로 그대를 질시하는 자,[2] 그가 바로 후대와 좋은 일에서 단절된 자 [알 아브타르][3]이니라.

---

1) 카우사르(kawthar)는 문어적으로 '풍부, 풍요'를 뜻하나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서는 천국에 있는 '카우사르의 강'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따라서 '천국의 카우사르 강을 주시는 약속과 같은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다.'라는 의미이다.

2) 샤니운(shāni'un)은 '미워하는 자, 증오하는 자'의 뜻으로 무함마드의 적대자들을 가리킨다.

3) 알 아브타르(al-abtar)는 '아들이 없는 자'이다. 우상 숭배자들이 무함마드에게 알 아브타르라고 야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함마드에게 큰 축복을 주셨고,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알 아브타르(현세나 내세의 모든 복이 끊긴 자, 즉 영적 자손이 없는 자 라는 뜻)라고 말씀하신다.

## 해설

1 하나님의 사자는 어린 외아들 알 까심(al-Qāsim)을 잃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천국의 카우사르 강(혹은 카우사르의 샘)이 약속되었고, 현세에서도 많은 축복이 내려졌다. 아들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상의 더 큰 사랑을 그는 이슬람 움마로부터 대신 받게 된다. 움마의 사람들은 그의 언행인 하디스를 따르고 예배와 생활 속에서 그를 기억한다. 그들은 그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쌀랄 라후 알라이히 와 쌀람" (Ṣallā-Allāhū 'alay-hi wa-Sallam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가 그에게 있기를)이라고 말한다.

카우사르의 샘물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다. 그 물을 마신 사람은,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

2 하나님께서는 신의 사자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물(희생물)을 바치면서 항상 감사할 것을 명령하셨다. 우리는 예배와 자카트로 감사하고, 그분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고 그분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우리가 아끼는 재물과 음식을 나누어주는 희생으로 그분의 친절과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3 진정한 '알 아브타르'는 불신자들이고 예언자의 적대자들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모든 희망이 단절되었다. 아무도 그들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현세에서 그들을 진심으로 기억하는 자 없고 그들 모두는 그저 잊혀지면서 사라져 버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정신적으로 진정 '후대가 끊긴 자'들인 것이다.

## 알 카우사르 장의 가르침

- 하나님께서는 무함마드를 그분의 사자로 선택하셨고 그에게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주셨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 예배와 희생 속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선행자들에게는 천국에 있는 카우사르의 물이 제공될 것이다. 믿는 자들을 위한 보상은 이 세상과 저 세상 양쪽에 있다.
- 신의 사자는 아들을 잃었지만 움마를 얻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움마의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며 사랑하고 따를 것이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과 저 세상 양쪽을 다 잃은 자들이다.

## 전승 이야기

예언자 무함마드와 그의 아내 카디자(Khadījah) 사이에는 네 명의 딸 자이나브(Zaynab), 루까이야(Ruqayyah), 움므 쿨숨(Umm Kulthūm), 파띠마(Fāṭimah)와 어린 아들 알 까심(al-Qāsim)을 두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알 까심이 갑자기 죽게 되었다. 가족 모두와 친구들이 매우 슬퍼하였다. 그러나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고 또 그분이 원하실 때에는 거두어 가신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소중한 네 명의 딸을 주신 것에 감사하였다.

고대부터 아라비아 사회는 남아선호 사상이 지배적이었다. 자신이 죽은 후 그를 기리고 가문의 이름을 전할 상속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당시 무슬림 동아리의 가장 큰 적인 아부 자흘(Abū Jahl)은 알 까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다. "이제 무함마드에게는 아들이 없다. 그는 영원히 대가 끊길 것이다. 누가 그를 기억하고 관심을 기울이겠느냐?"라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사자에게 영원한 천국의 풍요로운 샘, 알 카우사르를 약속하시며 이 장을 계시하셨다. 전승에 따르면 풍요의 샘물은 우유보다 하얗고 꿀보다 달콤하다고 전해진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 샘가에서 천국에 들어오는 그의 공동체 신앙인들을 만날 것이고 그들에게 이 알 카우사르의 물을 마시라고 권할 것이다.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는 목마름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사자에게 이슬람 공동체 움마를 건설하는 축복을 주셨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자 무함마드보다 더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기억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장은 이슬람의 적은 결국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모든 진실한 것들로부터 단절된 가장 불행한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제 109 장

# 알 카피룬 Al-Kāfirūn

## 불신자들의 장

이슬람은 하나님의 최후 종교(dīn)이다. 딘(종교)이란 삶의 완벽한 방식을 뜻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딘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자 무함마드에게 계시하셨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슬람이 '완벽히 완성된 하나님의 최후 종교'라고 믿는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들은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다. 신의 사자뿐 아니라 그의 동료들이었던 싸하바(ṣaḥābah), 그 외 어느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글자라도 첨삭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는 권위를 갖지 못한다.

일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사자와 한 협정을 맺길 원하였다. 만약 무슬림들이 그들의 우상들을 숭배한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숭배하는 데 동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의 제의를 거부하게

하셨다.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종교에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알려주신다. 신앙은 타협에 의해 나누거나 양보하여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공존과 대화와 조화는 필요한 것이지만 타협과 강요는 있을 수 없다.

무슬림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인류 모두가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는 무슬림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도 믿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 신앙은 그들의 이성과 이해로 가슴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대다수 주석가들은 이 계시가 메카에서 계시된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이 장은 전통적으로 무슬림들이 매우 중시하는 대표적인 계시들 중의 하나이다. 하나님의 사자 무함마드는 꾸란 제112장인 '성실의 장'이 꾸란의 1/3에 상당하고, 바로 이 장이 1/4에 해당한다고 말하였다. 이 두 장을 늘 암송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명상을 거듭하면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고 가르쳤다. '성실의 장'은 신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무슬림들에게 비록 불리하고 남과 대적해야 하는 역경 속에 있더라도 올바른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게다가 이 장은 불신자들을 대하는 옳은 태도가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고 있다. 진리와 종교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며, 서로 강제해서도 위압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어느 신앙이든지 강요나 박해, 헐뜯는 비방은 삼가야만 한다. 무슬림은 타 종교인들을 관대하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여야만 한다.

## 제 109 장 سُورَةُ الكَافِرُونَ

بِسۡمِ ٱللَّهِ ٱلرَّحۡمَٰنِ ٱلرَّحِيمِ

قُلۡ يَٰٓأَيُّهَا ٱلۡكَٰفِرُونَ ١ لَآ أَعۡبُدُ مَا تَعۡبُدُونَ ٢
وَلَآ أَنتُمۡ عَٰبِدُونَ مَآ أَعۡبُدُ ٣ وَلَآ أَنَا۠ عَابِدٞ مَّا عَبَدتُّمۡ ٤
وَلَآ أَنتُمۡ عَٰبِدُونَ مَآ أَعۡبُدُ ٥ لَكُمۡ دِينُكُمۡ وَلِيَ دِينِ ٦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말하라, (무함마드 여!) "불신자들이여[1]!"

**02** "나는 너희가 숭배하는 것을 숭배하지 않으며,"

**03** "너희는 내가 숭배하는 분을 숭배하지 않는다."

**04** "그리고 나는 너희가 숭배하고 있는 것을 숭배하지 않을 것이며."

**05** "너희는 내가 숭배하는 분을 숭배하지 않을 것이다."

**06** "너희에게는 너희의 종교가 있고 내게는 나의 종교가 있노라."

1) 불신자들(kāfirūn)은 다신교도, 우상 숭배자들(mushrikūn)보다 더 큰 개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유일성, 그분의 천사들, 성서들, 사자들, 심판의 날, 그리고 신의 정명(al-Qadar)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 해 설

1 "말하라, 무함마드여!"로 시작하는 계시는 이 장 외에도 제72장, 제112장, 제113장, 제114장이 있고, 전체 꾸란 속에는 약 300개 절에서 이 말이 발견된다. 대개 다음에 오는 말씀과 가르침을 특별히 강조할 때 쓰인다.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불신자들에게나 무슬림들에게, 혹은 모든 인류에게 명확히 그 내용을 전달할 것을 명령하실 때 쓰인다.

2 신앙은 개인적 확신과 신념으로, 순수하고 성실한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지 세속적 편의나 정치적 이익, 사회적 제도나 관습에 따라 타협하고 양보하여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슬람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이다. 무슬림들은 불신자들이 숭배하는 우상에 결코 절할 수 없다. 세속적 목적에 기반한 협정의 제안은 당연히 거부되어야 한다.

3 불신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우상을 사랑하고 그것들에게 예배한다.

4-5 무슬림들은 유일신 신앙 속에 있는 한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불신자들도 그들의 우상들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들이 아무런 힘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6 무슬림들은 그들의 종교를 믿으라고 다른 사람에게 강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만큼 불신자들도 무슬림들에게 종교를 포기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방식의 길을 걷고 종교적 실천을 만드는 데에 자유로워야만 한다.

## 알 카피룬 장의 가르침

- 이슬람은 완벽히 완성된 하나님의 마지막 종교이다.
- 하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다. "종교에는 강요가 없느니라" (꾸란 제2장 알 바까라 Al-Baqarah 2:256)
- 신앙문제에서는 타협, 절충, 양보가 부적절하다. 각자는 자신의 종교를 실천하는 데 자유로 남겨져 있어야 한다.
- 무슬림은 비무슬림들에게 관대해야 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

제 110 장

# 안 나쓰르 An-Naṣr

## 도움의 장/승리의 장

이 장은 도움의 장 또는 승리의 장이라고 불린다. 히즈라(hijrah) 10년, 예언자 무함마드의 마지막 순례(이를 고별의 순례라고 부른다) 때 계시되었고 그 후 약 80일이 지나지 않아 예언자는 메디나에서 서거하였다. 따라서 이 장은 예언자 생애의 최종 메디나 시기 동안에 메카에서 계시된 메카 계시로 분류되고 한 완벽한 장으로써 계시된 것으로는 마지막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시의 주제는 메카의 무혈 정복(630년)으로 이슬람 전파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고 이러한 무슬림들의 승리로 우상 숭배자들이 떼를 지어(처음에는 꾸라이쉬 부족이, 후에는 거의 모든 아랍 부족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사자 무함마드에게 앞으로 다가올 진정한 이슬람의 승리를 알려주시면서 그것이 성취되는 데에도 그분의 도움을 또한 약속하신다. 이 계시는 신의 사자의 사명이 거의 완성단계에 도달하였음을 알게 해준다. 따라서 신의 사자 무함마드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께 용서를 구하며 그분께로 돌아갈 마음의 채비를 하라고 명하신다. 전승에 따르면 예언자의 아내 아이샤는 예언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다"고 자주 말하곤 했다고 전하고 있다.

## 제110장 سُورَةُ النَّصۡرِ

بِسۡمِ ٱللَّهِ ٱلرَّحۡمَٰنِ ٱلرَّحِيمِ

إِذَا جَآءَ نَصۡرُ ٱللَّهِ وَٱلۡفَتۡحُ ١ وَرَأَيۡتَ
ٱلنَّاسَ يَدۡخُلُونَ فِي دِينِ ٱللَّهِ أَفۡوَاجٗا ٢ فَسَبِّحۡ
بِحَمۡدِ رَبِّكَ وَٱسۡتَغۡفِرۡهُۚ إِنَّهُۥ كَانَ تَوَّابَۢا ٣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하나님의 도움과 (메카)정복의 승리가 왔을 때[1]

**02** 그대[무함마드]는 무리지어 하나님의 종교[이슬람]에 귀의하는 사람들을 보았노라.

**03** 그러니 그대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분께 용서를 구하라![2] 실로 그분께서는 (지체 없이) 관용의 자비를 베푸시는 분[3]이시로다.

---

1) 단어 나쓰르(naṣr)는 '도움, 승리'의 뜻이고 파트흐(fatḥ)는 '정복, 승리'의 뜻이다. 둘 다에 승리라는 뜻이 담겨있다. '하나님께서 다신교도, 우상 숭배자들인 메카인들과 싸우던 무함마드를 도와 메카정복의 승리가 왔을 때'라는 의미이다.

2) 아스타그피룰라(astaghfirullāh)!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나이다!"의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것은 이 말은 무슬림 사회에서는 무슬림들에 의해 항상 사용되는 일상의 관용구도 된다는 점이다. 거의 모든 형식의 찬탄, 경의, 찬양에 대한 일반적인 겸양의 대답으로 우리는 대개 '천만의 말씀입니다, 별말씀을!'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진정한 무슬림이라면 어떤 성취나 성공, 승리를 자신만의 공로로 뽐내는 교만을 보여서는 안 된다.

3) 타우와바(tawwaba)는 '참회하게 하다, 뉘우치게 하다'의 뜻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이자 이름으로 타우와브(tawwāb 용서하는, 자비를 베푸는)가 있는데 뉘우치는자에게 '용서와 자비를 주시는 분'의 의미이다. 즉, 타우바(tawbah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즉각 '관용의 자비와 은총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 해 설

1 하나님께서는 신의 사자에게 이슬람의 승리를 약속하셨다. 서기 630년, 우상숭배자와 무신론자들이 살고 있던 메카의 무혈정복은 하나님의 도움과 승리의 역사적 증거이다. 이와 같이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복종한다면 언제나 그분의 도움과 승리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2 메카 정복 이후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사람들은 무리지어 하나님의 사자 무함마드를 찾아왔고 우상숭배자, 다신교도, 무신론자이든 거의 모든 아랍인들이 하나님의 종교에 귀의하였다.

3 하나님의 사자와 그의 동료(ṣaḥābah)들 그리고 초기 무슬림들 모두가 이슬람의 전파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경주하고 큰 희생을 치렀지만 그들의 최후 승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항상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여야 한다. 그분께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그분은 즉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알 함두릴라!!

## 안 나쓰르 장의 가르침

-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
- 참 신앙이 있는 한, 그분의 도움과 승리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 승리, 성공, 행복,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와 찬미를 그분께 드려야 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자비를 늘 생각해야 한다. 그분께서는 가장 관용하시는 분,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이시다.

제 111 장

# 알 마싸드 Al-Masad/알 라합 Al-Lahab

## 야자섬유 끈의 장/불길의 장

이 장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메카 포교 시대 동안 가장 앞장서 있던 이슬람의 적대자 아부 라합(Abū Lahab)과 그의 부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부 라합은 예언자의 숙부들 중의 한 사람이었으나 아내와 더불어 이슬람 선교에 반대하고, 온갖 방법을 다해 예언자를 음해하고 박해를 가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장의 다섯 절 속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슬람의 대의에 적대하는 자들의 말로는 결국 멸망뿐이라는 것을 밝혀주신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와 권력, 그들이 누렸던 명예와 지위는 모두가 허망한 것이었다.

이슬람 전승에 의하면 당시 메카 사람들은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 싸파 언덕에 올라가 "야 싸바하(Yā Sabāhāh)! 사람들이여 즉시 오시오!"라

고 큰 소리로 외치면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도우려 달려오곤 하였다. 어느 날 무함마드가 싸파 언덕으로 가 "야 싸바하! 야 싸바하! 위험이 가까이 왔습니다. 다가와 내 말을 들으시오!"라고 소리쳤다. 무함마드는 평소 앗 싸디끄(aṣ-Ṣadīq 신용 있는 사람), 알 아민(al-Amīn 성실한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메카 사회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다. 사람들은 달려와서 그를 둘러싸고 물었다. "무함마드여! 우리를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 무함마드가 심각하게 말하였다. "제가 여러분에게 큰 위험에 대해 알려준다면 제 말을 믿겠습니까?" "물론이지 무함마드! 우린 어린 시절부터 자넬 잘 아네. 자네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지!" 그들의 대답을 듣고 무함마드는 진리의 계시를 전하기 시작하였다. "제가 여러분을 부른 것은 중대한 소식을 전하고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끼야마(qiyāmah 부활)의 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혹한 형벌이 우리에게 오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경고자입니다."

꾸라이쉬족 원로들은 무함마드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들은 너무도 자존심이 강하여서 감히 누가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그의 삼촌 아부 라합이 나서기 전까지는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만큼 마흔 살에 이른 무함마드는 누구에게나 존중받고 신용이 두터운 사람이었다. 아부 라합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는 조카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큰 소리로 "네게 파멸이 있으라! 이것이 정말 네가 우리를 불러모은 이유냐?! 너는 우리의 귀한 시간만을 낭비하게 했구나!!" 하면서 큰 돌을 들어 무함마드에게 던지려 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결국 무함마드만을 남겨놓고 모두 언덕을 내려갔다. 그러고 나서 '아부 라합의 두 손에 파멸이 있으라!'라는 이 장이 계시된다.

이 장은 흔히 '알 라합(Al-Lahab 불길의 장)' 혹은 '불길의 아버지

장'이라고 부르지만 이 계시 내용의 주인공의 이름을 직접 써서 '아부 라합(Abū Lahab)의 장'이라고 부르거나 마지막 절에 있는 '야자잎 섬유로 만든 동아줄'의 마싸드(masad)라는 단어에서 '알 마싸드(al-Masad 야자섬유 끈)의 장'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일부 주해가들은 아부 라합이 무함마드에게 "네게 파멸이 있으라!"라고 저주의 말을 한 뒤 곧 이 장이 계시되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아부 라합의 두 손에 파멸이 있으라!"라고 이 장의 첫 절이 시작되었으므로 그 첫 단어인 탑바트(tabbat 파멸하다)를 이 장의 이름으로 붙혀 '탑바트의 장'이라고 부른다.

## 제111장 سُورَةُ المَسَد

بِسْمِ ٱللَّهِ ٱلرَّحْمَٰنِ ٱلرَّحِيمِ

تَبَّتْ يَدَآ أَبِي لَهَبٍ وَتَبَّ ١ مَآ أَغْنَىٰ عَنْهُ مَالُهُۥ وَمَا
كَسَبَ ٢ سَيَصْلَىٰ نَارًا ذَاتَ لَهَبٍ ٣ وَٱمْرَأَتُهُۥ
حَمَّالَةَ ٱلْحَطَبِ ٤ فِي جِيدِهَا حَبْلٌ مِّن مَّسَدٍ ٥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아부 라합의 두 손[1]에 파멸이 있으라![2] 그는 파멸할 것이니라!

**02** 그의 재물과 그가 얻은 것[3]이 그에게 득[도움]되지 않을 것이니라!

**03** 그는 곧 타오르는 불길 속[지옥불]에 타게 되리라!

**04** 그리고 땔 나무를 운반하던 그의 아내![4]

**05** 그녀의 목에는 야자섬유 동아줄[5]이 감겨져 있으리라!

---

1) 여기서의 '손'은 그가 가졌던 권세와 영향력을 뜻한다.
2) 탑바트(tabbat)는 동사 탑바(tabba 멸망하다, 망하다)의 3인칭 단수 여성형이다.
3) 알 따바리를 비롯한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서의 '마 카싸바(ma kasaba 그가 얻은 것)'를 '그의 자손들'로 해석한다.
4) 아부 라합의 아내 움므 자밀('Umm Jamīl)은 예언자가 자주 다니던 길에 가시 돋친 땔감 나무를 가져다 놓아 예언자를 다치게 하였다.
5) 가시나무더미를 묶었던 야자섬유로 만든 질긴 끈, 동아줄.

## 해 설

1 아부 라합의 원래 이름은 압둘 웃자 빈 압둘 뭍딸리브('Abdal-'Uzzah b. 'Abdal-Muṭṭālib)였다. 알 웃자는 우상 숭배자였던 아랍인들의 가장 유명한 우상신들 중의 하나로, 그의 이름인 압둘 웃자는 '웃자 신의 종'을 뜻하였다. 압둘 웃자가 '불길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부 라합'으로 불리우게 된 것은 그의 불같은 성미와 이에 더해 유난히 붉었던 그의 얼굴과 피부색 때문이었다. 그는 신의 사자를 박해하고 적대하는 데 앞장섰다. 여기서 아부 라합의 '양손'이란 권력을 뜻한다. 그가 갖고 있던 힘과 메카 지배계층에서의 강력한 영향력을 의미한다.

2 그는 부자였고 꾸라이쉬족의 원로 지도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모든 권력, 힘, 재물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그것을 가질 수 없고 또 언제까지나 그것을 소유할 수도 없다. 아부 라합의 권세가 하나님의 노여움으로부터 결코 그 자신을 구할 수 없다. 그가 얻고 쌓아놓은 모든 것이 종국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다.

3 아부 라합은 잘 생긴 얼굴이나 자식, 쌓아놓은 재산, 넘치는 자존심을 뽐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의지에 불복종하는 자는 심판의 날, 타오르는 지옥불 속에 던져질 뿐이다. 사악한 그의 아내 역시 마찬가지의 운명이다.

4 그녀의 원래 이름은 아르와 빈트 하르브 빈 우마이야('Arwah bint Ḥarb b. Umayyah)로 꾸라이쉬 족장 아부 수프얀(Abū Sufyān)의 누이였다. 그녀는 예언자를 해칠 목적으로 밤중에 가시 돋친 나무들을 운반해 와 예언자가 늘 다니는 길목에 놓아두어서 어두운 길을 걷던 예언자를 상처 입게 하였다. 일부 주석가들은 '땔감나무를 나르는 것'이 사람들에게 '거짓 이야기들을 지어내 말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해석한다. 그녀는 예언자를 음해하고 중상 모략하는 말들을 퍼뜨려 사람들이 예언자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 애썼다.

5 아부 라합의 부인은 예언자의 집이 있는 쪽으로 가시나무들을 운반하기 위해 단단히 꼬아 만든 야자섬유 동아줄로 나무들을 동여맸다. 심판의 날, 그녀의 목에는 불로 만들어진 단단히 꼬여진 동아줄이 감겨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같이 타오르는 화염 속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 알 마싸드/알 라합 장의 가르침

- 아부 라합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그들의 악행으로 지옥불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 이슬람과 무슬림들에게 해악을 끼치려 하는 자는 결코 그들의 시도와 노력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 가족, 돈, 명예, 권세는 하나님의 대의에서 벗어나 있는 어떤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다.
- 믿는 자들은 그들 앞에 직면하는 시련들을 하나님으로부터의 시험으로 생각해야 한다.
- 신앙과 실천에서 독실한 무슬림으로 확고부동하게 남아 있는 한 그들은 성공하게 될 것이다.

제 112 장

# 알 이클라스 Al-Ikhlāṣ/앝 타우히드 At-Tawḥīd

성실의 장/유일성의 장

네 절로 된 이 짧은 장은 꾸란의 가장 중요한 장 중의 하나이다. 이 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일성(tawḥīd)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알 부카리가 기록한 하디스에 따르면 예언자 무함마드는 "그분 손 안에 내 영혼이 있는 그분께 걸어 맹세하건대, 이 성실의 장은 꾸란의 1/3에 상당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유일성'은 꾸란 내용의 중심 주제이자 핵심적 메시지이다. 실제로 꾸란의 1/3이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의미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장의 이름인 알 이클라스(al-Ikhlāṣ)는 성실함, 진실함이라는 뜻으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순수하고 성실한 믿음'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고 성실한 믿음의 완벽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유일성, 단일성이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홀로 존재하시는 초월자, 절대자이시며 그분께만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다는 것이다. 그분의 창조와 보살핌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살지 못하고, 그분 외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죽고 만다. 그분 한 분의 권능만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는 오로지 그분께만 예배를 드리고 그분 외의 다른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구상의 아무리 강한 권력이나 지배적 사상일지라도 그것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종속되지 않는다. 그런 권력과 사상들은 계속 변화하고 언젠가는 사라진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한 근원으로부터 왔으므로 각기 모든 것은 서로 다른 것에 어떤 형태로든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대리인, 신탁인으로 만드셨다. 우리에게 '생각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소임을 맡을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창조물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도의 과학과 철학의 힘, 이해 능력이 주어져 있지 않다. 꾸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을 우주와 자연을 지키고, 시공을 초월하여 필요를 구하고 있는 인간을 보호하는 데에 현명하게 쓸 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자연과 인간 생활 모두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균형과 조화 속에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 아름답고 의미심장한 짧은 장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만 한다는 큰 가르침을 배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동반자, 배우자, 상대자, 협동자, 견줄 자가 없는 초월자, 절대자이시고 어떤 것에서도, 어떤 것에 의해서도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같이 아내, 아들, 딸, 또는 특별한 가족을 갖는 남성 혹은 여성

의 존재자가 아니시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종이다. 모든 것은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께로 돌아간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이 '성실의 장'을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암송했다고 전해진다. 오늘날에도 무슬림 모두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 장을 의미있게 암송한다. 이 장을 암송하지 않는 무슬림은 없다.

제 112 장 سُورَةُ الإخْلَاصِ

بِسْمِ ٱللَّهِ ٱلرَّحْمَٰنِ ٱلرَّحِيمِ

قُلْ هُوَ ٱللَّهُ أَحَدٌ ١ ٱللَّهُ ٱلصَّمَدُ ٢ لَمْ يَلِدْ
وَلَمْ يُولَدْ ٣ وَلَمْ يَكُن لَّهُۥ كُفُوًا أَحَدٌۢ ٤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말하라 (무함마드여!). "그분은 알라[하나님], 유일하신 분!**

**02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절대자[앗 싸마드][1]이시다.**

**03 "그분께서는 낳지도 않으셨고, 태어나지도 않으셨다.[2]**

**04 "그분께는 아무것도 대등한 것[3]이 없도다."**

---

1) 앗 싸마드(aṣ-Ṣamad)는 하나님께 속하는 속성들 중의 하나로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란 뜻이다. 인간을 비롯한 세상의 창조물 모두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창조주께 의지하고 도움을 간구 드리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필요를 초월하신 분, 완전하고 영원하신 절대자'이시다.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그분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시다.

2)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성부나 성자, 독생자의 개념은 이슬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유대인들은 우자이르('Uzayr, 구약의 에스라 Ezra)를 '알라의 아들'이라 말하고, 그리스도교인들은 예수('Īsā)를 '알라의 아들'이라고 말하나 이것은 단지 그들의 주장들일 뿐이다.

3) 목적격으로 쓰인 여기서의 쿠푸완(kufuwan)은 6형동사 타카파아(takāfa'a 둘이 동등하다, 대등하다)에서 만들어진 동명사형으로 '대등한 자, 동등한 것, 평등한 것'을 뜻한다.

## 해 설

1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al-'Aḥad)이시다. 아무것도 그분과 같지 않다. 그분께 견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돌보시는 부양자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로 돌아갈 것이다.

2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절대자(aṣ-Ṣamad)이시다. 앗 싸마드는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고 의지하는 분이시다. 그분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모든 피조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시는 분이며,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거나 의지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 영원히 존재하시고 스스로 독존하시면서 그 자신만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신 초월자, 절대자이시다.

3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다. 누구도 어떤 것도 그분을 창조하지 않았으며, 그분을 태어나게 하지도 않았다. 또 그분은 누구도 낳지 않으셨다. 인간과 동물은 낳아지고 낳는다. 그분께서는 창조주이시기에 단지 한 마디 말씀의 명령으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다. "있어라!" 그러면 있게 된다.

4 생물이나 무생물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아무도 그분의 권능을 나누어 갖지 못한다. 아무도, 어느 것도 그분께 비교될 수 없다. 비교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우상을 만드는 일과 하나님을 형상화해 놓거나 그러한 것들에 절하는 것은 큰 죄이다. 아무것도 그분과 같지

않다.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그분께 견주어져서는 안 된다. 결코 동등하거나 대등하지 않으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것과도 그분은 같지 않다.

## 알 이클라스/알 타우히드 장의 가르침

-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 그분은 앗 싸마드(Aṣ-Ṣamad 영원하신 절대자)이시다. 우리 모두는 그분께 의존하나 그분은 아무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 그분은 상대자, 대등한 자, 비견자. 아들, 딸, 혹은 배우자를 갖지 않으신다. 아무도 그분의 권능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 그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으로 절대로 형상화하여 그려내거나 만들어 낼 수 없다. 이슬람에서 신인동형론 같은 것은 설자리가 없다.
- 이 장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유일성, 완전성, 영원성, 초월성,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타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론'이나 일부 불신자들이 말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묘사 등이 모두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준다.

## 전승 이야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인간과 우주만물을 만드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들은 자주 그것을 잊는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그분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분이 그들이 보는 '모든 것' 뒤에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거나 잊고 있다. 그들이 그분에 대해 생각할 때 그들은 그분을 쉽게 상상해 낼 수 없다. 그들은 그분이 무엇과 같은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때론 그분이 우리와 같다거나 그들이 아는 어떤 것, 그들이 볼 수 있는 위대한 어떤 것, 예컨대 나무, 돌, 해, 달, 하늘, 바다 같이 생각한다. 때때로 그들은 그분이 우리와 같이 가족과 아이들을 갖는다고 말한다. 혹은 그들은 그분이 많은 신들의 우두머리이고 각각의 신은 다른 임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한 신이 돈을 돌보고, 다른 한 신은 동물들을 돌보며, 또 다른 한 신이 비를 만들고, 그리고 또 다른 신은 초목들을 자라게 만든다고 말한다.

때때로 그들은 땅이 겨울에 잠자고 봄이 되면 일어나 활동하는 한 신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신들에 대한 사진들, 그림들, 혹은 동상들을 만드는 일을 시도한다. 그런 것들은 우상으로 불리운다. '우상'은 한 분 진정한 신, 하나님 외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숭배하는 모든 형상의 것에 대한 통칭이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우상을 만들고 아직 우상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집에, 동네에, 산속에 각종 우상의 형체들, 그림, 사진들을 모셔놓고 섬긴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우상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그들의 시간을 돈을 벌고, 모으고, 돈에 대해 생각하는 데에 보낸다. 그들은 돈을 섬긴다. 돈이 그들의 우상이다.

예언자 아브라함, 모세 시대에도 그랬었지만, 예언자 무함마드의 시대

에도 사람들은 이러한 우상 신들을 갖고 있었다. 카아바 주변과 내부에 그들을 위한 360개 상들이 모셔져 있었다. 일부 도시들은 알라의 딸이라고 말하는 나무 혹은 돌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이런 우상들을 숭배했다. 때때로 순례 온 사람들은 카아바 옆에서 한 돌을 집어들어 그것을 먼 거리의 그들의 집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그것을 특별한 장소에 모셔 놓았고 그것을 돌보았다. 그런 후에, 그들은 점차 그것에 복을 달라고 청하고 마침내는 그것에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같이 그것은 그들의 가족 우상이 되었다.

무함마드와 초기 무슬림들이 메카를 해방시켰을 때,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카아바를 깨끗이 청소하고, 모든 우상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일부 사람들은 무슬림들이 이런 짓을 한 것에 큰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은 우상들을 해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우상들이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몸소 배웠다. 그들은 무슬림이 되었고 예언자를 따르게 되었다.

그들은 알라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알았다. 어떤 동반자도 없는, 부인도 아들도 딸도 가족도 갖지 않는 초월자이심을 알게 되었다. 그분께서는 남성 혹은 여성이 아니고, 그분께서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 그분께서는 우리 앞에 계셨고 그리고 우리 뒤에도 계실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보는, 알고 있는, 느끼고 있는 어떤 것도 결코 그분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113장

# 알 팔라끄 al-Falaq
## 여명의 장

다섯 절로 된 메카 초기의 계시인 이 장은 뒤에 오는 제114장 안 나스(An-Nās 인간의 장)와 쌍둥이 장이다. 이 장의 이름은 첫 번째 절에 있는 '새벽의 동틀 녘'이라는 단어에서 지어졌다. 이 장은 우리의 외부로부터 오는 온갖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단히 도움과 가호를 구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그러한 해악들은 미신, 마법, 마술, 요술, 사악한 음모, 질시, 타락, 방황, 자연현상에서 오는 재앙, 피해, 두려움, 공포 등 여러 요인들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 쌍둥이 장은 무슬림이면 누구나 어린 시절에 가장 먼저 암기하는 장들 중의 하나이다. 다음과 같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경험과 충고가 담겨있는 장이기 때문이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메디나에서 살던 어느 날

병이 난 것을 느꼈는데 병세가 보통이 아니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점점 악화되었고 아무도 그 병의 원인을 알아낼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누군가가 그에게 마법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면서 이 쌍둥이 두 장, '여명의 장'과 '인간의 장'을 암송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마법의 영향을 제거시켜 주실 것임을 가르쳐 주었다. 예언자는 이 두 장을 암송할 때마다 몸이 나아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마음속의 큰 짐을 내려놓듯 심신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았을 때 그들은 예언자에게 달려와 과연 누가 예언자에게 마법을 걸었는지를 알고 싶어했다. 그러나 예언자는 끝내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해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장의 독송을 통해 내게 건강을 주셨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복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이 두 장의 계시들이 어떤 다른 경전이나 계시서들에도 들어 있지 않은 것임을 무슬림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는 우리에게 매일 밤과 아침마다 이 두 장을 암송할 것을 권고하였다. 예언자의 부인, 아이샤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언자가 이 두 장을 암송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기도할 때처럼 두 손을 펴 얼굴 앞에 놓고 이 장을 암송 한 후 그의 숨을 두 손에 불은 다음 두 손으로 얼굴과 몸을 문질렀다고 한다.

이 두 장(al-mu'awwidhatayn)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모든 인간사의 주관자이심을 가르친다. 그분께서는 빛과 어둠을 주시고 모든 일을 관장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신실한 무슬림은 안전과 강함을 스스로 느끼게 마련이다. 모든 해악과 불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 제 113 장 سُورَةُ الفَلَقِ

بِسْمِ ٱللَّهِ ٱلرَّحْمَٰنِ ٱلرَّحِيمِ

قُلْ أَعُوذُ بِرَبِّ ٱلْفَلَقِ ﴿١﴾ مِن شَرِّ مَا خَلَقَ ﴿٢﴾ وَمِن
شَرِّ غَاسِقٍ إِذَا وَقَبَ ﴿٣﴾ وَمِن شَرِّ ٱلنَّفَّٰثَٰتِ
فِى ٱلْعُقَدِ ﴿٤﴾ وَمِن شَرِّ حَاسِدٍ إِذَا حَسَدَ ﴿٥﴾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말하라 (무함마드여!) “저는 여명[1]의 주님께 가호를 구합니다.”**

**02 “그분께서 창조하신 것 가운데 악으로부터,”**

**03 “어두워졌을 때 캄캄한 밤[2]의 악으로부터,”**

**04 “매듭들에 숨을 불어넣어 (마법하는) 자들[3]의 악으로부터,”**

**05 “그가 질투할 때 질투하는 자의 악으로부터 (주님께 가호를 구합니다)”**

---

1) 알 팔라끄(al-falaq)는 ‘동틀 녘, 새벽녘, 여명’의 뜻이다.

2) 와까바(waqaba)는 해가 져 ‘어두워지다’의 뜻이고 가씨끄(ghāsiq)는 동사 가싸까(ghasaqa 밤이 되어 캄캄하게 되다)의 능동 분사형으로 ‘암흑, 캄캄한 밤의 어둠’을 의미한다.

3) 우까드(‘uqad)는 우끄다(‘uqdah 매듭)의 복수형이다. 낲파사트(naffāthāt)는 이러한 매듭에 입김을 불어넣어 주술적 행위를 하는 ‘여자 마법사들’을 가리킨다.

## 해 설

1 우리는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으며 신비한 것들로부터 주님께 안전과 보호를 청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만물의 주님이시고 창조주이시다. 그분께서 어둠과 빛을 창조하셨다. 그분께서는 어둠을 거두시고 빛을 가져다주신다. 우리에게 이슬람의 광명을 주셨고 무지와 불신의 어둠에서 우리를 구하셨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고, 새벽녘 광명을 주시듯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여명의 주님이시다. "아우즈 빌라히 ('a'ūdhu bi-Allāhi), 주님께 가호를 구하옵니다"라는 표현은 무슬림 사회에서 일상의 관용구이다. 너무나 충격적이거나 터무니없는 경우, 또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입속에서 되뇌어지는 말이기도 하다.

2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어떤 것은 우리에게 이롭고 유용하나, 어떤 것은 해롭다. 이로움을 주는 어떤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해롭게 작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모든 것을 지배하고 운용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것들 중의 해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이시고 또 그분이 창조하신 것들로부터 우리를 이익되게 하실 분이시기도 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선의 인도를 받아 악을 물리쳐야 한다.

3 우리는 캄캄한 밤의 어둠속 악들로부터 빛을 가져다주시는 여명의 하나님께 보호를 청해야 한다. 악과 무서운 것들은 대체로 어둠 속에서 활개치고 캄캄한 밤에 일어난다. 강도, 살인, 도박, 다른 죄짓

는 행위들이 주로 밤의 암흑 속에서 행해진다.

4 마법과 요술은 이슬람에서 금지된다. 이러한 것들은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행해져서는 안 된다. 고대 아라비아의 무지한 사람들은 끈의 매듭들에 입김을 불어넣으면서 주문을 외우고 주술과 마법을 거는 마술사, 마법사에 의존하였다. 점을 치는 여인들이 많았으며 비밀스런 주문이나 행동들로 남이 잘못되고 나 만이 잘되길 기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요술과 마법이 성행하였다. 매듭에 숨을 불어넣는 것은 타인의 영혼을 매듭에 결박하려는 주술적인 행위로 특히 전문화한 일부 여성 마법사들이 이 분야에 특별한 힘을 갖고 있다고 여겨졌다. 다양한 술수로 진실을 감추고 우리로 하여금 보지도, 알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요술이나 마술, 마법을 부리는 사람들의 해악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가호를 구해야 한다.

5 질투와 시기는 나쁜 감정의 대표적인 것이다. 질투하는 사람은 타인이 잘못되어 망하기를 기원한다.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을 질시한다. 성공한 사람을 질투하여 저주하고 음모를 꾸며 실패하게 만들려고 한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 "주님, 우리를 타인의 질투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아울러 우리의 마음을 질투로부터 순결히 지켜주소서. 아민"

## 알 팔라끄 장의 가르침

-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선과 악 모두를 지배하신다.
- 우리는 우리 외부로부터 오는 해악들로부터 하나님께 가호를 구해야 한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총을 내려주신 사람들에게 시샘이나 질투를 느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신앙인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니다.

제 114 장

# 안 나스 An-Nās
## 인간의 장

이 인간의 장은 총 114장으로 되어 있는 성 꾸란의 마지막 장이다. 메카 계시이고 6절로 되어 있다. 앞의 제113장 여명의 장과 쌍둥이 장으로 불린다. 두 장에서 우리 인간은 모든 형태의 악과 유혹,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청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운다. 앞 장이 외부로부터 오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탄원인데 비해 이 장은 우리 내부로부터 생겨나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가호를 구하는 기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을 내쫓기 어렵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신다. 온갖 해악과 불행의 씨앗이 타인이나 진에 의해 우리가 알지 못

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과 가슴속에 심어질 수 있다. 특히 우리의 불가시 세계에 있는 진은 선하거나 악하거나 보이지 않는 심적 영향력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여 저주받은 대표적인 악한 진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진들에게 인간 아담에게 절할 것을 명령하셨으며 모두가 복종하였으나 이블리스(Iblīs)라는 사탄만이 이를 거부하였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이 장을 통해 사탄의 해악을 피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이 우리의 보호자, 인간의 주(主)이신 하나님께 가호를 구하는 것임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

사탄은 때로 우리 주변의 악한 친구들을 통해 우리에게 접근하기도 한다. 우리는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탄은 그를 통해 우리를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그가 거짓을 말하고 있지만 마치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게 한다. 사탄은 자신의 지배 속에 우리를 놓아두길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사람들과 악한 진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려면 항상 이 장을 암송하며 가호를 청할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사자 무함마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면 스스로 우리를 떠나간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으면 해악을 우리 안에 만들기에 바쁘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와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만큼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한다. 우리를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시도하려는 사탄들과 악령의 진들을 경계해야 한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우리에게 앞의 '여명의 장'과 이 '인간의 장'을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꼭 낭송하라고 충고하였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부와 외부로부터 오는 해악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다.

## 제 114 장 سُورَةُ النَّاسِ

بِسْمِ ٱللَّهِ ٱلرَّحْمَٰنِ ٱلرَّحِيمِ

قُلْ أَعُوذُ بِرَبِّ ٱلنَّاسِ ﴿١﴾ مَلِكِ ٱلنَّاسِ ﴿٢﴾ إِلَٰهِ ٱلنَّاسِ
﴿٣﴾ مِن شَرِّ ٱلْوَسْوَاسِ ٱلْخَنَّاسِ ﴿٤﴾ ٱلَّذِى يُوَسْوِسُ فِى
صُدُورِ ٱلنَّاسِ ﴿٥﴾ مِنَ ٱلْجِنَّةِ وَٱلنَّاسِ ﴿٦﴾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01 말하라 (무함마드여!) "저는 인간의 주님께 가호를 구합니다.

02 "인간의 왕,"

03 "인간의 신이신 (주님께 가호를 구하옵니다.)"

04 "은밀히 속삭이다가 물러가는 악마[1]의 악으로부터,"

05 "인간의 가슴속에다 속삭이고 있는,"

06 "진과 인간들 가운데 있는 (악마의 악으로부터 가호를 구하옵니다)."

---

1) 알 와스와스 (al-Waswās 속삭이는 자, 악마) 알 칸나스 (al-Khannās 물러가는 자, 철수하는 자)는 방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악으로 유혹하는 말을 은밀히 속삭이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즉각 사라지는 '악마'임.

## 해 설

1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누구도 그분의 허가 없이는 우리를 도울 수도, 해할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항상 그분께 보호를 청하고, 우리 내면 혹은 외면에 있는 악의 힘으로부터 가호를 구하여야 한다. 이 장의 첫 세 절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유일한 신이라는 가장 중요한 그 분의 고유 속성을 다시 배운다.

2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主)이시며 통치자이시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왕이시고 주님이시다. 아무도 그분의 권위와 권능을 나눠 가질 수 없다.

3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유일한 신이시다. 그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신이시고, 동시에 그분을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신이시다. 하나님 이외에 신은 없다.

4 우리는 우리의 귀에 은밀히 속삭이며 유혹하는 자들과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을 불어넣고 있는 악마(알 와스와스)의 해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내면의 악한 생각들이 악마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사탄은 인간의 가장 위험한 적이다. 우리가 꾸란과 예언자 쑨나를 충실히 따를 때 사탄은 우리로부터 멀리 달아난다. 우리가 알라의 이름을 부르고 염송하는

순간 그는 즉각 사라진다.

5-6 우리를 유혹하며 속삭이는 자는 진 또는 사람이다. 그들 가운데 사탄과 같이 행동하는 자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우리 앞에 친구로 다가와 악행이나 부끄러운 짓을 하도록 충동질한다. 우리 곁의 이런 악의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구하는 방법은 그런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권능을 믿고 가호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 안 나스 장의 가르침

-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왕, 부양자, 보호자, 주님이시다.
- 우리는 사탄에 의해 비롯되는 모든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가호를 청해야 한다.
- 사탄은 진과 인간들 가운데 공히 존재한다.

# 특송 절 11선

# 특송절 : 제2장 1~5절, 255절, 285~286절 제59장 22~24절

꾸란의 장절은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가르침을 담고 있지만, 무슬림들은 예배나 특별 의식, 각종 행사를 위해 그때마다 예언자 쑨나와 하디스의 가르침에 따라 특정의 장을 즐겨 독송하는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무슬림들에게는 자신의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하나님과 자신 만의 소통을 갈구하여,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으로 각기 각별히 선호하여 독송하는 장절이 있게 마련이다. 예배 때마다 독송해야 하는 개경장은 물론이거니와 그 대표적인 경우로 꾸란 제112장 '성실의 장', 제103장 '시간의 장', 제113장 '새벽의 장', 제114장 '인간의 장' 등 꾸란 주즈(juz') 30편에 속해있는 여러 장들을 들 수 있는데, 여기 선정해놓은 '권좌의 절'을 비롯한 특송되는 절들(꾸란 제2장

제1~5절, 255절, 285~286절, 꾸란 제59장 제22~24절) 또한 거의 모든 무슬림들이 항시 암송하고 있는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절들이다. '꾸란이 무엇인가?', '알라께서는 누구이신가?', '진정한 신앙인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귀중한 가르침에 더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모범적인 '기도문'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암소의 장(Al-Baqarah)은 메디나 계시임에도 불구하고, 메카 계시인 꾸란의 첫 장, 개경장 뒤에 제2장으로 배치되어 있다. 개경장의 마지막 부분이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라는 간구로 끝을 맺고 있는데, 이 암소의 장이 바로 그 기도에 대한 답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책[꾸란]이니라.' (제2절)

그리고나서 알라께서는 '믿는 자가 누구인가?'를 이 장의 제3~5절과 마지막 285~286절에서 가르쳐주신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한다. 유일하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천사들, 성서들, 사자들, 내세를 믿어야 한다. 예배를 드리고 자카트를 바치며, 그분의 명령과 법에 복종해야 한다. 이들이 곧 경건한 신앙인 뭍타꾼이고, 성공하는 자들 무플리훈이다.

'알라께서는 누구이신가?'는 유명한 '권좌의 절'(꾸란 2:255)과 집합의 장(Al-Ḥashr) 마지막 제22~24절에 밝혀져 있다. 그분께서 가지신 고유한 속성 99가지는 바로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들이다. 그분께서는 유일하신 분, 영원하신 분, 창조주, 마지막 예언자를 통해 우리에게 꾸란을 내려주신 분, 우리에게 각자 행위의 책임을 져야하는 짐을 지워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세상의 종말에 우리에게 그 책임에 대해 물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시다. 그분의 자비에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의 찬송을 드려야 한다.

암소의 장 마지막 두 절(제285~28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

쳐주신 기도문이다. 이 기도문처럼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꾸란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인 암소의 장에는 예배, 자카트, 단식, 순례 등 이슬람 교리와 실천의 근간이 되는 계시들 뿐 아니라 결혼, 이혼, 이자 문제 등 사회생활과 이슬람 법에 관계하는 다양한 주제들이 담겨 있다. 무슬림들이 이 장을 소중히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신앙과 공동체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적 가르침들에 더해 이슬람 전통에서 최고의 절이라 일컬어지는 '권좌의 절'이 있고, 개경장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위의 '기도문'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 만이 아니다. 이 장이 갖고 있는 미덕은 또한 여러 하디스들이 '사탄은 암소의 장이 들려오고 있는 집으로부터 멀리 도망간다'고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부 까씸 앗 따바라니(Abū Qāsim aṭ-Ṭabarānī)가 수집한 하디스에 의하면 '누구든지 밤에 암소의 장을 독송하는 자의 집에는 사탄이 3일 밤 동안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날 중에 암소의 장을 독송한 자의 집에는 사탄이 3일 동안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aṭ-Ṭabarānī 6:163) 또한 압둘라 빈 마스우드('Abdullāh b. Mas'ūd)가 전하고 안 다리미(ad-Dārimī)가 기록한 하디스에 의하면 '누구든지 밤에 암소의 장의 10절을 독송하면 사탄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 절들은 처음 4절(1~4)과 권좌의 절인 255절, 그 뒤의 256절, 257절, 그리고 마지막 3절(284, 285, 286)이다.' (ad-Dārimī 2:322)와 같은 것들이다.

무슬림들은 잠들기 전에 암소의 장을 읽는다. '권좌의 절' 만 암송해도 사탄이 접근하지 못한다고 믿는다. 또 다른 권위 있는 전승에 따르면 마지막 두 절만 독송해도 충분하다고 한다.

무릇 세계적 보편 종교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 종교를 믿는 신앙인과 신앙의 대상이 존재해야 하고, 신앙의 인도서인 경전과 내세관이 있어야

한다. 여기 선정한 꾸란의 절들은 하나님과 꾸란, 신앙인과 내세를 간명하게 설명해 준다. 무슬림들이 이 특송의 절들을 앉으나 서나 암송하면서 귀중한 절들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런 이슬람의 핵심적 정수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 2 장

# 알 바까라 Al-Baqarah

## 암소의 장(1절, 2절, 3절, 4절, 5절)

제2장 سُورَةُ البَقَرَةِ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 제2장

الٓمٓ ﴿١﴾ ذَٰلِكَ ٱلْكِتَٰبُ لَا رَيْبَ ۛ فِيهِ ۛ هُدًى لِّلْمُتَّقِينَ ﴿٢﴾
ٱلَّذِينَ يُؤْمِنُونَ بِٱلْغَيْبِ وَيُقِيمُونَ ٱلصَّلَوٰةَ وَمِمَّا
رَزَقْنَٰهُمْ يُنفِقُونَ ﴿٣﴾ وَٱلَّذِينَ يُؤْمِنُونَ بِمَآ أُنزِلَ
إِلَيْكَ وَمَآ أُنزِلَ مِن قَبْلِكَ وَبِٱلْءَاخِرَةِ هُمْ يُوقِنُونَ ﴿٤﴾

**01 알리프 람 밈.**[1]

**02 이것은 의심할 바 없는**[2] **성서[꾸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물타꾼]**[3]**을 위한 인도이니라.**

**03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4] **예배를 근행하며,**[5] **우리[하나님]가 그들에게 베풀어준 것을 유용히 쓰는 자들**[6]**이니라.**

**04 그들은 그대에게 내려진 것[꾸란]과 그대 이전에 내려진 것[토라, 인**

---

1) 아랍어 자음으로 된 이 글자들은 꾸란의 기적들 중의 하나이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 더 자세한 것은 앞의 제19장(마리아장) 제1절 해설 참조.

2) 라이브(rayb)는 '의심, 의혹'이다. 여기서와 같이 라 라이바 피히(lā rayba fīhi)라는 관용구로 쓰이면 '그 안에 의심할 것이 없는', '의심할 바가 없는'의 뜻이다.

3) 물타꾼(muttaqūn)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의 뜻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그래서 그분께서 금지해 놓으신 각종 죄와 악행을 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그래서 그분께서 명령하신 각종 선행을 실천하는), '경건하고 올바른 신앙인들'을 가리킨다.

4) 가이브(ghayb)는 문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뜻하나 여기서의 이 단어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보이지 않는 불가시 세계의 것들 즉, '신의 본질, 내세, 과거 역사 속 신의 징벌' 등을 믿는다는 포괄적 개념의 것이다.

5) 이까마트 앗 쌀라트(iqāmah aṣ-ṣalāh)는 '예배의 근행'이다. 무슬림은 하루 다섯 차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정규적인 예배를 드려야한다. 이것은 신앙과 실천의 첫 번째 기둥이자 의무이다.

6)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물질 혹은 양식]을 타인을 위해, 선행을 위해 유용히 쓰는 것을 말한다. 자카트(Zakāh 구빈 종교세)를 내는 것, 자기 자신 뿐 아니라 부인, 자식, 부모 등 가족을 위해 쓰는 경비,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자선, 알라의 대의를 위해 바치는 희사금, 지하드(jihād) 행위 등을 가리킨다.

## 제2장

أُوْلَٰٓئِكَ عَلَىٰ هُدٗى مِّن رَّبِّهِمۡۖ وَأُوْلَٰٓئِكَ هُمُ ٱلۡمُفۡلِحُونَ ٥

질]을 믿으며,[7] 그리고 그들은 내세를 확신하고 있는 자들[8]이로다.

**05** 이들이야말로 그들 주님의 인도 위에 있는 자들이며, 이들이야말로 성공하는[9] 자들[무플리훈]이니라.

7) 여기서 내려진 것은 '계시된 것'을 의미한다. 꾸란의 계시 이전에 내려진 것이란 모세에게 내려진 토라(Tawrāh)와 예수에게 내려진 인질(Injīl), 다윗에게 내려진 시편(Zabūr)등을 가리킨다.

8) '내세를 확신 속에 믿는다'는 것은 사후 부활, 선행과 악행에 대한 상벌, 천국과 지옥, 영생에 대한 신념과 신앙을 뜻한다.

9) 여기에서와 같이 꾸란은 '구원'보다는 '성공'이란 단어를 더 강조해 가르친다. 주님의 인도에 따라 경건히 이 세상을 살며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

## 해 설

1 꾸란의 여러 장들의 첫 절이 이와 같은 아랍어 알파벳 자음의 조합으로 된 신비에 싸인 글자들로 시작한다. 이를 꾸란 용어로는 무깓따아트라고 부른다. 앞의 제19장(마리아 장) 1절의 해설을 참조할 것.

2 이 계시의 간결한 의미는 '의심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책[성서]이니라.'이다. 그것은 '신의 말씀'으로, 어떤 이론이나 명상, 영감에 기초한 인간사회의 종교나 형이상학에 관계한 책이 아니다. 그런 책은 신념에 차 글을 쓴 저자일지라도 어느 순간, 자신이 펼친 이론이나 주장에 의구심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꾸란은 그런 책이 아니다. 말씀의 주체가 창조주 알라이시고, 완벽히 완성된 진리의 성서이다.

타끄와의 의미는 '신을 두려워함', '신앙심이 깊음', '신을 경외함'으로 일반적으로 '경건한 신앙'을 가리킨다. 한 전승에 의하면 오마르 빈 알 칻땁이 어느 날, 우바이 빈 카으브에게 타끄와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우바이는 "오마르여! 그대는 가시가 있는 길 위를 걸어 본 적이 있나요?"라고 되물었다. 오마르가 그렇다고 답하자 "그 때 어떻게 했습니까?"라고 또 물었다. 오마르는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는 투쟁하듯 걸었지요"라고 답하였는데, 이 때 우바이가 말하였다. "바로 그것이 타끄와입니다."

꾸란은 경건한 신앙인을 위한 인도서이다.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한 진리의 안내서이다. 꾸란 첫 장인 개경장의 끝부분이 '저희를 올바른 길

로 인도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문인데 이 절은 그 기도에 대한 답이다. 꾸란이 곧 경건한 신자들을 위한 진리의 인도서인 것이다. 그렇지만 진리로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몇몇 전제 요건들을 실천해야만 한다. 그 첫 번째는 악을 멀리하고 선과 덕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하나님, 천사, 계시들, 천국과 지옥 등)을 믿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뭍타꾼이다.

3-4 암소의 장 첫 네 절(2 ~ 5절)은 "믿는 자는 누구인가?"를 규명하는 기초 개념을 제시한다. 그 뒤로는 불신자(6 ~ 7절)와 위선자(8 ~ 20절)에 대한 묘사가 이어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누구든지 그분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신앙인이다. 꾸란은 그분께서 우리의 동정맥보다 더 가까운 곳에 계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 "나는 목의 동정맥보다 더 가까이 있노라" (꾸란 50:15) "너희가 돌아서는 어느 곳이나 신의 얼굴이 있노라" (꾸란 2:115) 불가시 세계에 대한 믿음은 이슬람 신앙의 기본이다. 부활의 날, 심판의 날 뿐 아니라 알라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하여 가르쳐주신 진리의 지식들, 예컨대 천지창조, 우주의 질서체계, 동식물의 생장, 과거 불신하던 백성들의 멸망, 영생하는 내세 등을 믿어야 한다.

예배와 자카트는 이슬람 신앙과 실천의 가장 큰 두 기둥이다. 이 절에서와 같이 꾸란 전체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수없이 반복된다. 이 두 기둥의 실천은 고양된 신앙심을 스스로 증명하고 믿는 자들의 최우선 의무사항이다. 또 진실한 신앙인은 최후 예언자에게 내려진 꾸란 뿐 아니라 그 이전에 계시된 하나님의 책들 모두를 믿어야 한다. 아브라함에게 내

려진 수후프는 사라지고 없지만 모세의 오경, 다윗의 시편, 예수의 복음서들은 현존한다.

경건한 신앙인과 평범한 신앙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그가 가진 내세에 대한 확신의 강도이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행하는 이 세상에서의 행동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운명으로 창조되었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이 세상의 종말 후, 알라께서는 우리에게 새 삶과 새 세계를 주실 것이나, 부활의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선행과 악행들을 심판받을 것이다.

5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세속 삶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다. 심판의 그날, 모든 것이 판가름난다. 그 날에 기뻐하는 자가 진정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다. '인도'와 '성공'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보상이다. '인도 위에 있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와 안내의 빛을 따르고 있다는 말이고, '성공함'이란 천국의 삶을 선행의 보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한다. 한 걸음일 지라도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경건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나'를 만들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제 2 장

# 알 바까라 Al-Baqarah

## 암소의 장 (255절)

제 2 장 سُورَةُ الْبَقَرَةِ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 제2장

ٱللَّهُ لَآ إِلَٰهَ إِلَّا هُوَ ٱلْحَىُّ ٱلْقَيُّومُ ۚ لَا تَأْخُذُهُۥ سِنَةٌ وَلَا نَوْمٌ ۚ لَّهُۥ

مَا فِى ٱلسَّمَٰوَٰتِ وَمَا فِى ٱلْأَرْضِ ۗ مَن ذَا ٱلَّذِى يَشْفَعُ عِندَهُۥٓ

إِلَّا بِإِذْنِهِۦ ۚ يَعْلَمُ مَا بَيْنَ أَيْدِيهِمْ وَمَا خَلْفَهُمْ ۖ وَلَا يُحِيطُونَ

بِشَىْءٍ مِّنْ عِلْمِهِۦٓ إِلَّا بِمَا شَآءَ ۚ وَسِعَ كُرْسِيُّهُ ٱلسَّمَٰوَٰتِ

**255 알라[하나님]! 그분 외에 신은 없도다.[1] 그분은 살아계신 분,[2] 자존 하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보호자[3]이시로다. 졸음도 잠도 그분께는 오지 않느니라.[4]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모두가 그분께 속하노라. 그분의 허락 없이 그분께 중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5] 그분은 그들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모두를)[6]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뜻하시는 것 외에는 그분의 지식 중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7] 그분의 권좌[8]가 하늘과 땅에 널리 퍼져**

---

1) 라 일라하 일라 후와(Lā ilāha illā Huwa)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그분 외에 숭배받을 권리를 가진 자 없다.'의 뜻임.

2) 알 하이유(Al-Ḥayyu 살아계신 분)를 많은 주석가들이 '영원히 살아 계신 분'으로 번역한다.

3) 알 까이유므(Al-qayyūmu)는 '스스로 존재하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살게 하시고 부양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분'의 뜻이다.

4)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다. 졸음이나 잠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는 분이시다. 휴식과 잠이 필요한 생물 모두는 그분의 피조물들이다. 구약의 창세기 2:2과 시편 78:65과는 대조적이다.

5) 만 다(man dhā)?는 '그는 누구인가?'이다. 그분의 허가없이 중재할 수 있는 자는 없다.

6) 앞에 있는 것은 '현세에서 그들[피조물들]에게 일어난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내세에서 그들에게 일어날 것'을 말한다.

7) 유히뚜나 비히 일만(yuḥīṭūna bihi 'ilman)은 '그들은 ~을 잘 이해하게 되다, 완전히 알게 되다'의 뜻이다. 여기서는 부정문인 '라 유히뚜나 비샤이임 민 일미히(lā yuḥīṭūna

## 제2장

وَٱلْأَرْضَ ۖ وَلَا يَـُٔودُهُۥ حِفْظُهُمَا ۚ وَهُوَ ٱلْعَلِىُّ ٱلْعَظِيمُ ﴿٢٥٥﴾

**있으며, 그것들[9]을 보존하는 것이 그분을 피곤케 하지 않느니라.[10]**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위대한 분이시로다.**

---

bishay'im-min 'ilmihī)'가 되어, '그분의 지식 중 어떤 것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다'의 뜻이다.

8) 쿠르씨(kursī)는 문어적으로 '걸상, 의자, 발판, 받침대'이다. 전통적으로 아랍의 주석가들은 이 단어와 꾸란 7:54, 10:3, 85:15 등에 있는 아르쉬('Arsh 옥좌)와 구별하여 이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의 쿠르씨(권좌)는 '힘, 권세, 권위의 상징'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다. 자마크샤리(Zamakhshari)는 '그분의 주권,' '그분의 지배권'으로 해석하였고, 라지(Rāzī)는 이 단어가 신의 존엄과 형언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는 의미의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일부 꾸란 번역자는 그분의 '권세' 또는 '지식'으로 번역한다. 근대 인도의 아불 아을라 마우두디(Abul A'la Maudūdi)의 꾸란 주해서에서는 '그분의 왕국'으로 번역되었다.

9) 여기서 쓰인 원래의 대명사는 쌍수인 '그것 둘'이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둘 안에 있는 모든 것'의 뜻이다.

10)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 절대자, 초월자이시다. 휴식, 피로, 피곤과 같은 단어는 그분과 무관하다.

## 해 설

이슬람 전통에서 꾸란의 최고의 절로 말하고 있는 이 권좌의 절(Āyah al-Kursī)은 다음의 10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하나님! 그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아무 것도 숭배받을 권리를 갖지 못한다. 오직 그분 만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주권자이시다. 꾸란에 따르면 그분과 비견되는 것(쉬르크)을 만들어 놓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죄다.

2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여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알 하이유],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모든 생물을 살게 하시며 보살펴 주시고 부양해주시는 분[알 까이유무]이시다. 그분의 '살아계심', '존재하심'은 우리의 존재함, 우리의 생존과는 다른 것이다. 우리의 불완전한 생존이나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분의 살아계심은 '완벽한 존재이고 계심'이다. 그분 외의 모든 다른 것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부수적이고 순간적이며 사라지고 덧없는 것이다. 하늘과 땅, 우리의 사상, 우리가 가진 물질, 그 모든 것은 그림자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다.

3 그분께는 잠이나 졸음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다. 우리 인간같이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이다. 유한하거나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는 잠이 오면 참지 못한다. 잠과 휴식은 우리 인간과 동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어떤 쉼이나 휴식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절대자요 초월자이시다. 약함이나 부족함

은 그분 피조물들의 속성이다. 그러한 가정을 그분께 적용하는 개념 자체가 잘못이다. 비록 비유일 지라도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꾸란의 가르침은 구약의 창세기와 시편의 다음과 같은 구절과 대조적이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2:2)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 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사" (시편 78:65)

4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모두 그분께 속하노라.'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알라의 종이요, 우리와 우주 만물이 그분 왕국의 일부이며 그분의 권세와 주권 아래에 있다는 뜻이다. 어떤 것도 그분 통치의 빛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같은 내용의 계시는 앞의 꾸란 마리아장 19:93-95 참조.

5 그분의 허락없이 그분께 감히 중재하며 나설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우리 중에는 간혹 성자와 성인, 천사와 같은 존재자가 알라의 이름을 빌려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특별한 능력을 행사하며 그분께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함받게 도와줄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망상속의 사람들이 있다. 꾸란 여러 곳에서 되풀이되는 이 계시는 '신과 인간간의 직선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이슬람 교리를 새삼 깨닫게 한다. 이슬람에는 성직 제도가 없고, 중보자의 개념이 없으며 따라서 무슬림은 누구나 자신의 신앙과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 직접 교통하며 간구해야 한다. 예언자, 천사, 성자 어느 누구도 그분의 허가 없이는 한마디 말일지라도 중재의 말을 결코 할 수 없다. 같은 내용의 계시는 꾸란 21:28절 참조. 하늘에 많은 천사가 있으나 그분의 허가 없이는 결코 중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시는 꾸란 53:26 참조.

6 그분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창조물들에게 일어난 것을 모두 다 아시고 또 내세에 그들에게 일어날 것도 모두 다 알고 계시다. 창조주이신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갖고 계시다. 그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장하시고 삶과 죽음을 결정하신다. 펼쳐진 일들과 펼쳐질 일들, 이루어진 일들과 이루어질 일들을 모두 아신다.

7 그러나 그들[그분의 창조물]은 그분께서 의도하신 것 외에는 그분의 지식 중 어느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알라의 지식은 무한이고 절대적이다. 시간이나 공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우리를 포함하여 그분의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이러한 조건들이 항상 적용된다. 그분의 지식과 우리의 지식은 다른 범주 속에 있다. 우리의 지식은 단지 그것이 그분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서 드러나게 될 때 그 실제의 반향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알라께서 우리로 하여금 실제에서 알게 해 주신 것 외에 아무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분의 지식 체계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작은 부분이고, 그분께서 그분의 사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과 우리의 이성과 과학, 경험 속에 그분의 허락으로, 그분의 은총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 뿐이다. 천사와 진, 우리 인간의 지식은 불안전하고 한계가 있는 것들이다. 똑같은 내용의 계시가 꾸란 20:110에도 반복되어 있다.

8 '그분의 권좌가 하늘과 땅에 넓게 퍼져 있도다.' 여기서 쓰인 아랍어 단어 쿠르씨(권좌)는 권세와 권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비유이다. 우리말이나 영어에서도 간혹 의자는 통치자의 자리나 권위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우리말로는 권좌라는 단어가 어울린다. 일부 영어 번역자들은 여기서의 쿠르씨를 영어 단어 'Throne'으로 번역한 것

은 오역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꾸란 7:54, 10:3 등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리', '옥좌'를 뜻하는 아르쉬('Arsh)와 동격으로 번역해서는 안 되고 구별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아마도 이것은 하디스 중에 "아르쉬와 비교하여 쿠르씨는 사막의 열린 공간에 떨어진 반지와 같은 것이다." 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상상 밖에 계신, 시공을 초월하여 계신 절대자, 전능자이시다. 만약에 쿠르씨가 온 우주의 공간에 펼쳐져 있다면 얼마나 큰 것이 아르쉬일 것인가! (The Noble Qur'an-English Translation of the meanings and commentary, King Fahd Complex for the Printing of the Holy Qur'an, 1417H, p.57 참조)

9 '그리고 그분은 그것들[그둘, 즉 하늘과 땅]을 보호, 유지하시는데 전혀 피곤을 느끼지 않으신다.' 이 말씀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보살피고 보전하시는 일이 그분을 지치게 하거나 또는 피곤하게 하지 않으며 전혀 그분께 짐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 사고는 가당치 않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초월하여 계신 분이고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갖고 계시다. 그와 같은 일은 오히려 그분께 너무나 쉬운 일이다. 온 우주의 생물을 양육하고 완벽하게 보살펴 주시는 일은 사소하고 간단한 일이다. 그분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아무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물을 수 없다. 반면에 그분께서는 그분의 피조물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심판의 날에 질문하실 것이고 그들은 그 질문에 답해야만 한다.

10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위대한 분이시로다. 아민.

## 전승 이야기

'권좌의 절'은 꾸란의 절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절로 말해진다. 이 절의 독송은 엄청난 미덕을 불러온다고 무슬림들은 믿고 있다. 권위있는 하디스들이 이 절을 '가장 위대한 절(Āyah)로 묘사하고 있다. (Aḥmad 5:14, Muslim 1:556)

알 부카리는 그의 하디스집 - 꾸란의 미덕들에 대한 장, 사탄의 모습에 관한 장에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다. "알라의 사자 무함마드는 내게 라마단의 희사물(ṣadaqah)을 감시하고 지키는 임무를 맡겼다. 그런데 한 사람이 몰래 들어오더니 한웅큼의 식량을 가져가려 했다. 내가 그를 잡아서 말하였다. '알라께 맹세코 너를 신의 사자께 데려가겠다.' 그가 말하기를 '제발 나를 놔 주세요. 저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이고 사실은 많은 부양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필요와 요구 속에 사는 어려운 처지입니다.' 나는 그가 측은해서 놓아 주었는데 아침에 알라의 사자가 내게 물었다. '아부 후라이라야! 어제 네가 잡았던 자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그에게 답하기를 '알라의 사자여! 그는 필요한 것이 많고, 부양 가족이 많다고 제게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를 놓아 주었습니다.' 알라의 사자가 말하였다. '실로, 그가 네게 거짓말을 하였구나. 그렇지만 그는 다시 올 것이다.' 알라의 사자가 그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였으므로 나는 다시 그가 나타나리라 믿었고 그를 기다렸다. (드디어) 그가 나타나 다시 식량을 한웅큼 훔치기 시작했을 때 내가 그를 붙잡고 말하였다. '내가 너를 알라의 사자께 기필코 데려갈 것이다.' 그가 말하기를 '저를 놔 주십시요. 저는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고 많은 수의 부양 가족이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고 약속하겠습니다.' 나는 또 그가 불쌍하여 놓아주었다. 아침에 알라의 사자가 내게 묻기를 '어젯밤 네가 잡은 자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답하였다. '오 알라의 사자여, 그는 필요한 것이 많다고 말하고 또 많은 부양가족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주었습니다.' 알라의 사자는 말하기를 '실로, 그가 네게 거짓말을 했구나. 그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세 번째로 주위를 기울이며 그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가 다시 와서 식량을 한웅큼 훔치기 시작했을 때 그를 잡고 말하였다. '너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다시 왔고, 이것이 세 번째이니 정녕 너를 이제 알라의 사자께로 데려가겠다.' 그가 말하였다. '저로 하여금 당신께 알라께서 유익함을 주시는 몇 마디 말을 가르쳐 드리게 해 주십시요.' 내가 물었다. '그것들이 무엇이냐?' 그가 답하기를 '당신이 잠자리에 들 때마다 아야트 알 쿠르씨(Āyah Al-Kursī)절을 전부 마칠 때까지 암송하시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알라께서는 당신을 위해 당신과 함께 남아있을 경호자를 임명하실 터이고 그러면 사탄이 당신 가까이에 아침녘까지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또 그를 놓아주게 되었다. 아침에 알라의 사자가 내게 물었다. '어제 네가 잡은 자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답하기를 '오 알라의 사자여! 그는 내게 알라께서 이득을 주시는 몇마디 말들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였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를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알라의 사자가 다시 물었다. '그것들이 무엇이냐?' 내가 답하였다. '그는 내게 말하였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저를 보고 권좌의 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게 이에 더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알라께서는 저와 함께 머무를 한 경호원을 저를 위해 임명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 사탄이 아침까지 제 가까이에 오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언자는 말하였다. '비록 그가 거짓말쟁이지만 그는 진실

을 말하였구나. 너는 지난 삼일밤 동안 네게 말하곤 했던 그가 누구인지 아느냐? 아부 후라이라야!' 아부 후라이라가 말하였다. '아니오' 그러자 그 [예언자]가 말하였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었느니라.'" (Fatḥ Al-Bārī 8:672, 4:568, 6:386, Ibn kat͟hīr의 꾸란 해설서 Vol.2, pp.22-24에서 재인용)

제 2 장

# 알 바까라 Al-Baqarah

## 암소의 장 (285절, 286절)

제2장 سُورَةُ البَقَرَةِ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 제2장

ءَامَنَ ٱلرَّسُولُ بِمَآ أُنزِلَ إِلَيْهِ مِن رَّبِّهِۦ وَٱلْمُؤْمِنُونَ ۚ كُلٌّ ءَامَنَ بِٱللَّهِ
وَمَلَٰٓئِكَتِهِۦ وَكُتُبِهِۦ وَرُسُلِهِۦ لَا نُفَرِّقُ بَيْنَ أَحَدٍ مِّن رُّسُلِهِۦ ۚ
وَقَالُوا۟ سَمِعْنَا وَأَطَعْنَا ۖ غُفْرَانَكَ رَبَّنَا وَإِلَيْكَ ٱلْمَصِيرُ ﴿٢٨٥﴾
لَا يُكَلِّفُ ٱللَّهُ نَفْسًا إِلَّا وُسْعَهَا ۚ لَهَا مَا كَسَبَتْ وَعَلَيْهَا مَا

**285** 사자[무함마드]는 그의 주님으로부터 그에게 내려진 것[1]을 믿고, 믿는자들도 그러하도다. (그들) 각자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천사들, 그분의 성서들, 그분의 사자들을 믿노라.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분의 사자들 중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나이다."[2] 또 그들은 말하느니라. "우리는 듣고, 우리는 복종하옵니다.[3] (우리는) 당신의 용서를 (구하옵니다). 우리의 주님! 당신께로 (우리 모두는) 돌아가옵니다.[4]"

**286**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혼[5]에게도 그의 역량[6] 이상의 짐을 지우지 않으시노라.[7] 그가 얻은 것[선]을 그는 (상으로) 가질 것이며, 그가 저

1) 여기서 '내려진 것'은 '계시된 것'의 뜻이다.
2) 무슬림들은 아담에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자들, 예언자들 모두를 똑같이 믿는다.
3) '우리는 계시된 메시지를 믿고, 그것에 복종합니다.'의 뜻임.
4) 마씨르(maṣīr)는 '운명, 결말, 종국, 종착지'이다. 여기서는 '돌아감, 운명의 종착'으로 '돌아가는 운명입니다'의 뜻이다.
5) 나프스(nafs)는 '영혼, 인간, 자신'을 나타낼 때 쓰인다.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서의 나프쓴을 '인간, 사람'으로 번역한다.
6) 우스으(wus')는 '힘, 능력, 역량, 가능성'으로 '감당할 능력'의 뜻이다.
7) 일부 주석가들은 이 암소의 장 2:233에서의 짐은 물질적인 것이고, 여기서의 짐은 정신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 제2장

ٱكْتَسَبَتْ ۗ رَبَّنَا لَا تُؤَاخِذْنَآ إِن نَّسِينَآ أَوْ أَخْطَأْنَا ۚ رَبَّنَا
وَلَا تَحْمِلْ عَلَيْنَآ إِصْرًا كَمَا حَمَلْتَهُۥ عَلَى ٱلَّذِينَ مِن قَبْلِنَا ۚ
رَبَّنَا وَلَا تُحَمِّلْنَا مَا لَا طَاقَةَ لَنَا بِهِۦ ۖ وَٱعْفُ عَنَّا وَٱغْفِرْ لَنَا
وَٱرْحَمْنَآ ۚ أَنتَ مَوْلَىٰنَا فَٱنصُرْنَا عَلَى ٱلْقَوْمِ ٱلْكَٰفِرِينَ ﴿٢٨٦﴾

지른 것을 (벌로) 받을 것이로다. "우리의 주님! 우리가 잊었거나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우리를 벌하지 마시옵소서.[8] 우리의 주님! 우리 앞에 온 자들[9]에게 당신께서 지워주셨던 것 같은 짐을 우리에게 지우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우리가 나를 힘을 갖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짐 지우지 마시옵소서. (다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우리의 보호자[마울라][10]이시옵니다. 불신하는 사람[백성]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

8) 3형동사 아카다('ākhadha)는 '~을 책망하다, 나무라다, 처벌하다'이다. 여기서 쓰인 관용구 '라 투아키드나(lā tu'ākhidhnā)'는 '저희를 벌하지 마소서'의 뜻으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십시요'라고 표현할 때 사용된다.

9) 특히 유대인들과 그리스도교인들을 의미한다.

10) 꾸란에서 쓰인 마울라(Mawlā)는 주로 '후원자, 친구, 주인, 은혜를 베푸는 은인, 보호자'의 뜻으로 등장한다. 꾸란 47:11, 44:41, 16:76, 그리고 여기 2:286 등에서이다.

## 해 설

285 암소의 장은 경건한 신앙인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계시들 (3~4절)로 시작된다. 그리고 이 장이 끝나는 여기 마지막 두 절에서는 그들의 신앙고백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께 그들이 지은 죄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문으로 마무리된다. 무슬림들은 정통 하디스들의 기록에 따라 이 마지막 절들은 예언자 무함마드 이전의 어느 예언자에게도 내려진 적이 없는 새롭고 특별한 계시로 믿고 있다. 꾸란의 첫 장인 개경장과 여기 이 두 절에서의 기도문은 무슬림이면 누구나 일생을 두고 하루에도 수차례 암송하는 특별한 간구문이다.

이 절의 앞 부분에서는 이슬람 신앙의 기본 조항들이 강조된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분의 천사들, 책들, 사자들에 대한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마침내 그분께로 돌아가 세상에서 행한 일들을 낱낱이 소명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달리하며 사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은총을 주셨다. 예컨대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영광과 불신하던 그의 백성을 인도케 하는 은혜를 주셨고, 다윗에게는 당대의 가장 위대한 전사를 쓰러뜨리고 왕이 되게 하셨으며, 승리하는 전쟁들을 수행하는 능력의 은총을 주셨다. 또 예수에게는 성령으로 그를 강하게 만드시어 장님을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의 은총을 주셨다. 그는 무기를 들지 않고도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훌륭히 완수할 수 있었다. 무함마드에게는 '예언자의 봉인'으로서 완성된 그분의 말씀인 꾸란을 이 땅에 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이한 은총이나 사명이 그들 사이에 어떤 차별

이나 차등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 중의 누구를 더 믿고, 다른 누구는 거부하는 그런 잘못을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들 외에도 알라께서는 다른 시대, 다른 민족 중에서 다른 세속적 지위, 다른 등급, 다른 사명을 주시며 많은 수의 예언자들을 그분의 사자로 선택하시어 우리 인류사회에 보내 주셨다. 우리는 그들 모두를 똑같이 존중하고 그들이 전한 메시지를 믿고 따라야 한다.

이 절보다 앞선 이 암소의 장 136절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너희는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우리에게 내려 주신 것과 아브라함과 이스마일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내려 주신 것과, 모세와 예수가 계시받은 것과 예언자들이 그들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을 믿사오며, 우리는 그들 중의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며, 오직 그분[알라]께만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꾸란 2:136)

신앙과 실천의 강도가 굳건해지면 굳건해질수록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우둔하고 완전한 그분의 큰 계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깨닫게 된다. 그 순간에 우리는 겸손히 기도해야 한다. "저희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복종하나이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마음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의 도움과 인도를 간구드려야 한다.

286 알라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짐을 떠 맡기지 않으신다. 이것이 그분의 자상하신 친절이고 관대하심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언제나 공정하시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만큼의 상벌을 받게 되어 있다. 누군가 선한 행동을 하고 만약 그 선행의 결과가 죽은 후에도 계속 남아 있다면 그 결과가 지속되고 있는 한 그의 선행은 계속

선악 행위의 장부 책에 적혀질 것이다. 악한 행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스스로 크게 노력하지 않았으면서도 그분으로부터는 많은 은혜와 자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그분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특히 이웃에 비해 내가 더 우월하다거나 잘났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앞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만 속에 살다가 알라의 분노하심으로 파멸하였는가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지고 있는 짐들을 가볍게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 드려야 한다. 먼저 회개하고 그분의 자비를 구해야 한다.

이 절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를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시여! 저희가 망각하였거나, 무의식 속에서 금지된 일에 빠졌거나, 착오하여 오류를 범하였더라도 저희를 책망하지 마소서. 다만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당신만이 저희의 주인이시고, 보호자이십니다. 불신자들에게 이기는 승리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아민" 전승에 따르면 알라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원드릴 때 마다 "내가 너희의 기원을 받아들이노라."라고 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각하여 소홀히 한 의무에 대하여서는 관대하시다. 고의가 아니라 무심코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관용적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부단히 그분의 용서를 간구드려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 앞서 하나님의 길 위에 있던 자들이 부딪쳤던 그런 고난과 박해,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달라고 기원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그런 역경에 부딪치면 용기와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내야만 한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길이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길을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도 기도해야 한다. 감내할 수 있는 짐만을 지워 주시고,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게 도와주실 것을 기도한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분께 잘못을 저지르는 우리의 죄를 말한다. 다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와 그분의 종들인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한다. 우리는 자신이 모르는 가운데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폐를 끼치고, 잘못을 저지르기 십상이다. "부디 이러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감추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 날 모든 일들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드리는 것이다. 나아가 다른 잘못에 또 다시 빠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기원하는 기도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한다. "주님이시여! 오로지 당신만이 저희의 보호자, 지원자, 주님이십니다. 저희의 믿음은 오직 당신께만 있나이다. 당신의 종교를 거부하는 자들, 당신 외의 것에 예배하는 자들, 당신의 메시지와 당신의 사자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항하여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내세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같은 기도 끝에는 아민(Āmīn 아멘)이라고 말한다.

## 전승 이야기

이븐 마스우드가 전한 이슬람 전승에 의하면 암소의 장 마지막 이 절은 메카에서 잠자던 예언자 무함마드가 미으라즈(mi'rāj 하늘로의 승천)를 위해 천사 가브리엘의 안내로 메카에서 예루살렘으로 신비의 밤 여행을 한 이스라(Isrā' 메카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야간 여행, 꾸란 17:1에 나

옴) 때에 계시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Mulim 1:157) 이때는 무슬림들의 메디나로의 이주 약 1년 전으로, 메카에서 무슬림들에 대한 불신자들의 박해가 극에 달해있던 때였다. 가장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을 때 알라께서는 이러한 기도문을 무슬림들에게 가르치신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고 용기를 주어 험난한 환경을 극복하게 하신 것이다. 이러한 기도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감정과 행동을 자제하게 하였으며, 그들이 좌절하거나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게 하였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 삶의 매사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 위에 있는 인생을 만들어야 한다.

이 암소의 장 마지막 두 절은 무슬림들에게 특별하다. 알 부카리의 기록에 따르면 아부 마스우드 알 바드리(Abū Mas'ūd Al-Badrī)가 다음과 같은 예언자의 하디스를 전하였다. "누구든지 밤에 암소의 장 마지막 두 절을 독송하면 그 두 절이 그를 충분히(보호)해 줄 것이다." (Ṣaḥīḥ Al-Bukhārī, Vol.5, Ḥadīth no.345, Fatḥ Al-Bārī 8:672)

무슬림에 의해 기록된 하디스 중에는 이 절이 개경장과 더불어 무함마드 이전의 어떤 예언자에게도 내려진 적이 없는 새로운 계시라고 밝힌 하디스가 있다.

"알라의 사자가 천사 가브리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위로부터 한 소리를 들었는데, 가브리엘이 눈을 하늘로 올려 보면서 말하였다. '이것은 지금 막 하늘에서 한 문이 열려지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전에 열려 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한 천사가 그 문을 통해 예언자에게 내려와 말하기를, '당신 이전에는 내려진 적이 없는 두 빛의 복음을 당신이 받게 되었습니다. 알 파티하(Al-Fātiḥah 개경장)와 알 바까라(Al-Baqarah 암소의 장)의 이 마지막 절입니다.'" (Muslim 1:554)

제 59 장

# 알 하쉬르 Al-Ḥashr

## 집합의 장 (22절, 23절, 24절)

제59장 سُورَةُ الحَشۡرِ

بِسۡمِ ٱللَّهِ ٱلرَّحۡمَٰنِ ٱلرَّحِيمِ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 제 59 장

هُوَ ٱللَّهُ ٱلَّذِى لَآ إِلَٰهَ إِلَّا هُوَ ۖ عَٰلِمُ ٱلْغَيْبِ وَٱلشَّهَٰدَةِ ۖ هُوَ
ٱلرَّحْمَٰنُ ٱلرَّحِيمُ ﴿٢٢﴾ هُوَ ٱللَّهُ ٱلَّذِى لَآ إِلَٰهَ إِلَّا هُوَ
ٱلْمَلِكُ ٱلْقُدُّوسُ ٱلسَّلَٰمُ ٱلْمُؤْمِنُ ٱلْمُهَيْمِنُ ٱلْعَزِيزُ
ٱلْجَبَّارُ ٱلْمُتَكَبِّرُ ۚ سُبْحَٰنَ ٱللَّهِ عَمَّا يُشْرِكُونَ

**22 그분은 알라[하나님]! 그분 외에 신은 없도다.1)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 과 보이는 것을2) 모두 알고 계신 분3), 그분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이시로다.**

**23 그분은 알라[하나님]! 그분 외에 신은 없도다. 그분은 왕,4) 가장 성스러우신 분5), 평화의 근원이시며 완벽하신 분6), 신앙과 안전의 부여자7), 우주 만물의 보존자이시며 보호자8), 가장 강하신 분9), 신법의 강제자10), 지고하신 지존자11)이시로다. 그들이 (그분께) 견줄 자를 두는**

---

1) '그분 외에는 숭배받을 자격이나 권리, 가치를 가진 자가 없다'의 뜻.
2) 일부 주석가들은 앞의 것을 '감추어져 있는 것', 뒤의 것을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 번역한다.
3) 알림('ālim)은 '잘아는, 정통한, 지식인'으로 여기서는 '전지하신 분'을 뜻한다.
4) 많은 주석가들이 '주권자'로 번역하기를 선호한다.
5) 알 꿈두스(Al-Quddūs)는 '가장 성스러우신 분', '가장 거룩하신 분'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는 것이 적절하다.
6) 앗 쌀람(As-Salām)은 '평화'와 '완전'이라는 두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서는 '평화를 주시며 완전, 완벽하신 분'의 뜻이다.
7) 아민('āmin)도 두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믿는, 믿음직한'과 '안전한, 평안한'이다. 일반적으로 신자, 신앙인을 무으민(mu'min)이라 부르는데 여기서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 알 무으민(Al-Mu'min)이 되면 '신앙의 보관자이시며 안전의 근원이신 분'의 뜻이다.
8) 원래 무하이민(muhaymin)은 '보호자, 보관자, 관리자, 감독자'를 뜻한다.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에 관계하여 알 무하이민(Al-Muhaymin)이 되면 '우주 만물의 보존자', '모든 창조물을 지켜주시는 분', '모든 것의 보호자'의 뜻이 된다.
9) 알 아지즈(Al-'Azīz)는 '가장 힘이 강하신 분'이다. 여러 주석가들이 '전능자'로 번역한다.

## 제59장

﴿٢٣﴾ هُوَ ٱللَّهُ ٱلْخَٰلِقُ ٱلْبَارِئُ ٱلْمُصَوِّرُ لَهُ ٱلْأَسْمَآءُ ٱلْحُسْنَىٰ

يُسَبِّحُ لَهُۥ مَا فِى ٱلسَّمَٰوَٰتِ وَٱلْأَرْضِ وَهُوَ ٱلْعَزِيزُ ٱلْحَكِيمُ ﴿٢٤﴾

**(그 모든)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릴지어다.[12]**

**24 그분은 알라[하나님]! 창조주, 조물주[13], 모든 형상의 제작자이시로다[14]. 가장 훌륭한 이름들이 그분께 속하노라.[15]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모두가 그분께 영광의 찬송을 드릴지어다! 그분은 가장 강하신 분, 가장 현명하신 분이시로다.[16]**

---

10) 잡바르(jabbār)의 원뜻은 '거인, 최고 권력자, 폭군'이다. 정관사 알(Al)이 붙은 알 잡바르(Al-Jabbār)는 '저항할 수 없는 분', '강제하시는 분'의 뜻으로 '그분의 율법과 명령을 강제하시고 시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이다.

11) 알 무타캅비르(Al-Mutakabbir)는 '지존자', '지고하신 분'이다.

12) 2형 동사 쌉바하 비(sabbaḥa bi)는 '~을 찬양하다, 찬미하다'이다. '그분을 찬양하라'는 '그분께 영광과 찬미의 찬송을 드려라'는 의미이다.

13) '창조하다, 창작하다'의 뜻인 동사 칼라까(khalaqa)는 창조행위를 나타내는 일반적 단어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제로 창조 또는 창작행위가 실현된 제작단계를 나타내는 단어는 동사 바라아(bara'a)이다. 사전에 고안된 창조의 일, 또는 창조 상태에서 한 단계 진화한 실제로의 만듦 단계이다. 이 단어가 신의 창조 행위에 적용되어 알 바리으(Al-Bāri')가 되면 '우주 만물의 제조자'의 뜻으로, 우리말로는 '조물주'가 어울린다.

14) 2형 동사 싸우와라(ṣawwara)는 '~을 그리다, 사진찍다', '모방, 색을 주다.' '모양, 형태를 띠게 하다', '복사하다'의 뜻이다. 무싸우위르(muṣawwir)는 '화가, 사진작가, 촬영자'를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관계하여 쓰인 여기서의 알 무싸우위르(Al-Muṣawwir)는 '모든 것에 형상, 모양을 주시는 분'의 뜻이다. 알라께서는 만물에 형태를 부여해주시는 '형상의 제조자, 제작자'이시라는 의미이다.

15) 알 아스마아 알 후스나(al-Asmā' al-Ḥusnā)는 '가장 좋은 이름들'이다. 하디스에 따르면 알라의 이름은 99가지이다. 같은 내용의 계시는 꾸란 7:180참조.

16) 알 하킴(Al-Ḥakīm)은 '가장 현명하신 분'의 뜻이다.

## 해 설

22 이 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 16가지가 가르쳐진다. 그 속성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한다. 제22절과 23절은 똑같이 '알라 외에 신은 없도다'라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천명하는 신앙 고백의 계시로 시작한다. 온 세상의 창조물 모두가 그분의 관장 하에 존재하고, 그분께 의존한다. 그분 만이 숭배 받으실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숨겨져 있는 것과 공개되어 있는 것 모두를 알고 계시며, 과거와 현재, 미래에 관계하여 일어난 일,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날 일 모두를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하늘과 땅에 있는 어느 것도 그분의 앎 밖에 존재할 수 없다. 아무리 위대하거나 하찮은 것일 지라도,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작은 것일 지라도, 어둠 속에 있는 한 마리 개미일 지라도 그분의 보호와 보살핌 속에 존재한다. 그분께서는 자비의 주님, 사랑과 은총의 주님이시다. 그 자비와 은총이 온 누리를 감싸고 있으며, 그 사랑과 자애의 축복이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한다.

23 그분께서는 온 우주의 왕, 주인, 주권자이시다. 어떤 장애나 방해 없이 모든 것 위에 권능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주권에는 한계가 없다. 그분은 가장 성스럽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와흡 빈 무납비흐는 알 꾿두스가 '가장 순수한 분'을 의미한다고 말하였고, 무자히드(Mujāhid)와 까타다(Qatādah)는 '가장 신성하신 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이븐 주라이즈(Ibn Jurayj)는 '영예의 천사들이 찬양드리는 분'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주석을 달았다.

쌀람은 일반적으로 '평화'를 뜻하지만 부족함, 결함, 흠이 없는 '완전

함, 완벽함'의 의미도 포함한다. 알라께서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모자람이나 결점같은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 '완벽한 속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알 무으민은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다. 앗 다흐하크(Ad-Daḥḥāk)에 따르면 '그분께서는 누구에게도 결코 불공정하지 않으시다는 약속으로 그분의 종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라고 해석한다. '무으민(믿는 자)의 깊은 신앙심을 입증해 주시는 분'이라는 주석도 매우 많다. '순수한 신앙의 보관자'이시며 '피조물들에게 안전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이다.

'알 무하이민'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1)보호자, 보관자 2)모든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 보시는 분, 관찰자 3)우주 만물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 주시는 분. 여기서는 이 세 속성 모두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 온 세상 '모든 것을 보존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븐 압바스에 따르면 이 이름은 '그분께서는 종들의 모든 행동들의 증인'이시다는 의미를 지닌다. 우리를 보호, 양육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이다. 꾸란 58:6은 "알라께서는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이시로다."라고 하였고, 꾸란 10:46에는 "알라께서는 그들이 행하곤 했던(모든)것에 대한 증인이시로다."라고 계시되어 있다.

알 아지즈는 '가장 강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다. 어느 누구도 그분 앞에 감히 머리를 들 수 없다. 그분의 명령에 다만 복종할 뿐이다. 그분께 반대할 힘을 가진 자는 없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

그분은 알 잡바르[강제자]이시다. 그분의 법령인 신법을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강제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모두는 그 뜻에, 그 율법에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 그분은 우주 질서와 만물의 운영 체계를 세우셨

고, 그것들에 그분의 의지를 강제로 집행하신다. 강제하시는 이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 '이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무슬림'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분에게 '알 잡바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원래 잡바르(jabbār)의 뜻은 '위대한, 강대한'이다. 인류 역사에서 권세가 지나치게 강대하여서 무자비하고 혹독하였던 권력자, 혹은 폭군에게 이 단어가 붙여 쓰여지기도 한다. 아랍의 야자수는 키가 너무 커서 그 과실을 따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사람들은 키 큰 야자수를 '잡바르'라고 부른다. 같은 맥락에서 장려한, 웅대한, 또는 영광스런 행동을 아말 잡바르('amal jabbār)라고 표현해 말한다.

무타캅비르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갖고 사용된다. 실제로는 큰 인물이 아니면서 위대한 척 행동하는 자, 즉 자만에 차 있는 자를 일컬을 때 쓰이거나, 반대로 정말 위대하고 스스로를 실제 큰 인물로 일궈낸 사람을 일컬을 때에도 쓰인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나 진, 사탄, 혹은 어떤 창조물에게 일지라도 '위대함'이란 실제로는 그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부여된 피상의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알라, 그분만이 정말 위대하시다. '위대함', '장려함', '장엄함'은 정말 그분께 어울리는 속성이고 표현이다. 우주의  피조물들은 그분의 이런 속성에 비할 때 그저 모래알 같은 하찮은 존재일 뿐이다. 그분이야말로 '지고하신 분', '지존자'이시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어서는 안된다. '그분께 쉬르크(비견자)를 두지 말라'는 교의는 꾸란 전편에서 수없이 강조되고 있는 이슬람의 중심사상 '유일신론'의 요체이다. 모든 것 위에 초월하여 계신 그분께 영광과 찬양, 찬미를 드려야 한다.

24 이 절에서 하나님의 창조행위는 세 단계 과정으로 묘사된다. 첫째는 칼끄(khalq)의 단계로, 창조를 계획하고 정하는 단계이다. 이는 마치 엔지니어가 빌딩 건축을 설계하고 도형을 그려내는 과정이다. 둘째는 바르으(bar')의 단계로, 설계도형에 의해 실제로 나누고, 떼어내고, 자르고, 세우는 과정이다. 마치 설계도면에 따라 빌딩이 들어서는 땅위에 기석이 놓여지고, 벽을 쌓고, 건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고안한 설계를 창조주께서 실제 집행하고 시행한다는 의미에서 그분을 알 바리으(Al-Bāri')라는 칭호로 부르는 것이다. '부재에서 존재로 창조하심'의 이미가 담긴 칭호이다. 세 번째는 타쓰위르(taṣwīr)단계로, 모양과 형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마지막 완성된 형체가 드러나는 단계이다. 물론 각 단계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 인간의 작업 행위를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모순이다. 전통적인 무슬림들의 사고는 인간은 어떤 작업에서도 창조하는 발명가(inventor)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모조자(imitator)일 뿐이다. 진정한 형태를 만드시는 창조의 주체는 알라이시다. 그분은 독특함과 조화스러움을 병행하며 다양한 창조를 이루어 내시는 조물주이시다. 이 세 단계의 세 단어는 하나가 되어 그분의 창조행위를 표현해내는데 이를 꾸란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의 창조를 원하시면 그분께서는 단지 말씀하신다. 있어라! 그리하면 그것은 그분께서 의도하신대로 형태가 주어져 존재하게 된다.'

꾸란에는 이 절에서와 같이 아름다운 알라의 이름들이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고, 하디스는 그 이름이 99개라고 말한다. 정통 하디스 집들에는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는 예언자의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다. "지고하신 알라께서는 100에서 하나가 빠지는 99개의 이름을 갖고 계시다. 그것들을 잘 새기고 보존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알라께서는 위트르(Witr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알 위트르(al-witr 홀수)를 좋아하신다." (Muslim 4:2063, Fatḥ al-Bārī 11:218)

**- 알 함두릴라!!**

# 독경

# 독경을 위한
# 꾸란 아랍어의 한글전사

아랍어 서체의 꾸란본은 언제 어느 곳에서 출판되든지 철두철미한 검증을 거치므로 모두가 점 하나의 오류가 없는 완벽한 것이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꾸란 만큼 읽혀지고 있는 책은 없을 것이다. 전 세계 수억의 무슬림들에 의해 집에서 모스크에서 매일매일 읽혀지며, 적어도 하루 다섯 차례 예배 때마다 흠송되고 있다.

꾸란의 독송은 우아하고 고상하며 생동감이 넘치고 공명을 불러 일으킨다. 꾸란의 성스러운 운율은 독특하고 신비해서 독송자에게나 청취자에게나 똑같이 정신적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만족과 황홀감 속에 빠져들게 한다. 무슬림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랍어를 배우지 못해 타언어로 번역된 의미상의 꾸란 번역본

을 읽는 경우라면 메시지의 내용은 가슴에 남아 있으되 독송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신비한 선물은 직접 느낄 수가 없다. 따라서 꾸란 언어를 깨우치지 못한 신앙심 깊은 무슬림들은 목마르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스스로 발음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 하루 빨리 아랍어 계시를 자신이 원하는 장절만이라도 암기하거나 배우려 노력하고 직접 송독할 수 있기를 갈망한다.

이러한 경우를 위한 한시적 대용으로 아랍어 문자를 타언어 문자로 음역하는 전사된 꾸란 독경법이 개발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독경하고 싶은 열망과 충동을 자신이 아는 문자로 전사된 것을 소리내 읽으면서 충족시킬 수 있고, 동시에 뛰어난 전문 독경사의 아랍어 독송을 부단히 들으면서 원하는 장절을 암기해 가는 학습용으로도 이러한 타언어 음역 전사를 유용히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꾸란 언어인 아랍어 문자 체계를 다른 언어의 문자 체계로 옮기는 이러한 음역(Transliteration) 또는 꾸란 아랍어의 음성 체계를 음성 부호로 기록하는 음성 전사(Phonetic Transcription)의 역사는 짧다. 전통주의 무슬림들은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읽혀질 것을 두려워하여 아직 이러한 음역 전사의 읽기에 반대한다. 그렇지만 유럽과 북미지역(미국, 캐나다)의 영어권에서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무슬림들과 2세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이 분야의 연구는 필수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일된 로마자 전사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꾸란 언어의 한글 및 로마자(영어) 전사는 우리말로 꾸란 독경을 시도하고 배우려 하는 독자들을 위해 역자가 만들어 낸 것이다. 우리말 읽기가 맞는지를 우선 눈으로 대조해 볼 수 있도록 우편에 로마자 전사를 나란히 병기하였다. 로마자 전사는 시카고 이끄라 국제 교육재단의 꾸란 교육용 교재(Dr. Abidullah Ghazi, Juz' 'Amma: 30 for the Classroom:

Arabic Text, Translations, Explanations & Vocabulary, Vols. 1 & 2, IQRA' International Educational Foundation, Chicago, 1994-5)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다룻쌀람에서 발간한 『고귀한 꾸란 The Noble Qur'ān』 (The Noble Qur'ān-Transliteration in Roman Script with Arabic Text and English Translation by Dr. Muhammad Taqi-ud-Din Al-Hilali & Dr. Muhammad Muhsin Khān, Darussalam, Riyadh, Saudi Arabia, 2002), 시리아에서 출판한 『고귀한 꾸란 The Noble Qur'ān』 (Tajweed Qur'ān with Meaning Translation in English by Abdyllah Yusuf Ali & Transliteration by Subhi Taha, Dar-Al-Maarifah, Damascus, Syria, 2003)의 서로 다른 음가표기 및 음역 전사 방법을 혼합하여, 국내 아랍어학 전공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이미 우리 사회에 익숙해져 있는 기존 로마자 전사 체계에 가장 가까운 방법을 만든 것이다.

한글 전사는 개경장과 같이 짧고 중요한 몇몇 장들을 이슬람교에 입교하는 새 무슬림들에게 암기시키기 위해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에서 발간한 이슬람 교육용 소책자에서 과거에 시도된 적은 있으나 꾸란 계시 문자의 한글 전사 방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책에서 우리 발성에 맞는 방법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 작업은 정말 쉽지 않았다. 책 서두의 일러두기에서 밝혔듯이 아랍어 발음에 가장 가깝게 음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아랍어 자모음에 대한 음가표기법 원칙을 정하였고, 이에 준하여 위에서와 같이 먼저 만들어 놓은 로마자 전사에 한자 한자 대조해가며 꾸란 독송법에 맞는 최종 한글 전사작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타 언어 문자로 전사된 꾸란의 독경 방법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고, 아랍어 꾸란을 읽기 위한 교량적 기능의 것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한글로 전사된 장절의 독경

에 숙달하고 또 그것을 암기하여 독경을 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할 지라도 아랍어로 읽는 독경의 발음을 정확히 재현해 낼 수는 없다. 따라서 꾸란 독경에는 전문인의 지도가 필요하다. 게다가 이 책의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꾸란의 낭송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일므 앝 타즈위드('ilm at-tajwid 꾸란 정음학)라고 불리는 이 분야 연구에는 별도의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여기 한글 및 로마자 전사에서는 꾸란 독송법의 기본이 되는 이드감('idghām 자음동화)법칙 중 – 예를 들면 아래의 일러두기에서 예시하듯– 이드감 카밀('idghām kāmil 완전동화)이나 이드감 군나('idghām bi-ghunnah 비음동화)등 자음동화 현상을 나름대로 독경법에 맞게 충실히 반영하였으므로 이 한글 전사를 그대로 따라 발음하면 아마도 독경을 배우는 소기의 성과는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독송 때 유의해야 하는 루무즈 아우까프(rumūz awqāf, 쉼 표시)는 이 한글-로마자 전사에는 표지하지 않았으나 이 책의 아랍어 꾸란 원문에 표시되어 있으니 올바른 독경을 원하는 사람은 원문의 쉼 표시를 참고하길 바란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역자는 이 한글 전사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만큼 앞으로 시범적 표본이 되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로마자 전사와 더불어 쉼이나 군나, 장모음의 표시까지 독송법의 원칙들을 세밀히 표지해 놓은 모범적인 꾸란 영어 번역본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다마스쿠스 발행본(Tajweed Qur'ān with Meaning Translation & Transliteration)을 들 수 있다. 독경에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확한 독송 연마를 위해서 역자는 이 책에 담긴 꾸란 선 35개 장과 특송 11개 절을 순서대로 수록한 쉐이크 압둘라 바스파르('Abdullāh Basfar)와 쉐이크 무함마드 아이유브(Muḥammad Aiyyub)의 송독 사이트를 마련하였다. 과거나 지금이나 무슬림 세계에는 유명한 독경사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최근에는 웹에서 뛰어난 여러 독경사들의 독

특하며 아름다운 송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 독자들은 아래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홈페이지의 쉐이크 압둘라 바스파르와 쉐이크 무함마드 아이유브의 것과 비교하며 효과적인 꾸란 학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http://press.hufs.ac.kr/자료실

다시 말하거니와 꾸란의 독송에는 전문 독경사나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하다. 독송법에 맞게 정확히 독송할 때에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이 천상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우리 가슴에 정신적 행복감을 안겨 줄 것이다.

# 독경 일러두기

1. 무슬림들은 꾸란 독송의 전후에 의례적인 문구를 외운다. 먼저 "아우~두 빌라~히 미낫 샤이따~니르 라지~ㅁ(a'ūdhu billāhi min as-shayṭānir-rajīm), 저는 저주받은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 가호를 구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스티아~다(isti'ādhah)를 함으로서 자신이 하나님께 귀의하였음을 표한다. 이것은 꾸란에서의 가르침이다. "너희가 꾸란을 낭송할 때면, 저주받은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 가호를 구하라"(꾸란 16:98) 그리고 나서 "비스밀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바스말라(basmalah)를 외운다. 바스말라는 무슬림 일상생활 전반에서 무슨 행위든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하는 구절로, 그 행동이 '신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신의 뜻대로 진행되며 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드린다'는 표현이다. 독송이 끝나면 그 종결은 "싸다깔 라~훌 아지~ㅁ(Ṣadaqal-lāhul-Aẓīm),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의례적 문구를 외우는 것은 일종의 언어울타리를 쳐서 악마의 유혹이나 접근을 막고 불경스러운 해악으로부터 안전하게 되기 위해서이다.

2. 독경을 위한 아랍어 자음의 한글 전사와 로마자 전사의 음가 표기 원칙과 음역은 이 책 서두의 일러두기 9항과 동일하며, 이에 준한 주요 자음들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د/ 는 음절의 초성에서 /ㄷ/으로, 받침에서도 /ㄷ/으로 표기한다.

▶ 예) 깓다마트 (قَدَّمَتْ)

2) /ط/ 는 음절의 초성에서 /ㄸ/으로, 받침에서 /ㄷ/으로 표기한다.

▶ 예) 일랃 따이리 (إِلَى الطَّيْرِ)

3) /ض/ 는 음절의 초성에서 /돠/, /두/, /둬/, /듸/로, 받침에서 /ㄷ/으로 표기한다.

▶ 예) 돨라~림 무비~ㄴ (ضَلاَلٍ مُبِين), 와듸립 라훔 (واضْرِبْ لَهُمْ), 완두하~ (والضُّحَى)

4) /ذ/는 음절의 초성에서 굵게 /ㄷ/ 로, 받침에서 /ㄷ/으로 표기한다.

▶ 예) **칼**라깓 **다**카라 (خَلَقَ الذَّكَرَ), 칻**다**부~ (كَذَّبوا)

5) /ظ/는 음절의 초성에서 굵게 /ㅈ/으로, 받침에서 /ㅈ/으로 표기한다.

▶ 예) 탈랒**자**~ (تَلَظَّى)

6) /ث/는 음절의 초성에서 굵게 /ㅅ/ 로 , 받침은 /ㅅ/ 으로 표기한다.

▶ 예) 마**살**란 (مَثَلاً), 맛**살**라 (مَثَّلَ)

7) /ل/이 단모음 뒤에 올 때는 종성과 다음 음절 초성으로 /ㄹ/을 쓰고, 장모음 뒤에서는 쌍 ㄹ /ㄹㄹ/로 표기한다.

▶ 예) 깔라문 (قَلَمٌ), 왈람 (وَلَمْ), 까~ㄹ라 (قَال) , 끼~ㄹ라 (قِيل)

8) /ل/이 어두나 모음이 없는 수쿤 상태 뒤에서는 홑 ㄹ /ㄹ/ 로 표기한다. ▶ 예) 라까드 (لَقَدْ), 꿀 (قُلْ)

9) /ر/는 /ㄹ/ 로 표기하되 중복자음 /رّ/ 상태에서는 /ل/ 또는 /لّ/과 달리하여 앞 음절의 받침으로 쓰지 않고 다음 음절의 초성 /ㄹ/ 로 표기한다.

▶ 예) 탄지~ㄹ랄 **아**지~지르 라**히**~ㅁ (تَنْزِيلَ الْعَزِيزِ الرَّحِيمِ)

10) /ف/는 음절의 초성에서 /ㅍ/으로, 받침에도 /ㅍ/으로 표기한다.

▶ 예) 칼파트 (خَفَّتْ)

11) /س/은 음절의 초성에서 /ㅆ/으로 표기하되, 모음이 없는 수쿤 상태이거나 정관사 /أل/ 과 연결형 복합어를 이루어 받침으로 쓰일 때는 /스/ 또는 /ㅅ/ 로 표기한다.

▶ 예) 알 이슬람 (الإسْلام), 물쿠 싸마와~티 (مُلْكُ السَّمَاوَاتِ)

12) /ش/는 음절의 초성에서는 /샤/, /슈/, /쉬/, /스/ 로 표기하며 받침에서는 /ㅅ/으로 표기한다.

▶ 예) 라 타으부두 샤이따~나 (لا تَعْبُدُوا الشَّيْطَانَ)

13) /ص/는 음절의 초성에서 굵게 /ㅆ/으로 표기하고 음절의 받침에서 /ㅅ/으로 표기한다. ▶ 예) 와 훗쌀라 (وَحُصِّلَ)

14) /ء/는 /ㅇ/으로 표기한다. ▶ 예) 알픈 (أَلْفٌ), 알 아크라무 (الأَكْرَمُ)

15) /ع/은 굵게 /ㅇ/으로 표기한다. ▶ 예) 야두으울 야티~ㅁ (يَدُعُّ الْيَتِيمَ)

16) /ج/과 /ز/ 는 둘 다 음절의 초성과 받침에서 /ㅈ/으로 표기한다.

▶ 예) 왈라 투즈자우나 (وَلاَ تُجْزَوْنَ), 타낮잘룰 말라~이카투 (تَنَزَّلُ الْمَلاَئِكَةُ)

17) /ه/는 음절의 초성에서 /ㅎ/ 로 표기하고 받침으로는 쓰지 않으며, 종성일 때와 겹자음에서는 음절 /흐/ 로 표기한다.

▶ 예) 일라이흐 (إِلَيْهِ), 무따흐하라(ㅎ)(مُطَهَّرَةً)

18) /ح/는 굵게 /ㅎ/으로 표기한다. 예) 하~씨딘 (حَاسِدٍ)

19) /ة/는 뒤이어오는 단어와 연접을 이룰 때는 /ㅌ/으로 표기하고, 종결형에서 발음되지 않을 때는 모음이 없는 /(ㅎ)/으로 표기한다.

▶ 예) 라일라툴 까드리 (لَيْلَةُ الْقَدْرِ), 끼~ㄹ라 드쿨릴 잔나(ㅎ) (قِيلَ ادْخُلِ الْجَنَّةَ)

20) /ك/는 음절의 초성과 받침에서 /ㅋ/으로 표기한다.

▶ 예) 문팍키~나 (مُنفَكِّينَ)

21) /ق/는 음절의 초성에서 /ㄲ/ 로 받침에서는 /ㄱ/으로 표기한다.

▶ 예) 라까드 학깔 까울루 (لَقَدْ حَقَّ الْقَوْلُ)

22) /خ/는 음절의 초성에서 굵게 /ㅋ/으로 표기하고 받침에서는 /ㅋ/으로 표기한다. ▶ 예) 칼팍**카**~르 (كَالْفَخَّارِ)

3. 독경에서 아랍어 모음의 한글-로마자 장단 표기 방법

1) 아랍어의 단모음 /ـَ/, /ـُ/, /ـِ/는 각각 /ㅏ a/,/ㅜ u/,/ㅣ i/ 로 표기한다. 이중모음 /ـَوْ/, /ـَيْ/는 각각 /아우 aw/, /아이 ay/로, 장모음 /ـَا/, /ـَى/, /ـُو/, /ـِي/는 각각 /ㅏ~ ā/,/ㅏ~ ā/, /ㅜ~ ū/, /ㅣ~ ī/로 표기한다.

2) 아랍어 모음은 1)항과 같이 원래 단모음, 이중모음, 장모음 체계이지만 꾸란 독경에서는 예외로 장모음을 더 길게 발음하는 (약 2초, 3초, 4초 이상) 특별한 겹장모음 체계가 있다. 즉, 장모음 /ـَا/, /ـَى/, /ـُو/, /ـِي/와 장모음 표시 /~/ 이 연달아 이어질 때인데 이 책에서는 이를 겹장모음 /~~/ 로 표기한다.

3) 위 1)과 2)항의 아랍어 모음체계의 한글-로마자 전사 비교표는 다음과 같다.

| 단모음 | | | 이중모음 | | 장모음 | | | | 겹장모음 | | |
|---|---|---|---|---|---|---|---|---|---|---|---|
| ـَ | ـُ | ـِ | ـَوْ | ـَيْ | ـَا | ـَى | ـُو | ـِي | ـَا~ | ـُو~ | ـِي~ |
| ㅏ | ㅜ | ㅣ | 아우 | 아이 | 아~ | 아~ | 우~ | 이~ | 아~~ | 우~~ | 이~~ |
| a | u | i | aw | ay | ā | ā | ū | ī | āa | ūu | īi |

4. 모음을 갖지 않는 부호 ـْ (수쿤, as-sukūn)이 있을 때는 /으/ 모음을 붙여 한 음절로 표기하거나 앞 음절의 받침으로 사용한다.

5. 자음의 중복을 나타내는 부호 ـّ (샫다, ash-shaddah)가 있을 때는 두 자음을 다 초성으로 표기하거나 한 자음은 앞 음절의 받침으로 사용한다.

6. 독경 때 자음 동화 ('idghām) 표기방법의 한글전사 일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한정되지 않은 명사나 형용사의 격을 나타내는 탄윈 (at-tanwīn) 다음에 /و/가 올 때 다음과 같이 동화가 일어난다.

▶ 예) 싿단 와 (سَدًا و) → 싿다으 와

2) 탄윈 다음에 /ل/이 올 때.

▶ 예) 자미~운 라다이나 ~(جَمِيعٌ لَدَيْنَا) → 자미~울 라다이나

**카**이룬 라카~(خَيْرٌ لَكَ) → **카**이룰 라카

3) 탄윈 다음에 /م/ 올 때.

▶ 예) 돨라~ㄹ린 무비~ㄴ (ضَلَالٍ مُبِينٍ) → 돨라~ㄹ림 무비~ㄴ

**아**~비둔 마 (عَابِدٌ مَا) → **아**~비둠 마

4) /ذ/ 다음에 /ن/ 이 올 때.

▶ 예) 비**단**비힘 (بِذَنْبِهِمْ) → 비**답**비힘

5) 모음을 갖지 않은 /ن/ 다음에 /ل/이 올 때.

▶ 예) 야쿤 라후~(يَكُونْ لَهُ) → 야쿨 라후~

6) 모음을 갖지 않은 /ن/ 다음에 /ي/가 올 때.

▶ 예) 파만 야으티~쿰 (فَمَنْ يَأْتِيكُمْ) → 파마이 야으티~쿰

7) 모음을 갖지 않은 /ن/ 다음에 /ر/가 올 때.

▶ 예) 민 리즈끼히 (مِنْ رِزْقِهِ) → 미르 리즈끼히

7. 아랍어 정관사 알(الْ) 다음에 태양문자(太陽文字) /ت , ث , د , ذ , ر , ز , س , ش , ص , ض , ط , ظ , ل , ن/가 와서 동화될 때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① ت : 빝타끄와~(بِالتَّقْوَى)　② ث : 앗사부~루 (الثُّبُورُ)

③ د : 앋두카~누 (الدُّخَانُ)　④ ذ : 앋디크라~(الذِّكْرَى)

⑤ ر : 야우마 타르주푸르 라~지파 (يَوْمَ تَرْجُفُ الرَّاجِفَةُ)

⑥ ز : 왖자이투~ㄴ (وَالزَّيْتُونِ) ⑦ س : 미낫 싸마~이(مِنَ السَّمَاءِ)

⑧ ش : 왓샴쑤 (وَالشَّمْسُ)

⑨ ص : 마~ 핏쑤두~르 (مَا فِى الصُّدُورِ)

⑩ ض : 핀 돨라~ㄹ라티 (فِى الضَّلَالَةِ)

⑪ ط : 릳따~기~나 (لِلطَّاغِينَ)

⑫ ظ : 라~키닞 자~ㄹ리무~나 (لَكِنِ الظَّالِمُونَ)

⑬ ل : 왈라일리 (وَاللَّيْلِ)　⑭ ن : 완나~지아~티 (وَالنَّازِعَاتِ)

8. 아랍어 정관사 알(الْ) 다음에 월문자(月文字) / أ , ب , ج , ح , خ , ع , غ , ف , ق , ك , م , هـ , و , ي / 가 와서 동화되지 않을 때, /ㄹ/(لْ)은 앞 음절의 받침으로 쓴다.

▶ 예) 라까드 하깔 까울루 (لَقَدْ حَقَّ الْقَوْلُ), 쑤~라툴 파~티하 (ㅎ) (سُورَةُ الْفَاتِحَةِ)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제1장 | 제1장 |
| 알 파~티**하**<br>쑤~라툴 파~티**하** | Al-Fātīḥah<br>Sūratul-Fātīḥah |
| 01.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01. Bismil-lāhir-Rāḥmānir-Raḥīm |
| 02. 알**함**두 릴라~히 랍빌 **아**~ㄹ라미~ㄴ | 02. Alḥamdu li-Llāhi Rabbil-ʻālamīn |
| 03. 아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03. Ar-Raḥmānir-Raḥīm |
| 04. 마~ㄹ리키 야우밉 디~ㄴ | 04. Māliki yawmid-dīn |
| 05. 이~야~카 나**으**부두 와 이~야~카 나스타**이**~ㄴ | 05. ʼIyyāka naʻbudu wa ʼiyyāka nastaʻīn |
| 06. 이흐디낫 **씨**라~딸 무스타끼~ㅁ | 06. ʼIhdinaṣ-ṣirāṭal-mustaqīm |
| 07. **씨**라~딸 라**디**~나 안**암**타 **알**라이힘 가이릴 마그두~비 **알**라이힘 왈 랃 돠~~ㄹ리~ㄴ | 07. Ṣirāṭal-ladhīna ʼanʻamta ʻalayhim ghayril-maghḍūbi ʻalayhim wa laḍ-ḍāallīn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제19장 | 제19장 |
| 마르얌<br>쑤~라트 마르얌 | Maryam<br>Sūrat Maryam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카~~프 하~ 야~ **아**이인 **싸**~~드 | 01. Kāaf-Hā-Yā-ʻAyyn-Ṣāad. |
| 02. **디**크루 라**흐**마티 랍비카 **아**브다후~ 자카리이야~ | 02. Dhikru raḥmati Rabbika ʻabdahū Zakariyyā. |
| 03. 이**드** 나~다~ 랍바후~ 니다~~안 **카**피이야~ | 03. ʼIdh nādā Rabbahū nidāaʼan khafiyyā. |
| 04. 까~ㄹ라 랍비 인니~ 와하날 아**즈**무 민니~ 와쉬타**알**라르 라으쑤 샤이반 왈 람 아쿰 비두**아**~~이카 랍비 샤끼이야~ | 04. Qāla Rabbi ʼinnī wahanal-ʻaẓmu minnī washtaʻalar-raʼsu shayban wa lam ʼakum biduʻāaʼika Rabbi shaqiyyā. |
| 05. 와 인니~ **키**프툴 마와~ㄹ리야 민 와라~~이~ 와 카~나팀 라아티~ **아**~끼란 파하브 리~ 밀 라둔카 왈리이야~ | 05. Wa ʼinnī khiftul-mawāliya min warāaʼī wa kānatim-raʼatī ʻāqiran fahab lī mil-ladunka waliyyā |
| 06. 야리**수**니~ 와 야리**수** 민 아~ㄹ리 야**으**꾸~바 와즈**알**후 랍비 라디이야~ | 06. Yarithunī wa yarithu min ʼāli Yaʻqūba wajʻalhu Rabbi raḍiyyā |
| 07. 야~ 자카리이야~~ 인나~ 누밧쉬루카 비굴라~미니스 무후~ 야**흐**야~ 람 나즈**알** 라후~ 민 까블루 싸미이야~ | 07. Yā Zakariyyāa ʼinnā nubashshiruka bighulāminis-muhū Yaḥyā lam najʻal-lahū min qablu samiyyā |
| 08. 까~ㄹ라 랍비 안나~ 야쿠~누 리~ 굴라~문 와 카~나팀 라아티~ **아**~끼란 와 까드 발라그투 미날 키바리 **이**티이야~ | 08. Qāla Rabbi ʼannā yakūnu lī ghulāmun wa kānatim-raʼatī ʻāqiran wa qad balaghtu minal-kibari ʻitiyyā. |
| 09. 까~ㄹ라 카**다**~ㄹ리카 까~ㄹ라 랍부카 후와 **알**라이야 하이이눈 와 까드 **칼**라끄투카 민 까블루 왈 람 타쿠 샤이아~ | 09. Qāla kadhālika; qāla Rabbuka huwa ʻalayya hayyinun wa qad khalaqtuka min qablu wa lam taku shayʼā |
| 10. 까~ㄹ라 랍비즈 **알** 리~~ 아~야(ㅎ) 까~ㄹ라 아~야투카 알라~ 투칼리만 나~싸 **살**라~**사** 라야~ㄹ린 싸위이야~ | 10. Qāla Rabbij-ʻal-līi ʼāyah; qāla ʼāyatuka ʼallā tukalliman-nāsa thalātha layālin sawiyyā |
| 11. 파**카**라자 **알**라~ 까우미히~ 미날 미**흐**라~비 파아우**하**~~ 일라이힘 안 쌉비**후**~ 부크라탄 와 **아**쉬이야~ | 11. Fakharaja ʻalā qawmihī minal-miḥrābi faʼawḥāa ʼilayhim ʼan sabbiḥū bukratan wa ʻashiyyā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12. 야~ 야**흐**야~ **쿠딜** 키타~바 비꾸우와틴 와 아~타이나~훌 **후**크마 **싸**비이야~ | 12. Yā Yaḥyā khudhil-Kitāba biquwwatin wa 'ātaynāhul- ḥukma ṣabiyyā |
| 13. 와 **하**나~남 밀 라둔나~ 와 자카~탄 와 카~나 타끼이야~ | 13. Wa ḥanānam-mil-ladunnā wa zakātan wa kāna taqiyyā |
| 14. 와 바르람 비와~ㄹ리다이히 와ㄹ 람 야쿤 잡바~란 **아씨**이야~ | 14. Wa barram biwālidayhi wa lam yakun jabbāran 'aṣiyyā |
| 15. 와 쌀라~문 **알**라이히 야우마 울리다 와 야우마 야무~투 와 야우마 유브**아수 하**이이야~ | 15. Wa salāmun 'alayhi yawma wulida wa yawma yamūtu wa yawma yub'athu ḥayyā |
| 16. 와**드**쿠르 필 키타~비 마르야마 이**딘** 타바**다트** 민 아흘리하~ 마카~난 샤르끼이야~ | 16. Wadhkur fil-Kitābi Maryama 'idhin-tabadhat min 'ahlihā makānan sharqiyyā |
| 17. 팥타**카다**트 민 두~니힘 **히**자~반 파아르쌀나~~ 일라이하~ 루~**하**나~ 파타맛**살**라 라하~ 바샤란 싸위이야~ | 17. Fattakhadhat min dūnihim ḥijābān fa'arsalnāa 'ilayhā rūḥanā fatamaththala lahā basharan sawiyyā |
| 18. 까~ㄹ라트 인니~~ 아**우~두** 비르라**흐**마~니 민카 인 쿤타 타끼이야~ | 18. Qālat 'innīi 'a'ūdhu bir-Raḥmāni minka 'in kunta taqiyyā |
| 19. 까~ㄹ라 인나마~~ 아나 라쑤~ㄹ루 랍비키 리아하바 라키 굴라~만 자키이야~ | 19. Qāla 'innamāa 'ana rasūlu Rabbiki li'ahaba laki ghulāman zakiyyā |
| 20. 까~ㄹ라트 안나~ 야쿠~누 리~ 굴라~문 왈 람 얌싸스니~ 바샤룬 왈 람 아쿠 바기이야~ | 20. Qālat 'annā yakūnu lī ghulāmun wa lam yamsasnī basharun wa lam 'aku baghiyyā |
| 21. 까~ㄹ라 **카다**~ㄹ리키 까~ㄹ라 랍부키 후와 **알**라이야 하이이눈 와 리나즈**알**라후~~ 아~야탈 린나~씨 와 라**흐**마탐 민나~ 와 카~나 아므람 마끄뒤이야~ | 21. Qāla kadhāliki; qāla Rabbuki huwa 'alayya hayyinun; wa linaj'alahūu 'āyatal-linnāsi wa raḥmatam-minnā; wa kāna 'amram-maqḍiyyā |
| 22. 파**하**말라트후 판타바**다트** 비히~ 마카~난 까**씨**이야~ | 22. Faḥamalathu fantabadhat bihī makānan qaṣiyyā |
| 23. 파아자~~아할 마**카**~두 일라~ 지**드인** 나**클**라티 까~ㄹ라트 야~ 라이타니~ 밑투 까블라 하~**다**~ 와 쿤투 나스얌 만씨이야~ | 23. Fa 'ajāa'ahal-makhāḍu 'ilā jidh'in-nakhlati qālat yālaytanī mittu qabla hādhā wa kuntu nasyam-mansiyyā |
| 24. 파나~다~하~ 민 타**흐**티하~~ 알라~ 타**흐**자니~ 까드 자**알**라 랍부키 타**흐**타키 싸리이야~ | 24. Fanādāhā min taḥtihāa 'allā taḥzanī qad ja'ala Rabbuki taḥtaki sariyyā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25. 와 훗지~~ 일라이키 비지**드인** 나**클**라티 투싸~끼뜨 **알**라이키 루따반 자니이야~ | 25. Wa huzzīi ’ilayki bijidh‘in-nakhlati tusāqiṭ ‘alayki ruṭaban janiyyā |
| 26. 파쿨리~ 와싀라비~ 와 까르리~ **아**이난[나] 파임마~ 타라인나 미날 바샤리 아**하**단 파꾸~ㄹ리~~ 인니~ 나**다**르투 리르라**흐**마~니 **싸**우만 팔란 우칼리말 야우마 인씨이야~ | 26. Fakulī washrabī wa qarrī ‘aynan fa’immā tarayinna minal-bashari ’aḥadan faqūlīi ’innī nadhartu lir-Raḥmāni ṣawman falan ’ukallimal-yawma ’insiyyā |
| 27. 파아타트 비히~ 까우마하~ 타**흐**밀루 후[흐]~ 까~ㄹ루~ 야~ 마르야무 라까드 지으티 샤이안 파리이야~ | 27. Fa’atat bihī qawmahā taḥmiluhū qālū yā Maryamu laqad ji’ti shay’an fariyyā |
| 28. 야~~ 우**크**타 하~루~나 마~ 카~나 아부~킴 라아 싸우인 와 마~ 카~나트 움무키 바기이야~ | 28. Yāa ’ukhta Hārūna mā kāna ’abūkim-ra’a saw’in wa mā kānat ’ummuki baghiyyā |
| 29. 파아샤~라트 일라이히 까~ㄹ루~ 카이파 누칼리무 만 카~나 필 마흐디 **싸**비이야~ | 29. Fa’ashārat ’ilayhi qālū kayfa nukallimu man kāna fil-mahdi ṣabiyyā |
| 30. 까~ㄹ라 인니~ **아**브둘 라~히 아~타~니얄 키타~바 와 자**알**라니~ 나비이야~ | 30. Qāla ’innī ‘abdul-lāhi ’ātāniyal-Kitāba wa ja‘alanī Nabiyyā |
| 31. 와 자**알**라니~ 무바~라칸 아이나 마~ 쿤투 와 아우**싸**~니~ 빗**쌀**라~티 왓자카~티 마~ 둠투 **하**이야~ | 31. Wa ja‘alanī mubārakan ’ayna mā kuntu wa ’awṣānī biṣ-Ṣalāti waz-Zakāti mā dumtu ḥayyā |
| 32. 와 바르람 비왈리다티~ 왈 람 야즈**알**니~ 잡바~란 샤끼이야~ | 32. Wa barram biwālidatī wa lam yaj‘alnī jabbāran shaqiyyā |
| 33. 왓쌀라~무 **알**라이야 야우마 울릳투 와 야우마 아무~투 와 야우마 우브**아수 하**이야~ | 33. Wassalāmu ‘alayya yawma wulittu wa yawma ’amūtu wa yawma ’ub‘athu ḥayyā |
| 34. **다**~ㄹ리카 **이**~싸브 누 마르야마[얌] 까울랄 **학**낄 라**디**~ 피~히 얌타루~ㄴ | 34. Dhālika ‘Īsab-nu-Maryam; qawlal-ḥaqqil-ladhī fīhi yamtarūn |
| 35. 마~ 카~나 릴라~히 안[아이] 얕타**키다** 민 왈라딘 쑤브**하**~나흐 이**다**~ 까돠~~ 아므란 파인나마~ 야꾸~ㄹ루 라후~ 쿤 파야쿠~ㄴ | 35. Mā kāna lillāhi ’an yattakhidha min waladin Subḥānah; ’idhā qaḍāa ’amran fa’innamā yaqūlu lahū kun fayakūn |
| 36. 와 인날 라~하 랍비~ 와 랍부쿰 파**으**부두~흐 하~**다**~ **씨**라~뚬 무스타끼~ㅁ | 36. Wa ’innal-lāha Rabbī wa Rabbukum fa‘budūh; hādhā Ṣirāṭum-Mustaqīm |
| 37. 파**크**탈라팔 아**흐**자~부 밈 바이니힘 파와일룰 릴라**디**~나 카파루~ 밈 | 37. Fakhtalafal-’aḥzābu mim baynihim; fawaylul-lilladhīna kafarū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마싀하디 야우민 **아지**~ㅁ | mim-mashhadi Yawmin ʻaẓīm |
| 38. 아스미**으** 비힘 와 아브**씨**르 야우마 야으투~나나~ 라~키닞 **자**~ㄹ리무~날 야우마 피~ 돨라~ㄹ림 무비~ㄴ | 38. 'Asmiʻ bihim wa 'abṣir yawma ya'tūnanā lākiniẓ-ẓālimūnal -yawma fī ḍalālim-mubīn |
| 39. 와 안**디**르훔 야우말 **하**스라티 이**드** 꾸듸얄 아므루 와 훔 피~ 가플라틴 와 훔 라 유으미누~ㄴ | 39. Wa 'andhirhum Yawmal-ḥasrati 'idh quḍiyal- 'amru wa hum fī ghaflatin wa hum lā yu'minūn |
| 40. 인나~ 나**흐**누 나리**술** 아르돠 와 만 **알**라이하~ 와 일라이나~ 유르자**우**~ㄴ | 40. 'Innā Naḥnu narithul-'arḍa wa man ʻalayhā wa 'ilaynā yurjaʻūn |
| 41. 와**드**쿠르 필 키타~비 이브라~히~ㅁ 인나후~ 카~나 씬디~깐 나비이야~ | 41. Wadhkur fil-Kitābi 'Ibrāhīm; 'innahū kāna ṣiddīqan-Nabiyyā |
| 42. 이**드** 까~ㄹ라 리아비~히 야~~ 아바티 리마 타**으**부두 마~ 라~ 야스마**우** 왈 라~ 유브씨루 왈 라~ 유그니~ **안**카 샤이아~ | 42. 'Idh qāla li'abīhi yāa 'abati lima taʻbudu mā lā yasmaʻu wa lā yubṣiru wa lā yughnī ʻanka shay'ā |
| 43. 야~~ 아바티 인니~ 까드 자~~아니~ 미날 **일**미 마~ ㄹ람 야으티카 팔타비**으**니~~ 아흐디카 **씨**라~딴 싸위이야~ | 43. Yāa 'abati 'innī qad jāa'anī minal-ʻilmi mā lam ya'tika fattabiʻnīi 'ahdika Ṣirāṭan Sawiyyā |
| 44. 야~~ 아바티 라~ 타**으**부딧 샤이따~나 인낫 샤이따~나[따~ㄴ] 카~나 리르라**흐**마~니 **아**씨이야~ | 44. Yāa 'abati lā taʻbudish-Shayṭāna; 'innash-Shayṭāna kāna lir-Raḥmāni ʻaṣiyyā |
| 45. 야~~ 아바티 인니~~ 아**카**~푸 안[아이] 야맛싸카 **아다**~붐 미나르 라**흐**마~니 파타쿠~나 릿샤이따~니 왈리이야~ | 45. Yāa 'abati 'innīi 'akhāfu 'an yamassaka ʻadhābum-minar-Raḥmāni fatakūna lish-Shayṭāni waliyyā |
| 46. 까~ㄹ라 아라~기분 안타 **안** 아~ㄹ리하티~ 야~~ 이브라~히~무[히~ㅁ] 라일 람 탄타히 라아르주만나카 와흐주르니~ 말리이야~ | 46. Qāla 'arāghibun 'anta ʻan 'ālihatī yāa 'Ibrāhīmu la'il-lam tantahi la'arjumannaka wahjunī maliyyā |
| 47. 까~ㄹ라 쌀라~문 **알**라이카 싸아스타그피루 라카 랍비~~ 인나후~ 카~나 비~ **하**피이야~ | 47. Qāla salāmun ʻalayka; sa'astaghfiru laka Rabbīi; 'innahū kāna bī ḥafiyyā |
| 48. 와 아**으**타질루쿰 와 마~ 타드**우**~나 민 두~닐 라~히 와 아드**우**~ 랍비~ **아**싸~~ 알라~~ 아쿠~나 비두**아**~~이 랍비~ 샤끼이야~ | 48. Wa 'aʻtazilukum wa mā tadʻūna min dūnil-lāhi wa 'adʻū Rabbī ʻasāa 'allāa 'akūna biduʻāa'i Rabbī shaqiyyā |
| 49. 파람마**으** 타잘라훔 와 마~ 야**으**부두~나 민 두~닐 라~히 와 하브나~ ㄹ라 | 49. Falammaʻ-tazalahum wa mā yaʻbudūna min dūnil-lāhi wahabnā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후~ 이스**하**~까 와 야**으**꾸~바[꾸~ㅂ] 와 쿨란 자**알**나~ 나비이야~ | lahū ʾIsḥāqa wa Yaʿqūba; wa kullan jaʿalnā Nabiyyā |
| 50. 와 와하브나~ 라훔 미르 라**흐**마티나~ 와 자**알**나~ 라훔 리싸~나 **씨**드낀 **알**리이야~ | 50. Wa wahabnā lahum-mir-raḥmatinā wa jaʿalnā lahum lisāna ṣidqin ʿaliyyā |
| 51. 와**드**쿠르 필 키타~비 무~싸~~ 인나후~ 카~나 무**클**라**싼** 와 카~나 라쑤~ㄹ란 나비이야~ | 51. Wadhkur fil-Kitābi Mūsāa; ʾinnahū kāna mukhlaṣan wa kāna Rasūlan-Nabiyyā |
| 52. 와 나~다이나~후 민 자~니 빌 뚜~릴 아이마니 와 까르라브나~후 나지이야~ | 52. Wa nādaynāhu min jānibiṭ-Ṭūril-ʾaymani wa qarrabnāhu najiyyā |
| 53. 와 와하브나~ 라후~ 미르 라**흐**마티 나~~ 아**카**~후 하~루~나 나비이야~ | 53. Wa wahabnā lahū mir-raḥmatināa ʾakhāhu Hārūna Nabiyyā |
| 54. 와**드**쿠르 필 키타~비 이스마~**이**~ㄹ 인나후~ 카~나 **싸**~디깔 와**으**디 와 카~나 라쑤~ㄹ란 나비이야~ | 54. Wadhkur fil-Kitābi ʾIsmāʿīl; ʾinnahū kāna ṣādiqal-waʿdi wa kāna Rasūlan-Nabiyyā |
| 55. 와 카~나 야으무루 아흘라후~ 빗 **쌀**라~티 왓 자카~티 와 카~나 **인**다 랍비히~ 마르뒤이야~ | 55. Wa kāna yaʾmuru ʾahlahū biṣ-Ṣalāti waz-zakāti; wa kāna ʿinda Rabbihī marḍiyyā |
| 56. 와**드**쿠르 필 키타~비 이드리~스[싸] 인나후~ 카~나 **씯**디~깐 나비이야~ | 56. Wadhkur fil-Kitābi ʾIdrīs; ʾinnahū kāna ṣiddīqan-Nabiyyā |
| 57. 와 라파**으**나~후 마카~난 **알**리이야~ | 57. Wa rafaʿnāhu makānan ʿaliyyā |
| 58. 울라~~이칼 라**디**~나 안**아**말 라~후 **알**라이힘 미난 나비이이~나 민 **두**르리이야티 아~담[다마] 와 밈만 **하**말나~ 마**아** 누~**힌**[**흐**] 와 민 **두**르리이야(티) 이브라~히~마 와 이스라~~이~ㄹ라 와 밈만 하다이나~ 와즈타바이나~~ 이**다**~ 투틀라~ **알**라이힘 아~야~투르 라**흐**마~니 **카**르루~ 쑻자단 와 부키이야~ | 58. ʾUlāaʾikal-ladhīna ʾanʿamal-lāhu ʿalayhim minan-Nabiyyīna min dhurriyyati ʾĀdama wa mimmam ḥamalnā maʿa Nūḥin wa min dhurriyyati ʾIbrāhīma wa ʾIsrāaʾīla wa mimman hadaynā wajtabaynāa; ʾidhā tutlā ʿalayhim ʾāyātur-Raḥmāni kharrū sujjadan wa bukiyyā |
| 59. 파**칼**라파 밈 바**으**디힘 **칼**푼 아돠~**웃** **쌀**라~타 왙타바**웃** 샤하와~티 파싸우파 얄까우나 가이야~ | 59. Fakhalafa mim baʿdihim khalfun ʾaḍāʿuṣ-Ṣalāta wattabaʿush-shahawāti fasawfa yalqawna ghayyā |
| 60. 일라~ 만 타~바 와 아~마나 와 **아**밀라 **싸**~ㄹ리**한** 파울라~~이카 야드**쿨**루~날 잔나타 왈 라~ 유**즐**라무~나 샤이아~ | 60. ʾIllā man tāba wa ʾāmana wa ʿamila ṣāliḥan faʾulāaʾika yadkhulūnal-Jannata wa lā yuẓlamūna shayʾā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 --- |
| 61. 잔나~티 **아**드니닐 라티~ 와**아**다르 라**흐**마~누 **이**바~다후~ 빌가이브 인나후~ 카~나 와**으**두후~ 마으티이야~ | 61. Jannāti ʿAdninil-latī waʿadar-Raḥmānu ʿibādahū bilghayb; ʾinnahū kāna waʿduhū maʾtiyyā |
| 62. 라~ 야스마**우**~나 피~하~ 라그완 일라~ 쌀라~만 와 라훔 리즈꾸훔 피~하~ 부크라탄 와 **아**쉬이야~ | 62. Lā yasmaʿūna fīhā laghwan ʾillā salāmān wa lahum rizquhum fīhā bukratan wa ʿashiyyā |
| 63. 틸칼 잔나툴 라티~ 누~리**수** 민 **이**바~디나~ 만 카~나 타끼이야~ | 63. Tilkal-Jannatul-latī nūrithu min ʿibādinā man kāna taqiyyā |
| 64. 와 마~ 나타낮잘루 일라~ 비아므리 랍비카 라후~ 마~ 바이나 아이디~나~ 와 마~ **칼**파나~ 와 마~ 바이나 **다**~ㄹ리카 와 마~ 카~나 랍부카 나씨이야~ | 64. Wa mā natanazzalu ʾillā biʾamri Rabbika lahū mā bayna ʾaydīnā wa mā khalfanā wa mā bayna dhālika; wa mā kāna Rabbuka nasiyyā |
| 65. 랍붓 싸마~와~티 왈아르듸 와 마~ 바이나후마~ 파**으**부드후 와**쓰**따비르 리**이**바~다티히[흐] 할 타**을**라무 라후~ 싸미이야~ | 65. Rabbus-samāwāti walʾarḍi wa mā baynahumā faʿbudhu waṣṭabir liʿibādatih; hal taʿlamu lahū samiyyā |
| 66. 와 야꾸~ㄹ룰 인싸~누아 이**다**~ 마~ 밑투 라싸우파 우**크**라주 **하**이야~ | 66. Wa yaqūlul-ʾinsānu ʾaʾidhā mā mittu lasawfa ʾukhraju ḥayyā |
| 67. 아왈라~ 야**드**쿠룰 인싸~누 안나~ **칼**라끄나~후 민 까블루 왈 람 야쿠 샤이아~ | 67. ʾAwalā yadhkurul-ʾinasānu ʾannā khalaqnāhu min qablu wa lam yaku shayʾā |
| 68. 파와 랍비카 라나**흐**슈란나훔 왓샤야~띠~나 **숨**마 라누**흐**디란나훔 **하**울라 자한나마 지**시**이야~ | 68. Fawa Rabbika lanaḥshurannahum washshayāṭīna thumma la-nuḥḍirannahum ḥawla Jahannama jithiyyā |
| 69. **숨**마 라난지**안**나 민 쿨리 쉬~**아**틴 아이유훔 아샫두 **알**라르 라**흐**마~니 **이**티이야~ | 69. Thumma lananziʿanna min kulli shīʿatin ʾayyuhum ʾashaddu ʿalar-Raḥmāni ʿitiyyā |
| 70. **숨**마 라나**흐**누 아**을**라무 빌라**디**~나 훔 아울라~ 비하~ **쐴**리이야~ | 70. Thumma lanaḥnu ʾaʿlamu billadhīna hum ʾawlā bihā ṣiliyyā |
| 71. 와 임 민쿰 일라~ 와~ㄹ리두하~ 카~나 **알**라~ 랍비카 **하**트맘 마끄듸이야~ | 71. Wa ʾim-minkum ʾillā wāriduhā; kāna ʿalā Rabbika ḥatmam-maqḍiyyā |
| 72. **숨**마 누낮질 라**디**~낱 타까우 와 나**다**룻 **자**~ㄹ리미~나 피~하~ 지**시**이야~ | 72. Thumma nunajjil-ladhīnat-taqaw wa nadharuẓ-ẓālimīna fīhā jithiyyā |
| 73. 와 이**다**~ 투틀라~ **알**라이힘 아~야~투나~ 바이이나~틴 까~ㄹ랄 라**디**~ 나 | 73. Wa ʾidhā tutlā ʿalayhim ʾāyātunā bayyinātin qālal-ladhīna kafarū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카파루~ 릴라**디**~나 아~마누~~ 아이율 파리~까이니 **카**이룸 마까~만 와 아**흐**싸누 나디이야~ | lil-ladhīna 'āmanūu 'ayyul farīqayni khayrum maqāman wa 'aḥsanu nadiyyā |
| 74. 와 캄 아흘라크나~ 까블라훔 민 까르닌 훔 아**흐**싸누 아**사~산** 와 리으야~ | 74. Wa kam 'ahlaknā qablahum min qarnin hum 'aḥsanu 'athāthan wa ri'yā |
| 75. 꿀 만 카~나 핀 돨라~ㄹ라티 팔얌두드 라후르 라**흐**마~누 맏다~ **할**타~~ 이**다**~ 라아우 마~ 유~**아**두~나 임말 **아다**~바 와 임맛 싸~**아**타 파싸야**알**라무~나 만 후와 샤르룸 마카~난 와 아되**아**푸 준다~ | 75. Qul man kāna fiḍ-ḍalālati falyamdud lahur-Raḥmānu maddā; ḥattāa 'idhā ra'aw mā yū'adūna 'immal-'adhāba wa 'immas-sā'ata fasaya'lamūna man huwa sharrum makānan wa 'aḍ'afu jundā |
| 76. 와 야지~둘 라~훌 라**디**~나흐 타다우 후다~ 왈 바~끼야~툿 **싸**~ㄹ리**하**~투 **카**이룬 **인**다 랍비카 **사**와~반 와 **카**이룸 마랃다~ | 76. Wa yazīdul-lāhul-ladhīnah-tadaw hudā; walbāqiyātuṣ-ṣāliḥātu khayrun 'inda rabbika thawāban wa khayrum maraddā |
| 77. 아파라아이탈 라**디**~ 카파라 비아~야~티나~ 와 까~ㄹ라 라우~타얀나 마~ㄹ란 와 왈라다~ | 77. 'Afara'aytal-ladhī kafara bi'āyātinā wa qāla la'ūtayanna mālan wa waladā |
| 78. 앋딸라**알** 가이바 아밑 타**카다** **인**다르 라**흐**마~니 **아**흐다~ | 78. 'Aṭṭala'al-ghayba 'amit-takhadha 'indar-raḥmāni 'ahdā |
| 79. 칼라~ 싸나크투부 마~ 야꾸~ㄹ루 와 나묻두 라후~ 미날 **아다**~비 맏다~ | 79. Kallā sanaktubu mā yaqūlu wa namuddu lahū minal 'adhābi maddā |
| 80. 와 나리**수**후~ 마~ 야꾸~ㄹ루 와 야으티~나~ 파르다~ | 80. Wa narithuhū mā yaqūlu wa ya'tīnā fardā |
| 81. 왇타**카두**~ 민 두~닐 라~히 아~ㄹ리하탈 리야쿠~누 라훔 **잊**자~ | 81. Wattakhadhū min dūnil-lāhi 'ālihatal-liyakūnū lahum 'izzā |
| 82. 칼라~ 싸야크푸루~나 비**이**바~다티힘 와 야쿠~누~나 **알**라이힘 뒨다~ | 82. Kallā sayakfurūna bi 'ibādatihim wa yakūnūna 'alayhim ḍiddā |
| 83. 알람 타라 안나~~ 아르쌀낫 샤야~띠~나 **알**랄 카~피리~나 타웆주훔 앚자~ | 83. 'Alam tara 'annāa 'arsalnash-shayāṭīna 'alal-kāfirīna ta'uzzuhum 'azzā |
| 84. 팔라~ 타**으**잘 **알**라이힘 인나마~ 나**욷**두 라훔 **앋**다~ | 84. Falā ta'jal 'alayhim 'innamā na'uddu lahum 'addā |
| 85. 야우마 나**흐**슈룰 묻타끼~나 일라르 라**흐**마~니 와프다~ | 85. Yawma naḥshurul muttaqīna 'ilar Raḥmāni wafdā |
| 86. 와 나쑤~꿀 무즈리미~나 일라~ 자한나마 위르다~ | 86. Wa nasūqul mujrimīna 'ilā jahannama wirdā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87. 라~ 얌리쿠~낫 샤파~**아**타 일라~ 마닡 타**카다 인**다르 라**흐**마~니 **아**흐다~ | 87. Lā yamlikūnash-shafā'ata 'illā manit-takhadha 'indar Raḥmāni 'ahdā |
| 88. 와 까~ㄹ룯 타**카다**르 라**흐**마~누 왈라다~ | 88. Wa qālut-takhadhar Raḥmānu waladā |
| 89. 라까드 지으툼 샤이안 읻다~ | 89. Laqad ji'tum shay'an 'iddā |
| 90. 타카~둣 싸마~와~투 야타팓따르나 민후 와 탄샤꿀 아르두 와 타**키**르룰 지바~ㄹ루 핟다~ | 90. Takādus-samāwātu yatafaṭṭarna minhu wa tanshaqqul-'arḍu wa takhirrul jibālu haddā |
| 91. 안 다아우 리르 라**흐**마~니 왈라다~ | 91. 'An da'aw lir-Raḥmāni waladā |
| 92. 와 마~ 얌바기~ 리르라**흐**마~니 안 [아이] 얕타**키다** 왈라다~ | 92. wa mā yambaghī lir-Raḥmāni 'an yattakhidha waladā |
| 93. 인 쿨루 만 핏 싸마~와~티 왈아르뒤 일라~~ 아~티르 라**흐**마~니 **아**브다~ | 93. 'In kullu man fis-samāwāti wal'arḍi 'illāa 'ātir Raḥmāni 'abdā |
| 94. 라까드 아**흐싸**~훔 와**앋**다훔 **앋**다~ | 94. Laqad 'aḥṣāhum wa'addahum 'addā |
| 95. 와 쿨루훔 아~티~히 야우말 끼야~마티 파르다~ | 95. Wa kulluhum 'ātīhi yawmal-qiyāmati fardā |
| 96. 인날 라**디**~나 아~마누~ 와 **아**밀룻 **싸**~ㄹ리**하**~티 싸야즈**알**루 라후무르 라**흐**마~누 욷다~ | 96. 'Innal-ladhīna 'āmanū wa 'amiluṣ-ṣāliḥāti sayaj'alu lahumur-Raḥmānu wuddā |
| 97. 파인나마~ 얐싸르나~후 빌리싸~니카 리투받쉬라 비힐 뭍타끼~나 와 툰**디**라 비히~ 까우말 룯다~ | 97. Fa'innamā yassarnāhu bilisānika litubashshira bihil-muttaqīna wa tundhira bihī qawmal-luddā |
| 98. 와 캄 아흘라크나~ 까블라훔 민 까르닌 할 투**힛**쑤 민훔 민 아**하**딘 아우 타스마**우** 라훔 리크자~ | 98. Wa kam 'ahlaknā qablahum min qarnin hal tuḥissu minhum min 'aḥadin 'aw tasma'u lahum rikzā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제36장 | 제36장 |
| 야~씨~~ㄴ<br>쑤~라트 야~씨~~ㄴ | Yā-Sīin<br>Sūrat Yā-Sīin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야~씨~~ㄴ | 01. Yā-sīin |
| 02. 왈 꾸르아~닐 **하**키~ㅁ | 02. Wal-Qur'ānil-Ḥakīm |
| 03. 인나카 라미날 무르쌀리~ㄴ | 03. 'Innaka laminal-mursalīn |
| 04. **알**라~ **씨**라~띰 무스타끼~ㅁ | 04. 'Alā ṣirāṭim-mustaqīm |
| 05. 탄지~ㄹ랄 **아**지~지르 라히~ㅁ | 05. Tanzīlal-'Azīzir-Raḥīm |
| 06. 리툰**디**라 까우맘 마~~ 운**디**라 아~바~~우훔 파훔 가~필루~ㄴ | 06. Litundhira qawmam-māa 'undhira 'ābāa 'uhum fahum ghāfilūn |
| 07. 라까드 학깔 까울루 **알**라~~ 악**사**리힘 파훔 라~ 유으미누~ㄴ | 07. Laqad ḥaqqa-l-qawlu 'alāa 'aktharihim fahum lā yu'minūn |
| 08. 인나~ 자**알**나~ 피~~ 아**으**나~끼힘 아글라~ㄹ란 파히야 일랄 아**드**까~니 파훔 무끄마**후**~ㄴ | 08. 'Innā ja'alnā fīi 'a'nāqihim 'aghlālan fahiya 'ilal-'adhqāni fahum muqmaḥūn |
| 09. 와자**알**나~ 밈 바이니 아이디~힘 쌑단 와 민 **칼**피힘 쌑단 파아그샤이나~훔 파훔 라~ 유브**씨**루~ㄴ | 09. Wa ja'alnā mim bayni 'aydīhim saddan wa min khalfihim saddan fa'aghshaynāhum fahum lā yubṣirūn |
| 10. 와 싸와~운 **알**라이힘 아안**다**르타훔 암 람 툰**디**르훔 라~ 유으미누~ㄴ | 10. Wa sawā'un 'alayhim 'a'andhartahum 'am lam tundhirhum lā yu'minūn |
| 11. 인나마~ 툰**디**루 마닡타바**안 디**크라 와 **카**쉬야르 라**흐**마~나 빌가이비 파밧쉬르후 비마그피라틴 와 아즈린 카리~ㅁ | 11. 'Innamā tundhiru manittaba 'adh-Dhikra wa khashiyar-Raḥmāna bilghaybi fabashshirhu bimaghfiratin wa 'ajrin-karīm |
| 12. 인나~ 나**흐**누 누**흐**일 마우타~ 와 나크투부 마~ 깓다무~ 와 아~**사**~라훔 와 쿨라 샤이인 아**흐싸**이나~후 피~~ 이마~밈 무비~ㄴ | 12. 'Innā Naḥnu nuḥyil-mawtā wa naktubu mā qaddamū wa 'āthārahum; wa kulla shay'in 'aḥṣaynāhu fīi 'Imāmim-Mubīn |
| 13. 와드리브 라훔 마**살**란 아**쓰하**~발 까르야티 이**드** 자~아할 무르쌀루~ㄴ | 13. Waḍrib lahum-mathalan 'Aṣḥābal-Qaryati 'idh jā'ahal-mursalūn |
| 14. 이**드** 아르쌀나~~ 일라이히무**스** | 14. 'Idh 'arsalnāa 'ilayhimuth-nayni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 --- |
| 나이니 파칸**다**부~후마~ 파**앗**자즈나~ 비**사**~ㄹ리**신** 파까~ㄹ루~ 인나~~ 일라이쿰 무르쌀루~ㄴ | fakadhdhabūhumā fa-ʻazzaznā bithālithin faqālū ʼinnāa ʼilaykum-mursalūn |
| 15. 까~ㄹ루~ 마~~ 안툼 일라~ 바샤룸 미**슬**루나~ 와마~~ 안잘라르 라**흐**마~누 민 샤이인 인 안툼 일라~ 타크**디**부~ㄴ | 15. Qālū māa ʼantum ʼillā basharum-mithlunā wa māa ʼanzalar-Raḥmānu min shayʼin ʼin ʼantum ʼillā takdhibūn |
| 16. 까~ㄹ루~ 랍부나~ 야**을**라무 인나~~ 일라이쿰 라 무르쌀루~ㄴ | 16. Qālū Rabbunā yaʻlamu ʼinnāa ʼilaykum la-mursalūn |
| 17. 와 마~ **알**라이나~~ 일랄 발라~굴 무비~ㄴ | 17. Wa mā ʻalaynāa ʼillal-balāghul -mubīn |
| 18. 까~ㄹ루~~ 인나~ 타따이야르나~ 비쿰 라일 람 탄타후~ 라나르주만나쿰 와 라야맛싼나쿰 민나~ **아다**~분 알리~ㅁ | 18. Qālūu ʼinnā taṭayyarnā bi-kum laʼil-lam tantahū lanarjumannakum wa layamassannakum minnā ʻadhābun ʼalīm |
| 19. 까~ㄹ루~ 따~~이루쿰 마**아**쿰 아인 **둑**키르툼 발 안툼 까우뭄 무스리푸~ㄴ | 19. Qālū ṭāaʼirukum-maʻakum; ʼaʼin dhukkirtum; bal ʼantum qawmum-musrifūn |
| 20. 와 자~~아 민 아**끄쌀** 마디~나티 라줄룬 야스아~~ 까~ㄹ라 야~ 까우밑 타비**울** 무르쌀리~ㄴ | 20. Wa jāaʼa min ʼaqṣal-madīnati rajulun yasʻā qāla yā qawmit-tabiʻul-mursalīn |
| 21. 일타비**우**~ 말 라~ 야스알루쿰 아즈란 와 훔 무흐타두~ㄴ | 21. Ittabiʻū mal-lāyasʼalukum ʼajran wa hum muhtadūn |
| 22. 와 마~ㄹ리야 라~~ 아**으**부둘 라**디**~ 파따라니~ 와 일라이히 투르자**우**~ㄴ | 22. Wa mā liya lāa ʼaʻbudul-ladhī faṭaranī wa ʼilayhi turjaʻūn |
| 23. 아알타**키두** 민 두~니히~~ 아~ㄹ리하탄 인 유리드니르 라**흐**마~누 비두르릴 라 투그니 **안**니~ 샤파~**아**투훔 샤이안 왈 라~ 윤끼**두**~ㄴ | 23. ʼAʼattakhidhu min dūnihīi ʼālihatan ʼin yuridnir-Raḥmānu biḍurril-lā tughni ʻannī shafāʻatuhum shayʼan wa lā yunqidhūn |
| 24. 인니~~ 이**달** 라피~ 돨라~ㄹ림 무비~ㄴ | 24. ʼInnīi ʼidhal-lafī ḍalālim-mubīn |
| 25. 인니~~ 아~만투 비 랍비쿰 파스마**우**~ㄴ | 25. ʼInnīi ʼāmantu bi- Rabbikum fasmaʻūn |
| 26. 끼~ㄹ라드 **쿨**릴 잔나타 까~ㄹ라 야~ 라이타 까우미~ 야**을**라무~ㄴ | 26. Qīlad-khulil-Jannata qāla yā layta qawmī yaʻlamūn |
| 27. 비마~ 가파라 리~ 랍비~ 와 자**알**라니~ 미날 무크라미~ㄴ | 27. Bimā ghafara lī Rabbī wa jaʻalanī minal-mukramīn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28. 와 마~~ 안잘나~ **알**라~ 까우미히~<br>밈 바**으**디히~ 민 준딤 미낫<br>싸마~~이 와 마~ 쿤나~ 문질리~ㄴ | 28. Wa māa 'anzalnā 'alā qawmihī<br>mim ba'dihī min jundim minas-<br>samāa'i wa mā kunnā munzilīn |
| 29. 인 카~나트 일라~ **싸**이**하**탄<br>와~**히**다탄 파이**다**~ 훔 **카**~미두~ㄴ | 29. 'In kānat 'illā ṣayḥatan wāḥidatan<br>fa'idhā hum khāmidūn |
| 30. 야~ **하**스라탄 **알**랄 **이**바~드 마~<br>야으티~힘 미르 라쑤~ㄹ린 일라~<br>카~누~ 비히~ 야스타흐지우~ㄴ | 30. Yā ḥasratan 'alal-'ibād; mā<br>ya'tīhim-mir Rasūlin 'illā<br>kānū bihī yastahzi'ūn |
| 31. 알람 야라우~ 캄 아흘라크나~<br>까블라훔 미날 꾸루~니 안나훔<br>일라이힘 라~ 야르지**우**~ㄴ | 31. 'Alam yaraw kam 'ahlaknā<br>qablahum minal-qurūni 'annahum<br>'ilayhim lā yarji'ūn |
| 32. 와 인 쿨룰 람마~ 자미~**울**<br>라다이나~ 무**흐**돠루~ㄴ | 32. Wa 'in kullul-lammā<br>jamī'ul-ladaynā muḥḍarūn |
| 33. 와 아~야툴 라후물 아르돌 마이타투<br>아**흐**야이나~하~ 와 아**크**라즈나~<br>민하~ **합**반 파민후 야으쿨루~ㄴ | 33. Wa 'āyatul-lahumul-'arḍul-maytatu<br>'aḥyaynāhā wa 'akhrajnā minhā<br>ḥabban faminhu ya'kulūn |
| 34. 와 자**알**나~ 피~하~ 잔나~팀 민<br>나**키**~ㄹ린 와 아**으**나~빈 와 팢자르나~<br>피~하~ 미날 **우**유~ㄴ | 34. Wa ja'alnā fīhā jannātim-min<br>nakhīlin wa 'a'nābin wa fajjarnā<br>fīhā minal-'uyūn |
| 35. 리야으쿨루~ 민 **사**마리히~ 와 마~<br>**아**밀라트후 아이디~힘 아팔라~<br>야싀쿠루~ㄴ | 35. Liya'kulū min thamarihī wa mā<br>'amilathu 'aydīhim 'afalā<br>yashkurūn |
| 36. 쑤브**하**~날 라**디**~ **칼**라깔 아즈와~자<br>쿨라하~ 밈마~ 툼비툴 아르두 와 민<br>안푸씨힘 와 밈마~ 라~ 야**을**라무~ㄴ | 36. Subḥānal-ladhī khalaqal-'azwāja<br>kullahā mimmā tumbitul-'arḍu wa<br>min 'anfusihim wa mimmā lā<br>ya'lamūn |
| 37. 와 아~야툴 라후물 라일루 나슬라**쿠**<br>민훈 나하~라 파이**다**~ 훔<br>무**즐**리무~ㄴ | 37. Wa 'āyatul-lahumul-laylu naslakhu<br>minhun-nahāra fa'idhā<br>hum muẓlimūn |
| 38. 왓샴쑤 타즈리~ 리무스타까르릴<br>라하~ **다**~ㄹ리카 타끄디~룰<br>**아**지~질 **알**리~ㅁ | 38. Washshamsu tajrī<br>limustaqarril-lahā; dhālika<br>taqdīrul-'Azīzil-'Alīm |
| 39. 왈 까마라 깐다르나~후 마나~질라<br>**할**타~ **아**~다 칼**우**르주~닐 까디~ㅁ | 39. Walqamara qaddarnāhu manāzila<br>ḥattā 'āda kal'urjūnil-qadīm |
| 40. 랏 샴쑤 얌바기~ 라하~~ 안<br>투드리칼 까마라 와 랄 라일루<br>싸~비꾼 나하~르 와 쿨룬 피~<br>팔라킨 야스바**후**~ㄴ | 40. Lash-shamsu yambaghī lahāa 'an<br>tudrikal-qamara wa lal-laylu<br>sābiqun-nahār; wa kullun fī<br>falakin yasbaḥūn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41. 와 아~야툴 라훔 안나~ **하**말나~ **두**르리이야타훔 필 풀킬 마쉬**후**~ㄴ | 41. Wa 'Āyatul-lahum 'annā ḥamalnā dhurriyyatahum fil-fulkil-mashḥūn |
| 42. 와 **칼**라끄나~ 라훔 밈 미**슬**리히~ 마~ 야르카부~ㄴ | 42. Wa khalaqnā lahum mim-mithlihī mā yarkabūn |
| 43. 와 인 나샤으 누그리끄훔 팔라~ **싸**리~**카** 라훔 왈 라~ 훔 윤까**두**~ㄴ | 43. Wa 'in nasha' nughriqhum falā ṣarīkha lahum wa lā hum yunqadhūn |
| 44. 일라~ 라**흐**마탐 민나~ 와 마타~**안** 일라~ **히**~ㄴ | 44. 'Illā raḥmatam-minnā wa matā'an 'ilā ḥīn |
| 45. 와 이**다**~ 끼~ㄹ라 라후뭍타꾸~ 마~ 바이나 아이디~쿰 와 마~ **칼**파쿰 라**알**라쿰 투르**하**무~ㄴ | 45. Wa 'idhā qīla lahumuttaqū mā bayna 'aydīkum wa mā khalfakum la'allakum turḥamūn |
| 46. 와 마~ 타으티~힘 민 아~야팀 민 아~야~티 랍비힘 일라~ 카~누~ **안**하~ 무**으**리듸~ㄴ | 46. Wa mā ta'tīhim min 'Āyatim-min 'Āyāti Rabbihim 'illā kānū 'anhā mu'riḍīn |
| 47. 와 이**다**~ 끼~ㄹ라 라훔 안피**꾸**~ 밈마~ 라자까쿠물 라~후 까~ㄹ랄 라**디**~나 카파루~ 릴라**디**~나 아~마누~~ 아누뜨**이**무 말 라우 야샤~~울 라~후 아뜨**아**마후~~ 인 안툼 일라~ 피~ 돨라~ㄹ림 무비~ㄴ | 47. Wa 'idhā qīla lahum 'anfiqū mimmā razaqakumul-lāhu qālal-ladhīna kafarū lilladhīna 'āmanūu 'anuṭ'imu mal-law yashāa'ul-lāhu 'aṭ'amahūu 'in 'antum 'illā fī ḍalālim-mubīn |
| 48. 와 야꾸~ㄹ루~나 마타~ 하~**달** 와**으**두 인 쿤툼 **싸**~디끼~ㄴ | 48. Wa yaqūlūna matā hādhal-wa'du 'in kuntum ṣādiqīn |
| 49. 마~ 얀**주**루~나 일라~ **싸**이**하**탄 와~**히**다탄 타으**쿠두**훔 와 훔 야**킷씨**무~ㄴ | 49. Mā yanẓurūna 'illā ṣayḥatan wāḥidatan ta'khudhuhum wa hum yakhiṣṣimūn |
| 50. 팔라~ 야스타띠**우**~나 타우**씨**야탄 왈 라~~ 일라~~ 아흘리힘 야르지**우**~ㄴ | 50. Falā yastaṭī'ūna tawṣiyatan wa lāa 'ilāa 'ahlihim yarji'ūn |
| 51. 와 누피**카** 핏 **쑤**~리 파이**다**~ 훔 미날 아즈다~**시** 일라~ 랍비힘 얀씰루~ㄴ | 51. Wa nufikha fiṣ-Ṣūri fa'idhā hum minal-'ajdāthi 'ilā Rabbihim yansilūn |
| 52. 까~ㄹ루~ 야~ 와일라나~ 맘 바**아사**나~ 밈 마르까디나~ 하~**다**~ 마~ 와**아**다르 라**흐**마~누 와 **싸**다깔 무르쌀루~ㄴ | 52. Qālū yā waylanā mam ba'athanā mim-marqadinā hādhā mā wa'adar-Raḥmānu wa ṣadaqal-mursalūn |
| 53. 인 카~나트 일라~ **싸**이**하**탄 와~**히**다탄 파이**다**~ 훔 자미~**울** 라다이나~ 무**흐**돠루~ㄴ | 53. 'In kānat 'illā ṣayḥatan wāḥidatan fa'idhā hum jamī'ul-ladaynā muḥḍarūn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 --- |
| 54. 팔 야우마 라~ 투**즐**라무 나프쑨 샤이안 왈 라~ 투즈자우나 일라~ 마~ 쿤툼 타**으**말루~ㄴ | 54. Fal-Yawma lā tuẓlamu nafsun shay'an wa lā tujzawna 'illā mā kuntum ta'malūn |
| 55. 인나 아**쓰하**~발 잔나틸 야우마 피 슈굴린 파~키후~ㄴ | 55. 'Inna 'Aṣḥābal-Jannatil-Yawma fī shughulin fākihūn |
| 56. 훔 와 아즈와~주훔 피~ **질**라~ㄹ린 **알**랄 아라~~이키 묻타키우~ㄴ | 56. Hum wa 'azwājuhum fī ẓilālin 'alal-'arāa'iki muttaki'ūn |
| 57. 라훔 피~하~ 파~키하툰 왈 라훔 마~ 얃다**우**~ㄴ | 57. Lahum fīhā fākihatun wa lahum mā yadda'ūn |
| 58. 쌀라~문 까울람 미르 랍비르 라히~ㅁ | 58. Salāmun qawlam-mir-Rabbir-Raḥīm |
| 59. 왐타~줄 야우마 아이유할 무즈리무~ㄴ | 59. Wamtāzul-Yawma 'ayyuhal-mujrimūn |
| 60. 알람 아**으**하드 일라이쿰 야~ 바니~~ 아~다마 알 라~ 타**으**부둣 샤이따~나 인나후~ 라쿰 **아**두우움 무비~ㄴ | 60. 'Alam 'a'had 'ilaykum yā Banīi 'Ādama 'al-lā ta'budush-Shayṭāna 'innahū lakum 'aduwwum-mubīn |
| 61. 와 아니**으**부두~니~ 하~**다**~ **씨**라~뚬 무스타끼~ㅁ | 61. Wa 'ani'-budūnī; hādhā Ṣirāṭum-Mustaqīm |
| 62. 와 라까드 아돨라 민쿰 지빌란 카**시**~란[라~] 아팔람 타쿠~누~ 타**으**낄루~ㄴ | 62. Wa laqad 'aḍalla minkum jibillan kathīran 'afalam takūnū ta'qilūn |
| 63. 하~**디**히~ 자한나물 라티~ 쿤툼 투~**아**두~ㄴ | 63. Hādhihi Jahannamul-latī kuntum tū'adūn |
| 64. 이**쓸**라우할 야우마 비마~ 쿤툼 타크푸루~ㄴ | 64. Iṣlawhal-Yawma bimā kuntun takfurūn |
| 65. 알야우마 나**크**티무 **알**라~~ 아프와~히힘 와 투칼리무나~~ 아이디~힘 와 타쉬하두 아르줄루훔 비마~ 카~누~ 야크씨부~ㄴ | 65. Al-yawma nakhtimu 'alāa 'afwāhihim wa tukallimunāa 'aydīhim wa tashhadu 'arjuluhum bimā kānū yaksibūn |
| 66. 왈 라우 나샤~~우 라따마스나~ **알**라~~ 아**으**유니힘 파스타바꾸 **씨**라~따 파안나~ 유브**씨**루~ㄴ | 66. Wa law nashāa'u laṭamasnā 'alāa 'a'yunihim fastabaquṣ- ṣirāṭa fa'annā yubṣirūn |
| 67. 왈 라우 나샤~~우 라마싸크나~훔 **알**라~ 마카~나티힘 파마스타따~**우**~ 무듸이얀 왈 라 야르지**우**~ㄴ | 67. Wa law nashāa'u lamasakhnāhum 'alā makānatihim famas-taṭā'ū muḍiyyan wa lā yarji'ūn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 --- |
| 68. 와 만 누**암**미르후 누낙키스후 필 **칼**끼<br>아팔라 야**으**낄루~ㄴ | 68. Wa man nu'ammirhu nunakkishu<br>fil-khalqi 'afalā ya'qilūn |
| 69. 와 마~ **알**람나~훗 쉬**으**라 와 마~<br>얌바기~ 라(ㅎ) 인 후와 일라~<br>**디**크룬 와 꾸르아~눔 무비~ㄴ | 69. Wa mā 'allamnāhush-shi'ra wa mā<br>yambaghī lah(u); 'in huwa 'illā<br>dhikrun wa Qur'ānum-Mubīn |
| 70. 리윤**디**라 만 카~나 **하**이얀 와 야**힉**깔<br>까울루 **알**랄 카~피리~ㄴ | 70. Liyundhira man kāna ḥayyan wa<br>yaḥiqqal-qawlu 'alal-kāfirīn |
| 71. 아왈람 야라우 안나~ **칼**라끄나~ 라훔<br>밈마~ **아**밀라트 아이디~나~~<br>안**아**~만 파훔 라하~ 마~ㄹ리쿠~ㄴ | 71. 'Awalam yaraw 'annā khalaqnā<br>lahum mimmā 'amilat 'aydīnāa<br>'an'āman fahum lahā mālikūn |
| 72. 와 **달**랄나~하~ 라훔 파민하~<br>라쿠~부훔 와 민하~ 야으쿨루~ㄴ | 72. Wa dhallalnāhā lahum faminhā<br>rakūbuhum wa minhā ya'kulūn |
| 73. 왈 라훔 피~하~ 마나~피**우** 와<br>마샤~리부 아팔라~ 야싀쿠루~ㄴ | 73. Wa lahum fīhā manāfi'u wa<br>mashāribu 'afalā yashkurūn |
| 74. 왙타**카두**~ 민 두~닐 라~히<br>아~ㄹ리하탈 라**알**라훔 윤**싸**루~ㄴ | 74. Wattakhadhū min dūnil-lāhi<br>'ālihatal-la'allahum yunṣarūn |
| 75. 라~ 야스타띠**우**~나 나**쓰**라훔 와 훔<br>라훔 준[~]둠 무**흐**돠루~ㄴ | 75. Lā yastaṭī'ūna naṣrahum wa hum<br>lahum jundum-muḥḍarūn |
| 76. 팔라~ 야**흐**준카 까울루훔 인나~<br>나**을**라무 마~ 유씨르루~나 와 마<br>유**을**리누~ㄴ | 76. Falā yaḥzunka qawluhum; 'innā<br>na'lamu mā yusirrūna wa mā<br>yu'linūn |
| 77. 아와ㄹ람 야랄 인싸~누 안나~<br>**칼**라끄나~후 민 누뜨파틴 파이**다**~<br>후와 **카씨**~뭄 무비~ㄴ | 77. 'Awalam yaral-'insānu 'annā<br>khalaqnāhū min nuṭfatin fa'idhā<br>huwa khaṣīmum-mubīn |
| 78. 와 돠라바 라나~ 마**살**란 와 나씨야<br>**칼**까후~ 까~ㄹ라 만[마이] 유**흐**일<br>**이자**~마 와 히야 라미~ㅁ | 78. Wa ḍaraba lanā mathalan wa<br>nasiya khalqahū qāla man<br>yuḥyil-'iẓāma wa hiya ramīm |
| 79. 꿀 유**흐**이~할 라**디**~~ 안샤아하~~<br>아우왈라 마르라틴 와 후와 비쿨리<br>**칼**낀 **알**리~ㅁ | 79. Qul yuḥyīhal-ladhīi 'ansha'ahāa<br>'awwala marratin wa Huwa bikulli<br>khalqin 'Alīm |
| 80. 알라**디**~ 자**알**라 라쿰 미낫 샤자릴<br>아**크**돠리 나~란 파이**다**~~ 안툼 민후<br>투~끼두~ㄴ | 80. Alladhī ja'ala lakum minash-<br>shajaril-'akhḍari nāran fa'idhāa<br>'antum minhu tūqidūn |
| 81. 아와 라이쌀 라**디**~ **칼**라깟 싸마와~티<br>왈아르돠 비까~디린 **알**라~~<br>안[아이] 야**클**루까 미**슬**라훔 발라~<br>와 후왈 **칼**라~꿀 **알**리~ㅁ | 81. 'Awa laysal-ladhī khalaqas-<br>samāwāti wal'arḍa biqādirin 'alāa<br>'an yakhluqa mithlahum; balā wa<br>Huwal-Khallāqul-'Alīm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 --- |
| 82. 인나마~~ 암루후~~ 이**다**~~ 아라~다 샤이안 안[아이] 야꾸~ㄹ라 라후~ 쿤 파야쿠~ㄴ | 82. 'Innamāa 'amruhūu 'idhāa 'arāda shay'an 'an yaqūla lahū kun fayakūn |
| 83. 파쑤브**하**~날 라**디**~ 비야디히~ 말라쿠~투 쿨리 샤이인 와 일라이히 투르자**우**~ㄴ | 83. Fa-Subḥānal-ladhī biyadihī malakūtu kulli shay'in wa 'ilayhi turja'ūn |

## 제55장 / 제55장

## 아르 라**흐**마~ㄴ / Ar-Raḥmān

## 쑤~라투르 라**흐**마~ㄴ / Sūratur-Raḥmān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 ---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아르 라**흐**마~ㄴ | 01. Ar-Raḥmān |
| 02. **알**라말 꾸르아~ㄴ | 02. 'Allamal-Qur'ān |
| 03. **칼**라깔 인싸~ㄴ | 03. Khalaqal-'insān |
| 04. **알**라마훌 바야~ㄴ | 04. 'Allamahul-bayān |
| 05. 앗샴쑤 왈까마루 비**후**스바~ㄴ | 05. Ashshamsu walqamaru biḥusbān |
| 06. 완나즈무 왓샤자루 야스주다~ㄴ | 06. Wannajmu washshajaru yasjudān |
| 07. 왓싸마~~아 라파**아**하~ 와 와돠**알** 미~자~ㄴ | 07. wassamāa'a rafa'ahā wa waḍa'al -mīzān |
| 08. 알라~ 타뜨가우 필 미~자~ㄴ | 08. 'Allā taṭghaw fil-mīzān |
| 09. 와 아끼~물 와즈나 빌끼스띠 왈 라~ 투**크**씨룰 미~자~ㄴ | 09. Wa 'aqīmul-wazna bilqisṭi wa lā tukhsirul-mīzān |
| 10. 왈아르돠 와돠**아**하 릴아나~ㅁ | 10. Wal'arḍa waḍa'ahā lil'anām |
| 11. 피~하~ 파~키하툰 완나**클**루 **다**~툴 아크마~ㅁ | 11. Fīhā fākihatun wannakhlu dhātul-'akmām |
| 12. 왈**합**부 **둘 아쓰**피 와르 라이**하**~ㄴ | 12. Walḥabbu dhul-'aṣfi war-Rayḥān |
| 13. 파비아이이 아~ㄹ라~~이 랍비쿠마~ 투칸**디**바~ㄴ | 13. Fabi'ayyi 'ālā'i Rabbikumā tukadhdhibān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14. **칼**라깔 인싸~나 민 **쌀싸**~ㄹ린 칼팍**카**~ㄹ | 14. Khalaqal-'insāna min ṣalṣālin kāl-fakhkhār |
| 15. 와 **칼**라깔 자~~ㄴ나 밈 마~리짐 민 나~ㄹ | 15. Wa khalaqal-jāanna mim-mārijim-min-Nār |
| 16. 파비아이이 아~ㄹ라~~이 랍비쿠마~ 투칸**디**바~ㄴ | 16. Fabi'ayyi 'ālā'i Rabbikumā tukadhdhibān |
| 17. 랍불 마쉬리까이니 와 랍불 마그리바인 | 17. Rabbul-mashriqayni wa Rabbul-maghribayn |
| 18. 파비아이이 아~ㄹ라~~이 랍비쿠마~ 투칸**디**바~ㄴ | 18. Fabi'ayyi 'ālā'i Rabbikumā tukadhdhibān |
| 19. 마라잘 바**흐**라이니 얄타끼야~ㄴ | 19. Marajal-baḥrayni yaltaqiyān |
| 20. 바이나후마~ 바르자**쿨** 라~ 야브기야~ㄴ | 20. Baynahumā barzakhul-lā yabghiyān |
| 21. 파비아이이 아~ㄹ라~~이 랍비쿠마~ 투칸**디**바~ㄴ | 21. Fabi'ayyi 'ālā'i Rabbikumā tukadhdhibān |
| 22. 야**크**루주 민후말 루을루우 왈 마르자~ㄴ | 22. Yakhruju minhumal-lu'lu'u walmarjān |
| 23. 파비아이이 아~ㄹ라~~이 랍비쿠마~ 투칸**디**바~ㄴ | 23. Fabi'ayyi 'ālā'i Rabbikumā tukadhdhibān |
| 24. 와 라훌 자와~릴 문샤아~투 필 바**흐**리 칼아**을**라~ㅁ | 24. Wa lahul-jawāril-munsha'ātu fil-baḥri kal'a'lām |
| 25. 파비아이이 아~ㄹ라~~이 랍비쿠마~ 투칸**디**바~ㄴ | 25. Fabi'ayyi 'ālā'i Rabbikumā tukadhdhibān |
| 26. 쿨루 만 **알**라이하~ 파~ㄴ | 26. Kullu man 'alayhā fān |
| 27. 와 야브까~ 와즈후 랍비카 **두**~ㄹ 잘라~ㄹ리 왈 이크라~ㅁ | 27. Wa yabqā wajhu Rabbika dhūl-jalāli wal-'ikrām |
| 28. 파비아이이 아~ㄹ라~~이 랍비쿠마~ 투칸**디**바~ㄴ | 28. Fabi'ayyi 'ālā'i Rabbikumā tukadhdhibān |
| 29. 야스알루후~ 만 핏 싸마~와~티 왈아르듸 쿨라 야우민 후와 피~ 샤은 | 29. Yas'aluhū man fi-s-samāwāti wal'arḍ kulla yawmin huwa fī sha'n |
| 30. 파비아이이 아~ㄹ라~~이 랍비쿠마~ 투칸**디**바~ㄴ | 30. Fabi'ayyi 'ālā'i Rabbikumā tukadhdhibān |
| 31. 싸나프루구 라쿰 아이유핫 **사**깔라~ㄴ | 31. Sanafrughu lakum 'ayyuhath-thaqalān |
| 32. 파비아이이 아~ㄹ라~~이 랍비쿠마~ 투칸**디**바~ㄴ | 32. Fabi'ayyi 'ālā'i Rabbikumā tukadhdhibān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33. 야~ 마**으**샤랄 진니 왈인씨 이니스 타따**으**툼 안 탄푸**두**~ 민 아끄따~릿 싸마~와~티 왈아르듸 판푸**두**~ 라~ 탄푸**두**~나 일라~ 비쑬따~ㄴ | 33. Yā maʿsharal-jinni wal-'insi 'inis-taṭaʿtum 'an tanfudhū min 'aqṭāris-samāwāti wal'arḍ fanfudhū; lā tanfudhūna 'illā bisulṭān |
| 34. 파비아이이 아~ㄹ라~~이 랍비쿠마~ 투칸**디**바~ㄴ | 34. Fabi'ayyi 'ālā'i Rabbikumā tukadhdhibān |
| 35. 유르쌀루 **알**라이쿠마~ 슈와~**즘** 민 나~린 와누**하**~쑨 팔라~ 탄타**씨**라~ㄴ | 35. Yursalu ʿalaykumā shuwāẓum-min nārin wa nuḥāsun falā tantaṣirān |
| 36. 파비아이이 아~ㄹ라~~이 랍비쿠마~ 투칸**디**바~ㄴ | 36. Fabi'ayyi 'ālā'i Rabbikumā tukadhdhibān |
| 37. 파이**단** 샤까팃 싸마~~우 파카~나트 와르다탄 칸디하~ㄴ | 37. Fa'idhan shaqqatis-samāa'u fakānat wardatan kad-dihān |
| 38. 파비아이이 아~ㄹ라~~이 랍비쿠마~ 투칸**디**바~ㄴ | 38. Fabi'ayyi 'ālā'i Rabbikumā tukadhdhibān |
| 39. 파야우마이**딜** 라 유스알루 **안 담**비히~~ 인쑨 왈 라~ 자~~ㄴ | 39. Fayawma'idhil-lā yus'alu ʿan dhambihī 'insun wa lā jāan |
| 40. 파비아이이 아~ㄹ라~~이 랍비쿠마~ 투칸**디**바~ㄴ | 40. Fabi'ayyi 'ālā'i Rabbikumā tukadhdhibān |
| 41. 유**으**라풀 무즈리무~나 비씨~마~훔 파유으**카두** 빈나와~**씨**~ 왈아끄다~ㅁ | 41. Yuʿraful-mujrimūna bisīmāhum fayu'khadhu binnawāṣī wal-'aqdām |
| 42. 파비아이이 아~ㄹ라~~이 랍비쿠마~ 투칸**디**바~ㄴ | 42. Fabi'ayyi 'ālā'i Rabbikumā tukadhdhibān |
| 43. 하~**디**히~ 자한나물 라티~ 유칸**디**부 비할 무즈리무~ㄴ | 43. Hādhihī jahannamul-latī yukadhdhibu bihal-mujrimūn |
| 44. 야뚜~푸~나 바이나하~ 와 바이나 **하**미~민 아~ㄴ | 44. Yaṭūfūna baynahā wa bayna ḥamīmin 'ān |
| 45. 파비아이이 아~ㄹ라~~이 랍비쿠마~ 투칸**디**바~ㄴ | 45. Fabi'ayyi 'ālā'i Rabbikumā tukadhdhibān |
| 46. 와 리만 **카**~파 마까~마 랍비히~ 잔나타~ㄴ | 46. Wa liman khāfa maqāma Rabbihī Jannatān |
| 47. 파비아이이 아~ㄹ라~~이 랍비쿠마~ 투칸**디**바~ㄴ | 47. Fabi'ayyi 'ālā'i Rabbikumā tukadhdhibān |
| 48. **다**와~타~~ 아프나~ㄴ | 48. Dhawātāa 'afnān |
| 49. 파비아이이 아~ㄹ라~~이 랍비쿠마~ 투칸**디**바~ㄴ | 49. Fabi'ayyi 'ālā'i Rabbikumā tukadhdhibān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50. 피~히마~ **아**이나~니 타즈리야~ㄴ | 50. Fīhimā ʿaynāni tajriyān |
| 51. 파비아이이 아~ㄹ라~~이 랍비쿠마~ 투칸**디**바~ㄴ | 51. Fabi'ayyi 'ālā'i Rabbikumā tukadhdhibān |
| 52. 피~히마~ 민 쿨리 파~키하틴 자우자~ㄴ | 52. Fīhimā min kulli fākihatin zawjān |
| 53. 파비아이이 아~ㄹ라~~이 랍비쿠마~ 투칸**디**바~ㄴ | 53. Fabi'ayyi 'ālā'i Rabbikumā tukadhdhibān |
| 54. 뭍타키이~나 **알**라~ 푸루쉼 바따~~이누하~ 민 이스타브라끄 와 자날 잔나타이니 다~ㄴ | 54. Muttaki'īna ʿalā furushim baṭāa'inuhā min 'istabraq; wa janal-jannatayni dān |
| 55. 파비아이이 아~ㄹ라~~이 랍비쿠마~ 투칸**디**바~ㄴ | 55. Fabi'ayyi 'ālā'i Rabbikumā tukadhdhibān |
| 56. 피~힌나 까~**씨**라~툳 따르피 람 야뜨미**스**훈나 인쑨 까블라훔 왈 라~ 자~~ㄴㄴ | 56. Fīhinna qāṣiratuṭ-ṭarfi lam yaṭmithhunna 'insun qablahum wa lā jāann |
| 57. 파비아이이 아~ㄹ라~~이 랍비쿠마~ 투칸**디**바~ㄴ | 57. Fabi'ayyi 'ālā'i Rabbikumā tukadhdhibān |
| 58. 카안나훈날 야~꾸~투 왈마르자~ㄴ | 58. Ka'annahunnal-yāqūtu walmarjān |
| 59. 파비아이이 아~ㄹ라~~이 랍비쿠마~ 투칸**디**바~ㄴ | 59. Fabi'ayyi 'ālā'i Rabbikumā tukadhdhibān |
| 60. 할 자자~~울 이**흐**싸~니 일랄 이**흐**싸~ㄴ | 60. Hal jazāa'ul-'iḥsāni 'illal-'iḥsān |
| 61. 파비아이이 아~ㄹ라~~이 랍비쿠마~ 투칸**디**바~ㄴ | 61. Fabi'ayyi 'ālā'i Rabbikumā tukadhdhibān |
| 62. 와 민 두~니히마~ 잔나타~ㄴ | 62. Wa min dūnihimā Jannatān |
| 63. 파비아이이 아~ㄹ라~~이 랍비쿠마~ 투칸**디**바~ㄴ | 63. Fabi'ayyi 'ālā'i Rabbikumā tukadhdhibān |
| 64. 무드하~~ㅁ마타~ㄴ | 64. Mudhāammatān |
| 65. 파비아이이 아~ㄹ라~~이 랍비쿠마~ 투칸**디**바~ㄴ | 65. Fabi'ayyi 'ālā'i Rabbikumā tukadhdhibān |
| 66. 피~히마~ **아**이나~니 낟돠~**카**타~ㄴ | 66. Fīhimā ʿaynāni naḍḍākhatān |
| 67. 파비아이이 아~ㄹ라~~이 랍비쿠마~ 투칸**디**바~ㄴ | 67. Fabi'ayyi 'ālā'i Rabbikumā tukadhdhibān |
| 68. 피~히마~ 파~키하툰 와 나**클**룬 와 룸마~ㄴ | 68. Fīhimā fākihatun wa nakhlun wa rummān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 --- |
| 69. 파비아이이 아~ㄹ라~~이 랍비쿠마~ 투칸**디**바~ㄴ | 69. Fabi'ayyi 'ālā'i Rabbikumā tukadhdhibān |
| 70. 피~힌나 **카**이라~튼 **히**싸~ㄴ | 70. Fīhinna khayrātun ḥisān |
| 71. 파비아이이 아~ㄹ라~~이 랍비쿠마~ 투칸**디**바~ㄴ | 71. Fabi'ayyi 'ālā'i Rabbikumā tukadhdhibān |
| 72. **후**~룸 마끄**쑤**~라~튼 필 **키**야~ㅁ | 72. Ḥūrum-maqṣūrātun fil-khiyām |
| 73. 파비아이이 아~ㄹ라~~이 랍비쿠마~ 투칸**디**바~ㄴ | 73. Fabi'ayyi 'ālā'i Rabbikumā tukadhdhibān |
| 74. 람 야뜨미**스**훈나 인쑨 까블라훔 왈 라~ 자~~ㄴ느 | 74. Lam yaṭmithhunna 'insun qablahum wa lā jāann |
| 75. 파비아이이 아~ㄹ라~~이 랍비쿠마~ 투칸**디**바~ㄴ | 75. Fabi'ayyi 'ālā'i Rabbikumā tukadhdhibān |
| 76. 뭍타키이~나 **알**라~ 라프라핀 **쿠**드린 와 **아**브까리이인 **히**싸~ㄴ | 76. Muttaki'īna 'alā rafrafin khuḍrin wa 'abqariyyin ḥisān |
| 77. 파비아이이 아~ㄹ라~~이 랍비쿠마~ 투칸**디**바~ㄴ | 77. Fabi'ayyi 'ālā'i Rabbikumā tukadhdhibān |
| 78. 타바~라카스무 랍비카 **딜** 잘라~ㄹ리 왈이크라~ㅁ | 78. Tabārakasmu Rabbika Dhil-Jalāli wal-'Ikrām |

| | |
| --- | --- |
| 제61장 | 제61장 |
| 앗 **쌒**프 | Aṣṣaff |
| 쑤~라틋 **쌒**프 | Sūratuṣ-Ṣaff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쌉바**하** 릴라~히 마~ 핏 싸마~와~티 와 마~ 필 아르드 와 후왈 **아**지~줄 **하**키~ㅁ | 01. Sabbaḥa lillāhi mā fis-samāwāti wa mā fil-'arḍi wa Huwal-'Azīzul-Ḥakīm |
| 02. 야~~ 아이유할 라**디**~나 아~마누~ 리마 타꾸~ㄹ루~나 마~ 라~ 타프**알**루~ㄴ | 02. Yāa 'ayyuhal-ladhīna 'āmanū lima taqūlūna mā lā taf'alūn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03. 카부라 마끄탄 **인**달 라~히 안 타꾸~ㄹ루~ 마~ㄹ라 타프**알**루~ㄴ | 03. Kabura maqtan ʿindal-lāhi ʾan taqūlū mā lā tafʿalūn |
| 04. 인날 라~하 유**힙**불 라**디**~나 유까~틸루~나 피~ 싸비~ㄹ리히~ **쌒**판 카안나훔 분야~눔 마르**쑤**~**쓰** | 04. ʾInnal-lāha yuḥibbul-ladhīna yuqātilūna fī sabīlihī ṣaffan kaʾannahum bunyānum-marṣūṣ |
| 05. 와 이**드** 까~ㄹ라 무~싸~ 리까우미히~ 야~ 까우미 리마 투으**두**~나니~ 와 깓 타**을**라무~나 안니~ 라쑤~ㄹ룰 라~히 일라이쿰 팔람마~ 자~구~~ 아자~갈 라~후 꿀루~바훔 왈라~후 라~ 야흐딜 까우말 파~씨끼~ㄴ | 05. Wa ʾidh qāla Mūsā liqawmihī yā qawmi lima tuʾdhūnanī wa qat-taʿlamūna ʾannī Rasūlul-lāhi ʾilaykum falammā zāghūu ʾazāghal-lāhu qulūbahum wallāhu lā yahdil-qawmal-fāsiqīn |
| 06. 와 이**드** 까~ㄹ라 **이**~싸브 누 마르야마 야~ 바니~~ 이스라~~이~ㄹ라 인니~ 라쑤~ㄹ룰 라~히 일라이쿰 무**싼**디깔 리마~ 바이나 야다이야 미낱 타우라~티 와 무밨쉬람 비 라쑤~ㄹ린 야으티~ 밈 바**으**디스무후~~ 아**흐**마두 팔람마~ 자~~아훔 빌바이이나~티 까~ㄹ루~ 하~다~ 씨**흐**룸 무비~ㄴ | 06. Wa ʾidh qāla ʿĪsab-nu-Maryama yā Banīi-ʾIsrāaʾīla ʾinnī Rasūlul-lāhi ʾilaykum-muṣaddiqal- limā bayna yadayya minat-Tawrāti wa mubashshiram bi-Rasūlin yaʾtī mim baʿdis-muhūu ʾAḥmadu falammā jāaʾahum bilbayyināti qālū hādhā siḥrum-mubīn |
| 07. 와 만 아**즐**라무 밈마니프 타라~ **알**랄 라~힐 카**디**바 와 후와 유드**아**~~ 일랄 이슬라~ㅁ 왈라~후 라~ 야흐딜 까우맞 **자**~ㄹ리미~ㄴ | 07. Wa man ʾaẓlamu mimmanif-tarā ʿalal-lāhil-kadhiba wa huwa yudʿāa ʾilal-ʾIslām wallāhu lā yahdil-qawmaẓ-ẓālimīn |
| 08. 유리~두~나 리유뜨피우~ 누~랄 라~히 비아프와~히힘 왈라~후 무팀무 누~리히~ 왈 라우 카리할 카~피루~ㄴ | 08. Yurīdūna liyuṭfiʾū nūral-lāhi biʾafwāhihim wallāhu mutimmu nūrihī wa law karihal-kāfirūn |
| 09. 후왈 라**디**~ 아르쌀라 라쑤~ㄹ라후~ 빌후다~ 와 디~닐 **학**끼 리유**즈**히라후~ **알**랃 디~니 쿨리히~ 왈 라우 카리할 무쉬리쿠~ㄴ | 09. Huwal-ladhī ʾarsala Rasūlahū bilhudā wa dīnil-ḥaqqi liyuẓhirahū ʿalad-dīni kullihī wa law karihal-mushrikūn |
| 10. 야~~ 아이유할 라**디**~나 아~마누~ 할 아둘루쿰 **알**라~ 티자~라틴 툰지~쿰 민 **아다**~빈 알리~ㅁ | 10. Yāa ʾayyuhal-ladhīna ʾāmanū hal ʾadullukum ʿalā tijāratin tunjīkum min ʿadhābin ʾalīm |
| 11. 투으미누~나 빌라~히 와 라쑤~ㄹ리히~ 와 투자~히두~나 피~ 싸비~릴 라~히 비암와~ㄹ리쿰 와 안푸씨쿰 **다**~ㄹ리쿰 **카**이룰 라쿰 인 쿤툼 타**을**라무~ㄴ | 11. Tuʾminūna billāhi wa Rasūlihī wa tujāhidūna fī sabīlil-lāhi biʾamwālikum wa ʾanfusikum dhālikum khayrul-lakum ʾin kuntum taʿlamūn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12. 야그피르 라쿰 **두**누~바쿰 와 유드**킬**쿰 잔나~틴 타즈리~ 민 타**흐**티할 안하~루 와 마싸~키나 따이이바탄 피~ 잔나~티 **아**든 **다**~ㄹ리칼 파우줄 **아지**~ㅁ | 12. Yaghfir lakum dhunūbakum wa yudkhilkum Jannātin tajrī min taḥtihal-ʻanhāru wa masākina ṭayyibatan fī Jannāti ʻAdn; dhālikal-fawzul-ʻaẓīm |
| 13. 와 우**크**라~ 투**힙**부~나하~ 나**쓰**룸 미날 라~히 와 파트**훈** 까리~브 와 밧쉬릴 무으미니~ㄴ | 13. Wa ʼukhrā tuḥibbūnahā naṣrum-minal-lāhi wa fatḥun qarīb; wa bashshiri-l-muʼminīn |
| 14. 야~~ 아이유할 라**디**~나 아~마누~ 쿠~누~ 안**싸**~랄 라~히 카마~ 까~ㄹ라 **이**~싸브 누 마르야마 릴**하**와~리이이~나 만 안**싸**~리~~ 일랄 라~히 까~ㄹ랄 **하**와~리이유~나 나**흐**누 안**싸**~룰 라~히 파아~마나뜨 따~~이파툼 밈 바니~~ 이스라~~이~ㄹ라 와 카파라뜨 따~~이파툰[파흐] 파아이야드날 라**디**~나 아~마누~ **알**라~ 아두우위힘 파아**쓰**바**후**~ **자**~히리~ㄴ | 14. Yāa ʼayyuhal-ladhīna ʼāmanū kūnū ʼanṣāral-lāhi kamā qāla ʻĪsab-nu-Maryama lil-Ḥawāriyyīna man ʼanṣārīi ʼila-l-lāhi qālal-Ḥawāriyyūna naḥnu ʼanṣāru-l-lāhi faʼāmanaṭ ṭāaʼifatum-mim Banīi ʼIsrāaʼīla wa kafaraṭ-ṭāaʼifatun faʼayyadnal-ladhīna ʻāmanū ʻalā ʼaduwwihim faʼaṣbaḥū ẓāhirīn |

## 제62장 / 제62장

## 알 주무**아** / Al-Jumuʻah

## 쑤~라툴 주무**아** / Sūratul-Jumuʻah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유쌉비**후** 릴라~히 마~ 핏 싸마~와~티 와 마~ 필 아르될 말리킬 꾿두~씰 **아**지~질 **하**키~ㅁ | 01. Yusabbiḥu lillāhi mā fis-samāwāti wa mā fil-ʼarḍil-Malikil-Quddūsil-ʻAzīzil-Ḥakīm |
| 02. 후왈 라**디**~ 바**아사** 필 움미이이~나 라쑤~ㄹ람 민훔 야틀루~ **알**라이힘 아~야~티히~ 와 유잘키~힘 와 유**알**리무후물 키타~바 왈**히**크마타 와 인 카~누~ 민 까블루 라피~ 돨라~ㄹ림 무비~ㄴ | 02. Huwal-ladhī baʻatha fil-ʼummiyyīna Rasūlam-minhum yatlū ʻalayhim ʼĀyātihī wa yuzakkīhim wa yuʻallimuhumul-Kitāba wal-Ḥikmata wa ʼin kānū min qablu lafī ḍalālim-mubīn.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 --- |
| 03. 와 아~**카**리~나 민훔 람마~ 얄**하**꾸~ 비힘 와 후왈 **아**지~줄 **하**키~ㅁ | 03. Wa 'ākharīna minhum lammā yalḥaqū bihim wa Huwal-'Azīzul-Ḥakīm |
| 04. **다**~ㄹ리카 파딜룰 라~히 유으티~히 만[마이] 야샤~~ 왈라~후 **둘** 파디릴 **아지**~ㅁ | 04. Dhālika faḍlul-lāhi yu'tīhi man yashāa; wallāhu dhul-faḍlil-'aẓīm |
| 05. 마**살**룰 라**디**~나 **훔**밀루~ㅌ 타우라~타 **숨**마 람 야**흐**밀루~하~ 카마**살**릴 **히**마~리 야**흐**밀루 아쓰파~라~ 비으싸 마**살**룰 까우밀 라**디**~나 **칸다**부~ 비아~야~틸 라~ㅎ 왈라~후 라~ 야흐딜 까우맟 **자**~ㄹ리미~ㄴ | 05. Mathalul-ladhīna ḥummilūt-Tawrāta thumma lam yaḥmilūhā kamathalil-ḥimāri yaḥmilu 'asfārā; bi'sa mathalul-qawmil-ladhīna kadhdhabū bi-'Āyātil-lāh;wallāhu lā yahdil-qawmaẓ-ẓālimīn |
| 06. 꿀 야~~ 아이유할 라**디**~나 하~두~~ 인 자**암**툼 안나쿰 아울리야~~우 릴라~히 민 두~닌 나~씨 파타만나울 마우타 인 쿤툼 **싸**~디끼~ㄴ | 06. Qul yāa 'ayyuhal-ladhīna hādūu 'in za'amtum 'annakum 'awliyāa'u lillāhi min dūnin-nāsi fatamannawul -mawata 'in-kuntum ṣādiqīn |
| 07. 왈 라~ 야타만나우나후~~ 아바담 비마~ 깐다마트 아이디~힘 왈라~후 **알**리~뭄 빚**자**~ㄹ리미~ㄴ | 07. Wa lā yatamannawnahūu 'abadam bimā qaddamat 'aydīhim; Wallāhu 'alīmum biẓẓālimīn |
| 08. 꿀 인날 마우탈 라**디**~ 타피르루~나 민후 파인나후~ 물라~끼~쿰 **숨**마 투랃두~나 일라~ **아**~ㄹ리밀 가이비 왓 샤하~다티 파유납비우쿰 비마~ 쿤툼 타**으**말루~ㄴ | 08. Qul 'innal-mawtal-ladhī tafirrūna minhu fa'innahū mulāqīkum thumma turaddūna 'ilā 'Ālimil-ghaybi washshahādati fayunabbi'ukum bimā kuntum ta'malūn |
| 09. 야~~ 아이유할 라**디**~나 아~마누~~ 이**다**~ 누~디야 릿**쌀**라~티 민 야우밀 주무**아**티 파스**아**우 일라~ **디**크릴 라~히 와 **다**룰 바이**아** **다**~ㄹ리쿰 **카**이룰 라쿰 인 쿤툼 타**을**라무~ㄴ | 09. Yāa 'ayyuhal-ladhīna 'āmanūu 'idhā nūdiya liṣ-Ṣalāti min Yawmil -Jumu'ati fas'aw 'ilā dhikril-lāhi wa dharul-bay'a; dhālikum khayrul -lakum 'in kuntum ta'lamūn |
| 10. 파이**다**~ 꾸**듸**야팃 **쌀**라~투 판타쉬루~ 필 아르뒤 와브타구~ 민 파딜릴 라~히 와**드**쿠룰 라~하 카**시**~랄 라**알**라쿰 투플리**후**~ㄴ | 10. Fa'idhā quḍiyatiṣ-Ṣalātu fantashirū fil-'arḍi wabtaghū min faḍlil-lāhi wadhkurul-lāha kathīral-la'allakum tufliḥūn |
| 11. 와 이**다**~ 라아우 티자~라탄 아우 라흐와닌 판두~~ 일라이하~ 와 타라쿠~카 까~이마~ 꿀 마~ **인**달 라~히 **카**이룸 미날라흐위 와 미낱 티자~라(ㅎ) 왈라~후 **카**이루르 라~지끼~ㄴ | 11. Wa 'idhā ra'aw tijāratan 'aw lahwanin-faḍḍūu 'ilayhā wa tarakūka qā'imā; qul mā 'indal-lāhi khayrum-minal-lahwi wa minat-tijāra(h); wallāhu khayrur-Rāziqīn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 --- |
| 제67장 | 제67장 |
| 알 물크<br>쑤~라툴 물크 | Al-Mulk<br>Sūratul-Mulk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타바~라칼 라**디**~ 비야디힐 물쿠 와 후와 **알**라~ 쿨리 샤이인 까디~르 | 01. Tabārakal-ladhī bi-Yadihil-mulku wa Huwa 'alā kulli shay'in Qadīr |
| 02. 알라**디 칼**라깔 마우타 왈**하**야~타 리야블루와쿰 아이유쿰 아**흐**싸누 **아**말라~ 와 후왈 **아**지~줄 가푸~르 | 02. Alladhī khalaqal-mawta walḥayāta liyabluwakum 'ayyukum 'aḥsanu 'amalā wa Huwal-'Azīzul-Ghafūr |
| 03. 알라**디 칼**라까 싸브**아** 싸마~와~틴 띠바~까~마~ 타라~ 피~ **칼**끼르 라**흐**마~니 민 타파~우틴 파르지**일** 바**싸**라 할 타라~ 민 푸뚜~르 | 03. Alladhī khalaqa sab'a samāwātin ṭibāqāmā tarā fī halqir-Raḥmāni min tafāwutin farji'il-baṣara hal tarā min fuṭūr |
| 04. **숨**마르 지**일** 바**싸**라 카르라타이니 얀깔리브 일라이칼 바**싸**루 **카**~씨안 와 후와 **하**씨~르 | 04. Thummar-ji'il-baṣara karratayni yanqalib 'ilaykal-baṣaru khāsi'an wa huwa ḥasīr |
| 05. 왈 라까드 자이얀낫 싸마~~안 둔야~ 비마**싸**~비~**하** 와 자**알**나~하~ 루주~말 릿 샤야~띠~니 와 아**으**타드나~ 라훔아**다**~밧 싸**이**~르 | 05. Wa laqad zayyannas-samāa'ad-dunyā bimaṣābīḥa wa ja'alnāhā rujūmal-lish-Shayāṭīni wa 'a'tadnā lahum 'adhābas-sa'īr |
| 06. 왈 릴라**디**~나 카파루~ 비 랍비힘 **아다**~부 자한나마 와 비으쌀 마**씨**~르 | 06. Wa lilladhīna kafarū bi-Rabbihim 'adhābu Jahannama wa bi'sal-maṣīr |
| 07. 이**다**~~ 울꾸~~ 피~하 싸미**우**~ 라하~ 샤히~깐 와 히야 타푸~르 | 07. 'Idhāa 'ulqūu fīha sami'ū lahā shahīqan wa hiya tafūr |
| 08. 타카~두 타마이야주 미날 가이**지** 쿨라마~~ 울끼야 피~하~ 파우준 싸알라훔 **카**자나투하~~ 알람 야으티쿰 나**디**~르 | 08. Takādu tamayyazu minal-ghayẓi kullamāa 'ulqiya fīhā fawjun sa'alahum khazanatuhāa 'alam ya'tikum nadhīr |
| 09. 까~ㄹ루~ 발라~ 까드 자~~아나~ 나**디**~룬 파칻**다**브나~ 와 꿀나~ 마~ 낫잘랄 라~후 민 샤이인 인 안툼 일라~ 피~ **돨**라~ㄹ린 카비~르 | 09. Qālū balā qad jāa'anā nadhīrun fakadhdhabnā wa qulnā mā nazzalal-lāhu min shay'in 'in 'antum 'illā fī ḍalālin kabīr |
| 10. 와 까~ㄹ루 라우 쿤나~ 나스마**우** 아우 나**으**낄루 마~ 쿤나~ 피~~ 아**쓰하**~빗 싸**이**~르 | 10. Wa qālū law kunnā nasma'u 'aw na'qilu mā kunnā fīi 'aṣḥābis-sa'īr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 --- |
| 11. 파**으**타라푸~ 비**담**비힘 파쑤**흐**깔리아**쓰하**~빗 싸**이**~르 | 11. Fa'tarafū bidhambihim fasuḥqal-li'aṣḥābis-sa'īr |
| 12. 인날 라**디**~나 야**크**샤우나 랍바훔 빌가이비 라훔 마그피라툰 와 아즈룬 카비~르 | 12. 'Innal-ladhīna yakhshawna Rabbahum bilghaybi lahum maghfiratun wa 'ajrun kabīr |
| 13. 와 아씨르루~ 까울라쿰 아위즈하루~ 비히~~[비흐] 인나후~ **알**리~뭄 비**다**~팃 **쑤**두~르 | 13. Wa 'asirrū qawlakum 'awijharū bihīi 'innahū 'alīmum bidhātiṣ-ṣudūr |
| 14. 알라~ 야**을**라무 만 **칼**라까 와 후왈 라띠~풀 **카**비~르 | 14. 'Alā ya'lamu man khalaqa wa Huwal-Laṭīful-Khabīr |
| 15. 후왈 라**디**~ 자**알**라 라쿠물 아르돠 **달**루~ㄹ란 팜슈~ 피~ 마나~키비하~ 와 쿨루~ 미르 리즈끼히~ 와 일라이힌 누슈~르 | 15. Huwal-ladhī ja'ala lakumul-'arḍa dhalūlan famshū fī manākibihā wa kulū mir-rizqihī wa 'ilayhin- nushūr |
| 16. 아아민툼 만 핏 싸마~~이 안[아이] 야**크**씨파 비쿠물 아르돠 파이**다**~ 히야 타무~르 | 16. 'A'amintum man fis-samāa'i 'an yakhsifa bikumul-'arḍa fa'idhā hiya tamūr |
| 17. 암 아민툼 만 핏 싸마~~이 안[아이] 유르씰라 **알**라이쿰 **하~씨**반 파싸타**을**라무~나 카이파 나**디**~르 | 17. 'Am 'amintum man fis-samāa'i 'an yursila 'alaykum ḥāṣiban fasata 'lamuna kayfa nadhīr |
| 18. 와 라까드 칸**다**발 라**디**~나 민 까블리힘 파카이파 카~나 나키~르 | 18. Wa laqad kadhdhabal-ladhīna min qablihim fakayfa kāna nakīr |
| 19. 아왈람 야라우 일랕 따이리 파우까훔 **싸**~~ㅍ파~틴 와 야끄비딘 마~ 윰씨쿠훈나 일라르 라**흐**마~ㄴ 인나후~ 비쿨리 샤이임 바**씨**~르 | 19. 'Awalam yaraw 'ilaṭ-ṭayri fawqahum ṣāaffātin wa yaqbiḍn; mā yumsikuhunna 'illar-Raḥmān; 'innahū bikulli shay'im Baṣīr |
| 20. 암만 하~**달** 라**디**~ 후와 준둘 라쿰 얀쑤루쿰 민 두~니르 라**흐**마~ㄴ 이닐 카~피루~나 일라~ 피~ 구루~르 | 20. 'Amman hādhal-ladhī huwa jundul-lakum yansurukum min dūnir Raḥmān 'inil-kāfirūna 'illā fī ghurūr. |
| 21. 암만 하~**달** 라**디**~ 야르주꾸쿰 인 암싸카 리즈까흐 발 랒주~ 피~ 우투우윈 와 누푸~르 | 21. 'Amman hādhal-ladhī yarzuqukum 'in 'amsaka rizqah bal lajjū fī 'utuwwin wa nufūr. |
| 22. 아파만 얌쉬~ 무킵반 **알**라~ 와즈히히~~ 아흐다~~ 암만[마이] 얌쉬~ 싸위이얀 **알**라 **씨**라~띰 무스타끼~ㅁ | 22. 'Afaman yamshī mukibban 'alā wajhihīi 'ahdāa 'amman yamshī sawiyyan 'alā ṣirāṭim-mustaqīm.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 --- |
| 23. 꿀 후왈 라**디**~~ 안샤아쿰 와 자**알**라 라쿠뭇 쌈**아** 왈아브**싸**~라 왈아프이다타 깔리~ㄹ람 마~ 타쉬쿠루~ㄴ | 23. Qul Huwal-ladhīi ’ansha’akum wa ja‘ala lakumus-sam‘a wal’abṣāra wal’af’idata qalīlam-mā tashkurūn. |
| 24. 꿀 후왈 라**디**~ **다**라아쿰 필 아르듸 와 일라이히 투**흐**샤루~ㄴ | 24. Qul Huwal-ladhī dhara’akum fil-’arḍi wa ’ilayhi tuḥsharūn. |
| 25. 와 야꾸~ㄹ루~나 마타~ 하~**달** 와**으**두 인 쿤툼 **싸**~디끼~ㄴ | 25. Wa yaqūlūna matā hādhal-wa‘du ’in kuntum ṣādiqīn. |
| 26. 꿀 인나말 **일**무 **인**달 라~히 와 인나마~~ 아나 나**디**~룸 무비~ㄴ | 26. Qul ’innamal-‘ilmu ‘indal-lāhi wa ’innamāa ’ana nadhīrum-mubīn |
| 27. 파ㄹ람마~ 라아우후 줄파탄 씨~~아트 우주~훌 라디~나 카파루~ 와 끼~ㄹ라 하~**달** 라**디**~ 쿤툼 비히~ 탇다**우**~ㄴ | 27. Falamā ra’awhu zulfatan sīi’at wujūhul-ladhīna kafarū wa qīla hādhal-ladhī-kuntum bihī tadda‘ūn |
| 28. 꿀 아라아이툼 인 아흘라카니얄 라~후 와 맘 마**이**야 아우 라**히**마나~ 파만[마이] 유지~룰 카~피리~나 민 **아다**~빈 알리~ㅁ | 28. Qul ’ara’atum ’in ’ahlakaniyal-lāhu wa mam-ma‘iya ’aw raḥimanā faman yujīrul-kāfirīna min ‘adhābin ’alīm |
| 29. 꿀 후와르 라**흐**마~누 아~만나~ 비히~ 와 **알**라이히 타왁칼나~ 파싸타**을**라무~나 만 후와 피~ **될**라~ㄹ림 무비~ㄴ | 29. Qul Huwar-Raḥmānu ’āmannā bihī wa ‘alayhi tawakkalnā fasata‘lamūna man huwa fī ḍalālim-mubīn |
| 30. 꿀 아라아이툼 인 아**쓰**바**하** 마~~우쿰 가우란 파만[마이] 야으티~쿰 비마~~임 마**이**~ㄴ | 30. Qul ’ara’aytum ’in ’aṣbaḥa māa’kum ghawran faman ya’tīkum bimāa’im-ma‘īn |

## 제78장 / 제78장

### 안 나바 / An-Naba‘
### 쑤~라툰 나바 / Sūratun-Naba‘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 ---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암**마 야타싸~~알루~ㄴ | 01. ‘Amma yatasāa’alūn |
| 02. **아**닌 나바일 **아지**~ㅁ | 02. ‘Anin-naba’il-‘aẓīm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03. 알라**디**~ 훔 피~히 무**크**탈리푸~ㄴ | 03. Alladhī hum fīhi mukhtalifūn |
| 04. 칼라~ 싸야**울**라무~ㄴ | 04. Kallā saya‘lamūn |
| 05. **숨**마 칼라~ 싸야**울**라무~ㄴ | 05. Thumma kallā saya‘lamūn |
| 06. 알람 나즈**알**릴 아르돠 미하~다~ | 06. 'Alam naj‘alil-'arḍa mihādā |
| 07. 왈지바~ㄹ라 아우타~다~ | 07. Waljibāla 'awtādā |
| 08. 와 **칼**라끄나~쿰 아즈와~자~ | 08. Wa khalaqnākum 'azwājā |
| 09. 와 자**알**나~ 나우마쿰 쑤바~타~ | 09. Wa ja‘alnā nawmakum subātā |
| 10. 와 자**알**날 라일라 리바~싸~ | 10. Wa ja‘alnal-layla libāsā |
| 11. 와 자**알**난 나하~라 마**아**~샤~ | 11. Wa ja‘alnan-nahāra ma‘āshā |
| 12. 와 바나이나~ 파우까쿰 싸브**안** 쉬다~다~ | 12. Wa banaynā fawqakum sab‘an shidādā |
| 13. 와 자**알**나~ 씨라~잔 와흐하~자~ | 13. Wa ja‘alnā sirājan wahhājā |
| 14. 와 안잘나~ 미날무**으씨**라~티 마~~안 **샂**자~자~ | 14. Wa 'anzalnā minal-mu‘ṣirāti māa'an thajjājā |
| 15. 리누**크**리자 비히~ **합**반 와 나바~타~ | 15. Linukhrija bihī ḥabban wa nabātā |
| 16. 와 잔나~틴 알파~파 | 16. Wa jannātin 'alfāfā |
| 17. 인나 야우말 파**쓸**리 카~나 미~까~타~ | 17. 'Inna yawmal-faṣli kāna mīqātā |
| 18. 야우마 윤파**쿠** 피~ㅅ **쑤**~리 파타으투~나 아프와~자~ | 18. Yawma yunfakhu fīṣ-ṣūri fata'tūna 'afwājā |
| 19. 와 푸티**하**팃 싸마~~우 파카~나트 아브와~바~ | 19. Wa futiḥatis-samāa'u fakānat 'abwābā |
| 20. 와 쑤이이라틸 지바~ㄹ루 파카~나트 싸라~바~ | 20. Wa suyyiratil-jibālu fakānat sarābā |
| 21. 인나 자한나마 카~나트 미르**싸**~다~ | 21. 'Inna jahannama kānat mirṣādā |
| 22. 릳따~기~나 마아~바 | 22. Liṭṭāghīna ma'ābā |
| 23. 라~비**시**~나 피~하~~ 아**흐**까~바~ | 23. Lābithīna fīhāa 'aḥqābā |
| 24. 라~ 야**두**~꾸~나 피~하~ 바르단 왈 라~ 샤라~바~ | 24. Lāyadhūqūna fīhā bardan wa lā sharābā |
| 25. 일라~ **하**미~만 와 갓싸~까~ | 25. 'Illā ḥamīman wa ghassāqā |
| 26. 자자~~안 위파~까~ | 26. Jazāa'an wifāqā |
| 27. 인나훔 카~누~ 라~ 야르주~나 **히**싸~바~ | 27. 'Innahum kānū lā yarjūna ḥisābā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28. 와 칸**다**부~ 비 아~야~티나~ 킨**다**~바~ | 28. Wa kadhdhabū bi-'ayātinā kidhdhābā |
| 29. 와 쿨라 샤이인 아**흐싸**이나~후 키타~바~ | 29. Wa kulla shay'in 'aḥṣaynāhu kitābā |
| 30. 파**두**~꾸~ 팔란 나지~다쿰 일라~ **아다**~바~ | 30. Fadhūqū falan nazīdakum 'illā 'adhābā |
| 31. 인나 릴 물타끼~나 마파~자~ | 31. 'Inna lilmuttaqīna mafāzā |
| 32. **하**다~~이까 와 아**으**나~바~ | 32. Ḥadāa'iqa wa 'a'nābā |
| 33. 와 카와~**이**바~ 아트라~바~ | 33. Wa kawā'iba 'atrābā |
| 34. 와 카으싼 디하~까~ | 34. Wa ka'san dihāqā |
| 35. 라~ 야스마**우**~나 피~하~ 라그완 왈 라~ 킨**다**~바~ | 35. Lā yasma'ūna fīhā laghwan wa lā kidhdhābā |
| 36. 자자~~암 미르 랍비카 **아**따~~안 **히**싸~바~ | 36. Jazāa'am mir-Rabbika 'aṭāa'an ḥisābā |
| 37. 랍빗 싸마와~티 왈아르뒤 와 마~ 바이나후마르 라**흐**마~니 라~ 얌리쿠~나 민후 **키**따~바~ | 37. Rabbis-samāwāti wal'arḍi wa mā baynahumar -Raḥmāni lāyamlikūna minhu khiṭābā |
| 38. 야우마 야꾸~무르 루~**후** 왈말라~~이카투 **쌒**팔 라~ 야타칼라무~나 일라~ 만 아**디**나 라후르 라**흐**마~누 와 까~ㄹ라 **싸**와~바~ | 38. Yawma yaqūmur-Rūḥu walmalāa'ikatu ṣaffal-lā-yatakallamūna 'illā man 'adhina lahur-Raḥmānu wa qāla ṣawābā |
| 39. **다**~ㄹ리칼 야우물 **학**꾸[끄] 파만 샤~~알 타**카다** 일라~ 랍비히~ 마아~바~ | 39. Dhālikal-yawmul-ḥaqq[u] faman shāa'at-takhadha 'ilā Rabbihī ma'ābā |
| 40. 인나~~ 안**다**르나~쿰 **아다**~반 까리~반 야우마 얀**주**룰 마르우 마~ 깐다마트 야다~후 와 야꾸~ㄹ룰 카~피루 야~ㄹ라이타니~ 쿤투 투라~바~ | 40. 'Innāa 'andharnākum 'adhāban qarīban yawma yanẓurul-mar'u mā qaddamat yadāhu wa yaqūlul-kāfiru yālaytanī kuntu turābā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제79장 | 제79장 |
| 안 나~지**아**~트<br>쑤~라툰 나~지**아**~트 | An-Nāzi'āt<br>Sūratun-Nāzi'āt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완나~지**아**~티 가르까~ | 01. Wannāzi'āti gharqā |
| 02. 완나~쉬따~티 나싀따~ | 02. Wannāshiṭāti nashṭā |
| 03. 왓싸~비**하**~티 싸브**하**~ | 03. Wassābiḥāti sabḥā |
| 04. 팟싸~비까~티 싸브까~ | 04. Fassābiqāti sabqā |
| 05. 팔무답비라~티 아므라~ | 05. Falmudabbirāti 'amrā |
| 06. 야우마 타르주푸르 라~지파(ㅎ) | 06. Yawma tarjufur-rājifah |
| 07. 타트바**우**하르 라~디파(ㅎ) | 07. Tatba'uhar-rādifah |
| 08. 꿀루~분 야우마이**딘** 와~지파(ㅎ) | 08. Qulūbun yawma'idhin wājifah |
| 09. 아브**싸**~루하~ **카**~쉬**아(**ㅎ) | 09. 'Abṣāruhā khāshi'ah |
| 10. 야꾸~ㄹ루~나 아인나~<br>라마르두~두~나 필 **하**~피라(ㅎ) | 10. Yaqūlūna 'a'innā lamardūdūna<br>fil-ḥāfirah |
| 11. 아이**다**~ 쿤나~ **이자**~만 나**키**라(ㅎ) | 11. 'A'idhā kunnā 'iẓāman nakhirah |
| 12. 까~ㄹ루 틸카 이**단** 카르라툰<br>**카**~씨라(ㅎ) | 12. Qālū tilka 'idhan karratun khāsirah |
| 13. 파인나마~ 히야 자즈라툰<br>와~**히**다(ㅎ) | 13. Fa'innamā hiya zajratun wāḥidah |
| 14. 파이**다**~ 홈 빗싸~히라(ㅎ) | 14. Fa'idhā hum bissāhirah |
| 15. 할 아타~카 **하**디~**수** 무~싸~~ | 15. Hal 'atāka ḥadīthu mūsāa |
| 16. 이**드** 나~다~후 랍부후~ 빌와~딜<br>무깓다씨 뚜와~ | 16. 'Idh nādāhu Rabbuhū<br>bilwādil-muqaddasi Ṭuwā |
| 17. 이**드**하브 일라~ 피르**아**우나 인나후~<br>따가~ | 17. Idhhab 'ilā Fir'awna 'innahū ṭaghā |
| 18. 파꿀 할 라카 일라~~ 안 타잨카~ | 18. Faqul hal laka 'ilāa 'an tazakkā |
| 19. 와 아흐디야카 일라~ 랍비카<br>파타**크**샤~ | 19. Wa 'ahdiyaka 'ilā Rabbika<br>fatakhshā |
| 20. 파아라~훌 아~야탈 쿠브라~ | 20. Fa'arāhul-'āyatal-kubrā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21. 파캍**다**바 와 **아싸**~ | 21. Fakadhdhaba wa ʿaṣā |
| 22. **숨**마 아드바라 야스**아**~ | 22. Thumma ʾadbara yasʿā |
| 23. 파**하**샤라 파나~다~ | 23. Faḥashara fanādā |
| 24. 파까~ㄹ라 아나 랍부쿠물 아~**올**라~ | 24. Faqāla ʾana Rabbukumul-ʾĀʿlā |
| 25. 파아**카다**훌 라~후 나카~ㄹ랄 아~**키**라티 왈우~ㄹ라~~ | 25. Faʾakhadhahul-lāhu nakālal-ʾākhirati walʾūlāa |
| 26. 인나 피~ **다**~ㄹ리카 라**이**브라탈 리만 야**크**샤~~ | 26. ʾInna fī dhālika laʿibratal-liman yakhshāa |
| 27. 아안툼 아샤두 **칼**깐 아밋싸마~~우 바나~하~ | 27. ʾAʾantum ʾashaddu khalqan ʾamis-samāaʾu; banāhā |
| 28. 라파**아** 쌈카하~ 파싸우와~하~ | 28. Rafaʿa samkahā fasawwāhā |
| 29. 와 아그따샤 라일라하~ 와 아**크**라자 두**하**~하~~ | 29. Wa ʾaghṭasha laylahā wa ʾakhraja ḍuḥāhā |
| 30. 왈아르돠 바**으**다 **다**~ㄹ리카 다**하**~하~~ | 30. Walʾarḍa baʿda dhālika daḥāhāa |
| 31. 아**크**라자 민하~ 마~~아하~ 와 마르**아**~하~ | 31. ʾAkhraja minhā māaʾahā wa marʿāhā |
| 32. 왈지바~ㄹ라 아르싸~하~ | 32. Waljibāla ʾarsāhā |
| 33. 마타~**알** 라쿰 와 리안**아**~미쿰 | 33. Matāʿal-lakum wa liʾanʿāmikum |
| 34. 파이**다**~ 자~~아틷 따~~ㅁ마툴 쿠브라~ | 34. Faʾidhā jāaʾatiṭ-ṭāammatul-kubrā |
| 35. 야우마 야타**닼**카룰 인싸~누 마~싸아~ | 35. Yawma yatadhakkarul-ʾinsānu māsaʿā |
| 36. 와 부르리자틸 자**히**~무 리만[마이] 야라~ | 36. Wa burrizatil Jaḥīmu liman yarā |
| 37. 파암마~ 만 따가~ | 37. Faʾammā man ṭaghā |
| 38. 와 아~**사**랄 **하**야~탇 둔야~ | 38. Wa ʾātharal-ḥayātad-dunyā |
| 39. 파인날 자**히**~마 히얄 마으와~ | 39. Faʾinnal Jaḥīma hiyal-maʾwā |
| 40. 와 암마 만 **카**~파 마까~마 랍비히~ 와 나한 나프싸 **아**닐 하와~ | 40. Wa ʾammā man khāfa maqāma Rabbihī wa nahan-nafsa ʿanil-hawā |
| 41. 파인날 잔나타 히얄 마으와~ | 41. Faʾinnal Jannata hiyal-maʾwā |
| 42. 야스알루~나카 **아**닛 싸~**아**티 아이야~나 무르싸~하~ | 42. Yasʾalūnaka ʿanis-sāʿati ʾayyāna mursāhā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43. 피~마 안타 민 **디**크라~하~~ | 43. Fīma 'anta min dhikrāhāa |
| 44. 일라~ 랍비카 문타하~하~~ | 44. 'Ilā Rabbika muntahāhāa |
| 45. 인나마~~ 안타 문**디**루 만 야**크**샤~하~ | 45. 'Innamāa 'anta mundhiru man yakhshāhā |
| 46. 카안나훔 야우마 야라우나하~ 람 얄바**수**~~ 일라~ **아**쉬이야탄 아우 두**하**~하~ | 46. Ka'annahum Yawma yarawnahā lamyalbathūu 'illā 'ashiyyatan 'aw ḍuḥāhā |

## 제82장 / 제82장

### 알 인피따~르 / Al-'Infiṭār
### 쑤~라툴 인피따~르 / Sūratul-'Infiṭār

| | |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이**닷** 싸마~~운 파따라트 | 01. 'Idhas-samāa'un-faṭarat |
| 02. 와 이**달** 카와~키분 타**사**라트 | 02. Wa 'idhal-kawākibun-tatharat |
| 03. 와 이**달** 비**하**~루 풋지라트 | 03. Wa 'idhal-biḥāru fujjirat |
| 04. 와 이**달** 꾸부~루 부**으시**라트 | 04. Wa 'idhal-qubūru bu'thirat |
| 05. **알**리마트 나프쑴 마~ 깓다마트 와 악**카**라트 | 05. 'Alimat nafsum mā qaddamat wa 'akhkharat |
| 06. 야~~ 아이유할 인싸~누 마~ 가르라카 비 랍비칼 카리~ㅁ | 06. Yāa 'ayyuhal-'insānu mā gharraka bi-Rabbikal-Karīm |
| 07. 알라**디** **칼**라까카 파싸우와~카 파 **아**달라크 | 07. Alladhi khalaqaka fasawwāka fa'adalak |
| 08. 피~~ 아이이 **쑤**~라팀 마~ 샤~~아 락카바크 | 08. Fīi 'ayyi ṣūratim mā shāa'a rakkabak |
| 09. 칼라~ 발 투칸**디**부~나 빋디~ㄴ | 09. Kallā bal tukadhdhibūna bid-dīn |
| 10. 와 인나 **알**라이쿰 라**하**~피**지**~ㄴ | 10. Wa 'inna 'alaykum laḥāfiẓīn |
| 11. 키라~만 카~티비~ㄴ | 11. Kirāman Kātibīn |
| 12. 야**을**라무~나 마~ 타프**알**루~ㄴ | 12. Ya'lamūna mā taf'alūn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13. 인날 아브라~라 라피~ **나이**~ㅁ | 13. 'Innal-'abrāra lafī na'īm |
| 14. 와 인날 풋자~라 라피~ 자**히**~ㅁ | 14. Wa 'innal-fujjāra lafī jaḥīm |
| 15. 야**쓸**라우나하~ 야우맏디~ㄴ | 15. Yaṣlawnahā yawmad-dīn |
| 16. 와 마~ 훔 **안**하~ 비가~~이비~ㄴ | 16. Wa mā hum 'anhā bighāa'ibīn |
| 17. 와 마~~ 아드라~카 마~ 야우묻디~ㄴ | 17. Wa māa 'adrāka mā yawmud-dīn |
| 18. **숨**마 마~~ 아드라~카 마~ 야우묻디~ㄴ | 18. Thumma māa 'adrāka mā yawmud-dīn |
| 19. 야우마 라~ 탐리쿠 나프쑬 리나프씬 샤이아~ 왈 아므루 야우마이**딜** 릴라~ㅎ | 19. Yawma lā tamliku nafsul li-nafsin shay'ā wal-'amru yawma'idhil lillāh |

## 제85장 | 제85장

알 부루~즈
쑤~라툴 부루~즈

Al-Burūj
Sūratul-Burūj

| | |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왓싸마~~이 **다**~틸 부루~즈 | 01. Wassamāa'i dhātil-burūj |
| 02. 왈야우밀 마우**우**~드 | 02. Wal-yawmil-maw'ūd |
| 03. 와 샤~히딘 와 마쉬후~드 | 03. Wa shāhidin wa mashhūd |
| 04. 꾸틸라 아**쓰하**~불 우**크**두~드 | 04. Qutila 'Aṣḥābul-'ukhdūd |
| 05. 안나~리 **다**~틸 와꾸~드 | 05. 'Annāri dhātil-waqūd |
| 06. 이**드** 훔 **알**라이하 꾸**우**~드 | 06. 'Idh hum 'alayhā qu'ūd |
| 07. 와 훔 **알**라~ 마~ 야프**알**루~나 빌무으미니~나 슈후~드 | 07. Wa hum 'alā mā yaf'alūna bil-mu'minīna shuhūd |
| 08. 와 마~ 나까무~ 민훔 일라~~ 안[아이] 유으미누~ 빌라~힐 **아**지~질 **하**미~드 | 08. Wa mā naqamū minhum 'illāa 'an yu'minū billāhil-'Azīzil-Ḥamīd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09. 알라디~ 라후~ 물쿳 싸마~와~티 왈 아르듸 왈라~후 알라~ 쿨리 샤이인 샤히~드 | 09. Alladhī lahū mulkus-samāwāti wal'arḍ; wallāhu 'alā kulli shay'in shahīd |
| 10. 인날 라디~나 파타눌 무으미니~나 왈무으미나~티 숨마 람 야투~부~ 팔라훔 아다~부 자한나마 와 라훔 아다~불 하리~끄 | 10. 'Innal-ladhīna fatanul-mu'minīna walmu'mināti thumma lam yatūbū falahum 'adhābu jahannama wa lahum 'adhābul-ḥarīq |
| 11. 인날 라디~나 아~마누~ 와 아밀룻싸~ㄹ리하~티 라훔 잔나~툰 타즈리~ 민 타흐티할 안하~루 다~ㄹ리칼 파우줄 카비~르 | 11. 'Innal-ladhīna 'āmanū wa 'amiluṣ-ṣāliḥāti lahum jannātun tajrī min taḥtihal-'anhāru; dhālikal-fawzul-kabīr |
| 12. 인나 바뜨샤 랍비카 라샤디~드 | 12. 'Inna baṭsha Rabbika lashadīd |
| 13. 인나후~ 후와 유브디우 와 유이~드 | 13. 'Innahu Huwa yubdi'u wa yu'īd |
| 14. 와 후왈 가푸~룰 와두~드 | 14. Wa Huwal-Ghafūrul-Wadūd |
| 15. 둘 아르쉴 마지~드 | 15. Dhul-'Arshil-Majīd |
| 16. 파으아~ㄹ룰 리마~ 유리~드 | 16. Fa''ālul-limā yurīd |
| 17. 할 아타~카 하디~술 주누~드 | 17. Hal 'atāka ḥadīthul-junūd |
| 18. 피르아우나 와 사무~드 | 18. Fir'awna wa Thamūd |
| 19. 발릴 라디~나 카파루 피~ 타크디~브 | 19. Balil-ladhīna kafarū fī takdhīb |
| 20. 왈라~후 민 와라~~이힘 무히~뜨 | 20. Wallāhu min warāa'ihim muḥīṭ |
| 21. 발 후와 꾸르아~눔 마지~드 | 21. Bal huwa Qur'ānum Majīd |
| 22. 피~ㄹ 라우힘 마흐푸~즈 | 22. Fī Lawḥim Maḥfūẓ |

제91장

앗 샴스

쑤~라틋 샴스

제91장

Ash-Shams

Sūratush-Shams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01. 왓샴씨 와 두하~하~ | 01. Washshamsi wa ḍuḥāhā |
| 02. 왈까마리 이다~ 탈라~하~ | 02. Walqamari 'idhā talāhā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03. 왼나하~리 이다~ 잘라~하~ | 03. Wannahāri 'idhā jallāhā |
| 04. 왈라일리 이다~ 야그샤~하~ | 04. Wallayli 'idhā yaghshāhā |
| 05. 왓싸마~~이 와 마~ 바나~하~ | 05. Wassamāa'i wa mā banāhā |
| 06. 왈아르뒤 와 마 따하~하~ | 06. Wal-'arḍi wa mā ṭaḥāhā |
| 07. 와 나프씬 와 마~ 싸우와~하~ | 07. Wa nafsin wa mā sawwāhā |
| 08. 파알하마하~ 푸주~라하~ 와 타끄와~하~ | 08. Fa'alhamahā fujūrahā wa taqwāhā |
| 09. 까드 아플라하 만 잨카~하~ | 09. Qad 'aflaḥa man zakkāhā |
| 10. 와 까드 카~바 만 닷싸~하~ | 10. Wa qad khāba man dassāhā |
| 11. 칸다바트 사무~두 비따그와~하~~ | 11. Kadhdhabat thamūdu bi-ṭaghwāhāa |
| 12. 이딤 바아사 아싀까~하~ | 12. 'Idhim ba'atha 'ashqāhā |
| 13. 파까~ㄹ라 라훔 라쑤~ㄹ룰라~히 나~까탈 라~히 와 쑤끄야~하~ | 13. Faqāla lahum Rasūlul-Llāhi nāqatal-lāhi wa suqyāhā |
| 14. 파칸다부~후 파아까루~하~ 파담다마 알라이힘 랍부훔 비담비힘 파싸우와~하~ | 14. Fakadhdhabūhu fa'aqarūhā fadamdama 'alayhim Rabbuhum bidhambihim fasawwāhā |
| 15. 왈라~ 야카~푸 우끄바~하~ | 15. Wa lā yakhāfu 'uqbāhā |

| 제92장 | 제92장 |
|---|---|
| 알 라일<br>쑤~라툴 라일 | Al-Lail<br>Sūratul-Lail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왈라일리 이다~ 야그샤~ | 01. Wallaili 'idhā yaghshā |
| 02. 왼나하~리 이다~ 타잘라~ | 02. Wannahāri 'idhā tajallā |
| 03. 와 마~ 칼라깐 다카라 왈운사~~ | 03. Wa mā khalaqadh-dhakara wal-'unthāa |
| 04. 인나 싸으야쿰 라샽타~ | 04. 'Inna sa'yakum lashattā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05. 파암마~ 만 아**으**따~ 왇타까~ | 05. Fa'ammā man 'a'ṭā wattaqā |
| 06. 와 **쌒**다까 빌**후**스나~ | 06. Wa ṣaddaqa bilḥusnā |
| 07. 파싸누얏씨루후~ 릴유스라~ | 07. Fasanuyassiruhū lilyusrā |
| 08. 와 암마~ 맘 바**킬**라 와스타그나~ | 08. Wa 'ammā mam bakhila wastaghnā |
| 09. 와 칻**다**바 빌**후**스나~ | 09. Wa kadhdhaba bilḥusnā |
| 10. 파싸누얏씨루후~ 릴**우**스라~ | 10. Fasanuyassiruhū lil'usrā |
| 11. 와 마~ 유그니~ **안**후 마~ㄹ루후~~ 이**다**~ 타랃다~ | 11. Wa mā yughnī 'anhū māluhūu 'idhā taraddā |
| 12. 인나 **알**라이나~ 랄후다~ | 12. 'Inna 'alainā lalhudā |
| 13. 와 인나 라나~ 랄아~**키**라타 왈 우~ㄹ라~ | 13. Wa 'inna lanā lal-'ākhirata wal-'ūlā |
| 14. 파안**다**르투쿰 나~란 탈랒**자**~ | 14. Fa'andhartukum nāran talaẓẓā |
| 15. 라~ 야**쓸**라~하~~ 일랄 아싀까~ | 15. Lā yaṣlāhāa 'illal 'ashqā |
| 16. 알라**디**~ 칻**다**바 와 타왈라~ | 16. Alladhī kadhdhaba wa tawallā |
| 17. 와 싸유잔나부할 아트까~ | 17. Wa sayujannabuhal-'atqā |
| 18. 알라**디**~ 유으티~ 마~ㄹ라후~ 야타잒카~ | 18. Alladhī yu'tī mālahū yatazakkā |
| 19. 와 마 리아**하**딘 **인**다후~ 민 니**으**마틴 투즈자~ | 19. Wa mā li'aḥadin 'indahū min ni'matin tujzā |
| 20. 일라브 티가~~아 와즈히 랍비힐 아**올**라~ | 20. 'Illab-tighāa'a wajhi Rabbihil-'A'lā |
| 21. 왈 라싸우파 야르돠~ | 21. Wa lasawfa yarḍā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제93장 | 제93장 |
| 앋 두하~<br>쑤~라툳 두**하**~ | Aḍ-Ḍuḥā<br>Sūratuḍ-Ḍuḥā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왇두**하**~ | 01. Waḍḍuḥā |
| 02. 왈라일리 이**다**~ 싸자~ | 02. Wallayli 'idhā sajā |
| 03. 마~ 왇다**아**카 랍부카 와 마~깔라~ | 03. Mā wadda'aka Rabbuka wa mā qalā |
| 04. 왈 랄 아~**키**라투 **카**이룰 라카 미날 우~ㄹ라~ | 04. Wa lal 'ākhiratu khayrul-laka minal-'ūlā |
| 05. 왈 라싸우파 유**으**띠~카 랍부카 파타르돠~~ | 05. Wa lasawfa yu'ṭīka Rabbuka fatarḍā |
| 06. 알람 야지드카 야티~만 파아~와~ | 06. 'Alam yajidka yatīman fa'āwā |
| 07. 와 와자다카 돠~~ㄹ란 파하다~ | 07. Wa wajadaka ḍāallan fahadā |
| 08. 와 와자다카 **아**~~일란 파아그나~ | 08. Wa wajadaka 'āa'ilan fa'aghnā |
| 09. 파암말 야티~마 팔라~ 타끄하르 | 09. Fa'ammal-yatīma falā taqhar |
| 10. 와 암맛싸~~일라 팔라~ 탄하르 | 10. Wa 'ammassāa'ila falā tanhar |
| 11. 와 암마~ 비니**으**마티 랍비카 파**핟**디**스** | 11. Wa 'ammā bini'mati Rabbika faḥaddith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제94장 | 제94장 |
| 앗 샤르**흐** / 알 인쉬라~**흐**<br>쑤~라틋 샤르**흐** | Ash-Sharḥ / Al-Inshirāḥ<br>Sūratush-Sharḥ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알람 나쉬라**흐** 라카 **싸**드락 | 01. 'Alam nashraḥ laka ṣadrak |
| 02. 와 와돠**으**나~ **안**카 위즈락 | 02. Wa waḍa'nā 'anka wizrak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03. 알라**디**~~ 안까돠 **자**흐락 | 03. Alladhīi 'anqaḍa ẓahrak |
| 04. 와 라파**으**나~ 라카 **디**크락 | 04. Wa rafaʻnā laka dhikrak |
| 05. 파인나 마**알 우**스리 유스라~ | 05. Fa'inna maʻal-ʻusri yusrā |
| 06. 인나 마**알 우**스리 유스라~ | 06. 'Inna maʻal-ʻusri yusrā |
| 07. 파이**다**~ 파라그타 판**싸**브 | 07. Fa'idhā faraghta fanṣab |
| 08. 와 일라~ 랍비카 파르가브 | 08. Wa 'ilā Rabbika farghab |

## 제95장 / 제95장

### 알 티~ㄴ<br>쑤~라툳 티~ㄴ / At-Tīn<br>Sūratut-Tīn

| | |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왙티~니 왚자이투~ㄴ | 01. Wattīni wazzaytūn |
| 02. 와뚜~리 씨~니~ㄴ | 02. Wa ṭūri sīnīn |
| 03. 와 하~**달** 발라딜 아미~ㄴ | 03. Wa hādhalbaladil-'amīn |
| 04. 라까드 칼라끄날 인싸~나 피~~ 아**흐**싸니 타끄위~ㅁ | 04. Laqad khalaqnal-'insāna fīi 'aḥsani taqwīm |
| 05. **숨**마 라다드나~후 아스팔라 싸~필리~ㄴ | 05. Thumma radadnāhu 'asfala sāfilīn |
| 06. 일랄 라**디**~나 아~마누~ 와 **아**밀룻**쌀**~ㄹ리**하**~티 팔라훔 아즈룬 가이루 맘누~ㄴ | 06. 'Illal-ladhīna 'āmanū wa ʻamiluṣ-ṣāliḥāti falahum 'ajrun ghairu mamnūn |
| 07. 파마~ 유칻**디**부카 바**으**두 빋디~ㄴ | 07. Famā yukadhdhibu-ka baʻdu bid-dīn |
| 08. 알라이쌀 라~후 비아**흐**카밀 **하**~키미~ㄴ | 08. 'Alaysal-lāhu bi-'aḥkamil-ḥākimīn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제96장 | 제96장 |
| 알 **알**라끄<br>쑤~라툴 **알**라끄 | Al-ʻAlaq<br>Sūratul-ʻAlaq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이끄라으 비스미 랍비칼 라**디**~ **칼**라끄 | 01. Iqra' bismi Rabbikal-ladhī khalaq |
| 02. **칼**라깔 인싸~나 민 **알**라끄 | 02. Khalaqal-'insāna min ʻalaq |
| 03. 이끄라으 와 랍부칼 아크람 | 03. Iqra' wa Rabbukal-'A k ram |
| 04. 알라**디** **알**라마 빌깔람 | 04. Alladhī ʻallama bilqalam |
| 05. **알**라말 인싸~나 마~ 람 야**을**람 | 05. ʻAllamal-'insāna mā lam yaʻlam |
| 06. 칼라~~ 인날 인싸~나 라야뜨가~~ | 06. Kallāa 'innal-'insāna layaṭghāa |
| 07. 아르 라아~후스타그나~~ | 07. Ar-ra'āhus-taghnāa |
| 08. 인나 일라~ 랍비카르 루즈**아**~~ | 08. 'Inna 'ilā Rabbikar-rujʻāa |
| 09. 아라아이탈 라**디~** 얀하~ | 09. 'Ara'aytal-ladhī yanhā |
| 10. **아**브단 이**다**~ **쌀**라~~ | 10. ʻAbdan 'idhā ṣallāa |
| 11. 아라아이타 인 카~나 **알**랄 후다~~ | 11. 'Ara'ayta 'in kāna ʻalal-hudāa |
| 12. 아우 아마라 빌타끄와~~ | 12. 'Aw 'amara bittaqwāa |
| 13. 아라아이타 인 칸**다**바 와 타왈라~~ | 13. 'Ara'ayta 'in kadhdhaba wa tawallāa |
| 14. 알람 야**을**람 비안날 라~하 야라~ | 14. 'Alam yaʻlam bi'annal-lāha yarā |
| 15. 칼라~ 라일 람 얀타히 라나스파**암** 빈나~**씨**야(ㅎ) | 15. Kallā la'il-lam yantahi lanasfaʻam binnāṣiyah |
| 16. 나~**씨**야틴 카~**디**바틴 **카~**띠아(ㅎ) | 16. Nāṣiyatin kādhibatin khāṭi'ah |
| 17. 팔야드**우** 나~디야(ㅎ) | 17. Falyadʻu nādiyah |
| 18. 싸나드**웃** 자바~니야(ㅎ) | 18. Sanadʻuz-zabāniyah |
| 19. 칼라~ 라~ 투띠**으**후 와스주드 와끄타리브 | 19. Kallā lā tuṭiʻhu wasjud waqtarib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제97장 | 제97장 |
| 알 까드르<br>쑤~라툴 까드르 | Al-Qadr<br>Sūratul-Qadr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인나~~ 안잘나~후 피~ 라이라틸 까드르 | 01. 'Innāa 'anzalnāhu fī Lailatil-Qadr |
| 02. 와 마~~ 아드라~카 마~ 라이라툴 까드르 | 02. Wa māa 'adrāka mā Lailatul-Qadr |
| 03. 라이라툴 까드리 카이룸 민 알피 샤흐르 | 03. Laylatul-Qadri khairum-min 'alfi shahr |
| 04. 타낯잘룰 말라~~이카투 와르루~**후** 피~하~ 비이**드**니 랍비힘 민 쿨리 아므르 | 04. Tanazzalul-malāa'ikatu war-Rūḥu fīhā bi'idhni Rabbihim min kulli 'amr |
| 05. 쌀라~문 히야 **할**타~ 마뜰라**일** 파즈르 | 05. Salāmun hiya ḥattā maṭla'il-Fajr |
| 제98장 | 제98장 |
| 알 바이이나<br>쑤~라툴 바이이나 | Al-Baiyyinah<br>Sūratul-Baiyyinah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람 야쿠닐 라**디**~나 카파루~ 민 아흘릴 키타~비 왈무쉬리키~나 문팍키나 **할**타~ 타으티야후물 바이이나(ㅎ) | 01. Lam yakunil-ladhīna kafarū min 'ahlil-kitābi walmushrikīna munfakkīna ḥattā ta'tiyahumul- bayyinah |
| 02. 라쑤~ㄹ룸 미날라~히 야틀루~ **쑤후**팜 무따흐하라(ㅎ) | 02. Rasūlum-minal-lāhi yatlū ṣuḥufam muṭahharah |
| 03. 피~하~ 쿠투분 까이이마(ㅎ) | 03. Fīhā kutubun qayyimah |
| 04. 와 마~ 타파르라깔 라**디**~나 우~툴 키타~바 일라~ 밈 바**으**디 마~ 자~~아트 후물 바이이나(ㅎ) | 04. Wa mā tafarraqal-ladhīna 'ūtul-kitāba 'illā mim ba'di mā jāa'athumul-bayyinah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05. 와 마~~ 우미루~~ 일라~ 리야**으**부두~ㄹ라~하 무**클**리**씨**~나 라훋 디~나 **후**나파~~아 와 유끼~무~ㅅ **쌀**라~타 와 유으퉅 자카~(타) 와 **다**~ㄹ리카 디~눌 까이이마(ㅎ) | 05. Wa māa 'umirūu 'illā liya'budūllāha mukhliṣīna lahud-dīna ḥunafāa'a wa yuqīmūṣ-ṣalāta wa yu'tuz-zakāta; wa dhālika dīnul-qayyimah |
| 06. 인날 라**디**~나 카파루~ 민 아흘릴 키타~비 왈무쉬리키~나 피 나~리 자한나마 **카**~ㄹ리디~나 피~하~~ 울라~~이카 훔 샤르룰 바리이야(ㅎ) | 06. 'Innal-ladhīna kafarū min 'ahlil-kitābi walmushrikīna fī nāri jahannama khālidīna fīhāa; 'ulāa'ika hum sharrul-bariyyah |
| 07. 인날 라**디**~나 아~마누~ 와 **아**밀루~ㅅ **싸**~ㄹ리**하**~티 울라~~이카 훔 **카**이룰 바리이야(ㅎ) | 07. 'Innal-ladhīna 'āmanū wa 'amiluṣ-ṣāliḥāti 'ulāa'ika hum khayrul-bariyyah |
| 08. 자자~~우훔 **인**다 랍비힘 잔나~투 **아**드닌 타즈리~ 민 타**흐**티할 안하~루 **카**~ㄹ리디~나 피~하~~ 아바다르 라뒤얄 라~후 **안**훔 와 라두~ **안**흐 **다**~ㄹ리카 리만 **카**쉬야 랍바흐 | 08. Jazāa'uhum 'inda Rabbihim jannātu 'adnin tajrī min taḥtihal-'anhāru khālidīna fīhāa 'abadar-raḍiyal-lāhu 'anhum wa raḍū 'anh; dhālika liman khashiya Rabbah |

| 제99장 | 제99장 |
|---|---|
| 알 잘잘라<br>쑤~라퉅 잘잘라 | Az-Zalzalah<br>Sūratuz-Zalzalah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이**다**~ 줄질라틸 아르두 질자~ㄹ라하~ | 01. 'Idhā zulzilatil-'arḍu zilzālahā |
| 02. 와 아**크**라자틸 아르두 아**스**까~ㄹ라하~ | 02. Wa 'akhrajatil-'arḍu 'athqālahā |
| 03. 와 까~ㄹ랄 인싸~누 마~ㄹ라하~ | 03. Wa qālal 'insānu mālahā |
| 04. 야우마이**딘** 투**핟**디**수** 아**크**바~라하~ | 04. Yawma'idhin tuḥaddithu 'akhbārahā |
| 05. 비안나 랍바카 아우**하**~ ㄹ라하~ | 05. Bi 'anna Rabbaka 'awḥā lahā |
| 06. 야우마이**딘** 야**쓰**두룬 나~쑤 아쉬타~탈 리유라우 아**으**마~ㄹ라훔 | 06. Yawma'idhin yaṣdurun-nāsu 'ashtātal-liyuraw 'a'mālahum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 --- |
| 07. 파만[마이] 야**으**말 미**스**까~ㄹ라 **다**르라틴 **카**이란[라이] 야라(ㅎ) | 07. Faman ya'mal mithqāla dharratin khairan yarah |
| 08. 와 만[마이] 야**으**말 미**스**까~ㄹ라 **다**르라틴 샤르란[라이] 야라(ㅎ) | 08. Wa man ya'mal mithqāla dharratin sharran yarah |

## 제100장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 --- |
| 제100장 | 제100장 |
| 알 **아**~디야~티<br>쑤~라툴 **아**~디야~티 | Al-'Ādiyāt<br>Sūratul-'Ādiyāt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왈**아**~디야~티 돠브**하**~ | 01. Wal'ādiyāti ḍabḥā |
| 02. 팔무~리야~티 까드**하**~ | 02. Falmūriyāti qadḥā |
| 03. 팔무기~라~티 **쑤**브**하**~ | 03. Falmughīrāti ṣubḥa |
| 04. 파아**사**르나 비히~ 나끄**아**~ | 04. Fa'atharna bihī naq'ā |
| 05. 파와싸뜨나 비히~ 자므**아**~ | 05. Fawasatna bihī jam'ā |
| 06. 인날 인싸~나 리랍비히~ 라카누~드 | 06. 'Innal-'insāna li-Rabbihī lakanūd |
| 07. 와 인나후~ **알**라~ **다**~ㄹ리카 라샤히~드 | 07. Wa 'innahū 'alā dhālika lashahīd |
| 08. 와 인나후~ 리**훕**빌 **카**이리 라샤디~드 | 08. Wa 'innahū liḥubbil-khayri lashadīd |
| 09. 아팔라~ 야**을**라무 이**다**~ 부**으시**라 마~ 필 꾸부~르 | 09. 'Afalā ya'lamu 'idhā bu'thira māfil-qubūr |
| 10. 와 **훗씰**라 마~ 핏**쑤**두~르 | 10. Wa ḥuṣṣila mā fiṣ-ṣudūr |
| 11. 인나 랍바훔 비힘 야우마이**딜** 라**카**비~르 | 11. 'Inna Rabbahum bihim yawma'idhil-lakhabīr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제101장 | 제101장 |
| 알 까~리**아**<br>쑤~라툴 까~리**아** | Al-Qāri'ah<br>Sūratul-Qāri'ah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알 까~리**아**(ㅎ) | 01. Alqāri'ah |
| 02. 말 까~리**아**(ㅎ) | 02. Mal-qāri'ah |
| 03. 와 마~~ 아드라~카 말 까~리**아**(ㅎ) | 03. Wa māa'adrāka mal-qāri'ah |
| 04. 야우마 야쿠~눈 나~쑤 칼파라~쉴 마브**수~스** | 04. Yawma yakūnun-nāsu kalfarāshil-mabthūth |
| 05. 와 타쿠~눌 지바~ㄹ루 칼**이**흐닐 만푸~쉬 | 05. Wa takūnul-jibālu kal'ihnil-manfūsh |
| 06. 파 암마~ 만 **사**꿀라트 마와~지~누흐 | 06. Fa'ammā man thaqulat mawāzīnuh |
| 07. 파 후와 피~ **이**~샤티르 라~듸야(ㅎ) | 07. Fahuwa fī'īshatir rāḍiyah |
| 08. 와 암마~ 만 **캎**파트 마와~지~누흐 | 08. Wa'ammā man khaffat mawāzīnuh |
| 09. 파 움무후~ 하~위야(ㅎ) | 09. Fa'ummuhū hāwiyah |
| 10. 와 마~~ 아드라~카 마~히야(ㅎ) | 10. Wa māa'adrāka māhiyah |
| 11. 나~룬 **하**~미야(ㅎ) | 11. Nārun ḥāmiyah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제102장 | 제102장 |
| 알 타카~**수**르<br>쑤~라툳 타카~**수**르 | At-Takāthur<br>Sūratut-Takāthur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알하~쿠뭍 타카~**수**르 | 01. 'Alhākumut-takāthur |
| 02. **할**타~ 주르투물 마까~비르 | 02. Ḥattā zurtumul-maqābir |
| 03. 칼라~ 싸우파 타**을**라무~ㄴ | 03. Kallā sawfa ta'lamūn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 --- |
| 04. **숨**마 칼라~ 싸우파 타**을**라무~ㄴ | 04. Thumma kallā sawfa taʻlamūn |
| 05. 칼라~ 라우 타**을**라무~나 **일**말 야끼~ㄴ | 05. Kallā law taʻlamūnaʻilmal-yaqīn |
| 06. 라타라운날 자**히**~ㅁ | 06. Latarawunnal-Jaḥīm |
| 07. **숨**마 라타라운나하~ **아**이날 야끼~ㄴ | 07. Thumma latarawunnahāʻainal-yaqīn |
| 08. **숨**마 라투스알룬나 야우마이**딘 아**닌 나**이**~ㅁ | 08. Thumma latusʼalunna Yawmaʼidhin ʻanin-naʻīm |
| 제103장 | 제103장 |
| 알 **아쓰**르<br>쑤~라툴 **아쓰**르 | Al-ʻAṣr<br>Sūratut-ʻAṣr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왈 **아쓰**르 | 01. Wal-ʻAṣr |
| 02. 인날 인싸~나 라피~ **쿠**스르 | 02. ʼInnal-ʼinsāna lafī khusr |
| 03. 일랄 라**디**~나 아~마누~ 와 **아**밀룻 **싸**~ㄹ리**하**~티 와 타와~**싸**우 빌**학**끼 와 타와~**싸**우 빗**싸**브르 | 03. ʼIllal-ladhīna ʼāmanū wa ʻamiluṣ-ṣāliḥāti wa tawāṣaw bilḥaqqi wa tawāṣaw biṣṣabr |
| 제104장 | 제104장 |
| 알 후마자<br>쑤~라툴 후마자 | Al-Humazah<br>Sūratul-Humazah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와일룰 리쿨리 후마자틸 루마자(ㅎ) | 01. Waylul-likulli humazatil-lumazah |
| 02. 알라**디**~ 자마**아** 마~ㄹ란 와 **알**다다(ㅎ) | 02. Alladhī jamaʻa mālan wa ʻaddadah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03. 야**흐**싸부 안나 마~ㄹ라후~~ 아**클**라다(ㅎ) | 03. Yaḥsabu 'anna mālahūu 'akhladah |
| 04. 칼라~ 라윱바**단**나 피~ㄹ **후**따마(ㅎ) | 04. Kallā layumbadhanna fil-ḥuṭamah |
| 05. 와 마~~ 아드라~카 마~ㄹ **후**따마(ㅎ) | 05. Wamāa 'adrāka mal-ḥuṭamah |
| 06. 나~룰 라~힐 무~까다(ㅎ) | 06. Nārul lāhil-mūqadah |
| 07. 알라티~ 탓딸리**우 알**랄 아프이다(ㅎ) | 07. Allatī taṭṭali'u 'alal-'af'idah |
| 08. 인나하~ **알**라이힘 무으**싸**다(ㅎ) | 08. 'Innahā 'alayhim mu'ṣadah |
| 09. 피~ **아**마딤 무맏다다(ㅎ) | 09. Fī 'amadim-mumaddadah |

| 제105장 | 제105장 |
|---|---|
| 알 피~ㄹ<br>쑤~라툴 피~ㄹ | Al-Fīl<br>Sūratut-Fīl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알람 타라 카이파 파**알**라 랍부카 비 아**쓰하**~빌 피~ㄹ | 01. 'Alam tara kayfa fa'ala Rabbuka bi-'Aṣḥābil-fīl |
| 02. 알람 야즈**알** 카이다훔 피~ 타뒬리~ㄹ | 02. 'Alam yaj'al kaydahum fī taḍlīl |
| 03. 와 아르쌀라 **알**라이힘 따이란 아바~비~ㄹ | 03. Wa 'arsala 'alayhim ṭayran 'abābīl |
| 04. 타르미~힘 비 **히**자~라팀 민 씻지~ㄹ | 04. Tarmīhim bi-ḥijāratim min sijjīl |
| 05. 파 자**알**라훔 카**아**쓰핌 마으쿠~ㄹ | 05. Faja'alahum ka'aṣfim-ma'kūl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제106장** | **제106장** |
| 알 꾸라이쉬<br>쑤~라툴 꾸라이쉬 | Al-Quraysh<br>Sūratul-Quraysh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리 이~ㄹ라~피 꾸라이쉬 | 01. Li ʾīlāfi Qurayshi |
| 02. 이~ㄹ라~피힘 리**흘**라탓 쉬타~~이 왓**싸**이프 | 02. ʾĪlāfihim riḥlatash-shitaʾi waṣṣayf |
| 03. 팔야**으**부두~ 랍바 하~**달** 바이트 | 03. Falyaʿbudū Rabba hādhal-bayt |
| 04. 알라**디**~~ 아뜨**아**마훔 민 주~**인** 와 아~마나훔 민 **카**우프 | 04. Alladhīi ʾaṭʿamahum min jūʿin wa ʾāmanahum min khawf |
| **제107장** | **제107장** |
| 알 마~**우**~ㄴ<br>쑤~라툴 마~**우**~ㄴ | Al-Māʿūn<br>Sūratul-Māʿūn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아라아이탈 라**디** 유캇**디**부 빋디~ㄴ | 01. ʾAraʾaytal-ladhi yukadhdhibu bid-dīn |
| 02. 파**다**~ㄹ리칼 라**디**~ 야두**으울** 야티~ㅁ | 02. Fadhālikal-ladhī yaduʿʿul-yatīm |
| 03. 왈 라~ 야**훋**두 **알**라~ 따**아**~밀 미스키~ㄴ | 03. Wa lā yaḥuḍḍu ʿalā ṭaʿāmil-miskīn |
| 04. 파와일룰 릴 무**쌀**리~ㄴ | 04. Fawaylul-lilmuṣallīn |
| 05. 알라**디**~나 훔 **안 쌀**라~티힘 싸~후~ㄴ | 05. Alladhīna hum ʿan ṣalātihim sāhūn |
| 06. 알라**디**~나 훔 유라~~우~ㄴ | 06. Alladhīna hum yurāaʾūn |
| 07. 와 얌나**우**~날 마~**우**~ㄴ | 07. Wa yamnaʿūnal-māʿūn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제108장 | 제108장 |
| 알 카우**사**르<br>쑤~라툴 카우**사**르 | Al-Kawthar<br>Sūratul-Kawthar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인나~~ 아**으**따이나~칼 카우**사**르 | 01. 'Innāa 'a'ṭaynākal-Kawthar |
| 02. 파**쌀**리 리랍비카 완**하**르 | 02. Faṣalli li-Rabbika wanḥar |
| 03. 인나 샤~니아카 후왈 아브타르 | 03. 'Inna shāni'aka huwal-'abtar |
| 제109장 | 제109장 |
| 알 카~피루~ㄴ<br>쑤~라툴 카~피루~ㄴ | Al-Kāfirūn<br>Sūratul-Kāfirūn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꿀 야~~ 아이유할 카~피루~ㄴ | 01. Qul yāa 'ayyuhal-kāfirūn |
| 02. 라~~ 아**으**부드 마~ 타**으**부두~ㄴ | 02. Lāa 'a'budu mā ta'budūn |
| 03. 왈 라~~ 안툼 **아**~비두~나 마~~ 아**으**부드 | 03. Wa lāa 'antum 'ābidūna māa 'a'bud |
| 04. 왈 라~~ 아나 **아**~비둠 마~ **아**받툼 | 04. Wa lāa 'anā 'ābidum mā 'abat-tum |
| 05. 왈 라~~ 안툼 **아**~비두~나 마~~ 아**으**부드 | 05. Wa lāa 'antum 'ābidūna māa 'a'bud |
| 06. 라쿰 디~누쿰 왈리야 디~ㄴ | 06. Lakum dīnukum wa liyadīn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 --- |
| 제110장 | 제110장 |
| 안 나**쓰**르<br>쑤~라툰 나**쓰**르 | An-Naṣr<br>Sūratun-Naṣr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이**다**~ 자~~아 나**쓰**룰 라~히 왈 파트**흐** | 01. 'Idhā jāa'a naṣrul-lāhi wal-Fatḥ |
| 02. 와 라아이탄 나~싸 야드**쿨**루~나 피~ 디~닐 라~히 아프와~자~ | 02. Wa ra'aytan-nāsa yadkhulūna fī dīnil-lāhi 'afwājā |
| 03. 파 쌉비**흐** 비**함**디 랍비카 와스타그피르흐 인나후~ 카~나 타우와~바~ | 03. Fasabbiḥ biḥamdi Rabbika wastaghfirh 'innahū kāna Tawwābā |
| 제111장 | 제111장 |
| 알 마싸드 / 알 라합<br>쑤~라툴 마싸드 / 쑤~라툴 라합 | Al-Masad / Al-Lahab<br>Sūratul-Masad / Sūratul-Lahab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탑바트 야다~~ 아비~ 라하빈 와 탑브 | 01. Tabbat yadāa 'A bī Lahabin wa tabb |
| 02. 마~~ 아그나~ **안**후 마~ㄹ루후~ 와 마~ 카싸브 | 02. Māa 'aghnā 'a nhu māluhū wa mā kasab |
| 03. 싸야**쓸**라~ 나~란 **다**~타 라하브 | 03. Sayaṣlā nāran dhāta lahab |
| 04. 왐라아투후~ **함**마~ㄹ라탈 **하**따브 | 04. Wamra'a tuhū ḥammālatal-ḥaṭab |
| 05. 피~ 지~디하~ **하**블룸 밈 마싸드 | 05. Fī jīdihā ḥablum-mim-masad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제112장** | **제112장** |
| 알 이**클**라~**쓰**<br>쑤~라툴 이**클**라~**쓰** | Al-Ikhlāṣ<br>Sūratul-Ikhlāṣ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꿀 후왈 라~후 아**하**드 | 01. Qul huwal-lāhu ’aḥad |
| 02. 알라~훗 **싸**마드 | 02. Allāhuṣ-Ṣamad |
| 03. 람 얄리드 왈 람 유~ㄹ라드 | 03. Lam yalid wa lam yūlad |
| 04. 왈람 야쿨 라후~ 쿠푸완 아**하**드 | 04. Walam yakul-lahū kufuwan ’aḥad |
| **제113장** | **제113장** |
| 알 팔라끄<br>쑤~라툴 팔라끄 | Al-Falaq<br>Sūratul-Falaq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꿀 아**우두** 비 랍빌 팔라끄 | 01. Qul ’a‘ūdhu bi-Rabbil-falaq |
| 02. 민 샤르리 마~ **칼**라끄 | 02. Min sharri mā khalaq |
| 03. 와 민 샤르리 가~씨낀 이**다**~ 와까브 | 03. Wa min sharri ghāsiqin ’idhā waqab |
| 04. 와 민 샤르린 낲파~**사**~티 필 **우**까드 | 04. Wa min sharrin-naffāthāti fil-‘uqad |
| 05. 와 민 샤르리 **하**~씨딘 이**다**~ **하**싸드 | 05. Wa min sharri ḥāsidin ’idhā ḥasad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 **제114장** | **제114장** |
| 안 나~스<br>쑤~라툰 나~스 | An-Nās<br>Sūratun-Nās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aḥmānir-Raḥīm |
| 01. 꿀 아**우**~**두** 비 랍빈 나~스 | 01. Qul 'a'ūdhu bi-Rabbin-nās |
| 02. 말리킨 나~스 | 02. Malikin-nās |
| 03. 일라~힌 나~스 | 03. 'Ilāhin-nās |
| 04. 민 샤르릴 와스와~씰 **칸**나~스 | 04. Min-sharrilwaswāsi-l-khannās |
| 05. 알라**디**~ 유와스위쑤 피~ **쑤**두~린 나~스 | 05. Alladhī yuwaswisu fī ṣudūrin-nās |
| 06. 미날 진나티 완 나~스 | 06. Minal-jinnati wannās |

싸다깔 라~훌 아지~ㅁ

| 특송절 | |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제2장 | 제2장 |
| 알 바까라<br>쑤~라툴 바까라 | Al-Baqarah<br>Sūratul-Baqarah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āḥmānir-Raḥīm |
| 01. 알리프 라~~ㅁ 미~~ㅁ | 01. Alif-lāam-Mīim |
| 02. **달**리칼 키타~부 라~ 라이바 피~호 후달 릴 뭍타끼~ㄴ | 02. Dhalikal-Kitābu lā rayba fīh; hudal-lilmuttaqīn |
| 03. 알라**디**~나 유으미누~나 빌가이비 와 유끼~무~낫**쌀**라~타 와 밈마~ 라자끄나~훔 윤피**꾸**~ㄴ | 03. Alladhīna yu'minūna bilghaybi wa yuqīmūnaṣ-Ṣalāta wa mimmā razaqnāhum yunfiqūn |
| 04. 왈라**디**~나 유으미누~나 비마~~ 운질라 일라이카 와 마~~ 운질라 민 까블리카 와 빌 아~**키**라티 훔 유~끼누~ㄴ | 04. Walladhīna yu'minūna bimāa 'unzila 'ilayka wa māa 'unzila min qablika wa bil-'Ākhirati hum yūqinūn. |
| 05. 울라~~이카 **알**라~~ 후담미르 랍비힘 와 울라~~이카 후물 무플리**후**~ㄴ | 05. 'Ulāa'ika 'alāa hudammir-Rabbihim wa 'ulāa'ika humul-mufliḥūn |

| | |
|---|---|
| 제2장 | 제2장 |
| 알 바까라<br>쑤~라툴 바까라 | Al-Baqarah<br>Sūratul-Baqarah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āḥmānir-Raḥīm |
| 255. 알라~후 라~~ 일라~하 일라~ 후왈 **하**이율 까이유~ㅁ 라~ 타으**쿠두**후~ 씨나툰 왈 라~ 나움 라후~ 마~ 핏 싸마~와~티 와 마~ 필 아르듸 만 **달** 라**디**~ 야싀파**우** **인**다후~~ 일라~ | 255. Allāhu lāa 'ilāha 'illā Huwal-Ḥayyul-Qayyūm; lā ta'khudhuhū sinatun wa lā nawm; lahū mā fis-samāwāti wa mā fil-'arḍ; man dhal-ladhī yashfa'u 'indahūu 'illā bi'idhnih; |

| 특송절 | |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비이**드**니흐 야**을**라무 마~ 바이나<br>아이디~힘 와 마~ **칼**파훔<br>왈 라~ 유**히**~뚜~나 비샤이임 민<br>**일**미히~ 일라~ 비마~<br>샤아~~으 와씨**아** 쿠르씨이유훗<br>싸마~와~티~ 왈아르돠[듸]<br>왈 라~ 야우~두후~ **히**프**주**후<br>마~ 와 후왈 **알**리이율 **아지**~ㅁ | ya'lamu mā bayna 'aydīhim wa<br>mā khalfahum wa lā yuḥīṭūna<br>bishay'im-min 'ilmihī 'illā bimā<br>shāa'; Wasi'a Kursiyyuhus-<br>Samāwāti wal'arḍa wa lā<br>ya'ūduhū ḥifẓuhumā; wa<br>Huwal-'Aliyyul-'Aẓīm |
| 제2장<br>알 바까라<br>쑤~라툴 바까라 | 제2장<br>Al-Baqarah<br>Sūratul-Baqarah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āḥmānir-Raḥīm |
| 285. 아~마나르 라쑤~ㄹ루 비마~~<br>운질라 일라이히 미르 랍비히~ 왈<br>무으미누~ㄴ 쿨룬 아~마나<br>빌라~히 와 말라~~이카티히~<br>와 쿠투비히~ 와 루쑬리히~<br>라~누파르리꾸 바이나 아**하**딤 미르<br>루쑬리ㅎ 와 까~ㄹ루~ 싸미**으**<br>나~ 와 아따**으**나~ 구프라~나카<br>랍바나~ 와 일라이칼 마씨~르 | 285. 'Āmanar-Rasūlu bimāa 'unzila<br>'ilayhi mir-Rabbihī walmu'minūn;<br>kullun 'āmana billāhi wa<br>malāa'ikatihī wa Kutubihī wa<br>Rusulihī lā nufarriqu bayna<br>'aḥadim-mir-Rusulih; wa qālū<br>sami'nā wa 'aṭa'nā ghufrānaka<br>Rabbanā wa 'ilaykal-maṣīr |
| 286. 라~ 유칼리풀 라~후 나프싼<br>일라~ 우쓰**아**하~ 라하~ 마~<br>카싸바트 와 **알**라이하~<br>마크타싸바트 랍바나~ 라~ 투아~<br>**키드**나~~ 인 나씨~나~~ 아우<br>아**크따**으나~ 랍바나~ 왈 라~ 타<br>**흐**밀 **알**라이나~~ 이**쓰**란<br>카마~ **하**말타후~ **알**랄 라**디**~나<br>민 까블리나~ 랍바나~ 왈 라~<br>투**함**밀나~ 마~ㄹ라~ 따~까타 | 286. Lā yukalliful-lāhu nafsan 'illā<br>wus'ahā; lahā mā kasabat wa<br>'alayhā maktasabat; Rabbanā lā<br>tu'ākhidhnāa 'in nasīnāa 'aw<br>'akhṭa'nā; Rabbanā wa lā taḥmil<br>'alaynāa 'iṣran kamā ḥamaltahū<br>'alal-ladhīna min qablinā;<br>Rabbanā wa lā tuḥammilnā mā<br>lā ṭāqata lanā bihī wa'fu 'annā |

| 특송절 | |
|---|---|
| 한글전사 | 로마자전사 |
| 라나~ 비히~[비(ㅎ)] 와**으**푸 **안**나~ 와그피르 라나~ 와르**함**나~~ 안타 마울라~나~ 판**쑤**르나~**알**랄 까우밀 카~피리~ㄴ | waghfir lanā warḥamnāa; 'Anta mawlānā fanṣurnā 'alal-qawmil-kāfirīn |
| 제59장 | 제59장 |
| 알 하쉬르<br>쑤~라툴 하쉬르 | Al-Hashr<br>Sūratul-hashr |
|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히**~ㅁ | Bismil-lāhir-Rāḥmānir-Raḥīm |
| 22. 후왈 라~훌 라**디**~ 라~~ 일라~하 일라~ 후와[후~] **아**~ㄹ리물 가이비 와쉬샤하~다티 후와르 라**흐**마~누르 라**히**~ㅁ | 22. Huwal-lāhul-ladhī lāa 'ilāha 'illā Huwa 'Ālimul-Ghaybi washshahādati Huwar-Raḥmānur-Raḥīm |
| 23. 후왈 라~훌 라**디**~ 라~~ 일라~하 일라~ 후왈 말리쿨 꾿두~쑷 쌀라~물 무으미눌 무하이미눌 **아**지~줄 잡바~룰 무타캅비르 쑤브**하**~날 라~히 **암**마~ 유싀리쿠~ㄴ | 23. Huwal-lāhul-ladhī lāa 'ilāha 'illā Huwal-Malikul-Quddūsus-Salāmul-Mu'minul-Muhayminul-'Azīzul-Jabbārul-Mutakabbir; Subḥanal-lāhi 'ammā yushrikūn |
| 24. 후왈 라~훌 **카**~ㄹ리꿀 바~리울 무**싸**우위루 라훌 아쓰마~~울 **후**스 나~ 유쌉비**후** 라후~ 마~핏 싸마~와~티 왈아르뒤 와 후왈 **아**지줄 **하**키~ㅁ | 24. Huwal-lāhul-Khāliqul-Bāri'ul-Muṣawwiru lahul-'Asmāa'ul-Ḥusnā; yusabbiḥu lahū mā fis-samāwāti wal'arḍi wa Huwal-'Azīzul-Ḥakīm |

싸다깔 라~훌 아지~ㅁ

# 찾아보기

## 꾸란

## 📖 마리아



## 📖 모세



## 📖 무함마드

## 📖 심판의 날



## 📖 아담



## 📖 아론



## 📖 아브라함



## 📖 예수

## 📖 요한



## 📖 이스마일



## 📖 이슬람

## 📖 인간



## 📖 자카리야



## 📖 지옥

## 📖 천국



## 📖 천사



## 📖 하나님

## ㄱ

## ㄹ



## ㅁ

📖 ㅂ

## 📖 ㅇ

📖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꾸란 선
- 35개 장의 의미번역과 주해

초판 1쇄 발행 2009년 9월 30일
초판 2쇄 발행 2013년 9월 1일

지은이 • 손주영
발행인 • 박 철
발행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전화 (02)2173-2495~6
팩스 (02)2173-3363
홈페이지 http://press.hufs.ac.kr
전자우편 press@hufs.ac.kr
출판등록 • 제6-6호(1969. 4. 30)
디자인 · 편집 • (주)이환디앤비 (02)2254-4301
인쇄 · 제본 • 현문자현 (031)902-1424

ISBN 978-89-7464-565-6 93280 정가 32,000원

• 잘못된 책은 교환하여 드립니다.


〈꾸란 독경 사이트〉
주 소 : http://press.hufs.ac.kr/자료실 파일명 : 꾸란독경(mp3 전용)



▶이슬람은 어떤 종교인가? 무슬림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하셨던 종교를 너희의 종교로 규정하셨나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대(무함마드)에게 계시해주신 것이고 또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에게도 그 종교를 지키고 그 안에서 분열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이니라…" (꾸란 42:13)

"너희는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과 아브라함과 이스마일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내려주신 것과, 모세와 예수가 계시 받은 것과 예언자들이 그들의 주님으로부터 계시 받은 것을 믿사오며, 우리는 그들 중의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며, 오직 그분(하나님)께만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꾸란 2:136)





정가 32,000원

93280
9 788974 645656
ISBN 978-89-7464-565-6

## ▶ 권좌의 절

"알라 [하나님]! 그분 외에 신은 없도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 자존하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보호자이시로다. 졸음도 잠도 그분께는 오지 않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모두가 그분께 속하노라. 그분의 허락 없이 그분께 중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분은 그들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뜻하시는 것 외에는 그분의 지식 중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그분의 권좌가 하늘과 땅에 널리 퍼져있으며, 그것들을 보존하는 것이 그분을 피곤케 하지 않느니라.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위대한 분이시로다." (꾸란2:255)

홈페이지 http://press.hufs.ac.kr 전자우편 press@hufs.ac.kr

전화 (02)2173-2495~6 팩스 (02)2173-3363




▶이슬람은 어떤 종교인가? 무슬림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하셨던 종교를 너희의 종교로 규정하셨나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대(무함마드)에게 계시해주신 것이고 또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에게도 그 종교를 지키고 그 안에서 분열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이니라…."
(꾸란 42:13)

"너희는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과 아브라함과 이스마일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내려주신 것과, 모세와 예수가 계시 받은 것과 예언자들이 그들의 주님으로부터 계시 받은 것을 믿사오며, 우리는 그들 중의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며, 오직 그분(하나님)께만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꾸란 2:136)



정가 32,000원

93280
9 788974 645656
ISBN 978-89-7464-565-6